

中國語文論集

第八輯

釜山·慶南中國語文學會

1993. 12.

釜山・慶南中國語文學會

顧問：曹性坡

會長：金政六

監事：柳瑩杓 李載勝

總務幹事：李哲理

學術幹事：吳昶和

編輯幹事：林秀岩

運營委員：姜信雄 李相圭 林孝燮 王忠義

金寅浩 李在夏 李哲理 李昌淑

林秀岩 金世煥 朴璟實

中國語文論集

第Ⅷ輯

<目 次>

(題字:曹性坡)

《啖蔗》研究	金政六	1
朝鮮의 韻書研究(1)——《排字禮部韻略》·《排字禮部玉篇》을 중심으로	康寔鎮	27
韓愈 散文의 內容分析考——政治 批判을 中心으로	朴環實	53
高適·岑參 交遊考	崔庚鎮	71
陶淵明과 謝靈運의 歸隱思想	鄭愚烈	105
梁啓超 詞學觀 小考	李爽炯	129
李商隱詩中星之意象詮釋	朴柱邦	153
杜牧詩의 用典考	金成文	171
沈清傳 作者 考察——從小說中的引用資料來探討	朴부열	207
韓國語彙에 대응하는 中國語彙 研究	鄭憲哲	233
《孟子》:「二女果」의 『果』字 小考	朴昌植	267
「把」字文의 기능과 의미에 대한 연구	白水振	281
“把”字句 研究——“將”字句와의 비교를 통한 史的 考察을 中心으로	李載勝	301
臺灣「國語」和大陸「普通話」의 詞彙差異	姜 松	331
郁達夫 소설에 나타난 자연과 고향	姜鯨求	351
중국 신시기 문예연구의 성격 전환	金彦河	373
아큐의 성격체계를 논함(譯)	金彦河	393
한언어문화국제학술회의 紀要	河永三	419
彙 報		424
附 錄(會員住所錄)		425

Journal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VOLUME VII

<Contents>

A study on 〈DAM-JA〉	<i>Kim, Jeong Ruk</i>	1
A study on the rime dictionary of Yi-dynasty edition (1)	<i>Kang, Sik Jin</i>	27
A study on the Contents of Han Yu's Prose	<i>Park, Gyung Sil</i>	53
A study on the association of Gao Shi and Cen Shen	<i>Choi, Kyung Jin</i>	71
Secluding Thoughts of TaoYuanMing and XieLingYun	<i>Chung, Woo Yeol</i>	105
Liang qi-Chao's Literary View on Ci	<i>Lee, Seok Hyoung</i>	129
A Study on the Star Image in the Poetry of Li Shang Yin	<i>Park, Joo Bang</i>	153
Allusions in Du Mu's Poetry	<i>Kim, Seong Moon</i>	171
A Study on the Author of Sim Chung, Korean Traditional Fiction		
—From the quoted materials	<i>Park, Boo Yeoul</i>	207
A Study on chinese Vocaburaries Corresponding to Korean		
.....	<i>Chung, Heon Chul</i>	233
A brief Reserch on 「guo(果)」 character of 「ernüguo(二女果)」 in 〈Meng-zi〉		
.....	<i>Park, Chang Sik</i>	267
A Study on Function and Meaning of 「bà」 Sentence	<i>Baek, Su Jin</i>	281
A Study on "The Ba(把) Construction"	<i>Lee, Jae Seung</i>	301
Differances of the Vocaburaries between 「Guoyu」 and 「Putonghua」		
.....	<i>Jiang, Song</i>	331
A Critical view on the nature and the native place in Yü-Da Fu's novels		
.....	<i>Kang, Kyong Ku</i>	351
Converting the Study System of chinese Literature in XINSHIQI		
.....	<i>Kim, Un Ha</i>	373
A discussion on the System of A-Q' Character(transl)	<i>Kim, Un Ha</i>	393
A Report on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f Chinese Language and Culture (transl)		
.....	<i>Ha, Young Sam</i>	419
Bulletin		424
Appendix		425

《啖蔗》研究*

金 政 六**

<目 次>

- | | |
|----------|----------|
| 1. 導 言 | 4. 主題 分析 |
| 2. 作家 研究 | 5. 結 言 |
| 3. 故事 來源 | <參考文獻> |

1. 導 言

우리나라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筆寫本 《啖蔗》는 일별하면 마치 우리 漢文小說集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필사한 종이도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韓紙일 뿐만 아니라, 字體 역시 李朝時代에 사용되던 俗字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權」·「體」·「幽」字 등을 「悤」·「體」·「幽」字 등으로 쓰고 있다.¹⁾

《啖蔗》는 「乾」·「坤」 두 책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乾」冊 15篇과 「坤」冊 13篇으로 모두 28편이나 「坤」冊의 제13편은 中國 話本小說 두 작품의 殘本으로 완전한 편의 작품으로 보기는 어렵다.

《啖蔗》에 관한 연구는 아직 국내에서는 찾아 볼 수 없고, 證華民國 文化大學 교수 金榮華가 《中韓交通史事論叢》이란 서적에서 여섯 쪽 정도로 소개하고 있고²⁾, 또 香港 遠東學院 中國文史研究所에 유학한 金奉潤이 그의 박사학위 논문 〈三言

* 이 논문은 1992년도 교육부 지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방대학 육성과제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慶南大學校 文科大學 中語中文學科 教授

1) 金榮華, 《中韓交通史事論叢》, p.127.

2) 金榮華, 上揭書, pp.127~132.

二拍與朝鮮後期漢文短篇小說之比較研究》³⁾에 金榮華의 글을 재인용하고 있을 뿐이다.

《啖蔗》는 중국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주요한 소설 연구 자료로서, 自古로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던 우리 나라 한문소설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생각되며, 나아가 인접한 일본의 소설문학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확신된다. 《啖蔗》에 실려있는 28편 가운데 22편이 중국 話本小說集 「三言」의 작품인데, 그 「三言」의 본래 모습을 바로 일본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사실로 미루어보아 일본 소설문학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중국 話本小說의 일반적인 체제는 說話人의 수법인 詩詞·入話·正話 등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형식은 곧 中國 宋·元代 話本の 형식으로서 明代 사람들이 이를 더욱 계승 발전시켰다. 곧 이러한 고유 형식을 보유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講談을 들려주는 書場에 몸을 두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하고, 또 친히 藝人이 講述하는 故事를 듣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한 明代 擬話本の 우수한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啖蔗》는 체제 면에서 중국의 話本과는 전연 다르다. 곧 詩詞나 入話는 생략한 채 바로 正話로 시작되고 있다. 그리고 「乾」冊의 두 편은 話本の 入話이기도 하다. 중국 話本の 詩詞나 入話의 기능은 작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主題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주제를 제시하는 방법도 다양하여, 說話人이 직접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고 또 인물이나 사건에 대하여 평론도 하며, 그리고 情節의 전개에 대해 암시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소설 요소 가운데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의 사상이나 言辭를 통해서도 主題를 제시하기도 하는데, 《啖蔗》에는 詩詞나 入話가 생략되어 있으므로 매편의 주제에 관한 암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啖蔗》가 어느 나라 사람의 손에 의해 편집되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우리 한문소설의 형식에 맞춰서 편집됐다는 사실만은 확실하다.

본 논문은 《啖蔗》에 수록된 28편의 작품 전체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문학 작품은 그것이 창작된 시대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으며, 또 작가는 작품 속에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게 된다. 그러하기 때문에 작품을 분석할 때 시대적인 배경과 작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作家論과 作品論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3) 金奉潤, 〈三言二拍與朝鮮後期漢文短篇小說之比較研究〉, pp.174~177.(1989년 2월)

먼저 작가 馮夢龍과 凌濛初에 대해서 고찰하여 그들이 한 時代를 어떻게 살아갔으며, 또 그들이 가졌던 문학관은 어떠하였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이어 書誌學的인 측면에서 28편의 작품이 어디에서 來源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또 작가 자신의 창작품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고찰해 보기로 한다.

작품 분석에서는 작자가 제시하고 있는 主題에 대한 분석과 작품 서술상의 예술적 특징을 분석 고찰하되, 주제 분석은 每篇의 주제를 가급적 일단 모두 분석한 후, 그것을 類型別로 분류 서술한 후, 그 가치에 相應하는 評論을 가하고자 한다.

2. 作家 研究

導言에서 언급했듯이 《啖蔗》에 수록되어 있는 28편의 한문소설 가운데 22편이 「三言」소설집의 작품이고, 나머지 6편은 「二拍」소설집의 작품이다. 「三言」의 작가 馮夢龍과 「二拍」의 凌濛初는 同 時代를 산 사람으로 馮夢龍이 6살 위다. 두 사람은 과거에 실패한 경험도 가졌고, 俗文學 애호가로서 妓女와의 연정 관계 등 무척 비슷한 처지에 있었다.

馮夢龍은 字를 猶龍·子猶·耳猶·龍子猶 등이라 했으며 長洲人이다.⁴⁾ 그리고 그가 거주했던 「墨憨齋」를 號로 사용하면서 墨憨齋·墨憨主人·墨憨齋主人 등이라고 했다. 馮夢龍은 萬曆三年(서기 1575년)에 태어나 順治三年(1646)에 일생을 마쳤다. 그의 가정 형편이나 가족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확하게 고찰된 바가 없다. 다만 그의 아버지는 당시 蘇州의 大儒였던 王仁孝와 밀접한 교제가 있었고, 兄인 夢桂는 당시 이름 난 화가이었으며, 동생인 夢熊은 太學生으로 뛰어난 詩人이었다고 한다.⁵⁾

馮夢龍은 여러 차례 과거에 응시했으나 급제하지 못했는데, 이것이 한편 생각하면 그가 妓院에 자주 드나든 이유가 될 수도 있겠고, 또 그것은 당시 讀書人의 일반

- 4) 《蘇州府志》卷八十一, 「馮夢龍, 字猶龍。」
《明詩綜》, 「夢龍, 字猶龍。」
《曲品》上, 「字猶, 吳縣人。」
《曲品》下, 「馮耳猶作。」
《曲錄》, 「夢龍, 字猶龍, 一字耳猶。」
《新平妖傳》, 張無咎序, 「蓋吾友龍子猶所補。」
5) 王仁孝, 《后俟篇》(繆詠禾《馮夢龍和三言》再引用).

적인 풍류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의 나이 37세 되던 萬曆38년부터 무려 20년 동안 오로지 저작 활동에만 종사하다가 崇禎3年, 그의 나이 57세 때 비로소 貢生에 급제하여 崇禎7년에 福建 壽寧縣의 知縣으로 임명되었다. 4년 동안 부임해 있으면서도 저작에 몰두하다가 崇禎17年, 즉 淸 世祖 順治元年(1644年), 그의 나이 71세 때 농민들의 봉기와 더불어 李自成的 군대가 崇禎皇帝인 毅宗을 살해하고 그 다음해 明朝가 완전히 몰락하자, 馮夢龍은 淸 順治3년에 73세의 나이로 일생을 마치게 된다.

馮夢龍의 著作은 자신의 이름으로 쓴 것이 드물고, 또 그의 작품이 당시 일반 독자들로부터 매우 환영을 받아 다른 文人이나 書商들이 제멋대로 그의 이름으로 책을 펴낼 가능성, 그밖에도 그가 쓴 대부분의 작품이 통속문학이거나 민간문학으로 下層 시민사회에서 流傳되며 읽혀지다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散失되었던 이유 등으로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馮夢龍의 저작으로 판명된 작품을 繆詠禾⁶⁾는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 있다.

- 1) 話本·小說類(短篇小說); 三種
- 2) 話本·講史類(長篇歷史演義); 六種
- 3) 民歌類; 二種
- 4) 筆記小品類; 五種
- 5) 傳奇類·創作; 十九種
- 6) 散曲·詩集·曲譜類; 六種
- 7) 時事類; 四種
- 8) 應舉類; 五種
- 9) 其他; 五種

그리고 謝巍⁷⁾는

- 1) 民間文學; 十種
- 2) 小說·話本·擬話本·筆記; 二十二種
- 3) 戲曲; 十七種
- 4) 經·史; 十三種

6) 繆詠禾, 《馮夢龍和三言》.

7) 謝巍, 《馮夢龍著述考補》.

- 5) 詩文; 四種
- 6) 詞曲; 四種
- 7) 尺牘; 一種
- 8) 雜纂; 二種

으로 분류해 놓았다.

馮夢龍의 문학관은 거슬러 올라가 明代 중엽 이후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혼란한 국면을 맞고 또 수공업과 상업의 발달로 인하여 신흥도시가 出現하고 晚明의 시민계층의 興起와 함께 인간성 해방의 문학사조가 고개를 들기 시작할 때부터 公安派 문인들의 개성과 감정표현을 중시하던 문학이론 등의 배경 아래서 형성되었다. 그의 문학관은 여러 저서의 序文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警世通言》 서문에서

「六經語孟, 譚者紛如, 歸于令人爲忠臣·爲孝子·爲賢牧·爲良友·爲義夫·爲節婦。」

라고 하여 儒家의 教化機能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 실제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보고 다시

「經書著其理, 史傳述其事, 其揆一也. 理著而世不皆切磋之彥, 事述而世不皆博雅之儒。」

라고 하여 經書나 史傳 등이 대중을 교화시키기엔 合當치 않고, 士大夫나 讀書人이 비록 經史의 가르침을 받기는 했으나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많지 않으며, 經史를 이해하는 사람 역시 많지 않다고 보았다. 또 문학 예술의 사회적 意義와 教育機能을 강조하여 《古今小說》의 序文에서

「大抵唐人選言, 入於文心; 宋人通俗, 諧於里耳. 天下文心少而里耳多, 則小說之資於選言者少, 而資於通俗者多. 試今說話人當場描寫, 可喜可愕, 可悲可涕, 可歌可舞; 再欲捉刀, 再欲下拜, 再欲決脰, 再欲損金; 怯者勇, 淫者貞, 薄者敦, 頑鈍者汗下. 雖小誦孝經·論語, 其感人未必如是之捷而深也. 噫, 不通俗而能之乎?」

라고 했으며, 《警世通言》 序文에서는 실제로 예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

고 있다.

「里中兒代庖而創其指，不呼痛，或怪之，曰：『吾頃從玄妙觀聽三國志來，關雲長刮骨療毒，且談笑自若，我何痛爲！』夫能使里中兒有刮骨療毒之勇，推此說孝而孝，說忠而忠，說節義而節義，觸性性通，導情情出。」

즉, 經書나 史傳보다는 情이 基調가 되는 通俗文學, 다시 말해 通俗小說을 敎化의 도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情史》 序文에서는

「我欲立情教，敎誨諸衆生。」

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곧 情을 敎化의 도구로 삼아야 한다는 그의 情敎觀의 선언이다. 《情史》 評語⁸⁾ 가운데서도 情이 없는 자는 忠孝節義를 얘기할 수 없고, 至情·眞情이라야만 娼妾도 愛妻가 될 수 있고 村夫도 道德을 지닌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情은 理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오히려 理의 규범이 될 수 있다고 하였으니, 理를 情의 派生物로 본 것이다. 그가 주장한 情은 남녀간의 애정에 그치지 않고 곧 眞善美의 情感이다.

이상과 같은 그의 문학관은 당시의 文人들에게 特出하고도 진보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며, 또 그는 통속소설의 사회적 영향과 敎育 作用을 제시함으로써 소설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凌濛初는 字를 元房이라 했고 號는 初成·凌波·卽空居士·卽空觀主人이라 했으며 浙江 烏程人이다.⁹⁾ 그는 明 萬曆八年(1580年)에 태어나 崇禎十七年(1644年)에 65歲의 나이로 일생을 마쳤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관직을 지냈으나 凌濛初 자신은 몇 차례 과거에 낙방했다가 崇禎七年 그의 나이 55세 때 上海縣의 丞을 除授받게 된다. 학문하는 가풍이 凌濛初로 하여금 많은 저작을 하도록 만들었는데, 오늘날까지 刊명된 그의 著作은 모두 22種이다.¹⁰⁾

8) 《情史》卷一 〈情眞類〉〈朱蔡〉條 評語.

9) 臺灣中央圖書館藏·凌濛初輯, 《東坡禪喜集》; 「此開之先生所跋, ……其所稱元房, 則余稚年舊字也。」《詩經傳詩嫡家凡例書名》; 「吳興凌濛初初成父識。」《東坡禪喜集》卷一次署名; 「卽空居士凌濛初輯增。」葉德均, 〈凌濛初事跡繫年〉.

10) 許根培, 〈《兩拍》研究〉, 忠南大碩士學位論文, p.17.

凌濛初의 문학관도 馮夢龍과 비슷한 배경 아래서 형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도 자신의 저작 序文이나 本文 가운데서 小說의 大衆性和 通俗性, 그리고 小說의 敎化的 기능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拍案驚奇》 序文에서는

「因取古今來雜碎事, 可新聽觀, 佐談諸者, 演而暢之, 得若干卷。」

이라고 했고, 《二刻拍案驚奇》 第十二卷에서도

「從來說的書不過談些風月, 述些異聞, 圖個好聽, 最有益的, 論些世情, 說些因果, 等聽了的觸着心裡, 把平日邪路念頭化將轉來. 這個就是說書的一片道學心腸。」

이라고 하여 小說의 社會敎化的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馮夢龍이나 凌濛初 두 사람 공히 소설의 사회적 의의와 교육기능을 강조함으로써 通俗小說의 지위 향상과 근대소설로의 접근, 그리고 소설 題材 확대 등 소설 발달에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故事 來源

중국 俗文學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小說이든 戲劇이든 故事의 來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그러나 고사의 來源과 그것을 來源으로 하고 있는 작품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고사의 來源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加工이나 修飾되어져 줄거리나 인물의 성격이 시대에 맞게 바뀌어 간다. 그것은 왜냐하면 작가는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감각이나 자신의 문학관에 의해 故事를 재창조하기 때문이다. 宋·元代를 거쳐 明末에 이루어진 馮夢龍의 「三言」이나 凌濛初의 「二拍」은 대부분 故事의 來源을 가지고 있다.

「三言」과 「二拍」의 故事來源에 관한 연구는 譚正璧¹¹⁾과 孫楷第¹²⁾, 胡士瑩¹³⁾, 鄭振鐸¹⁴⁾, 孟瑤¹⁵⁾ 등이 많은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상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

11) 譚正璧, 《三言兩拍資料》, 里仁書局.

12) 孫楷第, 《三言二拍源流考》, 北平圖書館 館刊 五卷 二號.

13) 胡士瑩, 《話本小說概論》, 中華書局.

啖蔗》各篇의 故事 來源을 살펴보기로 한다.

「乾」冊

1. 三孝廉傳

본편은 《醒世恒言》 卷二 〈三孝廉讓產立高名〉의 正話 故事로서 《後漢書·許荆傳》에 來源하고 있다.

2. 石氏月香傳

본편은 《醒世恒言》 卷一 〈兩縣令競義婚孤女〉의 正話 故事로서 《東軒筆錄》 卷十二와 《括異志》 卷十 그리고 《厚德錄》에 來源하고 있다.

3. 倪善述傳

본편은 《喻世明言》 卷十 〈勝大尹鬼斷家私〉의 正話 故事로서 《皇明諸司廉明奇判公案》 下卷 〈爭占〉에 來源하고 있다.

4. 唐壁傳

본편은 《喻世明言》 卷九 〈裴晉公義還原配〉의 正話 故事로서 《玉堂閑話》에 來源하고 있다.

5. 花魁娘傳

본편은 《醒世恒言》 卷三 〈賣油郎獨占花魁〉의 正話 故事로서 비록 宋代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나 篇中에 明代 特有的 《掛枝兒》 小曲이 삽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明代 사람이 지은 것 같다.¹⁴⁾ 《情史類略》 卷五情豪類 〈史鳳〉條 부록에 小說 〈賣油郎〉을 略載하고 있다.¹⁵⁾

6. 破甌笠記

본편은 《警世通言》 卷二十二 〈宋小官團圓破甌笠〉의 正話 故事로서 《鴻書》 卷三十六에 來源하고 있다. 胡士瑩은 본편을 馮夢龍의 창작으로 추측하고 있다.¹⁶⁾

7. 劉弘敬傳

본편은 《初刻拍案驚奇》 卷二十 〈李克讓竟達空函, 劉元普雙生貴子〉의 正話 故

14) 鄭振鐸, 《中國文學概論》, 港青出版社.

15) 孟瑤, 《中國小說史》, 傳奇文學出版社.

16) 胡士瑩, 《話本小說概論》, p.559.

17) 馮夢龍, 《情史類略》, p.159.

18) 胡士瑩, 上揭書, p.555.

事로서 《太平廣記》 卷一百十七〈劉弘敬〉條에 來源하고 있다.

8. 珍珠衫記

본편은 《喻世明言》 卷一〈蔣興哥重會珍珠衫〉의 正話 故事로서 《九齋集》에 來源하고 있다. 許政揚은 본편을 明代의 新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¹⁹⁾

9. 亂點鴛鴦譜記

본편은 《醒世恒言》 卷八〈喬太守亂點鴛鴦譜〉의 正話 故事로서 《醉翁談錄》 丙集 卷一〈因兄姊得成夫婦〉條에 來源하고 있다.

10. 錯占鳳儔記

본편은 《醒世恒言》 卷七〈錢秀才錯占鳳凰主〉의 正話 故事로서 《情史類略》 卷二情緣類 〈吳江錢生〉條에도 보인다. 그리고 부록에 「小說有《錯占鳳凰記》」라고 附記되어 있다. 顧學頤은 본편을 明代 사람의 擬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²⁰⁾

11. 移花接木記

본편은 《二刻拍案驚奇》 卷十七〈同窓友認假作眞, 女秀才移花接木〉의 正話 故事로서 아직까지 그 來源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12. 鈍秀才傳

본편은 《警世通言》 卷十七〈鈍秀才一朝交泰〉의 正話 故事로서 그 來源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13. 芙蓉屏記

본편은 《初刻拍案驚奇》 卷二十七〈顧阿秀喜拾檀那物, 崔俊臣巧會芙蓉屏〉의 正話 故事로서 《剪燈餘話》 卷四〈芙蓉屏記〉에 來源하고 있다.

14. 王春傳

본편은 《醒世恒言》 卷一〈兩縣令競義婚孤女〉의 入話 故事로서 《寄園寄所寄》 卷十〈驅睡〉에 來源하고 있다.

15. 王涯傳

본편은 《警世通言》 卷十七〈鈍秀才一朝交泰〉의 入話 故事로서 《古今譚概》 卷十四〈汰侈〉에 來源하고 있다.

19) 許政揚, 《古今小說》「前言」.

20) 顧學頤, 《醒世恒言》「出版說明」.

「坤」冊

1. 蔡瑞虹傳

본편은 《醒世恒言》 卷三十六〈蔡瑞虹忍辱報仇〉의 正話 故事로서 《九朝野記》 卷四에 來源하고 있다. 顧學頤는 본편을 明代 사람의 擬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²¹⁾

2. 劉從善傳

본편은 《初刻拍案驚奇》 卷三十八〈占家財恨婿妬侄, 延親脈孝女藏兒〉의 正話 故事로서 《搜神記》 卷十에 來源하고 있다.

3. 呂玉傳

본편은 《警世通言》 卷五〈呂大郎還金完骨肉〉의 正話 故事로서 《堅瓠廣集》 卷五에 來源하고 있다.

4. 金玉娘傳

본편은 《喻世明言》 卷二十七〈金玉奴棒打薄情郎〉의 正話 故事로서 《西湖游覽志餘》 卷二十三에 來源하고 있다.

5. 長恨傳

본편은 《警世通言》 卷三十四〈王嬌鸞百年長恨〉의 正話 故事로서 《情史類略》 卷十六情報類 〈固廷章〉條에도 보인다. 胡士瑩은 본편을 馮夢龍의 창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²²⁾ 한편 孫楷弟도 같은 견해를 밝히고 있다.²³⁾

6. 唐伯虎傳

본편은 《警世通言》 卷二十六〈唐解元一笑姻緣〉의 正話 故事로서 《涇林雜記》에 來源하고 있다. 孫楷弟는 본편의 故事가 《情史類略》 卷五情豪類 〈唐寅〉條에도 실려 있다는 까닭으로 본편을 馮夢龍의 창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²⁴⁾

7. 金釵鈿記

본편은 《喻世明言》 卷二〈陳御史巧勘金釵鈿〉의 正話 故事로서 《雙槐歲抄》 卷四〈陳御史斷獄〉에 來源하고 있다. 許政揚은 본편을 明代의 新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²⁵⁾

21) 顧學頤, 上揭書.

22) 胡士瑩, 上揭書, p.557.

23) 孫楷弟, 〈三言二拍源流考〉.

24) 孫楷弟, 앞 論文.

25) 許政揚, 上揭書.

8. 叩盆記

본편은 《警世通言》 卷二 〈莊子休鼓盆成大道〉의 正話 故事로서 《莊子》에 來源하고 있다.

9. 徐義僕傳

본편은 《醒世恒言》 卷三十五 〈徐老僕義憤成家〉의 正話 故事로서 《鴻書》 卷三十八 五倫部 〈阿寄〉條에 來源하는 당시의 實事로 알려져 있다.

10. 王文豪傳

본편은 《初刻拍案驚奇》 卷十一 〈惡船家計賺假屍銀, 恨僕人誤投眞命狀〉의 正話 故事로서 《夷堅志補》 卷五 〈湖州薑客〉條에 來源하고 있다.

11. 黃柑記

본편은 《二刻拍案驚奇》 卷十四 〈趙縣君喬送黃柑, 吳宣教乾償白鐵〉의 正話 故事로서 《夷堅志補》 卷八 〈李將士〉條에 來源하고 있다.

12. 郭仲翔傳

본편은 《喻世明言》 卷八 〈吳保安棄家贖友〉의 正話 故事로서 《吳保安傳》과 《太平廣記》 卷一百六十六에 來源하고 있다.

13. 窮邸遇俠記

본편은 불과 17행의 짧은 작품으로, 그 약 半은 《醒世恒言》 卷三十 〈李汧公窮邸遇俠客〉의 正話 故事 일부이며, 나머지 半은 《初刻拍案驚奇》 卷三十三 〈張員外義撫螟蛉子, 包龍圖智賺合同文〉의 正話 故事 일부로서 완전한 한 편의 작품이라고 할 수 없다. 《醒世恒言》 卷三十 正話 故事는 《原化記》와 《太平廣記》 卷一百九十五에 來源하고 있으며, 《初刻拍案驚奇》 卷三十三의 正話 故事는 아직까지 그 來源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4. 主題 分析

우리 古代 漢文小說은 그 구성에 있어서 거의 모두가 「해피 엔딩」을 갖고 있다. 《啖蔗》에 수록되어 있는 28편의 작품 역시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話本小說은 상공업이 흥성하기 시작하면서 도시 주민의 수요에 副應하여 생겨

난 市民文學이다. 그렇기 때문에 話本小說에 사용되고 있는 主題는 대부분 도시 시민의 애정 문제와 가족 관계의 悲歡離合을 묘사하고 또 봉건 귀족 관료나 地主의 非理를 폭로하여 일반 소시민들의 要求와 希望을 여러 素材를 사용하여 反映하고 있다. 그 구성은 주인공이 곤경에 처할 때 故事의 情節이 高潮에 달했다가, 주인공이 곤경에서 탈출하고, 또 주인공에게 해를 가했던 者가 징벌 받을 때 故事는 끝을 맺는다. 어쩌면 이러한 구성이 중국 話本小說의 公式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제 《談蔗》에 실려 있는 각 편의 주제를 譴責, 愛情, 德行, 報應, 公案, 知己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譴責

「三言」·「二拍」 가운데는 統治階級 즉 관료의 貪財 또 그들 간의 투쟁, 그리고 지주나 富豪들의 非行, 귀족 관료들의 罪行을 폭로하는 故事와 지나친 色慾이나 貪財로 빚어지는 결과, 그리고 승려들의 非行 또는 인간의 傲慢함을 묘사하는 故事를 題材로 채택하여 譴責을 주제로 하고 있는 작품이 가장 많다. 胡士瑩은 이러한 작품의 產生 背景을

「明初封建經濟高度發展的結果，使得中央集權政策加速形成，朱元璋在加強他的專制政權的過程中，與其部下的封建官僚·功臣，產生了不少的矛盾，統治集團的內部鬭爭，十分激烈，這是產生反映統治階級內部矛盾的作品的土壤。」²⁶⁾

이라고 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작품을 例示하여 그 內容을 살펴보도록 한다.

〈倪善述傳〉

본편은 嫡庶가 부친의 재산을 놓고 서로 다투는 故事를 서술하여 貪財를 견책하고 있는 작품이다.²⁷⁾

倪太守는 79才의 나이로 17才된 少女를 後妻로 맞아 아들을 낳는다. 嫡子 善繼는

26) 胡士瑩, 上揭書, p.433.

27) 胡士瑩은 「三言」을 애정, 관료 지주 비리, 지식분자의 생활 및 과거제도의 모순, 그리고 도덕, 신의 등 넷으로 분류하였는데 본편을 관료지주의 비리를 주제라고 했다.

부친이 사망한 후 家財를 독차지하고자 했으나 繼母와 庶子 善述의 등장으로 여의치 못하자 그들 母子를 꺾박한다. 倪太守는 죽기 전에 善繼 몰래 「行樂圖」 한 폭을 善述에게 남겨 준다. 그 「行樂圖」에 茶를 쏟게 됨으로써 그림의 내용을 판독한 滕大尹이 벽 속에 감추어진 보물을 찾아 善述에게 건네준다.

작자는 본편에서 봉건 관료 지주 가정의 夫婦·父子·兄弟 사이의 畸形的이고도 추악한 관계를 생동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또 倪家의 재물을 속여서 자신이 갖는 추악한 관료 滕大尹의 貪慾과 간사함도 신랄하게 폭로하고 있다.

〈珍珠衫記〉

본편은 淫色을 題材로 하여 정당하지 못한 色慾이 불러일으키는 禍를 서술하여 色慾을 견책한 작품이다.

주인공 蔣興哥가 멀리 장사하러 떠난 사이 그의 처 三巧兒는 陳大郎과 通情한 후 蔣氏 집안의 보물인 珍珠衫을 선사한다. 훗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蔣興哥는 부인을 쫓아 버리자 三巧兒는 자결에 실패하고 知縣 吳傑의 妾으로 들어간다.

작자는 본편에서 부도덕한 아내의 형상을 묘사하면서 한편 참된 夫부상을 제시하고 있다.

〈王春傳〉

본편은 不良之心으로 兄弟간의 情義를 저버리는 故事를 서술하여 貪財를 견책한 작품이다.

王春·王奉 형제는 각각 이미 혼약한 女兒 하나를 뒀다. 불행하게도 兄 王春 부부가 세상을 떠나면서 딸의 婚事를 부탁했으나, 세배를 온 두 사윗감을 만나고 난 후 王奉은 재물 많은, 원래 姪女의 婚處에 자기 딸을 시집 보낸다. 10년 후 百萬家資를 遊興에 탕진한 사위는 流落하고, 姪女의 지아비는 근면히 공부하여 尙書 지위에 오르고 姪女는 一品夫人에 封해진다.

작자는 본편에서 世人의 眼前에만 눈이 멀어 결국 損人利己하는 추한 면을 묘사하여 貪財를 견책하고 있다.

〈王涯傳〉

본편은 先樂後憂하는 故事로서 一時의 富貴를 견책하고 있다.

榮華와 富貴를 한 몸에 누리고 있는 王涯丞相의 집 주방 곁에 절이 이웃해 있었다. 매일 주방에서 흘러나오는 설거지 한 물에 섞여 떠내려오는 밥알을 주워 모은 僧은 다시 씻어 말려 항아리에 저장하니 3·4개월이 지나자 가득 채워지고, 2년 동안에 여섯 개의 큰항아리를 채우고도 남았다.

하루아침에 朝廷을 犯한 丞相은 生死를 알 수 없을 지경에 이르자 보다못한 僧이 저장해 둔 양식을 건네주자, 그것이 자신의 주방에서 흘러나온 것임을 알게 된 王丞相은 그날 밤 독을 마시고 죽는다.

작자는 「貪賤常思富貴, 富貴又履危機」를 강조하여 「福過災生」의 도리를 밝히고 있다.

〈劉從善傳〉

본편은 財物을 놓고 가족간에 암투하는 故事를 서술하여 貪財를 견책하고 있는 작품이다.

劉從善은 後嗣가 없자 계집종과 옆방을 차려 임신을 하게 된다. 딸과 사위는 재물을 물려받을 기대만 하다가 가능성이 없자, 조카와 계집종을 해칠 궁리만 한다. 결국 딸의 機智로 온 가족이 화목해지고 財物도 골고루 나눠 갖게 된다.

작자는 貪小好利하는 인물을 등장시켜 올바른 가족 관념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金玉娘傳〉

본편은 秀才 莫稽와 그를 성공시켰다가 버림받는 거지 두목의 딸 玉娘과의 관계를 묘사한 것으로, 主人公의 奸惡하고 卑怯한 行爲를 견책한 작품이다.

거지 두목의 딸 玉娘이 莫稽에게 시집가서 갖은 고초를 이기고 남편을 과거에 급제시켰으나, 莫稽는 막상 출세한 후 남들이 자신을 거지 두목의 사위가 관리가 되었다고 조롱하자 玉娘과의 결혼을 후회하며 결국 玉娘을 강물 속에 밀어 넣고 도망친다.

작자는 莫稽의 上官 許德厚를 등장시켜 玉娘을 구출케 하여 두 사람은 다시 두터운 애정으로 살아가도록 한다.

〈長恨傳〉

본편은 결혼을 약속한 주인공 周延章의 背信을 견책한 작품이다.

王嬌鸞과 혼약한 周延章은 고향에서 財色을 갖춘 魏氏와 결혼하게 된다. 이 사실을 2년이나 지나 알게 된 嬌鸞은 자살할까 하다가 마음을 고쳐먹고 〈絶命詩〉 33首와 〈長恨歌〉 한 편을 지어 婚約 文書와 함께 周延章이 살고 있는 吳江의 闕大尹에게 보내고는 목을 맨다. 결국 周延章은 官家로 불들려가 죽임을 당하게 된다.

작자는 남자들이 경계해야 할 항목, 즉 周延章의 罪目を 다음과 같이 나열하고 있다.

「調戲職官子女, 一罪也; 停妻再娶, 二罪也; 因奸致死, 三罪也; 婚書上說; 『男若負女, 萬箭亡身』, 我今沒有箭射你, 用亂棒打殺你, 以爲薄倖男子之戒。」

〈叩盆記〉

본편은 주인공 莊子休의 妻 田氏의 悖惡을 서술하여, 貞節은 고사하고 남편과의 약속까지 쉽게 저버리는 行爲를 견책하고 있다.

한 젊은 부인이 改嫁하기 위하여 亡夫의 土墳을 부채로 말리고 있는 광경을 본 莊子休는 妻 田氏에게 그 얘길 하니, 田氏는 「忠臣不事二君, 烈女不更二夫」라고 하면서 자신은 이런 수치스러운 짓은 영원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한다. 그러나 田氏는 莊子休가 병이 들어 죽자, 남편이 죽은 후 보름만에 재혼하며, 더욱이 새 남편을 위해 망부의 腦髓마저 주려고 한다.

〈黃柑記〉

본편은 色慾으로 인해 발생하는 禍를 서술하여 色慾을 견책한 작품이다.

주인공 吳約은 宣敎郎으로, 묵고 있던 客舍 맞은 편 집 부인에게 유혹 당하여 通情하려다가, 그들의 奸計에 걸려 財物을 날리는 故事이다.

(2) 愛情

남녀간의 애정 문제를 題材로 취하고 있는 작품은 대단히 많다.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를 樂衡軍은

「愛情的事實，和愛情所激發的藝術創造，在任何一個文化中都是豐盛而多彩，活躍而富生命感的；事實是，愛情以任何一種文化環境做它的沃土良田。」²⁸⁾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애정을 주제로 취하고 있는 작품의 내용은 대부분이 남녀의 불평등, 그로 인해 야기되는 혼인 문제와 일반 시민이希求하는 진보된 혼인관과 여성의地位 향상을 위한 투쟁, 그리고 여성 스스로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용감하고도 강렬한 의지 등을 묘사하고 있다.²⁹⁾ 그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애정은 僞善으로 가득한 애정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 기초한, 靈肉이 일치하는 순수 애정으로서 禮敎가 그들에게 마련해 준 운명을 거절하고, 자유 연애와 혼인 自主를 주장하여 자유 분명한 복된 생활을 추구하고자 했다.³⁰⁾ 그러나 이러한 애정을 題材로 취한 작품 모두가 순수한 애정을 주제로 하고 있지는 않다. 때로는 薄情한 남자에 대하여 강한 견책의 의미와 비극성을 내포하고 있는 작품도 있다.

〈花魁娘傳〉

본편은 여자 주인공 妓女 華瑤琴이 자신의 비인간적인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알맞는 대상을 찾다가, 公子나 王孫들과 一字無識 小商人 秦重을 놓고 방황하면서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결국 秦重을 선택하여 행복을 누리는 故事이다.

瑤琴의 부모가 환난 중에 피난 가다가 무남독녀를 잃게 되고, 瑤琴은 남의 속임에 빠져 妓院으로 팔려가 최고의 名妓로 변신한다. 기름장수 秦重이 우연히 한번 만난 瑤琴을 잊지 못해, 일년여 기름 판 돈으로 瑤琴과 하룻밤을 지내기 위해 찾아갔으나, 다른 곳에서 만취돼 돌아온 瑤琴은 秦重을 쳐다보지도 않고 잠에 들어진다. 밤에 잠을 깬 瑤琴이 구토하려하자 秦重이 등을 만져주고, 비단 침구를 더럽힐까봐 자신의 옷에 토하게 한다. 다음 날 아침잠을 깬 瑤琴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고 더욱 秦重이 난처한 지경에서 瑤琴을 구해 주니 다시는 秦重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면서 같이 살길 간청한다. 그리고 자신이 마련한 돈으로 贖身하여 秦重과 혼례를 올리고 평생을 행복하게 산다.

본편 여주인공 瑤琴은 계급의식이 강하여, 처음 秦重을 만났을 때 소위 有名子弟가 아니기 때문에 거절하고, 후에 성실하고 좋은 사람임을 알게 됐으나 그래도 市

28) 樂衡軍, 《古典小說散論》, 浪漫之愛與古典之情.

29) 繆詠禾, 前揭書, 5. “三言”의 思想內容.

30) 威恩仙, 〈淺談三言中的愛情故事〉.

井之輩란 사실을 떨쳐버리지 못한다. 그러나 결국 秦重을 향해 「我要嫁你!」「布衣疏食, 死而無怨」이라고 절규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참된 사랑을 엿볼 수 있다.

작자는 등장 인물의 심리 묘사에 지극히 성공했고, 더욱 본편은 애정을 주제로 한 고대 단편소설 가운데 대단히 뛰어난 작품이다.

〈破甑笠記〉

본편은 劉宜春과 宋金의 애정 故事로서, 두 사람이 결혼한 후 宜春의 부모가 몰래 夫婦를 갈라놓으나, 宜春의 의지로 부모를 屈從시켜 재결합한다.

宋金은 劉宜春과 결혼하여 딸을 낳았으나, 딸이 들을 지내고 병들어 죽자 宋金도 傷心 끝에 병을 얻게 되자 宜春의 부모는 배를 타고 가다가 사위에게 뱀감을 해 오라고 하며 下船시켜 놓고는 몰래 떠나버린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宜春은 부모를 원망하며 강에 뛰어들려하다가 모친에게 저지되고, 부모는 하는 수 없이 뱀머리를 돌려 宋金을 찾아, 두 사람은 행복을 누린다.

작자는 宜春이 宋金에 대한 貞節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한 행위에 찬사를 보내면서 아울러 바람직한 婦人像을 제시하고 있다.

〈移花接木記〉

본편은 두 쌍의 남녀가 奇異한 인연으로 혼인하여, 자식들까지도 서로 혼인시키는 故事로서, 독자로 하여금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해 주고 있다.

男裝으로 變身한 聞俊卿은 서당에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 魏撰之와 杜子中 둘 중에서 결혼 상대를 고를 생각으로 하루는 서당 뜰 나무에서 울고 있는 까마귀에게 활을 쏘아, 먼저 화살을 쏘는 사람을 결혼 상대로 결정하려 한다. 子中이 먼저 쏘았으나 뒤 따라온 撰之에게 화살을 넘겨주고 급히 집으로 돌아간다. 俊卿은 撰之가 먼저 화살을 쏘는 걸로 오해한다. 뒷날 俊卿의 아버지가 누명을 쓰고 하옥되자, 그 억울한 누명을 벗기고자 서울로 가는 길에 만난 景小姐가 俊卿이 남자인 줄 알고 청혼해 오자 情標로 撰之에게 받은 白玉 허리띠를 건네주고는 길을 떠난다. 子中이 만났을 때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俊卿의 私物을 뒤져 여자임을 알게 되고, 화살을 자신이 먼저 쏘는 예기도 하며 그날 밤 通情한 후, 서로 의논하여 撰之에게 景小姐를 증매하여 결국 두 쌍은 成婚하여, 그 자식끼리도 혼인시켜 행복을 누린다.

〈唐伯虎傳〉

본편은 唐伯虎가 侍女 신분인 秋香을 우연히 만나 萬難을 무릅쓰고 결혼하는 故事를 서술하여, 사랑을 추구하는 정신과 進步된 婚姻觀을 보여주고 있다.

解元으로 급제한 唐伯虎는 우연히 侍女 秋香의 一笑를 인연으로 하여 사랑하게 되어 變裝을하고 秋香의 주인집으로 찾아가서 결국 결혼을 成就한다.

(3) 德行

덕행이라 함은 관료들의 백성에 대한 善行, 여자의 남편에 대한 貞節, 남편을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희생과 온갖 苦楚를 당하면서도 남편의 앞날을 위해 헌신하는 일, 그밖에도 兄弟간의 友愛와 孝悌, 그리고 上典에 대한 老僕의 忠義로운 행위 등을 일컫는 것으로, 《啖蔗》 속에는 德行을 主題로 취하고 있는 작품도 여러 篇 있다.

〈三孝廉〉

본편은 許氏 三兄弟의 和睦과 友愛를 찬양한 작품으로 「孝愛」의 極致라 할 수 있다.

일찍 부모를 여윈 주인공 許武가 두 아우를 專心으로 돌보기 위하여 결혼도 거절하고 晝耕夜讀하여, 그래서 官職에도 등용되는 아름다운 故事이다.

〈石氏月香傳〉

본편은 은혜를 갚는 商人과 외로운 아가씨를 결혼시켜 주는 어진 관리의 德行을 서술한 故事이다.

知縣 石璧은 부인을 잃고 8살 난 딸 月香과 생활하는 청렴한 관리로서, 하루는 창고에 불이 나 官糧을 불태워 下獄됐다가 병을 얻어 죽고 만다. 전에 무고하게 감옥에 갇혀 있다가 石知縣에 의해 풀려난 賈昌은 자신을 풀어 준 石知縣의 딸을 정성으로 보살피 주고, 鐘大尹은 月香을 수양딸로 삼아 高大尹의 아들에게 결혼시킨다. 그리하여 죽은 石知縣이 鐘大尹에게는 命에 없는 아들을 點指해 주고 자신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준 高大尹의 아들은 高官으로 만들어주어 보답한다.

〈唐璧傳〉

본편은 재상 裴度의 德行을 서술한 것으로, 善을 行하고 陰德을 쌓은 결과가 바로 富貴와 榮華임을 보여주고 있다.

唐 재상 裴度는 그에게 진상되어진 아름다운 黃少娥와 같은 마을에 사는 唐璧이란 청년이 서로 定婚한 사이인 사실을 알고 서로 혼인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寶貨와 벼슬까지 내려준다. 또 자신의 陰德으로 인해 骨相이 바뀌어 富貴를 누린다. 결국 작자는 善行과 陰德이 운명마저도 바꿀 수 있고, 또 온갖 복을 누릴 수 있음을 일깨워 주고 있다.

〈劉弘敬傳〉

본편은 부호 劉弘敬이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을 구해줌으로써 그 陰德으로 後嗣를 보게 되는 故事이다.

劉弘敬은 나이 60살이 넘도록 子息이 없는데, 하루는 省墓갔다가 돌아오는 길에서 한 道士를 만나니 그가 善行으로 陰德을 쌓도록 권한다. 의지할 곳 없어 찾아온 春郎 母女를 거두고, 또 부친을 여의고 곤경에 처한 蘭孫을 집안으로 거두어 春郎과 혼인시켜 준다.

〈芙蓉屏記〉

본편은 高納麟의 德行을 서술한 故事로서, 德行에 대한 보답이 전연 나타나지 않는 특이한 작품이다.

주인공 崔俊臣이 뱃길에서 사공에게 부인을 빼앗기고 자신은 물속으로 뛰어들길 재촉 받는다. 사공의 온 가족이 술에 취한 추석날 밤에 부인은 절간으로 도망해서 出家한다. 어느날 뱃사공 형제가 절에 芙蓉畫 한 폭을 시주하니, 바로 남편이 그린 그림이다. 그 그림을 다시 郭氏가 사서 高納麟에게 선사한다. 하루는 崔俊臣이 草書 4幅을 팔러 高氏에게 갔다가 강도 뱃사공을 만난 애길 하자 高氏는 俊臣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 芙蓉畫의 출처를 알아내어 崔俊臣 夫婦가 재결합하도록 한다.

〈徐義僕傳〉

본편은 上典을 위해 忠과 義를 다하는 老僕의 生涯를 서술한 것으로, 바람직한 老僕像을 제시하고 있다.

徐氏 三兄弟의 老僕인 阿寄는 혼자가 된 막내 徐哲의 妻 顏氏와 그 자식들을 위해 고생스럽게 장사를 하여 巨富가 되어 顏氏의 자녀를 혼인시키고 그리고 顏氏에게 두 형을 도와주도록 권한다. 나이 80세가 되어 생명이 위독해지자 顏氏의 두 아들에게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어주고 죽는다. 阿寄의 忠直함에 감복한 顏氏의 자식들은 阿寄의 아들을 도와 家業을 세워준다.

(4) 報應

報應을 主題로 하고 있는 작품은 因果報應의 道理로써, 善行이나 惡行을 베풀어 相應하는 報答을 받는 故事를 서술하고 있다.

〈呂玉傳〉

본편은 쫓은 돈을 탐내지 않고 주인에게 돌려줌으로써, 잃어버린 자식과 물에 빠진 동생을 구출하는 故事로서 善行에 대한 報答을 서술하고 있다.

呂玉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行商을 나갔다가 뒷간에서 우연히 돈꾸러미를 쫓은 후, 주인에게 돌려주니 그 보답으로 몇년 전에 종으로 사둔 아이를 呂玉의 시중이나 들게 데려가게 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잃어버린 아들이다. 돈 주인의 딸과 婚約하고, 白金 20兩을 받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뒤집힌 배를 구출해 내는 상금으로 20兩을 내놓고 강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내니 그 가운데 동생 呂珍이 있었다. 결국 善行의 보답으로 아들과 동생을 찾고 구한다.

〈王文豪傳〉

본편은 王文豪가 善行의 보답으로 억울하게 감옥생활을 하다가 풀려나는 故事를 서술하고 있다.

王文豪가 사소한 시비 끝에 생강장수를 때렸다가, 사죄의 뜻으로 白絹 한 필을 쥐 돌려보낸다. 생강장수로 부터 白絹의 내력을 알게 된 鬻사공의 奸計로 고통을 당하던 王文豪는 또 딸아이의 천연두를 치료하기 위하여 의원을 모셔오도록 시킨 종아이의 장난으로 딸도 잃게 되고, 종아이의 미움을 사 官家로 끌려가 옥살이를

하게 된다. 그러던 하루, 죽었다던 생강장수가 나타나 證人이 되어 王文豪의 누명을 씻어준다.

(5) 其他

上記 분류한 主題 가운데 어느 項目에도 속하지 않는, 다른 主題를 가진 작품을 其他 項目에서 다루고자 한다.

〈亂點鴛鴦譜記〉

본편은 婚姻弊習을 서술하고 있는 作品으로 主題가 散漫하여 嚴正하지 않다.

〈錯占鳳儔記〉

본편은 가난한 秀才가 다른 사람을 代身하여 결혼했다가 정말로 결혼하게 되는 故事를 서술하고 있다.

용모와 學識에 자신이 없는 顏俊은 가나하지만 詩書에 能한 錢靑을 시켜 秋芳이란 高贊의 딸과 대신 결혼하여 신부를 데려오게 한다. 錢靑은 혼례식을 올린 후 악 천후를 만나 3일동안 신부집에 머물면서 신부의 침대 곁에서만 지내고 돌아오지만 顏俊의 오해로 매질 당하게 되는데,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大尹이 그 광경을 보고 사실을 조사한 후 錢靑으로 하여금 秋芳을 아내로 맞게 해준다.

〈鈍秀才傳〉

본편은 不遇한 處境에 있던 鈍秀才 馬德稱이 우연한 기회가 인연이 되어 出世도 하고, 본래 婚約했던 六嬖과 성혼하는 故事로서 發跡을 主題로 하고 있다. 發跡이란 함은 계급사회에서 신분상의 向上을 위한 일반 서민들의 최대의 염원이다. 이러한 염원아래 實現할 수 없는 그들의 희망을 소위 發跡 故事를 통해서 이룩하여 만족하려는 의도에서 시도된 作品이 곧 發跡을 주제로 하고 있는 作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작자는 이러한 故事를 통해서 당시 지식인의 出世에 대한 염원을 반영하고 또 일반 서민들의 현실에 대한 불만을 만족시켜 주고 있다.

太監 王振의 專橫을 비난하다가 平民이 된 馬萬群에게 德稱이란 아들이 있었다.

그에게는 婚約한 六嬖이란 친구의 여동생이 있었는데, 科擧에 급제한 후에 결혼하고자 했으나 과거에도 낙방하고, 부친도 病死하는 불우한 환경을 맞아 流浪하는데, 가는 곳마다 災殃을 부르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서 鈍秀才라고 불렸다.

景泰年間에 王振이 죽임을 당하고, 그에게 累를 당한 사람들에게 관직을 내린다는 소식을 六嬖을 통해 듣고 上京하여 아버지를 복권시키고, 자신도 科擧에 응시하여 장원급제하고 六嬖과 成婚한 후 金의환향한다.

〈蔡瑞虹傳〉

본편은 부모의 怨讎를 갚는 딸의 처절한 故事를 서술한 복수를 主題로 한 작품이다.

蔡瑞虹의 아버지 蔡武가 관직에 부임코자 任地로 떠나다가 鬻사공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홀로 남은 瑞虹이 娼家에까지 팔려갔다가 우연히 만난 朱源에게 자신의 來歷을 얘기하며 부모의 원수를 갚고자 한다.

훗날 朱源이 科擧에 급제하여, 배를 고용하여 任地로 가다가, 瑞虹의 부모를 살해한 바로 그 鬻사공의 배를 타게 되어, 瑞虹은 복수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살한다.

〈金釵細記〉

본편은 結婚에 관련된 억울한 訟事를 御史가 해결해 주는, 公案을 主題로 한 作品으로, 判官으로서의 御史의 활약상을 그리고 있다.

公案이라 함은 원래 官이 事件을 처리하는 것을 가리킨다. 後에 刑事 事件의 訴訟이란 뜻으로 변하여, 短篇小說의 한 形式이 되었다.

魯學曾과 顧阿秀는 일찍이 서로 約婚한 사이지만 魯氏 內外가 病死하자 顧僉事夫婦는 파혼할 것을 결정한다. 그러나 阿秀가 魯學曾과의 결혼을 고집하자 어머니 孟氏는 하인을 시켜 學曾을 불러와 財物을 주어 혼수를 장만토록 하려 하지만, 學曾의 고종 형인 梁尙賓이 顧僉事 집에 가서 學曾의 행세를 하며 財物을 받고 阿秀를 농락한다. 이러한 事件을 御史가 商人으로 가장하여 해결 짓는다.

〈郭仲翔傳〉

본편은 전혀 面識이 없는 吳保安과 郭仲翔이 단지 한 통의 소개 편지로 交分을

맺어 相扶相助하는 故事로서 知己를 主題로 하고 있다.

郭仲翔이 南蠻의 포로가 되어 곤욕을 당할 때 吳保安은 자신의 가정도 돌보지 않고 家財를 처분하고도 부족하여 行商을 해서 10년 동안의 刻苦 끝에 患難 중의 郭仲翔을 구한다.

작자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비교적 地位가 낮은 계층간의 友情과 信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窮邸遇俠記〉

본편은 故事來源에서 언급했듯이 두 편 話本의 一部로서 완전한 작품이라고 할 수 없다.

5. 結 言

《啖蔗》 28편의 작품은 本論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모두 「三言」과 「二拍」의 작품들로서 우리나라의 漢文小說이 아니다. 물론 체제면에서 중국의 話本小說과는 달리 우리 한문소설의 형식을 빌리고 있지만, 모든 등장 인물의 이름까지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부분적으로 刪改된 곳도 있지만, 예를 들어 朝代나 地名, 또는 文章意味上 아무런 부자연스러움이 없는 文字들 등, 情節의 전개과정은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啖蔗》는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의 話本小說을 筆寫하여 지극히 제한된 독자들에게 읽혀졌을 것이라고 斷言할 수 있을 것이다.

「三言」이나 「二拍」이 중국 小說史上 확고한 地位를 차지하고 있음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人物의 動作과 言語를 통하여 각 등장인물의 個性을 절묘하게 묘사하고 있고, 또 일상생활 素材를 題材로 活用하여 多樣하게 主題를 표출하고 있으며, 등장인물이 前代의 貴신·요괴 또는 知識人에 국한되었던 것과는 달리 하층계급에서 통치계급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는 점과, 당시 생활상을 지극히 현장감 있게 묘사하면서 때로는 대담하게 봉건 통치계급의 모순을 폭로하고, 사회 자본주의 경제 발전의 상황을 그대로 그리고 또 진정한 애정에 기초한 결혼관 등을 제시하면서 민주적 사고를 권장하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三言」이나 「二拍」은 資料 수집의 측면에서 宋·元·明代에 걸쳐 전해져 오던 話本이나

擬話本을 수집 정리했다는 점도 忽視할 수 없다. 通俗小說이 文人들에게 중시되었던 時代를 살았던 馮夢龍과 凌濛初는 통속문학에 대하여 특별한 愛好와 熱性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들 자신이 전문적인 文人으로 前人들의 著作의 문자나 情節을 자신들의 문학관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刪改한 점은 話本의 수집의 측면과 編著의 측면에서 보다 높이 評價되어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 啖蔗, 국립중앙도서관 복사본.
古今小說, 馮夢龍,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警世通言, ———, ———, ———.
醒世恒言, ———, ———, ———.
拍案驚奇, 凌濛初, 上海古籍出版社.
二刻拍案驚奇, 凌濛初, 臺北 泰昌書局.
情史類略, 馮夢龍, 長沙 岳麓書社.
太平廣記, 李昉, 北京 中華書局.
夷堅志, 洪邁, 臺北 中文出版社.
三言兩拍資料, 譚正璧, 臺北 里仁書局.
馮夢龍和三言, 繆詠禾, 上海 古籍出版社.
中國文學論集, 鄧振鐸, 香港 港青出版社.
中國小說史, 孟瑤, 臺北 傳記文學出版社.
中國小說史略, 魯迅, 香港 三聯書店.
話本小說概論, 胡士瑩, 北京 中華書局.
中韓交通史事論叢, 金榮華, 臺北 福記文化圖書公司.
三言二拍與朝鮮後期漢文短篇小說之比較研究, 金奉潤, 博士學位論文.
兩拍研究, 許根培, 忠南大 碩士學位論文.
三言二拍源流考, 孫楷第, 北平圖書館館刊五卷二號.

摘 要

《啖蔗》28篇漢文小說不是韓國古代漢文小說，是中國明代「三言」和「二拍」裏的小說。不知是那時代而經誰的手筆寫的，但可以確言韓國人筆寫中國的小說，然後給極少的讀者念。

「三言」和「二拍」在中國小說史上占很重要的地位，其原因在以下幾點，

一. 通過人物的動作和語言描寫各種人物的個性。

二. 活用日常生活裏的素材，擴大題材而表出多樣的主題。

三. 比主人公局限鬼神或者知識分子的前代小說，話本主人公從下層階級到統治階級很廣。

四. 大膽地暴露封建統治階級的矛盾，刻畫出社會資本主義經濟發展情況。

五. 大量運用人民的口頭語言，如各種俗語·諺語·歇後語等，增加了語言的生動性。

「三言」和「二拍」的作家馮夢龍和凌濛初蒐集而整理宋·元·明代的話本和擬話本，這一點也很可重視，有了以上的成就，所以兩位著名作家的短篇小說集「三言」和「二拍」在中國小說史上可確保很重要的地位。

〈이 페이지는 여백임〉

朝鮮의 韻書 研究(1)

-- 《排字禮部韻略》·《排字禮部玉篇》을 중심으로--

康 寔 鎮*

<目 次>

- | | |
|--------------------------|-----------------------------------|
| 1.1. 연구 목적 | 3.2.1. 《禮部韻略》·《禮部韻略玉篇》의
간행과 판본 |
| 1.2. 연구 방법 및 범위 | 3.2.2. 《禮部韻略》의 특징과 由來 |
| 2. 中國의 韻書 편찬 | 3.2.3. 《禮部韻略玉篇》의 특징과 由來 |
| 3. 《禮部韻略》과 《禮部韻略玉篇》 | 3.2.4. 《禮部韻略》과 다른 韻書와의 관계 |
| 3.1. 中國의 《禮部韻略》 | 4. 結 論 |
| 3.2. 朝鮮의 《禮部韻略》·《韻部韻略玉篇》 | <參考書目> |

1.1. 연구 목적

中國의 韻書가 언제 우리 땅에 들어 왔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늦어도 高麗 때부터는 우리 땅에도 韻書가 복각되어¹⁾ 科擧를 보기 위한 漢詩 공부나 詩作에 응용되거나 혹은 漢字에 대한 참고용으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朝鮮朝에 들어 와서는 中國 韻書를 그대로 복각하는데 그치지 않고 朝鮮式의 韻書를 다시 편찬하게 된다. 訓民正音이 창제되어 한글 자모를 활용한 발음부호 체계로 漢字음을 표

* 釜山大學校 中語中文學科 敎授

1) 卷一·卷二의 끝에 「大德庚子良月梅溪書院刊」이라는 刊記가 붙은 覆刻本 《新刊排字禮部韻略》을 京城 瀨戶潔씨가 소장하고 있었다고 小倉進平 增訂 《朝鮮語學史》(刀江書院 1940, 大提閣 影印本 1986) p.503에 적혀 있는데 여기에서의 「大德庚子」는 忠烈王26年(1300년)에 해당한다.

기할 수 있게 되자 이러한 발음부호 체계를 활용하여 새로운 韻書를 편찬하거나 譯訓하기에 이른다. 反切이 아닌 완벽한 발음부호 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활용하여 漢字音을 音素 단위로 표기한 것은 이보다 몇 백년 후에 漢字의 발음부호 체계를 만들어 내는 中國에 비하면 우리 선조들이 中國語學史에 남긴 업적은 매우 지대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²⁾

朝鮮의 韻書 刊行은 訓民正音 창제 후 두 가지 양상을 보인다. 그 하나는 종래와 같이 中國의 韻書를 복각하거나 이와 유사한 韻書를 편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訓民正音식 발음부호 체계로 漢字音을 표기한 韻書의 편찬이다. 訓民正音식 발음부호 체계로 표음한 韻書 역시 두 가지 양상을 보인다. 하나는 이미 전래된 漢字의 朝鮮音이 中國과 달라 이러한 朝鮮音을 적기 위해 편찬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中國의 전통음과 현실음을 적은 朝鮮版 中國 韻書이다.

《禮部韻略》은 科擧에 응시하기 위한 字韻 공부에 애용되어 일찍부터 朝鮮版이 간행되었고, 《禮部韻略》과 짝을 이루어 사용된 독특한 형식의 《三韻通考》가 간행되며, 이어 中國의 韻書인 《古今韻會舉要》 및 《洪武正韻》이 복각된다. 中國 韻書에 訓民正音식 발음부호 체계로 中國音을 표기한 것으로는 《洪武正韻譯訓》이 있으며 中國音을 표기하기 위해 새로이 제작된 韻書로는 《洪武正韻譯訓》의 축약본이라 할 수 있는 《四聲通考》와 이 《四聲通考》의 증보판이라 할 수 있는 《四聲通解》가 있다. 아울러 朝鮮朝에는 《經世正韻》·《韻解訓民正音》·《理蔽新編》 등의 韻圖도 편찬하게 되어 이때의 音韻學 연구가 어떠한지를 짐작하게 한다. 漢字의 朝鮮音을 訓民正音식 발음부호 체계로 표기한 韻書로는 《東國正韻》·《華東正音通釋韻考》·《華東叶音通釋》·《三韻聲彙》·《奎章全韻》 등이 간행되었다.

訓民正音의 창제 이후에는 近代 漢語의 語音·語法·語彙 등에 관계된 어학적 자료에 訓民正音이란 표음문자로 표음하거나 번역하여 놓아 中國의 자료보다 더 구체적이며, 또 中國語의 변화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中國의 자료보다

2) 표음문자로 한자음을 표기한 첫번째 예는 蒙古의 파스파(八思巴)문자로 표음한 《蒙古字韻》(1308년)이고 두번째는 조선의 《洪武正韻譯訓》(1455년)이며, 로마자로 표음한 첫 예는 Matteo Ricci(1552-1610년)가 지은 《泰西字母》와 《西字奇跡》(1605년)이다. 朝鮮의 부호체계는 한 두 권의 편찬물에 그치지 않고 이후 수백년 동안 일관되게 漢語와 관계된 저작에 적용하므로 이 부호체계로 된 자료는 다 체계로 기록된 자료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더 정밀한 변화상이나 시기를 고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필자는 近代 漢語 연구의 일환으로 그 동안 주로 《老乞大》·《朴通事》 系列의 문헌에 국한하여 음운론 및 문법론 측면에서 분석하였다.³⁾ 이는 《老乞大》《朴通事》 系列이 中國語 敎習書라는 특징 때문에 中國語의 변화상을 잘 반영하고 있어 通時的 연구를 용이하게 해 주고 있기 때문이었는데, 이러한 일련의 연구 과정 중 특히 음운론 분야에서는 朝鮮朝에 편찬된 韻書를 적극적인 자료로 활용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朝鮮朝에 편찬한 韻書에 대해서는 1960年代부터 이미 많은 國語學者들이 연구하여 눈부신 업적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대개 國語 研究의 일환에 수반되어 행하여졌기 때문에 中國語學의 측면에서 보면 간과한 점이 없지 않은 듯하다. 이제 近代 漢語期에 편찬된 이들 韻書를 中國語學的 초점에 맞추어 분석하고 여기에 담겨진 내용들을 밝혀 이시기의 中國語學史나 國語學史의 한 부분에 참고되게 함이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朝鮮의 韻書를 모두 분석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지면이 필요하므로 이를 몇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연구하고자 하는데, 이 논문은 그 첫번 째로 朝鮮에서 간행된 《禮部韻略》 및 《禮部韻略玉篇》이 어떠한 韻書인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朝鮮朝에서 편찬된 韻書의 연구는 그 동안 朝鮮音을 적은 韻書나 訓民正音式 발음부호 체계로 中國音을 표기한 韻書 위주로 수행되었고 이러한 韻書들에 대한 상호 비교 및 종적·횡적 연구도 단편적으로는 이루어졌으나 朝鮮에서 편찬된 韻書 전부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고 이들 자료에서 특히 中國語學史에 기여할 연구 결과를 내지는 못했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始終 中國語學的 방법, 특히 성운학적 분석법으로 접근하여 韻書에 내포된 음운론적 사실들을 규명하겠지만 이러한 韻書가 朝鮮에서 어떻게 수용·변화되는지 알아보기 위한 外延的 사실에 대한 연구도 필요에 따라 수행하게 될 것이다.

3) 康寔鎭 《「老乞大」「朴通事」研究--諸書之著成及其書中漢語語音語法之析論--》(臺北 學生書局, 1985)

이 논문은 몇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질 것이므로, (1) 《禮部韻略》과 《禮部韻略玉篇》 및 이와 관계된 韻書, (2) 《三韻通考》와 이와 관계된 韻書, (3) 《古今韻會舉要》와 이와 관계된 韻書, (4) 《洪武正韻》과 이와 관계된 韻書……와 같은 順으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訓民正音式 발음부호 체계로 표음된 韻書에 대해서는 이 부호들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수행하겠지만 복잡된 중국 韻書가 이미 중국에서 깊이 연구된 경우에는 그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재조명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것이다.

朝鮮版 《禮部韻略》과 《禮部韻略玉篇》은 中國에서 간행된 것과 무척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中國에서도 그 版本이 아주 복잡하다. 그래서 이에 대한 연구는 주로 朝鮮版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특징을 가지며 다른 韻書들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살펴보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聲韻學的 분석을 깊이 있게 하지 않는데 그것은 中國에서 이미 이러한 작업을 한 이유도 있지만 朝鮮版 《禮部韻略》이 특별한 聲韻學的 현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속적 연구는 한 편의 연구 범위가 다른 편의 연구 내용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게 될 수 있으나 가능한 한 연구 주제를 넘어서는 범위의 분석은 해당 주제를 연구할 때 집중하여 다루기로 한다.

2. 中國의 韻書 편찬

中國에서는 詩歌나 韻文을 쓸 때 押韻 따위의 음률적 효과를 높이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 音系에 따라 漢字를 배열한 일종의 字典인 韻書가 끊임없이 편찬되었다. 唐 封演의 《聞見記》·《切韻》의 〈序〉·《隋書》〈經籍志〉 등의 기록에 의해 현재까지 밝혀진 것으로는 三國時代 魏朝의 李登이 편찬한 《聲類》 및 晉朝의 呂靜이 편찬한 《集韻》에 이어, 夏侯詠의 《韻略》·陽休之의 《韻略》·周思賢의 《音韻》·李季節의 《音譜》·杜台卿의 《韻略》 등이 있었다는 것은 알 수 있으나, 《聞見記》 및 《切韻》의 기록이나 唐 寫本 《刊謬補缺切韻》 韻目 밑에 붙인 注의 설명을 통해 극히 개괄적인 모습이나 韻의 分類 등에 대해 추정만 하는 정도이다.

현재까지 전해오는 韻書로서 가장 오래된 것은 隋代의 陸法言이 저술한 《切韻》

五卷(601年)이다. 이 《切韻》은 劉臻·顔之推·蘆思道 등의 당시 대학자들이 참가하여 이전의 각종 韻書의 장단점을 보완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이 韻書의 출현으로 이전의 韻書는 자연 도태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陸法言의 《切韻》도 그 원본은 전해지지 않고 다만 그 〈序〉만 전해오던 중, 敦煌에서 출토된 韻書 殘卷 중 唐 寫本 殘卷의 일부분이 陸法言 등이 편찬한 《切韻》의 한 부분인 것으로 밝혀졌다. 《切韻》은 唐代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시되어 많은 사람들이 字를 보태거나 注를 다는 增補 작업을 하였다. 《廣韻》이나 《唐書藝文志》·《通志藝文略》 등에 나타나는 增補를 한 人名이나 書名만도 20여명에 이르나 실제로 현재까지 일부본이나 전해오고 있는 것은 孫愐의 《唐韻》·李舟의 《切韻》·王仁煦의 《刊謬補缺切韻》 정도이다. 이 중 李舟의 《切韻》은 徐鉉이 수정한 《說文解字篆韻譜》를 통해 韻部의 排列 순서 정도를 짐작할 수 있을 뿐이고, 孫愐의 《唐韻》도 〈序〉와 唐 寫本 殘卷이 전해 올 뿐이며, 王仁煦의 《刊謬補缺切韻》만이 완전한 모습으로 오늘날까지 전해오고 있다. 이 《刊謬補缺切韻》도 1947년 故宮에서 宋濂 跋本 唐 寫本の 王仁煦 《刊謬補缺切韻》(소위 「王三本」)이 완전한 모습으로 발견되기 전까지는, 2종의 唐 寫本 殘卷으로만 전해 오고 있었다. 그 중 하나는 敦煌에서 발견되어 파리 도서관에 收藏된 것(소위 「王一本」)과 다른 하나는 故宮에 전해 오던 項子京 跋本(소위 「王二本」)이다. 宋濂 跋本 唐 寫本の 王仁煦 《刊謬補缺切韻》은 706년에 편찬된 것으로 《切韻》의 增補版 중 가장 완벽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그 발견이 늦어 이전의 中國 학자들은 《大宋重修廣韻》(보통 《廣韻》이라고 簡稱한다)을 《切韻》의 가장 빠른 增訂本으로 보았다. 《廣韻》은 1008년 勅命으로 陳彭年·邱雍 등이 陸法言의 《切韻》과 기타 《切韻》의 增訂本을 근거로 편찬한 것이기 때문에 《廣韻》이 세상에 나오자 이는 곧 《切韻》과 唐代의 모든 《切韻》의 增訂本을 대체하고 널리 보급되어 그 영향이 가장 큰 韻書가 되었다. 《廣韻》이 《切韻》보다 407년이나 뒤에 편찬되고, 수록된 글자 수가 약 12,000字에서 26,194字로, 그 韻도 193韻에서 206韻⁴⁾으로 늘어났으나, 실제로 《廣韻》의 語音系統 및 體裁는 《切韻》과 같아 《廣韻》은 곧 《切韻》의 音系 즉 中古音系를 대표하는 韻書로 간주되었고 나아가 古音과 現代 方言音을 잇는 가장 중요한 교량적 언

4) 平聲에서 「諄」「桓」「戈」, 上聲에서 「准」「緩」「果」「儼」, 去聲에서 「稕」「換」「過」「釅」, 入聲에서 「術」「末」 등의 13韻이 늘어났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分韻의 엄격성을 더했을 뿐이지 결코 그 語音系統의 차이에서 온 현상은 아니다.

어학 자료로도 깊이 연구되었다.

《廣韻》과 같은 시기인 宋 眞宗 景德 四年(1007년)에는 《韻略》이 출간되었으나 곧 失傳되고 이어 1037년에는 丁度 등이 칙명을 받들어 《集韻》과 《禮部韻略》을 편찬하게 된다. 《集韻》의 축약본이라고 할 수 있는 《禮部韻略》은 當年(1037년)에 완성하게 되는데, 이는 1007년에 刊行된 《韻略》의 修訂本으로 보이며, 5만여 자를 수록한 《集韻》은 착수 2년 만인 1039년에 완성하게 된다. 《集韻》은 《廣韻》의 206韻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廣韻》에 27,331 字를 추가하여 모두 53,525 字를 수록하고 10卷으로 나누었으나 글자 수가 많아지고 註解가 더욱 상세하다는 외에, 韻目에 약간 차이가 있을 뿐 크게 다른 점이 없어 역대 이래로 중요시하지는 않았다. 《禮部韻略》역시 《廣韻》의 206韻을 그대로 유지한 축약본으로 禮部에서 시행하던 과거 준비용으로 널리 쓰인 官書였다. 《禮部韻略》의 원본은 일찍이 없어지고 《附釋文互注禮部韻略》 五卷과 《增修互注禮部韻略》 五卷의 두 종이 지금까지 전해 오고 있는데 모두 206韻 체계의 韻書이다.

이제까지의 206韻 체계를 무너뜨리고 現實音에 맞도록 分韻하는 작업은 金代에 일어난다. 먼저 金代의 韓道昭는 崇慶 元年(1211년)에 206韻을 당시의 북방 현실음에 맞추어 160韻의 《五音集韻》을 쓰게 되며 이어서 金代 正大 六年(1229년)에 王文郁이 106韻의 《平水新刊韻略》을 편찬하고 金代 正大 八年(1231년)에는 張天錫이 106韻의 《草書韻會》를 편찬한다. 南宋 理宗 淳祐 十二年(1252년)에는 劉淵이 107韻⁵⁾의 《壬子新刊禮部韻略》을 편찬하나 이 운서는 일찍이 유실되고 지금으로서는 《古今韻會舉要》를 통하여 그 개괄을 볼 수 있을 뿐이다. 元代 世祖 至元 二十九年(1292년) 前에 黃公紹는 《古今韻會》를 편찬하게 되고, 이어서 熊忠이 成宗 大德 元年(1297년)에 劉淵의 《壬子新刊禮部韻略》의 分韻에 따라 《古今韻會舉要》를 편찬한다. 이 韻書는 표면상으로는 《壬子新刊禮部韻略》의 107韻을 따랐으나 元代의 北方 官話를 반영한 새로운 韻目이 있고, 이 때까지의 韻書에 철저히 대립하고 있던 入聲 韻尾 「-p」 「-t」 「-k」가 그 대립성을 상실하고 있음을 보여 주어 변화된 당시의 북방어를 상당 수준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의 韻書 체계를 완전히 탈피하고 현실음을 철저히 반영하여 元代 泰定 元年(1324년)에 周德清이 《中原音韻》을 내어놓게 된다. 그러므로 現代 普通話를 골간으로 수행하는 漢語史의 研究에서는 《中原音韻》이 가장 중요한 문헌으로 간

5) 107韻의 上聲 26 拯韻이 25 迥韻에 병합되면 106韻이 된다.

주되었고, 그간 이에 대한 연구업적도 상당히 많이 나왔다. 《中原音韻》에 이어 나온 《中原音韻》系統의 韻書로는 《中州音韻》(卓從之 1351년)·《韻略易通》(蘭茂 1442년)·《韻略匯通》(畢拱辰 1642년)·《五方元音》(樊騰鳳 1654-1673년) 등이 있으나 사실 이들 韻書는 《中原音韻》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있다.

明代 太祖 洪武 八年(1375년)에는 樂韶鳳·宋濂 등이 조칙을 받들어 《洪武正韻》을 편찬하게 되는데, 이 韻書는 어느 정도의 현실 韻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전의 韻을 합병하여 平·上·去聲을 각 22部로, 入聲을 10部로 모두 76部로 나누었다. 그러나 南方音을 아울러 반영하고자 하는 인위적 노력으로 《中原音韻》에서 이미 다른 聲調로 편입된 入聲을 존치시키거나 이보다 훨씬 전에 이미 북방어에서는 소실한 濁聲을 대립시키고 있어 南北과 古今을 융합하겠다는 인위적 요소가 가미되었다. 이 韻書는 明代에는 官書로서의 권위를 가져 수차 번각되지만 清代에 이르면 輕視되어 더 이상 간행되지 않았다. 清 康熙 十四年(1715년)에서 雍正 四年(1726년) 사이 李光地·王蘭生·徐元夢 등이 칙명으로 《音韻闡微》를 편찬하는데, 이 韻書 역시 106으로 分韻되었고 글자를 「開」「齊」「合」「撮」의 순서 밑에 36字母로 배열하였다.

이러한 中國의 韻書 외에 元代에 八思巴文字('Phags-pa script)로 漢字音을 표기한 《蒙古字韻》(1269-1292년 사이)이 편찬되나 元刻本은 이미 流失되고 元 武宗 元年인 至大 戊申(1308년)에 朱宗文이 교정하고 〈序〉를 쓴 사본이 전해지고 있는데 15개 韻에 약간의 韻類를 더하고 매 韻類 아래 聲類에 따른 漢字를 四聲에 맞추어 배열하였다. 이 韻書가 표음문자로 漢字音을 표기한 최초의 韻書일 것이다.

3. 《禮部韻略》과 《禮部韻略玉篇》

3.1. 中國의 《禮部韻略》

《韻略》이란 書名은 일찍부터 보여 왔으나 실제로 편찬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韻略》은 《廣韻》과 같은 시기인 宋 眞宗 景德 四年(1007년)에 출간되었으나 현재 전해 오지 않고 있다. 《廣韻》에 이어 宋 仁宗 景祐 四年(1037년)에는 丁度 등이 칙명을 받들어 《集韻》과 《禮部韻略》을 편찬하게 된다. 《集韻》의 축약본이

라고 할 수 있는 《禮部韻略》은 當年(1037년)에 완성하게 되는데 이는 眞宗 景德四年(1007년)刊 《韻略》의 修訂本이며, 5만여 자를 수록한 《集韻》은 2년 후인 寶元 二年(1039년)에 완성하게 된다.

《禮部韻略》은 《廣韻》의 206韻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26,194자 보다 대폭 줄어든 9,590자를 수록한 축약본으로 禮部에서 시행하던 과거 준비용으로 널리 쓰인 官書였다. 206韻 體系 《禮部韻略》의 원본은 전해지지 않고 현재 볼 수 있는 《禮部韻略》은 《附釋文互注禮部韻略》 五卷과 《增修互注禮部韻略》 五卷의 두 종이다⁶⁾. 《附釋文互注禮部韻略》에는 편찬자의 성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南宋 理宗 三年(1230년) 袁文煊(「袁」이 「余」로 오기 되기도 함)의 〈序〉와 理宗 景定五年(1264년) 郭守正의 〈序〉가 卷頭に 붙어 있다. 《增修互注禮部韻略》 五卷은 宋 高宗 紹興 三十二年(1162년)에 조정에 表進된 것으로서 南宋의 毛晃이 《禮部韻略》에 2,655 자를 추가 및 增注하고 毛晃의 아들 毛居正이 여기에 다시 1,402 자를 추가 및 校勘한 것이다. 이 두 종의 《禮部韻略》도 《切韻》의 206韻에 비록 「同用」과 「獨用」의 韻을 注로 밝히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206韻의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책의 매 漢字 밑에는 「官注」가 붙어 있고 그 밑에 「互注」가 붙어 있다. 이 「官注」는 전통적 일반 註釋이고 「互注」는 이 「官注」에 대한 보충이나 疏解에 해당하여 《禮部韻略》이 禮部에서 관장한 官書이기 때문에 개인적 增減이 불가능하므로 官書의 체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인적 보충설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

206韻을 대담하게 현실음에 맞도록 병합하는 韻書의 일대 혁신 작업은 언어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빨랐던 북방의 중국에서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혁신된 최초의 韻書는 金代의 崇慶 元年(1211년)에 韓道昭가 편찬한 《五音集韻》이다. 《五音集韻》은 당시 북방의 口語를 근거로 《切韻》의 206韻을 160韻部로 병합하고 이전의 韻書가 한 韻 밑에 규칙 없이 동일음의 漢字를 배열하던 방법을 개선하여 매 韻마다 36字母의 순서로 漢字를 배열하였다. 160韻部에 이어 혁신적으로 「同用」 韻을 합병하여 실제로 시인의 현실적인 押韻에 부합되도록 한 106韻의 韻書 역시 北方 中國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반영한 韻書가 金代 正大 六年(1229년)에 王文郁이 편찬한 《平水新刊韻略》과 金代 正大 八年(1231년)에 張天錫이 편찬한 《草書韻會》이다. 여기에 이어 南宋 理宗 淳祐 十二年(1252년)에는 劉淵이 107韻의 《

6) 謝啓昆 《小學考》卷 三十一, pp.14-19 참조. 王力 《中國音韻學》(北京 商務印書館, 1936) pp.472-473에도 轉載되어 있음.

壬子新刊禮部韻略》을 편찬하나 일찍이 유실되고 지금으로서는 《古今韻會舉要》를 통하여 그 개괄을 볼 수 있을 뿐이다. 元代 世祖 至元 二十九年(1292년) 前에 黃公紹가 《古今韻會》를 편찬하게 되는데 이 韻書에서는 訓詁를 중요시하여 인용된 典故가 아주 많아 번잡하였다. 이에 다시 熊忠이 成宗 大德 元年(1297년)에 劉淵의 《壬子新刊禮部韻略》의 分韻에 따라 《古今韻會舉要》를 편찬하게 되는데, 이 韻書에서는 7음으로 구분된 36 字母의 순으로 同韻의 漢字를 배열하였고, 표면상으로는 《壬子新刊禮部韻略》의 107韻을 따랐으나 元代的 北方 官話를 반영한 새로운 韻目이었다.

中國의 《禮部韻略》은 처음 206韻 체계의 科擧 준비용 官書로 편찬되나 金代에 이르러 현실음을 반영한 106韻으로 재편되어 이후 「平水韻」이라 불리며 詩作의 기준 韻이 되었다.

3.2. 朝鮮의 《禮部韻略》 · 《禮部韻略玉篇》

3.2.1. 《禮部韻略》 · 《禮部韻略玉篇》의 간행과 판본

우리 땅에 中國의 韻書가 유입되어 사용되기 시작한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高麗 光宗 九年(958년) 때부터 詩·賦·頌으로 科擧를 보았다는 기록⁷⁾과 學子是 「律詩四韻」, 一百首를 암송하고 「五聲」과 「字韻」에 통해야 응시하도록 한다는 슈이 내려졌다는 기록⁸⁾으로 보면 분명히 이때에 적어도 과거 준비용으로서의 韻書는 우리 땅에 유입되었을 것이다. 《禮部韻略》은 禮部에서 시행하던 科擧 準備用 官書로 中國에서도 널리 쓰인 韻書였음은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다. 이와 같은 《禮部韻略》이 같은 科擧를 시행했던 高麗에서도 당연히 필요하였을 것이다. 李朝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禮部韻略》을 위주⁹⁾로 科擧 공부를 하였으므로 이 韻書가 가장 많이 유포되었을 것은 확실하다. 우리 땅에 이렇게 널리 유포되었을 《禮部韻略》 중 지금까지 전해 온 것들에 대해 일찍이 小倉進平은 朝鮮語學史에 그의 관찰

7) 《高麗史》卷七十三 志 卷二十七 選舉一에 「光宗九年五月 雙翼獻議 始設科擧試 以詩賦頌及時武策」라고 기록하고 있다.

8) 《高麗史》卷七十三 志 卷二十七 選舉一에 「忠肅王……十七年十二月 始令學子誦律詩四韻一百首 通小學五聲字韻 乃許赴試」라고 기록하고 있다.

9) 《世祖實錄》卷二十八 世祖八年 壬午六月癸酉 條에 「禮曹啓 在先科擧時 只用禮部韻 請自今兼用洪武正韻 譯科試童子習 從之」라고 기록하고 있다.

결과를 기록해 두고 있으며 이 외에도 慶北 淸道郡 錦川面 薪旨洞의 仙巖書院에서 발견된 古版本¹⁰⁾ 및 高麗大學校 圖書館 所藏의 活字本 등이 있다.

(1) 小倉進平이 관찰한 版本과 仙巖書院 古版本

小倉進平이 朝鮮語學史에 밝혀 놓은 것¹¹⁾을 轉載하면 다음과 같다.

- (a) 《新刊排字禮部韻略》五卷(高麗 忠烈王 二十六年; 1300년)
- (b) 《新刊排字禮部韻略》五卷(嘉靖 三年; 1524년)
- (c) 《禮部韻略》(萬曆 元年; 1573년)
- (d) 《排字禮部韻略》四卷(萬曆 四十三年; 1615년)
- (e) 《排字禮部韻略》五卷(康熙 十七年; 1678년)
- (f) 《排字禮部韻略》五卷二冊(康熙 十八年; 1679년)
- (g) 《排字禮部韻略》五卷二冊(京城帝國大學藏本; 年代未詳)

여기에 따르면 우리 땅에서 간행된 것으로 最古의 것은 「大德庚子良月梅溪書院刊行」이라는 刊記가 붙었다는 (a) 《新刊排字禮部韻略》五卷(1300년)이다. 小倉進平은 이 책의 紙質이나 字體 등으로 미루어 高麗의 刊本으로 보았는데, 이에 대해 兪昌均 박사는 〈仙巖書院藏板禮部韻略에 대하여〉에서 이 刊記가 고려에서 복각할 때 追記한 것인지 아니면 原刊本에 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小倉進平이 밝히지 않았고, 또 《東國輿地勝覽》에 「良月」이라는 地名이나 「梅溪書院」이 보이지 않아 地名이나 書院의 존재를 분명히 할 수가 없으나 中國에는 「梅溪縣」이란 지명이 있으므로 中國의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 책이 忠烈王 때 복각된 것이라면 毛氏本 보다는 139년 뒤지고 平水本 보다는 49년 밖에 뒤지지 않는다고 하였으나¹²⁾ 毛氏本인 《增修互注禮部韻略》은 《廣韻》의 206韻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10) 慶北 淸道郡 錦川面 薪旨洞의 仙巖書院에서 발견된 古版本을 嶺南大學校 附設 東洋文化研究所에서 1968년 兪昌均 박사의 解題를 붙여 《排字禮部韻略》印本을 발행하였고, 이어 1979년 菊軒公의 門中에서 이를 再印하여 배포하였는데, 이 책의 앞에 역시 兪昌均 박사의 〈仙巖書院藏板禮部韻略에 대하여〉라는 解題에 가름하는 글이 붙어 있다.

11) 小倉進平, 앞의 책, pp.503-508.

12) 여기에서 兪昌均 박사는 “毛氏本은 紹興 三十二年(1162년)의 劉淵이 《壬子新刊禮部韻略》이라는 이름 밑에 간행한 것이며 平水本은 淳祐十二年(1252년)에 平水 밑에 간행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毛氏本을 紹興三十二年(1162년)에 毛晃이 《禮部韻略》에 2,655

것이고 《壬子新刊禮部韻略》은 107韻으로 分韻한 韻書 인데 이는 中國에서도 곧바로 失傳되고 《古今韻會舉要》를 통하여 그 모습을 볼 수 있을 뿐이며, 또 우리 땅의 詩韻이 종래 106韻이었다는 점과 이후 우리 땅에서 간행된 《禮部韻略》은 모두 106韻이었다는 점 및 小倉進平의 관찰에 의하면 五卷 중 一卷이 《玉篇》이었다는 점¹³⁾ 등을 고려하면 이는 적어도 中國의 毛氏本이나 劉淵의 《壬子新刊禮部韻略》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 땅의 《禮部韻略》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 이점에 대해서는 《禮部韻略》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할 것이므로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小倉進平의 조사에 의하면 (b) 《新刊排字禮部韻略》 五卷은 嘉靖 三年(1524년)에 甲申秋에 黃海道에서 간행한 것으로 확실한 우리 땅의 刊記가 붙은 것으로는 最古의 것이고 역시 五卷 중 一卷은 《玉篇》이라고 한다. (d) 《排字禮部韻略》 四卷은 萬曆 四十三年 乙卯(1615년)에 丁敏道가 쓴 〈重刊跋〉과 孫起陽이 쓴 〈舊本序〉가 있는데 이 〈舊本序〉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 道州朴昌寧慶傳與其弟慶胤謀所以鋟板廣布 而入梓之本亦未易得 盖道州舊有禮部善本 …… 完本蕩失 …… 朴公之所以不重刊舊本而永同本入刻者 非得已也 然以余觀之 道州本天順甲申所刊也 永同本萬曆癸酉新刻也 ……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小倉進平¹⁴⁾은 天順 甲申(1464년) 刊本과 萬曆 癸酉(1573년)에 刊行한 永同本の 두 종이 있는데 天順의 舊本은 蕩失되어 永同本을 底本으로 하여 萬曆 乙卯(1615년)에 朴慶傳와 慶胤 형제가 《禮部韻略》을 복각하였으며, (c) 《禮部韻略》(1573년)이 바로 永同本이라 하였는데, 이 (d) 《排字禮部韻略》 四卷이 바로 仙巖書院에 보관된 古版本으로부터 印刊하여 兪昌均 박사가 道州 萬曆本이라고 한 것과 동일한 것이다. (e) 《排字禮部韻略》 五卷(1678년)은 小倉進平의 기록에 의하면 卷末에 〈禮部韻略凡例〉가 붙어 있는데, 이는 中國 原本의 凡例가 아니고 이 책의 刊行에 관계된 것들이며 그 요지는 이 책의 舊本에 실린 너무 번거로운 註義를 생략하고 要旨를 취하였으며, 혹은 反切을 기록하기도 하였고 「新添」과 「舊添」

자를 추가하고 毛居正은 여기에 다시 1,402 자를 추가한 《增修互注禮部韻略》 五卷을 지칭하고 平水本은 淳祐十二年(1252년)에 劉淵이 편찬한 《壬子新刊禮部韻略》을 잘못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13) 中國의 전통 韻書는 平聲上·平聲下·上聲·去聲·入聲의 五卷으로 分卷되어 있으나 우리 땅의 《禮部韻略》은 上聲과 去聲이 合卷되어 있고 뒤에 《玉篇》 一卷이 추가되어 五卷이 되고 있다.

14) 小倉進平, 앞의 책, pp.504-506.

의 文字의 구별에 관한 것과 卷末에 〈訓民正音要旨〉·〈邵氏經世書聲音數〉(本名은 〈皇極經世聲音卦數〉)가 붙어 있다고 하였다. (f)《排字禮部韻略》五卷二冊의 卷頭에 있는 權璫의 〈重刊跋〉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 道州舊有此本 盖故縣監朴公慶傳所鈔梓也 孫氏之絃詳之矣 年代既曩毋論其板 卽其所印本亦多散佚 今朴君東傳慨然謀所以繼刊之 …… 君卽縣監公再從孫也…… 歲己未陽月上浣安東權璫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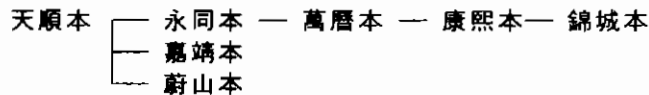
이로부터 朴慶傳와 慶胤 형제가 간행한 (d)《排字禮部韻略》四卷을 朴慶傳의 再從孫인 朴東傳가 己未(萬曆 四十七年; 康熙 十八年; 1679년)에 重刊하였음을 알 수 있고 附錄으로 《玉篇》이 있는데 卷頭 目錄에는 「新刊排字禮部玉篇」이라 하였고 本文 前後에는 「新編直音禮部玉篇」·「新編類聚禮部玉篇」·「新編類聚改正禮部玉篇」이라고 되어 있다 하였다. (g)《排字禮部韻略》五卷二冊은 京城帝國大學藏本으로 卷末에 「甲寅春月鏡城府刊」이라고 되어 있으나 그 年代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f)《排字禮部韻略》五卷二冊 보다는 오래된 듯하고 붙어 있는 《玉篇》은 (f)《排字禮部韻略》의 것과 같은 제목으로 되어 있다 하였다.

兪昌均 박사는 〈仙巖書院藏板禮部韻略에 대하여〉에서 〈舊本序〉와 仙巖書院에 소장된 〈十四義士錄〉에 수록된 權璫(1639~1743년)의 〈重刊跋〉로부터 小倉進平이 밝힌 내용을 재확인하여 〈舊本序〉에서 말하는 “道州舊有禮部善本”의 善本은 天順 甲申(1464년)에 간행된 것(天順本)이고 朴慶傳와 慶胤 형제가 간행한 (d)《排字禮部韻略》四卷(萬曆本)은 天順本을 底本으로 한 것이 아니라 萬曆 癸酉年(1573년)에 永同에서 간행한 것(永同本)을 底本으로 한 것이라 하였다. 또 天順本에 대해서는 (d)《排字禮部韻略》四卷(萬曆本)에 丁敏道가 쓴 〈重刊跋〉에 “昔者鄉有大提學金孟先此書”라고 하였는데, 이는 金孟이 이 고장에 있으면서 舊本(天順本)에 〈序〉를 썼다는 것이고, 丁敏道가 쓴 〈重刊跋〉과 함께 轉寫된 金孟(1420~1483년)의 〈序〉인 〈聖朝頒降排字禮部韻略序〉를 마침 제공받았는데 이 金孟의 〈序〉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고 하였다.

…… 五言起於李陵蘇武 七言起於武帝栢梁 ……若唐之李杜宋之程朱 以至千家詩輩 歷代取人亦以此爲矜式也 今天下混 車同軌書同文 立三場程式 以取士禮部於是哀集正音 上下平聲總三十字 上聲二十九 去聲三十 入聲十七 以爲字母 而其所部者 凡數百萬字也 字下各係音義出處 名曰禮部韻略 …… 翼成公黃喜俱天 …… 欲

刊廣布 未就而卒 今其孫黃致身義止 來守淸道郡 牛刀治暇請善刻緇 流出家傳一本 始手不半年斷工 其繼祖父之志以備 ……予翼成公門徒 且那人也 詳知始末 故敘其事 以弁其首云 天順甲申秋七月朔日 盆聲金孟子進序

아로부터 天順本은 黃喜가企圖했다가 이루지 못하고 그 孫 黃致身이 淸道 錦溪(지금의 錦川으로 書巖書院이 있는 곳)에서 간행한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외에 小倉進平이 관찰한 (b) 《新刊排字禮部韻略》 五卷(1524년)(嘉靖本)도 그 이름에 「新刊排字」가 있는 점이 萬曆本의 《玉篇》 目錄에 붙은 이름과 일치한 점 등으로 보아 天順本의 亞流일 가능성이 크고 (e) 《排字禮部韻略》 五卷(1678년)(蔚山本)은 〈訓民正音要旨〉·〈邵氏經世書聲音數〉가 붙어 있는 점은 특이하나 (f) 《排字禮部韻略》 五卷二冊(1679년)(康熙本)보다 1년 앞서 된 것이고 (g) 《排字禮部韻略》 五卷二冊(京城帝國大學藏本; 年代未詳)(鏡城本)도 卷末에 첨가된 《玉篇》의 성격으로 미루어 (f) 《排字禮部韻略》(康熙本)의 복각임이 분명하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그 계보를 밝혔다.



그리고 《玉篇》의 이름이 하나의 《玉篇》안에서도 일정하지 않고 「新刊排字禮部玉篇」·「新編直音禮部玉篇」·「新編類聚禮部玉篇」·「新編類聚改正禮部玉篇」이라고 한 것은 版本의 종류를 암시하는 것으로서 「新刊排字禮部玉篇」은 天順本에 이미 첨가되었을 것이며, 「新編直音禮部玉篇」은 永同本에서 改刪한 것일 것이고 「新編類聚禮部玉篇」은 道州本(萬曆本)에서, 「新編類聚改正禮部玉篇」은 康熙本에서 改刪할 때 붙인 이름일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2) 柳鐸一 教授 所藏本

筆者가 이 글을 쓸 때 湯民 柳鐸一교수님이 소장하고 있는 《禮部韻略》 두 종을 빌려주었는데, 한 종은 二冊으로 묶여져 있으며 一冊의 卷頭에는 權璿의 〈重刊跋〉과 孫起陽의 〈舊本序〉가 있어 이것이 곧 (f) 《排字禮部韻略》 五卷二冊(1679년)(康熙本)임을 알 수 있다. 내용은 물론 판형까지도 완전히 萬曆本과 동일한데 다

만 〈新刊排字禮部玉篇目錄〉上·下が 權堦의 〈重刊跋〉보다 앞인 卷頭に 있고 二冊에는 入聲과 《玉篇》이 묶여져 있음이 다를 뿐이다. 다른 한 종은 《玉篇》만 있을 뿐인데 紙質이나 版型이 앞에서 언급한 것과 다음에 언급할 高大本과도 판이하게 다른 모습으로 漢字의 글꼴이나 배열 등이 매우 整齊되어 있어 또 다른 한 版本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내용은 「新刊排字禮部玉篇目錄」이라 한 점에서부터 「新編直音禮部玉篇」·「新編類聚禮部玉篇」·「新編類聚改正禮部玉篇」이라 한 것과 내용도 완전히 萬曆本이나 康熙本과 동일하다¹⁵⁾. 이 판본은 柳교수님의 견해에 의하면 북방의 紙質이라 하였는데 이로 미루어 보면 小倉進平이 관찰한 “嘉靖三年甲申秋黃海道……”라는 刊記가 붙은 (b) 《新刊排字禮部韻略》五卷(1524년)(嘉靖本)과 같은 한 판본일 수도 있다고 추측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 玉篇의 이름이 天順本으로부터 永同本 萬曆本 康熙本을 거치며 추가 改刪되었다는 추정에 배치된다.

(3)高麗大學校 圖書館 所藏本

高麗大學校 圖書館의 金完燮文庫에 七卷三冊(本文五卷 玉篇二卷)의 《排字禮部韻略》 한 질이 소장되어 있는데 이는 위의 것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판본으로 보인다. 우선 天順本이 刻板本임이 거의 확실한데 高大本은 李朝 初의 乙亥字 活字本일 뿐 아니라 版型이 완전히 다르고, 특히 上聲과 去聲이 한 卷으로 묶인 우리 땅의 《禮部韻略》과는 달리 上聲과 去聲이 분리되어 結國 韻書 본문만 五卷으로 되어 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그 版本은 완전히 달라 보이나 본문의 내용이 완전히 萬曆本과 같으며 또 《玉篇》 目錄 역시 「新刊排字禮部玉篇」이라 하여 동일하고 내용 또한 같은 것으로 보면 天順本이나 혹은 같은 내용의 다른 한 판본에서 排版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필자가 관찰하였거나 이미 小倉進平이 관찰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우리 땅에 유포된 《禮部韻略》은 판본이 다르더라도 그 내용은 완전하게 일치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겠다. 高大本의 경우 上聲과 去聲을 分卷하고 있으며 그 체제가 萬曆本과 완전히 다르나 실제 내용은 일치한다. 심지어 小韻의 표시를 高大本이 「○」으로 분명히 한데 반하여 萬曆本은 아주 작은 「○」「●」「◇」 혹은 불규칙적

15) 다만 「新編直音禮部玉篇卷上」의 마지막 部首인 121木部 끝 글자 밑에 「古戀切 木皮以 絹可以爲衣」라는 註釋을 달았는데, 이는 이 版本에서 특별히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으로 누워 있는 「【」으로 표시하기까지 하며 심지어는 「【」와 「○」를 중복하여 표기한 곳이 있을 정도이고, 「新添」이나 「重添」의 경우도 평 문자와 反白 문자가 규칙 없이 쓰이기까지 하지만 그 내용이나 字의 배열 순서는 완전히 일치한다. 《玉篇》 역시 目錄을 卷頭에 두었건 卷末에 두었건, 혹은 그 판형이 완전히 다르다 하더라도 《玉篇》에 사용된 각종 명칭은 모두 「新刊排字禮部玉篇目錄」·「新編直音禮部玉篇」·「新編類聚禮部玉篇」·「新編類聚改正禮部玉篇」으로 같고 내용도 완전히 일치한다.

3.2.2. 《禮部韻略》의 특징과 由來

朝鮮의 《禮部韻略》은 한결같이 106韻으로 되어 있는데, 중국에서도 106韻과 「平水韻」의 유래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언급되었다. 熊忠의 《古今韻會舉要》에 실린 黃公紹의 《古今韻會》〈凡例〉에 “江南監本免解進士毛氏冕增修禮部韻略, 江北平水劉淵壬子新刊禮部韻略, 互有增字”라고 하여 이로부터 「平水韻」은 劉淵이 지은 것이라는 오해가 생겼으며, 또 邵長蘅(子湘)이 《古今韻略》〈例言〉에서 “理宗末, 江北平水劉淵, 又增四百三十六字, 名壬子新刊禮部韻略, …… 元時又有陰氏兄弟, 著韻部群玉, 其部分, 依劉氏刪併上聲之拯部, 存一百六部, 字數較劉氏刪減三千一百字, 存八千八百餘字, 此即今時通行韻本也.”라고 하여 106 平水韻은 劉淵이 지은 것이 아니고 陰時夫 형제가 지은 韻部群玉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오해가 생겼다¹⁶⁾. 이에 대해 清代의 錢大昕은 〈跋王文郁平水新刊韻略〉¹⁷⁾에서

得平水新刊韻略元槧本, 余假讀之, 前載正大六年己丑季夏中旬, 河間許古道眞敘; 其略云: 平水書籍王文郁……”

이라 하여 王文郁의 《平水新刊韻略》을 보았는데, 그 卷頭에 있는 許古의 〈敘〉에 “平水書籍王文郁”이라고 적혀 있었으며, 王文郁은 平水의 書籍의 官이었기 때문에 《平水新刊韻略》이라고 하였고 《金史地理志》에 의하면 平水縣은 平陽府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또 劉淵 역시 「平水」라고 題하였고 黃公紹 〈韻會凡例〉

16) 謝啓昆 《小學考》卷三十一, pp.27-28 〈壬子新刊禮部韻略考〉 참조. 王力 《中國音韻學》(商務印書館 北京, 1936), pp.474-475에도 수록 됨.

17) 錢大昕 〈跋王文郁平水新刊韻略〉은 張世祿 《中國音韻學史》(臺灣商務印書館 臺北, 1978) 下卷, p.144에도 수록되어 있음.

또한 “江北 劉氏”라고 하였는데 平陽과 江北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어찌 「平水」라고 하였는지 심히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한편 謝啓昆의 〈錄山西通志〉¹⁸⁾에 의하면 《山西通志書目》에도 “毛磨平水韻”이라고 하였는데 毛磨는 平水人으로서 金代 大定 十六年(1176년)에 校書郎을 지낸 사람이므로 許古의 〈敍〉에 의하면 王文郁의 《平水新刊韻略》은 正大 六年(1229년)에 편찬된 것이므로 毛磨의 《平水韻》보다 늦게 나왔으나 《壬子新刊禮部韻略考》보다는 빨리 나온 것이라 하였다. 또 106韻에 대해 王國維는 〈書王文郁平水新刊韻略張天錫草書韻會後〉¹⁹⁾에서

余又見金張天錫草書韻會五卷，前有趙秉文序，署至大八年二月。……凡一百六部，與王文郁韻同。王韻前有許古序，……前乎張書之成才一年有半。又王韻刊於平陽，張書成於南京，未必即用王韻部目，是一百六部之目并不始於王文郁。蓋金人舊韻如是，王張皆用其部目耳。……

이라 하여 金代 正大 八年(1231년)에 張天錫이 편찬한 106韻의 《草書韻會》五卷을 보았는데, 王文郁의 《平水新刊韻略》은 이보다 겨우 一年半 앞서 平陽에서 된 것이고 張天錫의 《草書韻會》는 南京(남쪽의 서울; 臨安; 현재의 杭州)에서 된 것이므로 반드시 張天錫의 《草書韻會》가 王文郁의 《平水新刊韻略》의 韻目を 보고 썼다고는 할 수 없으니 106韻은 王文郁의 《平水新刊韻略》에서 처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아마도 106韻으로 된 金나라 사람의 옛 韻書가 있어 王文郁과 張天錫이 이를 따랐을 뿐일 것으로 보았다. 또 《平水新刊韻略》이나 《壬子新刊禮部韻略》이 모두 「新刊」이란 冠名을 붙이고 있는데 이는 이 두 韻書가 따로 原本이 있음을 암시한다 할 수 있겠다. 이에 대한 張世祿의 견해²⁰⁾에 의하면 韻部를 합병한 것은 원래 金나라의 法습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金나라는 宋代의 제도를 받아 들여 詞賦로 取士하였는데, 이 때에는 宋의 官書를 택하여 韻을 併合하다 보니 106韻이나 107韻이 생겨나게 되었고 王文郁의 《平水新刊韻略》이나 張天錫의 《草書韻會》 및 劉淵의 《壬子新刊禮部韻略》이 모두 金의 官書를 기준으로 오직 字와 注를 추가하였을 뿐이란 것이다. 이 점에 대한 王國維의 견해²¹⁾에 의

18) 謝啓昆, 《小學考》卷三十三〈錄山西通志〉참조.

19) 王國維, 《觀堂集林》卷八, pp.26-27 〈書金王文郁平水新刊韻略張天錫草書韻會後〉 참조. 王力, 앞의 책, pp.475-476 및 張世祿, 앞의 책, p.145에도 수록되어 있음.

20) 張世祿, 앞의 책, pp.129-130.

하면 官書에 字나 注는 추가할 수 있지만 절대로 韻을 고칠 수는 없는 것이므로, 宋의 《禮部韻略》도 200여 년이나 科試用으로 쓰였는데 후에 增字 加注하게 되자 여러 신하의 疏請으로 國子監에서 검열한 후 官書로 받아들여도록 하였으며, 金나라는 宋의 과거제도나 用韻의 標準 따위를 그대로 받아들이나 宋의 《禮部韻略》을 당시의 현실에 맞추고 또 응용상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通用되는 각 韻을 合併하고 심지어 通用되지 않는 韻까지 併合하여 107部 혹은 106部로 官韻을 제정하였다는 것이다.

이상으로 106韻의 《禮部韻略》은 金나라의 官書였으며 「新刊」이란 이름이 붙은 《禮部韻略》은 이 官書를 바탕으로 편찬된 것임을 알아보았다. 따라서 朝鮮에서 복간된 《禮部韻略》의 原本도 당연히 金나라의 것이었을 것이며 특히 朝鮮에서 간행된 《禮部韻略》은 「排字」란 冠名이 붙어 있는데 이는 金나라의 《禮部韻略》을 그대로 복간한 것이 아니라 朝鮮의 실정에 맞도록 다시 排版한 것이란 뜻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朝鮮에서 복간된 《禮部韻略》은 分韻이나 收錄 漢字 등에서는 金代의 그것과 차이 나지 않겠으나, 排字하는 과정에서 그 체제는 특히 上聲과 去聲을 한 卷으로 묶는 등의 中國의 그것과 다른 독특한 형식을 지니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朝鮮에서 科擧 준비나 詩文에의 응용에 朝鮮의 실정에 맞도록 고쳐 활용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점은 뒤에 언급할 《禮部玉篇》이나 《三韻通考》와 짝을 이루는 체제의 변화 수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2.3. 《禮部韻略玉篇》의 특징과 由來

《玉篇》이란 원래 梁나라 武帝 大同 九年(543년)에 太學博士인 顧野王(519~581년)이 漢字의 형태에 따라 542部首로 분류·편집한 字書이다. 部首의 배열은 漢字의 뜻에 따랐고 《說文解字》의 540部首보다 2개가 많다²¹⁾. 이 《玉篇》은 이후 여러 번 수정을 거치게 된다. 唐 肅宗 上元 元年(760년)에 孫強이 수정한 것이 《上元本玉篇》이고 宋 眞宗 大中祥符 六年(1013년)에 陳彭年 등이 勅命으로 《上元本玉篇》을 증보한 것이 《宋本玉篇》이다. 이 《宋本玉篇》에 僧 神珙이 《四聲五音九弄反紐圖》를 붙이고 《大廣益會玉篇》이라 했는데 이것을 《廣韻玉篇》 혹은

21) 王國維, 《觀堂集林》卷八, pp.26-27 〈書金王文郁平水新刊韻略張天錫草書韻會後〉 참조.

22) 顧野王의 《玉篇》은 宋代에 이미 散佚되었는데, 淸의 公使였던 黎庶昌이 일본에 散在한 62部 2052字를 收拾하여 三卷 半으로 묶어 《古逸叢書》에 수록하였다.

《宋本玉篇》이라 한다.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玉篇》으로는 宋本과 元本이 있는데 宋本은 清代의 張士俊 澤存堂 刻本과 曹寅 揚州 詩局 刻本の 두 종이 있고 元本으로는 《四部叢刊》 影印本이 있는데 이는 실제로 顧野王之 《玉篇》과는 완전히 다른 字書이다.

원래 韻書는 韻에 따라 漢字를 무원칙하게 배열하였으므로 한 글자의 韻을 알고 있다하더라도 韻書에 기록된 그 글자의 정보를 검색하기란 무척 번거로웠다. 이러한 불편을 제거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한 韻에 속한 글자에 원칙을 세워 배열한 韻書가 《五音集韻》이다. 여기에서는 한 韻 밑에 규칙 없이 漢字를 배열하던 방법을 개선하여 매 韻마다 36字母의 순서로 배열하였고 이후의 《韻會》나 《音韻闡微》도 이러한 방법으로 배열하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한 韻 안의 글자를 배열하는 규칙을 세운 것 뿐이었고 字形에 따른 檢字 방법은 아니었으므로, 韻書의 글자를 字形에 따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玉篇》을 편찬하게 되었다. 《廣韻玉篇》이 《廣韻》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한 字形 檢字用 字書로 볼 수 있을 것이고, 《集韻》에 副應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字書로 편찬된 것이 《集韻》보다 조금 뒤에 王洙 등이 편찬한 《類篇》인데, 이 字書는 《說文解字》와 《玉篇》 部首를 참고하여 544部로 나누었고 한 部首 안의 글자는 韻目的 순서에 따라 배열하였다. 金代의 崇慶 元年(1211년)에 韓道昭가 편찬한 《五音集韻》과 相應한 字書는 韓孝彥이 편찬한 《四聲篇海》로 여기에서는 579部수로 나누었으나 후에 그의 아들 韓道昭에 의해 444部수로 병합되었다. 각 部首 밑에 字를 배열하는 방법도 차츰 발전하여 遼의 聖宗 統和 十五年(997년)에 완성된 《龍龕手鑑》에서는 242部수를 平·上·去·入聲에 의한 四卷으로 나누고 각 卷에 여기에 해당하는 部수를 배열하고 그 部首 밑에 다시 四聲으로 나누어 글자를 배열하여 檢索이 편리하도록 하였으며 《四聲篇海》에서는 部수를 36字母의 순으로 배열하고 同一 字母에 속하는 部수는 平·上·去·入의 순으로 나열하고 각 部수에 속하는 글자는 筆劃順으로 배열하였다.

韻書에 따르는 字書를 편찬하여 檢字에 편의를 도모하는 노력은 우리 땅에서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노력의 일단이 崔世珍이 中宗 三十一年(1536년)에 《古今韻會舉要》의 글자를 部수에 따라 분류·수록하여 편찬한 《韻會玉篇》에 잘 나타난다. 《韻會玉篇引》에서 崔世珍은 「聲」에 따라 분류하면 그것은 韻書이고, 이를 다시 「形」에 따라 분류하여 玉篇을 만들어야 쉽게 字形으로 찾아 그 韻을 알 수 있는

것인데 《韻會》(古今韻會舉要)는 「聲」에 따른 분류만 있고 「形」에 따른 분류가 없으니 「韻」만 있고 「篇」은 빠진 꼴이 되어 後學들이 깊은 유감으로 여길 수 밖에 없어 《韻會》에 있는 글자를 취하여 《玉篇》을 만들었다고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大抵凡字必類其聲而爲之韻書 則亦宜必類形而爲之玉篇 然後乃可易於指形尋字 而得考其韻矣 今此韻會既類其聲不類其形 是乃存其韻而缺其篇 宜乎後學之深有所憾者也 是故今之觀韻會者 其爲索篇 …… 只取韻會所收之字彙成玉篇 ……

실제로 《韻會玉篇》에서는 上卷을 「天部」「風部」「日部」「月部」「雲部」 등의 차례로 109部, 下卷에 「益部」「多部」「東部」 등의 순으로 230部, 모두 339部로 나누었다. 또 部首 밑에는 平·上·去·入으로 나누고 또 平·上·去·入 아래는 획수에 따라 글자를 배열하였는데 이러한 部首 및 글자 배열 법은 中國에도 없는 독특한 형식이다. 이러한 전통은 《三韻聲彙》(1751년)와 《三韻聲彙補篇玉篇》, 《奎阜全韻》(1792년 1796년)과 《全韻玉篇》의 관계에서도 보인다.

中國에서 간행된 《韻略》이나 《禮部韻略》에 이러한 字書가 간행되었다는 소식은 들을 수 없으나 우리 땅에 유포된 《禮部韻略》에는 이에 따른 字書가 편찬되었다. 小倉進平은 (a) 《新刊排字禮部韻略》五卷(1300년) 중 一卷이 紙質이나 字體가 본문과 동일한 《玉篇》인 흔적이 있다²³⁾고 하였고 또 天順 甲申(1464년)에 간행된 《禮部韻略》에 상응하는 字書가 《玉篇直音》(世祖九年; 1464년)이라고 하였다²⁴⁾. 뿐만 아니라 앞에서 이미 언급한 兪昌均 박사가 추정 한 것과 같이 「新刊排字禮部玉篇」은 天順本에 이미 첨가되었을 것이며, 永同本에서는 「新編直音禮部玉篇」으로, 道州本(萬曆本)에서는 「新編類聚禮部玉篇」으로, 康熙本에서는 「新編類聚改正禮部玉篇」으로 그 명칭이 改刪함에 따라 바뀌어 가면서까지 字形에 의한 檢字가 확실하도록 배려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康熙本에 붙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朴珣의 〈後記〉²⁵⁾에서도 다음과 같이 《三韻通考》와 이러한 종류의 《玉篇》이 비록 그 명칭은 다르지만 모두 《禮部韻略》에서 나와 함께 사용하는 것임을 말해 주고 있다.

23) 小倉進平, 앞의 책, p.559.

24) 小倉進平, 앞의 책, pp.555-556 및 p.559.

25) 1979년 菊軒公의 門中에서 再印하여 배포한 《排字禮部韻略》의 卷末에 붙여 두었음.

…… 又有三韻通考及玉篇等 韻名目雖殊 皆本於禮部韻 ……

이 말은 《三韻通考》와 《禮部玉篇》이 모두 《禮部韻略》에서 나와 함께 사용되는 것임을 말한 것인데 실제로 《三韻通考》는 《禮部韻略》속에 있는 글자를 그대로 106韻의 舒聲韻만 三韻相配式으로 平聲 아래 上聲 과 去聲을 배치하고 入聲은 따로 분리하여 놓았다. 이러한 체제는 우리 땅의 《禮部韻略》이 平聲 다음에 上聲 과 去聲을 한 卷으로 編纂한 것과 같은 맥락의 체제로서 《禮部玉篇》과 三位一體가 되도록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新刊排字禮部玉篇目錄〉上에 「一」「二」「三」「上」「玉」「珏」「每」……「林」「木」과 같이 121部, 〈新刊排字禮部玉篇目錄〉下에 「艸」「市」「井」……「壹」「宮」「北」「秝」와 같이 162部부터 364部까지 나열하고 每 部首 위에는 「音壹」「音二」「音三」「音上」과 같이 대부분 直音法으로 部首의 음을 달았는데 간혹 「於及」「居良」「尼呂」와 같이 反切法으로 달기도 했고 部首 밑에는 검색을 위한 일련번호를 붙였다. 또 〈新刊排字禮部玉篇目錄〉下 다음에 「篇部下無字」라하고 「會, 儉檜二音去九」「畢, 必入七」과 같이 《玉篇》 본문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음과 《禮部韻略》에서의 소속 韻을 밝혔는데 이 글자들은 《玉篇》 본문에 누락되어 후에 추가하여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午」자의 경우 19 人部에 들어가 있는데도 여기에 다시 기록한 것을 보면 《玉篇》이 붙여진 후에 《排字禮部韻略》을 고쳐 쓴 것으로 추정된다.

《玉篇》 본문에서는 「新編直音禮部玉篇卷上」이라 하고 目錄의 順番에 따라 部首를 배열한 다음 한 部首 안에서는 筆劃順으로 글자를 배열하고 매 글자에 直音과 《禮部韻略》에서의 소속 韻을 밝혔다. 간혹 直音法을 쓰지 않고 反切法으로 음을 밝힌 경우도 있다. 그런데 康熙本에서는 卷上의 마지막 121木部の 순번이 一百二十二로 誤刻되어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柳鐸一교수 소장본의 卷上 마지막 字에 주석을 단 것이 이 판본과 다른 점과 비교하여 보면 이 부분이 후에 보충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卷上의 끝에는 「新編類聚禮部玉篇卷上」이라 하고 이어서 「新編類聚禮部玉篇卷下」라고 한 뒤 一百二十二艸部부터 三百六十四秝部까지 卷上과 같은 방법으로 기록하고 그 끝에는 「新編類聚改正禮部玉篇卷下」라고 하였는데 여기에 「改正」이란 두 字가 추가된 것은 역시 이러한 《玉篇》이 여러 번 추가되거나 개정되었기 때문에 첨가한 것으로 보인다.

《新刊排字禮部玉篇》의 이와 같은 部首 分類法은 《大廣益會玉篇》의 部首都類法과 약간 유사하긴 하나 部首의 數 및 배열법 등이 완전히 달라 朝鮮에서 창안된 것임이 확실하다.

3.2.4. 《禮部韻略》과 다른 韻書와의 관계

《排字禮部韻略》은 科擧 試驗 準備用으로 널리 쓰인 韻書이고 여기에 수록된 글자를 字形으로 분류하여 檢字할 수 있도록 한 字書가 《排字禮部韻略玉篇》이다. 그러나 《排字禮部韻略》은 平·上·去·入聲의 순서로 글자를 배열하였기 때문에 이를 실제로 활용하기에는 무척 번거롭다. 그래서 실제로 韻을 맞출 때 平·上·去의 同韻을 한 눈에 참고할 수 있도록 《排字禮部韻略》속에 있는 글자를 그대로 106韻의 舒聲韻만 三韻相配式으로 平聲 아래 上聲 과 去聲을 배치하고 入聲은 따로 분리하여 체제를 바꾸어 놓은 것이 《三韻通考》이다. 入聲을 따로 분리한 것은 이때 이미 入聲이 소실되어 실제의 押韻에는 활용할 수가 없었던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추측된다. 《三韻通考》는 현재까지 정확한 刊行年代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26) 收錄字나 字順이 《排字禮部韻略》과 동일한 점과 수록자 밑에는 直音이나 反切도 없이 漢字만 나열하고 그 밑에 2·3 字 정도의 字釋만 붙여 둔 점으로 보면 분명히 《三韻通考》는 《排字禮部韻略》에 韻圖의 성격을 가미하여 《禮部玉篇》과 함께 사용하도록 편찬한 것이다. 이는 《排字禮部韻略》이 平聲 다음에 上聲과 去聲을 한 卷으로 編纂한 것과 같은 맥락의 체제로 엮어진 것에서도 그 일면을 볼 수 있으며, 《禮部韻略玉篇》과 三位一體가 되도록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禮部韻略》에 이어 《古今韻會》 혹은 《古今韻會舉要》²⁷⁾가 李朝에서는 중요시되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古今韻會舉要》는 당시의 북방 현실음을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韻書를 편찬하는 데도 많이 참고하게 되는데 이 韻書가 언제 우리 땅에 수입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古今韻會》에 대해 언급한 기록을 보면 아래와 같다.

上王召趙末生元肅語曰 近日鸛鷓來鳴 吾不以爲怪 然離宮避居 自古而然 且韻會釋鷓字曰鷓 鳥名 鳴則凶 吾欲避居(世宗實錄 元年 十一月; 1419년)

26) 《三韻通考》에 대해서는 이 논문에 이어지는 다음 편의 논문에서 고찰할 예정임.

27) 《古今韻會》·《古今韻會舉要》에 대해서는 이 논문에 이어지는 다음 편의 논문에서 고찰할 예정임.

丙申 命集賢殿校理……敦寧府注簿姜希顔等 詣議事廳以諺文譯韻會……(世宗實錄 二十六年 甲子 二月;1443년)

앞의 기록에 나타나듯이 世宗 때에 《韻會》는 檢字書로 쓰였고 또 諺解의 대상이 되기까지 한 것²⁸⁾을 보면 이 때에 상당히 중요시 한 것은 틀림이 없어 보이며 나아가 朝鮮式의 韻書를 편찬하는 데도 크게 참고하게 된다. 이러한 점은 《四聲通攷》·《洪武正韻譯訓》 등의 凡例나 〈序〉에도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黃公紹韻會入聲……(四聲通攷凡例 제8조)

蒙古韻與黃公紹韻會 入聲亦不用終聲何耶(洪武正韻譯訓 〈序〉)

黃公紹作韻會字音 則亦依蒙韻……今撰通解亦取韻會注解爲釋(四聲通解凡例 제26조)

뿐만 아니라 《四聲通解》의 앞에는 「韻會三十五字母之圖」까지 만들어 두고 참고하였다. 《古今韻會舉要》三十卷은 李植(宣祖 甲申; 1584년~仁祖 丁亥; 1647년)이 간행하였는데 《韻會》가 中國과 朝鮮의 音은 서로 달라 音律에는 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글자의 모양과 뜻 古今 간의 雅俗 및 그 변화를 보는 기준이 되므로 經傳에 대해 토론 및 교감을 하는 데는 매우 중요하다고 아래와 같이 그 跋文에서 밝히고 있다.

……我國方殊音別 雖未能盡曉清濁聲響而通於律呂 卽於意象訓釋古今雅俗源委正變 則必須據此而會通 然後可以討論經傳勘證製作 ……

이와 같이 《韻會》는 韻學을 위해서 많은 참고가 되기도 했지만 檢字를 위해서도 朝鮮朝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취급하였는데 이러한 태도는 이후 崔世珍이 中宗三十一年(1536년)에 《韻會》를 바탕으로 《韻會玉篇》을 간행한 점에서도 보인다. 물론 《禮部韻略》을 참고하여 《古今韻會舉要》를 편찬하였다는 《古今韻會舉要》〈凡例〉의 설명이 있지만 여기서의 《禮部韻略》은 朝鮮의 《禮部韻略》이 아니다. 나아가 《東國正韻》에서도 《(排字)禮部韻略》을 참고하였다는 기록은 보

28) 여기의 「韻會」가 가리키는 것에 대해서는 이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편의 논문에 고찰할 예정이다.

이지 않을 뿐 아니라 崔世珍의 《韻會玉篇》〈引〉에서는 「中原雅音」으로 字音을 바로잡아 《洪武正韻》을 간행하게 되어 字體가 바로잡히고 音學이 확실해졌는데도 詞家들은 한결같이 《禮部韻略》으로 돌아가 聲律을 맞추고 이를 중히 여기며 「正音」을 따르지 않는다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一以中原雅音釐正字音 刊定洪武正韻 然後字體始正 而音學亦明矣 然而詞家聲律之用一皆歸重於禮部韻略 而不從正韻者何哉

이는 이때에 이미 官書인 《洪武正韻》이 간행되었으므로 이를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인들은 《禮部韻略》을 따르고 있음을 지적한 것인데 《洪武正韻》은 現實音을 반영하지 못한 韻書이기 때문에 문인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없는 韻書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적을 한 것은 世宗 이래로 中國의 韻書는 詩文에의 응용보다는 韻學을 하기 위한 音韻學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禮部韻略》과 같은 詩文에의 응용을 통한 科擧 準備 및 詩作에 주로 쓰이는 韻書는 타 韻書의 간행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韻略》은 《廣韻》과 같은 시기인 宋 眞宗 景德 四年(1007년)에 출간되었고 《廣韻》에 이어 宋 仁宗 景祐 四年(1037년)에는 丁度 등이 칙명으로 《集韻》과 《禮部韻略》을 편찬하였는데, 《禮部韻略》은 본시 科擧 準備用 官書였다. 현재까지 전해지는 《禮部韻略》은 南宋 理宗 三年(1230년) 袁文煊의 〈序〉와 理宗 景定 五年(1264년) 郭守正의 〈序〉가 卷頭에 붙어 있는 《附釋文互注禮部韻略》 五卷과 南宋의 毛晃이 增注하고 毛居正이 校勘 重增한 《增修互注禮部韻略》 五卷이다. 이때까지의 韻書는 모두 206으로 分韻된 것이고, 이 206韻 체계를 최초로 현실음에 맞게 병합한 韻書가 金代의 崇慶 元年(1211년)에 韓道昭가 편찬한 《五音集韻》이다. 이러한 韻의 현실음 적용 현상은 북방에서 계속 일어나 소위 「平水韻」이라고 하는 106韻으로 된 韻書가 북방의 金나라에 있었고 이를 본 받아 金代 正大 六年(1229년)에 王文郁이 《平水新刊韻略》을, 金代 正大 八年(1231년)에 張天錫이 《

草書韻會》를 편찬하며, 理宗 淳祐 十二年(1252년)에는 劉淵이 107韻의 《壬子新刊禮部韻略》을 편찬하게 된다. 이는 이들 書名에 「新刊」이란 冠名이 붙어 있음으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金代의 106韻 《禮部韻略》은 같은 과목의 科試를 보았던 高麗에 유입되어 널리 유포된 것으로 보이며, 적어도 高麗 末에는 복각되기 시작하여 朝鮮朝에 여러 版本이 나타날 정도로 널리 유포되었다.

朝鮮에서 간행된 《禮部韻略》은 모두 106韻으로 「排字」란 冠名이나 「新刊排字」란 冠名을 붙이고 있는데 이는 金代의 《(新刊)禮部韻略》을 그대로 복각하지 않고 上聲과 去聲을 한 卷으로 묶는 따위의 朝鮮의 실정에 맞도록 다시 排版하여 간행한 것으로 이는 朝鮮에서 中國의 韻書를 수용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朝鮮에서 간행된 《禮部韻略》에는 모두 《玉篇》이 붙어있는데 그 目錄이나 本文의 分卷 名稱이 각기 「新刊排字禮部玉篇」·「新編直音禮部玉篇」·「新編類聚禮部玉篇」·「新編類聚改正禮部玉篇」으로 다른데 이것은 《禮部韻略》을 사용해 가면서 《玉篇》에 누락된 글자 따위를 삽입하는 등의 수정 작업을 해간 결과로 보인다. 이 《玉篇》은 「一」「二」「三」「上」「玉」「珏」……「林」「木」「艸」「市」「井」……「壹」「宮」「北」「秣」와 같이 364部로 나누고 있고 部首 밑에는 劃數에 따라 글자를 배열하였는데 이러한 部首 분류법은 中國의 어떤 《玉篇》과도 다른 朝鮮式의 방법이고 이는 또 《韻會玉篇》과도 다르다.

朝鮮의 《禮部韻略》과 《禮部韻略玉篇》은 《三韻通考》와 짝을 이루어 科試 준비용이나 詩作의 참고용으로 활용되었다. 《禮部韻略》을 근거로 그것의 檢字用 字書로 《禮部韻略玉篇》을 편찬하고, 간편하게 韻字를 점검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禮部韻略》의 收錄字와 순서를 그대로 《禮部韻略》의 上聲과 去聲이 合卷된 전통을 살려 三韻相配式으로 再編한 것이 《三韻通考》이다. 이러한 上聲 去聲을 合卷하는 방법이나 三韻相配式도 朝鮮에서만 보이는 특이한 형태이다.

朝鮮에서는 《禮部韻略》과 《禮部韻略玉篇》을 줄곧 科試 準備用으로 애용하였지만 이것을 韻學의 대상으로 보지는 않았다. 그래서 韻學을 하는 데는 이 韻書를 참고하지는 않았고 또 《東國正韻》등의 다른 韻書를 편찬하는 데도 참고 대상이 되지 못했다. 이는 《禮部韻略》과 《禮部韻略玉篇》이 오로지 科試 준비를 위한 실용의 韻書이므로 전통 韻學을 위한 韻書로 간주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參考書目>

- 《韻略》
《禮部韻略》數種
《排字禮部韻略》數種
《排字禮部玉篇》數種
《古今韻略》
《三韻通考》朝鮮版
《三韻通考》文海堂藏版
《古今韻會學學》
《韻會玉篇》
《東國正韻》
《洪武正韻》
《龍龕手鏡》
《龍龕手鑑》
《高麗史》
《世宗實錄》
《洪武正韻譯訓》
《四聲通解》
王國維 觀堂集林
錢大昕 跋王文郁平水新刊韻略
謝啓昆 小學考
小倉進平 增訂 朝鮮語學史(刀江書院 1940 大提閣 影印本 1986)
姜信沆 國語學史(서울 普成文化社 1986)
俞昌均 國語學史(서울 螢雪出版社 1988)
徐炳國 新講國語學史(서울 學文社 1978)
권재선 국어학 발전사(大邱 우골담 1988)
文蕪奎 中國古代音韻學(서울 民音社 1987)
康寔鎭 「老乞大」「朴通事」研究--諸書之著成及其書中漢語語音語法之析論--(臺北 學生書局 1985)
戴震 聲韻考 卷一, 二
劉復 魏建功 羅常培合編 十韻匯編(北京 北京大學 1935)
周祖謨 唐五代韻書集存(北京 中華書局 1983)

張世祿 中國音韻學史(商務印書館 北京 1938 初版, 臺北 1978 五版)

胡樸安 中國文字學史(臺北 商務印書館 1978)

王力 中國音韻學(北京 商武印書館 1936)

董同龢 漢語音韻學(臺北 臺灣學生書局 1974)

※ 본 논문을 쓸 때 귀중히 所藏하던 《禮部韻略》 두 版本과 《三韻通考》의 朝鮮本 및 日本 所藏本 등을 빌려주신 湯民 柳鐸一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김희준 교수가 高大本을 電送해 올 수 있도록 도와 준 점에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하여 밝혀 둔다.

韓愈 散文의 內容分析考

—政治批判을 중심으로—

朴 璟 實*

<目 次>

- | | |
|---------------|--------------|
| 1. 序 論 | 4. 腐敗한 政治 實體 |
| 2. 政治 批判의 出發點 | 5. 結 論 |
| 3. 官吏의 諸 形態 | <參考文獻> |

1. 序 論

韓愈(768-824)는 唐代의 문학 이론가이면서 중국 문학사상 손꼽히는 散文家이다. 그는 “文道合一”의 이론과 “不平則鳴說”을 散文創作의 핵심 사상으로 삼았다. 그는 특히 문장을 現實 反映의 산물이라 간주하여 “不平則鳴說”을 주장하였는데, 그의 작품 <送孟東野序>에서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무릇 사물은 그 평정을 잃으면 우는소리를 낸다.……사람이 언어 방면에서도 이와 같이 마음에 부득이 한 것이 있는 연후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의 노래는 사모하는 것이 있고 그들의 울음은 그리워하는 것이 있다. 무릇 입에서 나와서 소리를 형성하는데 모두 불평의 요소가 존재해 있는 것이다.

(大凡物不得其平則鳴.……人之于言也亦然, 有不得已者而後言, 其歌也有思, 其哭也有懷. 凡出乎口而爲聲者, 其皆有弗平者乎.) 《韓昌黎文集》 제19권

* 蔚山大 中語中文學科 副教授

韓愈는 “不得已者而後言”이라 하여 자신이 처한 시대를 정치적인 암흑 시기라 간주하고 “不平”한 마음으로 文學을 통하여 현실 문제를 비판하였다. 이것은 古文을 明道의 도구로 파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실 비판의 수단으로도 간주한 것이다. 그러므로 韓愈는 儒家思想이 충만한 문장 이외에도 심도 깊은 현실 내용을 취급한 산문을 창작하였다.¹⁾

이에 本稿에서는 韓愈의 “不平則鳴”이론을 기초로 한 散文 중 정치 및 사회의 부패 현상을 고발한 작품의 내용을 분석하여 작자의 의도와 문학상의 특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정치 비판의 원초적 원인 제공이 된 인재 등용에 있어서의 불공평과 다양한 관리들의 형태, 부패한 정치 실체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2. 政治 批判의 出發點

韓愈는 스스로 학식과 수양을 겸비한 인재라 생각하고 그 뜻이 세상에서 전개되지 않은 것에 대한 비분한 감정을 “不平”으로 노출하여 “不平則鳴”하였다. 그리하여 이 “不平”은 곧 인재 등용의 불공평으로 표출되었다. 그러나 이것을 개인의 원망과 실의에 국한시키지 않고 객관화하여 국가 차원의 문제로 진일보시켜 부패한 정치 현실을 폭로하였다.

그가 파악한 唐朝의 부패한 정치 현실이 발생하게 된 주요 원인은 다양한 관리들의 부패 작태에서 비롯된다고 간주하고 그러한 관리들의 부패는 통치자가 取人之術을 선용하지 못하여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지 않고 무능한 小人들을 등용하여 정치를 위임한 데에서 파생되었다고 여긴 것이다. 따라서 韓愈가 부패한 현실 정치를 비판하게 된 출발점은 인재 선발의 불공평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재된 不平의 심정은 그의 散文 작품에서 소상하게 밝히고 있다.

세상에는 伯樂이 있고 난 뒤에 千里馬가 있다. 千里馬는 항상 있지만 伯樂은 항상 있지 않다. 때문에 비록 名馬는 있지만 마부의 손에서 모욕당하고 일반적인 말과 같이 마구간에서 그의 생명을 소진하고 있어 千里馬라고 칭할 수 없다. 千里馬는 한번 먹는데 식량 一石(10斗)를 다 먹는다. 말을 먹이는 사람은 말이 하루에 千里를 가는 지 모르고 먹인다. 이 말은 비록 千里를 가는 능력이 있어도 배부르

1) 吳小林, 《唐宋八大家》(合肥, 黃山書社, 1990. 10), 25쪽.

게 먹지 못하면 힘이 부족하여 재능과 좋은 품성이 나타나지 않고 심지어 보통 말과 같은 같은 수준도 될 수 없으니 어찌 하루에 千里를 가는 것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 말을 부리는데 千里馬를 다스리는 방법으로 하지 않고 그 재능을 다 발휘할 수 있게 충분히 먹을 수 없어 말은 우는데 마부는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어 말채찍을 들고 말을 향하여 이르기를: “천하에는 千里馬이 없구나! 아, 설마 진짜 千里馬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 그것은 사람들이 실제로 千里馬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世有伯樂, 然後有千里馬. 千里馬常有, 而伯樂不常有. 故雖有名馬, 祇辱于奴隸人之手, 駢死于槽枥之間, 不以千里稱也. 馬之千里者, 一食或盡粟一石. 食馬者不知其能千里而食也. 是馬也, 雖有千里之能, 食不飽, 力不足, 才美不外見, 且欲與常馬等不可得, 安求其能千里也? 策之不以其道, 食之不能盡其材, 鳴之而不能通其意, 執策而臨之曰: 天下無馬. 嗚呼, 其真無馬耶? 其真不知馬也.) (雜說) 제4편 《韓昌黎文集》 제11권

이 문장은 고대 伯樂의 典故²⁾를 이용하여 馬에 대한 故事를 시종 일관 언급하고 있지만 실은 馬에 비유하여 인재 문제를 심도 있게 접근하고 있다. “世有伯樂, 然後有千里馬. 千里馬常有, 而伯樂不常有”의 구절을 통하여 인재를 발견하려면 먼저 인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이 글의 핵심 논지를 一正, 一反의 표현 기법으로 피력하였다.

원대한 정치적 포부를 지닌 韓愈는 관직을 구하고자 세 차례에 걸쳐 宰相에게 올리는 편지를 쓰는 등³⁾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기용되지 못하였다. 그 이후에 증용은 되었지만 閑職에 머물러 있다가 유배를 당하여 내심 불만족한 심정이 팽배해 있었다. 이에 千里馬를 자신에 비유하고 唐나라 중기의 사회 현실을 폭로하고 시대적 병폐를 지적하였다. 韓愈가 처한 德宗·憲宗 때에는 藩鎮세력을 섬멸하고 반란을 평정하는 등 唐나라 중흥을 꾀하고자 謀臣과 勇將을 대거 기용하였으나 덕이 있고 학식이 있는 자들은 말단 관리에 머물러 포부를 펼칠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인재를 발견하고 기용하며 인재 양성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 결핍되어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아울러 千里馬가 伯樂을 만나지 못한 비분을 억압받는 지식분자의 심정에 비유하여 울분을 토로하였다.

2) 伯樂에 관한 故事는 《戰國策·楚策》과 《莊子·馬蹄篇》에서 보이는데 伯樂은 馬을 잘 다스리는 春秋時代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3) 韓愈는 세번째 博學宏辭科에 응시하였으나 낙방하여 貞元 11년에(795) <上宰相書>·<後十九日復上書>·<後二十九日復上書> 등 세 차례에 걸쳐 求職을 원하는 서신을 올렸으나 좌절감을 맛보아야만 했다.

위와 같은 맥락의 문장으로 <獲麟解>가 있다.

그러한즉 비록 麒麟이 있어도 그 麒麟됨을 알지 못한다.……알지 못한 즉 어떤 이가 그것을 不祥하다 해도 당연한 것이다. 麒麟이 나오면 반드시 聖인이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이다. 麒麟은 聖인을 위하여 출현하는 것이다. 성인은 반드시 기린을 안다. 기린은 진실로 不祥이 아니다. 또 이르기를 麒麟이 麒麟되는 것은 德으로써 하는 것이지 형체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기린이 나타나는데 성인을 기다리지 않으면 祥瑞롭지 않다 해도 마땅하다.

(然則雖有麟, 不可知其爲麟也.……不可知, 則其謂之不祥也亦宜. 麟之出, 必有聖人在乎位, 麟爲聖人出也. 聖人者必知麟. 麟之果不爲不祥也. 又曰:麟之所以爲麟者, 以德不以形, 若麟之出不待聖人, 則謂之不祥也亦宜.) <獲麟解> 《韓昌黎文集》 제12권

麒麟은 원래 전설상의 靈物로 형상이 일반 동물과 같지 않아 古人들은 성인이 나라를 다스리는 태평 성대에 출현한다고 믿는 祥瑞로움의 상징 동물이다. 그러나 麒麟이 혼란한 시대에 나타나 사람들이 포획하는 不祥의 동물이 되었으니 이 얼마나 참담한 일인가?

韓愈는 이 문장에서 麒麟을 자기 자신에게 비유하여 현명한 통치자를 만나면 국가를 위하여 공헌할 인재가 때를 만나지 못하여 좌절을 당하는 고충을 묘사하였다.

사람들이 麒麟을 알지 못하여 麒麟을 상서롭지 못하다고 하였는데(不可知, 則其謂之不祥也亦宜) 이는 통치자가 인재를 식별하지 못하여 등용하지 못함을 풍자한 것이다. 곧 정치권의 위정자들에 대한 강렬한 불만과 항의의 표현이다. 또 기린이 성인을 기다리지 않고 출현하면 不祥하다(麟之出不待聖人, 則謂之不祥也亦宜)고 지적한 것은 시대에 따라 신중하게 처신하라는 自責의 뜻이 내포되어 있다.

어진 사람은 오랫동안 때를 만나지 못하고 어질지 못한 사람은 높은 직위를 얻는다. 賢者는 오랫동안 자기의 존재가 없고 不賢者는 소원대로 되어 만족한다. 賢者는 비록 낮은 자리를 얻어도 오래지 않아 죽고 不賢者가 어떤 때는 오래 산다.

(賢者恒不遇, 不賢者比肩青紫, 賢者恒無以自存, 不賢者志滿氣得. 賢者雖得卑位則施而死, 不賢者或至眉壽.) <與崔群書> 《韓昌黎文集》 제17권

賢者와 不賢者를 확연하게 구별시켜 놓은 이 文章은 학문과 덕을 갖춘 어진 사람이 기회를 만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아 원대한 포부를 전하지도 못하고 결

국 단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이는 어질지 못한 사람이 대접받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사실과 대비시켜 인재를 고루 채용하지 못하는 사회의 모순을 개인의 경험을 통하여 투영시킨 것이다.

실로 韓愈는 六藝의 文과 百家의 學에 전념하였고 어려서부터 배움을 알고 행동하는데 용감하였다. 장성한 후에는 사람을 대하는 도리가 능통하여 항상 사리에 맞게 행동하여 그 사람 됨됨이가 뛰어났다. 그러나 公的으로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지 못하여 잠시 御史가 되었으나 모함으로 유배를 당하고 그 후 삼년 동안 博士가 되었으나 팔목할 만한 치적은 없었다. 겨울이 파뜻해도 아이들은 춥다고 울고 풍년이 들어도 부인은 배고프다고 우는 형편이었다. 머리는 다 빠져서 벌판 같고 치아는 들성들성 있으니 살아 있어도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⁴⁾라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한 모습은 賢者의 현주소 곧 韓愈 자신인 것이다.

이러한 작자 자신의 상황 비판은 <答陳商書>에서도 엿볼 수 있다.

文이 비록 공교해도 벼슬을 구하는 데는 이롭지 않다. 求하는데 얻지 못하면 화내고 원망한다. 君子는 반드시 어려운 문장을 지음으로써 벼슬을 구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文雖工不利於求, 求不得則怒且怨, 不知君子必爾爲不也。)《韓昌黎文集》제18권

이곳에서는 문장을 공교하게 짓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벼슬을 구하는데 그 능력이 이롭게 작용하지 않는 모순된 사회 풍토를 지적하였다. 이것은 곧 위정자들이 진정한 인재를 등용하지 않고 인재들은 뜻을 얻지 못하여 불만과 불평이 층만된 생활 속에서 불우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사회상을 풍자한 것이다.

움직이면 비방을 얻고 명예 또한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한가한 지위에 있으면 이것이 분수의 마땅함이다. 가령 월급의 많고 적음을 따지고 직위의 높고 낮음을 따지며 자기 역량에 알맞는 것을 잊어버리고 前人の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소위 목수가 小木으로 기둥을 삼지 않는다고 힐난하는 것이고 의사가 창포로써 생명 연장하는 것을 비방하고 회령을 추천하고자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動而得謗, 名亦隨之; 投閑置散, 乃分之宜. 若夫商財賄之有亡, 計班資之崇痺, 忘

4) <進學解>: 「先生口不絕吟于六藝之文, 手不停披于百家之編;……少始知學, 勇于敢爲, 長通于方, 左右具宜. 先生之于爲人, 可謂成矣. 然而公不見信于人……暫爲御史, 遂竄南夷. 三年博士, 冗不見治.……冬暖而兒號寒, 年豐而妻啼飢. 頭童齒豁, 竟死何裨?」《韓昌黎文集》제12권

己量之所稱, 指前人之瑕疵, 是所謂詰匠氏之不以杙爲楹, 而訾醫師以昌陽引年, 欲進菴苔也.) <進學解> 《韓昌黎文集》 제12권

韓愈 자신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를 하지만 한가한 직위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사회의 불합리성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능력 없는 이들이 봉록, 지위 등을 가지고 前人을 힐난하는 것은 목수가 가용가치가 있는 재목 여부를 제삼자가 힐난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다. 이 문장은 元和 八年(813)에 韓愈가 國子博士로 재직하고 있을 때 작품인데, 풍자기법으로 不平의 氣를 적나라하게 노출시켰다.

<進學解>의 격조는 揚子雲의 <解嘲>와 班孟堅의 <答賓戲>를 기본으로 하였으나 이것들은 모두 스스로 본인의 장점을 해명하였다. 그러나 韓愈의 이 문장은 본인의 기량과 불만을 다른 사람의 입을 빌려서 표현하고 자신은 오히려 마음을 진정하고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아 탄식하고 비하한 흔적이 없는 것 같으나 실은 높고 비하된 마음을 탄식한 반어법적인 표현이다. 따라서 이것은 <送窮文>의 變體라고 할 수 있다.⁵⁾

이렇듯 자신이 처한 위치에 대하여 느끼는 강력한 불만을 지극히 절제된 언어로 평탄하게 표현하였는데 <送窮文>에서는 심화된 풍자 기법으로 능숙하게 처리하였다.

주인이 그것을 응대하여 말하기를, 당신은 나를 모른다. 당신의 벗은 六도 아니고 四도 아니다. 十에서 五를 제거하고 七에서 二를 빼면 각각 주장이 있고 개인적으로 이름을 세웠다. 손을 비틀어 국을 엮고 말을 하면 불쾌하게 하고 무릇 나의 체면을 가증스럽게 하며 언어를 無味케 하는 것이 모두 너의 뜻이다. 그 이름은 智窮이다. 강하고 정직하며 등근 것을 미워하고 네모난 것을 좋아하며 간사하고 속이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해치고 다치는 것을 참지 못한다. 그 다음은 學窮이다. 算術·曆法·典章을 중시하지 않고 幽遠하고 미묘한 도리를 드러내고 衆人의 말을 억압하는 것을 좋아하며 귀신의 기밀과 관견을 장악한다. 또 그 다음은 文窮인데 한 가지 능숙한 것에 전념하지 않고 기괴하여 당시에 소용되지 못하고 다만 스스로 즐긴다. 또 그 다음은 命窮인데 그림자와 형체가 다르고 얼굴은 흉측하지만 마음은 고와서 이익은 많은 사람이 차지한 뒤이고 책임은 다른 사람보다 먼저 한다. 또 그 다음은 文窮으로 친구를 진심으로 대접하고 마음을 털어놓고 간절하게 기다리나 나를 원수의 자리에 놓는다. 무릇 이 五鬼는 나의 五患이 된다. 나를 굶기게 하고 나를 춥게 하고 유언비어를 만들고 나쁜 말을 한다. 나를 미혹하게

5) 清 林雲銘《韓文起》卷二:「其格調雖本<解嘲>, <答賓戲>諸篇, 但諸篇都是自疏己長, 此則把自家許多伎倆, 許多抑郁, 盡數借他人口中說出, 而自家却以平心和氣處之. 看來無歎老嗟卑之迹, 其實歎老嗟卑之心, 無有甚于此者, 乃<送窮文>之變體也.」

할 수 있으나 사람을 이간할 수 없다. 아침에 그 행위를 후회하고 저녁에 다시 그러하니 염치를 돌보지 않고 도처에 권세에 붙어서 이익을 취하고 빨리 가서 다시 돌아온다.

(主人應之曰: 子以吾爲眞不知也耶! 子之朋儔, 非六非四, 在十去五, 滿七除二, 各有主張, 私立名字. 握手覆羹, 轉喉觸諱, 凡所以使吾面目可憎, 語言無味者, 皆子之志也. 其名曰智窮; 矯矯亢亢惡圓喜方, 羞爲奸欺, 不忍害傷; 其次名曰學窮; 傲數與名, 摘抉杳微, 高把群言, 執神之機; 又其次曰文窮; 不專一能, 怪怪奇奇, 不可時施, 只以自嬉; 又其次曰命窮; 影與形殊, 面丑心妍, 利居衆後, 責在人先; 又其次曰交窮; 磨肌戛骨, 吐出心肝, 企足以待, 置我仇冤. 凡此五鬼, 爲五患, 飢我寒我, 與詛造訕. 能使我迷, 人莫能問, 朝悔其行, 暮已復然, 蠅營狗苟, 驅去復環.) <送窮文> 《韓昌黎文集》 제36권

이 문장에서는 窮鬼를 통하여 사회를 비평하고 불만을 토로하였다. 諷刺 기법으로 묘사한 智窮·學窮·文窮·命窮·交窮 등 다섯 개의 窮鬼는 韓愈 자신의 개성과 품격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다. 그는 강건하고 고상한 성격, 원대한 도리를 연구하여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학식과 기발한 문장, 책임감이 강하고 私利를 꾀하지 않으며 성실한 친구와의 교제 등 많은 장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을 가진 사람을 오히려 정치권에서는 등용하지 않고 사회에서는 핍박과 푸대접으로 차별화시켰다. 그리하여 그의 가슴속에 내재된 불만은 五鬼를 통하여 인재 선발의 불공평과 공정하지 못한 사회를 폭로한 것이다.

그러나 韓愈는 이 五鬼를 내보내지 않고 (送窮) 끝까지 고수하였는데 이는 세태와 관계없이 청렴 결백한 자질과 품행을 굳건하게 지키려는 결연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이 문장은 揚雄의 <逐嗔賦>를 모방하였지만 생동적인 비유와 충실한 내용 및 해학으로 뛰어난 문학성을 발휘한 작품이다. 이와 같이 자기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함에 불평을 느낀 것으로는 <應科目時與人書>가 있다.

某月 某日에 제가 아뢰웁니다. 큰 바다의 물가, 큰 강의 기슭에서 괴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鱗甲의 類와 同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물을 얻지 못하면 風雨를 변화하여 上, 下 하늘에서도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만약 물에 이르지 못하면 협소한 범위에서 국한 될 따름입니다. 비록 高山 大陵과 황량한 길, 특별히 험난하여 장애가 된 것은 없었지만 고통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자기가 물을 찾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때문에 半양서류가 보통 水生動物을 비웃는 일은 대개 열 가운데 여덟, 아홉은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약 有力者가 그의 어려움

을 동정하고 그를 水中에 옮기면 단지 一舉手 一投足의 수고일 뿐입니다.

(月日愈再拜，天池之濱，大江之濱，曰有怪物焉。蓋非常鱗凡介之品彙匹儔也。其得水，變化風雨上下於天不難也。其不及水，蓋尋常尺寸之間耳。無高山大陵曠途絕險爲之關隔也，然其窮涸不能自致乎水，爲賓籟之笑者，蓋十八九矣。如有力者哀其窮而運轉之，蓋一舉手一投足之勞也。) 《韓昌黎文集》 제18권

韓愈는 자기 자신을 “常鱗凡介”가 아닌 蛟龍이라고 자만하면서 이 蛟龍이 물을 얻지 못하여 곤궁함에 처해 있음을 비유를 통하여 언급하고 있다. 이렇듯 그는 자기의 능력과 재능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 능력이 전개될 수 없는 사회를 간접적으로 비판하였다. 물을 만나면 바람을 일으키고 비를 만드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물에 이르지 못하면 제한된 공간에서 빈궁한 모습으로 지낼 방법 밖에 없는 것이다. 더구나 고갈된 상태에서 스스로 물에 도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반 水中動物도 아닌 半양서류의 비웃음까지 받을 것으로 표현한 것은 곤궁한 상태에서 아무런 기회와 연결되지 않은 자신의 모습과 함께 세력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힐난을 받는 처지를 극명하게 서술하였다. 이것은 신임을 획득하지 못하였기에 당하는 고통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재를 발굴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불만과 항의의 정신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3. 官吏의 諸形態

古代 中國에서의 관료들은 통치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들은 황제로부터 권한을 부여받고 정치를 운영하여 국가 정치와 民生 문제에 대하여 깊은 영향을 끼쳤다.

韓愈는 정치 사회의 부패를 目睹하고 인재 등용의 不公平으로 인한 울분이 내재되어 있어 그의 필봉은 자연히 관리 계층을 겨냥하였다. 곧 관료의 타락은 자신의 파멸을 초래할 뿐 아니라 국가 근간을 동요하여 나라의 기강을 붕괴시키고 나아가서는 백성들의 民生에 직접 영향을 미쳐 그들이 겪는 고초는 생계를 위협하는 수위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에 韓愈는 관료들의 각종 작태와 현상을 暴露하여 그들의 타락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 이것은 부패한 관리를 고발하여 관리의 기강을 확립하고자 하는 의

지의 발로이기도 하지만 그 내면에는 통치자가 등용한 인재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不肖한 小人들이 대거 발탁되어 파행적으로 행해지는 부패 정치의 관리 형상을 묘사하는 데에도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리들의 제 모습은 무능한 관리, 오만한 관리, 비굴한 관리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縣丞의 지위는 높지만 縣令의 세력에 바짝 접근하여 그의 직권에 침범하기 쉬우므로 통례적으로 縣丞은 권력을 빼앗는 혐의를 피하기 위하여 縣令이 결정하는 일에 대하여 可否를 말하지 않는다. 공문을 발송할 때 담당 직원은 이미 완성된 문서를 가지고 縣丞에 오지만 문서의 앞부분을 말아 올리며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공문의 말미를 취하여 기러기와 오리같이 줄을 지어서 들어와 곧바로 서서 縣丞을 결눈질하며 말하길: “마땅히 서명해야 합니다.” 縣丞은 붓을 들고 서명할 위치를 보고 공손하게 서명하고 직원을 쳐다보며 말하기를 “웬참은가” 직원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합시다.” 하며 물러갔다. 縣丞은 감히 대략적으로도 공문의 내용을 살피지 못하여 무슨 일인지 모른다. 직위는 비록 높지만 권력과 역할은 오히려 主簿와 縣尉의 아래에 있다.

(丞位高而逼, 例以嫌不可否事. 文書行, 吏抱成案詣丞, 卷其前, 鉗以左手, 右手摘紙尾, 雁鷺行以進, 平立脫丞曰, “當書”丞涉筆占位署, 惟謹, 目夷問可不可, 夷曰 “得”則退, 不敢略省, 漫不知何事. 官雖尊, 力勢反出主簿, 尉下.) <藍田縣丞廳壁記> 《韓昌黎文集》 제13권

韓愈는 “壁記”라는 文體로 묘사하였는데, 이것은 唐代 중앙 및 지방관서 사무실에는 항상 壁記가 있어 官職 創制와 연혁 및 前任 官員의 성명과 사적을 서술하여 뒤에 임직한 이들이 보고 배울 수 있게 하였다.⁶⁾ 그러므로 이것은 서술형식으로 솔직하게 기술하는 실용 문체인 것이다. 그러나 韓愈는 이 문체의 명칭을 빌려서 唐代 관리의 한 형태인 무능한 관리를 고발한 것이다. 실제로 縣丞이란 벼슬은 지방행정을 통솔, 책임지는 縣令의 바로 아래에 위치한 第二의 실력자인 것이다. 그러나 그의 위치는 열심히 일하거나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면 최고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기에 縣令의 의심을 받기가 쉬웠다. 그리하여 통례적으로 縣令이 이미 결정한 일에 대하여 可否의 의견을 표현하지 않고 일의 주관자가 되지 않았다. 이것은 縣令이 권력을 휘둘러 다른 사람들의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것을 하급 관리들이 간파하여 縣令에게 아부하면서 그들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감히 縣丞에게 무례한 행동을

6) 唐封演 《封氏見聞記》卷5.

과감하게 취하였다. 문서를 작성하여 내용을 보여 주지 않고 서명만을 강요하는 것과 상관 앞에서 곳곳하게 서 있거나 옆눈으로 쳐다보는 태도 등 구체적 상황 묘사에서 縣丞과 영합한 의도를 쉽게 간파할 수 있다. 아울러 縣丞 또한 부하 직원에게 공손하고 조심스런 언행을 취한 것은 굴욕적이고 현실과 타협하려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 준 것이다.

작자는 이와 같은 자연스러운 묘사를 통하여 인물의 언어와 태도를 직접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이 생동적으로 표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물의 심리 묘사까지도 형상화시켜서 主簿, 尉의 하급 관리는 물론 本 文章에서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縣丞의 성향까지도 독자들에게 명확하게 인식시켜 놓았다.

韓愈는 당시 직위는 있지만 권한이 없는 무능한 縣丞을 겨냥하여 상사의 권력 횡포 및 상층구조와 하층구조의 결탁과 그로 인한 악습 연출, 縣丞 당사자의 직무 유기 등 관리 사회 내부의 부패와 모순을 예리하게 노출시켰다.

또한 관리들의 부패를 논한 것은 <送李愿歸盤谷序>에서도 볼 수 있다.

李愿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대장부라고 稱하는 것을 안다. 사람들에게 이익과 혜택을 주고 당시에 명성이 자자하고 조정에 앉아서 백관을 임면하며 天子를 도와서 명령을 내린다. 그는 외출시 깃발을 세우고 화살을 진열하여 軍이 앞에서 길을 비키라고 소리지르고 시종들이 도로를 메우며 공급하는 사람들이 각각 물품을 들고 도로 양변에서 재빠르게 달려갔다. 그가 기쁠 때에는 상을 내리고 화가 났을 때에는 형벌을 가한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의 앞에 모여 어제와 오늘을 말하며 그의 덕을 찬미하니 귀에 들으면 심증이 나지 않는다. 부드러운 눈썹과 살찐 볼, 맑은 목소리와 유연한 몸매, 수려한 외모와 총명한 자질, 가벼운 옷자락을 나풀거리며 긴소매를 감추고 얼굴에는 분을 바르고 눈썹을 칠한 미녀들이 집에 배열하여 한가롭게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총애를 받는 것을 시기하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믿고 혼자 뽐내며 아름다움을 경쟁하여 주인의 사랑을 취한다. 이것은 大丈夫가 天子에게 신임을 얻어 대권을 장악하여 당대에 포부를 펼치는 이들이 하는 일이다.

(愿之言曰: 人之稱大丈夫者, 我知之矣. 利澤施于人, 名聲昭于時, 坐於廟朝, 進退百官而佐天子出令. 其在外, 則樹旗旄, 羅弓矢, 武夫前呵, 從者塞途, 供給之人, 各執其物, 夾道而疾馳. 喜有賞, 怒有刑, 才峻滿前, 道古今而譽盛德, 入耳而不煩. 曲眉豐頰, 清聲而使體, 秀外而惠中, 飄輕裾, 翳長袖, 粉白黛綠者列屋而閑居, 妬寵而負恃, 爭妍而取憐. 大丈夫之遇知於天子, 用力於當世者之所爲也.) <送李愿歸盤谷序> 《韓昌黎文集》 제19권

이 문장은 貞元17년(801) 韓愈의 나이 34세에 李愿이 盤谷에 은거하려고 돌아감에 친구를 위하여 '序'를 지은 것이다. 이 단락에서는 李愿의 말을 빌려서 大丈夫를 형상화하였다. 더구나 작자 자신이 洛陽에居하여서 관직을 구하려 할 때 마음에 있는 울분을 밖으로 표출하여 그가 친히 본 오만한 관리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였다. 고위 관직에 있는 大丈夫는 百官을 進退케하고 임금을 도와서 명령을 내리는 등 권력을 장악하였다. 그리하여 마음이 흡족하여 기쁠 때에는 포상을 하고 한 개인의 감정상 기분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형벌을 가하는 등 임의대로 상벌을 부여하는 횡포를 자행하였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비난과 비평을 가하지 않고 오히려 많은 재능 있는 사람들이 그의 면전에서 공덕을 찬양하였다. 그는 이러한 可視的인 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출하면 성대한 모습으로 행차하며 따르는 자가 길가를 메웠고 집에는 재색을 겸비한 여인들이 밤마다 가득 찼다.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양상을 통하여 大丈夫의 오만한 자태와 함께 결국 많은 妻妾을 거느리면서 호화스런 생활을 하는 爲政者를 고발하면서 부패하고 타락한 실상을 폭로하였다.

이와 같이 오만하고 得意한 관리를 대상으로 고발한 것도 있고 아울러 낮은 계층의 관리들이 상급 관리에게 아부하면서 비굴하게 승진을 구하는 추태를 묘사한 것도 있다.

公卿大官의 문객에게 고귀한 분의 기분을 살피고 지위와 세력 경쟁의 길에 바빠 달려감에 앞으로 전진하려 하나 멈칫거리며 입으로 말을 하려고 하나 감히 하지 못하며 몸이 비천하고 더러운 곳에 처해 있어도 부끄러하지 않고 형법에 저촉되어 살육되어도 만분의 일의 요행을 바라며 늙어 죽어서야 그치는 사람은 사람됨됨이가 어진 것인지 不肖한 것인지?

(伺候于公卿之門，奔走于形勢之途，足將進而趑趄，口將言而囁嚅，處穢汚而不羞，觸刑辟而誅戮，微倖於萬一，老死而後止者，其於爲人賢不肖何如也?) <送李愿盤谷序> 《韓昌黎文集》 제19권

뜻을 얻지 못한 小人들이 관직이 높은 이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비굴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였다. 곧 “足將進而趑趄，口將言而囁嚅”의 표현으로 비굴하고 가련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폭로하였고 “處穢汚而不羞，觸刑辟而誅戮”의 무모한 행동까지도 자행하면서 지위와 권력에 접근하려는 하층 관리의 추태를 그대로 노출하였다. 韓愈는 인물의 특성을 묘사함에 長短句와 참신한 언어를 조화 있게 사용하여 박진감 있고 생동적으로 표출하여 선명하게 형상화하였다. 아울러 예술의 품

격과 독창성을 두드러지게 나타냈는데 宋代의 蘇東坡가 극찬한 韓愈의 대표적인 문장이다.⁷⁾

4. 腐敗한 政治 實體

韓愈는 관리들의 非理를 규찰하는 監察御使를 역임하였고 정치 시설·군사·경제 조치·사회 상황·자연 재해 등 각 방면에 대하여 객관적인 상황 인식하에 編年體 史書인 《順宗實錄》 편찬에 관여하였다. 이러한 업무를 통하여 그는 관리들이 자행하는 惡政과 백성들이 겪는 고통을 目睹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는 散文 작품을 통하여 그가 직접 目睹한 정치 實體를 고발하였는데, <送許鄴州序>는 바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刺史가 되는 사람은 항상 그 백성에게 사사로이 하여 관부에 실제적인 모습으로 용대하지 않는다. 관찰사가 되는 사람은 항상 세금에 급하여 州에서는 실제 상황으로써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까닭에 刺史는 그 관직을 불안해하고 관찰사는 다스리지 않을 수 없어 재산은 이미 고갈되어도 거두는 것은 그치지 않는다. 사람들이 가난하나 부과하는 세금은 더욱더 급하여 가서 도적이 되지 않으면 역시 다행이다.

(爲刺史者, 恒私于其民, 不以實應乎府, 爲觀察使者, 恒急于其賦, 不以情信乎州. 繇是刺史不安其官, 觀察史不得不政, 財已竭而斂不休, 人已窮而賦愈急, 其不去爲盜也亦幸矣.) 《韓昌黎文集》 제19권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는데도 이러한 실상이 상부 기관에 전달되지 않고 상부에서는 실제 상황을 신뢰하지 않는 관리 사회 내부의 모순을 현실감 있게 서술하였다. 아울러 백성들이 빈궁하여 세금을 부과할 재산이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세금 징수를 재촉하는 관청의 苛斂誅求의 해독을 폭로하고 있다. 이러한 가렴주구의 해독으로 일부 백성들은 피폐화하여 보통 시민으로써의 양심과 존재 의의를 포기하고 오로지 세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도적이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흑독하고 부패한 정치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희생당하는 백성

7) 蘇軾<東坡題跋>卷1: 「余亦謂唐無文章, 惟韓退之<送李愿歸盤谷序>一篇而已. 平生愿效此作一篇, 每執筆輒罷, 因自笑曰不若且放, 教退之獨步.」

들의 실상을 고발한 것이다. 이렇듯 韓愈는 당시 관리들이 무책임하게 백성을 돌보지 않는 정치 양상을 폭로하고 힘없고 불쌍한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생명과 권익을 위하여 고발한 것을 엿볼 수 있다. 이것은 그의 투철한 愛民정신과 정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표현한 것이다.

또 韓愈는 정치가 부패 현상이 발생하는 다른 원인을 “生於私其親, 成於私其身” <送齊暉下第序>으로 파악하였다. 곧 개인 중심의 思考를 가진 관리들이 그들의 권세를 이용하여 측근자를 기용하고 특별 배려를 하였다. (私其親)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상하 관리들이 상호 의심을 하기에 ‘公’ ‘忠’의 미명을 취하여서 사람 등용에 있어서 최대한으로 혐의를 회피하였다. 그리하여 “若親與邇不敢舉”(만약 친하거나 가까워도 감히 천거하지 않는다), “若疏與遠不敢去”(만약 생소하거나 멀어도 감히 버리지 않는다)하였다. 즉 관리와 친밀한 사람이 설사 능력이 있어도 채용하지 않고 또 관계가 소원하면서 능력이 없어도 제거하지 않는 것은 오직 일신상의 체면만을 유지하기 위함이었다.(私其身) 이러한 변화는 공정하고 충실한 면모를 갖춘 것 같지만 사실은 ‘私其親’에서 ‘私其身’으로 전이되었기에 더욱 이기주의적 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明哲保身하는 관리들의 실상들은 이미 오랫동안 습관이 되어서 그것을 제거하는 것은 실로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그리하여 백여 년의 시간이 아니면 고칠 수 없고 ‘知命, 不惑’의 정신 자세로⁸⁾ 배양하지 않으면 변화시킬 수 없을 정도로 고질화된 당시의 정치 상황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

이러한 정치의 부패한 모습은 <御史臺上論天旱人飢狀>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京畿지역 여러 縣은 여름에 가뭄에 시달리고 가을에 또 일찍이 서리가 내려 농작물의 수확은 열 가운데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임금님의 은혜는 비록 넓지만 그러나 아래의 백성들의 고통은 심하여 들건대 자식을 버리고 처자를 내쫓아서 한 사람이 먹을 식량을 구하고 집을 뜯고 나무를 벌목하여 세금을 내며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면서 거리를 유랑하며 어떤 사람은 餓死하여 물구덩이와 산골짜기에 버립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은 가산을 탕진하면서 세금을 내고 재산이 없는 사람은 헛되이 납세를 재촉당합니다. 저는 많은 신하들이 황제에게 보고를 하지 않아 폐하가 모르실 것이라고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京畿諸縣夏逢亢旱, 秋又早霜, 田種所收, 十不存一.……上恩雖弘, 下困猶甚.奎聞

8) <送齊暉下第序>: 「……則曰今舉天下人焉, 則非今舉天下人之過也. 蓋其漸有因, 其本有根, 生于私其親, 成于私其身以己之不直, 而謂人皆然. 其植之也固久, 其除之也實難, 非百年必世不可得而化也, 非知命不惑而改也. 已矣乎, 其終能復古乎.」 《韓昌黎文集》 제19권.

有棄子逐妻以求口食，拆屋伐樹以納稅錢，寒餒道塗，斃踏溝壑。有者皆已輸納，無者從彼追徵。臣愚以爲此皆群臣之所未言，陛下之所未知者也。《韓昌黎文集》 제37권

이 상황이 전개된 당시 韓愈의 직위는 監察御使로서 황제 및 신하들의 과실이 발견되면 諫할 수 있고 風聞의 일조차도 황제에게 진언할 수 있는 막강한 소임을 맡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 글은 사실의 상황을 진술하는 문서체인 ‘狀’의 형태로 기술하여⁹⁾ 황제에게 일반 백성의 실상을 아뢰는 공식체재인 것이다. 이 문장이 작성된 803년(唐 玄宗 貞元十九年) 京畿 일대에는 큰 가뭄이 들어 피해상황이 심각하였다. 그러나 당시 京兆尹(京畿지방 행정장관)을 맡은 李實은 “今歲雖旱，而禾苗甚美”(올해는 비록 가뭄이지만 벼모는 아주 좋다)¹⁰⁾라고 거짓말을 하여 德宗을 안심시키고 더욱 백성들을 착취하고 가렴주구하면서 임금의 환심을 얻었던 것이다. 조정의 신하 가운데 그 누구도 감히 실제 상황을 임금에게 진언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韓愈는 監察御使라는 직분에 충실하고 백성을 위하는 憂國衷情의 일념으로 분투하였다. 그리하여 과감하게 조세감면의 요청과 백성들이 겪는 괴로움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 여름의 가뭄과 가을의 서리로 인하여 농작물 수확의 九割 정도가 손실되어 백성들은 먹을 식량이 부족하여 자식을 버리고 아내를 내쫓으면서 목숨을 연명하고 세금을 낼 아무런 재산이 없기에 집을 뜯고 나무를 벌목하는 최악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면서까지 독촉하는 세금의 일부라도 납부하고 저 하는 백성들의 고통 어린 정성과 백성들의 경제상황은 염두에 두지 않고 苛斂誅求하는 정치가의 모습을 극명하게 대비하였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 정도의 고통에서 끝나지 않고 餓死한 시체를 물구덩이와 산골짜기에 버리는 일을 다반사로 행하는 극한 상황까지 이르렀는데도 끊임없이 세금독촉을 헛되이 자행하는 정치를 맹렬하게 폭로하였다. 더군다나 이미 많은 조정의 신하들은 모두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인데도 은폐하여 임금만 모르는 간악한 정치를 고발하였다. 이렇듯 韓愈는 나라와 백성을 염려하는 마음에서 출발하여 흉년과 혹독한 세금으로 시달리는 백성들의 고통을 진실하고 생동감 있게 표현하여 李實의 간악한 운영형태와 가렴주구하는 폭정을 눈앞에서 전개하는 광경처럼 실제적으로 묘사하였다. 그리하여 부패한 정치의 폭로를 누구나 공감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하였다. 다만 고발과 비판의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백성

9) 清 吳會祺《文體芻言》：「狀，論事之體，與奏疏同。謂之狀者，謂條其事實而上之。」

10) 《資治通鑑》卷236.

들을 위한 구제 방법을 강구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아울러 구체적인 서술과 함께 백성들이 사용하는 口語, 예를 들면 “拆屋, 瑞雪, 腹內” 등을 활용하여 문장의 평이함과 진솔함을 표출하였다.

그러나 정치적 부패의 고발과 李實을 규탄한 대가로 韓愈는 陽山으로 유배당하는¹¹⁾ 비운을 맞이하였다. 결국 韓愈는 監察御使의 임무를 수행하며 憂國衷情을 발휘한 책임 있는 정치가이었다.

이러한 정치부패를 目睹한 상태에서 방치하지 않고 과감하게 백성의 입장에서 그들 삶의 기본권을 옹호한 정치 고발 작품을 또 살펴보기로 하자.

그들은 항상 백여 원의 물건으로 백성들 수 천어치의 물건을 사고 여전히 관문 통과세와 운반비를 억지로 받아냈다. 물건을 시장에 가지고 가서 결국은 빈손으로 돌아온다. 이것을 ‘宮市’라고 일컫는데 실제로는 물건을 약탈하는 것이다. 일찍이 어떤 농부가 당나귀에 땀감을 싣고 시내에 가서 팔려고 하는데 우연히 환관을 만나니 ‘宮市’라 하면서 땀감을 취하고 다만 비단 몇 尺을 주며 궁문에 출입한 대가를 요구하고 그로 하여금 당나귀로 하여금 짐을 실어 궁 안에 들어가게 하다. 농부는 울면서 받은 비단을 환관에게 돌려주니 받지 않고 말하길 “반드시 너의 당나귀로 땀감을 배달하여 궁에 돌아 오라” 하니 농부가 말하기를 “나는 부모와 妻子가 있고 이 당나귀에 의지하면서 밥을 먹으니 지금 땀감을 너에게 주고 물건 값을 취하지 않고 돌아가려는데 당신이 받으려 하지 않으니 나는 죽음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환관을 구타하였다. 御史가 그를 잡아서 이 일을 상부에 보고하여 황제가 명령을 내려 파면시키고 농부에게 비단 十匹을 하사하였다. 그러나 ‘宮市’는 결코 이 때문에 바뀌지 않았다. 諫官御史는 여러번 上奏文을 올려 諫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順宗이 즉위하여 금지시켰다. 大赦免을 할 때도 명문화하여 금지하였다.

(率用百錢物買人直數千錢物, 仍索進奉門戶并脚價錢. 將物詣市, 至有空手而歸者, 名爲‘宮市’, 而實奪之. 嘗有農夫以驢負柴至城賣, 遇宦者稱‘宮市’取之, 纔與絹數尺, 又就索門戶, 仍遂以驢送至內. 農夫涕泣, 以所得絹付之, 不肯受, 曰: “須汝驢送柴至內.” 農夫曰: “我有父母妻子, 待此然後食. 今以柴與汝, 不取直而歸, 汝尙不

11) 韓愈가 陽山에 귀양간 원인에 대하여 《資治通鑑》과 《舊唐書》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 다음과 같이 상이함이 있다. 그러나 정치적 부패를 고발하여 유배를 당한 것에는 이견이 없다.

《資治通鑑》卷236. 德宗 貞元十九年: 「京兆尹嗣道王實, 務征求以給進奉, 言于上曰: ‘今年雖旱, 而禾苗甚美.’ 由是租稅皆不免, 人窮至壞屋賣瓦木, 麥苗以輸官. …… 監察史韓愈上疏, 以‘京畿百姓窮困, 應今年稅錢及草粟等征未得者, 請俟來年蠶麥’, 愈坐貶陽山令.]

《舊唐書·韓愈傳》: 「德宗晚年, 政出多門, 宰相不傳機務. 宮市之弊, 諫官論之不聽. 韓愈上章數千言極論之, 不聽, 怒, 貶爲連州陽山令.]

肯，我有死而已。”遂毆宦者。街吏擒聞，詔黜此宦者，而賜農夫絹十四，然‘宮市’亦不爲之改易。諫官御史數奏疏諫，不聽。上初登位，禁之，至大赦，又明禁。〈宮市〉〈順宗實錄〉

본문은 宮市의 폐단을 사실대로 기록하였는데, 곧 德宗 말기의 정치 부패를 과감하게 폭로한 것이다. 宮市는 원래 궁중에서 필요한 물건을 구매함에 편리함을 돕기 위하여 궁중에 개설한 임시 시장이다. 그러므로 관리를 파견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는데 일반 백성들과 거래할 때에는 상품 값어치에 준하는 가격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그러나 德宗 末년에 이르러 宦官에게 구매 관리를 부여하였는데 그들은 원가에도 이르지 못하는 가격으로 강매하며 더욱이 長安의 東西 兩代 市場과 변화한 곳에 수 백명의 ‘白望’¹²⁾을 배치하여 백성의 팔 물건에 접근하여 宮市라고 외치면 순진 무구한 백성들은 그들의 정체를 상품 값의 高低를 감히 묻지도 못하고 공경스런 태도로 물품을 인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의 수천원 상당의 물건값을 백여 원어치의 물건으로 대체 구매하였고 더구나 궁궐 통과세와 운반비 명목으로 끝없는 착취를 감행하였다. 때문에 물건을 가지고 시장에 가면 결국은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공명하게 거래해야 할 宮市가 실제적으로는 환관들의 주도하에 약탈의 공공연한 장소로 악용됨을 신랄하게 비판하였고 아울러 宮市에 환관을 파견하여 부패한 상황을 조성하는 정치지도자에게도 無言의 질책과 비판을 하였다. 또 韓愈는 농부가 환관에게 겪은 고통을 실례로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 환관의 죄악을 만천하에 공개하였다. 이 문제가 된 환관은 농부의 땀감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땀감을 싣고 있는 당나귀조차 요구하기에 농부는 온 가족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 당나귀의 징발에 선처를 부탁하지만 거절당하자 환관을 구타하고 이 소식이 상부에까지 전달되어 그는 결국 파면당하지만 宮市를 빙자한 약탈등의 야만 행위는 여전히 자행되고 조금도 변화되질 못했다. 결국 宮市의 부패는 소수 환관들이 저지르는 국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미 전체에 만연된 현상이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해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 환관들은 임금을 보필하는 측근자로 권력의 힘을 악용하므로 諫官御史가 수 차례 上書를 올려 직언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德宗은 정치의 최고 책임자이지만 宮市의 부정을 묵과할 수 밖에 없을 만큼 문란한 정치상황에 봉착하였기에 직언을 수용하지 못하였다.

12) 《資治通鑑》 胡三省注：「白望，使人於市中左右望，白取其物，不還本價。」

韓愈는 환관들이 백성에게 끼치는 폐해를 생동적으로 묘사하면서 정치 부패의 면모를 꾸밈없이 고발하였다. 이것은 白居易가 新樂賦 <賣炭翁>이라는 작품을 통하여 숲 파는 영감의 飢寒과 太監의 강탈함을 대조한 것과 같은 소재의 고발 작품이다.

5. 結 論

韓愈는 文이란 현실 반영의 산물이라고 주장하여 ‘自鳴其不平’을 제출하였다. 그는 현실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개인의 율분과 관료제도, 관리들의 제 현상까지 대담하게 묘사하여 唐朝가 안고 있는 정치 부패 문제를 사실적으로 반영하였을 뿐 아니라 불합리한 정치 현상에 대하여 비난과 분노를 표출하였다. 韓愈는 이러한 정치 문란의 주요 원인을 관리들의 부패로 야기된 현상으로 파악하고 통치자가 무능한 관리를 등용한 데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지적하여 인재 등용의 不公平으로 귀결시켰다. 이것은 곧 ‘不平則鳴’으로 개인의 처지와 실의에 찬 불만을 국가 차원으로 승화시켜 정치를 비판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품자를 통한 비난과 폭로에 그치지 않고 국가 미래와 국민 생활을 위하여 구체적인 구제 방법과 폐단 제거를 위한 방법을 제시하여 憂國 衷情하고 愛民하는 적극적인 면모를 발휘하였다.

韓愈는 이렇듯 백성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진실한 감정으로서의 문학을 창작하여 散文의 실용영역을 확대시킨 걸출한 산문가이며 현실 비판 문학으로 정치의 부패를 만천하에 공개하여 이를 통하여 해이해진 국가 기강을 정립하고 그가 바라는 儒家적 이상인 聖君과 賢臣이 相補하는 정치가 도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의 정치관을 엿볼 수 있다.

그러므로 韓愈는 現實 社會를 비판하는 역할 기능과 創作의 범위를 확대하여 文學의 사회적 사명과 散文의 實用化 발전을 위해 노력한 위대한 作家라 할 수 있다.

<參考文獻>

唐文粹

姚 鉉

世界書局

- | | | |
|-------------|---------------|---------------------|
| 唐宋文醇 | 清乾隆三年御定 | 中華書局 |
| 文心雕龍 | 劉勰 | 里仁書局 |
| 韓昌黎文集校注 | 韓愈著·馬其昶校注 | 河洛圖書出版社 |
| 昌黎先生集考異 | 朱熹 | 上海古籍出版社 |
| 唐宋文學要 | 高步瀛 | 藝文印書館 |
| 柳宗元集 | 柳宗元 | 中華書局 |
| 歐陽修全集 | 歐陽修 | 世界書局 |
| 蘇東坡全集 | 蘇東坡 | 河洛圖書出版社 |
| 文史通義 | 章學誠 | 史學出版社 |
| 韓愈志 | 錢基博 | 河洛圖書出版社 |
| 中國散文史 | 陳柱 | 商務印書館 |
| 中國文學批評史 | 郭紹虞 | 明倫出版社 |
| 隋唐文學批評史 | 羅根澤 | 商務印書館 |
| 中國文學發達史 | 劉大杰 | 中華書局 |
| 文藝美學 | 王夢鷗 | 遠行出版社 |
| 韓柳歐蘇古文論 | 陳幼石 | 上海文藝出版社 |
| 唐代古文運動通論 | 孫昌武 | 百花文藝出版社 |
| 韓愈研究 | 鄧譚洲 | 湖南教育出版社 |
| 韓愈研究 | 羅聯添 | 學生書局 |
| 中國文學批評論集 | 張健 | 天華出版事業公司 |
| 唐代古文運動論稿 | 劉國盈 | 陝西人民出版社 |
| 韓愈文學的評價 | 黃雲眉 | 文史哲 第12卷 |
| 對韓愈及其文學的評價 | 丁振家 | 中國古典散文研究論文集二 中國語文學社 |
| 試論韓愈散文的創新特色 | 吳小林 | 陝西人民出版社 |
| 雜論唐代古文運動 | 錢穆 | 中國文學史論文選集(三) 學生書局 |
| 韓愈文學的創作觀 | (日本)劉三富著·邱榮陽譯 | 華學月刊 第44卷 |
| 韓愈散文藝術論 | 孫昌武 | 南開大學出版社 |

高適·岑參 交遊考

崔 庚 鎮*

<目 次>

- | | |
|------------|-------------|
| I. 머리말 | III. 岑參의 交遊 |
| II. 高適의 交遊 | 1. 杜甫와의 交遊 |
| 1. 杜甫와의 交遊 | 2. 王昌齡과의 交遊 |
| 2. 李白과의 交遊 | IV. 맺음말 |
| 3. 李頎와의 交遊 | <參考文獻> |

I. 머리말

盛唐代는 강력한 통일 국가로, 국력을 대외로 확장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 시대였고,¹⁾ 이로부터 형성되게 된 시대 정신과 사회 사조로 인해, 당시의 문인들은 邊塞로 나아가 애국정신을 발양하는 동시에 개인적인 공명을 세우고자 하는 염원을 가득 가지게 된 시대로 특징지을 수 있겠다. 이와 같은 문인들의 '投筆從戎'이라는 慷慨한 염원은 소위 邊塞詩派 시인만이 가지고 있던 경향으로만 파악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성당의 모든 지식인들이 공통적으로 지녔던 보편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진솔한 경험을 뛰어난 예술 기교와 결합시킨 변새

* 慶南大 中語中文學科 講師

1) 肖澄宇는 《資治通鑑》의 기록에 의거하여, 開元·天寶 연간인 43년간 발생한 邊塞 전쟁의 횡수를 통계를 낸 적이 있다. 이 통계에 의하면, 변방 민족과 개원 연간에 49회, 천보 연간에 45회 등 도합 94회의 충돌이 있었다.<關於唐代邊塞詩評價的幾個問題>, 《唐代邊塞詩研究論文選粹》, 1988. 참조) 그러나 변새시에는 보이지만 역사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전쟁이 많은 것으로 보아, 실제 충돌의 횡수는 이를 훨씬 넘을 것이다.

시파를 이끈 高適·岑參은 그 누구보다도 이러한 시대적 조류의 한가운데 있었으며, 성당시단의 대표적 인물들인 杜甫·李白 등 많은 시인들 역시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이러한 시대적 조류 안에서 함께 當時의 현실에 대해 심각하게 의견을 교환하기도 하고, 서로를 격려하기도 하고, 자연을 완상하며 詩文을 다듬기도 하였다.

여기에서는 변새시파의 대표 작가들인 高適·岑參의 교유를 중심으로 당시 愛國과 功名 추구라는 시대적 흐름 안에서의 그들의 고민과 우정을 고찰할 것이며, 그들이 주고받은 시를 통해서 그들의 창작 특징과 상대방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우리는 성당의 대표작가들인 그들의 인간적인 면모 뿐 아니라 문학적인 성과 면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리라 믿는다.

II. 高適의 交遊

1. 杜甫와의 交遊

高適은 일생동안 매우 폭넓은 교계를 하였는데, 그 중 시문을 주고받은 저명한 인물로는 杜甫·李白·李頎를 비롯하여 王維·儲光羲·王之渙·薛據·顏真卿 등 당대의 문단의 고수들이 거의 망라되다시피 했다. 그 중에서 가장 우의가 돈독하고 지속적인 교유는 杜甫와의 교유였다.

高適과 杜甫가 일생동안 직접 唱和한 시는 무려 20여 수 가까이 된다. 그 가운데 杜甫가 高適에게 주거나 그들의 우의에 대해 언급한 시가 15 수 정도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高適이 杜甫를 처음 만난 시기가 언제인가하는 점에 대하여 논란이 많은데, 최근에도 開元 27-28年 사이에 이들이 濟魯의 汶水 가에서 처음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仇兆鰲·聞一多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²⁾ 그러나 이들이 처음 만난 것은 天寶 3年 梁宋에서 였다.³⁾ 天寶 3年 8월에 高適은 조정에서 추방

2) 貽焮은 《杜甫評傳》(上海古籍出版社, 1982)에서 주장한 것을 비롯하여, 左雲林과 金啓華 등도 각기 《高適傳論》(人民文學出版社, 1985)과 《杜甫評傳》(陝西人民出版社, 1984)에서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당한 후 이곳에 이미 와 있던 李白과 함께 杜甫를 만나게 된다. 杜甫는 이 해 5월, 그의 季祖母인 盧氏가 陳留郡에 있는 집에서 세상을 뜨자, 8월에 偃師에 장사를 지내고, 곧 이곳으로 와서 高適·李白과 합류한 것이다. 당시 杜甫는 계조모의 상이 나기 전 李白을 처음 만나, 梁宋을 유람할 것을 약속한 바 있는데, 상을 치른 후 이 약속을 지킨 것이다. 이 들 세 시인은 宋州의 孟諸澤 일대에서 함께 말을 몰며 사냥을 하기도 하고, 밤이면 술을 마시며 연회를 하느라 날이 새는 줄도 모르고 흐드러지게 놀기도 하였는데, 이는 모두 宋州太守이던 李某와 單父縣令이던 崔某가 그들을 위해 베푼 호의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었다. 당시 45세였던 高適은 공명을 세워 후세에 이름을 날리고자 하는 염원을 지니고 長安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또 薊門으로 나아가기도 하지만 모든 것이 여의치 않아 양송으로 돌아와 10年 이상을 지내고 있던 처지였으며, 공명심이 유달리 강했던 杜甫 역시 24세 때 과거에 실패한 후로 당시 33세의 나이 때까지, 權貴들에게 자신의 천거를 간청하였으나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그들 둘의 처지가 매우 유사하여 서로 위로하며 의기투합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의 游獵과 宴會에 대해 杜甫는 후에 <昔遊> 시에서 회상하고 있는데, 이 시의 제1구에서 제8구를 보면,

昔者與高李,	옛날 高適·李白과 함께,
晚登單父臺.	저녁 單父臺에 올랐었네.
寒無際碣石,	차갑고 거친 들판은 碣石山까지 펼쳐지고,
萬里風雲來.	만리 넘어 바람과 구름 몰려 왔었네.
桑柘葉如雨,	뽕잎은 비처럼 낙엽지고,
飛蓬去徘徊.	콩잎은 떨어져 날렸었네.
清霜大澤凍,	맑은 서리에 큰 연못 얼어붙자,
禽獸有餘哀.	새와 짐승의 울음 소리는 애달팠네.

라고 회상하고 있다. 위의 單父臺는 琴臺를 말하는 것으로, 單父縣의 북쪽으로 一里가 떨어진 곳에 있으며, 높이는 三丈으로 宓子賤이 비파를 타던 곳이기에 이렇게 불렀다.⁴⁾ 杜甫는 위 시에서 高適·李白과 함께 양송 지역의 금대에 올랐던 일을 떠

3) 劉維崇(《杜甫評傳》, 臺灣商務印書館, 1968), 劉開揚(《高適詩集編年箋註》, 中華書局, 1981), 孫欽善(《高適集校注》, 上海古籍出版社, 1984), 余正松(《高適研究》)씨 등이 모두 이처럼 주장한 바 있다.

4) 《寰宇志》：“琴臺在單父縣北一里，高三丈，卽子賤彈琴之所”

올리고 있는데, 3-4구에서는 琴臺에서 바라다 본 遠景을 묘사하고 있으며, 5-8구에서는 가까운 경치를 묘사하고 있다. 杜甫는 당시의 일에 대해 위의 시에서 뿐 아니라, <遺懷> 시에서도 적고 있다.⁵⁾

이 당시 高適과 杜甫·李白 간의 酬唱詩는 비교적 많았던 듯하나, 杜甫와 李白의 시는 현재 전해 오지 않고, 高適의 시만이 현재 전해 오고 있다. 그의 <同群公秋登琴臺> 시의 제1구에서 제8구까지를 보면,

古迹使人感,	옛 자취는 사람을 감개케 하는데,
琴臺空寂寥.	금대는 쓸쓸히 비어 있다.
靜然顧遺塵,	조용히 남겨진 흔적을 회고하니,
千載如昨朝.	천년 전이 마치 어제 아침 같다.
臨眺自茲始,	처음으로 금대에 올라 멀리 바라보며,
群賢久相邀.	李白·杜甫와 영원한 약속을 했다.
德與形神高,	宓子賤의 덕과 형상의 높음이,
孰知天地遙.	천지처럼 요원함을 매우 잘 아는 도다.

라고 하고 있는데, 高適은 李白·杜甫와 함께 금대에 오른 것을 서술하고, 아울러 宓子賤의 공덕을 찬양하고 있다. 이 해 가을, 高適은 梁宋의 李白·杜甫와 헤어져 淮楚 지방으로 갔다가, 天寶 4年 가을, 齊魯에서 李白·杜甫와 다시 만나게 된다. 이 때의 일을 杜甫는 만년에 <奉寄高常侍> 시에서 회고하고 있다. 이 시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세히 고찰할 것이다. 그리고 당시의 일을 적은 高適의 시로는, 위의 시 외에 <登子賤琴堂賦詩三首>·<同群公出獵海上>·<同群公題鄭少府田家>·<同群公登濮陽聖佛寺閣>·<同群公題中山寺> 시 등이 있는데, 위의 詩題에서 群公은 李白과 杜甫 등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 일 이후 杜甫는 長安으로, 李白은 吳越로, 高適 역시 睢陽으로 돌아가게 되어 이들과 헤어지게 되었다. 당시의 高適·杜甫·李白의 만남은 그들의 詩歌 創作에 커다란 변화를 야기시키는 계기가 되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즉 그들은 조정에 대해 가지고 있던 환상을 버리고 자신들의 눈을 상층계급으로부터 백성들의 현실과 前途에 관심을 돌리게 되었으며 또한 사상과

5) 杜甫의 <遺懷> 시 제13-18구를 보면, “생각난다, 高適·李白과 어울려, 우정을 논하면서 주막에 가던 일이. 高適·李白은 문사가 웅장했는데, 나와 어울리자 안색은 기쁨으로 가득 했네. 술 취한 기운에 취대에 올라, 옛일을 생각하며 거친 평야를 바라보았네.(憶與高李輩, 論交入酒壚. 兩公壯藻思, 得我色數腴. 氣酣登吹臺, 懷古視平蕪.)”라고 高適·李白과 어울려 노닐던 일을 슬회하고 있다.

감정이 날로 심각해지고 憤激해지게 되었다.⁶⁾

天寶 11年, 高適은 다시 杜甫와 해후를 하게 된다. 高適은 天寶 8年, '有道科'에 응시하여 封丘縣尉로 부임했다가 天寶 11年 가을, 변방의 현실에 실망과 분노가 뒤섞여 封丘縣尉를 사직하고 長安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 때 杜甫는 6年째 장안에 있었다. 얼마 후 高適과 杜甫는 薛據·岑參·儲光羲 등과 더불어 慈恩寺 탑에 올라 각각의 감회를 토로했는데, 지금 설거의 시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의 작품은 모두 전해오고 있다. 《長安志》에 “慈恩寺는 縣의 東南쪽 8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高宗이 春宮에 文德皇后를 기리기 위해 세운 절이라서 이름을 慈恩이라고 명명했다. …… 탑은 칠 층으로 三百尺의 높이인데, 永徽 3년에 玄奘 법사가 세웠다.”⁷⁾고 하였다. 이 탑은 원래 6층이었으나 탑이 훼손되자, 長安 元年(701)에 改修와 동시에 탑을 한 층 더 높여 7층으로 만든 것이다. 이 탑에 올라 지은 高適과 杜甫의 <同諸公登慈恩寺塔> 시를 보도록 하자. 먼저 高適의 시를 보면,

香界泯群有,	절에 오르니 모든 것이 소멸하는데,
浮圖豈諸相.	탑에 어찌 세속의 어지러움이 있을까?
登臨駭孤高,	탑에 올라 바라보니 그 우뚝함이 놀라운데,
披拂析大壯.	옷을 털고 기쁘게 이 장관을 바라본다.
言是羽翼生,	마치 몸에 날개 돌아나,
迥出虛空上.	멀리 허공 위를 나는 듯하네.
頓疑身世別,	홀연 다른 세상에 와 있는 듯하여,
乃覺形神王.	정신이 한바탕 바짝 드네.
宮闕皆戶前,	장안의 궁궐이 모두 탑의 문 앞에 서 있고,
山河盡簷向.	산하가 모두 탑의 처마를 향하고 있네.
秋風昨夜至,	가을 바람 어제 저녁에 몰려 와,
秦塞多清曠.	관중 일대가 푸르기 그지없네.
千里何蒼蒼,	천리 밖을 바라보니 한없이 푸르고,
五陵鬱相望.	오릉은 뾰뾰한 숲에 웅기종기 모여 있다.
盛時慙阮步,	태평성대에 阮籍에게 부끄럽고,
末宦知周防.	미관 말직에 있으니 周防 ⁸⁾ 이 생각난다.
輸效獨無因,	애국하려해도 방도가 없으니,

6) 傅璇琮·倪其心, <天寶詩風的演變>, (《唐代文學論叢》, 總第8輯, 1986. 12. pp.11-12)

7) 《長安志》: “慈恩寺, 在縣東南八里, 高宗在春宮爲文德皇后立, 故名慈恩. …… 浮圖七級, 崇三百尺, 永徽三年沙門玄奘所立.”

8) 《後漢書·周防傳》: “防年十六, 仕郡小吏, 世祖巡狩汝南, 召掾吏試經, 防尤能誦讀, 拜爲守丞.”

斯焉可遊放. 이처럼 제멋대로 노닐 수밖에.

위에서 高適은 제8구까지는 慈恩寺 塔의 웅장한 자태를 묘사하고 있으며, 제9-14구에서는 탑에서 내려다보이는 長安 부근 산천의 장려함을 묘사하고 있다. 마지막 4구에서는 태평성세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뜻을 잃고 겨우 미관 말직에 머물러 있는 자신이 나라를 위해서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탄식을 표현해내고 있다. 다음 杜甫의 <同諸公登慈恩寺塔> 시를 보자.

高標跨蒼穹,	답은 푸른 하늘에 높이 솟아 있고,
烈風無時休.	매운바람은 쉬지 않고 불어오네.
自非曠士懷,	曠士의 흥회가 아니라서,
登茲翻百憂.	이곳에 오르니 온갖 근심이 몰려오네.
方知象教力,	불교의 힘만이,
足可追冥搜.	이 굴을 팔 수 있으리니.
仰穿龍蛇窟,	위로 용과 뱀의 굴이 뚫린 듯한데,
始出枝撐幽.	아래의 어두운 아래층으로부터 시작되네.
七星在北戶,	북두성이 북쪽 창문에 있는 듯하고,
河漢聲西流.	귀에는 은하수의 물소리가 들리는 듯하네.
羲和鞭白日,	羲和氏가 해를 뒤쫓는 듯하고,
少昊行清秋.	少昊氏가 맑은 하늘을 운행시키는 듯하네.
秦山忽破碎,	秦山은 홀연 부서져 흩어지고,
涇渭不可求.	맑은 涇河와 혼탁한 渭河를 구분할 수가 없네.
俯視但一氣,	내려다보니 흐릿한 석양 뿐이니,
焉能辨皇州.	어찌 장안성이 보일까?
迴首叫虞舜,	고개 돌려 舜을 부르는데,
蒼梧雲正愁.	蒼梧 위의 구름은 근심으로 가득 찼네.
惜哉瑤池飲,	슬프도다, 瑤池에서 불을 마시고,
日晏崑崙丘.	날마다 崑崙의 언덕에서 淫樂에 빠져 있음이.
黃鵠去不息,	黃鵠은 쉬지 않고 가는데,
哀鳴何所投.	어느 곳에서 머물까 슬피 우네.
君看隨陽雁,	그대들은 보게나, 양지를 쫓는 새들은,
各有稻粱謀.	모두 俸祿에만 뜻이 있다는 것을.

杜甫는 첫 1-2구에서 비범한 상상으로 탑의 높음과 바람이 세찬 것을 묘사한 후에 제3-4구에서는 온갖 근심이 몰려 생각이 천 갈래, 만 갈래로 흩어지는 것으로

국가와 백성에 대한 관심을 그려내고 있는데, 이는 위의 高適 시의 심경이 高渺함과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⁹⁾ 이어 제5-8구에서는 탑에 오르는 과정과 느낌을 서술하고, 제9-12구에서는 과장과 상상의 수법을 운용하여 탑을 묘사하고 있는데 매우 기묘하다고 하겠다. 제13-16구에서 杜甫는 情景交融의 수법을 채용하여 당시 국가가 처한 현실에 대한 우려를 포함과 동시에 풍자를 하고 있다. 즉 눈에 보이는 경물을 읊으면서 황제가 도를 잃고 淸·濁을 구분하지 못하는 昏憒함에 처한 사실을 기탁하고 있다. 제17-20구에서는 순의 蒼梧를 太宗의 昭陵에 비유하여 唐太宗에 대한 懷念을 서술하고, 뒤이어 西王母의 瑤池를 楊貴妃의 溫泉에 비유하여 현종을 비롯한 당의 통치 집단이 淫樂을 일삼는데 대해 憤만의 심정을 쏟아내고 있다. 마지막 4구에서는 소인들이 도리어 대접받고, 능력 있는 인사들이 버림을 받는 현실을 고발하고, 자신을 黃鵠에 비유하여 커다란 뜻을 지녔으면서도 이를 실현시킬 방도가 없음을 개탄하고 있다.

위의 두 작품과 나머지 시인들의 작품에 대해 仇兆鰲는 “杜甫의 시는 格法이 엄정하고 기상이 우뚝하고 음절이 비장하며, 심오한 경치를 두루 살피고 고금의 식견을 분석하고 신세에 感慨하니 내용이 곡진하지 않음이 없어, 실로 다른 사람들의 시를 압도하고 千古를 굽어보기에 족하다. 세 시인의 結語는 구속되어 있지만, 杜甫의 결말은 새로운 시야를 열게 하고 특히 思議를 개척하였으니 역량이 다른 사람들보다 백배이다.”¹⁰⁾라고 하면서 杜甫를 극찬한 바 있으며, 胡應麟 역시 이 시들 가운데 杜甫의 시가 가장 훌륭하다고 평한 바 있다.¹¹⁾ 이에 반해, 廖立은 杜甫와 高適 시의 結語를 분석하면서, 두 시인 모두 개인적인 신세에 대한 감개를 서술하고 있어서 두 작품에서 커다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으며, 景物을 묘사하는데 있어서는 선명한 형상을 드러내고 있는 岑參의 시¹²⁾가 뛰어나고, 杜甫는 뛰어난 시구가 있지

9) 何曉毅, <沈雄意深>, 《唐代文學論叢》 總第5輯, 1984. 4, pp.127-128.

10) 仇兆鰲, 《杜詩詳註》 卷2: “少陵則格法嚴整, 氣象崢嶸, 音節悲壯, 而俯仰高深之景, 盱衡今古之識, 感慨身世之懷, 莫不曲盡篇中, 眞足壓倒群賢, 雄視千古矣. 三家結語, 未免拘束 …… 杜於末幅, 另開眼界, 獨闢思議, 力量百倍於人.”

11) 胡應麟, 《詩藪》 外編 卷4: “皆才格相當, 足可凌跨百代. 就中更杰出者, 則慈恩首推杜作.”

12) 岑參의 <與高適薛據登慈恩寺浮圖> 시의 첫 4구와 결구인 마지막 4구는 다음과 같다. “탑의 기세는 용솟음쳐 오르듯, 고고하게 천궁으로 솟았네. 탑에 오르니 우주를 벗어난 듯하고, 탑의 둘레단은 허공을 휘돌아 갔네 …… 청정한 묘리는 깨우칠만하고, 좋은 인연을 항상 숭앙하였네, 장차 관을 걸어 놓고 떠나가, 도를 깨우침에 무궁한 묘오에 기댈 것을 맹세하네.(塔勢如涌出, 孤高聳天宮. 登臨出世界, 磴道盤虛空 …… 淨理了可悟, 勝因夙所宗.

만 그것을 예술적으로 쥔 구성력이 결핍되어 있어 다른 시들보다 특별히 뛰어난 점이 없다고 평가한 바 있는데,¹³⁾ 岑參의 경물 묘사에 대한 면을 부각시키기 위해 杜甫의 시를 다소 貶下한 인상이 없지 않다.

그들은 함께 탑에 올라 시를 지었지만, 詩作의 내용과 意境에는 각각 독특한 특색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가운데 岑參의 시는 특히 景物의 묘사에 있어서 想像가 奇妙하고 豪邁한 기세가 특출했지만, 景物이 시인의 사상과 감정을 투영해내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高適의 시는 시어가 명확하고 풍격이 淸新하고 雄壯한 특색을 보이고 있으며 묘사한 경물과 자신의 감정을 그런 대로 효과적으로 연계시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杜甫의 시는 暗喻의 수법을 채용하여, 경물을 묘사하면서 당시 현실과 자신의 감정을 융화시켜 반영하는데 뛰어난 수완을 발휘하고 있다. 즉 杜甫의 시는 자신의 감정이 현실과 매우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사상의 심도에 있어서도 高適·岑參의 시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 당시 杜甫가 高適에게 준 시로 <寄高三十五書記> 시¹⁴⁾가 또 전하고 있다. 이 시에서 杜甫는 高適의 문학과 관직 양 방면에서의 뛰어난 업적을 찬미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여의치 않은 상황의 연속인 자신에게 커다란 위안이 되고 있음을 토로하고 있다.

그들의 만남은 다시 乾元 元年(758)에 이루어진다. 이 해 가을 左拾遺의 직책에 있던 杜甫는 좌천당한 재상 房琯의 사면을 위해 상소했던 일이 화근이 되어 華州의 司功參軍으로 폄적당해¹⁵⁾ 겨울 洛陽으로 돌아왔다. 2年前(至德 元年(756)) 淮南節度使로 나아갔다가 永王 李璣의 난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웠던 高適은 李輔國의 모함을 받아 太子少詹事로 좌천되어¹⁶⁾ 낙양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 때 杜甫가 高適에게 보낸 <寄高三十五詹事> 시를 보면,

誓將掛冠去，覺道資與窮。”

13) 廖立, 《岑參評傳》, 人民文學出版社, 1990, pp.126-128.

14) <寄高三十五書記> 詩: “그대 늙어가는 것이 유감이나, 그대의 새로운 시는 날마다 늘어만 가네. 그대의 명성은 남들이 미칠 바가 아니니, 좋은 시구의 법은 무엇인가. 哥舒翰 장군이 재주많은 그대를 동용하니, 공동에서 싸움에 이긴 것은 당연하네. 그대 벌써 주발을 입업다는 소식 들었는데, 실의에 잠긴 내게 위안이 되노라.(歎息高生老, 新詩日又多. 美名人不及, 佳句法如何. 主將收才子, 崆峒足凱歌. 聞君已朱紱, 且得慰蹉跎.)”

15) 《新唐書》 卷201: “琯時敗陳濤斜, 又以客董廷蘭, 罷宰相. 甫上疏言, 罪細, 不宜免大臣. 帝怒, 詔三司雜問.”

16) 《舊唐書·高適傳》: “兵罷, 李輔國惡適敢言, 短於上前, 乃左授太子少詹事.”

安穩高詹事,	편안히 있는가 고침사여,
兵戈久索居.	전쟁통에 오랫동안 홀어져 사노라.
時來知宦達,	때가 오면 영달할 것이니,
歲晚莫情疎.	저무는 해에 정을 소원케 말게나.
天上多鴻雁,	하늘에는 기러기 많고,
池中足鯉魚.	못 속에는 잉어가 많기도 하다.
相看過半百,	서로 본 것이 백년의 반도 넘었지만,
不寄一行書.	한 줄 글월도 부치지 않는구려.

위 시는 첫 두 구를 안부를 묻는 것으로 시작하여, 기러기와 잉어로 비유된 高適의 답신을 간절히 기대하는 것으로 시를 맺고 있다.

이듬해인 乾元 2年(759) 5월, 高適은 彭州刺史로 나아가고, 12월 杜甫는 華州를 출발, 秦州를 거쳐 成都에 도착하여, 省에서 서쪽으로 7리 떨어진 浣花溪 가의 한 절에 머물러 있게 되었다. 高適은 이 소식을 듣고 즉시 그에게 <贈杜二拾遺> 시를 보내, 진지하고도 따뜻하게 杜甫의 시작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리는 동시에 새로운 작품의 창작을 북돋아 주었다.

傳道招提客,	사원의 객이 되어,
詩書自討論.	시·서를 연구한다는 소식 들었소.
佛香時入院,	법당의 향이 때때로 정원에 불어오고,
僧飯屢過門.	스님들의 공양 여러번 문전에 다다르네.
聽法還應難,	불법을 들을 때 힐문하고,
尋經剩欲飜.	불리를 탐토하고자 경전을 연구하네.
草玄今已畢,	太玄經은 이미 완성되었는데,
此外復何言.	이외에 또 무슨 저작에 힘을 쓰고 있는지요?

당시 杜甫가 浣花溪 가의 한 사원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高適은 그를 招提客¹⁷⁾이라 부르고 있다. 高適은 揚雄이 이 고장에서 《太玄經》을草한 것처럼¹⁸⁾ 杜甫도 역시 시를 열심히 창작하며 살 것을 격려하고 있다. 杜甫는 위 시를 받자, 관 <酬高使君相贈> 시로 화답했는데, 위의 高適의 詩를 따라 聯을 나누어 답을 하고 있어

17) 招提는 梵語로 본래는 '拓闢提奢'로 四方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번역하는 사람이 '拓'을 '招'로 잘못 적고, 또 '闢奢'를 빠뜨려 '招提'가 되었다. 후에 이 말은 寺院의 별칭이 되었다.

18) 《漢書·揚雄傳》：“揚雄字子雲，蜀郡成都人也。……時雄方草太玄，有以自守，泊如也。”

高適의 시와 句마다 서로 어울리고 있다.¹⁹⁾

古寺僧牢落,	고사라서 스님이 적어 쓸쓸한데,
空房客寓居.	빈방에 더부살이하고 있는 판이네.
故人供祿米,	친구들은 봉급으로 받은 쌀을 보내오고,
隣舍與園蔬.	이웃집에선 채소를 가져다주네.
雙樹容聽法,	법당에서 부처님 설법을 들을 수 있으면,
三車肯載書.	세 수레에 불경 실는 일은 할 수 있으리니.
草玄吾豈敢,	揚雄처럼 太玄經을 내 어찌 감히 草하리오,
賦或似相如.	시 지으면 혹 司馬相如 같을 수는 있을지라도.

빈방에 나그네 신세의 자기 홀로 있기 때문에 詩書를 논할 수 없음과 옆에 사는 친구가 식량을 대주어 스님들에게 신세를 지지 않아도 됨을 高適의 시에 대한 대답 형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위에서 친구는 당시 성도의 府尹이었던 裴冕을 가리키는 듯하다. 聞一多는 이에 대해, 裴冕은 학식이 낮고 재물을 좋아하였으며, 사람됨이 비루하여 杜甫를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 바 있으나, 성도로 들어오며 성도가 굽어보이는 鹿頭山에서, 杜甫는 成都의 府尹인 裴冕을 가송하며 그에게 의탁하고자 하는 뜻을 꾀 보이기까지 했는데,²⁰⁾ 裴冕이 매물차게 그를 거절했을 것 같지 않으며, 府尹의 지위에 있으면서 그같은 도움을 주기란 어렵지 않은 일이기도 하고, 情理에도 맞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친구는 裴冕을 가리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²¹⁾ 이렇게 裴冕에게 의지하여 살던 上元 元年(760)에 갑자기 李若幽이 성도부윤으로 부임하고 裴冕이 그곳을 떠나자 의지할 상대를 잃게 된 杜甫는 성도 가까이 彭州의 刺史로 있던 高適에게 위와 같이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이즈음, 杜甫가 高適에게 준 시 가운데 먼저 <因崔五侍御高彭州一絕> 시를 보도록 하자. 이 시는 성도에 온 후 식량이 떨어질 정도로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된 杜甫가 염치불고하고 彭州로 가는 崔侍御 편으로 彭州刺史이던 高適에게 구원을 청하는 내용을 적고 있다.

19) 仇兆鰲, 《杜詩詳註》 卷9: “此詩逐聯分答, 與高詩句句相應.”

20) 杜甫, <鹿頭山>: “裴冕은 주춧돌 같은 자태니, 도를 논하며 나라를 살리네. 이런 분이니 어찌 다행이 아니리오, 공께서 부임한 지 일년이 넘어가네.(翼公柱石資, 論道邦國活. 斯人亦何幸, 公鎮踰歲月.)”

21) 陳貽燾, 앞의 책, pp.640-641.

百年已過半, 백년이 벌써 반이 넘어,
 秋至轉飢寒. 가을이 왔는데도 굶주림과 추위에 떨게 된다.
 爲問彭州牧, 가련한 나를 위해 팽주자사인 高適에게,
 何時救急難. 언제라야 이 어려움을 구원해 주겠는가 물어주시구려.

라고 토로하고 있듯이, 성도에서의 杜甫의 궁곤한 경제적 상황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수확의 계절인 가을이 와서 굶주림과 추위를 의당 면할 수 있음에도 여전히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杜甫의 궁핍한 생활의 정도를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다. 여기서 杜甫가 高適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님을 알 수 있는데, 이전에 高適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었다면, 이렇게 체면 차리지 않고 요구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으로도 두 시인의 격의 없는 우정을 엿볼 수도 있다.

上元 元年(760) 가을에 지은 <奉簡高三十五使君> 시²²⁾를 보아도, 이들 두 시인의 끈끈한 우정이 드러나고 있다. 이 때 高適은 彭州刺史에서 蜀州刺史로 옮긴 후인데, 杜甫는 高適의 출중한 재능과 지위를 찬미하는 동시에 가을이 가기 전에 高適을 찾아가겠노라 는 뜻을 전하고 있다.

이번에는 蜀州刺史로 부임하게 된 高適이 杜甫에게 보낸 <人日寄杜二拾遺> 시를 보자.

人日題詩寄草堂, 정월 칠일, 시를 지어 초당에 부치면서,
 遙憐故人思故鄉. 친구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을 애앓아 하네.
 柳條弄色不忍見, 봄빛 희롱하는 버들가지 차마 볼 수 없고,
 梅花滿枝堪斷腸. 가지마다 소복히 핀 매화는 공연히 애를 끊는다.
 身在南蕃無所預, 이 몸 먼 촉땅에 있어 조정의 일에 참여할 수 없어,
 心懷百憂復千慮. 국사에 마음이 뒤숭숭하기만 하네.
 今年人日空相憶, 금년 정월 칠일엔 공연한 상념인데,
 明年此日知何處. 내년 이 날에는 또 어디에 있게 되려는지.
 一臥東山三十春, 한번 동산에 누워 삼십 년을 보냈고,
 豈知書劍老風塵. 문무를 겸비했으나 길 위에서 늙어갈 줄 알았으랴.

22) <奉簡高三十五使君> 詩：“지금의 재자를 논한다면, 그대같은 이 몇이나 있을까? 준마 앞에 천리 길 터졌고, 매가 풍진을 떨치고 나서네. 나그네 길 떠나려는데 가을은 저무는데, 우리들의 우정은 나이들수록 더욱 가까워지네. 하늘 끝에서 기쁘게 만날텐데. 흉금을 터 놓고 나의 진심을 대해 주게나.(當代論才子, 如公復幾人. 驪驪開道路, 鷹隼出風塵. 行色秋將晚, 交情老更親. 天涯喜相見, 披豁對吾眞.)”

龍鍾還添二千石, 늘그막에 또 이천석의 녹을 먹게 되니,
愧爾東西南北人. 동서남북으로 떠도는 그대에게 부끄러울 뿐.

라고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갈망하고 있는 杜甫의 심정을 아름다운 봄의 경치와 대비시켜 한층 두드러지게 드러내고 있다. 蜀州에서 太子少詹事에 부임한 후 다시 彭州刺史·蜀州刺史 등으로 옮겨야 하는 등 동서로 표박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서글픔이 또한 가득하다. 위 시는 前 해 겨울에 杜甫가 매화를 보고 향수를 노래한 <和裴迪登蜀州東亭送客奉早梅相憶見寄> 詩²³⁾를 보고 杜甫의 향수를 위로하기 위해 지은 시인데, 高適은 자신의 식견을 펼치고자 하였으나 도리어 간신들의 참소로 멀리 쫓겨나, 國事가 날로 잘못되어 가도 匡正할 방도가 없음을 한탄하고 있다. 이러한 가슴속의 憤만을 杜甫에게나 쏟아낼 뿐이고 특히 사방으로 전전하며 衣食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처지이면서도 나라를 생각하는 杜甫에게 부끄러울 뿐이라고 술회하고 있다. 옛사람들은 정월 초하루는 닭, 2일은 개, 3일은 돼지, 4일은 양, 5일은 소, 6일은 말, 7일은 사람의 날로 쳐서 人日인 7일에는 《荊楚歲時記》에서 “正月 七日은 사람의 날로, 일곱 가지 채소로 죽을 쑤고, 비단을 잘라 인형을 만들고 금박에 사람 형상을 조각하여 병풍에 붙이거나 머리에 쓰기도 했다. 그리고 장식품을 만들어 서로 교환하기도 하고 높은 곳에 올라 시를 짓기도 하였다.”²⁴⁾라고 하였듯이, 이 날이 되면 文人들은 시를 지어 주고받았는데, 高適 역시 이 날 위 시를 지어 杜甫에게 보냈던 것이다. 杜甫는 高適에게서 보내온 이 시를 10년만인 大曆 5年(780)에 다시 문갑 속에서 발견하고 비통에 잠겨, <追酬故高蜀州人日見寄> 詩를 써서 高適을 추도했다. 高適이 세상을 뜬 후 6년이 되던 해였다. 먼저 이 시의 序文을 보면,

23) <和裴迪登蜀州東亭送客奉早梅相憶見寄> 詩: “동쪽 누각의 매화가 시흥을 불러 일으켰다니, 또한 何遜이 揚州에 있을 때와 같네. 그때 그대는 눈을 대하고 멀리 나를 생각했다는 데, 손을 보내고 봄을 맞으니 마음이 편했을 것이네. 다행히 그 매화를 꺾어서 나에게 보내지 않아 세모에 마음 상하게 하지 않았는데, 만일 매화를 보았다면 향수를 뒤흔들었을 터이네. 이곳 완화계 가에도 매화 한그루가 가지 늘어지도록 소복히 피어, 아침 저녁으로 내가 늙는 것을 재촉하네.(東閣官梅動詩興, 還如何遜在揚州. 此時對雪遙相憶, 送客逢春可自由. 幸不折來傷歲暮, 若爲看去亂鄉愁. 江邊一樹垂垂發, 朝夕催人自白頭.)”

24) 《荊楚歲時記》: “正月七日爲人日, 以七種菜爲羹, 剪綵爲人, 或鑲金薄爲人, 以貼屏風, 或戴之頭鬢, 又造華勝以相遺, 登高賦詩”

문갑을 열고 잇고 있었던 글들을 뒤적이다가 高適의 글을 발견하였다. 옛날 내가 성도에 있을 때, 그는 蜀州刺史로 있었다. 마침 人日을 맞아 그리워하며 부쳐 온 시를, 시 행간에 눈물을 뿌리면서 끝까지 다시 읽었다. 시를 보내온 지 어언 십여 년이 되었고, 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기록하지 못한 채, 육 칠년이 또 지났다. 내 늙고 병들어 옛일을 생각하니 삶의 의미를 알만도 하다.(開文書帙中, 檢所遺忘, 因得故高常侍適, 往居在成都時, 高任蜀州刺史. 人日相憶見寄詩, 淚灑行間, 讀終篇末. 自枉詩已十餘年, 莫記存沒, 又六七年矣. 老病懷舊, 生意可知.)

라고 생에 대해 비감에 젖은 상념을 토로하고 있다. 그리고 高適의 시를 10 여년이 지난 후에 발견하여 옛일을 회상하며 지은 시에서도, 杜甫는 눈물을 머금으며 10 여년 전의 시를 읊으니 마치 어제의 일처럼 선명하게 떠오른다면 高適을 더욱 애달르게 회상하고, 高適의 굳고 강개한 면모를 추송하고 있다. 이어서 이 시의 앞 8 구를 보자.

自蒙蜀州人日作,	촉주자사였던 高適이 인일에 부친 시를 받은 후,
不意淸詩久零落.	청신한 시가 오래 처박혀 있음을 생각지도 못했네.
今晨散帙眼忽開,	오늘 새벽 풀어진 글 속에 눈이 번쩍 띄어,
迸淚幽吟事如作.	눈물을 머금으며 읊어보니 어제일 같네.
嗚呼壯士多慷慨,	아 그대는 강개한 선비로,
合沓高名動寥廓.	높은 이름에 맞게 온 세상을 움직였네.
歎我悽悽求友篇,	처량하게 친구 그리는 시 지으며 탄식하고,
感君鬱鬱匡時略.	세상 匡正할 계략 펼치지 못함을 개탄한다.

당시 늙고 병든 몸으로 지나간 세월을 회상하는 그의 모습이 더욱 애달게 다가온다.

杜甫가 성도에 온 지 2년이 되었을 때, 이전부터 교류가 있었던 嚴武가 成都府尹 檢 御使大夫로 부임해 왔다. 嚴武의 부친과 杜甫의 부친 때부터 우의를 돈독히 하던 사이로 이들 둘 사이도 비록 나이차이는 있을지라도 매우 친밀했다. 嚴武는 여러 차례 杜甫를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사람을 보내 술과 식량을 보내기도 하는 등 杜甫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代宗 寶應 元年(762) 4월, 玄宗과 肅宗이 연이어 세상을 뜬 후, 嚴武는 부임한 지 반년 남짓 되던 7월에 장안으로 소환되고 성도부윤의 자리에 高適이 부임하게 되어 高適과 杜甫가 같은 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듯했다. 그러나 杜甫는 장안으로 소환되던 嚴武를 綿州에

까지 가서 전송하다가 劍南兵馬使인 徐知道의 반란을 만나 梓州로 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재주에서 杜甫는 梓州刺史 겸 東川節度留侯인 章彝에게로 가서 몸을 의탁하게 되었는데, 본래 장이는 업무의 아래 있던 사람이었던 관계로 杜甫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살폈다. 이 때 재주에서 杜甫가 高適에게 보낸 <寄高適> 시를 보자.

楚隔乾坤遠,	초는 건곤을 사이에 두고 머니,
難超病客魂.	병든 내 넋을 부르기 어렵도다.
詩名惟我共,	시명은 오직 나와 누릴 수 있는데,
世事與誰論.	세간의 일은 누구와 의론하리오.
北闕更新主,	북궐에 새 임금 오르시니,
南星落故園.	남녘의 별은 故園으로 떨어지누나.
定知相見日,	틀림없이 아노라 서로 볼 날에,
爛漫倒芳樽.	난만히 꽃다운 술잔을 비울 것을.

楚와 蜀은 거리가 너무 멀어 <招魂>을 지은 宋玉이라 할지라도 자신 같은 병든 나그네의 혼을 부르기 어려울 것이라고 술회하고 자신만이 高適과 詩名을 같이 누릴 수 있고, 그 밖의 다른 사람들과는 세상일을 같이 논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成都 府尹으로 발탁된 高適이 자신이 成都로 돌아 간 후 자신의 草堂에까지 와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또한 만나게 될 그날, 자신과 高適은 아무런 구속을 받음이 없이 흐드러지게 술로 회포를 풀어야 할 것이라고도 말하고 있다. 이 시에 대해 高適의 唱和시가 현재 전하지 않고 있어 杜甫의 이러한 소망에 대해 高適이 어떠한 반응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高適 역시 杜甫의 심경과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高適이 徐知道의 반란을 평정한 후, 廣德 元年(763), 吐蕃이 松·維·保 三州를 함락시키자 조정에서는 高適을 西川節度使에 임명하여 토번을 치도록 하였으나 아무런 공을 세우지 못하고²⁵⁾ 이듬해 다시 장안에 소환되어 刑部侍郎·散騎常侍에 임명되었다. 이 때 杜甫는 여전히 梓州에 머물러 있으면서 <奉寄高常侍> 시를 지어 高適에게 보냈다.

25) 《資治通鑑》 卷223 : “吐蕃陷松維保三州及雲山新築二城, 西川節度使高適不能救, 於是劍南西山諸州亦入於吐蕃矣”

汶上相逢年頗多,	汶水가에서 서로 만난지 어언 오래,
沸騰無那故人何.	그대의 날아오름을 누구도 따라가지 못하네.
總戎楚蜀應全未,	淮南과 西川節度使 때 재능 다 쓰지 않았지만,
方駕曹劉不啻過.	문학 재능은 曹植 劉楨이라야 나란히 할 수 있으리.
今日朝廷須汲黯,	오늘날 조정에는 汲黯같은 直諫하는 신하 필요하고,
中原將帥憶廉頗.	중원에는 廉頗같은 장수를 생각하네.
天涯春色催遲暮,	하늘가의 봄빛은 늙음을 재촉하고,
別淚遙添錦水派.	이별은 錦江에 서러운 눈물을 보태네.

杜甫는 이전에 高適과 문수 가에서 만났던 것을 회상하고, 官職에서의 잇단 승진에 대해 칭송을 아끼지 않으면서, 조정에서는 汲黯²⁶⁾과 같이 直諫을 하는 高適에 대해 기대가 매우 크기에 高適을 常侍로 임명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高適의 淮南·西川節度使로 吐蕃을 치면서 아무런 공을 세우지 못한 데 대해서는 불만을 보이면서도 오랜 세월 교우 관계를 맺어온 高適과의 이별을 매우 아쉬워하는 정경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서 杜甫의 공과 사를 구별하여 친우를 평가하는 면모를 볼 수 있겠다. 이후로 그들은 다시는 만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장안으로 돌아온 高適은 일년도 되지 않은 永泰元年(765) 정월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이 소식을 들은 杜甫는 매우 애통해 하며 <聞高常侍亡> 시를 지었다. 이 시에서 杜甫는

歸朝不相見,	그대 조정에 돌아갈 때 보지 못했는데,
蜀使忽傳亡.	촉에 온 사신 갑자기 그대가 세상을 떠났다고 전하네.
虛歷金華省,	문하부에서 재능 다 못 펼쳤는데,
何殊地下郎.	어찌 지하의 修文郎과 다르리오.
致君丹檻折,	그대 朱雲 ²⁷⁾ 같이 간언 올리는 충정 돌보였는데,
哭友白雲長.	그대를 추도하는 슬픔은 하얀 구름처럼 길기만 하네.
獨步詩名在,	독보적인 그대의 詩名 여전히,

26) 《漢書·汲黯傳》：“淮南王謀反，惲黯曰，黯好直諫，守節死義，至說公孫弘等，如發蒙耳。”

27) 漢 孝成帝 때, 朱雲은 安昌侯 張禹를 사형에 처하라고 황제에게 諫했다가 도리어 황제의 노여움을 사서 죽게 되었다. 御史가 주문을 殿上에서 끌어 내리려 하자 주문은 어전의 난간을 계속 붙잡고 간하다 난간이 부러졌다. 이 때 左將軍 辛慶忌의 간언으로 죽음을 면할 수 있었는데, 후에 난간을 수리하려 하자 황제는 그냥 두어 忠直한 신하의 정표로 삼으라고 했다. 杜甫는 이 고사를 인용하여 直言을 올리는 高適의 忠貞을 비유하고자 했다.(《漢書·楊胡朱梅雲傳》參照)

祇令故舊傷。 다만 살아 있는 친구들을 서글프게 만드네.

라고 高適에 대해 강직한 성품과 독보적인 시의 명성이 여전히 드높다는 평가와 함께 절친한 친구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비통한 심정을 쏟아내고 있다.

2. 李白과의 交遊

高適이 李白을 처음 만난 것은 天寶 3年으로 高適이 杜甫를 처음 만난 해와 같다. 이 해 李白은 翰林學士 직을 버리고 조정을 나와 梁宋에서 高適·杜甫와 함께 吹臺에 오르고, 梁宋 지방을 유람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杜甫의 <昔遊>, <遺懷> 시 등에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 당시 高適은 梁宋을 떠나면서 李白에게 <宋中別周梁李三子> 시로 이별의 정을 기탁하고 있다. 이 시에서 高適은

李侯懷英雄,	李白은 뛰어난 재주를 품고 있고,
駘驎乃天資.	하늘은 그에게 강직함을 내려 주셨네.
方寸且無間,	그의 마음이 어지럽지도 않았는데,
衣冠當在斯.	그의 처지가 이 지경에 이르렀구나.

라고 이백이 조정에서 추방당한 일을 읊으며 그를 위로하고 있다. 위에서 周·梁 2인에 대해서는 고찰할 길이 없지만 李侯는 당시 高適과 양송 지방을 유람하던 李白을 가리킨다.²⁸⁾

이 해 가을 高適은 梁宋의 李白·杜甫와 헤어져 淮楚 지방으로 갔다가, 天寶 4年(746) 가을, 양송에서 李白·杜甫와 다시 만나게 된다. 高適이 양송 지방으로 돌아온 이후, 高適은 李白·杜甫와 濟南郡 歷城縣에 이르러 北海 太守인 李崑과 高平 太守인 鄭某 등과 大明湖에 배를 띄우고 노닐었는데, 高適에게는 당시의 일을 노래한 <同李太守北池泛舟宴高平鄭太守> 시가 전하고 있고, 李白에게는 <上李崑> 시가, 杜甫에게는 <陪李北海宴歷下亭>·<同李太守登歷下古城員外新亭> 등의 시가 전하고 있다. 李崑이란 인물은 唐의 書法家이자 文學家로 廣陵의 江都(지금의 江蘇揚州市) 사람이다. 그는 武后 長安 初인 701年, 李嶠 등의 추천으로 左拾遺로 임명

28) 聞一多, 《少陵先生年譜會箋》.

되었는데, 직언으로 이름이 높았다. 中宗 때 張柬之와 친하다는 이유로 南和승으로 좌천되었다가 다시 富州司戶參軍으로 폄적당했다. 睿宗 때에는 殿中侍御史에 임명되었으며, 玄宗 때에는 戶部郎中 등을 역임한 후, 天寶 初에 북해태수에 이르렀다. 그러나 天寶 6年(747) 정월, 李林甫의 무고로 죽음을 당하였다. 이 해 高適은 東平을 떠나 양송 지방으로 되돌아오게 되었는데, 이것은 이옹의 죽음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로써 高適은 李白과 헤어지지 않으면 안되었다.

高適은 동평에서 李白과 헤어진 지 10여년이 지난후 직접 상면하지는 못하지만 서신을 통해 李白의 안부를 듣게 되는데, 至德 2년(757)에 永王 李璣이 반란을 일으키자 조정에서는 高適에게 반란을 평정할 것을 명령하였다. 《舊唐書·高適傳》를 보면,

영왕 린이 강동에서 병사를 일으켜 양주를 점령하려고 하였다. 이전에 황제는 여러 왕에게 진을 분할해 주려 했으나 高適이 옳지 않다는 간언을 극구 올린 적이 있었다. 이 후 영왕이 반란을 일으키자, 숙종은 高適의 계략이 뛰어난 것을 알고 그를 불러 계책을 물었다. 이에 高適은 강동의 利·害에 대해 진술하고는 영왕은 반드시 패퇴할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황제는 그의 대답을 기특하다고 여겨 그를 어사대부·양주대도독부장사·회남절도사에 임명하였다.(及永王叛, 肅宗聞其論諫有素, 召而謀之. 適因陳江東利害, 永王必敗. 上奇其對, 以適兼御史大夫·揚州大都督府長史·淮南節度使.)

이에 高適은 安陸에서 淮南西道節度使인 來瑱과 江東節度使인 韋陟을 만나 영왕을 토벌하기 시작하여 至德 2年(757) 12월, 永王의 副將인 季廣琛을 역양에서 무찔렀다.

당시 李白은 廬山의 屏風疊에 은거하고 있었는데, 영왕에게 초빙되어 영왕의 반란에 참여했다가²⁹⁾ 영왕이 패하자 彭澤으로 달아나던 중 관군에게 체포되어 尋陽의 옥에 갇혀 있었다. 그는 옥에 갇힌 후 그가 영왕을 추종한 것은 험박에 의한 것이며 永王의 幕下에서도 관직을 사양하고 상을 받기도 거부하는 등 자신에게 잘못

29) 永王 璣는 玄宗의 열 여섯째 아들이다. 天寶 15年(756) 6월, 玄宗이 蜀으로 피난가다 漢中郡(지금의 섬서 漢中市)에 이르러 璣을 山南東道 및 嶺南·黔中·江南四道節度·探訪使, 江陵郡大都督으로 임명하여 그에게 반군에 대항할 것을 명령했으나 그는 자의로 병사들을 모집하고 세금을 거두었다. 이에 靈武에서 즉위한 肅宗은 璣에게 蜀으로 들어 올 것을 명령했으나 璣는 따르지 않고, 12월에 水軍을 이끌고 동쪽으로 내려와 九江에 도착하였다. 이 때 璣는 李白이 은거해 있던 廬山에 사신을 보내 그를 초빙하였던 것이다.

이 없음을 호소하였다. 그의 이러한 항의와 호소는 당시의 많은 인사들의 동정을 받아 宣慰大使인 崔渙과 御史中丞인 宋若思는 李白을 극구 변호하기에 이르렀다. 이 때 李白 자신도 高適에게 <送張秀才謁高中丞> 시를 보내 구원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이 시의 序文과 본문을 보면,

나는 지금 尋陽의 옥에 갇히어 留侯傳을 읽고 있다. 마침 秀才 장맹웅이 오랑캐를 무찌를 계책을 갖고 廣陵의 高中丞을 알현하러 간다고 한다. 나는 張子房의 풍모를 좋아하고 이 사람에게 감격하는 바가 있어 이 시를 지어 그를 송별하는 것이다.(余時繫尋陽獄中，正讀留侯傳。秀才張孟熊，蘊滅胡之策，將之廣陵謁高中丞。余喜子房之風，感激於斯人，因作是詩以送之。)

無燕霜感， 나에게는 연나라에 서리 내리는 것과 같은 감동³⁰없고,
玉石俱燒焚. 옥과 돌이 섞여 모두 타 버리네.
但灑一行淚, 한 줄기 눈물을 흘릴 뿐,
臨歧竟何云. 갈림길에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리.

라고 張秀才의 조상인 張良에 대한 찬사와 함께 오랑캐를 쳐부술 계략을 高適에게 바치러 가는 張秀才를 통해 구원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高適은 당시 永王을 토벌하는 책임을 지고 있었기에, 이전의 友誼에 호소하여 구원을 요청하는 李白에 대해 드러내놓고 도움의 손길을 보낼 처지가 아니었을 것이다.

3. 李頎와의 交遊

高適과 李頎와의 交遊를 살펴보기 전에 李頎의 대략적인 생애를 살펴보는 것이 이들 둘 사이의 관계를 고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李頎에 대한 기록은 매우 소략하여 그의 생애에 대한 고찰이 쉽지 않는데 그는 대략 則天武后 天授 元年(690) 전후에 태어나서 玄宗 天寶 12年(753)에서 天寶 14年(755) 사이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추정된다. 그의 祖籍은 趙郡(지금의 河北省 趙縣)이고, 실제로 그가 거주했던 곳은 河南府의 潁陽縣이다. 李頎는 벼슬길에 나아가기

30) 鄒衍이 燕의 惠王을 섬기면서 충성을 다하였으나 좌우의 신하들이 그를 참소하였다. 이에 왕은 추연을 묶어 하늘을 우러러 울었다. 이 때문에 여름 5월인데도 하늘에서는 서리가 내렸다.(《太平御覽》：“鄒衍事燕惠王盡忠，左右讒之，王繫之，仰天而哭，夏五月，天爲之降霜。”)

전에 이곳에서 오랫동안 살았다. 그는 시에서 “십년 동안 영수의 북쪽에서 문을 닫고 살았네.(十年閉戶潁水陽)”<緩歌行>, “나는 본래 영수의 북쪽에서 살았었네.(我本家潁北)”<與諸公游濟瀆泛舟>라고 말한 바 있는데, 이곳들이 바로 그가 살았던潁陽이다.

그의 청년 시절은 집안의 부유함으로 游俠생활을 하며 권세 있는 무리들과 交遊를 맺기도 하지만 곧 그들에게 버림을 받고는 돌연 공명에 대한 추구를 뼈저리게 느끼기도 한다. 당시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交遊는 權貴의 무리들과의 교류가 아닌 王維 등과 같은 유명한 시인들과의 交遊였다. 이 때 그는 이들의 영향으로 詩文中서 매우 빠른 발전을 이룰 수 있었는데, 이들과의 만남은 그가 훗날 詩名을 날리는데 견실한 기초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그는 많은 道士와 스님들과도 깊은 교우 관계를 맺었다. 당시 唐王朝는 道·佛敎가 유례없이 흥성하여 嵩山 일대에는 수십 개의 佛寺와 道觀이 세워지던 때로 그 역시 시대 풍조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는 유명한 도사들과 交遊를 하는 한편 스스로 도술을 깨우치고 丹砂를 복용하는 등 수양생활에 힘쓰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것들은 그의 詩作에 宗教的인 색채를 더해 주는 작용을 하고 있다.

開元 17年(729)경까지 潁陽에서 생활하던 李頎는 長安과 洛陽을 만유하게 되는데 유명한 인물들과의 더욱 폭넓은 交遊를 피하고자 했던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에 응시하고자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과거에 응시하여 낙방하고 실의에 젖어 탄식하며, 공명에의 염원을 더욱 절실히 키우다 開元 23年(735)에 進士에 급제한다. 그의 진사 급제 시기에 대해서 《全唐詩》의 李頎 小傳에는 開元 13년에 진사시에 급제하였다고 적고 있지만 위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開元 13년에 그는 潁陽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 점에 관하여 傅璇琮은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하면서 그의 진사급제 연도를 《唐才子傳》에 언급되어 있는 대로 開元 23年으로 단정하고 《全唐詩》에 開元 十三年으로 된 것은 앞에 ‘二’字가 누락되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³¹⁾ 매우 타당한 의견이라 하겠다.

진사에 급제한 후 李頎는 新鄉縣尉에 부임하게 된다. 그의 시 가운데 신향을 언급하고 있는 시는 <欲之新鄉答崔顥慕母潛> 시 1수로 이 시에서 “수년동안의 관리 생활로 집은 자주 비고, 까만 머리 노인네가 되었다고 누가 말하는가?(數年作吏家屢空, 誰道黑頭成老翁)”라고 말하고 있듯이 그가 新鄉縣尉에 부임하던 때는 이미

31) 傅璇琮, 《唐代詩人叢考》, 中華書局, 1981, pp.92-94.

노년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실제로 진사에 급제할 당시 그의 나이는 45, 6세였음을 생각한다면 이와 같이 말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성싶다.

李頎는 新鄉縣尉 職을 언제까지 수행하였던가? 그의 詩作을 통해 고찰해보면, 그가 王昌齡과 交遊하며 지은 <送王昌齡> 시³²⁾가 있는데, 이 시는 王昌齡이 江寧丞으로 貶謫되어 가던 開元 29年(741) 여름, 洛陽을 지날 때 그를 전송하며 李頎가 쓴 시이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開元 29年 여름에 李頎는 이미 新鄉縣尉를 사직하고 낙양에 돌아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唐代的 制度 중, 한 職位에 부임하고 3년안에 승진을 해야하고 오래 걸려야 5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李頎는 5년이 넘도록 승진을 하지 못해 하는 수 없이 사직을 해야만 했던 듯하다.

新鄉縣尉를 사직하고 洛陽으로 돌아와 天寶年間 초기를 줄곧 이곳에서 생활하던 李頎의 주요한 활동은 문사들의 游宴에 참가하여 많은 문인들과 어울려 酬贈詩를 짓는 것이었다. 청년시기부터 활발했던 그의 交遊는 이즈음에 더욱 왕성해지는데, 그의 詩作을 통해 당시 그가 交遊했던 사람들을 고찰해 보면, 高適을 비롯하여 王昌齡³³⁾· 綦毋潛³⁴⁾· 崔顥³⁵⁾· 裴迪³⁶⁾· 皇甫曾³⁷⁾과 같은 시인들과 書法家 張旭³⁸⁾, 音樂家 董庭蘭³⁹⁾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였다. 청년 시기에 이미 유명한 문인들과 어울리며 시명을 날렸던 그가 비록 높은 지위에는 오르지 못했더라도 자신의 시적 재능을 발휘하여 많은 문인들과 빈번한 교류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짐

32) <送王昌齡> 詩：“조운의 물은 동쪽으로 흘러 멀어지는데, 그대를 보내매 애닦은 마음 깊어라 … 밤에는 연화계에 왔다가, 꿈 속에서는 금릉성을 노니네. 아 아 여기에서 이별한 후 멀리 강으로 나아가는 그대 모습이여.(漕水東去遠, 送君多暮情 … 夜來蓮花界, 夢裡金陵城. 嘆息此離別, 悠悠江海行.)”

33) 王昌齡에게는 <東京府縣諸公與綦毋潛李頎相送至白馬寺宿> 시가 전하고 있다. “말을 채찍질하여 동문에 오르고, 배회하다 외로운 배에 올랐네. 그대들 따르며 나를 전송하여, 천리나 멀리 노를 저어 왔노라. 석양이 붉게 강둑을 물들이고, 외로운 파도는 열린 안개를 머금고 있네. 미관에 있으면서도 술에 취해 와서 오래 머무를 따름이네.(徘徊入孤舟. 賢豪相追送, 卽棹千里流. 赤岸落日在, 空波微煙收. 薄官亡機括, 醉來復淹流.)”

34) 李頎의 시 중에 그와 관련이 있는 시로는 <寄綦毋三>· <送綦毋三謁房給事>· <題綦母校書別業>· <送綦母三寺中賦得紗燈>· <奉送五叔入京兼寄綦母三>· <送五叔入京兼寄綦母三> 詩 등이 전하고 있다.

35) <欲之新鄉答崔顥綦毋潛> 詩.

36) <龍門送裴侍御監五嶺選>· <二妃廟送裴侍御使桂陽> 詩.

37) <送皇甫曾游襄陽山水兼謁韋太守> 詩.

38) <贈張旭> 詩.

39) 隴西 사람으로 音樂에 뛰어났는데, 특히 ‘大胡笳’, ‘小胡笳’를 잘했다. 이기는 그의 音樂에 대해 <聽董大彈胡笳聲兼語寄房給事> 시에서 세밀히 묘사하고 있다.

작할 수 있는 일이다.

李頎와 高適의 만남은 天寶 8年 高適이 有道科에 급제하여 封丘尉에 부임하면서 낙양을 지날 때 이루어진다. 당시 李頎는 新鄉縣尉 직을 사직하고 고향인 낙양에 돌아와 여러 문인들과 어울리며 지내고 있을 때였다. 이 때 高適이 鄭三·韋九·李頎 등과 이별하며 <留別鄭三韋九兼洛下諸公> 시를 지어 이별의 슬픔과 미관 말직에 부임하는 자신의 처지를 그리고 있다.

.....

遠路鳴蟬秋興發,	먼 길 떠나려는데 매미 우니 가을 감흥이 일고,
華堂美酒難憂銷.	화당에 좋은 술 있으니 이별의 슬픔 삭으려 드네.
不知何時更携手,	언제에나 다시 만나려나,
應念茲晨去折腰.	이 새벽에 허리 굽히려 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리.

李頎는 이에 高適에게 <贈別高三十五> 라는 시로 그를 송별하였다.

五十無產業,	오십이 되어도 일정한 일거리가 없지만,
心輕百萬資.	마음은 여전히 백만 금을 가벼이 여기네.
屠酷亦與群,	천한 사람들과도 어울려,
不問君是誰.	상대가 누구인가를 따지지 않네.
飲酒或垂釣,	술마시고 낚시질하며,
狂歌兼詠詩.	미친 듯이 노래부르고 시를 읊조리네.

.....

小縣情未愜,	작은 현이라 만족스럽지 못하겠지만,
折腰君莫辭.	기꺼이 허리 굽히고 사양하지 말게나.
吾觀主人意,	내 황제의 뜻을 보건대,
不久召京使.	머지않아 그대를 장안으로 부르리니.

위 시는 高適의 초기 생활을 연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는 시이다. 위 시에서 高適이 벼슬에 나아가지 않은 때 양·송 일대를 유랑하며 사람을 가리지 않고 交遊를 맺던 정경을 묘사한 후에 高適이 장안으로 가서 과거에 응시, 급제하여 봉구위에 부임하기까지의 상황을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李頎는 高適에게 작은 縣일 망정 높은 관직으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 되므로 마다하지 말고 나아갈 것과 곧 높은 지위가 다다르게 될 것이라는 격려도 빠뜨리지 않고 있다.

위 시외에 李頎가 高適에게 준 시로는 <答高三十五留別便呈于十一> 시가 전하고 있는데, 이 시 역시 고적이 봉구현위에 부임할 때 준 시이다.

III. 岑參의 交遊

1. 杜甫와의 交遊

岑參과 杜甫가 정확하게 언제 왕래를 시작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그들의 시를 통해서만 고찰할 길이 없다. 다만 그들이 주고받은 시 가운데 가장 시기가 이른 杜甫의 <九日寄岑參> 시를 보면, 이 시가 지어진 天寶 10年 당시에 그들이 서로 처음 안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랫동안 사귄 사이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은 이전부터 서로를 매우 잘 알고 우의를 돈독히 해 왔음을 알 수 있다.⁴⁰⁾ 먼저 杜甫의 <九日寄岑參> 시를 보도록 하자.

出門復入門,	집을 나서려다 다시 들어오니,
雨脚但如舊.	빗발은 여전하다.
所向泥活活,	가는 곳이 진흙으로 질퍽하니,
思君令人瘦.	그대를 생각하면 수척해지네.
沈吟坐西軒,	깊이 읊조리며 서헌에 앉아 있으니,
飲食錯昏晝.	날 어두워 밥 먹을 시간도 헤아리기 어려워라.
寸步曲江頭,	곡강 어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
難爲一相就.	서로 나아가기가 어려워라.
.....	
岑生多新語,	그대에게는 새로운 시 많고,
性亦嗜醇酒.	성품 또한 술 마시기 좋아하네.

40) 岑參과 杜甫가 사귀기 시작한 시점에 대해, 劉維崇은 대체로 天寶 12-13년 경 長安에서 라고 추정하는 바 있고(《杜甫評傳》, p.143), 陳貽燦 씨도 天寶 5년에서 8년사이, 혹은 天寶 10년에서 13년 사이에 그들이 장안에 있을 때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한 반면(《杜甫評傳》, p. 224), 廖立씨는 이 시기를 開元 年間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開元 22년, 岑參은 조정에 글을 바치기 위해 낙양에 왔으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다시 嵩·洛 사이에서 머무르고 있을 당시, 杜甫 역시 과거에 응시하기 위해 洛陽에 왔다가 낙방하고 濟·越 간을 유랑하였는데, 이 때 처음 만났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주장한 바 있다. (廖立, 앞의 책, p.118 참조)

采采黃金花, 황금 같은 아름다운 국화를 꺾어
何由滿衣袖. 어떻게 옷소매를 가득 채우리오.

위에서 杜甫는 岑參에 대한 깊은 想念과 重九라는 佳節임에도 연일 그치지 않고 계속 내리는 비 때문에 岑參과 詩와 술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아쉬움을 피력하고 있다. 仇兆鰲는 이 시가 天寶 13年 9월에 지어졌다고 고찰한 바 있지만⁴¹⁾ 그 때는 岑參이 이미 北庭으로 부임하고 장안에 없었던 때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적다.⁴²⁾ 위시는 岑參이 처음으로 安西에 종군했다가 長安으로 되돌아 온 후인 天寶 10年(751) 가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⁴³⁾ 이 때 杜甫는 장안의 동남쪽인 少陵原에 거주하고 있었고, 岑參은 杜陵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왕래할 수 있는 거리였다. 그러나 진흙 투성이의 길로 인해 찾아가지 못하는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安西에 부임한 후에 岑參의 시풍이 새로워졌음을 杜甫는 지적하고 있다.

이후 天寶 12年(753) 6월, 그들의 시에는 鄆縣의 漢陂를 함께 유람했다는 기록이 보이지 않지만 각각의 작품을 통해, 그들이 함께 漢陂를 노닐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岑參에게는 <與鄆縣源少府泛漢陂> 시가 있고, 杜甫에게는 <與鄆縣源少府宴漢陂> 시가 전하고 있는데, 두 시인의 詩題를 비교해보면, 단지 두 字만 다를 뿐이며, 각 시의 自注가 '得人字', '得寒字'로 거의 같다. 이것으로 호현의 源少府가 벌인 연회에 岑參과 杜甫가 함께 참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연회 이후 岑參과 그의 동생은 杜甫와 함께 다시 漢陂를 노닐었고, 이 때의 일을 杜甫는 <漢陂行> 시에 적고 있는데,

岑參兄弟皆好奇, 岑參형제 모두 기이한 것을 좋아하여,
携我遠來遊漢陂. 나와 멀리 漢陂까지 놀러 왔네.
天地醜慘忽異色, 천지가 어두워지자 홀연 경색이 바뀌고,
波濤萬頃堆琉璃. 만경창파는 유리 같았네.

41) 仇兆鰲, 《杜詩詳注》 卷3: “此當是天寶十三載九月作.”

42) 天寶 13年(754), 安西四鎮節度使 封常清이 入朝하여 北庭都護伊西節度瀚海軍使로 임명되자, 岑參은 大理評事攝監察御史充安西北庭節度判官으로 임명되어 封常清을 따라 北庭으로 부임하게 되었다. 그 해 3월, 長安을 떠나 臨洮·祈連·酒泉 등을 경유하여 4월 경에 北庭에 도착하였다.

43) 廖立, 앞의 책, pp.118-119.

琉璃汗漫泛舟入, 유리처럼 맑고 잔잔한 물위에 배 띄우자,
 事殊興極憂思集. 사태 돌변하여 흥취 극에 달하여 걱정이 몰려오네.
 龍作鯨吞不復知, 악어 나타나고 고래가 삼킬지도 모르니,
 惡風白浪何嗟及. 세찬 바람, 하얀 파도를 어쩔 수가 없도다.

라고 岑參·岑乘 형제가 자신을 데리고 漢陂를 노닐었던 것을 적고 있다. 岑參에게는 謂·況 등 2명의 형⁴⁴⁾과 乘·亞 등 2명의 아우⁴⁵⁾가 있었는데, 陳貽焮은 위 시에서의 '岑參兄弟'를 岑參과 그의 형 況으로 파악한 바 있지만,⁴⁶⁾ 나이 등을 고려할 때, 형인 況이 아니고 아우인 乘이라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天寶 11年(752) 가을 岑參은 杜甫·高適·儲光羲·薛據 등과 함께 慈恩寺 탑에 올라 시를 지은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고찰한 바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天寶 14年(755) 안록산이 반란을 일으킨 후, 岑參이 보좌하던 封常清이 안록산의 난을 평정하라는 임무를 부여받고 장안으로 소환되자, 岑參 또한 지덕 2年 봄에 장안으로 돌아오던 중, 鳳翔에 이르러 肅宗을 따르게 되었다. 이 때 좌습유 직에 있던 杜甫 등이 岑參을 조정에 추천하여⁴⁷⁾ 그를 右補闕에 임명되도록 하였는데, 이것으로도 岑參과 杜甫의 깊은 우애를 엿볼 수 있겠다. 이듬해인 乾元 元年(758), 岑參과 杜甫는 각각 右補闕과 左拾遺로 함께 조정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이 때 岑參은 杜甫에게 <寄左省杜拾遺> 시를 주었는데,

44) 岑謂는 벼슬이 澄城丞에까지 올랐고, 岑況은 湖州別駕에까지 다다랐다. 岑況은 일찌기 單父습이었을 때부터, 정치를 잘 한다고 이미 소문이 났었다. 岑參에게는 그의 두 형에 대해 언급한 시가 여러 편이 있는데, 이러한 시들을 살펴보면, "單父에선 고래로 宓子賤을 칭송했는데, 지금 그곳에서 정치를 하는 이는 내 형일세.(單父古來稱宓生, 只今爲政有吾兄.)" <梁園歌送王說判官赴河南>, "單父가 가깝다고 하니, 편지 좀 빨리 전해 주게나.(單父聞相近, 家書早爲傳.)" <送楚丘鞠少府赴官>, "내 형은 틀림없이 내 안부 물을 것이니, 귀밀 털이 하얗다고 전해주게나.(吾兄應借問, 爲報鬢毛霜.)" <送人歸江寧>, "우리 형에게 알려주게나, 지금 벌써 백발이 되었다고.(爲報吾兄道, 如今已白頭.)" <送揚州王司馬> 시 등이 있다.

45) 岑乘은 太子贊善大夫라는 벼슬을 지냈으며, 岑亞는 長葛丞을 지냈다.

46) 陳貽焮, 앞의 책, p.223.

47) <爲遺補薦岑參狀>(《杜甫文集》卷2): 宜議郎, 試大理評事, 攝監察御史, 賜緋魚袋, 岑參. 右臣等, 竊見岑參, 識度清遠, 議論雅正, 佳名早立, 時輩所仰. 今諫諍之路大開, 獻替之官未備. 恭維近侍, 實藉茂材. 臣等謹詣闕門奉狀, 陳薦以聞, 伏聽進止. 至德二年六月十二日左拾遺內供奉臣裴薦等狀. 左拾遺內供奉孟昌浩, 左拾遺內供奉臣韋齊旻, 左拾遺內供奉臣杜甫, 左補闕臣韋少遊.

聯步趨丹陛,	함께 조회에 나가,
分曹限紫薇.	자미성을 사이에 두고 좌·우로 나아가네.
曉隨天仗入,	새벽에 천장을 따라 입장하여,
暮惹御香歸.	저녁에 향내에 배어 돌아오네.
白髮悲花落,	백발이 되니 떨어지는 꽃이 서글퍼지고,
靑雲羨鳥飛.	청운에 높이 나는 새가 부러워지네.
聖朝無闕事,	조정에는 잘못이 없어,
自覺諫書稀.	간언 올릴 일 드물어짐을 알겠도다.

라고 조정에서 함께 근무하지만 岑參은 右補闕로서 中書省에 속해 右翼에 있게 되었고, 杜甫는 좌속유로서 門下省에 속해 左翼에 있게 되어 서로 떨어져야 하는 것을 묘사한 후에 백발이 되어도 중용되지 못하고 한갓 청운의 새로 비유된 높은 지위만을 부러워하고 있는 자신의 실의를 그려내고 있다. 그리고 조정에 과실이 없어 간언 올리는 일이 드물어졌음을 말하고 있다. 후대의 사람들은 위 시를 놓고 조정에 같이 근무하던 岑參과 杜甫 두 사람 중 누가 자신의 직무에 충실했던가를 평가한 했는데, 《荅溪漁隱叢話》를 보면,

肅宗 至德 초에 杜甫는 습유였고, 岑參은 보궐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현명하냐고 물기에, 나는 “杜甫가 더 현명하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것을 어떻게 아는가?”라고 물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시로 그것을 알 수 있는데, 杜甫의 시에는 ‘사람 피해 군주의 잘못 언급한 간언의 초고를 불태우고, 말을 타고 돌아가려 하니 닭은 횃대에 오르네.’⁴⁸⁾ 또 ‘내일 아침 봉사 올릴 일 있어, 자다가도 자주 밤이 어느 때 쯤 되었나 묻네.’⁴⁹⁾라고 했다. 岑參의 시에는 ‘조정에는 잘못이 없어, 간언 올릴 일 드물어짐을 알겠도다.’라고 하였는데, 지덕 초에 안사의 난이 극렬해져 황제는 촉으로 피난을 가는 등 조야가 소란했었는데 과연 조정에 잘못이 없던 때인가?”라고 대답했다.(肅宗至德初, 子美爲拾遺, 岑參爲補闕, 或問二人誰賢. 余曰子美賢. 或曰何以知之, 曰以其詩知之, 子美之詩曰, 避人焚諫草, 騎馬欲雞栖. 又曰, 明朝有封事, 數問夜如何. 參之詩曰, 聖朝無闕事, 自覺諫書稀. 至德初, 安史之亂方劇, 上皇在蜀, 朝野騷然, 果無闕事時耶.)

라고 한 것처럼 간언을 올리는 일이 드물어졌다는 말을 황제에게 순종하고 아첨하는 언사로 파악하는 평자들도 많았지만, 실은 자기의 직무의 수행에서 오는 무기력함을 한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우보궐의 직무라고 하는 것이 간

48) <晚出左掖> 詩.

49) <春宿左省> 詩.

언을 하는 일인데, 실제로는 자기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을 풍자하여 杜甫에게 털어놓고 있는 것이다.⁵⁰⁾ 이에 답하여 杜甫는 <奉答岑參補闕見贈> 시에서,

窈窕清禁闕,	깊고 맑은 금궐에서,
罷朝歸不同.	조회 마치고 같이 돌아오지 못하노라.
君隨丞相後,	그대는 승상의 뒤를 쫓고,
我往日華東.	나는 일화의 동녘에 있노라.
冉冉柳枝碧,	어른 어른한 버들가지는 푸르고,
娟娟花蕊紅.	고운 꽃부리는 붉도다.
故人得佳句,	그대 좋은 글귀를 얻어,
獨贈白頭翁.	홀로 머리 센 할아버지를 주노라.

라고 岑參의 위 시에 대해 杜甫는 함께 조회에 나가 좌·우로 헤어진다는 말을 받아 같이 돌아오지 못한다고 답을 하고 있으며, 岑參의 백발이 되니 꽃이 지는 것이 서글프다는 말을 받아서는 반대로 푸른 버들가지와 고운 꽃부리를 들어 답하여 岑參을 격려하고 있다.

이 해 杜甫는 房琯에 대한 변호사건으로 華州司功으로 좌천되어⁵¹⁾ 岑參과 이별을 고해야 했다. 두 시인은 비록 헤어졌지만 서로에 대한 우정은 더욱 깊어만 갔다. 乾元 2年(759), 華州에서의 생활을 감내하지 못하고 秦州로 간 杜甫는 岑參에게 <寄彭州高三十五使君適虢州岑二十七長史參三十韻> 시를 보냈는데, 이 때 岑參은 右補闕에서 起居舍人으로서 옮겼다가 다시 虢州長史로 나아가 있었다. 이 시에서 杜甫는 高適과 岑參을 병칭하고 있는데, 그들의 시의 풍격을 같은 것으로 파악한 최초의 언급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하겠다.

故人何寂寞,	그대 어찌 적막하리오,
今我獨淒涼.	이제 나 홀로 처량해라.
老去才雖盡,	늙어서 재주 다했으나,
秋來興甚長.	가을이 되니 감흥이 매우 길도다.
物情尤可見,	만물의 뜻이 더욱 불만하니,
詞客未能忘.	고·잠 그대들 잊을 수가 없도다.

50) 鍾惺, 《唐詩歸》 卷13: “勿認作頌聖諛語”

吳喬, 《圍爐詩話》 卷3: “岑參寄杜拾遺云, 聖朝無闕事, 自覺諫書稀. 反言以見意也, 宋人譏其爲順從, 以活句爲死句矣.”

51) 주 15) 참조.

海內知名士, 해내의 이름 아는 선비는,
 雲端各異方. 구름 끝 각기 다른 곳에 가 있네.
 高岑殊緩步, 고잠이 자못 緩步라 해도,
 沈鮑得同行. 沈約과 鮑照와 견줄만하네.
 意愜關飛動, 뜻이 흡족하니 글이 기세가 드높고,
 篇終接混茫. 한편을 끝내면 태초에 맞닿아 있도다.
 ……………

廣德 원년(763)에 杜甫가 梓州로 피난가서 虢州長史에서 太子中允으로 자리를 옮긴 岑參에게 보낸 <泛舟送魏十八倉曹還京因寄岑中允參范郎中季明> 시와 杜甫가 雲安에서 岑參에게 보낸 <寄岑嘉州> 시가 있는데, 이 중 <寄岑嘉州> 시를 보도록 하자.

不見故人十餘年, 그대 보지 못한 지 10여년,
 不道故人無素書. 그대 편지 받지 못한 것은 말하지 않겠네.
 願逢顏色關塞遠, 얼굴보기 원했으나 멀리 있던 그대가,
 豈意出守江城居. 어찌 거주자사로 부임할 줄 알았으랴.
 外江三峽且相接, 그대 있는 외강과 내가 있는 삼협은 가깝건만,
 斗酒新詩終自疎. 같이 술 마시고 시 지을 기회는 드무네.
 謝朓每篇堪誦誦, 사조의 시같은 그대 시는 모두 읊조릴 만한데,
 馮唐已老聽吹噓. 나는 풍당⁵²⁾같이 늙었으니 그대의 배려에 말걸 뿐이네.
 泊船秋夜經春草, 가을밤 배 정박시켜 놓은 후로 봄 풀 돋을 때가 되었는데,
 伏枕青檣限玉除. 병들어 누웠으니 푸른 단풍이 궁궐을 가려 보이지 않네.
 眼前所寄選何物, 눈앞의 어느 것을 그대에게 보낼꼬,
 贈子雲安雙鯉魚. 그대에게 보낼 것은 한 쌍의 운안 잉어라네.

위 시는 永泰 元年(765), 杜甫는 성도의 초당을 떠나 戎州·渝州·忠州 등을 경유하여 雲安에 도착한 후 嘉州刺史로 나아가 있는 岑參에게 보낸 시이다. 자신은 馮唐에 비유하고 岑參을 謝朓에 비유하여 그리움을 더욱 강렬하게 그려내고 있다. 雲安과 嘉州 모두 巴蜀에 속해 있는 땅으로 거리가 매우 가까웠다. 하지만 서로 헤어진 지 10여년이나 되었어도 만날 수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편지조차 왕래할 수 없는 전란에 휩쓸린 시대를 원망하고 친구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52) 《史記·馮唐傳》：“武帝立，求賢良，舉馮唐，當時年九十餘，不能復爲官，乃以唐子馮遂爲郎。”

2. 王昌齡과의 交遊

王昌齡은 則天武后 聖曆 元年(698)에 京兆府에서 태어났다. 그의 출생지에 대해서 《河岳英靈集》⁵³⁾·《唐才子傳》⁵⁴⁾과 王昌齡의 <洛陽尉劉晏與府縣諸公茶集天宮寺岸道上人房> 시⁵⁵⁾에서는 太原人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나 太原은 그의 郡望이다. 그리고 《新唐書》·《唐詩紀事》 등에는 그가 江寧人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江寧은 그가 중년에 貶謫되어 갔던 곳이다.

26세 때인 開元 11年(723)부터 開元 14年(726)까지 王昌齡은 河東의 并州와 潞州를 유랑하고 변방의 여러 곳을 유랑하기도 했는데, 그의 변세에서의 행로를 그의 변세시를 통해 추정하면, 涇州·蕭關·臨洮·玉門關 등과 葱嶺以西의 碎葉에까지 나아갔다. 여러 곳을 유람하며 그는 자신의 궁곤한 상황을 타개하고 공명을 이루고자하는 염원을 한껏 키웠는데, 이러한 염원은 당시의 昂揚한 時代精神과 맞물려 그로 하여금 어떻게든 벼슬길로 나아가도록 재촉하였다. 이에 王昌齡은 京兆尹·工部侍郎·兵部侍郎 등을 거쳐 吏部侍郎에 있던 李元紘에게 글을 올려 자신의 처지를 밝히는 동시에 자신을 천거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노력은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각고의 노력 끝에 그는 드디어 開元 15年(727)에 진사시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르게 되었다. 《舊唐書》의 기록에는 王昌齡이 급제한 후 校書郎에 임명되고, 博學宏詞科에 급제한 후에 汜水縣尉로 나아갔다고 하였는데,⁵⁶⁾ 이후 《新唐書》·《唐詩紀事》 등도 《舊唐書》를 따라 같은 주장을 하고 있으며 최근 傅璇琮⁵⁷⁾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唐才子傳》에는 進士試 급제 후에 汜水尉를 제수 받았다고 《舊唐書》 등의 기록과는 상반되게 기록하고 있다. 최근 譚優學⁵⁸⁾·鈴木修次⁵⁹⁾·屈光⁶⁰⁾ 등이 《唐才子傳》의 기록을 따라

53) 殷璠, 《河岳英靈集》, 卷中: “頃有太原王昌齡”

54) 辛文房, 《唐才子傳》 卷2: “昌齡字少伯, 太原人.”

55) <洛陽尉劉晏與府縣諸公茶集天宮寺岸道上人房> 詩: “舊居太行北, 遠宦滄溟東.”

56) 《舊唐書·文苑傳》: “王昌齡者, 進士登第, 補秘書省校書郎. 又以博學宏詞登科, 再遷汜水縣尉.”

57) 傅璇琮, 《唐代詩人叢考》.

58) 譚優學, <王昌齡行年攷>, 《文學遺產增刊》, 12.

59) 鈴木修次, 《唐代詩人論》.

60) 屈光, <王昌齡任校書郎年代辨疑>, 《文學遺產增刊》 17, 1991.

같은 주장을 펴고 있는데, 여러 정황을 통해 고찰해 볼 때 《唐才子傳》의 기록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校書郎에 임명되어 이곳에서 몇년을 근무하던 王昌齡에게 嶺南으로 폼적당하는 불행이 발생한 것은 開元 25년(737)의 일이었다. 이것이 그에게 있어 세차례의 폼적 가운데 첫번 째였다. 嶺南으로 가는 도중 그는 襄陽을 지나다 친구인 孟浩然을 만났으며, 荊州를 지나면서는 秘書少監으로 있다가 李林甫의 배척을 받아 荊州長史로 폼적되어 와 있던 張九齡에게 <奉贈張荊州> 시를 바치며 자신의 심사를 토로하기도 하고, 당시 이곳을 떠돌던 李白을 만나 시로 찬화하며 우의를 다지기도 했다.⁶¹⁾

開元 27年(739), 사면을 받아 이듬해 長安으로 돌아오다 襄陽을 지나면서 王昌齡은 또 孟浩然을 만나게 되었으며 얼마후 다시 江寧丞으로 폼적당하게 되었다.

江寧에서 7년을 보낸 王昌齡은 江寧에서 다시 龍標로 폼적당하게 되었는데, 그의 貶謫 원인은 《河岳英靈集》에 언급되어 있는 바와 같이 세속에 영합하지 못한 데에 원인이 있는 듯하다.⁶²⁾ 그의 龍標에서의 생활은 자신의 처자와 친구들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외로움과 高齡으로 인한 처량함이 겹쳐 매우 고통스러웠다. 安祿山의 난이 발생하자, 王昌齡은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龍標를 출발하였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뜻밖에 亳州刺史인 閔丘曉에게 피살당하여 불여의한 일생을 비극적으로 마감하였다.

그러면 岑參이 王昌齡을 처음 만난 것은 언제인가? 岑參이 王昌齡을 처음 만난 것은 開元 28年(740) 岑參이 출사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長安에 와 있을 때였다. 王昌齡은 위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嶺南에서 사면을 받고 長安에 돌아와 있다가 다시 江寧丞으로 폼적당한 때였다. 江寧으로 부임하며 그는 岑參형제에게 <留別岑參兄弟> 시로 작별을 했는데,

江城建業樓,	강가 성위의 건업루에 서니,
山盡滄海頭.	산은 창해의 끝까지 뻗어 있네.
副職守旻縣,	현승이 되어 현에 부임하고자,
東南權孤舟.	동남쪽으로 외로운 배 저어가네.
長安故人宅,	장안 그대의 집에서,
秣馬經前秋.	말에게 먹이를 주며 가을을 보내기도 했었지.
便以風雪暮,	곧 눈보라치며 어두워지려 하는데,

61) 당시에 王昌齡이 李白을 송별하며 지은 <巴陵送李十二> 시가 전하고 있다.

62) 殷璠, 《河嶽英靈集》：“晚節不矜細行，謗議沸騰，垂歷避荒.”

還爲縱飲留。	또 흐드러지게 마시며 그대와 이별이라.
.....	
岑家雙瓊樹，	그대의 가문엔 두명의 유명한 사람 있어，
騰光難爲儔。	빛나는 광채 대적하기 어렵네.
誰言青門悲，	누가 청문이 슬프다고 이르는가?
俯期吳山幽。	그대 나를 맞아 오산에서 유랑할 것을 기약하네.
日西石門嶠，	해가 석문산에 기울자，
月吐金陵州。	달은 금릉의 모래톱으로 솟아오르네.
追隨探靈怪，	서로 따르며 영괴함을 찾으니，
豈不驕王侯。	어찌 왕후에게 뽐내지 않으리오?

당시 岑參과 王昌齡 두 사람 모두 長安에 기거할 거처를 가지고 있어서 만날 기회가 많았던 듯하다. 당시 岑參은 27세였고, 王昌齡은 이미 50세 내외로 나이 차이가 엄청났지만 둘은 나이를 염두에 두지 않고 깊은 우정을 나누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에 대해 岑參은 <送王大昌齡赴江寧> 시를 써서 王昌齡을 송별하였다.

對酒寂不語，	술을 대하고도 울적하여 말을 못하고，
悵然悲送君。	쓸쓸히 그대를 송별하노라.
明時未得用，	성세에 등용되지 못하고，
白首徒攻文。	늙도록 한갓 시문만을 갈고 닦네.
澤國從一官，	강남에 부임코자，
滄波幾千里。	수천리 강물 가르며 가네.
群公滿天闕，	선비들 조정에 가득한데，
獨去過淮水。	그대 홀로 회수를 건너네.
.....	
窮巷獨閉門，	깊은 골목에 유독 문이 닫혀 있고，
寒燈靜深屋。	차가운 등불만이 깊은 방을 고요히 비추네.
北風吹微雪，	북풍은 눈을 불어 훑날리는데，
抱被肯同宿。	이불 껴안고 같이 잘 수 있으려나.
君行到京口，	그대 경구에 닿을 쯤이면，
正是桃花時。	복숭아꽃 피는 봄이 와 있겠지.
舟中饒孤興，	배속에선 고독한 흥치 넘쳐흘러，
湖上多新詩。	호수 위에는 새로운 시가 많으리.
潛虻且深蟻，	규룡은 물 속에서 더욱 웅크리니，
黃鵠舉未晚。	황곡이 높이 날 계를 기다려도 늦지 않으리.
惜君青雲器，	애답도다. 그대의 뛰어난 재주여，
努力加餐飯。	부디 몸조심하시오.

岑參은 위 시에서 재주를 지녔으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 王昌齡의 처지를 동정하는 한편 그의 불여의한 상황에 대해 분개해하고 있다. 이어 강남에서 우의를 나누던 상황을 회고하고 그를 떠나 보내는 아쉬움과 그에 대한 격려의 말을 잊지 않고 있다.

위 시 외에 岑參이 王昌齡의 처지를 동정하는 시로 <送許子擢第歸江寧拜親因寄王大昌齡> 시가 있는데, 이 시는 許子가 과거에 급제한 후 연회를 베풀어 즐거움을 나누는 도중, 갑자기 영남으로 폼적당해 가 있는 王昌齡을 떠올리며 지은 시이다.

.....

王兄尙謫宦,	왕창령은 여전히 귀향가 있는 몸으로,
屢見秋雲生.	여러 차례 가을 구름 피어오르는 것을 보노라.
孤城帶後湖,	고성은 후호 ⁶³⁾ 에 둘러싸여 있어,
心與湖水清.	마음과 호수 모두 맑기만 하다.
一縣無諍辭,	은 현에는 쟁송 없고,
有時聞道經.	때로 도경 소리 들려 오네.
黃鶴垂兩翅,	황학은 두 날개 늘어뜨리고,
徘徊但悲鳴.	배회하며 슬피 울기만 하네.
相思不可見,	그대 보고파도 볼 수 없고,
空望牛女星.	공연히 건우 직녀성만을 바라보네.

강남으로 폼적당해 벌써 여러 해를 보냈건만 여전히 돌아올 기약 없는 왕창령에 대한 그리움이 더없이 쓸쓸하고 아련하게 가슴에 와 닿는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변새시파의 대표 시인이라 할 수 있는 高適과 岑參의 교유에 대해 살펴 보았다. 성당 시단을 주도하던 李白·杜甫 등과의 관계를 통하여, 盛唐 詩壇의 상황과 그들의 사적을 부분적이거나 추적해낼 수 있었다. 위에서 高適·岑參의 교유를 고찰하면서, 특히 杜甫와의 관계가 매우 커다란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63) 建鄴에 있는 호수로 玄武湖라고도 한다.

있었다.

盛唐 시인 중에 杜甫만큼 당시의 유명한 많은 시인들과 친분을 두터이 했던 시인은 없었다. 杜甫는 감정을 중시하고 우정을 매우 존중했던 사람으로 그가 친구들에게 했던 우호의 표시는 의례적이 아닌 모두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다. 杜甫와의交遊를 통해 高適·岑參은 일생동안 시의 창작 뿐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서로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문학상의 영향 뿐 아니라 그들이 진지한 우의를 나누는 동안 서로에게 준 시의 내용과 특징, 그리고 성당시단을 주도하던 그들이 서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먼저, 高適과 杜甫의 교유를 고찰하면서 우리는 그들이 주고받은 시의 양에서 뿐 아니라 시종 열정적인 시의 내용을 통해서 그들의 진지한 우의를 감지할 수 있었다. 그들이 이렇게 깊은 우정을 지속시킬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인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들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민생의 질고에 대한 강렬한 관심과 정치주장에 있어서의 유사성. 둘째, 강렬한 애국주의 정신. 셋째, 시가 창작에 있어서의 동일한 현실주의.⁶⁴⁾ 이 세가지 점 외에 빼놓을 수 없는 점은, 처음 그들이 만났을 당시의 공명의 추구하고 좌절에 있어서의 비슷한 처지를 들 수 있을 것이다.⁶⁵⁾

시의 내용에 있어서 高適이 杜甫에게 준 시는 杜甫의 고통스런 처지에 대해 위로하는 일상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었던 데 반해, 杜甫가 高適에게 준 시는 高適의 시에 있어서의 성취와 강개하고도 끈은 성품의 찬미 등으로 내용이 다양했다.

岑參을 추천하여 조정에서 같이 근무할 정도로 깊은 관계를 유지하였던 岑參·杜甫 역시 시종 남다른 우애를 가지고 서로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했다. 그리고 杜甫가 <漢陵行> 시에서 岑參의 천성적인 호기심을 간파하여 표현한 것은, 후에 岑參 시의奇異한 풍격을 도출해내는 단서가 되기도 하는데, 그만큼 친구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말해주는 한 가지 예라 할 것이다.

이밖에 高適·杜甫·李白의 만남은 이전까지 그들이 조정에 대해 가지고 있던 환상을 버리고 자신들의 눈을 상층계급으로부터 백성들의 현실과 국가의 앞길에

64) 余正松, 《高適研究》, pp.224-226.

65) 이러한 공통점은 盛唐 邊塞詩의 대표 시인이라 할 수 있는 고적·岑參에게는 정작 직접 주고 받은 시가 없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는 논거가 되기도 한다. 즉 비슷한 풍격의 시로 이미 并稱되던 高適·岑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慈恩寺塔을 함께 유람하는 등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았을 터인데도 贈酬詩가 없는 것은 그들의 나이 차도 이유가 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창작에 있어서의 사상과 현실 인식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관심을 돌리게 하는 등 그들의 詩歌 創作에 커다란 변화를 야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李頎, 王昌齡과의 酬贈詩에서도 서로에 대한 그리움을 眞率한 언어로 표현해내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盛唐 문학의 흥성에 일조를 했으며 盛唐의 시단을 풍부하게 해 주는 요소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參考文獻>

- 《唐代詩人叢考》，傅璇琮，中華書局，1981.
- 《中國歷代著名文學家評傳》，呂慧鵬等，山東教育出版社，1985.
- 《高適傳論》，左雲林，人民文學出版社，1985
- 《高適研究》，余正松，巴蜀書社，1992.
- 《岑參評傳》，廖立，人民文學出版社，1990.
- 《王昌齡詩校注》，李國勝，文史哲出版社，1973.
- 《唐詩新賞》，張淑瓊，臺灣地球出版社，1989.
- 《杜甫評傳》，金啓華 陝西人民出版社，1984
- 《杜甫評傳》，陳貽焮，上海古籍出版社，1982.
- 《杜詩箋記》，成善楷，巴蜀書社，1989.
- 《杜甫評傳》，劉維崇，臺灣商務印書館，1968.
- 《杜甫草堂詩註》，李誼，四川人民出版社，1982.
- 《李白選集》，郁賢皓，上海古籍出版社，1990.
- 〈關於唐代邊塞詩評價的幾問題〉，肖澄宇，《唐代邊塞詩研究論文選粹》，1988.
- 〈沈雄意沈〉，何曉毅，《唐代文學論叢》總第5輯，1984.
- 〈簡論李頎在唐七律詩中的地位〉，孫琴安，《唐代文學論叢》總第7輯，1986.
- 〈王昌齡任校書郎年代辨疑〉，屈光，《文學遺產》增刊17輯，1991.

〈이 페이지는 여백임〉

陶淵明과 謝靈運의 歸隱思想

鄭 愚 烈*

<目 次>

- | | |
|--------------|--------------|
| 一. 序 言 | 2. 謝靈運의 歸隱山水 |
| 二. 陶·謝의 共同環境 | 五. 陶·謝의 政治觀 |
| 三. 個人仕宦生活 | 1. 陶淵明의 政治思想 |
| 1. 陶淵明 | 2. 謝靈運의 政治態度 |
| 2. 謝靈運 | 六. 結 言 |
| 四. 歸隱思想 | <參考文獻> |
| 1. 陶淵明의 歸隱田園 | |

一. 序 言

六朝시대의 晋末·宋初는 중국 역사상 政治적으로 内外戰爭이 끊이지 않았던 암혹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인 암혹이나 정변들은 때로 문학상의 기적을 낳는 뛰어난 환경이 되어주기도 한다. 예컨대 陶淵明과 謝靈運 같은 문인도 이와 같이 정치적 암울이 끊이지 않았던 불행한 시대가 배출한 大詩人이었다. 그런데 두 사람은 同時代의 인물이긴 하나 그들의 출신·환경·개성·경력·사상 등은 크게 달랐으므로 그들의 손에서 나온 작품의 풍격에 있어서도 또한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세의 문인들은 슬하게도 「陶謝」라 하여 두사람을 并稱해 오고 있다.¹⁾ 이러한 점은 陶淵明과 謝靈運이 각자 다른 성격을 지녔으면서

* 慶星大 中文科 講師

1) 후세에 陶淵明과 謝靈運을 「陶謝」라 并稱한 評價는 많다. 예를 들면, 杜甫의 「焉得思如陶謝手, 令渠述作與同遊」(〈江上值水如海勢聊短述〉), 陸游의 「陶謝文章造化侔, 詩成能使鬼神愁」(〈讀陶淵明詩〉), 劉熙載의 「陶謝用理語各有勝境」(〈藝概〉) 등등.

도 또한 某種의 공통적인 유사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본문에서는 이들 두사람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의 몇몇 문제들 중에서 그들의 共同된 환경하에서의 각기 다른 仕宦生活을 비교하여 보고, 특히 歸隱 이후의 생활과 歸隱思想에 따른 정치적인 이상과 야심 및 태도 등을 비교해 봄으로써 南朝時期에 가장 유명했던 田園과 山水의 두 시인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갖고자 한다.

二. 陶·謝의 共同環境

陶淵明과 謝靈運 兩人이 처한 정치적 환경은 크게 보아서 같다.

陶淵明은 字가 元亮이고, 후에 이름을 潛이라 바꾸었다. 그는 潯陽 柴桑(지금의 江西 九江縣 西南 20里)人으로 東晉 哀帝 興寧 3년(365)에 출생, 劉宋 文帝 元嘉 4년(427)에 죽었으니 향년 63세였다.²⁾ 그리고 謝靈運은 東晉 孝武帝 太元 10년(385)에 출생, 劉宋 文帝 元嘉 10년(433) 廣州에서 棄市당하였으니 이때 그의 나이는 49세로서³⁾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20세가 되는 것이다. 謝家의 본적은 陳郡 陽夏(지금의 河南 太康縣)인데 晉室 南渡 후에 會稽(지금의 浙江 紹興 일대)에 거주하였으며 謝靈運은 원래부터 會稽郡 始寧縣에서 출생, 성장하였다. 그런데 이 시기는 劉曜가 孝武帝로 즉위하여 東晉을 세운 후, 다시 劉裕가 東晉을 무너뜨리고 宋을 세워 武帝로 즉위하는 등 정치적 변화가 끊임 없이 없었던 혼란기였다. 그러나 이렇게 정치적 환경은 비록 불확실성이 연속되는 어두운 시기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士族들은 南渡 후 비교적 여유 있는 생활 환경 속에서 山水와 風流를 즐겼다. 따라서 詩風은 여태껏 주조를 이루고 있던 玄言詩가 퇴조하고 陶淵明과 謝靈運의 주도하에 田園詩와 山水詩가 부상되던 시대였던 것이다. 그들 두 사람은 또한 명문가의 후예로서 陶淵明의 曾祖, 陶侃은 大司馬를 지냈고 長沙公에 봉해졌으며 祖 茂, 父 逸은 모두 太守를 지냈다. 謝家는 당시 王家와 并稱되는 大貴族으로서 祖父 謝玄은 康樂公에 봉해졌었다. 이처럼 두사람 모두가 귀족 가문의 후예로서 20년이라는 나이차에 따라 서로 시간을 선후하여 중국 역사상 정치, 사회적으로 가장 혼란했던 六朝 초기 東晉末 宋初라는 同一時代를 살았던 것이다. 그 생활범위 또한

2) 陶淵明의 年壽에 관해서는 각종 異說이 많다. 本文에서는 陽勇, <陶淵明年壽應爲六十三歲考>, 《新亞書院學術年刊》 第五期를 참조하였음.

3) 《宋書》 本傳: 「太祖詔於廣州行棄市刑, ……時元嘉十年, 年四十九。」

中國의 東南 일대를 한계로 長江 中下유역을 벗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두사람의 생활과 그 入世 및 出世의 상황은 비록 양상이 다르기는 하였지만 이러한 와중에서도 두사람 모두 「隱而復仕, 仕而復隱」의 생활을 거듭하면서 田園, 山水를 벗삼아 각기 田園詩와 山水詩에 있어서 거목의 위치를 차지하였던 것이다.

三. 個人仕宦生活

1. 陶淵明

陶淵明은 일생동안 出仕와 隱退를 네번이나 되풀이하였다.

첫번째의 出仕는 東晉 孝武帝 太元 18년(393) 그가 29세 되던 해에 柴桑城 江州府의 祭酒에 補任 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곧 그만두었다는 기록이 있다.⁴⁾ 江州의 도움이 심양이니 그로서는 곧 고향에서 임직하게 된 것이었는데 이때의 出仕 동기에 대해 그는 당시의 심경을 쓴 <飲酒 其十九>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曠昔苦長飢,	오랫동안 굶주림에 시달려
投耒去學仕.	쟁기 버리고 벼슬길에 나왔는데,
將養不得節,	그래도 가족을 부양키는 어려워
凍餒固纏己.	추위와 굶주림을 벗어날 수 없었네.
是時向立年,	때는 30을 바라보니
志意多所恥.	뜻과 마음이 너무 부끄러워
遂盡介然分,	마침내 나의 본분을 따르고자
拂衣歸田里.	옷 털고 전원으로 돌아왔네.

이 詩文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면, 이때 그는 분명 경제적인 빈곤 때문에 出仕하였으나 여전히 궁핍을 면하기는 어렵고 또한 30을 바라보는 나이에 자신의 「志意」는 펼 수도 없고 하여 辭職하고 돌아온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그가 初任된 「祭酒」라는 관직의 직무가 과연 어떤 성격의 것이었는가 하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지금의 교육감 같은 교육담당 官職이라고들 하고 있

4) 《宋書》 本傳: 「親老家貧, 起爲州祭酒, 不堪吏職, 少日, 自解歸。」

지만 사실상 관계되는 당시의 명확한 기록이 없어서 이 점에 대한 의문은 계속 남아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다만 西晉 武帝時에 中央政府에서 교육기관 및 최고 학부를 관리하는 國子學을 설립하였는데 이 學官의 명칭이 「祭酒」였다. 이 제도가 東晉까지 계속되긴 하였으나 中央政府가 아닌 지방도시에 해당하는 柴桑城 江州의 「祭酒」란 직위가 그와 똑같은 성격의 것이었는지는 의문이어서 陶淵明이 담임했던 「祭酒」의 직위가 과연 교육기관의 직무였는지 아니면 기타 사무를 관리하는 관직이였는지의 명확한 판단은 어려운 것이다.⁵⁾

한편 史傳에 의하면 陶淵明이 江州祭酒의 직무를 사직하고 潯陽의 집으로 돌아온 후 또 한차례 州府로부터 文書나 戶籍을 관장하는 관직인 「主簿」에 초빙되었으나 그는 이를 거절하였다 한다.⁶⁾

두번째 出仕는 東晉 安帝 隆安 3년(399), 그가 35세 되던 해로서 劉牢之의 참모가 되어 「鎮軍參軍」에 任職하였다. 그러나 이 또한 그로서는 별로 원하지 않는 出仕였다는 점이 당시의 심경을 토로한 <始作鎮軍參軍經曲阿作>이란 詩에서 드러나고 있다.

時來苟冥會,	우연히 엉뚱하게도
宛轉愁通衢.	말고써 돌리어 잠시 벼슬살고자
投策命晨裝,	지팡이 던지고 새벽길 떠날 차비하며
暫與園田疏.	잠시 전원과 헤어지네
.....	
望雲慚高鳥,	구름을 보며 높이 나는 새에 부끄럽고
臨水愧游魚.	물속에 노는 고기에 부끄럽네.
眞想初在襟,	일찍이 진실한 삶을 생각했는데
誰謂形迹拘.	어찌다 육신은 구속되어 버렸네.
聊且憑化遷,	잠시 변화에 몸 맡겼다가
終反班生廬.	결국은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처럼 마음에 없는 벼슬살이를 하고 있을 때 때마침 孫恩이 浙江 일대에서 반란을 일으키자 陶淵明은 劉牢之를 좇아서 浙江 東海邊의 上虞·會稽(지금의 紹興) 일대에서 孫恩의 叛軍을 征討하는데 참가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陶淵明은 당시의 정

5) 이점과 관련한 여러가지 추정은 陸明山編譯 《陶淵明》，香港 雅文出版社, pp.57-66을 참조.

6) 《宋書》 本傳: 「州召主簿, 不就。」

치적 혼란과 전란의 참상⁷⁾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던 것이다. 孫恩의 亂은 3년이 넘게 계속되었는데, 그의 나이 37세 되던 隆安 5년(401) 7월에 그는 다시 桓玄의 幕下가 되어 江陵(지금의 湖北 江陵)으로 奉命 出仕하였다. 이때의 심정을 陶淵明은 <辛丑歲七月赴假還江陵夜行塗口>란 詩句에서 잘 표현하고 있다.

懷役不遑寐,	벼슬살이 걱정에 잠도 못 자고
中宵尙孤征.	한밤중에 홀로 배를 저어간다.
商歌非吾事,	출세는 나의 일이 아니고
依依在耦耕.	오로지 밭갈이가 내게 맞으니
投冠施舊墟,	벼슬을 버리고 옛마을로 돌아가
不爲好爵榮.	좋은 벼슬이라도 묶이지 않으리.

이 詩는 그가 휴가를 마치고 任地인 江陵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은 것이다.⁸⁾ 그러나 그는 곧이어(그해 겨울) 모친 孟氏의 喪을 당하여 江陵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감으로써 비로소 桓玄의 幕下를 떠나게 된다.

세번째 出仕로 그는 晉 安帝 義熙 元年 3월에 江州刺史 겸 建威將軍 劉敬宣의 參軍이 된다. 당시 江州刺史로 있던 劉敬宣은 劉牢之의 아들이므로 이때 陶淵明의 나이는 41세였다. 그러나 그는 <乙巳歲三月爲建威參軍使都經錢溪>라는 詩에서

伊余何爲者,	나는 어찌하여
勉勵從茲役.	벼슬에 얽매어 이 고생인고.

라고 하여 당시의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 이로써 알 수 있듯이 그는 역시 당시의 내키지 않는 벼슬길을 괴로워하고 있음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결국 그는 이 벼슬길에서도 곧 물러나고 말았다.

네번째 出仕는 같은 해 8월에 있는 그 유명한 <歸去來辭>를 남긴 「彭澤令」職으로, 이것은 陶淵明 최후의 出仕가 된다. 이 최후의 出仕는 순전히 생계를 위한 것이

7) 《晉書》 卷九十九 桓玄傳, 《魏書》 卷九十七 桓玄傳을 참조.

8) 史傳에 의하면 陶淵明이 鎮軍參軍에 임직된 다음해(隆安 4년) 5월, 집 떠난 지 오래되어 어머니도 뵈고 성묘도 할 겸 잠시 휴가를 얻어 고향으로 돌아갔다. 귀향길 도중에 지은 詩가 <庚子歲五月中從都還阻風于規林二首>이며, 휴가를 마치고 江陵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詩를 지은 것이다.

었다. 《宋書》本傳에 의하면 당시 각 縣에는 公田이 있었는데 이 公田의 수입은 縣令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었다고 한다. 술을 좋아하는 陶淵明이 公田 전부에 술을 빚을 차조를 심을 생각으로 이 彭澤令을 수락하였으나 妻子의 반대로 반반씩 타협을 보았다고 한다.⁹⁾ 그러나 오래지 않아 그해 11월 程氏妹(程氏에게 출가한 同父異母의 여동생)의 사망을 핑계로 사직하고 田園으로 돌아온다. 유명한 <歸去來辭>에 당시의 상황과 그의 결심이 대단히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다. 한편 《宋書》에 의하면 당시 督郵가 縣에 내려왔을 때 衣冠束帶하고, 맞이하라고 하므로 陶淵明은 “내 어찌 시골 촌뜨기에게 다섯 말의 쌀 때문에 허리를 굽힐소냐”하며 印綬를 풀고 辭職하였다고 한다.¹⁰⁾

陶淵明은 이렇게 네차례의 出仕를 모두 짧게 마친 뒤 그의 나이 42세 되던 해부터는 정식으로 躬耕生活를 시작하였다. 《宋書》에 의하면 義熙 14년, 그가 54세 되던 해에 또 한차례 出仕의 권유를 받았으나 끝내 거절하고¹¹⁾ 宋文帝 元嘉 4년(427) 63세로 病死하였다.

2. 謝靈運

謝靈運은 특출한 귀족집안에서 태어났으므로 그는 출생하면서부터 부유했던 家産 덕택에 풍요로운 소년기를 보내었으며 20세가 되던 晉安帝 元興 3년(404)에 父璣이 죽자 康樂公에 봉해지고 이어서 상례에 따라 員外散騎侍郎에 제수되었으나 任職하지는 않았다.¹²⁾

그의 정식 入仕時期는 그가 21세 되던 義熙 元年(405)이었다. 이 해에 처음으로 벼슬길에 든 이후 그는 단속적으로 관직에 있었다. 그러나 이때부터 시작된 仕宦生活는 晉 멸망까지의 仕晉時期와 入宋後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의 仕宋時期로 二分된다.

9) 《宋書》本傳에 「謂親朋曰：《聊欲弦歌，以爲三逕之資，可乎？》執事者聞之，以爲彭澤令。公田悉令吏種秬稻，妻子固請種杭，乃使二頃五十畝種秬，五十畝種杭。」이라는 기록이 있고, 또 梁 蕭統의 《陶淵明傳》에 「公田悉令吏種秬，曰：《吾常得醉於酒，足矣。》妻子固請種杭，乃使二頃五畝種秬，五十畝種杭。」 등의 기록이 보인다.

10) 《宋書》本傳：「郡遣督郵至，縣吏白應束帶見之，潛嘆曰：《我不能爲五斗米折腰向吏小人。》即日解印綬去職。」

11) 《宋書》本傳：「義熙末，徵著作佐郎，不就。」

12) 《宋書》本傳：「襲封康樂公，食邑二千戶。以國公例，除員外散騎侍郎，不就。」

1) 仕宋時期 : 그의 첫번째 出仕는 義熙 元年(405) 3월에 있었는데, 이때 그가 받은 관직은 「瑯邪王司馬行參軍」이란 관직으로 晉室의 參軍이었다.¹³⁾ 그러나 이때의 임직은 겨우 2개월에 불과하였다. 이후 그는 같은해 5월에 劉毅를 좇아 다시 仕宦의 길로 나아가 「撫軍將軍記室參軍」이 되었다가¹⁴⁾ 劉毅가 義熙 5년(409)에 衛將軍이 되고 이어 同 8년(412) 9월에 江陵에 왔을 때 謝靈運은 「衛軍從事中郎」에 改任된 이래 義熙 8년 10월 劉毅가 자살할 때까지 계속 同職에 있게 된다.¹⁵⁾ 그리고 같은해 11월 太尉 劉裕가 8년간이나 劉毅의 부하로 있던 謝靈運을 太尉參軍으로 임명하자 謝靈運은 江陵에서 建康으로 임직을 따라 옮겨가게 되는데 劉裕는 얼마후 그를 다시 秘書丞으로 調任하나 오래지 않아 免職된다.¹⁶⁾ 그러나 이때 免職된 뚜렷한 이유는 밝혀져 있지 않다.

謝靈運이 免職된 義熙 8년(412)은 그의 나이 28세 때로서 이때부터 4년간은 그가 閒居生活로 보내면서 宗教方面으로 修養精進하게 된다.

그의 두번째 出仕는 4년간의 閒居를 끝낸 義熙 12년(416) 驃騎將軍 劉道憐의 諮議將軍이 되면서부터 시작된다. 이후 그는 얼마 있지 아니하여 다시 中書侍郎으로 중앙정부에 重用된다.¹⁷⁾ 그리고 다음해 義熙 13년(417) 그의 나이 33세 때에는 世子 中軍諮議·黃門侍郎이 되고 이듬해인 義熙 14년(418)에 謝靈運은 그 유명한 <撰征賦>를 지어 劉裕를 칭송하게 된다. 이어서 宋國黃門侍郎·柏國從事中郎·世子左衛率 등의 직무를 맡게 되나¹⁸⁾ 불행히도 그의 가정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또 다시 免職을 당하게 된다.¹⁹⁾

2) 仕宋時期 : 그의 세번째 出仕는 入宋 이후에 시작된다. 즉 晉 恭帝 元熙 2년(宋

13) 《資治通鑑》卷114: 「義熙元年三月庚子, 以瑯琊王德文爲大司馬。」 또 《宋書》 本傳: 「爲瑯琊王大司馬行參軍。」

14) 同上: 「義熙元年五月, 詔以劉毅爲都督淮等五郡軍事, 豫州刺史。」 또 《宋書》 本傳: 「撫軍將軍劉毅鎮姑孰, 以爲記室參軍。」

15) 《資治通鑑》卷115, 116: 「劉毅義熙五年爲衛將軍, 八年九月至江陵, 十月自縊死。」

16) 《宋書》 本傳: 「毅伏誅, 高祖版爲太尉參軍, 入爲秘書丞, 坐事免。」

17) 謝靈運의 이번 出仕는 그의 從叔인 驃騎長史, 南郡相 謝方明의 힘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불러일으킨다. 이점은 《資治通鑑》卷117: 「義熙十一年正月, 以中軍將軍, 劉道憐, 監留府事. 道憐貪鄙無才能, 裕以中軍長史晉陵太守謝方明爲驃騎長史, 南郡相. 道憐府中事, 皆諮決方明。」이라 한 점으로 미루어 짐작되는 바이다.

18) 《宋書》 本傳: 「奉使慰勞高祖於彭城, 作撰征賦. ……仍除宋國黃門侍郎, 遷相國從事中郎, 世子左衛率。」

19) 《南史》卷21 王弘傳: 「世子左衛率謝靈運, 爲軍人桂與淫其嬖妾, 靈運殺與屍洪流, ……於是免靈運官。」 《宋書》 本傳: 「坐輒殺門生, 免官。」

武帝 元年, 420) 6월에 劉裕는 정식으로 宋의 武帝로 즉위하여 「永初」라 開元한다. 그리고 이때 宋武帝는 謝靈運을 「康樂公」에서 「康樂縣侯」로 강등하고 食邑 또한 二千戶에서 五百戶로 減하는 한편 그로 하여금 出仕케 하여 散騎常侍·太子左衛率의 관직에 기용하였다.²⁰⁾

永初 3년(421) 5월에 劉裕는 3년의 皇帝생활을 마감하였는데, 그의 아들 少帝가 즉위하여서는 謝靈運을 永嘉太守로 外職에 出仕시킨다. 따라서 그는 永初 3년 7월 16일 수도 建康을 떠나²¹⁾ 永嘉太守로 임직한다. 그러나 원래가 審美的이고 호사스러운 성품이었던 그는 永嘉(지금의 浙江 溫州)의 아름다운 景色에 취해서 직무는 멀리한 채 나날을 名山大川에서 遊山玩水로 보낸다. 그의 유명한 詩 <登池上樓>는 이때 지은 것으로

池唐生春草, 못에는 봄풀이 생겨나고
園柳變鳴禽. 정원 버들에는 새가 번갈아 우네.

라는 名句를 남긴다.

여기에서(永嘉) 그는 임직 1년을 보내고 少帝 景平 元年(423) 그의 나이 39세 때에 병을 빙자하여 고향 始寧으로 돌아와 은거하게 된다.²²⁾ 그가 永嘉郡을 떠날 때의 심정은 그의 <初去郡>이란 詩에 잘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서 그는 20여년의 정치생활이 평소 자기가 바라던 바와는 크게 違背되므로 사직을 결심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 詩 속의 「負心二十載, 於今廢將迎」이란 구절은 陶淵明의 <歸園田居之一> 속에서 말하는 「誤落塵網中, 一去三十年」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단지 陶淵明은 집안의 곤궁으로 彭澤丞을 사직한 후 躬耕自食하였지만 謝靈運은 先祖의 遺産으로 永嘉郡守를 사직하고도 물질적 곤란은 전혀 없는 채로 始寧에서 遊山玩水 할 수 있었다는게 다를 뿐이다.

그의 네번째 出仕는 宋文帝 元嘉 3년(426) 3월 그의 나이 42세 때 수도 建康으로 불려가 秘書監의 職에 임용되면서 시작된다. 이는 秘閣圖書, 즉 天子의 藏書가 수장

20) 《宋書》 本傳: 「高祖受命, 降公爵爲侯, 食邑五百戶. 起爲散騎常侍, 轉太子左衛率。」

21) 謝靈運의 <永初三年七月十六日之郡初發都>란 詩가 곧 이때 지은 것이다.

22) 《宋書》 本傳: 「出爲永嘉太守. 郡有名山水, 靈運素所愛好, 出守既不得志, 遂肆意游遊, 偏歷諸縣, 動踰旬朔, 民間聽訟, 不復關懷. 所至輒爲詩詠, 以致其意焉. 在郡一周, 稱疾去職, 從弟晦·曜·弘微等并與書止之, 不從。」

된 곳의 도서를 정리하는 司書의 직무로서 학식과 才華 및 文筆이 뛰어났던 그에게는 대단히 적합한 직무였으나 그럼에도 그의 정치적인 야심은 文史管理의 職이 실망스럽기만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는 오래지 않아 侍中이란 職으로 改任된다. 이렇게 再度出仕의 길에 실망했던 謝靈運은 결국 元嘉 5년(428) 봄 다시 始寧으로 돌아오게 되니 이번 재임의 기간은 2년이 채 되지 못했으며 결국은 다시 은거 생활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다.²³⁾ 이 기간동안 그는 진정한 遊山玩水의 재미와 대 자연을 즐겼으며 동시에 수없이 아름다운 山水詩를 남기게 되었다.

再隱居 후 元嘉 9년(432) 봄 그의 나이 48세 때에는 다시 臨川內史로 出任하게 되었는데 이곳은 오늘날의 江西省 臨川縣으로서 자신의 정치적인 야심을 키울 수 있는 수도 建康과도, 또 그의 고향인 始寧과도 아주 먼 곳이었다. 그는 臨川에서도 마치 10년전의 永嘉太守 시절처럼 政事는 돌보지 않고 「在郡遊放, 不異永嘉」(《宋書》本傳)한 생활이었다. 이러한 불성실한 관직상의 임직태도는 마침내 그로 하여금 廣州로 流放당하게 하고²⁴⁾ 다음해에는 廣州에서 棄市당하기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때가 文帝 元嘉 10년(433)으로 그의 나이 49세 때였다.²⁵⁾ 이로써 그의 생은 결국 불행하게 마감되었거니와 한편 仕宦의 경력으로서 본다면 시종 정치적 회오리에 싸여 보낸 그의 30년 관직생활은 仕晉 16년, 仕宋 14년인 셈이었다.

四. 歸隱思想

1. 陶淵明의 歸隱思想

陶淵明이 활동했던 당시의 사회는 정국의 불안정에다 관료사회의 오염, 적폐 등으로 미래가 불확실한 암울한 시대였다. 이미 몰락해버린 士族가정에서 태어난 그의 경제적 환경과 정치적 입지는 당연히 불리할 수 밖에 없었다. 그는 8세에 부친을 잃고 19세에 「灑水之戰」을 겪었으며, 41세 되던 해에 85일간의 「彭澤令」을 끝으로

23) 이 부분은 王次激, <謝靈運及其詩>, 《東吳文史學報》第六號, 民國 77年 1月版을 참조. 24) 《宋書》本傳: 「靈運罪累仍, 誠合盡法. 但謝玄勳參微管, 宜宥及後嗣, 可降死一等, 從付廣州。」

25) 同上: 「太祖詔於廣州行棄市刑. ……時元嘉十年, 年四十九。」 또 이점에 관한 상세한 것은 船津富彦著, 譚繼山譯, 《謝靈運》, 臺北 萬盛出版社, 民國 72年版, pp.201-206을 참조.

관직에서 물러나 田園으로 돌아간다. 이때부터 그는 즐곳 鄉間에서 隱居하며 23년간의 隱逸生活을 田園에서 보낸다. <歸去來辭>의 序文에서 「質性自然, 非矯厲所得.」이라 말한 점과 《晉書》本傳에서 말하는 그의 성격 「穎脫不羈, 任眞自得」²⁶⁾ 등으로 보아 無拘無束의 전원생활로 돌아간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田園은 隱居하기에 좋은 곳이다. 또한 정신적인 안위를 구하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이기애 전생명을 자연에 投向했던 것이다. 결국 그는 현실을 도피하여 과감하게 田園에 隱居하는 방법을 택하였던 것이며, 詩文을 어두운 사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工具로 삼았던 것이니 이것은 일종의 消極的인 反抗精神의 한 표현방법인 것이다.²⁷⁾ 그러나 이러한 반항정신은 비록 극히 미약하고 무력한 것이었지만 한편 당시의 일반적인 봉건사대부들이 현실사회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불만의 범주는 넘어선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의 詩文 중에는

人生似幻化, 인생은 환상의 조화 같아서
終當歸無空. 마지막엔 무와 공으로 돌아가는 것.
(〈歸田園居〉 第四首 中)

縱浪大化中, 자연의 변화 중에 일체가 되면
不喜亦不懼. 기쁨도 슬픔도 없을 것.
應盡便須盡, 스러져갈 생명 다 보내어 보리고
無復獨多慮. 다시는 안달하고 걱정하지 말자.
(〈神釋〉 中에서)

등등 그의 樂天安命, 消極的인 遁世思想이 歸隱 후의 많은 詩中에 나타나고 있다. 그는 이렇게 자연의 조화에 순응하므로 해서 정신상의 번뇌와 물질상의 곤궁을 영원히 해탈하고자 했으니 이러한 脫世俗의 思惟들은 곧 그의 미약하고 무력한 반항사상의 근원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陶淵明의 歸隱思想은 「憤世嫉俗, 安貧樂道」의 적극적인 일면과 「明哲保身, 委順自然」의 소극적인 일면이 지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陶淵明의 歸隱思想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성격들이 두드러지게 드러나 보인다.

26) 《晉書》本傳: 「潛少懷高尚, 博學善屬文, 穎脫不羈, 任眞自得, 爲鄉隣之所貴.」

27) 孔繁, 《魏晉玄學和文學》,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7年 12月版, pp.79-83 참조.

첫째, 安貧樂道의 사상. 陶淵明은 일생동안 빈곤했다. 더욱이 田園으로 돌아온 후는 자기의 衣食을 해결하기 위해서 농업생산 활동에 직접 참여해야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끊임없는 좌절을 맞곤 하였다. 그러므로 그의 田園詩에서는 그의 일상생활에서 오는 곤궁이 많이 표출되고 있다.

飢者歡初飽, 굶주리던 나도 비로소 배불리 먹을 수 있음에 기뻐서
束帶候鳴鷄. 의관을 갖추고 닭 울 때만을 기다린다.
(〈丙辰歲八月中於下澗田舍穫〉 中에서)

飢來驅我去, 굶주림에 쫓기어 나왔으나
不知竟何之.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겠구나.
(〈乞食〉 中에서)

이외에 〈有會而作〉·〈詠貧士〉·〈飲酒詩十五〉·〈雜詩九〉 등의 詩는 모두가 전원생활의 고독감·飢寒의 고통이 잘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그는 躬耕·讀書·采菊·飲酒 등의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詩作活動을 해왔으며 아울러 安貧樂道의 情操를 굳게 지켜나갔던 것이다. 이는 그가 관직을 버리고 전원으로 돌아온 代價였으며, 자신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君子固窮」의 志操는 끝내 굽힐 수가 없었던 것이다. 소위 「君子固窮」이란 곧 儒家에서 말하는 節操이다. 즉 陶淵明은 평소 孔子를 존송하였으며 孔子思想의 영향을 깊이 받았다. 뿐만 아니라 그의 詩文 中에서 자주 나타나는 《論語》 中의 글귀로 보아서도 그가 儒家思想, 특히 그중에서도 《論語》 사상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다.²⁸⁾ 그는 孔子의 뜻을 깊이 깨달아 「固窮」이란 말을 자주 썼으며, 그의 이러한 정신은 〈飲酒之二〉·〈飲酒之十六〉·〈有會而作〉·〈感士不遇賦〉·〈五柳先生傳〉 등의 詩中에 가장 잘 표현되어 있다. 따라서 陶淵明에게 있어서의 儒家思想은 그가 그의 일생동안 지내온 정신세계의 근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陶淵明의 固窮志操는 곧 그의 安貧樂道의 志操요 또한 그의 隱居田園의 志操였던 것이다.²⁹⁾

둘째, 不重名利, 不求富貴의 思想. 陶淵明은 老莊思想이 성행하던 시대에 태어나

28) 楊鐘基, 〈陶集引《論語》考—兼論陶潛之儒學思想〉, 香港中文大學 《中國文化研究所學報》 第19卷 참조.

29) 싱가포르 王國瓔, 〈陶詩中的嘆貧〉, 《文學遺產》, 中國社會科學院 文學研究所, 1993년 第4期.

조화에 귀일하면 기쁨도 슬픔도 없고 生과 死도 초월하여 참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終浪大化中, 不喜亦不懼.」이니 가위 達觀의 得道인 셈이다. 뿐만 아니라 그밖의 문장 중에서 보이는 죽음에의 묘사도 극히 담담하여 일종의 자연현상임을 자주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고의 표출은 곧 《莊子》의 「大宗師篇」에서 말하는 「生死存亡爲一體」와 「至樂篇」 중에서의 「觀化」와 일맥상통한 것이다. 이러한 그의 사유의 특징은 곧 陶淵明의 儒家的인 安貧樂道の 志操에서 나온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道家的 思想의 支持點이기도 한 것이다.

셋째, 陶淵明의 歸隱思想은 위에서 보아온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儒·道 兩家の 사상이 혼합된 二重的 정신세계의 측면을 보여주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불 때 <桃花源>의 幻想에서 나온 佛家가 추구하는 세계도 내재되어 있다. 특히 그와 慧遠에 얽힌 「虎溪三笑」의 故事는 당시 그들의 밀접했던 사상교류를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것이다.³⁰⁾ 그러므로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만 미루어본다면 그의 사상 성분은 儒·道가 중심이 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신세계에는 불교사상 역시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음이 분명하다. 예컨대 그의 시구 중에서 보이는 「吾生夢幻間」(<飲酒>其八)·「流幻百生中」(<還舊居>) 등의 표현은 儒·道의 生死觀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는 儒·道·佛 各가의 精華만을 흡수하여 자신의 인생관으로 형성한 것이다. 儒家의 「樂天知命, 安貧守道」의 정신을 취하였으나, 儒敎 속의 그 허위적인 禮法이나 經文에는 빠져들지 않았고, 老莊에서 추구하는 「自由自得, 自然達觀」의 사상을 취하였으나, 그 老莊의 산물인 頽廢荒唐한 清談名士들과는 달랐으며, 또 佛家에서 말하는 「人生空幻」의 오묘한 이치를 꿰뚫었으나, 俗流의 迷信的 色彩에는 물들지 않았던 것이다. 때문에 그는 始終如一하게 自然으로 歸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상의 세가지 방면으로 정리되어지는 그의 사상은 그러나 당시 廬山의 高僧 慧遠의 사상과도 달랐고, 또한 「潯陽三隱」의 행위와도 달랐다. 그는 비록 歸隱했으나 노동도 잊지 않았고 현실도 잊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歸隱 후의 여생을 자연 속에 던짐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현실을 도피하여 과감히 전원엔 은거하는 소극적인 방법을 택하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원에서 의연히 노동에 임하면서도 다 음의 詩句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남성적 호방함도 또한 잃지 않았던 것이다.

30) 吳頤平, <陶靖節與慧遠>, 《輔仁學志》第十期, 民國 70年 6月 참조.

丈夫志四海, 장부는 뜻을 사해에 편다는데
我願不知老. 나의 소원은 늙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네.
(〈雜詩〉其八 中에서)

凌厲越萬里, 만리길을 쉬지 않고 뛰어서
逶迤過千城. 수천리 도성을 지났노라.
(〈詠荊軻〉 中에서)

결국 陶淵明이 晩年에 보여주는 그의 歸隱後의 사상은 失意 끝에 달관한 生活人의 소극적인 측면과 入世를 염원하는 知識人으로서의 적극적인 측면이 상호 混在하는 思惟의 갈등구조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곧 그가 지속적인 정신적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 謝靈運의 歸隱山水

謝靈運은 일생동안 出仕와 歸隱을 되풀이하였다. 그러므로 謝靈運 歸隱思想의 생성과 발전은 그가 살아온 시대의 정치적 상황과 사회적 환경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 그리고 그의 歸隱思想은 그의 정치적 및 문학적 사유의 전개과정 속에서 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정치상의 실의에 처했을 때마다 山水를 즐겼었고 또 그가 쓴 대량의 山水詩를 통해 세상에 대한 그의 분노를 표출하였으며 山水에 자신의 정신을 기탁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그가 남긴 詩文 中에 山水詩가 특별히 많고 또 그 대부분이 永嘉太守 이후에 쓴 것들임을 보아 알 수 있는 일이다.

현실에서 도피하여 山林에 은거한다는 것은 謝靈運이 갖고 있는 정치현실에 대한 반항의 일종 표현이었다. 우리는 이점을 知識人 士大夫의 消極的 反抗이라 일컬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대, 특히 당시 士大夫의 경우 이러한 행위들이란 그들이 정치상의 실의에 처했을 때 취할 수 있는 높은 품덕의 유일한 표현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서 陶淵明은 은거생활을 그의 詩文 中에 정신적인 양분으로 흡취하였다. 그러나 謝靈運은 자못 달랐다. 그의 歸隱은 일종의 假隱으로서, 정치노선에 불만이 있을 때 혹은 정권으로부터 밀려났을 때 어쩔 수 없이 山水를 노니는 것으로서 은거생활을 택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자신으로서는 隱逸思想

이 농후했던 건 사실이다. 이는 그가 永嘉郡 太守職에서 물러날 때 쓴 <初去郡>詩나 元嘉 5년 建康에서 고향으로 가는 도중에 쓴 <入東道路>詩 등이 陶淵明이 마지막으로 彭澤수를 그만두면서 쓴 <歸去來辭>와 흡사한 풍격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는 일이다. 특히 景平 元年 가을부터 元嘉 3년(422-426) 봄까지 또 元嘉 5년 봄부터 元嘉 8년(428-431)까지의 기간을 그는 고향 始寧에서 진정한 은거생활로 보내게 되는데, 이때 지은 그의 시 <石壁精舍還湖中作>³¹⁾을 보면 陶淵明이 은거 후에 지은 <歸園田居五首>의 氣風과 흡사한 情致를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이 이후의 은거생활에서는 그의 편치 못한 심정이 곳곳에서 엿보이고 있다. 이 시기의 詩에서는 비교적 저조하고 침울한 기품과 더불어 현실에 대한 불만이 더욱 가중되어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점들로 미루어 보면 그의 은거에 대한 추구는 더욱 굳건해 지는 인상이다.

사실 謝靈運은 일생동안 정치권력에 대한 포부를 결코 잊지 않았다. 다만 政治失意 時에 山水를 유람함으로써 일종의 반항적인 歸隱生活을 해온 것일 뿐이다. 그런데 그의 반항은 道家思想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道家에서 말하는 「順性輕物」의 주장은 줄곧 그의 행동의 지침이 되어오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본다면 결국 그가 山林에 은둔한 행위 그 자체도 또한 道家思想에 의한 것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中國의 士大夫들은 정치상 得意의 시기에는 자주 소리 높여 儒家名教를 부르짖다가도 정치상 失意時에는 老莊의 학설에 정신을 기탁하여 道家가 좇는 자연의 哲理를 그들의 처세철학의 이론근거로 삼아오기 일쑤였다. 이러한 현상은 兩晉시기에 이미 일종의 시대성을 가진 文學現象으로 자리잡아오고 있었다.³²⁾ 더욱 謝靈運은

31) 이 기간동안 謝靈運은 고향 始寧에서 수많은 山水詩를 남겼는데 이 시에서는 그의 진정한 은거생활의 기풍이 엿보인다.

披拂趨南徑,	옷자락 휘날리며 남쪽길로 걸어가
愉悅偃東扉.	기쁜 마음으로 동문에 눕는다.
慮澹物自輕,	걱정이 없어지면 만물은 절로 가벼워지고
意愜理無違.	마음이 만족하면 진리에 어긋남이 없다.
寄言攝生客,	섭생을 꾀하는 이들에게 말하노니
試用此道推.	이러한 도리를 좇아 시험해 보시길.

32) 志村良治著, 何楠譯, 《謝靈運與宗炳》, 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中心, 複印報刊資料, 1988年 6月, 中國古代·近代文學研究, p. 87 참조.

원래 이 방면에 상당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문인이었다. 晉宋間에 士族들은 점점 몰락해가고 반면 玄學은 극성을 이루고 있었으며³³⁾ 이러한 시대배경 속에서 謝家는 玄學의 중심이었으니 謝安·謝玄 같은 이는 모두가 이름난 清談家였고³⁴⁾ 謝靈運 자신 또한 清談을 즐기고 名理를 좇는 玄學家로서 성장되어 왔으니 道家思想이 그의 歸隱思想 중에 주된 사상이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특히 그의 <隴西行> 樂府 중에 老莊思想의 경향이 짙고, 그의 <登江中孤嶼>·<登池上樓>·<山居賦> 등의 詩에 玄言의 色彩가 진하게 묻어 있다. 그러므로 謝靈運은 <江妃賦>에서 「事雖假於雲物, 心常得於無恃」라고 하여 언제나 자연에 순응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고 또 「安常以待終」(<登石門最高頂>)이라 하여 평상의 마음으로 죽음을 기다리겠다고 한 것 등이 모두가 곧 道家思想에서 직접 연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그의 사상 중에는 儒家思想 성분도 함유되어 있다. 당시 儒家思想은 사대부계급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 있었으며, 그 역시 古聖賢의 책 속에서 성장해 왔었기 때문이다. 특히 그가 「濟俗爲治」를 儒家思想의 本으로 한 점은 그의 詩 속에서 잘 나타나 있다. 예를 들면, <種桑>·<命學士講書> 등에서 자기는 항상 禮法(古禮)으로 스스로를 훈계한다고 하여 尊儒精神이 몸에 배여 있음을 은연중에 잘 표현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그가 經文을 자기의 詩語로 적절히 애용하고 있는 점³⁵⁾ 등으로 보면 그가 그의 思惟世界 속에서 儒家思想을 깊이 내재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謝靈運의 사상에는 儒·道 외에 또한 깊은 佛學의 영향이 있다. 東晉시대 佛敎의 발전과 佛理가 이미 清談에 잠식되어 왔듯이 또한 佛學에도 빠져들었으며 일생동안 佛敎徒들과 상당히 밀접한 인연을 맺어왔다. 특히 그의 문장 중에 玄理에 관한 전문 논술은 없는데 반하여 佛學에 관한 것으로 그가 쓴 <辯宗論>³⁶⁾과 <佛影銘>은 대단히 유명한 佛學論文이다. 한편 그는 慧嚴과 더불어 《大般涅槃經》을 수정하고 또 《金剛般若經》에 注를 붙이기도 하였는데,³⁷⁾ 이러한 그의 업적은 대단히

33) 王國瓔, 《中國山水詩研究》, 臺北 聯經出版社, 民國 75年版, pp.151-178 참조.

34) 《世說新語》文學篇: 「玄別傳曰: 玄能清言善名理。」라는 기록이 있고, 또 「文字誌曰: 安神情秀悟, 善談玄遠。」

35) 謝靈運이 詩文 중에 즐겨 쓴 六經의 典故에 관해서는 王次激, <謝靈運及其詩>, 《東吳文史學報》第六號, 民國 77年 1月版, pp.51-52 참조.

36) 錢志熙, <謝靈運《辯宗論》和山水詩>, 《北京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88年 第5期 참조.

높이 평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詩材로서도 佛敎관련의 것이 많은데, 예컨대 <石壁精舍立堤>·<過瞿溪山飯僧> 등이 여기에 속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사실들은 곧 謝靈運의 佛學에 대한 집착과 깊은 憧憬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그가 佛家에 대해 깊은 식견과 동경이 있고, 高僧들과도 상당한 교분이 있었으나 불교신봉자는 아니었다. 그의 그 오만한 성격·名理를 좇고 떠들썩하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개성은 시종 佛家の 境界에는 융화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謝靈運은 佛家思想에 대한 깊은 연구는 있었으나 여기에 자신을 흡수시킬 수는 없었고 그는 단지 한사람의 佛學家일 뿐 佛敎徒는 아니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謝靈運의 歸隱思想 속에는 儒·道·佛 三家의 사상이 混在되어 있는 것이다. 결국 그는 그의 功名을 부러워하고 자유와 방종을 좇는 개성 때문에 오히려 어떠한 一家의 사상도 그것을 완전히 수용하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歸隱思想의 정체는 곧 入世的인 積極性和 出世的인 消極性を 겸유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결국 그로 하여금 행위상으로는 「延心淨土」하면서 반면 사상상으로는 榮利를 결코 잊지 못하게 만든 것이다. 이렇게 儒·道·佛의 三家思想이 그의 思惟 속에 융합되어 있으면서도 또한 儒·道·佛 그 어느 것에도 歸一하지 못하고만 그의 사상의 복잡성은 결국 그로 하여금 思惟의 모순에 빠지게 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이러한 모순의 사상성이 오히려 그의 深厚한 歸隱思想의 근원이 되었는지도 모른다.

실제로 陶·謝 兩人的 개성으로 본다면 분명 차이가 있다. 陶淵明은 田園으로 은거한 후 스스로 樂道의 氣風을 즐겼다. 그러나 謝靈運은 陶淵明처럼 樂道할 수도 없었고 名利를 잊을 수도 없었다.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간 것도 陶淵明은 영구적이었고 謝靈運은 잠시였다. 陶淵明은 「彭澤令」을 사직하고 <歸去來辭> 일편으로 자신의 심경을 표명한 후 鄉間에서 躬耕自給하며 술을 즐기고 詩作을 즐기며 晩年을 보내는 대신 다시는 出仕의 길로 들지 않았다. 그러나 謝靈運의 山水로 은거생활은 단지 三年을 유지했을 뿐이며 다시 出仕를 시도한다. 그러나 끝내 자신의 정치이상을 실천해 보일 기회를 맞이하지 못하고 만다. 동일한 시대, 환경이 조성한 고민과 모순 속에서 살았던 兩人이었으나 陶淵明이 취한 현실도피는 정치적인 도피였지 결코 인생을 도피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田園을 그의 棲身地로 선택

37) 《文選》 卷59, 王簡栖, 頭陀寺碑文, 李善注曰, 「謝靈運金剛般若經注曰: 《諸法性空, 理無乖異, 謂之謂如會如解, 故名如來。》」

하여 근신한 本性으로 모순을 통일할 수 있었고 世俗을 超脫하여 內心の 寧靜을 얻을 수 있었는데 반하여 謝靈運은 野馬같은 성격에 시대적 모순이 가중되어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모순을 조성하므로 해서 陶淵明과는 전혀 다른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다.

五. 陶·謝의 政治觀

1. 陶淵明의 政治理想

劉宋王朝 통치 아래의 현실에서 陶淵明의 정치적 이상은 결코 만족될 수가 없었다. 소년기에 가졌던 포부도³⁸⁾ 이미 소실되고 「安貧樂道」는 그의 사상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당시의 사회는 극도로 혼란스러웠으니³⁹⁾ 그의 고향 潯陽 또한 各派의 政治力量과 각종 사상이 들끓던 곳이 되었다. 이런 사회상황 아래에서 그의 정치적 지위는 무력했고 또한 그의 인품 역시 통치집단과 동류가 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현실세계의 거대한 압력은 그의 희망을 산산이 무너뜨려 버렸기 때문에 그는 다만 田園으로 돌아가서 한사람의 隱士가 될 수 밖에 없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현실의 속박에서 한걸음 나아가 그의 理想世界 속에 그의 희망을 안치하였던 것이다. 곧, 陶詩 中에 나타나는 많은 篇章들이 직접 혹은 간접으로 당시의 정치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니 그의 <桃花源詩>는 당시 정치현실에 대한 불만과 부정이며 또한 자신의 정치이상이 반영된 것이고, <讀山海經之十>은 집권자에 대한 충만한 저항심리의 표방이라 하겠다. 이러한 작품들은 당시의 정치에 대한 자신의 정치태도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38) 憶我少壯時, 내 어리고 젊을 때를 회상하면
無樂自欣豫. 낙이 없어도 스스로 즐거웠네.
猛志逸四海, 세찬 뜻은 사해에까지 넘쳤었고
寔願思遠翥. 날개로 멀리 날고자 했네.

陶淵明의 <雜詩之五>의 한 구절로 젊은날 컸던 포부를 회상하며 쓴 詩이다. 젊은 시절의 호방한 기상과 원대한 포부를 느낄 수 있다.

39) 《宋書》武帝記: 「晉自中興以來, 治綱大弛, 權門并兼, 強弱相陵, 百姓流離, 不得保其產業。」

그의 시문에서 그의 이상세계를 알 수 있는 것은 <讀山海經十三首> 속의 신화세계와 <桃花源記> 속의 桃花原의 세계이다. <讀山海經十三首>는 陶淵明이 건설한 理想國이나 이 신화세계는 무릇 그의 田園生活과 內心世界에 의거한 것이다.⁴⁰⁾

陶淵明은 歸隱 후에 새로운 세상을 탐색해 내었다. 곧 그의 환상세계에서 나온, 無君臣의 세계, 사람들 모두가 일하고 모두가 평등한 桃花源式의 사회인 것으로 이는 그의 정치이상 기탁이요 歸隱思想의 반영이며 또한 바로 당시 농민들의 바램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현실사회의 부정이기도 했다. 전원생활은 비록 자연의 풍광을 즐길 수 있는 樂趣는 있으나 극도의 빈곤과 노동 등 생활의 고통을 이겨내야 하는 일반 농민들이 받는 어려움을 다 겪어야만 했다. 그러므로 陶淵明은 貧富에 따르는 불합리적인 현상을 더욱 절실히 느꼈고 그래서 「春蠶收長絲, 秋熟靡王稅」(봄누에 쳐서 비단실을 걷고 가을 추수하여 임금에게 세금 안바쳐도 되는) (<桃花源詩> 중에서)와 같은 이런 정치이상이 생겨날 수 있었던 것이다.

陶淵明은 당시의 정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었다. 동란의 時局은 해마다 전쟁이 있었고 天災兵禍로 인하여 농민들의 생활은 극도로 어려웠으니 그는 이세상에 「桃花源」과 같은 이상적인 樂土가 생겨나기를 희망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⁴¹⁾

사실상 그는 강렬한 정치적 포부를 갖고 있었다. 그의 <雜詩> 중에 있는 「猛志逸四海, 鷺翮思遠翥」를 예로 든다면 여기에서 「猛志」의 구체적인 내용은 「大濟蒼生」(<感士不遇賦>)과 「道必懷邦」(<陶徵士誄>)으로서 이런 백성에 대한 관심, 나라의 안정을 염려함은 곧 儒家에서 말하는 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전통관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⁴²⁾

그러나 부패했던 東晉 정권에 그의 이상과 포부를 기탁하여 실현시키기에는 불가능했으므로 「靜念園林好, 人間良可辭」(<庚子歲五月中從都還阻風於規林>)라는 마음으로 歸隱을 결심하게 되었으니 그의 歸隱과 東晉政治와의 결별은 곧 그의 후반생 20여년 躬耕生活를 결정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렇다면 陶淵明의 歸隱思想 중에는 두가지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즉 현실적 田園세계와 이상적 桃花

40) 徐盛華, <從陶淵明《讀山海經十三首》中析論其神話世界的三重意識>, 《中外文學》 第十六卷 第七期, p.48 부분을 참조.

41) 田毅, <試論陶淵明「桃花源」理想的社會根源>, 《遼寧大學學報》, 66期, 1984年 第2期 참조.

42) 요컨대 陶淵明의 政理想은 儒家의 「治國平天下」정신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하겠으며, 이점은 그의 <感士不遇賦>詩에서도 「奉上天之成命, 師聖人之遺書. 發忠孝於君親, 生信義於鄉閭. 推誠心而獲顯, 不矯然而祈譽」라고 말하고 있다.

源세계가 그것이다. 전원으로 歸隱한 것은 그의 진정한 인생의 시작이요, 桃花源의 세계는 진정한 인생의 歸宿인 셈이다. 그가 구상한 <桃花源詩>의 序에 나오는 樂土에서 사람들은 서로 도와 농사일을 하고, 해가 지면 편히 쉬고 봄에는 누에쳐서 비단실을 거두고 가을엔 추수하면서도 임금에게 세금 한푼 바치지 않아도 되고 어린애들은 길에서 멋대로 노래하고 백발노인들은 즐겁게 서로 찾는 말하자면 일체의 군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 이러한 세상이 陶淵明이 꿈꾸는 정치이상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현실의 고통에 대한 분노이며 항의인 셈이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환상적인 정치이상은 결코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그 자신이 잘 알고 있었다. 그의 <桃花源詩> 序 篇末에 어부가 桃花源으로 가는 길을 잃고 다시는 그 길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설정한 것은 곧 자신의 이상은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2. 謝靈運의 政治態度

魏晉이래의 중국사회는 門閥이 득세하던 사회였다. 크고 작은 動亂은 모두가 門閥과 軍閥간의 정치주도권을 둘러싼 관계 악화로 인해 생겨났으며 그 두드러진 예로 晉·宋間에 발생한 謝氏 가족과 劉裕父子 사이에 일어난 충돌을 들 수 있다. 당시의 謝家는 王家와 더불어 兩大 貴族 중의 한 집안으로 謝靈運의 조부 謝玄은 후에 康樂公에 봉해졌으며 특히 숙부 謝混은 謝氏 가족 중의 대표인물이었다. 그는 晉孝武帝의 女婿로 「風華爲江左第一」(《南史·謝晦傳》)이라 할만큼 정계와 문단상 중요한 위치에 있었으며 謝靈運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한 인물이다. 이처럼 謝氏 가족은 東晉 후기의 정치권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魏晉南北朝時期에 문인과 정치의 연결고리는 밀접했던 바 당시의 豪門世族들은 사실상 정치·경제·문화 각방면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다.⁴³⁾ 사회와 주위의 환경이 이와 같았으므로 謝靈運은 자연히 일생을 이러한 政治風浪 속에서 보내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가 정치상 劉裕의 반대편 입장에 서게 된 선택은 그의 후반생에 비극적인 운명을 맞게 된 동기가 되었으며 비록 관직은 경미하였으나 시종 당시 정치파동에 몸을 담그게 된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43) 曹道衡·沈玉成, <南朝文學三題>, 《文學評論》, 北京, 中國社會科學院文學研究所, 1990年 第1期, p.6 참조.

총괄적으로 보아 謝靈運 일생동안의 정치활동은 三段階로 나눌 수가 있다.

第一段階는 晉時 그가 숙부인 晉陵公主夫婿인 謝混의 뜻을 좇아 劉毅의 幕下에 들어감으로써 劉毅와 世族集團인 謝混·謝方明·郗僧施·蔡廓 등 주변인물 모두가 劉裕의 死敵이 된다. 義熙 8년 劉毅는 패하여 자살하고 謝混·謝方明 또한 劉裕에게 죽임을 당한다. 謝靈運은 劉毅와 謝混을 좇아 劉裕의 집권과 반대 입장이었기 때문에 유사(劉裕)의 실패후에 비록 큰 타격을 입은 건 아니었지만 그의 정치노선에 차질을 빚은 건 사실이었다. 이 시기 그의 정치상의 활동은 謝靈運 本傳에 잘 記載되어 있다.⁴⁴⁾

第二段階는 入宋 이후 謝靈運이 劉氏皇室 내부의 皇統을 계승할 劉義眞과의 관계로 정치권력의 일선에 다시 서게 된다. 그는 廬陵 王義眞·顏延之·道人 慧琳 등과 더불어 四人이 結黨하여 時政을 논하게까지 되었다. 이때 義眞의 나이 불과 14, 5세로 정치에 대한 어떤 강렬한 주장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劉義眞을 우두머리로 하여 하나의 정치지향의 작은 집단이 형성되고 이로 인하여 謝靈運 등의 정치활동은 劉宋皇朝의 新貴門에게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키게 되는 것이었다. 永初 3년(422) 5월 劉裕가 죽고 少帝가 즉위한다. 이어서 劉宋皇朝의 어린 군주를 둘러싸고 공신들 사이에 권력다툼이 일고 顏延之는 始安太守로 謝靈運은 永嘉太守로 내쫓김으로써 四文人의 작은 정치집단은 분산되고 만다. 후에 劉義眞은 廢庶人되었다가 新安郡에서 피살되니 때에 나이 19세였다.⁴⁵⁾ 謝靈運은 그때의 비분을 <廬陵王墓下作>이란 詩에 잘 나타내고 있다.

第三段階는 宋文帝 즉위 후 秘閣書를 정리하는 직무에 임용되나 이 직위는 고위층의 정치에 참여하여 정치실권을 잡고 싶은 그의 야심과는 거리가 멀었다. 실망한 그는 그러나 史書의 편찬을 통해서 자기의 정치철학을 펼 수 있다는 장래의 발전을 위해서 내심의 불만을 누른 채 이에 응했다. 그리고 그후 오래지 않아 天子의 신변에서 종사하게 되었으나 文帝는 그를 단지 詩文의 창작상 존경했을 뿐 정치상의 의

44) 《宋書》 本傳:「撫軍將軍劉毅鎮姑孰, 以爲記室參軍. 毅鎮江陵, 又以爲衛軍從事中郎. 毅伏誅, 高祖版爲太尉參軍. 入爲秘書丞. 坐事免. 高祖伐長安, 驃騎將軍道憐居守, 版爲諮議參軍. 轉中書侍郎. 又爲世子中軍諮議, 黃門侍郎. 奉使慰勞高祖於彭城, 作撰征賦, 仍除宋國黃門侍郎. 遷相國從事中郎世子左衛率. 坐輒殺門生, 免官。」

45) 《宋書》 卷四 少帝傳:「少帝諱義符, 小字車兵, 武帝(劉裕)長子也.……永初三年五月癸亥, 武帝崩, 是日, 太子卽皇帝位.……徐羨之等使中書舍人邢安泰殺帝於金昌亭.……時年十九。」

건을 구한 적은 결코 없었다.⁴⁶⁾ 이때 謝靈運은 또한 檀道濟와 結交를 맺어 當權派 王曇首·王華·殷景仁 등과 대항하게 된다. 당시 劉宋의 軍事力量은 檀道濟의 수중에 있었으므로 當權派에서는 謝靈運을 눈에 가시처럼 극력 배척하게 되어 급기야 면직에 이르니 오래지 않아 廣州로 流放 되어 棄市되고 만다.⁴⁷⁾

謝靈運의 피살은 晉·宋시대 통치계급의 내부의 싸움이요, 新舊 軍벌세력과 豪門 世族間的 다툼과정 중에 발생한 필연적인 비극인 셈이다. 그가 晉室에 충성한다는 <臨川被收>詩를 보고⁴⁸⁾ 혹자는 謝靈運이 晉室에 대한 충성으로 劉宋王朝와 불화했으므로 마지막에 피살되었다고 하나 이는 謝靈運의 행동과 작품 등으로 미루어 보아 이러한 결론은 내릴 수가 없다. 그는 자신의 가문에 대한 자만이 극히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新朝의 天子를 깔보는 태도, 말하자면 門第觀念이 특별히 강렬했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述祖德詩> 序에서 「太元中, 王父 龔定淮南, 負荷世業, 尊主隆人.」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

博學能文했던 謝靈運, 그는 다만 당시의 복잡했던 정치 환경 속에서 자주 배척당했으므로 자연스럽게 가슴속에 憤恨이 생기고 거기에 謝氏가족의 소위 유전적인 任性衝動的인 개성은 第一段階의 진실의 임직기간을 제외하고는 每次의 임직에 모두 태만했고 四處를 遨遊하게 하였던 것이다.

六. 結 言

陶淵明과 謝靈運은 동시대에 같은 名門의 후예로 태어나 생활범위 또한 같은 長江유역이었지만 두사람이 겪은 일생의 곡절은 달랐다. 陶淵明은 집안이 이미 몰락하여 심지어 절식의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謝靈運은 찬란한 門閥로 부귀와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宋室에서 본다면 陶淵明은 정치상 이미 이용가치를 잃었고 그의 居留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없었을 뿐더러 官職 또한 微職이라 사회나 국가에 대해서 輕重을 거론치 않아도 되었다. 그러나 謝氏家門은 정치상, 문단상 후

46) 《宋書》本傳:「靈運詩書皆兼獨絕, 每文竟, 手自寫文, 文帝稱爲二寶. 既自以名輩, 才能應參時政, 初被召, 便以此自許, 既至, 文帝唯以文義見接, 每侍上宴, 談賞而已. 王曇首·王華·殷景仁等, 名位素不踰之, 并見任遇, 靈運意不平, 多稱疾不朝直.」

47) 앞의 주3)과 같음.

48) 「韓亡子房奮, 秦帝魯連恥. 本自江海人, 忠義感君子.」(<臨川被收>)

은 생활상 모두가 당시 사회의 중심이었고 그의 진퇴 또한 주목의 대상이었다. 宋室 초기에 그 정치적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豪門世族들을 용납하여 사회 인심을 수렴하여야 했고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謝靈運은 진심으로 歸隱하고 싶어도 당시의 사회가 이를 불허하였다. 그러나 宋室은 그를 이용하면서도 그를 겁내어 시종 그에게 중직을 부여하지는 않았다. 宋室의 이러한 모순심리는 謝靈運이 비참한 종말을 맺는데 주요한 원인을 조성한 셈이 된 것이다.

실제상 兩人이 관직을 버리고 返鄉한 점은 그 성격에 있어서 더욱 다른 점을 보여주고 있다. 陶의 은퇴는 영구적이었고 謝의 은퇴는 잠시적이었다. 陶는 歸隱후 躬耕自給하며 安貧樂道의 생활을 하여 內心の 번뇌를 잊었고 謝는 歸隱후 不忘榮利하면서 정치상의 功名을 꿈꾸며 사상상의 歸宿을 얻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兩人의 최후는 크게 달라졌다. 그러나 이들 兩人에게 있어서 당시의 봉건문인들이 갖는 현실에 대한 불만과 當權者와의 不合作 등 대체적으로 그 성향이 일치하여 기간의 본질적 구별은 보이질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陶淵明과 謝靈運의 歸隱에 대해서도 그들의 사상적 기초와 정치성향이 서로 통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 兩人의 文學性과 思想性의 규명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參考文獻>

《晉書》 北京 中華書局

《宋書》 北京 中華書局

《南史》 北京 中華書局

《昭明文選》 臺北 漢京文化公司

《世說新語》 北京 中華書局

《陶淵明詩箋注》 丁福保 臺北 藝文印書館

《謝康樂詩注》 黃節 臺北 藝文印書館

《謝靈運》 船津富彦著, 潭繼山譯 臺北 萬盛出版社 民國 72年

《陶淵明集校箋》 楊勇 臺北 正文書局 民國 74年 1月

《中國山水詩研究》 王國瓔 臺北 聯經出版社 民國 75年

- 《謝靈運論稿》 鍾優民 山東 齊魯書社 1985年
- 《魏晉玄學和文學》 孔繁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7年 12月
- 《謝靈運集校注》 顧紹柏校注 中州 古籍出版社 1987年
- 〈陶淵明年壽應爲六十三歲考〉 楊勇 新亞書院學術年刊 第5期 1964年
- 〈陶靖節與慧遠〉 吳頤平 輔仁學誌 第十期 民國 70年 6月
- 〈謝靈運及其詩〉 王次徵 東吳文史學報 第6號 民國 77年
- 〈試論陶淵明「桃花源」理想的社會根源〉 田毅 遼寧大學學報 66期 1984年
- 〈陶·謝境遇之比較〉 包根弟 輔仁學誌 第12期 民國 72年 6月
- 〈謝靈運的政治態度和思想性格〉 沈玉成 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中心 1987年 6月
- 〈謝靈運與宗炳〉 志村良治著, 何楠譯 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中心 1988年 6月
- 〈陶淵明的歸隱思想探略〉 王雁冰 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中心 1988年 3月
- 〈謝靈運《辯宗論》和山水詩〉 錢志熙 北京大學學報(哲社版) 1989年 第5期
- 〈從陶淵明「讀山海經十三首」中析論其神話世界的三重意識〉 徐盛華 中外文學 第16卷 第7期
- 〈南朝文學三題〉 曹道衡·沈玉成 文學評論 北京 中國社會科學院 1990年 1期
- 〈陶集引《論語》考——兼論陶潛之儒學思想〉 楊鍾基 香港中文大學中國文化研究所學報 第19卷
- 〈陶詩中的嘆貧〉 王國慶 文學遺產 中國社會科學院 文學研究所 1993年 4期
- 〈歸去來兮辭與歸去來佛曲〉 丁永忠 文學遺產 中國社會科學院 文學研究所 1993年 5期

梁啓超 詞學觀 小考

李 爽 炯*

<目 次>

- | | |
|------------------|----------|
| 一. 序 論 | 四. 詞 批 評 |
| 二. 詞의 기원 | 五. 結 論 |
| 三. 詞에 있어서의 情感 表現 | <參考文獻> |

一. 序 論

梁啓超(1873-1929)는 중국의 청말 민국 초기에 정치적으로나 학술 사상면에 있어서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사람이다. 그는 어려서는 전통적 교육을 받았고 성장하면서부터는 서양의 신학문을 받아들여 당시 중국이 직면한 시대적 위기 상황을 타개할 방도를 찾고자 노력하였다. 그의 일생의 활동과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사상은 국가에 대한 걱정과 국민의 계몽이란 말로 집약할 수 있다. 유신 변법 운동에 참가한 것이나 戊戌年(1898) 變法 운동이 실패한 뒤 일본으로 건너가 문화 언론 출판 활동을 중심으로 국민계몽에 남다른 열정을 보인 것이나 귀국 후에 참여한 정치적 활동, 만년의 교육과 학술활동은 모두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초기의 梁啓超의 문학에 대한 관심은 국민 계몽에 필요한 문학적 효용성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문학의 가치가 그것의 공용성에 있다고 보았고, 순수 문학적 입장에서의 문학의 가치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는 국가의 앞날을 걱정하고 국민을 계몽하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글을 썼고 거기에 글쓰는 의의를 두었던 것이지 순수하게 문학 자체를 위하여 무언가를 추구해보려는 의도는 별로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다.¹⁾ 그가 제창한 시계혁명·문계혁명·소설계혁명도 모두

* 仁濟大 中文科 專任講師

1) 金學主, 「梁啓超의 文學思想」(《전환기의 동아시아 문학》, 창작과 비평사, 1985.5), p.310.

이러한 국민 계몽의 필요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치 무대에서 완전히 은퇴하고 학술계로 뛰어 든 1920년대 이후에는 그의 문학에 대한 관심이 정치적 입장에서 점차 審美的 입장으로 바뀐다. 직업 환경의 변화는 그의 심미관의 변화를 유도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문학의 사회 정치상의 교육 작용을 더이상 강조하지 않고 심미 가치 및 정감의 특징을 중시하였으며, 편면적으로 내용과 정신을 강조하던 데서 내용과 형식, 정신과 풍격의 통일을 강조하였다. 특히 1922년 4월부터 1923년 3월까지 북경에서 남방으로 순회 강연을 하면서 발표한 「中國韻文裏頭所表現的情感」·「屈原研究」·「情聖杜甫」·「美術與科學」·「美術與生活」·「趣味教育與教育趣味」 등의 글 가운데 이러한 변화를 분명하게 볼 수 있다.²⁾

梁啓超의 산문·시·소설 등에 관한 초기 견해가 주로 공용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에 비하여 詞에 관한 그의 견해는 순전히 개인적인 정감을 표출하는 통로로 인정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딸인 梁令嫻은 “나는 학교 수업이 한가할 때마다 음악을 즐겨 吟詠하기를 좋아하였고 간간히 우물우물 詞 짓는 법을 배웠다. 家親께서는 이것은 性情을 기탁해내는 것이므로 禁하지 말라고 하셨다.”³⁾라고 하였는데, 梁令嫻이 편집한 《藝蘅館詞選》은 1908년에 초판 인쇄되었으므로 이러한 견해는 梁啓超의 젊어서의 詞에 관한 인식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晩년에 그는 부인의 오랜 병상 생활에 대한 간호로 인하여 지칠 대로 지친 정신을 詞를 통하여 달래 보려고 한 바 있다. 그 때의 이러한 자신의 생활의 일면에 대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내가 병상 옆에서 이 몇 개월간 무슨 일로 소일하였던가? 내 책상 위와 베개 가에는 汲古閣의 《宋六十家詞》 한 部, 王幼霞(鵬運)가 판각한 《四印齋詞》 한 部, 朱古微(祖謀)가 판각한 《彊村叢書》 한 部가 놓여져 있었다. 나의 사랑하는 딸 외에 이러한 ‘詞人’들이 바로 나의 유일한 반려자였다.”⁴⁾ 또한 그는 《辛稼軒先生年譜》를 집필하는 일에 몰두하다가 완성을 보지 못한 채 과로로 쓰러져 세상을 떠났다.⁵⁾ 이것으로 보건대 梁啓超는 詞를 읽고 외우고 評하기를 즐겨 하였으며 詞人에 대한 연구에도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딸인 梁令嫻가 《藝蘅館詞選》을 편집한 것이라든가 그의 동생 梁啓勛이 詞學 연구 방면에 많은 저작을 남길 수 있었던 것도 이처럼 詞學에 깊은 조예를

2) 聶振斌, 《中國近代美學思想史》(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1.9), pp.152-153.

3) 梁令嫻, 《藝蘅館詞選》自序(廣東人民出版社, 1981.12).

4) 梁啓超, 「飲冰室詩話」附「苦痛中的小玩意兒」(《飲冰室文集》之四十五), p.113.

5) 「辛稼軒先生年譜」梁啓勛跋(《飲冰室專集》 제6권).

가지고 있었던 梁啓超의 영향이었을 것이라는 것은 추측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나 문학 방법에서의 기존 梁啓超 연구는 주로 소설개혁명·문계개혁·시계개혁 등의 연구에 집중되어 왔고, 그의 詞學에 대한 관심은 연구자들의 관심 밖에 있었다. 이것은 小道로 치부되어 온 詞가 梁啓超 같이 근현대사에 비중 있는 인물에 대한 연구로는 적합치 않은 소재라고 인식한데서 비롯된 것 같다. 梁啓超의 경우 사실 詞 창작이 여타 문학 장르보다 활발하지는 않았고 詞에 관한 전문적인 논의도 많지는 않다. 그러나 그는 私的인 정감의 통로로서 詞의 효용성에 관하여는 나름대로의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었고, 詞의 창작이나 詞學 연구 성과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본고는 梁啓超의 詞學에 관한 관점을 규명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飲水室文集》과 《飲水室專集》에 실린 詞에 관련된 단편적인 자료들과 그의 딸 梁令嫻의 《藝衡館詞選》에 채록된 梁啓超의 論詞評語 및 그의 동생 梁啓勛의 詞學著作 및 기록들을 중심으로 詞의 起源에 관한 문제, 詞에 있어서의 情感 표현의 문제 그리고 詞 비평의 문제에 관한 梁啓超의 관점을 알아보기로 한다. 그의 詞 창작에 관한 분석은 이후의 과제로 남겨두고 본고의 범위에서는 제외시켰다.

二. 詞의 기원

詞의 기원에 관한 문제는 詞 연구자들의 기본적이고도 가장 첫번째로 직면하게 되는 문제이다. 역대로 詞가 언제 시작되었는가라는 문제에 관한 논의는 계속되어 왔으나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그 시점을 파악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梁啓超는 「中國之美文及其歷史」라는 글에서 唐宋시대의 美文에 관하여 논의하는 가운데 詞의 起源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⁶⁾

그는 먼저 詞가 음악의 악보에 의거하여 그것에 가사를 채워넣는 전통에서 비롯되었다는 填詞의 특징에 초점을 맞추어 填詞 혹은 倚聲의 풍조가 南北朝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朱弁(宋 婺源人, 字 少章)의 《曲洧舊聞》의 설⁷⁾을 재조명하였다.

6) 「中國之美文及其歷史」의 내용은 古歌謠와 樂府, 周秦時代의 美文, 漢魏時代의 美文, 唐宋時代의 美文으로 구분되어 논술하고 있는데, 唐宋時代의 美文은 詞의 起源에 관한 내용의 일부만 언급된 채로 원고가 끝나 있다. (《飲水室專集》 卷74)

7) 朱弁, 《曲洧舊聞》: “詞는 唐人에게서 일어났으나 六代에 이미 시작되었다(詞起於唐人,

長短句 詩歌는 漢魏 樂府에도 보이지만 音節에 있어 후세의 詞와 가까운 것은 南北朝에 와서야 많아지게 되었다고 하면서 梁啓超는 每篇의 句法 字數가 일정한 것으로 梁 武帝의 「江南弄」·「採菱」, 簡文帝의 「龍笛」 등을 들고 있다. 그 가운데 梁 武帝의 「江南弄」을 예로 들어보자.

衆花雜色滿上林	상림원에 울긋불긋 온갖 꽃이 만발하여
舒芳耀綠垂輕陰	향기 날리고 초록으로 빛나며 그늘 가볍게 드리우는데
連手蝶踐舞春心	손 맞잡고 나비처럼 춤추며 춘흥을 쫓다.
舞春心	춤추며 춘흥을 쫓다.
臨歲朕	좋은 시절 되어
中人望	사람들의 바램이 이뤄졌는데
獨踟躕	혼자만 서성인다.

《古今樂錄》에 의거하면 이 曲은 武帝가 「西曲」을 고쳐 만든 것으로 1. 江南弄, 2. 龍笛, 3. 採蓮, 4. 鳳笙, 5. 採菱, 6. 遊女, 7. 朝雲의 도합 7편이라고 한다. 같은 시기의 沈約도 4편을 지었고 簡文帝도 3편을 지었는데 그 調는 모두 동일하다. 이것을 보면 「江南弄」의 調에 속한 것은 모두 7자 3구, 3자 4구의 조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7자 3구는 구마다 압운되어 있고, 3자 4구는 隔句로 압운되어 있다. 제4구(舞春心)는 제3구의 끝 3자를 중첩한 것으로 「憶秦娥」 調의 제2구 끝3자(秦樓月)과 같다.⁸⁾ 이처럼 엄격하게 구별된 한 자 한 구는 譜에 의거하여 調를 지은 것으로 사실 唐末의 「倚聲」(소리에 따라 지은) 新詞(새로운 가사)와 차이가 없다.

이밖에 梁武帝의 「上雲樂」 7曲, 沈約의 「六憶詩」의 譜에 맞춰 지은 隋 煬帝의 「夜起朝眠曲」, 僧 法雲의 「三洲歌」, 徐勉의 「送客」·「迎客曲」도 모두 각각의 字句가 일정하다. 이러한 曲調와 作法은 뒤에 오는 填詞의 鼻祖가 됨은 의심할 바 없다.

그러나 梁啓超는 이러한 曲調에 의거하여 歌詞를 지어낸 六朝의 填詞 풍조가 바로 직접적인 詞의 시작이라고는 보지 않았다. 엄격한 의미에서의 詞는 六朝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中唐 이전에도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而六代已溢觴也)。”(《飲冰室專集》 卷74, p.179)

8) 李白, 「憶秦娥」: 簫聲咽, 秦娥夢斷秦樓月, 秦樓月, 年年柳色, 灞陵傷別. 樂游原上清秋節, 咸陽古道音塵絕. 音塵絕, 西風殘照, 漢家陵闕.

詞는 과연 어느 시기에 일어났는가? 모든 사물이 발생하고 성장하는 것은 모두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법이다. 한가지 문학이 성립되기까지는 중간에 여러번 변화를 거치게 되며, 백수십년이라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 하나의 커다란 경계를 그어서 확실하게 그 연대를 지적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⁹⁾

그는 詞가 가장 성행했던 宋代 詞人들의 詞의 기원에 관한 논의를 종합하여 다음의 세가지로 귀납하였다.

1) 晚唐說

陸游는 이르기를, “소리에 의하여 가사를 짓는 것은 唐의 末년에 시작되었다.”¹⁰⁾고 하였다.

2) 中唐說

沈括은 이르기를 “……詩 외에 또한 ‘和聲’이 있는데 바로 이른바 曲이다. 고 악부는 모두 소리가 있고 가사가 있어서 연이어서 그것을 썼다. 예를 들면 ‘賀賀賀’ ‘何何何’ 같은 것들은 모두 和聲이다. 지금의 관현악 가운데의 ‘纏聲’ 역시 그 遺法이다. 唐人은 바로 詞를 가지고 曲 가운데 채워 넣고 다시 和聲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런 격식은 비록 王涯¹¹⁾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하지만 貞元 元和 연간에 그렇게 한 사람이 이미 많았으니 또한 王涯보다 앞선 사람이 있었던 것이다.”¹²⁾라고 하였다.

3) 盛唐說

李清照는 이르기를 “樂府와 聲詩는 함께 드러나 唐에서 가장 성하였다. 開元(713-741)·天寶(742-756) 연간에 李八郎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노래를 잘 불러 천하에 이름이 알려졌다.……뒤에 鄭 衛의 소리가 날로 유행하고 음탕한 음악으로의 변화가 날로 심해져서 이미 「菩薩蠻」·「春光好」·「莎鷄子」·「更漏子」·「浣溪沙」·「夢江南」·「漁父」 등의 詞가 있었으니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다.”¹³⁾고

9) 梁啓超, 「中國之美文及其歷史」, p.179.

10) 《渭南文集》 卷14 長短句序：倚聲製詞，起於唐之季世。

11) 《宋史》 藝文志에는 王涯의 「翰林歌詞」 1권이 있다. 이는 가장 이른 개인의 가사집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이것을 근거로 하여 王涯가 填詞의 격식을 맨 처음 만들었다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翰林歌詞」는 전해지지 않는다. 王涯가 太常卿이 된 것은 文宗(827-840 在位) 때로서 시대가 너무 늦으며 따라서 沈括도 貞元(785-804) 元和(806-820) 연간에 그러한 것을 하는 자가 이미 많았다고 하면서 이 격식이 王涯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말한 것이다.(吳熊和 著, 李鴻鎮 譯, 《唐宋詞通論》, p.57)

12) 沈括, 《夢溪筆談》 卷5：……詩之外又有‘和聲’則所謂曲也。古樂府皆有聲有詞，連屬書之。如曰：‘賀賀賀’‘何何何’之類。皆和聲也。今管絃中之‘纏聲’，亦其遺法也。唐人乃以詞填入曲中，不復用‘和聲’。此格雖云自王涯始。然貞元元和之間，爲之者已多，亦有王涯之前者。

하였다.

그리고서 절충적인 입장에서 위의 상이한 詞의 기원에 관한 주장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을 지었다.

위의 세가지 설은 서로 들어맞지 않는 것 같으나 사실은 모두가 옳은 것이다. 대체로 새로운 체제의 「樂府聲詩」는 開元 天寶 연간에 이미 성대하게 일어났고, 詞로 曲 가운데 채워 넣은 것은 사실 貞元 元和 연간에 시작된 것이며, 엄격하게 「소리에 의거하여 사를 지어」 每調의 字句가 모두 그 譜에 따르도록 한 것은 唐末 五代를 거쳐서 비로소 크게 유행하게 되었다.¹⁴⁾

이러한 결론에 대하여 梁啓超는 다음과 같이 보충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

漢魏樂府는 열 가운데 아홉은 四言 아니면 五言 古詩였다. 齊梁樂府는 열 가운데 아홉은 絶句와 유사한 五言 四句였다. 모두 句法과 字數가 편마다 같았다. 그런데 譜와 調는 각각 달랐다. 漢魏의 譜는 六朝시대에 이미 점차로 없어졌고 齊梁의 譜는 唐 景龍 연간에 아직 63곡이 존재하였고 중엽 이후로는 겨우 37곡이 존재하였다. 음악이 시대에 따라 쉽게 변화된다는 것은 본래 자연스런 이치이다. 게다가 唐代에는 武功이 지극히 성하여 西北 여러 부락과 교통이 빈번하여 이른바 '胡部樂'이란 것이 분분하게 수입되었다. 玄宗은 文을 숭상하던 군주로서 통치기간 40년 동안에 각종의 문화가 진보하여 모두 최고조에 달하게 되었다. 음악은 특히 그가 좋아한 것으로 유명한 「霓裳羽衣曲」은 바로 그가 손수 지은 것이다. 이때문에 開元 天寶 연간에 新聲이 거둬 일어나 崔令欽의 《教坊記》에는 324調가 실려 있다. 그 가운데 후대의 詞調名도 적지 않다. 그러나 그 歌詞가 있었는지는 깊이 있게 고찰할 수가 없다. 郭茂倩의 《樂府詩集》에는 「近代曲詞」라는 한 분류가 있는데 수록된 것은 모두 盛唐 이후의 新聲이다. 그 가운데 80여조—이를테면 水調·涼州·伊州·石州·採桑·思歸樂·破陣樂·浣沙女·長命女·一片子·醉公子·甘州·山鷓鴣·何滿子·清平調·回波樂·大酺樂·雨霖鈴·竹枝·楊柳枝·浪淘沙·拋毬樂·憶江南·嘲笑·踏歌 등이 있는데, 어떤 것은 후대의 詞調名과 완전히 같고 (예를 들면 浪淘沙·憶江南과 같은 것들), 어떤 것은 후대의 詞調가 근본으로 한 것(예를 들면 浣沙女는 浣溪沙로 변하였고 山鷓鴣는 瑞鷓鴣 및 鷓鴣天으로 바뀌었고 水調는 水調歌頭로 변하였고 甘州는 八聲甘州로 변한 것들)이다. 그 가운데 실린 歌詞는 비록 半은 中唐의 작품에 속하지만 또한 盛唐 및

13) 李清照, 「詞論」: 樂府聲詩竝著, 最盛於唐. 開元天寶間, 有李八郎者, 能歌擅天下. ……自後鄭衛之聲日熾, 流靡之變日煩. 已有菩薩蠻·春光好·莎鷄子·更漏子·浣溪沙·夢江南·漁父等詞不可備舉……

14) 梁啓超, 「中國之美文及其歷史」, p.180.

그 이전의 것도 있다. 回波樂의 작자 沈佺期 李景伯, 大酺樂의 작자 杜審言은 모두 中宗 睿宗 때의 사람이다. 億歲樂의 작자 張說 清平調의 작자 李白은 모두 玄宗 때의 사람이다. 이 모든 것들은 모두 聲詩이다.—즉, 詞의 비조로서 初·盛唐 어간부터 이미 발생한 것이다.¹⁵⁾

여기에서 梁啓超는 唐代的 教坊에 사용하던 曲調名과 宋 郭茂倩의 《樂府詩集》 가운데 「近代曲詞」 안에 실린 曲調名이 詞調名과 같거나 유사한 것이 상당수라는 것을 통하여 이들과 詞의 기원과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教坊에서 사용되던 曲調에 歌詞까지 결들여 있었는지 고증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로부터 教坊의 음악이 바로 詞樂이라는 결론을 유도할 수는 없다고 보았으며, 「近代曲詞」 안에 수록된 것들은 聲詩로서¹⁶⁾ 그것이 지어지기 시작한 시기는 初唐·盛唐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기는 하지만 엄격하게 말하여 聲詩와 詞와는 성질이 다르다고 하였다.¹⁷⁾

聲詩란 近體詩와 같은 齊言體의 詩에 음악에 밝은 사람이 歌曲을 새로 지어 그 詩에 맞추거나 혹은 기존의 음악을 배합하였던 것으로 詩가 음악에 의해 변형되거나 구애받지는 않았다. 이에 비하여 詞는 音樂의 曲拍에 의하여 歌詞를 확정 짓는 것으로서 대부분 長短句로 이루어졌으며 먼저 詩를 짓고 그것에 음악을 배합한 聲詩와는 그 성질이 전혀 다른 것이었다. 음악에 맞추는 과정에서 齊言體의 聲詩는 가사로서의 한계를 드러낼 수 밖에 없었을 것이고 자연 齊言體에서 長短句로 그 체제의 변화를 가져올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리하여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제언체에서 장단구 체제로의 변화를 설명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는데 위에서

15) 梁啓超, 「中國之美文及其歷史」, pp.180-181.

16) 《樂府詩集》 중 「近代曲詞」 4권 및 「雜曲歌詞」 중의 일부분에는 唐代的 聲詩가 비교적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다. 같은 教坊曲이지만 《樂府詩集》에 보이는 것은 대부분 聲詩인 반면 敦煌曲 및 《花間集》·《尊前集》에 보이는 것이라야 비로소 詞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吳熊和 著, 李鴻鎮 譯, 《唐宋詞通論》, p.48)

17) 唐聲詩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서로는 任二北(半塘)의 《唐聲詩》 上下編 (上海古籍出版社, 1982.10)이 보인다. 상편은 理論 부분이고 하편은 格調로서 154調의 聲詩를 설명하고 있으며, 부록으로는 樂譜와 舞譜 그리고 舞圖 등을 聲詩格調圖譜라는 제목으로 영인하여 수록하고 있다. 任二北에 의하면 聲詩에 관한 연구업적적으로는 1905년 淵實의 「中國詩學之遷變與戲曲發展之關係」(新民叢報 第四年 第五號 揭載)가 효시이며 이 글에서는 歌詩에 대하여 漢으로부터 그 당시까지 역사적으로 일관되게 서술을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唐聲詩》, p.633) 梁啓超는 當時 《新民叢報》의 주편으로 이 잡지의 편집에 직접 관여하고 있었으므로 이 글을 직접 읽어볼 기회가 있었을 것이고 그의 聲詩에 관한 지식은 상당수 이로부터 비롯되었으리란 추측을 해볼 수 있다.

梁啓超가 보기로 든 沈括의 和聲說을 비롯하여 胡仔의 虛聲說¹⁸⁾, 朱熹의 泛聲說¹⁹⁾ 등의 그것이다. 그러나 제언체의 詩式과 樂曲 사이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중대한 돌파구는 曲拍에 따라 句를 짓는 방법이었다. 이리하여 詞는 長短句로서 그 체제를 확립하게 되는 것이다.

梁啓超의 원고는 여기에서 끝나고 있으므로 그 다음 논의를 어떻게 이끌어나갔을까 하는 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聲詩가 바로 詞는 아니라는 것을 밝혔으므로 뒤에는 齊言의 聲詩에서 長短句인 雜言의 詞로 변화해 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논의가 이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梁啓超는 聲詩가 음악과의 모순을 탈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和聲을 덧붙이는 수법 등의 과정을 거치다가 결국은 曲拍에 따라 句를 짓는 방법에 의해 長短句로 변화해갔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이리하여 盛唐 中唐 晚唐이라는 詞의 기원시기를 모두 긍정하였다. 聲詩는 初盛唐부터 유행하기 시작하였고 和聲에 의한 歌唱法은 中唐에서 유행하기 시작하였으며 음악의 곡박에 맞추어 가사를 짓기 시작한 것은 晚唐·五代에 이르러 일반화되기 시작하였으니, 梁啓超는 각각의 詞 기원설을 종합적으로 수용하면서 詞의 체제 확립 단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엄격한 의미에서의 詞와 그 鼻祖로서의 聲詩나 填詞의 濫觴으로서의 樂府 倚聲 填詞의 전통을 구분하여 詞의 기원에 관하여 서술한 것은 이전 詞論家들이 詞에 대한 정확한 개념도 없이 무분별하게 詞의 기원을 서술하고 근거의 제시도 미흡했던 것에 비하여 훨씬 체계적이고 구체적이다. 이러한 논의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詞學에 대한 지식이 상당한 수준까지 접근해 있었고 그러한 논의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정확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詞의 음악적인 바탕인 燕樂이라는 명칭에 관하여 구체적인 언급은 하고 있지 않지만 唐代 음악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詞와 음악과의 관계로부터 詞의 기원을 파악하려고 한 것은 정확한 시각이라고 하겠다. 지금까지도 詞의 기원에 관한 논의는 자료의 발굴과 정리하는 측면에서는 진전이 있었지만 그 방향에 있어서 있어서는 梁啓超의 이러한 시각을 크게 벗어나고 있지는 않다.

18) 胡仔, 《苕溪漁隱叢話》 卷39: 唐初歌辭多是五言詩或七言詩, 初無長短句. 自中葉以後, 至五代漸變成長短句. 及本朝, 則盡爲此體. 今所存止「瑞鷓鴣」「小秦王」二闕是七言八句詩并七言絕句詩而耳. 「瑞鷓鴣」猶依字易歌, 若「小秦王」必須雜以虛聲乃可歌耳.

19) 朱熹, 《朱子語類》 卷140: 古樂府只是詩, 中間却添許多泛聲, 後來人怕失了泛聲, 逐一聲添個實字, 遂成長短句, 今曲子便是.

三. 詞에 있어서의 情感 表現

詞란 무엇인가? 詩와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하는 문제는 역시 詞의 본질을 이해하는 지름길이다. 사는 형식상에서 시와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면에서도 시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수백년간 詞가 계속 문인들의 애호를 받아왔던 것이다. 그렇다면 시와 사의 근본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개략적으로 본다면 詞는 시와 동류에 속한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한다면 詞는 또 한 시와 같지 않다. 시는 드러나고 詞는 숨는다. 시는 곧고 詞는 부드럽다. 시는 사실대로 말하는 경우가 있으나 詞는 比興이 더 많다. 시는 확실하게 진술하는 것을 훌륭한 것으로 여기지만 詞는 함축을 더욱 귀하게 여긴다. 王國維는 말하기를, “詞體는 아름답고 수식하기에 적절하여 시에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시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을 다 말해낼 수는 없다. 시의 경계는 넓고 詞의 말은 길다.”²⁰⁾라고 하였다. 이것이 시와 詞의 커다란 차이이다. 詞에서 말하는 바는 인간의 감정과 생각의 意境 가운데 더욱 미세하고 아름다운 것이므로 그 표현의 방법, 이를테면 造境·選聲·配色 역시 반드시 섬세하고 아름다우며 세밀하고 운치 있는 것을 추구해야 비로소 그 내용과 어울릴 수 있다.²¹⁾

梁啓超의 詞에 관한 논의는 이처럼 본질적인 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다만 韻文의 하나인 詞에 있어서의 정감 표현 방법에 국한되고 있다. 이것은 그가 詞에 관한 본질적인 논의를 회피하고자 해서가 아니라, 문학에 대한 그의 관심은 情感의 문제로 집중되었기 때문이었다.²²⁾ 그가 1922년 淸華學校의 문학 서클을 위해 강연한 원고 《中國韻文裏頭所表現的情感》²³⁾에서는 中國 韻文에 있어서의 情感 표현 방법 문

20) 王國維, 「人間詞話刪稿」: 詞之爲體, 要眇宜修. 能言詩之所不能言, 而不能盡言詩之所能言. 詩之境闊, 詞之言長. (唐圭璋 編, 《詞話叢編》, 北京: 中華書局, 1986.1, p.4258)

21) 繆鉞, 「論詞」(《詩詞散論》, 臺北版: 臺北: 臺灣開明書店, 1982.10), pp.4,5

22) 梁啓超는 만년에 淸華學校에서 주로 國史 및 文學에 관한 강의를 하였는데 그의 문학에 관한 관심은 주로 情感의 문제에 집중되었다. 이것은 그가 정감 교육을 교육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겼으며 문학 교육도 바로 이 정감 교육의 일환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中國韻文裏頭所表現的情感》, p.2)

23) 이 원고의 서문에서 梁啓超는 강연 내용을 '1·2장 도언 / 3장 奔迸의 정감표현법 / 4·5장 廻盪의 정감표현법 / 6장 새로 동화된 서북 민족의 정감표현법에 대하여 덧붙여 논함

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로부터 梁啓超의 詞에 있어서의 情感 표현에 관한 견해를 알아 볼 수 있다.

그의 정감 표현 방법에 관한 논의는 크게 기교적인 측면과 파별적인 측면의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기교적인 측면이란 바로 奔迸·廻盪·蘊藉의 정감 표현 방법을 말하고, 파별적인 측면이란 상징과 낭만과 사실파의 정감 표현 방법을 말한다. 그러나 詞에 있어서의 정감 표현 방법에 관한 논의는 기교적인 측면에 한정되어 있고 파별적인 측면에 관하여는 언급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전개되었는가는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기교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梁啓超의 견해를 소개하기로 한다.

먼저 奔迸의 정감 표현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어떠한 정감을 갑자기 남김없이 다 쏟아내는 방법이 奔迸의 情感 표현 방법이다. 예를 들면, 의외의 과도한 자극을 받았을 때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크게 한바탕 울어 내거나 한바탕 크게 뛰거나 하는 것인데, 이러한 때 含蓄·蘊藉의 방법은 전혀 필요 없는 것이다. 詩經과 같은 古代詩에서 이러한 예를 많이 찾아볼 수 있지만, 詞에는 이러한 감정 표현 방법을 운용한 예가 아주 적다. 왜냐 하면 詞家は 纏綿悱惻에 대하여 가장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며 또한 詞라는 체제가 이러한 감정을 써내기에 좋은 도구는 아니기 때문이다.²⁴⁾ 이러한 표현 방법을 詞에 운용할 수 있는 정감의 종류는 주로 悲痛의 감정이다. 梁啓超는 이러한 예로서 辛稼軒의 「菩薩蠻」 상반절과 吳梅村의 「賀新郎」 하반절을 들고 있는데 여기서는 辛稼軒의 詞 하나만을 보기로 한다.

鬱孤臺下清江水，中間多少行人淚。西北是長安，可憐無數山……

백백하니 홀로 선 누대아래 맑은 장강의 물,
그 가운데 길 떠나는 이들의 눈물 얼마런가?
서북쪽이 장안인데
무수한 산이 가련쿠나……

/ 7·8장 蘊藉의 정감표현법 / 9장 여성문학과 여성정감에 대하여 덧붙여 논함 / 10장 상징파의 정감표현법 / 11장 낭만파의 정감표현법 / 12장 寫實派의 정감표현법 / 13장 문학에 드러난 인생관 / 14장 정감 표현에 사용된 문체의 비교'로 예정하고 있었는데, 현재 전하는 원고는 12장까지 뿐이다.

24) 梁啓超, 《中國韻文裏頭所表現的情感》, p.5

梁啓超는 이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이 詞는 徽宗 欽宗 두 임금의 북으로 갈 때 지나쳤던 곳에서 벽에 쓴 것이다. 稼軒은 岳飛보다 조금 후배인 애국 군인으로 병사를 데리고 변방 경계에 주둔하면서 늘 중원땅을 회복하려고 생각했다. 그러나 당시 작은 조정의 군신들은 모두 그것을 허락지 않았다. 辛稼軒은 이곳에 이르러 갑자기 큰 자극을 받아 저도 모르게 가슴속에 가득찬 뜨거운 눈물을 모두 쏟아낸 것이다.”²⁵⁾ 작가의 가슴속에 쌓여 있던 비통한 감정을 적당한 매개체를 접하고서 일시에 쏟아내었다는 것이다.

비통 이외의 정감도 이러한(奔迸) 방식으로 표현해낼 수는 있다. 그 비결은 단지 정감이 돌변할 때 그 마음 은밀한 곳의 변화점을 포착하고 그것을 강조하여 최고도로 묘사해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을 성공적으로 운용한 예는 거의 없고 다만 蘇東坡의 「水調歌頭」를 들 수 있을 뿐이다.

明月幾時有，把酒問青天。不知天上宮闕，今夕是何年。我欲乘風歸去，又恐瓊樓玉宇，高處不勝寒……

밝은 달은 얼마나 떠 있었는가
술잔을 잡고 푸른 하늘에 물어본다.
천상의 궁궐은
오늘 저녁 무슨 해인가
나는 바람타고 돌아가고 싶지만
또한 옥으로 된 누각
높은 곳에서 추위를 이기지 못할까 두렵다……

이 작품에 대하여 梁啓超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것은 정감이 높은 데로 나아가는 상태를 표현한 것으로 갑자기 하나의 ‘현세를 초월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 우리가 읽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을 따라서 새로운 생명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다.”²⁶⁾ 題序에 의하면 이 작품은 熙寧 9年(1076) 中秋節에 동생을 그리며 쓴 詞다.²⁷⁾ 그러나 단순히 동생에 대한 그리움만 토로한 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이 원래 살았던 瓊樓玉宇로 이루어진 天上宮闕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도 함께

25) 梁啓超, 《中國韻文裏頭所表現的情感》, pp.5-6.

26) 上揭書, p.8.

27) 蘇軾, 「水調歌頭」 題序: 丙辰中秋(1076), 歡飲達旦, 大醉作此篇, 兼懷子由.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서의 天上宮闕은 仙界를 뜻한다. 그러므로 이 작품은 동생을 그리며 詞인 동시에 仙界로의 回歸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낸 詞라고 볼 수 있다. 일상에서 현세를 초월한 경계로의 정감의 상승작용은 서양 문학에서는 자주 접할 수 있는 것이지만 중국문학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경우라고 하면서 梁啓超는 앞으로의 중국문학계가 새롭게 개척해야 할 영역이라고 권하고 있다.

다음으로 廻盪의 정감 표현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이것은 일종의 아주 농후한 정감이 가슴속에 서리어 있으면서 봄누에가 실을 뽑아내듯이 그것을 뽑아내는 것이다. 이러한 정감 표현법은 그것이 열렬한 방법으로부터 마음껏 발휘가 되면 앞의 (奔迸式) 정감 표현법과 같게 된다. 다른 점은 앞의 것은 직선식의 표현이고 이것은 곡선식 혹은 다각식의 표현이다. 앞의 것이 표현한 정감은 돌변할 때 생기는 것이어서 성질이 지극히 단순하여 다른 정감이 안에 섞여 들어올 수 없다. 廻盪의 정감 표현법에 의해 표현된 정감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고 여러 가지 정감이 섞이고 얽히어서 그물 형태의 성질을 이룬다. 인류의 정감은 이런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많으며 그래서 문학에서 표현하는 것도 이러한 것이 가장 많다.²⁸⁾

廻盪의 정감표현법을 써서 詞를 지으면 당연히 가장 잘 어울린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詞學 비평가는 또한 蘊藉를 추존하고 熱烈整礪이 일파에 대하여는 언제나 別調로 여겨왔다. 나는 이 두 파에 대하여 또한 치우쳐 칭찬하거나 힐뜯을 생각은 없다.(사실 또한 엄격하게 분별할 수도 없다.)²⁹⁾

아울러 梁啓超는 廻盪의 정감 표현법에 대한 예로써 많은 작품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그는 네 가지로 나누어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 즉 螺旋式·引曼式·堆疊式·呑咽式이 그것인데, 앞의 두 가지는 曼聲(길게 늘어 뽑는 소리)으로, 뒤의 두 가지는 促節(짧은 박자)로 분류하고 있다.

螺旋式의 예로는 辛稼軒의 「摸魚兒」(更能消幾番風雨)·「念奴嬌」(野塘花落) 를 들고 있다. 두 작품 모두 봄을 슬퍼한 일반적인 내용이지만 「摸魚兒」는 宋 高宗이 徽宗·欽宗을 맞아들이지 않으려는 속마음을 폭로 비판하고 있고, 「念奴嬌」 역시 徽宗·欽宗이 거쳐간 지역에 이르러 느낀 감개를 기탁해 낸 것이다. 이들 작품에서 작가는 수없이 겹겹이 쌓인 내면의 정감의 응어리들을 한층 한층 풀어 써내고 있

28) 梁啓超, 《中國韻文裏頭所表現的情感》, p.8.

29) 上揭書, p.23.

다.

引曼式的 예로는 詩經 「黍離」만을 들고 詞의 예는 들지 않았다.

堆疊式은 辛稼軒의 「賀新郎」(綠樹聽啼鴉)에서와 같이 한꺼번에 강경한 어조로 세계의 새 이름을 들고 중간에 들쭉날쭉 많은 이별 고사를 인용하여 마치 말에 있어서 순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고집스러운 가운데 극도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경우를 그 예로 들고 있다.

呑咽式의 예로는 宋 徽宗의 「燕山亭」, 李清照의 「聲聲慢」(尋尋覓覓), 陸放翁의 「釵頭鳳」을 들고 있다. 宋 徽宗의 「燕山亭」은 망국의 한을, 李清照의 「聲聲慢」은 작가가 남편과의 사별한 뒤에 느낀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외롭고 두려운 실제적인 감정을, 陸放翁의 「釵頭鳳」은 어머니의 강요로 부인과 이혼한 뒤의 감정을 써낸 것으로, 모두 다 하나의 글자가 한방울의 눈물과 같으며 묘사해낸 감정은 이를 깨물고 삼켜버린 것들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蘊藉의 정감 표현 방법이란 바로 숨쉴을 의미한다. 梁啓超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러한 정감 표현 방법은 이제까지 비평가들이 문학의 正宗으로 여겨왔거니와 아마도 중화민족 특성의 가장 참된 표현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정감 표현 방법은 앞 두가지와는 다르다. 앞 두가지는 뜨거운 것이고 이것은 따뜻한 것이다. 앞 두가지는 빛이 있는 화염이라면 이러한 것은 재를 덮은 화로의 숯이다.³⁰⁾

이어서 蘊藉의 정감 표현법에 대하여 梁啓超는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첫번째는 정감이 바로 아주 강렬한 때에 오히려 아주 절제된 모습으로 그것을 표현해 내는 것으로 전기를 가지고 뒤흔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천물을 가지고 젖어들게 하는 것처럼 독자로 하여금 지극히 평담한 가운데 천천히 지극히 깊이 있는 정취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앞의 奔迸이나 廻盪의 정감 표현법이 외국인인 진한 커피에다 설탕과 우유를 넣어 마시는 것과 같다면 이러한 것은 虎跑泉³¹⁾을 사용해서 끓여낸 雨前龍井茶와 같아 바라보면 색깔조차 없지만 마시고 몇 시간이 지나면 남은 향기가 혀에 남아있는 것과 같다고 梁啓超는 비유하였다. 그것은 정감을 완전 무결하게 수렴하여서 조금씩 조금씩 방출해 내는데, 감추어두고 방출하지 않은 것

30) 上揭書, p.39.

31) 浙江省 杭州市 大慈山 虎跑寺에 있는 샘물, 물맛이 좋기로 소문나 있음.

도 여전히 많다. 그러나 방출하여낸 것은 확실히 전체의 절묘한 그림자이어서 神妙한 맛을 준다.

두번째는 곧바로 자기의 情感을 써내는 것이 아니라 환경 혹은 다른 사람의 情感을 사용하여 그것을 烘託해내는 방법이다.

세번째는 아예 情感을 완전히 감추어두고 드러내지 않고 오로지 눈앞의 實景(혹은 虛構의 情景)만을 묘사하여 정감을 實景으로부터 드러내게 하는 방법이다.

네번째는 비록 정감 자체를 원래 모양대로 써내었지만 느낀 대상은 숨겨둔 채로 두고 따로 한가지 사물을 가져다가 象徵을 삼는 것으로 상징과의 수법과 연계하여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蘊藉의 情感 表現에 관한 논의에 있어 梁啓超는 詩經이나 기타 詩 작품을 예로 들고 있을 뿐, 詞 작품을 예로 들지는 않았다. 이는 기존의 詞 작품 가운데 이러한 정감 표현 방법이 가장 보편적으로 운용되어 왔기 때문에 굳이 詞 작품으로 그 예를 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梁啓超의 개인적인 성향이 詞에 있어서는 주로 蘇辛 일파의 호방한 정감 표현 방법을 좋아하였던 것과도 관련지어 그 이유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즉 梁啓超는 진실한 정감이 적절한 표현 방법으로 표현되어 독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문학작품을 선호하였는데, 詞의 경우 蘊藉의 표현 방법이 일반적으로 운용된 것이기는 하나 강렬한 정감을 함축적으로 묘사한 것은 詞 작품 가운데서 찾아보기 어렵고 설사 있다하더라도 미세하게 정감을 처리함으로 인하여 문학적인 수양을 많이 거치지 않은 일반 독자를 감동시키기란 쉽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이러한 梁啓超의 정감 표현 방법에 관한 논의는 그의 동생인 梁啓勛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梁啓勛의 《詞學》 下編은 詞의 표현 기술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 개론 부분에서 詞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詞는 문학 가운데서 대체로 정감을 표현하고 경물을 묘사하는 도구로 사용되는데 가장 잘 어울린다. 다른 문예가 표현할 수 없다거나 묘사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다. 기술의 우열은 물론 그 사람에게 달려 있다. 그러나 운용상의 難易에 관한 문제는 바로 도구에 달려 있는 것이다. 좋은 기술자는 또한 이로운 器機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고 어떠한 일은 그것에 맞는 도구를 써야 한다. 이는 기술의 우열과 가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제 정감을 표현하는 것과 경물을 묘사하는 것으로 크게 두가지로 나누고 기술을 날줄로 하고 詞流를 씨줄로

해서 분별하여 비교해 보기로 한다. 情感을 표시하는 것은 다시 迴腸盪氣·含蓄蘊藉 두가지로 나누고 迴腸盪氣는 또 曼聲과 促節로 나누며 含蓄蘊藉는 斂抑과 烘托으로 나눈다. 경물을 묘사하는 것은 다시 情景의 融和와 物態의 묘사 두가지로 나눈다.³²⁾

情感을 표현하는 기술적인 것으로 含蓄蘊藉와 迴腸盪氣는 바로 梁啓超가 제시한 정감 표현 방법의 迴盪과 蘊藉의 설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며 迴腸盪氣의 曼聲 促節의 분류도 마찬가지이다. 含蓄蘊藉의 斂抑은 梁啓超가 말한 蘊藉 情感 表現 法의 첫번째에 해당하고 烘托은 두번째 세번째 情感 표현 방법에 해당한다.

梁啓超는 韻文에 있어서의 정감 표현 문제를 다루었을 뿐, 詞만을 독립해서 詞에 있어서의 정감 문제를 다루지는 않았다. 이는 그가 詞를 전통적인 중국 美文의 하나로 인정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전통 문인들의 의식 속에 詞는 大雅之堂에 오르지 못하는 小道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완전히 벗어나서 詩와 대등한 중국 고유의 운문의 하나로 간주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詞 장르의 문학적 위상 제고는 常州派 이래 계속되어온 尊詞體의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서양의 문학의식을 받아들인 清末 民國 초기의 학계나 문단의 일반적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는 詞의 특질에 관하여 분명하게 다른 운문 장르와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기존에 논의되어 온 詞의 특질, 즉 詞家は 纏綿悱惻을 중시한다는 것이나 詞는 형식상 迴盪式의 정감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고 奔迸式의 정감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 등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詞에서도 이러한 정감 표현 방법을 모두 시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기존의 작품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의 詞 장르가 개척해야 할 정감 표현 방법의 새로운 영역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梁啓超는 詞學의 장래를 아주 희망적인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四. 詞 批評

32) 梁啓超, 《詞學》(北京: 北京市中國書店, 1985.3) 下編, pp.2-3.

梁啓超에게는 詞話라든지 詞選 등의 저작은 없고 다만 그의 딸 梁令嫻이 편집한 《藝蘅館詞選》³³⁾ 가운데 梁啓超의 論詞 評語가 실려 있을 뿐이다.³⁴⁾ 唐圭璋은 이것과 麥孟華의 詞評語를 합하여 「飲水室評詞」라는 제목으로 《詞話叢編》에 수록하고 있다.³⁵⁾ 이 기록들은 梁令嫻의 기억에 의한 것으로 단편적이고 내용도 풍부하지 못하여 梁啓超의 詞 批評觀을 살펴보기에는 부족한 감이 든다. 그러나 현재 남아있는 기록 가운데 梁啓超의 역대 詞에 대한 비평의 직접적인 자료는 이것 뿐이므로 이것을 중심으로 그의 詞學 批評의 일단을 살펴보는 수밖에 없다. 이 밖에 梁啓超의 저작 가운데 詞에 관한 언급된 부분과 기타 기록들을 참고하여 그의 詞 비평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³⁶⁾

문학작품은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어야 좋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작품에 표현된 작가의 정감이 진실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되어 독자에게 절실한 느낌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梁啓超의 문학 특히 韻文에 대한 주된 관심은 작가의 정감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에 집중되었

33) 《藝蘅館詞選》은 甲乙丙丁 4卷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甲卷은 唐五代詞, 乙卷은 北宋詞, 丙卷은 南宋詞, 丁卷은 清代 및 近人の 詞로서 모두 597수이다. 따로 戊卷 補遺에는 南宋 清代 및 近人이 지은 79수를 수록하였으니 모두 합하면 676수이다. 부록으로는 李清照의 「詞論」, 楊纘의 「作詞五要」, 張炎의 「詞源」, 陸輔之의 「詞說」 및 周濟의 「詞選序論」, 況周頤의 「玉梅詞話」, 모두 6가지가 있다. 이것은 초학자들에게 편리한 歷代詞(元 明代詞는 제외)선본일 뿐만 아니라 또한 詞學을 전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도 참고가 될만하다. 《藝蘅館詞選》은 원래 梁令嫻이 그 부친의 친구인 順德 麥孟華(字 孺博, 號 蛻庵, 光緒學人, 저서로 《蛻庵詞》 1卷이 있다.)에게서 배울 때 베껴 암송한 歷代詞로서 처음 베낀 것은 2,000수에 가까웠는데 그 뒤 麥孟華의 엄격한 구별을 거쳐서 번잡하고 중복된 것을 삭제하여 이 선집이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엄격하게 말하여 이것은 梁令嫻·麥孟華 두사람의 합작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梁令嫻 編, 劉逸生 校點, 《藝蘅館詞選》, 廣東人民出版社, 1981.12, 前言 參考)

34) 黃文吉은 梁啓超의 評詞 방식을 比較式·轉引式·異同式·摘句式·傳記式·印象式 등으로 나누어 놓고 있다. (黃文吉, 「梁任公的詞學」, 《中華文化復興月刊》 第16卷 第4期, 臺北, 1983.4, p.53)

35) 唐圭璋 編, 《詞話叢編》, pp.4301-4314.

36) 《藝蘅館詞選》이 1908년 初版이 인쇄되었으므로 「飲水室評詞」의 評語는 梁啓超의 초기 견해를 수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中國韻文裏頭所表現的情感》 등은 20년대 이후의 저작으로 그의 晩年の 견해를 담고 있다. 그러나 그의 詞에 대한 초기와 만년의 견해에 있어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는 詞라는 장르를 私的인 感情을 발설하고 해소하는 통로로 인식했기 때문에, 비록 초기에 정치적인 도구로서 문학을 이해하고 만년에는 심미적인 관점에서 문학을 연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詞에 대한 관념에 있어서는 시종 연속성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다. 이것은 그가 중국 고유의 시적 전통이 抒情이라는 것을 인식한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또한 자신이 교육자로서 교육의 첫번째라고 할 수 있는 정감 교육에 필요한 작품에 주의를 기울였기 때문일 것이다.

기본적으로 그는 詞 비평에 있어서 기존의 豪放派나 婉約派라는 이분법적인 구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어느 한 파를 중시하는 태도도 지양하였다.

지금까지의 詞學 批評家는 또한 蘊藉를 추존하고 熱烈盤礴 이 일파에 대하여는 언제나 別調로 여겨왔다. 나는 이 두 파에 대하여 또한 치우쳐 칭찬하거나 헐뜯을 생각은 없다.(사실 또한 엄격하게 분별할 수도 없다.)³⁷⁾

이러한 객관적인 論詞 태도에 대한 천명은 아마도 전통적 내지는 기존의 선입관을 배제하려 했던 梁啓超의 학술 태도 혹은 개성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³⁸⁾ 그는 정감이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되어 독자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작품 평가의 한가지 기준으로 삼았으며, 기존의 詞學 비평가들의 평가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지는 않았다. 일례로 작가의 인격과 작품의 평가 문제를 연계시키려는 태도에 대하여 그는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柳永과 蘇軾의 작품을 가지고 두 사람의 인격의 高下를 평론한 것에 대한 梁啓超의 다음의 언급은 이러한 일면을 잘 대변해 준다.

당시 어떤 사람이 耆卿의 「曉風殘月」과 東坡의 「大江東去」를 비교하여 두 사람의 品格의 高下를 평가하였는데 사실은 옳지 않다. 우리는 마땅히 어떠한 정감이 어떠한 방식에 어울리는 가를 생각해야 한다.³⁹⁾

梁啓超는 廻盪의 情感 표현법의 하나인 促節의 대가로 周清真과 柳耆卿을 들고 있는데⁴⁰⁾, 이는 모두 작품에 표현된 정감의 진실성 여부와 표현의 자연스러움을 그 평가 기준으로 삼은 데서 말미암은 것이다. 促節의 모범으로 내세운 周邦彦의 蘭陵王(柳陰直)에 대하여 그는 '한 글자 한 글자 모두 목구멍 속으로 삼켜 들어간다(一

37) 梁啓超, 《中國韻文裏頭所表現的情感》, p.23.

38) 梁啓超, 《清代學術概論》(臺1版;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77.2), p.149: 啓超與康有爲有最相反之一點, 有爲太有成見, 啓超太無成見. 其應事也有然, 其治學也亦有然.

39) 梁啓超, 《中國韻文裏頭所表現的情感》, p.27.

40) 上揭書, p.26.

箇箇字都是往嚟子裏嚟)'고 하였으며⁴¹⁾, '斜陽(冉冉春無極) 七字는 綺麗한 가운데 悲壯感을 띠고 있어 전체 작품의 精神을 분발시키고 있다(斜陽七字, 綺麗中帶悲壯, 全首精神提起)'고 평하고 있다. 작가의 悲壯한 정감이 절실하게 표현되어 있어 감동하는 힘이 큰 것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周邦彥 詞에 대한 평어를 보면 '託想이 뛰어나다(託想奇拙)', '가장 의기소침한 말이면서 도리어 가장 함축적이다(最顏唐語, 却最含蓄)', '情을 녹이여 景에 집어넣었다(鎔情入景也)', '古人的 詩句를 자신이 지어낸 것처럼 잘 융화시키고 있다(善融化古人詩句如自己出)'⁴²⁾라고 되어 있다. 완약파의 대표로 일컬어지고 있는 周邦彥에 관한 평은 이처럼 정감 표현의 적절성에 집중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표현에 있어서의 完美함을 보여주고 있는 周邦彥 詞의 장점을 그대로 수용하려는 梁啓超의 편견 없는 비평 태도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그의 論詞 태도는 蘇辛 一派에 경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戊戌 변법 운동의 주동인물로 활약한 바 있고 변법운동의 실패 이후에는 일본으로 피신하여 언론 활동으로 국가의 앞날을 걱정하고 국민 계몽에 앞장섰던 경력을 가지고 있던 梁啓超로서는 1920년대 이후 비록 정치적인 목적에서가 아니라 심미적인 목적에서 문학연구를 진행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의 내면에서 선호한 작품 경향은 시대 사조를 반영한 작가의 작품들이었다. 이것은 바로 나라에 대한 걱정이나 망국의 울분을 써내었던 일군의 작가들에 대한 기호로 나타났다. 廻鑿의 정감 표현법을 설명하면서 梁啓超가 가장 먼저 예로 든 詞 작가는 亡國之君인 李後主와 宋 徽宗皇帝였으며⁴³⁾, 특히 蘇軾과 辛棄疾 그리고 朱希眞의 詞에 대하여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그의 동생 梁啓勛의 《詞學銓衡》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汪莘(字는 叔耕, 南宋 寧宗 때 사람으로 《方壺詩餘》 2卷이 있다.)의 《方壺詩餘》 自序에: "……詞는 東坡에 이르러 한차례 변화하였으니 그 호방하고 영묘한 기운이 은은하게 言外로 흘러나와 아주 자연스럽고 가식적이 아니다. 두차례 변화하여 朱希眞이 되었는데 세속을 벗어난 생각들이 많았고 비록 작은 티끌이 섞이긴 하였지만 그 맑은 기운은 가려지지 않았다. 세차례 변화하여 辛稼軒이 되었는데 그 흥중의 일을 써내었고 특히 陶淵明을 칭하기를 좋아하였다."⁴⁴⁾라고 하였

41) 上揭書, p.27.

42) 《詞話叢編》, pp.4306-4307.

43) 梁啓超, 《中國韻文裏頭所表現的情感》, pp.23-24.

다. 작고하신 형님 任公(梁啓超)께서 《方壺詩餘》의 책 위에 써넣은 注에 “유독 세 사람을 추천한 것은 뛰어난 안목이라고 할 만하다.”라는 말이 있다.⁴⁵⁾

梁啓超가 蘇軾이나 辛棄疾 그리고 朱希眞에 대하여 후한 평가를 한 것은 물론 모두 그 자신의 기호에 합치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蘇軾詞가 호방하고 영묘한 기운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과 辛棄疾이 詞에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망국의 울분과 중원회복에 대한 웅대한 포부를 써내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거나 이러한 작가를 긍정한 것은 梁啓超의 성향으로 보아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飲氷室評詞」에는 蘇軾에 관한 평어가 전하지 않고, 「中國韻文裏頭所表現的情感」에 두가지 평가가 보일 뿐이다. 梁啓超는 奔迸의 情感 표현법을 설명하면서 蘇軾의 「水調歌頭」詞를 예로 들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는 정감이 돌변할 때 그것의 미미한 변화를 포착하고 강조하여 그것을 표현해냄으로써 정감의 상승효과를 거두었다고 하면서 현세를 초월하여 새로운 생명의 영역으로 독자를 인도하는 정감의 창출과 표현기법에 관하여 梁啓超는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다.⁴⁶⁾ 또한 그는 여성 정감을 묘사한 蘇軾의 「洞仙歌」(氷肌玉骨)를 예로 들어 그윽하고 아름다운 정서와 맑고 귀한 품격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⁴⁷⁾ 이것들은 너무 단편적인 기록이라 蘇軾詞에 관한 梁啓超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었는가 하는 점은 말하기 어렵지만 蘇軾詞가 호방하고 영묘한 기운을 가식없이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있다는 汪莘의 평가를 긍정한 梁啓超의 입장과 연관시켜 생각해 볼 때 蘇軾詞에 대한 선호는 아마도 蘇軾詞의 기운이 넘치면서도 순화된 정서의 기품 있고 자연스런 표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梁啓超가 역대 詞家 가운데 가장 높게 평가한 것은 辛棄疾이었다. 그의 辛棄疾에 대한 애정은 남다른 것이었다. 그는 만년에 병상에서 「辛稼軒先生年譜」를 집필하는데 전념하였고 이 年譜를 완성하기도 전에 과로로 인하여 몸져 누운 채 세상을 떠났다.⁴⁸⁾ 이 年譜 외에도 「跋四卷本稼軒詞」 「跋稼軒集外詞」 등의 글에서 辛棄疾 詞

44) 朱祖謀, 《彊村叢書》, p.3421 : ……蓋(《詞學銓衡》에는 '蓋'字가 '詞'字로 되어 있음) 至東坡而一變, 其豪妙之氣隱隱然流出言外, 天然絕世, 不假振作. 二變而爲朱希眞, 多塵外之想, 雖雜以微塵而其清氣自不可沒. 三變而爲辛稼軒, 乃寫其胸中事, 尤好稱淵明.

45) 梁啓助, 《詞學銓衡》(2판; 홍콩: 上海書局, 1975.7), p.60.

46) 梁啓超, 《中國韻文裏頭所表現的情感》, p.7.

47) 上揭書, p.55.

48) 「辛稼軒先生年譜」 梁啓助 跋 參照(《飲氷室專集》 第6卷, p.61)

集 및 詞 작품에 대한 고증과 評判을 통해 그의 辛棄疾에 대한 애정을 엿볼 수 있다. 그가 辛棄疾을 좋아한 가장 큰 이유는 稼軒詞가 그의 性情에 가까웠기 때문이었다.⁴⁹⁾ 辛棄疾詞에 대한 평은 대부분 애국적 의분을 표출하고 시대 상황을 반영한 것에 대한 것이었으며 時事와 연관된 작품들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는 姜夔 역시 蘇辛 일파의 大家로 보았지만 辛棄疾 詞를 蘇軾이나 姜夔보다 높게 평가한 것은 辛棄疾詞에 표현된 감정의 진실함과 표현의 절실함(眞切)에서 그 이유를 찾았다.⁵⁰⁾ 「飲水室評詞」에 실린 辛棄疾詞에 대한 그의 평어를 보면 대체적으로 南宋으로 옮겨온 뒤의 애국적 의분에 관한 정감을 기탁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과 그의 詞에서 느낄 수 있는 웅대한 기운과 심금을 울리는 포부에 관한 내용들이다.⁵¹⁾

한편 梁啓超가 朱希眞의 詞를 좋아한 것에 대하여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朱希眞(본명은 敦儒; 1081-1159)은 北宋 南宋이 교차되는 시기에 활약했던 詞人이며, 詞集으로는 《樵歌》 3권이 전한다. 그의 詞는 제재가 다양하지만 그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자신의 品性和 신세를 기탁한 詠物詞, 망국의 한과 시대를 개탄하면서 자신의 신세를 슬퍼하는 傷時詞, 그리고 은거생활의 심정과 흥취를 노래한 隱逸詞이다. 그의 詠物詞는 주관적인 감정의 색채가 두드러지고, 그의 詞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평가되는⁵²⁾ 隱逸詞는 표면적으로는 飄逸한 것 같지만 실은 내심의 깊게 깔려있는 고통의 반영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현실에 불만이 많았던 그는 초탈을 갈망하였던 것이다. 표현 기법에 있어서 朱希眞은 언어를 아주 잘 구사하였다. 그는 典故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언어는 평이하고 명쾌하고 매끄러우면서도 오히려 심오한 의경과 생동적인 형상을 표현해 내었다.⁵³⁾

그의 詞風은 蘇軾 辛棄疾과 풍격상 비슷한 점이 있다. 北宋에서 蘇軾이 淸曠豪放한 풍격을 세웠고 南宋에서는 辛棄疾이 豪雄悲壯한 풍격으로 蘇軾의 詞風을 계승 발전시켰거니와, 朱希眞은 蘇軾과 辛棄疾 사이에 淸曠超逸한 隱逸詞를 창작하여 두 사람을 잇는 가교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⁵⁴⁾ 南宋詞人 汪莘(1155-?)이 蘇

49) 《稼軒詞疏證》(梁啓助, 廣文書局)林志鈞序: “王靜庵謂南宋詞人其堪與北宋頡頏者, 唯幼安一人, 其推挹也如此. 飲水室好之尤篤, 平時談詞, 輒及稼軒, 蓋其性情懷抱均相近, 晚乃有稼軒年譜之作.”

50) 梁啓超, 《中國韻文裏頭所表現的情感》, pp.24-26.

51) 《詞話叢編》, pp.4308-4309.

52) 李東鄉, 「朱敦儒詞研究」(《中國語文學》第20輯), p.154.

53) 沙靈娜 注釋, 《樵歌注》(貴州人民出版社, 1985.12) 前言.

軾 辛棄疾과 더불어 朱希眞을 名家로 내세운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朱希眞詞를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汪莘은 朱希眞詞의 변화를 ‘세속을 벗어난 생각들이 많다(多塵外之想)’라는 데서 찾았지만, 朱希眞이 蘇軾의 淸曠豪放을 계승하되 亡國의 憤慨와 悲壯함을 바탕으로 한 淸曠超逸의 사풍으로 변화시킨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朱希眞은 蘇軾詞의 ‘표현할 수 없는 의경이 없고 말할 수 없는 일이 없다(無意不可入, 無事不可言)’는 제재의 해방이라는 특징에서 더욱 내용 방면을 개척해 나가 詞境의 확대라는 방향으로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蘇軾詞의 ‘萬斛의 泉源같이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분출되어 나오는(如萬斛泉源, 不擇地而出)’ 표현의 자유분방함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다양한 형식과 예술적 표현, 그리고 俚俗한 언어의 운용으로 새로운 표현기법을 창출해 나갔던 것이다.⁵⁴⁾

梁啓超의 문예 비평에 있어서의 두가지 착안점은 시대심리와 작가의 개성이었다. 56) 시대심리란 시대 사조 또는 문화 역사적인 배경을 말하는 것이고 개성이란 모방의 타성에서 벗어나 작가의 진실되고 실제적인 감정을 가식없이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⁵⁷⁾ 비록 朱希眞의 「好事近」(搖首出紅塵) 5首에 대한 梁啓超의 평어가 汪莘의 견해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⁵⁸⁾, 그가 朱希眞 詞를 높게 평가한 것은 독특한 색채로 개성 있는 작품세계를 구축하고 白描의 표현수법으로 당시 詞壇의 풍조와는 다른 풍격을 창출해 낸 朱希眞詞가 시대적 심리를 심도 있게 반영하면서도 개성적인 필치를 살려내었기 때문일 것이다.⁵⁹⁾ 그리하여 그는 晩年에 특히 朱希眞의 詞集인 《樵歌》를 즐겨 배움으로써 새로운 詞의 경계를 터

54) 李東鄉, 前揭論文, pp.158-160.

55) 陶爾夫·劉敬圻, 《南宋詞史》(哈爾濱: 黑龍江人民出版社, 1992), p.47.

56) 梁啓超, 「陶淵明」: “文藝批評有兩個着眼點。一是時代心理, 二是作者個性。”(《飲水室專集》第8卷, p.1)

57) 聶振斌, 《中國近代美學思想史》(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1. 9), p.153.

58) 梁啓超의 평어는 “다섯 수의 사는 훨훨 속세를 벗어난 생각들이 있어서 그것을 읽으면 意境이 사물에 얽매이지 않고 멀리 자유롭게 된다.(五詞飄飄有出塵想, 讀之令人意境空遠.)”(《詞話叢編》, p.4307)고 되어 있는데 이는 汪莘의 “多塵外之想”이라는 견해와 일치한다.

59) 梁啓超와 같은 시기의 胡適의 경우 蘇軾과 朱希眞 辛棄疾의 詞를 ‘詩人的 詞’로 추켜세우면서 이들 詞의 특징으로 제재와 내용이 복잡해져 詞의 제목이 많아졌다는 것과 詞人들의 個性이 詞에 표현되어 나왔다는 점을 들고 있다.(胡適 選註, 《詞選》, 臺灣商務印書館, 1970. 11, p.9) 내용이 복잡해진 것은 그들이 처한 시대 사조의 반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 세 사람에게 梁啓超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시대심리와 작가 개성이라는 그의 문예 비평 기준에 합치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

특하였다고 한다.⁶⁰⁾

이 밖에 淸朝의 詞 작가 가운데 梁啓超는 納蘭成德과 文叔問을 특히 선호하고 있는데 모두 자신들의 독특하고도 진실된 정감을 아주 훌륭하게 표현해 낸 작가들이다.⁶¹⁾

梁啓超가 蘇辛一派를 선호한 것은 사실이지만, 豪放派의 거칠고 경솔한 표현(粗獷)에 대하여는 반대하였다. 그는 “名家의 詞 가운데 가장 거칠고 경솔하기로는 劉後村보다 더한 것이 없는데 거의 전체 작품이 모두 이러한 말이다……이 일파의 詞는 나는 본래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에는 부패한 명사의 큰소리치기 좋아하는 習氣가 있기 때문이다.”⁶²⁾라고 말하였다. 梁啓超는 성향상 호방 계열의 詞를 좋아하였지만 詞의 체제적 특질에 어긋나는 거칠고 경솔한 표현까지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고, 완약 계열 작품이라 하더라도 그것의 장점 즉 뛰어난 정감 표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였던 것이다. 이점은 梁啓超의 詞 비평이 편면성이나 편견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하였음을 말해 준다.

五. 結 論

梁啓超의 詞學 연구는 美文 즉 韻文 연구의 한 부분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가운데 그가 중점을 둔 것은 情感 문제였다. 즉 작품에 표현된 情感이 작가의 진실된 정감인가에 관한 문제와 작가의 정감을 작품에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집중되었다.

詞의 기원에 관한 논의는 美文의 역사를 탐구하는 일환으로 진행되었는데 음악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詞의 기원을 밝히려고 하였다. 그는 填詞 행위의 기원, 唐代에 새로 유행한 음악과의 관계, 그리고 樂府 聲詩와의 관계를 두루 논의하면서 詞의 기원 문제를 다루었다. 엄격한 의미에서의 詞作이 시작된 것은 唐末 五代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唐代의 燕樂이라는 음악과 결부된 노래 가사로서의 詞는 初唐·盛唐의 樂府 聲詩에서 그 전통을 찾을 수 있고, 填詞라는 행위에서는 六朝로 그

60) 梁啓超, 「與梁仲策書」, 近詞皆學《樵歌》, 此間可闢出新國土也。(丁文江, 《梁任公年譜長編初稿》, 再版; 臺北: 世界書局, 1972.10, p.674)

61) 梁啓超, 《中國韻文裏頭所表現的情感》, pp.29-30.

62) 梁啓超, 《中國韻文裏頭所表現的情感》, pp.38-39.

연원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학자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여 詞의 기원 문제에 관하여 과학적이고도 합리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詞에 있어서의 정감 표현 문제는 중국 운문에서의 정감 표현 문제를 다루는 가운데 논의되었다. 詞는 체제적 특성상 시와는 다르게 표현하기 적합한 정감이 있으며 따라서 정감 표현 방법에 있어서도 詞에 운용하기 편리한 것이 있다는 것은 긍정하면서도 다른 운문에서 시도된 정감 표현 방법은 詞에서도 운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梁啓超는 詞라고 하는 장르의 체제적 특성을 따로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중국 운문이라는 넓은 범주 안에 포함되는 한가지 장르로 詞를 이해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중국 운문에서 운용된 정감 표현 방법인 奔迸式·廻盪式·蘊藉式의 방법이 詞에서도 모두 운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詞의 발전 방향이 정감 표현 방법을 확대시켜 나가는 쪽으로 지향할 것을 제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梁啓超의 詞 비평은 정감이 적절하게 표현되어 감동력이 있는가에 따라 작품을 평가하고 있으며 작가의 인격과 작품과의 관계에 대하여 표면적으로는 거론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술가가 기본 수양이 되어 있지 않을 때 정감의 질은 높은 것이 될 수 없는 것이기에 인격적 수양이 되어 있는 작가에게 높은 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많다. 실제 梁啓超가 蘇軾·辛棄疾 일파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고 朱敦儒나 姜白石도 같은 부류로 인식한 것은 그들의 환경이나 인격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梁啓超 자신의 憂國衷情의 애국주의 노선을 걸었던 인생경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周邦彥·柳永에 대하여는 표현에 있어서의 적절성이라는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어 그의 객관적인 비평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梁啓超의 이러한 詞學觀이 실제 그의 詞 창작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본고에서 다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개인적인 정감을 해소하는 통로로 詞를 인식한 그로서는 다른 여타 장르보다도 그 자신의 개인적인 抒情이 풍부한 창작을 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의 詞 창작에 대하여 분석해 보는 것도 梁啓超의 문학을 이해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參考文獻>

- 梁啟超,《飲冰室文集》,臺北:臺灣中華書局,1970
- " ,《飲冰室專集》,臺北:臺灣中華書局,1972
- " ,《中國韻文裏頭所表現的情感》,臺4版;臺北:臺灣中華書局,1983.4
- " ,《清代學術概論》,臺1版;臺北:臺灣商務印書館,1977.2
- 梁令嫻 編,劉逸生 校點,《藝衡館詞選》,廣東人民出版社 1981.12
- 梁啟勛,《詞學銓衡》,2版;香港:上海書局,1975.7
- " ,《詞學》,北京,北京市中國書店,1985.3
- 丁文江,《梁任公年譜長編初稿》,再版;臺北:世界書局,1972.10
- 任半塘,《唐聲詩》上下,上海:上海古籍出版社,1982.10
- 朱祖謀 編,《彊村叢書》,臺北:廣文書局,1970.3
- 唐圭璋 編,《詞話叢編》,北京:中華書局,1986.1,
- 繆鉞,「論詞」,《詩詞散論》,臺七版;臺北:臺灣開明書店,1982.10
- 胡適 選註,《詞選》,臺灣商務印書館,1970.11
- 王國維,「人間詞話」,《詞話叢編》本
- 陶爾夫 劉敬圻,《南宋詞史》,哈爾濱:黑龍江人民出版社,1992
- 聶振斌,《中國近代美學思想史》,中國社會科學出版社,1991.9
- 沙靈娜 注釋,《樵歌注》,貴州人民出版社,1985.12
- 吳熊和 著,李鴻鎮 譯,《唐宋词通論》,大邱:啓明大學校出版部,1991.4
- 柳種睦,《蘇軾詞研究》,中文,1993.11
- 黃文吉,「梁任公的詞學」,《中華文化復興月刊》 第16卷 第4期,臺北,1983.4
- 金學主,「梁啟超의 文學思想」,《전환기의 동아시아 문학》,서울:창작과 비평사,1985.5
- 李東鄉,「朱敦儒詞研究」,《中國語文學》 第20輯,大邱,1992.6
- " ,「姜夔의 詞風과 作品賞析」,《葛雲文淑奎博士華甲紀念論文集》,全南大,光州,1985

李商隱詩中星之意象詮釋

朴柱邦*

<目次>

第一節 導論	第三節 分析
第二節 分類	第四節 結論
1. 星光	<主要參考書目>
2. 星之種類	
3. 天河與七夕典故	

第一節 導論

在中國星星與太陽，月亮合稱為三光，它雖沒有像太陽那樣熾烈的光芒，也沒有月亮，那樣地富於變化，但是它數量最多。天晴時候可以看到它們如寶石花一樣佈滿整個夜空，星光一閃一閃地，也很能勾引人們的詩意。尤其它常在月亮未上來前就先出現了月亮下山了，仍然還有稀稀疏疏的幾顆掛在天際，一直到天大亮了才看不見。

照現代科學的說法，宇宙本是由無數的星球所構成的，星球通常分三種；不動的稱為恒星，繞恒星轉動的稱為行星，繞行星轉動的稱為衛星。太陽就是恒星之一，地球是繞太陽轉的行星，月亮是繞地球的衛星。另有一種時隱時現的彗星。它們的體積本來是很大的，因為距離地球太遠了，所以我們覺得很小。

若照中國古代的解释：說文解字晶部：「……，萬物之精上為列星，從晶從生聲……星，或省。」段玉裁注引管子說：「凡物之精，此則為生，下生五穀，上為列

* 東國大學校 中語中文學科 教授

星，流於天地之間謂之鬼神，藏於胸中謂之聖人。」又引春秋說題辭說：「星之爲言精也，陽之榮也。」認爲星星是萬物之精氣上升於天而成的。釋史又以爲星星是盤古死後他的鬚鬚變成的，古人又相信聖賢豪傑都是天上的星降生的所以稱聖賢豪傑的降生爲星降，如季玄成策對：「獄生雍翰，星降士師。」曹植辨道論：「夫神仙之書，道家之言，乃云：傳說上爲辰尾宿，歲星降爲東方朔。」民間相傳李白是太白金星降生的。¹⁾ 緝書春秋鈞命決也說：「肅何爲昂星精」。

星星它還具有空間和時間的作用：就空間作用來說，星星的方位每爲判別地域限界的根據，周禮保章氏說：「以星土辨九州之地，所封封域，皆有分量，以觀妖祥。」左傳子產說：「后帝遷闕伯於商丘，主辰。商人是因，故辰爲商星。遷實沈於大夏，主參，唐人是因，以服事夏商，及成王滅唐而封叔虞，故參爲晉星。」²⁾ 王勃勝 王閣賦也有「星分翼軫」的句子，就星星的方位說，古代中國的天文學家把它分爲二十八宿，四方各有七宿，東方(蒼龍)角·亢·氐·房·心·尾·箕；北方(玄武)斗·牛·女·虛·危·室·壁；西方(白虎)奎·婁·胃·昂·畢·觜·參；南方(朱雀)井·鬼·柳·星·張·翼·軫。

就時間的作用來說，星一年繞天一周，因此有「星迴」的名詞，任希古詩：「星迴應緹管：日御建寅賓。」由它的方位可以判定節氣的早晚，如尚書堯典說：「乃命羲和，欽若昊天，歷星日月星辰，敬授人時。分命羲仲，……日中，星鳥，以殷仲春。……日永，星火，以正仲夏。……宵中，星虛，以殷中秋。……日短，星昴，以正仲冬。」孔穎達疏說，「鳥，南方朱鳥，七宿者在天成象，星作鳥形，曲禮說軍陳象天地行，前朱雀，後玄武，左青龍，右白虎。雀卽鳥也，武謂龜甲棹粟，故變文玄武焉，是天星有龍虎鳥龜之形也。四方皆有七宿，各成一形，東方成龍形，西方成虎形，皆南首而北尾，南方成鳥形，北方成龜形。皆西首而尾，春分之昏觀鳥星華見以正仲春之氣節，計仲春日在奎婁而入於酉地則初昏之時，井鬼在午，柳張在巳，軫翼在辰，是朱鳥七宿皆得見也。……計仲夏日在東井而入於酉地卽

1) 見唐摭言卷七，知己：「李太白始自西蜀至京，名未甚振，因以所業務謁賀知章。知章覽蜀道難一篇，揚眉誦之曰：「公非人世之人，可不是太白星精耶？」」

2) 見左傳昭元年：「昔高辛氏有二子曰闕伯，實沈，不相能，日尋干戈，以相征討。帝遷闕伯于商丘，主辰，商人是因，故辰爲商星；遷實沈于大夏，主參，唐人是因，以服事夏商。」

初昏之時，角亢在午，氐房心在巳，尾箕在辰，是東方七宿皆得見也。……計仲秋日在角亢而入于酉地初昏之時，斗牛在午，女虛危在巳，室壁在辰，舉虛中星言之，亦言七星皆以秋分之日昏時竝見，以正秋之三月。」以上是就節氣說的，由於它的連轉好像馬不停蹄，難免使人覺得逝者如斯，不免生追悔之情，用「星歲」·「星霜」等來傳達心境。

若單就一天來說，則又有曉星，它給人的意象是長久的期待，或則是急急忙忙的行動，如「星行」·「星夜」·「行奔」·「星速」·「星發」·「星馳」·「星駕」等。除此之外，牛郎和織女在七夕那天相會的淒艷故事更是膾炙人口，成為歷代詩人歌頌的上好題材，除了詠日以外，七夕故事算是相當受到器重的。李義山詩中也有詠七夕故事的，也有泛指衆星的，以下先加以分類一下。

第二節 分類

1. 星光

虎踞龍蹲縱復橫	星光漸滅雨痕生 [1](亂石)
星勢寒垂地[2]	河聲曉上天(謝先輩防記念拙詩甚多異日偶有此寄)
星沈海底當窗見[3]	雨過河源隔坐看(碧城三首)
月澄新漲水	星見欲鎖雲(夜出西溪)
蘭叢銜露重	榆莢點星稠[4](擬意)
慙愧白茅人	月沒教星替[5](李婦人三首)
捧月三更斷	藏星七夕明(咏雲)
雲母屏風燭影深	長河漸落曉星沈(常娥)
靈香不下雨皇子	孤星直上相風竿(河內詩二首·樓上)
歸去橫塘晚	華星送寶鞍[6](無題四首)
昨夜星辰昨夜風	畫樓西畔桂堂東(無題二首)
風標森太華	星象逼中台(喜舍弟羲叟及第上禮部魏公)

星宿森文雅

風雷起退藏(贈送前劉五經映三十四韻)

2. 星之種類

北斗兼春遠	南陵寓使遲(涼思)
但聞北斗聲迴環[7]	不見長河水清淺(燕臺四首·秋)
少減東城飲	時看北斗杓[8](送從翁從東川弘農尚書幕)
地險悠悠天險長	金陵王氣應瑤光[9](南朝)
玉輦望南斗[10]	未知何日旋(行次西郊作一百韻)
曙霞星斗外	涼月露盤西(和孫朴韋蟾孔雀詠)
榆莢散來星斗轉	桂花尋去月輪移(一片)
星斗同秦分[11]	人煙接漢陵(幽人)
江勢翻銀漢	天文露玉繩[12](聞著明凶問哭寄飛卿)
曉欽豈知金掌迴	夜吟應訝玉繩低(寄令狐學士)
玉壘高桐拂玉繩	上含非霧下含冰(蜀桐)
三星自轉三山遠[13]	紫府程遙碧落寬(當句有對)
水勢初知海	天文始識參[14](自桂林奉使江陵途中感懷寄獻尚書)
天上參旗過[15]	人間燭燄鎖(明日)
東有青龍西白虎[16]	中含福星包世廣(無愁果有愁曲北齊歌)[17]
白天月澤寒未冰	金虎含秋向東吐(燒香曲)[18]
金星壓芒角[19]	銀漢轉波瀾(謝往桂林至彤庭竊詠)
長刀懸月魄	快馬駭星精[20](送千牛李將軍赴闕五十韻)
晝號夜哭兼幽顯	早晚星關雪涕收[21](重有感)
渚蓮參法駕	沙鳥犯勾陳[22](陳後宮)
辰象森羅正	勾陳翊衛寬(謝往桂林至彤庭竊詠)
中原重板蕩	玄象失鉤陳(送從翁從東川弘農尚書幕)

研丹擊石天不知	願得天牢鎖冤魄[23](燕臺四首·春)
魚山羨曹植	眷屬有文星[24](奉寄安國大師兼簡子蒙)
將星臨迴夜[25]	卿月麗層穹(今月二日不自量度輒以詩一首四十韻干瀆尊嚴伏蒙仁恩俯賜披覽將大踰其實情溢於辭願惟疎燕曷用酬戴輒復五言四十韻詩獻上亦詩人詠嘆不足之義也)
西山童子藥	南極老人星[26](寄太原盧司空三十韻)
星使追還不自由[27]	雙童捧上綠瓊朝(和韓錄事送宮人入道)
長鈞壓河心[27]	白道連地尾(和鄭愚贈汝陽王孫家箏妓二十韻)
日馭難淹蜀	星旄要定秦[27](送從翁從東川弘農尚書幕)
何時絕刁斗	不夜見欃槍[28](送千牛李將軍赴闕五十韻)
寄辭收的博	瑞坐掃欃槍(五言述德抒情詩一首四十韻獻上杜七兄僕射相公)
舜格有苗旬太遠	周稱流火月難窮[29](人日卽事)

3. 天河與七夕神話

人間從到海	天上莫爲河[30](西溪)
悵望銀河吹玉笙[31]	樓寒院冷接平明(銀河吹笙)
銀河撲醉眠	珠串咽歌喉(擬意)
山連玄圃近	水接絳河遙[31](送從翁從東川弘農尚書幕)
雲母屏風燭影深	長河漸落曉星沈(常娥)
但聞北斗聲迴環	不見長河水清淺(燕臺四首·秋)
五里無因霧	三秋只見河(鏡攬)
長鈞壓河心	白道連地尾(和鄭愚贈汝陽王孫家箏妓二十韻)
霜露歛高木	星河壓故園(明禪師院酬從兄見寄)
星漢秋方會	關河夢幾還(戲贈張書記)
本來銀漢是紅墻[32]	隔得盧家白玉堂(代應)
直教銀漢墮懷中	未遣星妃鎖來去(燕臺四首·夏)

金星壓芒角
江勢翻銀漢
仰看樓殿撮清漢
今日問君能寄否
玉壺涓水笑清潭
雲路招邀迴綵鳳
此日六軍同駐馬
更奈天南佐
會來十九首
星娥一去後
直教銀漢墮懷中
去應逢阿母[36]
寶婺搖珠珮[37]
靈歸天上匹
花果香千戶
明朝曬犢鼻
恐是仙家好別離
由來碧落銀河畔
清漏漸移相望久
豈能無意酬烏鵲
鸞扇斜分鳳幄開
爭將世上無期別
繞樹無依月正高
幾年始得逢秋閏
七夕來時先有期
捧月三更斷
已駕七香車

銀漢轉波瀾(謝往桂林至彤庭竊詠)
天文露玉繩(聞著明凶問哭寄飛卿)
坐視世界如恒沙(安平公詩)
二江風水接天津[33](寄成都高苗二從事)
繫天不到牽牛處(無愁果有愁曲北齊歌)
天河迢遞笑牽牛[34](韓同年新居餞韓西迎家室戲贈)
當時七夕笑牽牛(馬嵬二首)
牛渚宿殘宵[35](齊梁晴雲)
私讖詠牽牛(擬意)
月姊更來無(聖女祠)
未遣星妃鎖來去(燕臺四首·夏)
來莫害王孫(越燕二首)
常娥照玉輪
巧遺人間人
笙竽濫四鄰
方信阮家貧(七夕偶題)
故教迢遞作佳期
可要金風玉露時
微雲未接過來遲
惟與蜘蛛乞巧絲(辛未七夕)
星橋橫過鵲飛迴
換得年年一度來(七夕)
鄴城新淚灑雲袍
兩度填河莫告勞(壬申閏秋題贈烏鵲)
洞房簾箔至今垂(碧城三首)
藏星七夕明(咏雲)
心心待曉霞

風輕惟響珮	日蒲不嬌花
桂嫩傳香遠	榆高送影斜
成都過卜肆	曾妬識靈槎(壬申七夕)
海客乘槎上紫氛	星娥罷織一相聞
只應不憚牽牛妬	聊用支機石贈君[39](海客)
河流衝柱轉	海沫近槎飄(碧瓦)
星機拋密緒	月杵散靈氛(寓懷)

〈附 錄〉

- [1] 左傳：隕石于宋五，隕星也。馮浩曰：二句指李黨之據在要地者，一旦光燄忽衰，漸形蕭。
- [2] 柳子厚集序：桀然如繁星麗天而芒寒色正。浩曰：星勢二句言聲光在此而感發在彼。
- [3] 馮浩曰：海底，河源暗用三神山反居水下與乘槎上天河見織女事，謂天上之星已沈海底而乃當窗自見，暮行之雨待過河源而後隔座相看以遁入此中，委其夜合明離之迹也。
- [4] 春秋運斗樞：玉衡星散為榆。元命苞：三月榆莢落，又用天上白榆之義。古樂府隴西行：天上何所有，歷歷種白榆。檀弓：諸侯輶而設轎，為榆沈故設撥，注曰：輶，殯車也，撥可撥引輶車，所謂紼，以水澆榆白皮之汁有急以播地於引輶車滑。又見義山詩「聖女祠」；「從騎裁寒行，行車蔭白榆。」浩曰：謂奉其喪而歸。
- [5] 文子：老子曰百星之明不如一月之光，讀曲歌：月沒星不亮，持底明儂緒，馮浩曰：單樓者固當求偶，其如月光已沒，終非星所能替乎。朱鶴齡注：按(史)云：李夫人卒，齊人少翁以方致夫人，天子自帷中望見焉，乃拜翁為文成將軍，夫文成能致夫人之神，尚以偽書見殺，今復尊信五利，是月沒而以星替之也。此語驟讀不解。漢書：武帝拜欒大為五利將軍，又刻玉印曰天道將軍，使衣羽衣立白茅上，以示弗臣也。

- [6] 魏文帝詩：華星出雲間。此華星啓明也。
- [7] 見「擬意」，言將遠去而想思想怨，但晦明轉換而良會難圖，已逗出寄爲雙璫伏脉。杜甫詩：七星在北戶，河漢聲西流。
- [8] 三輔黃圖：惠帝更築長安城，城南爲南斗形，城北爲北斗形，至今人稱漢舊京爲斗城。杜甫詩：秦城近斗杓。
- [9] 春秋運斗樞：北斗七星，第一天樞，第二璇，第三機，第四權，第五玉衡，第六開陽，第七搖光。第一至第四爲魁，第五至第七爲杓，合爲斗。璠，搖同。漢書志：吳地斗分杼也。今之會稽九江丹陽豫章廬陵六安臨淮郡盡吳分也。江淹詩：瑤光正神縣南朝爲正朔所歸，故曰應瑤光也。星經：「北斗七星謂之七政，魁四星爲璇璣，杓三星爲玉衡。」
- [10] 朱鶴齡曰：玄宗辛蜀。詩小雅大東：「維北有斗，不可以挹酒漿」疏：「二十八宿連四方爲名者，唯箕，斗，井，壁四星而已。箕斗并在南方之時，箕在南而斗在北，故言南箕，北斗。」晉書天文志：「北方南斗六星，天廟也，一曰天機。」
- [11] 史記天官書：二十八舍主十二州，斗秉兼之。漢書志：東井輿鬼雍州。晉天文志：自東井十六度至柳八度爲鶉首於辰爲未秦分野。
- [12] 春秋元命苞：玉衡北兩星爲玉繩，玉之爲言溝刻也。宋均注，繩能直物，溝謂作器。謝朓詩：玉繩低建章。文選張衡西京賦：上飛闔而仰眺，正覩瑤光與玉繩。
- [13] 詩唐風綢繆：「三星在天。」朱傳：「三星心也在天昏始見於東方，建辰之月也。」劉瑾曰：「心宿之象，三星鼎立，故因謂之三星。然凡三星者，非止心之一宿，而知此爲指心宿者；蓋春秋之初，辰月末，日在畢，昏時，日淪地之西位，而心宿始見於地之東方，此詩男女既過仲春之月而得成婚，故適見心宿也。」
- [14] 禮月令：「孟春之月，昏，參中。」尚書璇璣鈴：「參爲大辰，主斬刈。」史記天官書：「參爲白虎。」廣雅：「紫宮參伐謂之大辰，參謂之實沈。」按實沈爲高辛氏之次子，與其兄閼伯不相能，被遷於大夏，主參。觀象玩占：「參七星

- 伐三星曰參伐。」曹植與吳質書：面有逸景之速，別有參商之濶。徐曰：參，商二星，兩不相見。始識參，恨相見之晚也。
- [15] 史記天官書：參爲白虎，其酉有句曲九星，三處羅一，一曰天旗。正義曰：參旗九星在參西天旗也。
- [16] 史記天官書：東宮蒼龍，西宮參爲白虎。張衡靈憲：「蒼龍運螭於左，白虎猛據於右。馮浩曰：東龍西虎喻南北司如水火也。福星謂天子也。
- [17] 史記天官書；察日月之行，以揆歲星順逆。正義曰：天官云；歲星所居國，人主有福。道源注，雲笈七籤：包括世度璇璣照明。
- [18] 文選陸機詩：望舒離金虎。善曰，漢書曰；西方金也。尚書考靈耀曰；西方秋虎。漢書曰：參。白虎三星。又曰：觜觶爲虎首。尚書傳曰：昴，白虎中星，然西方七星畢昴之屬，俱白虎也。或謂金虎指太白。
- [19] 爾雅：明星謂之啓明。史記天官書：太白日，西方秋司兵小以角動兵起。角，芒角也。天官占；太白者，西方金之精，白帝之子，徑一百里，角搖則兵起。
- [20] 天文志：房爲天府曰天駟，其陰右驂。白帖：馬爲房星之精。爾雅：天駟，房也。注曰：龍爲天馬，故房四星謂之天駟。
- [21] 朱鶴齡注；道源注：天官書：兩河天關間爲關梁。索隱曰：宋均云：兩河六星知逆邪，言關梁之限知邪僞也。正義曰：關邱二星在河南，金火守之主兵戰關下。馮浩注；何曰：星關未詳。按；天官星占曰，北辰一名天關，一名北極，紫宮太乙座也。晉書天文志；東方角二星爲天關，其間天門也，其內天庭也。故黃道經其中房四星爲明堂，天子布政之宮也。中間爲天衢爲天關，黃道之所經也。似皆可言星關，以喻皇居，而張平子週天大象賦；天關嚴扃於畢野，諸王列藩於漢溥用之亦合。晉書劉隗傳；入宮告辭，帝雪涕與之別。此言文宗悲憤不自勝冀其來誅內官，而乃得收痛淚也。舊引史記天官書，兩河天關間，爲關梁。正義曰；關邱二星在河南，天子之雙關，諸侯之兩觀，金火守之，主兵戰關下，雖似合本事，却與下三字不可貫，必非。
- [22] 星經：勾陳六星爲六宮亦主六軍。晉天文志：勾陳六星在紫宮中，勾陳後

宮也。王者法勾陳設環列。史記天官書：中宮天極星後勾四星，大星正妃，餘三星後宮之屬環之，匡衡十二星藩臣皆曰紫宮。史記索隱曰：星經以後勾四星爲四輔，其勾陳六星爲六宮，亦主六軍，與此不同。晉書志：北極五星，勾陳六星，皆在紫宮中。

[23] 晉書志：天牢六星，在北斗魁下，貴人之牢也。又曰：貫索九星，賤人之牢也。一曰天牢，道源注。漢書：載匡六星，六日司災在魁中，貴人之牢。孟康曰：貴人牢曰天理，卽天牢也。

[24] 晉天文志：文昌六星，在北斗魁前。

[25] 史記天官書：中宮斗魁載匡六星曰文昌宮，一曰上將，二曰次將。又：南宮郎位旁一大星，將位也。又：北宮河鼓。漢書：五帝坐後聚十五星曰哀烏郎位旁一大星，將位也。

[26] 史記天官書：狼比地有大星曰南極老人。晉書天文志，隋天文志：老人一星在弧南，一曰南極。常以秋分之旦見於丙，春分之夕沒於丁，見則治平，主壽昌。神仙感應傳：唐相國廬鈞，射策爲尚書郎，以疾求出，爲均州刺史，羸瘠不耐見人。忽有王山人踰垣而入曰：公位極人臣，而壽不永，故相救耳。以腰巾蘸於井中，解丹一粒，振腰巾之志水以咽丹。約五日疾當愈。後三年，富再相遇，在夏之初，公自是疾愈。明年，還京；夏四月，山人尋至，自此復去，云：二十三年五月五日，可令一道士於萬山頂候，此時君節制漢上，當有月華相授。自是公便藩貴盛，後鎮漢南，及期，命道士牛知微登萬山之頂，山人在焉，以金丹二，使知微吞之，以十粒令授於公，曰：當享上壽，無志修煉，世限既畢，佇還蓬宮耳，忽不見。

[27] 甘泉賦：流星旄而電燭。爾雅：奔星爲杓約。注曰：流星也。晉書天文志：流星，天使也。徐曰：李亢獨異志：秦併六國時，太白星竊織女侍兒梁玉清。衛承莊，逃入衛城少仙洞，四十六日不出。天帝怒，命五岳搜捕，太白歸位，玉清謫於北斗下掌春。後漢李郃傳：和帝遣使者二人到益都。郃曰：有二使星入蜀分楚。

[28] 爾雅：彗星爲欃槍。注曰：亦謂之孛，其形孛孛如掃彗。天文錄：偏指曰

彗，芒氣四出曰孛。史記天官書注：天彗者一名掃星，本類星，末類彗，小者數寸，長或竟天體無光假日之光。天欃者在西南，長四丈銳，主兵亂，天槍者，長數丈，兩頭銳，出西南方。占曰：為兵喪亂。漢書天文志：槍欃梃彗異狀，其殃一也。

[29] 詩：七月流火。

[30] 白帖：天河謂之銀漢，亦曰銀河。崔實四民月令；見天漢中有突正白氣，如地河之波，輝輝有光，五色，以此為徵應。詩箋：天河，水氣也。

[31] 白帖：天河謂之銀河，亦曰絳河。漢武內傳：上元夫人遣一侍妾問王母云；遠隔絳河，遂替顏色。

[32] 詩：倬彼雲漢。爾雅：析木謂之津箕斗之間。漢，津也。(此謂之啓明之光已隱，銀漢之形漸退，則將曉矣。)

[33] 爾雅注：箕斗之間，天漢之津梁。

[34] 崔實四民月令：七月七日，河鼓，織女二星神堂會。續齊諧記：桂陽成武丁有仙道，謂其弟曰；七日織女當渡河。弟問曰；何事渡河？答曰：暫詣牽。世人至今云織女嫁牽牛也。御覽引大象列星圖曰：古歌：黃姑織女時相見。黃姑，即河鼓也。為吳音訛而然。爾雅本作何鼓。注曰；今荆楚人呼牽牛星為檐鼓，檐者荷也。則知原不作河。史記天官書：牽牛為犧牲，其北河鼓，河鼓大星上將左右，左右將婺女，其北織女，織女天女孫也，索隱曰：爾雅云，河鼓謂之牽牛，故或名河鼓為牽牛也。爾雅云須女，謂之務女，或作婺字。荊州占云；織女一名天女，天子女也。

[35] 牛渚，牽牛渚也。宣州圖經：牛渚山突出江中，謂之牛渚圻，古津渡處也，謂旅宿於此。

[36] 樂府詩：東飛伯勞西飛燕，黃姑阿母時相見。朱鶴齡曰：今本作黃姑織女。

[37] 寶婺，婺女星也。左傳注：婺女為已嫁之女，織女為處女，徐陵玉臺新詠序：金星與婺女爭華。馮浩曰；珠珮，玉輪皆謂織女也。

[38] 淮南子：烏鵲填河成橋而渡織女。

[39] 道源注：張衡周天大象賦：疇遂睇于漢陽，乃攸窺于織女，引寶毓圉，搖

機弄杼。集林：昔有人尋河源，見婦人浣妙，問之，曰此天河也，乃與一石而歸。問嚴君平，君平曰此織女支機石。馮浩曰：博物志止言天河與海通，近人居海渚年年八月，見浮槎去來不失期，人有奇志立飛閣於查上，多齎糧而去，芒芒忽忽不覺晝夜，奄至一處云云，不言張騫，本出傳會，不足辨也。

第三節 分 析

分析(一)

- 一. 有關星之詩句：七十五句
- 二. 以天河與七夕神話為題材詩：句括「七夕偶題」，「壬申七夕」，「辛未七夕」，「七夕」，「壬申閏秋題贈烏鵲」，「海客」六首等共三十四句。
- 三. 詩中出現的星之名詞類：
 - 「星」9次，「星光」1，「星勢」1，「星辰」1，「星象」1，「星宿」1。
 - 「北斗」1，「北斗杓」1，「瑤光」1，「南斗」1，「星斗」3，「玉繩」3。
 - 「三星」1，「參」1，「參旗」1，「青龍」1，「白虎」1，「金虎」1，「金星」1，「星精」1。
 - 「星關」1，「勾陳」3，「天牢」1。
 - 「文星」1，「將星」1，「老人星」1，「福星」1。
 - 「星使」1，「杓」1，「星旄」1，「機槍」2，「流火」1。
 - 「天河」（銀河·絳河·長河·河·白道·星河·星漢·銀漢·清漢·天津）21。
 - 「牽牛」6。
 - 「織女」（星妃·阿母·珠璣·玉輪）6。「寶婺」1。
- 四. 詩句中和星配合，或星光照空間物關係：
 - 地 1 三山 1
 - 海 1 江 2 水 2
 - 天 1 月 2 風 1 雨 1 雲 1 相風竿 1 霞 1

榆莢 1 相 1

紅墻 1 鞍 1

春 1 秋 2

五. 詩句中和星竝列的空間物關係:

海 2 河 2 清潭 1

天 2 月 8 風標 1 風雷 1 雨 1 雲露 3 雲路 1 雨露 1 霧 1 日 1

城 1 樓院 1 盧家 1 金掌 1

自芽人 1 靈王 1 雙童 1 童子藥 1

燭 2 珠串 1 曹植 1

恆沙 1

分析(二)

前節將義山詩中關於星星的大別爲一. 星光, 二. 天河與七夕神話兩大類; 此節進而分析義山的詩中關於星星的意境.

星光類下, 義山用語有「星光」·「星勢」·「星沈」·「星見」·「點星稠」·「星替」·「藏星」·「星」·「曉星」·「孤星」·「華星」·「星辰」·「星象」·「星宿」·「北斗」·「瑤光」·「南斗」·「星斗」·「玉繩」·「三星」·「參」·「參旗」·「青龍」·「白虎」·「福星」·「金虎」·「金星」·「星精」·「星關」·「勾陳」·「天牢」·「文星」·「將星」·「老人星」·「星使」·「長杓」·「旄」·「櫓槍」·「流火」等. 我們可以想見, 詩人在寂靜的夜晚孤獨地望著天空, 看到星光點點冷寂地掛在天空, 多少舊事不期然盡湧上心頭, 往事歷歷正如星光一樣, 多少年來的顛沛流離, 嘗盡悲歡離合的滋味. 當心裏有所期待時, 翹首企盼, 不知不覺的已快要天亮了, 於是說:「月浪衝天天宇濕, 涼蟾落盡疎星入。」(燕臺四首, 秋)「靈香不下兩皇子, 孤星直上相風竿。」(河內詩二首, 樓上)「歸去樓塘晚, 華星送寶鞍。」(無題四首)「雲母屏風燭影深, 長河漸落曉星沈。」(嫦娥)

用「孤」·「疎」字眼正襯托出他心靈的孤寂, 義山詩中有幾首無題詩很曖昧,

有人認為是他描寫自己和宮人·女道士戀愛的詩，就唐代女道士充斥的情形及其言行來，似乎沒有加以否定的必要，如嫦娥詩前二句寫自己長夜不眠，悵望無聊，是自身的寂寞，後二句藉嫦娥奔月的故事，以詩人自己的心來擬嫦娥的心，而說嫦娥也該是很寂寞吧！用一「悔」字顯出詩人也許有所悔恨。張孟劬以為「『嫦娥』比一婚王氏，結怨於人，空使我一生懸望，好合無期。」考按義山一生的遭遇，此說不為無見。因義山婚於王茂元之女，而遭到令狐綯怨恨，陷入黨爭的夾縫中，實是義山終生遭逢不遇的關鍵，固然義山與王夫人伉儷情篤，並不是輕薄之徒。但是半生淪落，中夜沈吟，往事歷歷掠過心頭，也許不免要後悔自己錯着一步棋了。

義山之好用仙典，馮浩說：「義山身世之感，多託仙情艷語出之，不悟此旨，不可讀斯集也。」另外「星斗」·「玉繩」也用來表示夜晚時間，「參橫斗轉」·「玉繩低轉」都表示天將破曉，同樣也是永夜不眠所見的景氣。如一片詩：「榆莢散來星斗轉，柱花尋去月輪移」表示鵲候之久，心中有所祈求。「參」星則有相見恨晚之意，因為天商的參商是永不相見的，比喻會面之難。「三星」即指心星，毛詩傳說：「三星在天，可以嫁娶矣。」「瑤光」是吳地斗分野，星斗是秦分野，「北斗杓」則指京城，用來表示地域。「老人星」·「星關」·「金星」·「欃槍」則與災異禍福有關，「老人星」是吉祥星，主天下太平，長壽星隆的徵兆，「星關」·「金星」·「欃槍」都是災星，出現則有兵亂，是天下紛亂的徵兆。義山詩中頗有些傷時感亂的作品，遭際顛危，崎嶇道路和杜甫很有些相似，蔡寬夫詩話引王安說：「王荊公晚年亦喜稱義山詩，以為唐人知學老杜而得其藩籬，惟義山一人而已，每誦其『雪嶺未歸天外使』之類，唯老杜無以過也。」在哀時傷亂方面，和杜甫是異曲同工的。「福星」則借指天子，「文星」·「將星」比喻文武賢才。「星使」指使臣，借星星運轉疾速來比喻使臣奉王命出差的快速，「星使追遠不自由，雙童捧上綠瓊輞」(和韓錄事送宮人入道)大有無可奈何之意。

在二十八宿中，要以牽牛星和織女星七夕節鵲橋相會的故事最為淒艷動人了，常是詩人歌詠的對象，義山詩中關於七夕神話的詩為數不少，相關的用語計有「天河」·「銀河」·「絳河」·「長河」·「星河」·「星漢」·「銀漢」·「天津」

·「牽牛」·「牛渚」·「星娥」·「星妃」·「阿母」·「烏鵲」·「星橋」·「七夕」·「靈槎」·「支機石」·「星機」等。

七夕故事見於荆楚歲時記：「天河之東，有織女，天帝之子也。年年織杼勞役，織成雲錦天衣。天帝憐其獨處，許嫁河西牽牛郎，嫁後，遂廢織衽。天帝怒，責令歸河東，唯每年七月七日夜，渡河一會。」述異記的記載大略相同，後人為記念這事，就拿七月七日作乞巧節：「婦人結綵縷第七孔鍼，陳瓜果於庭中以乞巧，有蟪子綯於瓜上，則以為得。」荆楚歲時記由這一故事進而演變成有人曾經從海上乘船通到天河，並看到天宮有一位織婦，牛渚旁也有一男人牽著牛在喝水。博物志說：「舊說天河與海通，有人居海上，年年八月見浮槎去來，不失期多，齋糧乘槎，而往十餘日，至一處。遙望宮中多織婦一丈夫牽牛渚次飲之。其人還至蜀，問嚴君平曰某年某月有客星犯牽牛宿，計年月正，此人到天河時也。」到了荆楚歲時記更指明去天河的就是張騫，說：漢武帝令張騫使大夏尋河源，乘槎經月而至一處，見城郭如州府室內有一女織，又見一丈夫牽牛飲河，騫問曰：此是何處？答曰：可問嚴君平，織女取搗機石與騫，俱還後至蜀問君平，君平曰：「某年某月客星犯牛女搗機石為東方朔所識。」不但見了牽牛郎和織女，而且得到織女送的一塊織機石，這自然是後人傳會上去的，所以元朝就有人替織女辯誣：「元朝時代，野人成令言到浙江省紹興南面的鑑湖那邊去划船，船正在左右轉動，不知道什麼時候，居然把船划到天界去，和織女相會，於是他就要求織女訂正下界的人，關於織女的種種誤會，於是織女告訴他：『我是天帝的孫女，也就是執掌農業的天田星的女兒，生下來就是貞淑的女性，過著離群獨居的日子，這是一種何等樣的生活，可是下界的人什麼也不理解，而且偏有那些愚蠢的人，喜歡胡說八道，捏造一些七夕幽會等等的事，說我織女是牽牛的妻子，而侮辱我純潔的節操，其中成為罪魁禍首的，就是那本寫得亂七八糟的「齊諧」，從中煽動，傳播的，就是「荆楚歲時記」裏一些無根無葉的話，將其牽強附會而廣事宣傳的，就是唐朝柳宗元的那邊「乞巧文」，誇大其詞的，那是宋朝張文潛的一首「七夕歌」。與此類似的還有很多，這不但是傷害神的尊嚴而已。』³⁾ 固然是要

3) 見剪燈新話，鑑湖夜泛記：「……，仙娥乃低首歛躬，端蕭而致詞曰：『妾乃孫靈星之女，夙稟貞性，離羣索居，豈意下土無知，愚民好誕，妄傳秋夕之期，指作牽牛之配。致令清潔之操，受此污

替織女珠清不白三冤，可是他本身就是一則天方夜譚，而且由紹興鑑湖居然把船划到天界，似乎比荊楚歲時記說的更神奇了。

對於這一神話，我們自然不須要去考證它的真假，我們重視的是它帶給我們一種淒豔的美麗，義山詩用七夕故事時，有時正用，有時却反用，七夕詩計有「七夕偶題」·「辛未七夕」·「七夕」·「壬申七夕」·「壬申閏秋題贈烏鵲」。辛未七夕起聯說：「恐是仙家好別離，故教迢遞作佳期」一年一會富是很令人辛酸的，義山却反過來說成是仙家喜好別離的緣故。張孟劬以為：「此篇蓋初補太學博士喜令狐博士意漸轉圜而作，首二句反言之，實則深喜之。『清漏』句言子直舊好將合，『豈能』二句，則言博士一除，豈可不感激子直？而無如所得僅此，豈非仙家故教迢遞，以作將來之佳期哉！用意極為深曲。」「七夕」那首「爭將世上無期別，換得年年一度來。」則有羨慕牽織女猶能一年一會，為世間人相別無盡期相會不知期的人悲傷，馬嵬二首「此日六軍同駐馬，常時七夕笑牽牛。」以對比的手法，從唐明皇和楊貴妃七夕定情，自以為能白首偕老，暗笑織女牽牛一年才能一會，結果却於馬嵬生離死別，反襯出此牽牛更不如，所以義山用「笑」字來傳達這種淒涼心境。

夜下孤坐遙望夜空，看到銀河就聯想到七夕故事，又由七夕故事感傷自己和所愛的人不能會面，只能幻想自己能得到織機石，所以義山要說：「悵望銀河吹玉笙，樓寒院冷接平明。」（銀河吹笙），「直接銀漢墮懷中，未遣星妃鎖來去。」（燕臺四首，夏）有時用七夕故事來比喻自己得和所愛的人相會，如碧城三首「七夕來時先有期，洞房簾箔至今垂……」（碧城三首）後人說這類詩的有三派，一派以為是影射令狐楚，綯父子，一派為是和女冠及宮女戀愛的詩，一派以為是指當時貴族及政客等。從這首看來，似乎是隱喻義山和女冠及宮女的戀情成份較大。

第四節 結 論

辱之名。聞其源者齊諧多詐之書，鼓其波者楚俗不經之語，傳會其說而倡之者，柳宗元乞巧之文，鋪張其事而和之者張文潛七夕之詠。強詞雄辯，無以自明。鄙語邪言，何所不至！……」。

綜觀義山詩中關於星星的，以織女·牽牛故事最為淒艷，而且辭義也比較晦澀，我們無法肯定義山他的意思一定是在說什麼，固然從他的生平裏可以得一些蛛絲馬跡，有可以相印證的地方，然而材料總是不夠充份，無法得到有力的明證，因此後人說義山詩的雖有數派，各家都有理由來支持自己的說法，但是却無法否定別家的說法，而且也有一些新文學理論以為讀詩不必知道作者身世，若是專心考證作者身世再來讀詩，就會有先人為主，穿鑿附會的毛病，因此對於義山詩的解釋仍是言人人殊。就整體來說，星星給人的意境不外時間·空間和神話三種，竟管我們不相信釋史說的星星是盤固死後的鬚鬚變成的也好，或者不相信說文解字說的，它是萬物之精變的，而採用科學的說法，在冷寂地夜晚觀望星星，那份淒情的感覺仍然和一千一百多年前的李義山相同。

<主要參考書目>

- | | | |
|-----------|-------|-----------|
| 玉谿生詩詳註 | 清馮浩註 | 華正書局 |
| 李義山詩集箋注 | 清朱鶴齡注 | 學生書局 |
| 馮注分類李義山詩集 | 王昭田編校 | 中庸出版社 |
| 玉谿生年譜會箋 | 張爾田編撰 | 臺灣中華書局 |
| 李義山文集五卷 | | 四部叢刊本 |
| 樊南文集詳注八卷 | 李商隱 | 四部備要本 |
| 李商隱評論 | 顧翊羣著 | 中華詩苑 |
| 李商隱和他的詩 | 朱櫻等著 | 學生書局 |
| 玉溪詩謎 | 蘇雪林著 | 臺灣商務印書館 |
| 李義山詩析論 | 張淑香著 | 藝文印書館 |
| 中國神話故事 | | 河洛圖書出版社印本 |
| 典故 | 張迅齊編譯 | 常春樹書坊印本 |
| 天問正簡 | 蘇雪林撰 | 廣東出版社印本 |

- | | | |
|------------|-----|--------------|
| 中國原始變形神話試探 | 樂蘅軍 | 中外文學二卷八、九期 |
| 試論李義山詩的用典 | 沈秋雄 | 中華文化復興月刊十卷四期 |
| 釋李商隱的[嫦娥] | 姚一葦 | 作品四卷四期 |
| 從義山嫦娥詩談起 | 葉嘉瑩 | 新境界一卷 |
| 論詩歌中孤獨之境界 | 吳蔚若 | 建設十一卷五期 |
| 悲劇情感與命運 | 柯慶明 | 中外文學五卷二期 |

杜牧詩의 用典考

金 成 文*

<目 次>

- | | |
|-----------|---------------|
| 一. 序 論 | 四. 用典의 運用上 特徵 |
| 二. 用典의 出處 | 五. 結 語 |
| 三. 用典의 內容 | <參考文獻> |

一. 序 論

晩唐의 詩文學은 시인 개인의 감정과 문학의 미적 가치에 비중을 두었기 때문에 문자의 雕琢과 음률의 조화, 對句와 典故의 사용 등 형식적인 부분에 置重하였으니, 대표적인 인물로는 杜牧(803-852)과 李商隱(813-858)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정치적으로는 매우 불우했지만, 詩文學 方面에서는 크게 성공을 거둔 者들이다. 흔히 李商隱 하면 用典의 高手라고 하나 杜牧 역시 이와 쌍벽을 이룰 만큼 용전에 능하였다. 杜牧詩 485首 가운데에는 典故가 무려 383條나¹⁾ 운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運用上의 妙를 이룬 점으로 보아 典故의 多用은 杜牧詩의 特點 가운데 하나임엔 틀림없다. 흔히 杜牧이 江南의 아름다운 풍경과 도시의 향락적인 분위기를 노래한 시인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사실 그의 시를 좀더 깊이 관찰해 보면 이보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사회와 國家를 근심한 작품이 훨씬 많다. 杜牧詩의 用典은 寫景이나 자신의 향락을 노래한 작품보다는 後者의 작품들에서 대체로 많이 나타나 있다. 그의 古詩는 정치와 사회를 제재로 하여 豪放하고 剛慨한 義氣를 표현하면서 상당히

* 慶南大學校 文科大學 中語中文學科 講師

1) 典故의 資料로는 范之麟·吳庚舜 主編의 《全唐詩典故辭典》(上·下), 馮集梧의 《樊川詩集注》, 繆鉞의 《杜牧傳》, 周錫韜의 《杜牧詩選》, 王景霓의 《杜牧及其作品》, 市野澤寅雄의 《杜牧》을 參考로 하였음.

많은 典故를 인용하여 詩意를 강조하였고, 근체시에서도 한정된 格式에 풍부하고 함축적인 내용을 담기 위해 典故를 운용하였다. 특히 그의 詠史詩에서는 역사적 사실에 기탁하여 자신의 감개를 표출하였고, 贈酬詩에서도 다량의 전고를 사용하여 자신의 뜻을 상대방에게 전하였다.

用典이란 前人이 이루어 놓은 문화 유산, 즉 前代의 著書에 나오는 語句나 과거의 인물·사건과 관계 있는 故事를 배경으로 생겨난 독특한 표현방식으로, 이는 用事라稱하기도 하는데,²⁾ 그 辭典的 意味는 대체로 ‘典故를 引用하는 것’³⁾ ‘故事를 引用하는 것’⁴⁾으로, 魏慶之는 用典에 있어 用事を 「意用事」와 「語用事」로 나눈 바가 있고,⁵⁾ 淸 彭孫通도 「用故人之事」·「用故人之語」·「用故人之字」로 구분하여 用典에 있어 故事 뿐만 아니라 前人の 語句까지 포함시킬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⁶⁾

이처럼 典故는 이미 지나간 사실들이기 때문에, 典故語를 사용하게 되면 詩를 이해하는 데에는 다소 難解한 점이 있으나, 詩人의 입장에서 보면, 直接的인 표현을 피하고, 比喻·暗示·象徵의 手法으로 자기의 情感을 효과적으로 표출시킬 수가 있다. 이제 杜牧의 全體詩 455首에 사용된 典故를 抽出하여⁷⁾ 이들이 어떤 종류의 典籍에서 얼마만큼 詩作에 인용되었고, 그 내용은 무엇이며 표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二. 用典의 出處

用典은 前人들의 故事나 語句를 자신의 문장 속에 활용하는 技法인 만큼, 典故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前代 文學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杜

2) 周振甫, 《詩詞例話》(中國青年出版社, 北京, 1979), p.297.

「用事就是用典, 詩詞要不要用典, 不能一概而論。」

3) 《辭海》(上海辭書出版社, 1979): 「寫作時引用典故。」

《現代漢語辭典》(商務印書館, 香港, 1980): 「引用典故。」

《中日大辭典》(大修館書店, 東京, 1987): 「典故を引く。」

4) 《中文大辭典》(中華學術院, 臺北, 1980): 「詩人用故事也。」

5) 魏慶之, 《詩人玉屑》 卷7 <用其意·用其語>.

6) 彭孫通, <金粟詞話> 《詞話叢編》, P.710.

7) 典故의 資料로는 范之麟·吳庚舜 主編의 《全唐詩典故辭典(上·下)》(湖北辭書出版社, 1989.)과 馮集梧의 《樊川詩集注》·繆鉞의 《杜牧傳》·周錫韞의 《杜牧詩選》·王景霓의 《杜牧及其作品》 市野澤寅雄의 《杜牧》을 參考로 하였음.

牧은 당시 宰相을 지낸 祖父 杜佑의 학문적 가풍에 영향을 받아 어려서부터 독서에 전념하여 詩書子史 등 다양한 서적을 涉獵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훗날 그의 詩文에는 前代 詩文의 名句, 經典의 名言, 史書의 역사적 사건 등이 알게 모르게 인용되어 표출됨으로써 그의 詩歌 창작에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杜牧詩에 사용된 전고는 그 量에 비례할 만큼 出典 역시 매우 다양함을 보이고 있으니, 이를 經部類, 史部類, 子部類, 集部類로 大別해 出典別 頻度를 圖表化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出處	出處名	數量	出處名	數量
經部類	詩經	9	周易	6
	左傳	7	禮記	4
	論語	6	尚書	2
	計			34
史部類	史記	60	國語	6
	漢書	54	戰國策	4
	後漢書	42	高士傳	4
	晉書	35	水經注	3
	三國志	11	隋書	3
	宋書	7	其他	15
	計			244
子部類	莊子	9	墨子	2
	韓非子	7	列子	2
	西京雜記	6	神仙傳	2
	世說新語	6	搜神記	2
	淮南子	4	拾遺記	2
	博物志	3	其他	19
	計			64
集部類	文選	25	詩品	2
	楚辭	7	庾子山集	1
	陶淵明集	3	其他	3
	計			41
合計				383

위의 표에서 보듯이 杜牧詩 455首 중에는 典故가 무려 383條나 사용되었다. 이 가운데 經部類가 34條(9%), 史部類 244條(64%), 子部類 64條(16%), 集部類 41條

(11%)이다. 그가 이렇게 典故를 다량 運用할 수가 있었던 것은 그의 《樊川文集·注孫子集序》에서 ‘及年二十，始讀《尚書》《毛詩》《左傳》《國語》，十三代史書.’라 한 點으로 보아 젊은 시절에 힘써 노력한 多讀의 결과임을 알 수가 있다. 이처럼 杜牧은 讀書量이 매우 많았을 뿐만 아니라 그 분야 또한 광범위하기에, 이런 蓄積된 知識들이 그의 작품 속에 반영되었을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가 있다. 다음에서 前代의 著書에 나오는 語句와 과거의 인물과 관계 있는 故事를 중심으로, 杜牧詩와 用典의 출처인 原典을 비교하여 杜牧詩의 用典의 실체를 살펴보되, 用典의 분량이 많고 광범위하여 일일이 그 詩句를 例示할 수가 없으므로, 그 대표적인 것만 例를 들어보기로 한다.

1) 經部類

杜牧詩의 用典 中에 經部類에 속하는 것은 34條(9%)이며, 주로 《詩經》·《左傳》·《論語》·《周易》·《禮記》·《尚書》 등 6種의 典籍에서 取하고 있다. 經典의 語辭를 詩句에 사용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탓에⁸⁾ 두목의 詩에서도 다른 部類의 典故에 比하여 제일 적게 사용되었다. 앞의 표에서 보듯이 《詩經》·《論語》·《左傳》에서 많이 취하고 있으며, 《尚書》나 《禮記》에서는 비교적 적게 取하였다. 주요 用典을 例擧하면 다음과 같다.

(1) 詩經에서 取한 用典(9條)...주로 帝王의 德을 칭송하거나 生活美德에 관한 典故를 取하고 있다.

因思上黨三年戰， 閑詠周公七月詩。<卽事黃州作。>...七月詩。 《詩經·風》<七月>(序)
以德化人漢文帝， 側身修道周宣王。<皇風>...側身修道。 《詩經·雅》<云漢·序>
弋檣營中夜未央， 雨沾雲惹侍襄王。<羊欄浦夜陪宴會>...夜如何。 《詩經·小雅》
<庭燎>
淺心須揭厲， 休更學張綱。<過勤政樓>...淺深揭勵。 《詩經·邶風》<匏有苦葉>
恩義同鐘李， 填麓寬弟兄。<寄內兄和州崔員外十二韻...填麓。 《詩經·小雅》<何人斯>
儻無遷谷分， 歸去養天真。<貽友人>...遷喬木。 《詩經·伐木》

8) 《詩人玉屑》 卷7：「詩句固難用經語，然善用者不勝其韻。」

(2) 左傳에서 取한 用典(7條)...敵을 소멸시키거나 朝廷에 대한 憂慮, 혹은 예측할 수 없는 자신의 운명이나 언행의 警戒에 관한 典故를 取하고 있다.

如蒙一召議, 食肉寢其皮.<雪中書懷>...食肉寢皮. 《左傳》<襄公二十一年>
獨佩一壺遊, 秋毫泰山小.<獨酌>...秦山小. 《左傳》<齊物論>
射鈞後呼父, 釣翁王者師.<杜秋娘>...射鈞. 《左傳》<僖公二十四年>
誤會公觸尾, 不敢夜循牆.<昔事文皇帝三十二韻>...循墻. 《左傳》<昭公七年>

(3) 論語에서 取한 用典(6條)...保身이나 謙虛한 자세, 非謗에 관한 典故를 取하고 있다.

笑向春風初五十, 敢言知命且知非.<歲日朝迴口號>...五十知天命. 《論語·爲政》
禮數全優知隗始, 討論常見念回愚.<送王侍御赴夏口座主幕>...回愚. 《論語·爲政》
仗義懸無敵, 鳴攻固有辭.<和野人殷潛之題籌筆驛十四韻>...鳴攻. 《論語·先進篇》
無國要孟子, 有人毀仲尼.<杜秋娘>...毀仲尼. 《論語》<子張>

(4) 周易에서 取한 用典(6條)...節候, 懷才不遇 등에 관한 典故를 取하고 있다.

今年我江外, 今日生一陽.<冬至日寄小姪阿宜>...一陽生. 《周易·復卦》·《史記》
卷25 <律書>
陽德比君子, 初生甚微茫.<冬至日寄小姪阿宜>...陽德比君子. 《周易·系詞·下》
勝敗兵家事不期, 包羞忍恥是男兒.<題烏江亭>...包羞. 《周易·卜卦》

(5) 禮記에서 取한 用典(4條)...和親, 禮節 등에 관한 典故를 取하고 있다.

蕭條井邑如魚尾, 早晚干戈識虎皮.<卽事黃州作>...干戈識虎皮. 《禮記·樂記》
欲與明公操履杖, 願聞休去是何年.<李侍郎於陽羨里富有泉石牧亦於陽羨粗有薄
產敘舊述懷因獻長韻>...操履杖. 《禮記》<曲禮·上>
隣喪不相舂. 公租無詬負.<題池州弄水亭>...隣凶不舂. 《禮記》<曲禮·上>

(6) 尚書에서 取한 用典(2條)...反亂의 鎮壓이나 官吏의 貶謫 등에 관한 典故를 取하고 있다.

安得封域內, 長有扈苗征.<感懷詩>...扈苗征. 《尚書·夏書》<甘誓序>
隣君更抱重泉恨, 不見崇山謫去時.<見宋拾遺題名處感而成詩>...崇山謫. 《尚書》
<虞書·舜典>

2) 史部類

史部類에서 取한 典故는 전체 用典 가운데 64%(244條)를 占하고 있다. 《史記》가 60條로 가장 많고, 《漢書》·《後漢書》·《晉書》·《三國志》·《宋史》·《國語》·《戰國策》·《高士傳》·《水經注》·《隋書》에서 대부분을 취하였다. 이 밖에도 《北齊書》·《南齊書》·《魏書》·《北史》·《南史》·《陳書》·《吳越春秋》 등 무려 21種의 典籍에서 典故를 取하였다.

杜牧이 이처럼 史部類에서 많은 典故를 取한 것은 현실에 대한 자신의 感懷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곤란하거나 정형화된 詩句 속에 많은 뜻을 숨췄시키고자 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1) 史記에서 取한 用典(60條)...朝廷, 王族, 臣下, 將帥, 戰爭, 下級官吏, 隱士, 興亡盛衰 등의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長久한 歷史를 기록한 典籍인 만큼 그 내용도 실로 多樣하다.

子既屈一鳴, 余固宜三刖.<池州送孟遲先輩>...一鳴. 《史記》 卷126 <滑稽列傳>
射鈞後呼父, 鈞翁王者師.<杜秋娘>...王子師. 《史記》 卷32 <齊太公世家>
無國要孟子, 有人毀仲尼.<杜秋娘>...無國要孟子. 《史記》 卷74 <孟子列傳>
丹頂西施協, 霜毛四皓鬢.<鶴>...四皓. 《史記》 卷55 <留侯世家>
題此涕滋筆, 以代投湘賦.<李甘>...投湘賦. 《史記》 卷84 <賈生列傳>
灑空滄海水, 搜盡卓王孫.<昔事文皇帝三十二韻>...卓王孫. 《史記》 卷17 <司馬相如傳>
顏回捧俎豆, 項羽橫戈矛.<洛中送翼處士東遊>...項籍. 《史記》 卷7 <項羽本紀>
飄然集仙客, 飄賦欺相如.<張好好詩>...相如. 《史記》 卷117 <司馬相如傳>
桃李無言又何在, 向風偏笑艷陽人.<紫薇花>...桃李成蹊. 《史記》 卷109 <李將軍贊>
楚國大夫憔悴日, 應尋此路去瀟湘.<蘭溪>...楚大夫. 《史記》 卷84 <屈原傳>
烈士思酬國士恩, 春申誰與快冤魂.<春申君>...春申刎首. 《史記》 卷78 <春申君列傳>

(2) 漢書에서 취한 用典(54條)...皇帝와 臣下, 將帥와 戰爭, 貴族과 官吏, 인생의 成敗나 困境을 뜻하는 典故가 많다.

還稱二千石, 於我意何如.<自遣>...二千石. 《漢書》 卷19上 <百官公卿表上>
可憐劉校尉, 曾訟石中書.<李給事>...訟石中書. 《漢書》 卷36 <劉向傳>
一尺桐偶人, 江充知自欺.<杜秋娘>...江充. 《漢書》 卷45 <江充傳>

蘇武却生返, 鄧通終死饑.<杜秋娘>...蘇武. 《漢書》 卷54 <蘇建傳>附<蘇武傳>
誰知病太守, 猶得作茶山.<春日茶山病不飲酒因呈賓客>...病太守. 《漢書》 卷50
<汲黯傳>

南軍不袒左邊袖, 四老安劉是滅劉.<題商山四皓廟一絕>...左袒. 《漢書》 卷3 <高
后紀>

曲突徙薪人不曾, 海邊今作釣魚翁.<李給事>...曲突徙薪. 《漢書》 卷68 <霍光傳>
旋見衣冠就東市, 忽遺弓劍不西巡.<河湟>...衣冠就東市. 《漢書》 卷49 <晁錯傳>
牧童火入九泉底, 燒作灰時猶未枯.<過驪山作>...牧童火. 《漢書》 卷36 <向傳>
淮陽多病偶求歡, 客愁侵霜與燭盤.<初冬夜飲>...淮陽病. 《漢書》 卷50 <汲黯傳>

(3) 後漢書에서 취한 用典(42條)...정치에 관한 事件, 官吏의 昇進과 左遷, 전쟁, 장
수의 武勇, 神仙, 隱居, 孝, 文才, 哀悼의 마음 등에 관한 典故를 取하고 있다.

捷報雲臺賀, 公卿拜壽卮.<少年行>...雲臺. 《後漢書》 卷22 <朱祐等傳贊>
淺心須揭厲, 休更學張綱.<除官歸京陸州雨霽>...張綱. 《後漢書》 卷56 <張皓
傳>附 <張綱傳>

綱今開傳燮, 書舊識黃香.<除官歸京陸州雨霽>...黃香. 《後漢書》 卷80上 <文
苑傳.上·黃香傳>

元禮去歸緱氏學, 江充來見犬臺宮.<李給事>...元禮歸論綸氏. 《後漢書》 卷67
<李膺傳>

芝蓋不來雲杳杳, 仙舟何處水潺潺.<洛陽長句2首>...仙舟. 《後漢書》 卷68 <郭
太傳>

調高銀字聲還側, 物比柯亭韻校奇.<寄珉笛與宇文舍人>...柯亭. 《後漢書》 卷
60下 <蔡邕傳>

登龍有路水不峻, 一雁背飛天正寒.<賀崔大夫崔正字>...登龍. 《後漢書》 卷67
<黨錮列傳·李膺傳>

離心忽忽復悽悽, 雨晦傾瓶醉取泥.<醉後題僧院>...醉如泥. 《後漢書》 卷79下
<儒林傳.下·周澤傳>

(4) 晉書에서 취한 用典(35條)...臣下와 官吏들의 태도, 寵妃나 宮女の 삶, 思鄉, 신
선과 선비의 생활, 飲酒 등에 관한 典故를 取하고 있다.

高摘屈宋艷, 濃薰班馬香.<冬至日寄小姪阿宜>...班馬. 《晉書》 卷82 <陳壽等
傳論>

一醉六十日, 古來聞阮生.<自宣州赴官入京路逢襄垣判官歸宣州因題贈>...一醉六
十日. 《晉書》 卷49 <阮籍傳>

只有三張最惆悵, 下山迴馬尙遲遲.<送薛邕二首>...三張. 《晉書》 卷55 <張亢傳>

魏帝縫囊眞戲劇，苻堅投筆更荒唐。〈西江懷古〉...投鞭填江。《晉書》卷114〈苻堅載記。下〉

一曲將軍何處笛，連雲芳樹日初斜。〈街西長句〉...將軍笛。《晉書》卷81〈桓宣傳〉附〈桓伊傳〉

月明更想桓伊在，一笛聞吹出塞愁。〈潤州二首〉...桓伊笛。《晉書》卷81〈桓宣傳〉附〈桓伊傳〉

(5) 三國志에서 取한 用典(11條)...勇將, 奇智, 生命, 女人, 酒 등에 관한 典故를 取하고 있다.

矯矯雲長勇，恂恂鄧穀風。〈題永崇西平王宅太尉懋院六韻〉...雲長勇。《三國志》卷36〈蜀書·關羽等傳〉

萬弧五百步，長戟八十斤。〈史將軍〉...長戟八十斤。《三國志》卷18〈魏書·典韋傳〉
死綏却是古來有，驍將自驚今日無。〈聞慶州趙縱使君與黨項戰中箭身死長句〉...死綏。《三國志》卷1〈魏書·武帝紀〉

西京才子旁看取，何似喬家那窈娘。〈偶呈鄭先輩〉...喬家那窈娘。《三國志》卷54〈吳書·周瑜傳〉

自憐窮律窮途客，正劫孤燈一局棋。〈寄李起居四韻〉...窮途哭。《三國志》卷21〈魏書·王粲傳〉

(6) 宋書에서 취한 用典(7條)...君臣의 遇合, 官吏의 功績, 술 등에 관한 典故를 取하고 있다.

釣築乘時用，芝蘭在處芳。〈華清宮三十韻〉...釣築。《宋書》卷27〈符瑞志〉(上)
不及礪溪叟，身閑長自由。〈早秋客舍〉...礪溪。《宋書》卷27〈符瑞志。上〉
三邊要高枕，萬里得長城。〈夏州崔常侍自少常亞列出領麾幢十韻〉...萬里長城。《宋書》卷43〈檀道濟傳〉

行樂及時時已晚，對酒當歌歌不成。〈湖南正初招李郢秀才〉...對酒當歌。《宋書》卷21〈樂志〉3, 武帝〈短歌行·對酒〉

休公都不知名姓，始覺禪門氣味長。〈贈終南蘭若僧〉...休公。《宋書》卷71〈徐湛之傳〉

(7) 國語에서 취한 用典(6條)...長壽祈願, 美人滅國, 官職에 관한 典故를 取하고 있다.

夏姬滅兩國，逃作巫臣姬。〈杜秋娘〉...夏姬滅國。《國語》〈楚語(上)〉

九原可作吾誰與, 師友瑯琊邴曼容.<長安雜題長句>...九原可作. 《國語》<晉語>(八)

五言寧謝顏光祿, 百歲須齊衛武公.<寄宣州鄭諫議...衛武. 《國語·楚語(上)》
謝朓詩中佳麗地, 夫差傳裡水犀軍.<潤州二首>...水犀軍. 《國語·越語(上)》

(8) 戰國策에서 취한 用典(4條)...賢才不遇, 小人得勢 등에 관한 典故를 取하고 있다.

狐威假白額, 泉嘯得黃昏.<昔事文皇帝三十二韻>...狐假虎威. 《戰國策》 卷14 <楚策>(一)

遭遇不遭遇, 鹽車與鼓車.<騶騶駮>...鹽車. 《戰國策》 卷17 <楚策>4

唯念賢哉崔大讓, 可憐無事不歌魚.<寄浙西李判官>...歌魚. 《戰國策》 卷11 <齊策>4

(9) 高士傳에서 取한 用典(4條)...老子나 隱居貧士 등에 관한 典故를 取하고 있다.

平生五色線, 願補舜衣裳.<郡齋獨作>...舜衣裳. 《高士傳》 卷上 <善卷>

蓬蒿三畝居, 寬於一天下.<贈宣州元處士>...蓬蒿. 《高士傳》 卷中 <張仲蔚>

江南仲蔚多才調, 愴望春陰幾首詩.<初春雨中舟次和州橫江裴使君見迎李趙二秀才同來因書四韻兼寄江南許渾先輩>...張仲蔚. 《高士傳》 卷中 <張仲蔚>

(10) 水經注에서 取한 用典(3條)...地名, 追慕, 隆勢 등에 관한 典故를 取하고 있다.

三聲欲斷疑腸斷, 饒是少年須白頭.<猿>...三聲猿. 《水經注》 卷34 <江水>

旋見衣冠就東市, 忽遺弓劍不西巡.<河湟>...弓劍. 《水經注》 卷3 <河水篇>

前驅二星去, 開險五丁忙.<奉和門下相公送西川相公兼領相印出鎮全蜀>...五丁開險. 《水經注》 卷27<沔水>

(11) 隋書에서 取한 用典(3條)...官吏의 清正, 運命의 變化 등에 관한 典故를 取하고 있다.

韓嫣金丸莎覆綠, 許公羶汗杏粘紅.<長安雜題長句6首>...許公羶. 《隋書》 卷61 <宇文述傳>附<云定興傳>

太守政如水, 長官貪似狼.<郡齋獨作>...政如水. 《隋書》 卷73 <循吏傳·越軌傳>

蕭后去揚州, 突厥爲闕氏.<杜秋娘>...蕭后. 《隋書》 卷36 <煬帝蕭皇后傳>

3) 子部類

子部類에서 取한 典故는 64條(16%)에 이른다. 《莊子》·《韓非子》·《墨子》·《列子》·《荀子》·《孫子》·《老子》·《淮南子》·《法言》·《西京雜記》·《博物志》·《世說新語》·《搜神記》·《拾遺記》·《穆天子傳》·《神仙傳》·《山海經》·《海內十州記》 등 무려 28種의 典籍에서 典故를 取하였다. 대체로 道家, 法家, 小說家類가 대부분이다. 子部類 역시 그 속에 담긴 寓話나 逸話의 意境을 빌어다 詩의 含蓄性을 높이거나 직접적인 표현은 피하고 迂迴의인 묘사로서 詩意를 婉曲하게 表現하고 있다.

(1) 莊子에서 取한 用典(9條)...인생의 無常함, 道家, 憂國, 非現實的인 사실의 비유, 진귀한 물건을 얻는 것에 관한 典故를 取하고 있다.

人生落其內, 何者爲彭殤.<郡齋獨作>...彭殤. 《莊子》<齊物論>
大翼終難戢, 奇峰且自韜.<寄李播評事>...大翼. 《莊子》<逍遙游>
失計拋漁艇, 何問化涸鱗.<書事>...涸鱗. 《莊子》<外物篇>
丹心懸魏闕, 往事愴甘棠.<奉和門下相公送西川相公兼領相印出鎮全蜀>...魏闕.
《莊子》<讓王>
塵世難逢開口笑, 菊花須插滿頭歸.<九日齊山登高>...開口笑. 《莊子》<盜跖>

(2) 韓非子에서 取한 用典(7條)...懷才不遇, 勸戒, 운명의 變化無雙함 등에 관한 典故를 取하고 있다.

子既屈一鳴, 余固宜三別.<池州送孟遲先輩>...三別. 《韓非子》 卷4 <和氏>
宋株聊自守, 魯酒怕旁圍.<新轉南曹未敘朝散初秋署退出守吳興書此篇以自見志>...守株待兔. 《韓非子》 卷19 <五蠹>
今依隴西公, 如虎傳兩翅.<送沈處士赴蘇州李中丞招以詩贈行>...如虎朴傳翅. 《韓非子》 卷17 <雜勢>와 《三國志》 卷15 <魏書·張既傳>
還須整理韋弦佩, 莫獨矜誇玳瑁簪.<送杜顓赴潤州幕.>...韋弦佩. 《韓非子》 卷8 <觀行>
冥鴻不下非無意, 塞馬歸來是偶然.<李侍郎於陽羨里富有泉石牧亦於陽羨粗有薄產敘舊懷因獻長韻>..塞上翁. 《淮南子》<人間訓>

(3) 西京雜記에서 取한 用典(6條)...美女, 遊樂生活, 樂器 등에 관한 典故를 取하고 있다.

豪持出塞節，笑別遠山眉。〈少年行〉...遠山眉。《西京雜記》卷2
 德業懸秦鏡，威聲隱楚郊。〈送牛相出鎮襄州〉...秦鏡。《西京雜記》卷3
 相如死後無辭客，延壽亡來絕畫工。〈奉陵宮人〉...毛延壽。《西京雜記》卷2
 韓嫣金丸莎覆綠，許公羈汗杏粘紅。〈長安雜題長句6首〉...金丸。《西京雜記》卷4
 閑吹玉殿昭華管，醉折梨園蒂帶花。〈出宮人二首〉...昭華管。《西京雜記》卷3

(4) 世說新語에서 取한 用典(6條)...相對의 인품을 稱頌하거나 友情 등에 관한 典故를 取하고 있다.

貂簪荆玉潤，丹穴鳳毛光。〈春日言懷寄虢州李常侍十韻〉...鳳毛。《世說新語》
 〈容止篇〉
 寄與玉人天上去，桓將軍見不教吹。〈寄珉笛與宇文舍人〉...玉人。《世說新語·容止》
 看著白蘋牙欲吐，雪舟相訪勝閑行。〈湖南正初招李鄴秀才〉...雪舟訪。《世說新語》
 〈任誕〉

(5) 淮南子에서 取한 用典(4條)...傳說, 勇將, 세월의 흐름 등에 관한 典故를 取하고 있다.

孤鴻秋出塞，一葉暗辭林。〈秋夢〉...一葉秋。《淮南子》〈說山訓〉
 凶門瓜牙輩，穰穰女兒戲。〈感懷詩〉...凶門。《淮南子·兵略訓》
 嗜酒狂嫌阮，知非晚笑蘧。〈自遣〉...知非年。《淮南子》〈原道訓〉

(6) 博物志에서 取한 用典(3條)...계절의 변화, 地殼의 변화, 將帥의 衷情 등에 관한 典故를 取하고 있다.

聘之碧瑤佩，載以紫雲車。〈張好好詩〉...紫雲車。《博物志》卷8 〈史補〉
 深宮銷閉猶疑惑，更取丹砂試辟宮。〈宮詞二首〉...丹砂試宮。《博物志》卷4 〈戲術〉과 《漢書》卷65 〈東方朔傳〉
 分明知是湘妃泣，何忍將身臥淚痕。〈斑竹筒簾〉...湘妃泪。《博物志》卷8

(7) 墨子에서 取한 用典(2條)...美女에 관한 典故를 取하고 있다.

細腰宮裡露桃新，脈脈無言幾度春。〈題桃花夫人廟〉...細腰。《墨子》〈兼愛中〉
 落魂江湖載酒行，楚腰纖細掌中輕。〈遣懷〉...楚宮腰。《墨子》〈兼愛中〉

(8) 列子에서 取한 用典(2條)...비현실적인 傳說, 過度한 욕망 등에 관한 典故를 取하고 있다.

我欲東召龍伯翁, 上天揭取北斗柄.<汕州送孟遲先輩>...龍伯國人. 《列子·湯問》
晉·張華 《博物志》 卷2 <河圖玉版>
終年押鷗鳥, 來去且無機.<漁父>...狎鷗. 《列子·黃帝》

(9) 神仙傳에서 取한 用典(2條)...仙術, 讀書의 효과, 등에 관한 典故를 取하고 있다.

叱起文武業, 可以豁洪溟.<感懷詩>...叱起. 《神仙傳》 卷2 <黃初平>
讀詩韓集愁來讀, 似倩麻姑癢處抓.<讀韓杜集>...麻姑抓痒. 《神仙傳》 卷2 <王遠>

(10) 搜神記에서 取한 用典(2條)...美人, 惜情 등에 관한 典故를 取하고 있다.

骨清年少眠如水, 鳳羽參差五色層.<贈李秀才是上公孫子>...骨清. 《搜神記》
卷5
千歲鶴歸猶猶恨, 一年生住豈無情.<八月十二日得替後移居霅溪館因題長句四韻>...鶴歸華表. 《搜神後記》 卷1

(11) 拾遺記에서 取한 用典(2條)...仙境, 남녀의 愛情 등에 관한 典故를 取하고 있다.

輕盈照溪水, 掩斂下瑤臺.<梅>...瑤臺. 《拾遺記》 卷10 <昆侖山>
向春羅袖薄, 誰念舞臺風.<寄遠>...舞臺風. 《拾遺記》 卷6

4) 集部類

集部類에서 取한 典故는 41條(11%)에 이른다. 이 가운데에서 《文選》이 25條로 가장 많고, 《楚辭》가 7條로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陶淵明集》과 《詩品》에서도 각각 3·2條씩 取하고 있다. 그 밖에 《白氏六帖》·《庾子山集》·《三輔黃圖》·《簫史曲》에서 각각 1條씩 取하였으며, 모두 8種의 典籍에서 取하였다. 이러한 集部類 중 詩가 대부분이고 辭賦가 다소 있다. 이것은 杜牧이 前人的 詩

句를 암기하고 있다가 作詩 때에 의식적으로 몇 字를 加減 또는 수정함으로써 새로운 句節을 창출해 내었거나, 詩想에 따라 寫作하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마치 자신의 句節인 양 混入되어 나타난 결과라 생각된다.

(1) 文選에서 取한 用典(25條)...男女의 사랑과 離別, 君臣關係, 美女, 左遷, 詩才, 隱居, 思鄉, 神仙 등에 관한 典故를 取하고 있다.

誰家 洛浦神, 十四五來人.<書情>...洛神. 《文選》 卷19 <洛神賦序>
 雷音後車遠, 事往落花時.<杜秋娘>...雷音. 《文選》 卷16 <長門賦>
 仙掌月明孤影過, 長門燈暗數聲來.<早雁>...長門. 《文選》 卷16 <長門賦.序>
 幾度思歸還把酒, 拂雲堆上祝明妃.<題木蘭廟>...明妃. 《文選》 卷27 <王明君詞序>
 城高鐵甕橫江弩, 柳暗朱樓多夢雲.<潤州二首>...夢雲. 《文選》 卷19 <高唐賦>
 弋檻營中夜未央, 雨沾雲惹侍襄王.<羊欄浦夜陪宴會>...雲雨. 《文選》 卷19 <高唐賦>

(2) 楚辭에서 取한 用典(7條)...君子, 傷別, 君王의 出行 등에 관한 典故를 取하고 있다.

白髮滄浪上, 全忘是與非.<漁父>...滄浪. 《楚辭》 <漁父辭>
 咸池昇日慶, 銅雀分香悲.<杜秋娘>...咸池. 《楚辭》 <離騷>
 本是馨香比君子, 邊欄今更爲何人.<和令狐侍御賞蕙草>...比君子. 《楚辭》 <離騷>
 城角爲秋悲更遠, 護霜雲破海天遙.<聞角>...悲秋. 《楚辭》 <九辯>
 遠風南浦萬重波, 未似生離恨別多.<見劉秀才與池州妓別>...南浦. 《楚辭》 <九歌·河伯>

(3) 陶然明集에서 取한 用典(3條)...隱居, 理想鄉, 閑雅한 情趣 등에 관한 典故를 取하고 있다.

籬東菊徑深, 折得自孤吟.<折菊>...東籬菊. 《陶然明集》 卷3 <飲酒二十首>
 此花不逐溪流出, 晉客無因入洞來.<酬王秀才桃花園見寄>...晉客洞入. 《陶淵明集》 卷6 <桃花源記>
 偃須求五鼎, 陶祇愛五廬.<春末題池州弄水亭>...愛吾廬. 《陶淵明集》 卷4 <讀山海經十三首>

(4) 詩品에서 取한 用典(2條)...詩才를 칭송한 것에 관한 典故를 取하고 있다.

七者論詩誰似公，曹劉須在指揮中。〈酬張祜處士見寄長句四韻〉...曹劉。《詩品》
〈總論〉
五言寧謝顏光祿，百歲須齊衛武公。〈寄宣州鄭諫議〉...顏光祿。《詩品》 卷中
〈宋光祿大夫顏延之〉

(5) 庾子山集에서 取한 用典(1條)...思鄉에 관한 典故를 取하고 있다.

戊辰年向金陵過，惆悵閑吟憶庾信。〈江南懷古〉...庾信哀。《庾子山集》 卷2 〈哀
江南賦序〉

以上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杜牧이 典故를 취해 온 典籍類는 모두 63種에 이르
며, 이 중 史部類에서 가장 많은 전고를 取했고, 그 다음으로 子部類, 集部類, 經部
類 順으로 取했다. 그가 史書에서 많은 故事를 인용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樊川
文集·注孫子集序》에서 밝힌 것처럼 20歲에 들어 十三代史書를 통달하였기 때문으
로 보인다. 가장 많은 전고를 취해온 典籍으로는 《漢書》(後漢書 포함)인데 모두
96條를 취하였고, 그 다음이 《史記》(60條), 《晉書》(35條), 《文選》(25條), 《三
國志》(11條), 《詩經》(9條), 《莊子》(9條) 順이다. 이처럼 杜牧詩의 用典이 史書
를 根幹으로 다양한 典籍에서 전고를 取한 것은, 前代 典籍에 대한 作者의 축적된
지식이 밑바탕이 된 것이라 하겠다.

三. 用典의 內容

杜牧詩의 淵源이 詩書子史百家語를 習得한데 있다⁹⁾고 함은 杜牧이 젊은 시절 얼
마나 많은 典籍들을 涉獵하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宰相家 출신인 그는 宦
途의 꿈을 成就하기 위해 다방면의 典籍을 多讀하였기에, 그의 詩文 속에는 前人들
이 이루어 놓은 詩文이나 역사적 사건들이 流露되어 묘사되었다. 특히 그가 作詩에
運用한 典故는 그 量이 많을 뿐만 아니라 내용 또한 다양하다. 이들 내용은 朝廷이
나 政治에 관한 故事, 軍사에 관한 것, 부모형제나 친구에 관한 것, 술과 여인에 관
한 것, 현실에 대한 불평이나 도피, 失意, 인생무상 등 國家大事에서 개인의 身邊雜

9) 謝錦桂毓, 《杜牧研究》(臺灣商務印書館, 民國65), p.128.

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이러한 것들은 대체로 前人이 이루어놓은 축적된 문화유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前代의 典籍에 나오는 語句와 과거의 인물이나 사건과 관계 있는 故事들이다. 이들을 내용별로 분류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1. 政治에 관한 것

蘇武却生返, 鄧通終死饑.<杜秋娘>...鄧通死饑. 《漢書》 卷93 <鄧通典>
 還稱二千石, 於我意何如.<自遺>...二千石. 《漢書》 卷19上 <百官公卿表上>
 杜陵蕭次君, 遷少去官賓.<自貽>...蕭次君去官類. 《漢書》 卷78 <蕭望之傳·蕭育傳>
 太守政如水, 長官貪似狼.<郡齋獨作>...政如水. 《隋書》 卷73 <循吏傳·越軌傳>
 一尺桐偶人, 江充知自欺.<杜秋娘>...江充. 《漢書》 卷45 <江充傳>
 平生五色線, 願補舜衣裳.<郡齋獨作>...舜衣裳. 《高士傳》 卷上 <善卷>
 釣築乘時用, 芝蘭在處芳.<華清宮三十韻>...釣築. 《宋書》 卷27 <符瑞志.上>
 金囊寧迴顧, 珠簾肯一振.<寄內兄和州崔員外十二韻>...珠簾肯一振. 《後漢書》
 卷41 <鍾離意傳>
 側身修道周宣王.<皇風>...側身修道. 《詩經·云漢序》
 旋見衣冠就東市, 忽遺弓劍不西巡.<河滄>...衣冠就東市. 《漢書》 卷49 <晁錯傳>
 吉甫裁詩歌盛業, 一篇江漢美宣王.<奉和白相公聖德和平致茲休運歲終功就合詠
 盛明呈上三相公長句四韻>...江漢美宣王. 《詩經·江漢.序》

「鄧通死饑」는 漢文帝의 臣下인 鄧通이 文帝의 총애를 받아 막대한 富를 축적하였으나 文帝 死後에 그의 재산은 모두 몰수당하고 자신의 職位마저 박탈당한 내용이며, 「二千石」은 漢代 太守의 年俸이 二千石인 데서 나온 말로, 漢代에는 太守를 「二千石」이라 稱하였다.

「蕭次君去官類」은 漢代 蕭望之의 아들 蕭次君이 任地를 자주 옮겨 다니느라 昇進의 기회를 얻지 못한데서 나온 故事며, 「政如水」는 隋代 越軌의 청빈함을 일컫는 말로 官吏의 清廉함을 뜻한다.

「江充」은 漢武帝 때 江充이 사람을 시켜 오동나무로 만든 木偶人을 太子宮에 몰래 묻고서 태자가 巫術으로써 武帝를 詛呪받게 한다고 告함으로써 결국 太子로 하여금 죽음을 당하게 한 사실로서, 간사한 짓으로 朝廷의 역울한 사건을 꾸민 것을 뜻하며, 「舜衣裳」은 舜임금이 衣裳을 盛大하게 꾸몄다는 데서 緣由한 것으로, 王業을 指稱한다.

「釣築」은 呂尙이 釣築에서 낚시하다 周文王의 신하가 된 사실에서 君臣의 만남을 의미하며, 「珠簾肯一棖」은 漢 賢宗이 즉위한 후, 交趾(嶺南)太守 張恢의 부정하게 모은 재산을 몰수하여 群臣들에게 나누어주었으나, 尙書인 鍾離意 만은 이를 받지 않았다는 데서 비롯된 말로 官吏의 清廉함을 뜻한다.

「側身修道」는 周宣王 때 나라에 큰 재난이 일자, 자신의 처신이 올바르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라 여겨, 자신의 處身을 바르게 하고 善政을 베풀으로써, 災殃을 제거하였다고 한 데서 緣由한 것으로, 帝王의 德을 찬미하는 뜻이며, 「衣冠就東市」는 漢景帝 때 晁錯이 제후의 세력을 약화시킬 것을 건의하자 吳楚七國은 그가 謀反을 도모한다고 하며 죽일 것을 의논하였다. 마침내 景帝도 허락을 하여 官服을 입힌 채 東市에서 處刑하였다는 故事에서, 朝廷 臣下가 死刑을 당한다는 뜻으로 쓰였다.

「江漢美宣王」은 《詩經》의 <江漢>이 尹吉甫가 周宣王을 찬미하기 위해서 지은 작품이라는 데서 緣由한 말로, 帝王을 歌頌하는 말을 뜻한다.

그러면 이러한 典故가 杜牧詩에서 어떻게 운용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杜秋娘>의 「鄧通死饑」는 鄧通의 政治的 운명을 통해 인간의 운명이란 예측할 수 없는 것임을 표현하였고, <自遣>의 「二千石」은 漢代의 태수에 상당한 唐代의 刺史인 杜牧 자신을 指稱하고 있다.

<自貽>의 「簫次君去官頻」은 簫次君을 빌어 작자 자신의 政治적 失意를 표현하였고, <郡齋獨作>의 「政如水」는 태수의 관직생활이 청렴함을 표현하고 있다.

<杜秋娘>의 「江充」은 唐文宗 때 鄭注 등이 漳王을 陷害한 사실에 비유되었고, <郡齋獨作>의 「舜衣裳」은 杜牧 자신이 王業을 보좌할 뜻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華清宮三十韻>의 「釣築」은 현명한 臣下가 등용됨을 나타내었고, <寄內兄和州崔員外十二韻>의 「珠簾肯一棖」은 崔員外가 장차 嶺南으로 감에 그의 청렴함을 찬미하였다.

<皇風>의 「側身修道」는 唐武宗의 政치를 周宣王의 善政을 비유하여 표현하였고, <河湟>의 「衣冠就東市」는 晁錯의 고사를 빌어 唐代宗이 元載에게 자결하도록 한 사건을 말하며, <奉和白相公聖德和平致效休運歲終功就合詠盛明呈上三相公長句四韻>의 「江漢美宣王」은 杜牧이 酬答한 白相公의 原詩를 <江漢>이 비유시켜, 君王의 “聖德”을 가송하였다.

以上 정치에 관한 典故는 官吏의 昇進과 貶謫, 治績, 登科, 政治적인 抱負나 挫折, 官吏의 生活態度(清廉), 王業, 帝王과 王族에 관한 것, 臣下의 言行, 기타 朝廷에서

발생한 정치적 사건 등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으며, 전체 典故(383條) 가운데 약 126條(33%)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작자는 이러한 전고를 빌어 憂國傷民과 정치적 理想을 표출시켰다.

2. 軍事에 관한 것

長鈺周都尉, 閑如秋嶺雲.<史將軍>...長鈺周都尉. 《漢書》卷16 <高惠高后文功臣表>

萬弧五百步, 長戟八十斤.<史將軍>...長戟八十斤. 《三國志》卷18 <魏書·典韋傳>
矯矯雲長勇, 恂恂卻縠風.<題永崇西平王宅太尉愨院六韻>...雲長勇. 《三國志》卷36 <蜀書·關羽等傳>

莫教銅柱北, 空說馬將軍.<送容州唐中丞赴鎮>...馬援. 《後漢書》卷24 <馬援傳>
常恨兩手空, 不得一馬箠.<送沈處士赴蘇州李中丞招以詩贈行>...馬箠. 《史記》卷89 <張耳陳餘列傳>

誰識大君謙讓德, 一毫名利鬪蛙蟆.<長安雜題長句>...斗蛙蟆. 《漢書》卷27下 <五行志.下>

「長鈺周都尉」는 漢初의 長鈺都尉 周灶가 項籍軍을 격파한 데서 나온 말로, 용맹한 장수를 지칭하며, 「長戟八十斤」은 曹操의 부하 典韋가 어깨 힘이 대단하여 80斤의 긴 창을 잘 사용하였다는 데서 勇壯을 의미한다.

「雲長勇」은 삼국시대 關羽의 용맹을 말한 것으로, 용맹한 將帥를 지칭하며, 「馬援」은 東漢人 馬援이 일찍이 伏波將軍을 받들어 交趾에 出征한 바가 있는데, 후에 令軍南征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馬箠」는 越軍이 燕나라 將帥에게 자신의 말채찍 아래엔 越의 數十城이 있다고 말한데서, 병사를 일으키지 않고 敵을 물리쳐 功을 세운다는 뜻이며, 「斗蛙蟆」은 漢武帝 때 청개구리와 두꺼비가 떼를 지어 싸움을 벌였는데, 그해 대규모의 戰亂이 발생한 사건에서 緣由한 것으로, 곧 대규모의 용병이 있을 징조임을 의미한다.

杜牧詩의 예를 보면, <史將軍>의 「長鈺周都尉」는 史將軍을 周灶에 비유함으로써 그의 용맹을 부각하였고, 「長戟八十斤」은 史將軍의 勇武가 뛰어난을 묘사하였다.

<題永崇西平王宅太尉愨院六韻>의 「雲長勇」은 李愨의 용맹을 關雲長에 비유하였고, <送容州唐中丞赴鎮>의 「馬援」은 唐中丞의 공적을 기대하는 의미로 쓰였다.

<送沈處士赴蘇州李中丞招以詩贈行>의 「馬箠」는 沈處士가 적을 물리쳐 공을 세

울 수단이 없음을 한탄하는 내용이며, <長安雜題長句>의 「斗蛙蟆」은 藩鎮의 用兵을 풍자하였다.

以上 軍事에 관한 전고는 주로 將帥의 武勇과 戰功, 패전의 아픔과 國防의 중요성을 주 내용으로 하며, 이와 같은 典故는 약 44條(11%)에 이른다. 唐末 藩鎮의 割據와 이민족의 來侵에 따른 國防에 대한 작자의 憂慮를 반영하고 있다.

3. 가족이나 친구에 관한 것

旅館夜憂姜被冷, 暮江寒覺晏裘輕.<冬至日遇京使發寄舍弟>...姜被. 《後漢書》卷53 <江肱傳>
思義同鐘李, 填篋寬弟兄.<寄內兄和州崔員外十二韻>...填篋. 《詩經·何人斯》
金虎知難動, 毛鷲亦恥言.<昔事文皇帝三十二韻>...河梁. 《文選》卷29 <與蘇武三首>
城角爲秋悲更遠, 護霜雲破海天遙.<聞角>...悲秋. 《楚辭》 <九辯>
交遊話我憑君道, 除却鱸魚更不聞.<盧秀才將出王屋高步名場江南相逢贈別>...鱸魚. 《晉書》卷92 <文苑傳·張翰傳>
巨卿哭處雲空斷, 阿鷲歸來月正明.<池州李使君歿後十一日處州新命始到後見歸妓感而成詩>...巨卿哭... 《後漢書》卷81 <獨行傳·范式傳>
看著白蘋牙欲吐, 雪舟相訪勝閑行.<湖南正初招李郢秀才>...雪舟訪. 《世說新語》<任誕>
雷音後車遠, 事往落花時.<杜秋娘>...雷音. 《文選》卷16 <長門賦>

「姜被」란 東漢의 姜肱·仲海·季江의 3형제가 모두 효행이 뛰어나, 잠을 잘 때에도 같은 이불에서 자고, 또한 엄한 繼母를 잘 섬겨 繼母의 마음을 慰勞함으로써 그 孝行이 하늘에 닿을 정도였다는 데서 효행이 뛰어난을 의미하며, 「填篋」는 《詩經·何人斯》에 “伯氏吹填, 仲氏吹篋”에서 取한 것인데, “填”은 古代에 흙으로 만든 吹奏樂器며 “篋”은 대나무로 만든 취주악기인데, <何人斯>詩에서는 이 樂器 소리의 調和를 형제의 和諧에 비유를 함으로써, 형제간의 화목을 지칭하는 말로 쓰여왔다.

「河梁」은 李陵의 送別詩인 <與蘇武三首>中 “携手上河梁”句에서 取한 것인데, “河梁(橋梁)”은 送別한 地點을 말하나, 후에 送別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悲秋」는 宋玉의 <九辯>中 “悲哉愁之爲氣也”句에서 取한 것으로, 秋景에 대한 感傷을 寄託한 말로서 傷別의 情을 指稱한다.

「鱸魚」은 晉代 張翰(吳人)이 洛陽의 官員으로 있을 때, 고향 吳中의 순채국(菰羹)과 농어회를 먹고 싶어 관직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간 事實에서, 思鄉의 뜻으로

사용되며, 「巨卿哭」은 東漢人 巨卿(范式)이 꿈에서 친구 張邵가 죽는 것을 보고는 휴가를 얻어 친구 집으로 갔더니 바로 그날이 그의 친구 葬禮日이었다. 마침 巨卿이 도착하여 뜻을 하자 꿈작도 않던 靈柩가 움직이기 시작하였다는 故事에서 葬送이나 죽은 친구를 애도한다는 뜻으로 쓰인다.

「雪舟訪」은 晉 王徽之가 山陰에 살 때, 어느날 밤에 많은 눈이 내려 혼자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친구 戴安道가 생각나 눈 속에 배를 타고 밤새도록 달려가 겨우 그의 문앞에 당도하였으나 친구가 보이지 않자 그는 “乘輿而行, 輿盡而返”이라며 되돌아 왔다는 故事에서, 친구를 생각하거나 방문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며, 「雷音」은 司馬相如의 <長門賦> 中에 陳皇后가 雷聲을 듣고 皇帝의 수레소리로 생각하였다고 한데서 緣由한 것으로, 수레소리에 비유하거나 故人을 생각한다는 의미 혹은 皇帝의 수레 소리를 지칭한다.

杜牧詩의 예를 보면, <冬至日遇京使發寄舍弟>의 「姜被」는 姜肱·仲海·季江의 3형제의 우애를 杜牧과 동생 杜顓와의 관계에 비유하였고, <寄內兄和州崔員外十二韻>의 「埴簾」는 樂器 소리의 調和를 빌어 內兄인 崔員外와의 友誼가 친형제 만큼 두터웠음을 묘사하였다.

<昔事文皇帝三十二韻>의 「河梁」은 離別의 정이 <與蘇武>에서의 別恨 보다 더 깊음을 나타내었고, <聞角>의 「悲秋」는 傷別의 아픔을 통해 호각소리의 구슬픔을 표현하였다.

<廬秀才將出王屋高步名場江南相逢贈別>의 「鱸魚」은 張翰(吳人)이 洛陽에 오래 머물며 고향을 그리워한 것을 빌어 작자가 고향을 떠나 江南에 오래 머물게 된 것에 비유하였고, <池州李使君歿後十一日處州新命始到後見歸妓感而成詩>의 「巨卿哭」은 巨卿(范式)이 친구 張邵의 죽음을 슬퍼한 것을 빌어 李使君의 죽음을 비통해하였다.

<湖南正初招李鄴秀才>의 「雪舟訪」은 王徽之가 친구 戴安道를 만나고자 눈 속에 배를 저어 밤새 달려간 것을 빌어 李鄴이 來訪을 요청하는 뜻으로 쓰였고, <杜秋娘>의 「雷音」은 皇帝가 杜秋娘을 다시 寵愛하지 아니함을 역설적으로 묘사하였다.

이상은 父母에 대한 孝道, 兄弟間의 友愛, 離別, 思鄉, 友情, 訪問, 哀悼, 送別의 아픔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모두 약 30條(8%)에 이른다. 가족에 대한 사랑과 친구간의 돈독한 우정 등 작자의 소박한 인간애가 담겨있다.

中書》 9卷을 전해 받아 그 책을 통달하여 마침내 卜筮術에 뛰어났다는 데에서 도술에 능한 선비의 뜻으로 사용되며, 「蓬萊」는 東海에 있는 전설상의 神山(渤海에

4. 酒에 관한 것

있음)이라 전해오는데, 이곳에는 仙人과 不死藥이 있으며, 禽獸는 모두 白色이며 궁궐은 황금과 은으로 만들어 졌다고 한다. 이 때문에 詩文에서 “蓬萊”라 함은 대개 仙境을 지칭하는 말로 쓰인다.

杜牧詩의 예를 보면, <遣興>의 「弄白須」는 齊(南朝) 高帝의 고사를 빌어 자신의 늙은 모습을 묘사하였고, <和野人殷潛之題壽筆驛十四韻>의 「星落」은 杜牧詩에서도 역시 諸葛亮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다.

<丹水>의 「子陵」은 嚴光이 隱逸之士인 점을 빌어 丹水가 조용히 낚시하는 佳境임을 강조하였고, <贈宣州元處士>의 「蓬蒿」는 元處士를 張仲蔚의 隱身不仕에 비유하여 그의 安貧自述함을 칭송하였다.

<寄題甘露寺北軒>의 「子晉」은 王子晉(王子喬)이 道를 얻어 神仙이 된 사실을 빌어 甘露寺 북쪽 난간에 오르니 마치 仙界에 오른 느낌을 받았음을 묘사하였으며, <許七侍御棄官東歸瀟灑江南頗聞自適高秋企望題詩寄贈十韻>의 「青囊」은 許七侍御가 郭璞 만큼 도술에 능한 선비임을 묘사하였고, <寄題甘露寺北軒>의 「蓬萊」는 甘露寺를 전설상의 蓬萊仙宮에 비유하여 묘사하였다.

이상은 仙界나 소극적인 現實世界를 내용으로 한 것으로, 자신의 늙어 감을 탄식하거나, 현실에 대한 소극성, 理想世界의 憧憬, 隱逸, 隱居, 神仙, 道家, 죽음, 전설이나 황당무계한 사실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였으며, 이러한 종류는 약 61條(16%)에 이른다. 現實世界에서 탈피하고 싶어하는 작자의 心境을 표출하고 있다.

6. 人生의 警戒

不念三緘事, 世途皆爾曹.<鸚鵡>...三緘.《說苑·敬慎》.《孔子家語·觀周》
九年夏四月, 天誠若言語.<李甘>...天誠.《漢書》卷27下 <五行志>
睫在眼前長不見, 道非身外更何求.<登池州九峰樓寄張祜>...眼不見睫.《史記》
卷41 <越王勾踐世家>
宋株聊自守, 魯酒怕旁圍.<新轉南曹未敘朝散初秋署退出守吳興書此篇以自見志>...守株待兔.《韓非子》卷19 <五蠹>

「三緘」은 孔子가 周나라에 가서 太廟를 보았는데, 그 오른쪽 계단 앞에 조각된 金人의 입이 세겹으로 봉하여졌고, 등엔 “故人慎言人也”라고 새겨놓았다는 데서, 말을 조심하라는 의미로 쓰이며, 「天誠」은 文帝 5년 10월 楚의 수도 彭城에 큰바람이 일어 성문이 무너져 사람이 죽었다. 이 것은 楚가 吳와 함께 謀反하면 장차 망하

게 된다는 사실을 암시한 것이 였으나, 왕이 이를 깨닫지 못하여 마침내 楚는 뭇을 따라 망하게 되었다는 故事에서, 氣象異變에 대한 인간의 警戒로 쓰인다.

「眼不見睫」은 齊나라 使者가 越王에게 “지금 越王께서 晉의 失策은 잘 알고 있지만, 越의 失策을 모른다”고 하며, “(目)見毫毛而不見其睫也”라 한 데서 나온 말로서, 남의 단점은 잘 보지만 자신의 단점은 보지 못하다는 의미로 사용되며, 「守株待兔」는 宋人이 밭을 갈다 그루터기에 받쳐 죽은 토끼 한마리를 얻고는 밭 가는 일을 중지하고 토끼만을 기다렸다는 데에서, 舊習에 얽매어 변화가 없거나 일에 융통성이 없음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다.

杜牧詩의 경우를 보면, <鸚鵡>의 「三緘」은 鸚鵡가 흉내 잘 냄을 叱責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함을 諷刺하였으며, <李甘>의 「天誠」에서는 唐 文宗 9년 4월 큰바람이 일어 나무가 뽑히는 災殃이 발생한 사건과 同年 3월 수도에 地震이 났던 일을 통해 李訓·鄭注의 弄權에 대한 警戒로 삼았다.

<登池州九峰樓寄張祐>의 「眼不見睫」는 當時 사람들이 張祐의 재주를 몰라주는 데 대한 諷刺로 사용되었고, <新轉南曹未敘朝散初秋署退出守吳興書此篇以自見志>의 「守株待兔」는 자신이 昇進과 功名을 구하지 않고 구태의연한 태도를 지니고 있음에 대한 嘲弄의 의미로 쓰였다.

이상 인간에 대한 警戒는 言行的 慎重, 자연현상의 異變으로 인한 인간에 대한 警戒, 眼前의 이익만을 따지거나 요행을 바라는 것 등을 주내용으로 하며, 이같은 類는 약 10條(3%)에 이른다. 사회에 대한 불안과 인간들의 虛勢를 嘲笑하는 작자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7. 懷才不遇, 惡意, 不平한 心情에 관한 것

自憐窮律窮途客, 正劫孤燈一局棋.<寄李起居四韻>...窮途哭. 《三國志》 卷21 <魏書·王粲傳>

上黨爭爲天下脊, 邯鄲四十五秦坑.<東兵長句十韻>...秦坑. 《史記》 卷43 <越世家>

因看魯褒論, 何處是吾廬.<李給事>...魯褒論. 《晉書》 卷94 <隱逸傳·魯褒傳>

是誰添歲月, 老却暗投人.<書事>...暗投. 《史記》 卷83 <鄒陽列傳>

去矣時難遇, 沽哉價莫酬.<牧陪昭應盧郎中在江西宣州佐今吏部沈公幕罷府周歲公在昭應牧在淮南>...沽哉. 《論語》 <子罕>

安知魏齊首, 見斷箕中屍.<杜秋娘>...箕中屍. 《史記》 卷79 <范雎列傳>

「窮途哭」은 삼국시대 阮籍이 세상을 슬퍼하며 마음이 울적할 때에, 수레를 타고 다니기를 즐겼는데, 어느날 막다른 길을 만나자 그만痛哭하며 돌아왔다는 고사에서 困境에 빠져 비탄해 함을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되며, 「秦坑」은 전국시대 越이 병사를 내어 上黨 지방을 取하자, 마침내 秦越戰이 勃發하여 秦이 越의 降卒 40만을 長平(現 山西省 固平縣 西北)에 生埋葬한 사실에서 冤痛한 사건의 뜻으로 쓰인다.

「魯褒論」은 晉 魯褒가 지은 <錢神論>을 지칭하는데, 魯褒는 당시 사회 기강이 크게 흐트러지고 금전만능의 풍조가 팽배함을 가슴아파하며,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이 책을 지어 사회가 혼탁해져 감을 풍자하였다. 여기에서 魯褒論이란 세상의 기풍이 물욕을 탐하여 卑俗해져 감을 뜻한다.

「暗投」는 鄒陽이 獄中에 있을 때 梁孝王에게 어둠 속에서 珍珠를 남에게 던지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경계심을 일으키게 하며, 던진 이에게 惡意가 있지 않나 의심하게 된다고 말한 데에서 布衣才士를 推薦해 주는 이가 없어 君主에게 쓰여지기가 어렵다는 것으로, 懷才不遇의 뜻으로 사용되며, 「沽哉」는 子貢이 孔子의 훌륭한 재주를 세상에 발휘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玉에 비유하여 問答한 내용인데, 자신의 玉을 팔기는 팔아야 하지만 지금은 장사꾼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한 것에서, 자신의 학식, 인격, 재능을 알고 기용해 주기를 기다리는 뜻으로 쓰인다.

「簀中屍」란 전국시대 魏나라 國相인 魏齊가 신하인 范雎가 齊나라와 내통한다는 죄명을 씌워 范雎에게 태형을 가하였다. 魏齊는 그가 죽은 줄 알고 대자리에 말아 화장실에 내팽개쳤다. 후에 范雎는 화장실 지기의 도움으로 탈출하여 秦나라로 가서 國相이 되어 秦王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秦王은 范雎의 원수를 갚기 위해 곧 趙王에게 서신을 보내 魏齊를 죽이도록 하였다. 마침내 魏齊는 도망할 길이 없어 자살하였다. 趙王은 그 소식을 듣고 魏齊의 목을 베어 秦으로 보낸 사건을 말한다.

杜牧詩의 경우를 보면, <寄李起居四韻>의 「窮途哭」은 阮籍의 곤경함을 자신의 처지에 비유하였고, <東兵長句十韻>의 「秦坑」은 秦越戰에 생긴 일을 빌어 唐武宗 會昌 2年(842) 昭義節度使 劉稹이 潞州(上黨)에서 朝廷에 항거하자 武宗이 병사를 내어 토벌한 사건에 比擬하여 묘사하였다.

<李給事>의 「魯褒論」은 魯褒의 <錢神論>에 기록된 내용을 빌어 당시 사회가 혼란하고 인심이 탐욕스럽고 비천해감을 표현하였고, <書事>의 「暗投」는 老年에 겪는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묘사하고 있다.

〈牧陪昭應盧郎中在江西宣州佐今吏部沈公幕罷府周歲公在昭應牧在淮南〉의 「沽哉」는 孔子의 말을 빌어 자신의 懷才不遇함을 自嘆한 것이고, 〈杜秋娘〉의 「簞中屍」는 죽음을 가장하여 생명을 건진 范雎를 지칭하였다.

以上은 才能이 있지만 불우한 생활을 하거나, 惡意, 嘲弄, 聲討, 마음의 불평, 억울함, 화근, 곤경, 거짓 위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런 류의 전고는 약 66條(17%)에 이른다. 이들에게서 자신이 국가에 대한 충정과 뛰어난 능력을 갖추었지만 항상 외직으로 나가 있어 자신의 포부를 펼칠 기회가 거의 없음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다.

8. 女人에 관한 것

向春羅袖薄, 誰念舞臺風.〈寄遠〉...舞臺風. 《拾遺記》 卷6

驚殺東隣繡床女, 錯將黃量壓檀花.〈偶作〉...東隣女. 《文選》 卷19 〈登徒子好色賦〉

細腰宮裡露桃新, 脈脈無言幾度春.〈題桃花夫人廟〉...細腰. 《墨子·兼愛中》

誰家洛浦神, 十四五來人.〈書情〉...洛神. 《文選》 卷19 〈洛神賦序〉

艷質已隨雲雨散, 鳳樓空鎖月明天.〈傷友人悼吹簫妓〉...鳳樓. 《簫史》〈樂府詩集〉 51卷

日暮東風怨啼鳥, 落花猶似墮樓人.〈金谷園〉...墮樓人. 《晉書》 卷33 〈石苞傳〉附〈石崇傳〉

「舞臺風」은 漢 成帝가 越의 飛燕과 더불어 太液池에서 노니는데, 飛燕의 몸이 너무 가벼워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그녀의 몸이 물에 빠지려 하자, 成帝는 갓끈으로 飛燕의 치마를 매어 물에 빠지지 않도록 하였다. 후에 飛燕이 점점 여위어 지자 成帝에게 자신은 비천한 여인인데, 어찌 다시 갓끈으로 치마를 매고 놀겠습니까라며 太液池의 바람을 피할 수 있는 樓臺에 자신의 치마를 매었다는 데에서 男女의 愛情을 뜻하는 의미로 사용되며, 「東隣女」는 宋玉의 〈登徒子好色賦〉와 司馬相如의 〈美人賦〉에 나오는 이야기로서, 동쪽 이웃에 사는 한 여인의 미모를 묘사한 데에서 생겨난 것으로, 美女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된다.

「細腰」는 춘추시대 楚 靈王이 허리 가는 여인을 좋아하자, 여인들이 다투어 가는 허리를 만들기 위해 식사를 줄이다가 죽은 이가 많았다는 데에서, 楚 女人을 지칭하는 말로 쓰이다가, 후에 미녀의 가는 허리 혹은 야원 여인을 일컫는 말로 사용되었으며, 「洛神」은 曹植의 〈洛神賦〉에서 그가 아름다운 洛水의 女神을 만났다는 데

에서 美女 혹은 女神의 뜻으로 쓰인다.

「鳳樓」는 南朝 陳의 姜總이 지은 <簫史曲>에 나오는 이야기로, 簫史는 秦 穆公 때의 사람으로 통소를 잘 불어 孔雀과 白鶴이 정원에 모여들 정도였다. 穆公의 딸 弄玉은 그 소리를 좋아하여 簫史에게 시집가 통소 부는 법을 배워, 마침내 鳳凰소리를 내었다니 봉황이 지붕 위로 날아와 앉았다. 簫史는 그의 부인을 위해 鳳臺를 지어 주었는데 몇 년 후에 봉황을 따라 날아가버렸다는 데에서 “鳳樓”는 公主의居所의 의미로 쓰이며, 「墮樓人」은 晉代 綠珠라는 石崇의 妓女를 가리키는 말로서, 綠珠는 미모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피리를 잘 불었다. 權臣 孫秀가 사람을 보내 그녀를 불렀으나 金谷別館에 있던 石崇은 아무 응답도 없이 “녹주는 내가 사랑하는 바이다”라고 하였다. 孫秀는 화가나 조서라 사칭하고는 석승을 체포하였다. 석승이 체포될 때 綠珠에게 말하기를 “내가 지금 너 때문에 죄를 받게 되었구나.”라 하니 綠珠는 눈물을 흘리며 “당신 앞에서 바로 죽겠나이다.”라며 樓臺 아래로 떨어져 죽었고, 石崇의 가족도 피살되었다는 고사에서 富豪의 寵妓란 뜻으로 쓰인다.

杜牧詩의 경우를 보면, <寄遠>의 「舞臺風」은 홀로 閨中에 있는 여인이 멀리 떠난 이를 생각하는 뜻으로 쓰였고, <偶作>의 「東隣女」는 여인의 미모를 빌어 자신의 風采가 非凡함을 나타내고 있다.

<題桃花夫人廟>의 「細腰」는 “細腰宮”을 楚宮에 비유하였고, <書情>의 「洛神」은 洛水의 女神을 빌어 아름다운 소녀를 묘사하였다.

<傷友人悼吹簫妓>의 「鳳樓」는 陳 穆公의 딸 弄玉의 통소 불던 곳을 빌어 妓女의居所를 지칭하며, <金谷園>의 「墮樓人」은 석승의 정원에서 생긴 역사적 사건에 대하여 추모의 정을 나타내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女人에 관한 전고는, 男女의 愛情(求愛), 美女, 寵妃, 愛妾, 公主, 宮女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약 34條(9%)에 이른다. 이들은 대개 美貌와 貞節에 뛰어난 여인들로서 작자의 여인상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이상 杜牧詩에 運用된 전고의 내용을 8分하여 살펴보았는데, 이들은 典故의 내용이 어디에 중점이 두어졌는지와 작자가 그 고사의 어떤 부분을 중심 내용으로 하여 인용하였는지에 따라서 나뉘도록 분류한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여인이 정치적인 사건에 관여되어 발생한 고사라면, 정치와 여인의 내용 중에 모두 포함될 수 있으나 작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중심내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분류를 하였다. 이러한 분류방법으로 살펴본 바 정치와 군사를 내용으로한 전고가 가장 많아 전체(383

條)의 44%(170條)를 차지하며, 다음이 懷才不遇(66條), 인생무상이나 失意(61條), 여인에 관한 것(34條), 가족이나 친구에 관한 것(30條), 술(12條), 인생의 警戒(10條) 順이다. 정치와 군사에 관한 전고가 으뜸을 차지한 것은 그의 우국정신을 반영한 詩의 내용과 무관하지 않으며, 懷才不遇 역시 宦途의 불만이나 정치 理想의 挫折을 읊은 詩에서 많이 운용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들이 杜牧詩에 사용된 전고의 대표적인 내용임을 알 수 있다.

四. 用典의 運用上 特徵

詩歌의 用典은 특별히 註釋을 가하지 않더라도 詩意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¹⁰⁾ 그러기에 用典은 冷僻難澁하거나 생소한 전고, 수사를 위한 군더더기 전고, 자신의 博學을 자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전고를 피하고,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狀況下에서 적절히 활용하면 用典은 하나의 修辭技巧로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다. 篇幅이나 字數가 제한된 格律詩에서는 用典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은데, 다만 함부로 활용하면 詩人과 讀者 사이의 감정의 통로를 가로막는 障礙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요컨대 用典을 하되 얼마만큼 자연스럽게 했느냐가 문제이며, 이러한 문제만 解消되면 詩人과 讀者와의 隔은 극복될 수가 있고, 詩語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한 含蓄性의 增大라는 측면에서도 커다란 修辭效果도 거둘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나친 用典은 그것으로 困하여 詩人의 참된 감정의 전달이 방해를 받기 때문에, 일찍이 劉勰은 《文心雕龍》에서 典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事類者，蓋文章之外，據事以類義，援古以證今者也…凡用舊合機不啻自其口出引事乖謬難千載。

(전고란 대개 문장 밖에 있는 사실을 가지고 그 뜻을 類型化하고, 옛일을 빌어서 현실을 實證하는 技法이다…지난날의 著述에서 빌어오는 機微를 알맞게만 한다면, 자기가 생각한 표현보다 배나되는 효과를 내게 된다. 하지만 타당성을 잃은 잘못된 전고의 사용은 비록 천년을 내려가도 흠이 되는 것이다.)¹¹⁾

10) 張耀輝·范培松·顧振彪, 《文學寫作技巧七十題》(安徽文藝出版社, 1987), p.187.

11) 劉勰, 《文心雕龍》〈事類〉

用典에서의 주의해야할 점을 概括적으로 언급하였다. 또 鍾嶸은 抒情을 목적으로 하는 詩歌에 있어서 用典 자체를 부인하였으나,¹²⁾ 抒情을 위주로 하는 詩는 시인의 表達하고자 하는 감정이 微妙하고 複雜한 데 반하여 제한된 詩句 때문에 의미의 숨 蓄이 필요하며,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곤란한 부분을 과거의 일을 빌어서 표현할 필요성이 요구될 경우가 있다. 이러한 用典이 杜牧詩에서 어떻게 운용되며, 그 特徵과 表現효과는 무엇인지를 다음 몇 首의 詩를 통해 대강 살펴보기로 한다.

我昨金陵過，聞之爲歎歎。
自古皆一貫，變化安能推。
夏姬滅兩國，逃作巫臣姬。
西子下姑蘇，一舸逐鴟夷。
織室魏豹俘，作漢太平基。
誤置代籍中，兩朝尊母儀。
光武紹高祖，本係生唐兒。
珊瑚破高齊，作婢舂黃糜。
蕭后去揚州，突厥爲閼氏。

(내 최근 금릉을 지나다가
杜秋娘의 운명을 듣고 눈물을 금할 수 없었노라.
예로부터 모든 일이 이와 같으니
인생의 성쇠를 어찌 예측할 수가 있으랴?
夏姬는 두 나라를 망쳐 놓고
巫臣의 첩이 되어 도망하였다.
越國의 西施는 姑蘇臺를 내려와
范蠡따라 片舟타고 五湖를 건너갔다.
薄姬는 포로 되어 織室에서 베를 짜지만
後에 文帝를 낳아 漢朝를 興盛케한 基礎를 이루었다.
竇姬를 代國의 名簿에 잘못 올려
兩朝에 걸쳐 왕후에 책봉되었다.
光武帝는 高祖를 이었으나
분디 侍女인 唐兒의 子息이다.
馮小憐은 北齊를 멸망케 했고
그녀도 쌀을 찧는 비천한 여인이 되었다.
蕭后(隋煬帝의 妃)는 揚州를 떠나
突厥에 돌아가 皇后가 되었다.)

12) 鍾嶸, 《詩品·序》〈第9段〉

이 詩는 <杜秋娘> 第33-41聯으로, 前代 女人들의 盛衰한 運命을 빌어 인간의 運命이란 豫測하기 어려운 것임을 描寫하고 있다. 杜秋娘은 본래 지방관 李錡의 妾이었으나 李錡가 반란에 실패하자 宮女에 入籍되어, 후에 황제(憲帝)의 寵姬로, 太子의 保姆로서 榮華를 누리나, 결국 정치의 희생물이 되어 고향으로 추방되는 비참한 운명을 맞는다. 杜牧은 杜秋娘이 살고 있는 潤州를 지나다 그녀의 불행한 운명에 관해 듣고는, 사람의 運命이란 榮枯盛衰의 變化가 심해 豫測할 수가 없음을 歎息하며, 많은 典故를 인용하여 杜秋娘의 불행한 운명을 읊고 있다.

여기에 引用된 典故는 모두 7種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第3聯은 春秋時代 鄭穆公의 딸인 夏姬의 運命을 묘사한 것으로, 「夏姬滅國」이란 典故를 引用하여 詩意를 강조하고 있다. 夏姬는 본디 陳大夫 御叔에게 시집가 徵舒를 낳았으나, 御叔이 죽자 陳靈公과 大夫 孔寧·儀行父와 私通한다. 徵舒는 忿怒가 치밀어 陳靈公을 살해하니, 孔寧 등은 楚國으로 도망하여 楚國으로 하여금 陳을 공격하도록 설득해 徵舒를 죽이고 夏姬를 捕虜로 잡고 陳을 滅한다. 楚 莊王은 夏姬를 尹襄老와 결합시켜 주나 襄老가 戰死하자 그녀는 楚의 大夫 巫臣과 議論하여 鄭國으로 돌아간다. 후에 巫臣이 齊國으로 가는 機會를 빌어 鄭國으로 가 夏姬를 妻로 맞이하여 晉國으로 도망한다.¹³⁾

第4聯에서는 春秋時代 越國의 美女 西施에 관한 典故를 인용하였다. 춘추시대 勾踐(越王)이 夫差(吳王)에게 敗하자 西施를 夫差에게 보내어 그로 하여금 酒色에 耽溺토록 한다. 이로 말미암아 謀臣인 伍子胥와 疏遠하게 되어 결국 吳國은 越國에 敗하게 되고, 西施는 勾踐을 도왔던 范蠡를 따라 五湖로 간다.¹⁴⁾

第5聯은 魏王의 侍妾인 薄姬의 運命을 기술한 것으로, 漢 高祖는 曹參 등으로 하여금 魏王 豹를 물리치게 한 후 薄姬를 生捕하여 織室에서 베를 짜도록 한다. 그 후 漢 高祖는 그녀를 後宮으로 삼아 마침내 아들 劉恒을 낳으니, 그가 바로 太平盛世를 이룰 수 있도록 기초를 만든 漢文帝이다.¹⁵⁾

第6聯은 漢代 竇姬의 운명을 노래한 것인데, 竇姬는 본래 呂太后의 宮女이다. 後에 呂太后는 자신의 宮女들을 帝王들에게 바치게 되었는데, 竇姬는 고향 가까운 趙國으로 가고자 官吏에게 부탁하나 官吏들의 실수로 代國으로 가는 名簿에 등록되

13) 《國語》 <楚語>(上).

14) 《吳越春秋》 卷9 <勾踐陰謀外傳>.

15) 《漢書》 <薄姬傳>.

었다. 그러나 代國으로 간 그녀는 代王의 寵愛를 받아 劉啓를 낳았으며, 代王이 卽位(文帝)하자 그녀는 皇后가 되고, 代王 太子(景帝)가 卽位하자 그녀는 皇太后가 되고, 景帝가 죽고 武帝가 卽位하니 太皇太后가 된다.¹⁶⁾

第7聯은 漢 景帝妃 程姬의 侍婢인 唐兒의 運命을 읊은 것인데, 어느 날 景帝가 王妃 程姬를 寢室로 불렀으나 그녀는 몸이 좋지 않아 대신 侍婢인 唐兒를 분장해 들여보낸다. 景帝는 그녀가 王妃 程姬인줄 알고 同寢해, 마침내 長沙定王(劉發)을 낳았다. 東漢의 光武帝는 長沙定王 劉發의 後裔이다.¹⁷⁾

第8聯은 北齊 後主의 妃인 馮小憐의 運命을 노래한 것인데, 後主(高緯)는 馮小憐을 寵愛한 나머지 國事를 소홀히 해 北周에게 滅亡 당한다. 北周 武帝는 馮小憐을 생포하여 代王(達)에게 보내니, 代王(達)의 寵愛를 받아 결국 代王의 妃를 讒害한다. 北周가 亡한 後 隋 文帝는 그녀를 代王妃의 오빠 李詢에게 보내니, 李詢의 어머니는 그녀에게 배움을 입혀 절구질을 시키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강요한다.¹⁸⁾

第9聯은 隋 煬帝의 妃인 蕭后의 운명을 읊은 것인데, 隋 煬帝가 江都(揚州)에 유람 갔을 때 宇文化及에 의해 살해당하자, 蕭后는 宇文化及을 따라 聊城으로 간다. 그후 宇文化及의 軍隊가 패하자 그녀는 竇建德의 捕虜가 되지만, 突厥 處羅可汗의 妻(隋의 義城公主)가 蕭后를 데려온다.¹⁹⁾

이상 第3-10聯은 前代 女人들의 運命이 정치적인 변화에 따라 뒤바뀐 사건을 引例한 것인데, 작자는 夏姬·馮小憐·蕭后의 예를 빌어 高貴한 신분의 여인이 奢侈와 淫亂으로 因하여 불행한 最後를 맞는 悲慘한 運命 그렸고, 微賤한 신분의 西施·薄姬·程姬·竇姬를 통하여 여인의 운명이 高貴하게 된 사실을 描寫함으로써 인간의 運命이란 豫測할 수 없는 것임을 強調하였다.

물론 이 一段은 「我昨金陵過, 聞之爲歎歎」句 만으로 詩意의 表達이 가능해, 第3聯 以下 7種의 用典은 사족에 불과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표현 속에는 굳더더기 용전으로 자신의 재능을 뽐내려는 의도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는 단지 「夏姬」, 「西子」, 「魏豹」, 「代籍」, 「唐兒」, 「高齊」, 「蕭后」의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통해 杜秋娘의 榮衰와 變化無常한 운명을 深刻하게 증명해 보이려 했다. 그는 用典을 함에 두 종류의 相反된 내용(盛衰한 女人의 運命)의 전고를 인용하여 杜秋娘의 운명

16) 《漢書》 卷6 <武帝紀>.

17) 《漢書》 卷23 <景十三王傳>.

18) 《北史》 <馮淑妃傳>.

19) 《隋書》 <蕭后傳>.

을 확연히 論證하였고, 내용상에서 보아도 복잡한 역사적 사건을 간결한 詩句로 압축하여 史實에 부합되게 묘사함으로써 상당한 설득력과 미적 감각을 살리면서 詩意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每聯에 用典을 함으로써 詩로 하여금 枯燥하게 만들어 情趣를 잃게 하고 말았다.

折戟沈沙鐵未銷， 自將磨洗認前朝。
東風不與周郎便， 東雀春深銷二喬。

(부러진 창 모래에 묻혔으나 쇠 삭지 않아
내 이를 닦고 씻자 옛것이 분명하구나.
동풍이 주량을 돕지 않았던들
동작대의 늦은 봄에는 橋公의 자매가 갈렸으리.)

이 詩는 작자가 赤壁을 유람하다, 三國時代의 赤壁大戰의 歷史的 사건을 形象的으로 묘사한 <赤壁> 詩이다. 第1-2句는 사물의 모습을 묘사하였으나, 第3-4句에서 역사적인 사건을 노래함으로써 그 사물이 역사성을 가진 것임을 밝히고 있다. 특히 第3句의 「東風不與周郎便」은 周瑜가 諸葛亮과 聯合하여 曹操의 大船團을 火攻으로 擊滅시킨 사건을 묘사한 것이다.²⁰⁾ 杜牧은 이 詩에서 用典을 하면서도 결코 直敘하지 않고 「翻案」의 手法을 이용하여 描寫함으로써 詩意를 더욱 深度있게 表출시키고 있다. 더욱이 이 詩는 形象化된 言語로써 簡潔明快하게 表現되어 輕薄하다는 評하기도 하나,²¹⁾ 그 形象이 生動的이고 鮮明하여, 藝術 處理上 성공을 거둔 作品이라 할만하다.

이와 같이 杜牧은 典故를 작품 속에 融化시켜 자연스럽게 運用함으로써 讀者가 用典의 출처나 심지어 用典의 사용여부를 모른다 할지라도 詩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는 것이 많다. 그는 用典의 材料가 풍부하면 簡約하게 사용하였고, 사실을 말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用典을 빌어 숨긴 뜻을 섞었고, 잘 알려진 故事는 드러나지 않게 사용하려 했으며, 無味乾燥한 詩句에 生氣를 불어넣었다.

한편 詩意에 알맞는 말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스스로 故事에 적합한 詩語를 創造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楚漢戰을 背景으로 한 <題烏江亭>을 보기로 한다.

20) 《三國志·吳志》〈周瑜傳〉.

21) 沈德潛, 《唐詩別裁》 卷4.

勝敗兵家事不期，包羞忍恥是男兒。
江東子弟多才俊，卷土重來未可知。
(승패는 병가의 혼한 일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니
패배의 수치를 참는 자가 진정한 대장부로다.
강동의 자제 중엔 우수한 인재 많아
권토중래할 수 있을지 모르지 않는가?)

烏江亭은 紀元前 203年 項羽가 垓下에서 劉邦軍에게 包圍당해 戰爭에 敗함으로 써 自刎한 곳이다. 작자는 이 詩에서, 項羽가 비록 劉邦에게 敗하였지만 결코 挫折하지 말고 江東의 훌륭한 俊才들을 다시 모아 捲土重來하지 않은 것을 애석해하고 있다. 작자는 여기서 역사적인 사건을 표면에 드러내지 않고 자연스럽게 묘사함으로써 詩를 이해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典故의 사용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그 운용의 묘를 살렸다. 이는 王士禎이

作詩用事以不露痕迹爲高…用古事古論暗藏其中，若出諸己。

(시를 짓는 데 있어서 전고의 사용은 그 흔적이 나타나지 않아야 최고이다…古事古論을 사용함에 몰래 그 속에 감추고 마치 작자로부터 나온 것처럼 해야 한다.)²²⁾

라고 한 것과도 부합되는 것으로, 用典의 修辭技法이 탁월함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의 ‘捲土重來’라는 전고는 杜牧이 本詩에서 사용한 「卷土重來」에서 由來한 것으로, 복잡하게 표현될 역사적 내용을 단지 몇 字의 詩語로 凝縮시켜 묘사함으로써 그의 新造語를 後人들이 자주 인용하게 되었다.

細腰宮裡露桃新，脈脈無言度幾春。
至竟息亡綠底事，可憐金谷墮樓人。

(細腰宮엔 이슬 머금은 도화 갓 피었지만
그대는 말없이 보낸 봄날이 얼마이던가.
息國의 멸망은 무슨 일 때문인가?
금곡원 누각에서 떨어진 사람이 가련하구나.)

22) 王士禎, 《池北偶談》.

이 詩는 정치적 犧牲物이 된 息夫人의 불행한 삶을 描寫한 <題桃花夫人廟>인데, 息夫人은 春秋時代 陳侯의 딸로 姓이 '媯'이며, 일찍이 息國의 國君에게 시집가 '息媯'라 稱해졌다. 《左傳》에는 楚文王이 息媯의 美貌를 보고 곧 兵을 伐하여 息國을 滅하고 息媯를 자신의 소유로 만들었다고 기술하고 있다.²³⁾

작자는 「細腰宮」, 「墮樓人」의 典故를 인용하여 息夫人의 姿態와 운명을 묘사하였는데, 「細腰宮」은 楚宮을 지칭하는 것으로, 楚靈王이 細腰의 美人을 좋아한 까닭에 宮中에는 굵어 죽은 여인이 많았다고 한 데서 楚宮을 細腰宮이라 불렀다.²⁴⁾ 사실 楚靈王은 楚文王보다 약 200年 後의 人物이니 息夫人이 居住하던 楚宮을 細腰宮이라 부른 것은 楚宮의 對稱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墮樓人」은 晉石崇의 愛妾인 綠珠를 지칭하는데, 當時 越王의 部將 孫秀가 綠珠를 요구하자 石崇이 반대해, 그 결과 石崇은 억울하게 罪를 받게 되었고, 綠珠는 樓閣에서 떨어져 자살하였다.²⁵⁾ 「息夫人」을 「墮樓人」에 비유한 것은 劉向의 《列女傳》에서 息媯가 屈辱을 참지 못해 息君과 함께 自殺했다는 기록에 근거한 것으로, 《左傳》의 기록과는 다르다. 이는 작자가 息夫人을 충절의 여인상으로 浮刻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典故의 사용은 마땅히 事實에 부합되어야 하나 이 시처럼 한 대상물을 미화시키거나 강조하기 위해서 유사한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가 있다. 또 그의 詩에는 熟事를 實用하여 膚淺하거나 僻事를 虛用하여 晦澁한 경우도 없지 않다. 이는 晚唐 詩인들의 用典을 즐겨하는 풍토 속에서, 作者 역시 典故를 詩句 속에 다량 애용함으로써 빚어진 결과로 보인다. 少量이기는 하나 杜牧詩에는 用典을 자칫 誤用한 사실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니 예를 들면, <過華清宮絕句>의 「長安廻望繡成堆, 山頂千門次第開. 一騎紅塵妃子笑, 無人知是荔枝來.」(장안에서 돌아보니 비단이 쌓인 듯, 산위엔 천 개의 문 차례차례 열리네. 한 필 말의 붉은 먼지에 양귀비 미소짓지만, 여지가 실려움을 아는 이 없으라.)에서 楊貴妃가 驪山에서 荔枝를 먹었다고 하였으나, 사실 天寶 4年 楊貴妃가 玄宗의 貴妃가 된 以後부터 安史亂이 일어나기까지 이 곳은 줄곧 楊貴妃가 겨울을 보내었던 安樂處였으며, 楊貴妃는 10월에 驪山으로 들어가 이듬해 春節이 되어야 長安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荔枝는 盛夏에 익게 되어 먹을 수가 있는 것으로,²⁶⁾ 用典을 함에 역사적인 사실을 흘시한 것이라 하겠다. 그

23) 《左傳》<莊公十四年>.

24) 《後漢書》卷54 <馬廖傳>.

25) 《晉書》卷33 <石苞傳>附(石崇傳).

러나 玄宗과 楊貴妃의 荒淫無道함을 暴露하기 위해 驪山과 荔枝를 한 곳으로 집중시켜 표현한 점에 대해서는 用典에 비록 小誤가 있다 할지라도 詩意를 강조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몇몇 작품에서 이런 현상이 발견되기는 하나 대부분의 작품에서는 사실에 부합된 전고의 운용으로 詩意를 충실히 表達하고 있다.

杜牧詩의 用典은 한 首에 적게는 1條에서 많게는 수십 條의 用典을 取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杜秋娘>은 27條, <感懷詩>와 <奉和門下相公送西川相公兼領相印出鎮全蜀>에 각각 11條, <池州送孟遲先輩>에 10條, <往年隨故府吳興公夜泊蕪湖口今赴官西去再宿蕪湖感舊傷懷因成十六韻>에 8條, <昔事文皇帝三十二韻>에 9條, <李給事>에 7條, <東兵長句十韻>·<題桐葉>·<除官歸京睦州雨霽>이 각각 6條, <李甘>·<奉送中丞姊夫主自大理卿出鎮江西敘事書懷因成十二韻>·<題永崇西平王宅太尉懋院六韻>에 각각 5條가 운용되었다.

種類別로 보면, 동일한 전고가 2회 이상 사용된 것이 39條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3회씩 사용된 것은 「一麾出守」, 「長門」, 「鳳凰池」, 「錦帳郎」, 「相如」, 「挂冠」, 「姹女」, 「桓伊笛」, 「彭殤」, 「蓬萊」의 10種이며, 2회씩 사용된 것은 「乞火」, 「韋武」, 「分香」, 「四皓」, 「朱云直言」, 「冲斗」, 「江充」, 「蘇武」, 「皂囊」, 「沈碑會」, 「張仲蔚」, 「張綱」, 「觸螿尾」, 「鯨魚」, 「瑤池」, 「燕臺」, 「知非年」, 「細腰」, 「南浦」, 「珠履客」, 「秦鏡」, 「愛吾廬」, 「悲秋」, 「棠陰」, 「舜衣裳」, 「謝安」, 「虞卿雙璧」, 「戴盆」, 「黥陳」의 29種이다.

이처럼 杜牧이 많은 典故를 즐겨 驅使할 수 있었던 것은 古典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다재다능한 문장력을 통해 用典의 效用性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 하겠다.

그의 詩에 나타난 用典의 효과를 간추려 보면, 첫째 詩의 단조로움과 平凡함을 피할 수가 있었고, 둘째 언어의 凝縮性으로 詩의 外形美를 증가시켰으며, 셋째 含蓄적인 表現으로 詩意를 깊고 婉曲하게 만들었으며, 넷째 意境上의 美感을 활용하여 작품에 活力을 불어넣고 詩意를 豊富하게 만들었으며, 다섯째 原典의 文句나 詩句를 그대로 引用한 것이 많기는 하지만 자신의 情志를 나타내는데 적절히 運用하였

26) 魏慶之, 《詩人玉屑》, 上揭書, p.130.

「杜牧華清宮詩云, (詩略), 尤膾炙人口. 據唐紀, 明皇以十月幸驪山, 至春節還宮, 是未嘗六月在驪山也. 然荔枝盛暑方熟. 詞意雖美而失事實。」

고, 여섯째 새로운 詩句의 創出로 후대 문인들의 用典거리를 제공하였다.

五. 結 語

중당의 사회시가 만당으로 접어들면서 차츰 유미적인 경향을 띠기 시작하여 시인들은 시구에 많은 전고를 사용하게 되었으니 杜牧도 예외는 아니었다. 杜牧詩에는 63종의 典籍(經·史·子·集)으로부터 383條의 전고를 取해 운용하였는데, 특히 長篇古詩에 다량의 用典이 이루어져, 한 首의 詩에 무려 27條의 전고가 운용된 경우도 있다. 前代 典籍類 가운데 史部類에서 가장 많은 전고를 취하였는데, 무려 21종의 史書에서 244條의 전고를 取用하였다. 이는 杜牧이 史書에 깊은 관심과 흥미가 있었음은 물론 作詩에 역사적인 사건이나 인물을 빌어 자신의 正氣를 표현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특히 현실에의 불만이나 위정자에 대한 질책을 가하고자 할 때에는 역사적인 사실을 한두 마디의 간결한 詩語로 압축시켜 풍자하곤 하였다. 子部類에서는 28종의 전적에서 64條의 전고를 취하였는데, 이들은 주로 寓話나 逸話를 통해 직접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일을 暗示나 迂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고도의 含蓄性과 婉曲性을 기할 수 있다. 集部類에서는 8종의 典籍에서 41條의 전고를 取하였는데, 이들은 前人들이 사용한 語句를 약간 변형하거나 그대로 따와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자신의 詩句에서 새로운 意境으로 再創出시켰다. 經部類에서는 6종의 典籍에서 34條의 전고를 取하였는데, 婉曲한 표현을 피하고 직접적인 표현방법으로 人生 철학이나 生活美德을 표현하였다.

용전의 내용을 보면, 取해온 典籍類가 많듯이 그 내용 역시 다양하다. 이 중에 정치나 군사에 관한 전고가 가장 많은데, 이는 작자의 국가와 백성에 대한 관심을 표현한 것으로 杜牧詩의 주된 내용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 밖에도 懷才不遇, 失意, 인생에 대한 警戒, 友情, 여인, 술 등에 관한 전고들이 운용되었는데, 모두 작자의 內的 一面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쓰였다.

杜牧詩의 용전은 모두 성공작이라 볼 수는 없으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전고를 표면에 드러내어 묘사하는 경우와 시구 속에 감추어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경우로 兩分된다. 杜牧詩엔 쉬운 내용의 전고가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많은 경우 難澁하거나 생소한 전고가 運用되어 작자와 비슷한 지식 수준이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작

품들도 혼히 있다. 이러한 표현 태도는 시인의 입장에서 보면, 함축적인 수법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詩意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을 지 모르나, 독자의 입장에서는 이해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결국 杜牧詩의 용전은 표현의 간결함과 함축성, 詩意의 婉曲한 표현과 美句를 추구한 점에 대해서는 肯定的인 평가를 내릴 수 있으나, 詩壇의 분위기에 便乘한 지나친 用典이나 難解한 전고의 運用으로 詩意 파악을 어렵게 한 것에 대해서는 否定的인 평가를 내릴 수 있겠다.

<參考文獻>

- 《樊川文集》(四部備要), 杜牧, 臺灣商務印書館(臺北), 1965.
《樊川文集》, 杜牧, 上海古籍出版社(上海), 1965.
《杜牧研究資料彙編》, 譚黎宗慕, 臺灣藝文印書館(臺北), 1972.
《杜牧詩文選注》, 朱碧蓮·王淑均, 上海古籍出版社(上海), 1982.
《杜牧詩選》, 周錫韞, 香港三聯書店(香港), 1983.
《杜牧及其作品》, 王景霓, 吉林時代文藝出版社(吉林), 1985.
《全唐詩典故辭典》(上·下), 范之麟·吳庚舜 主編, 湖北辭書出版社, 1989.
《詩人玉屑》, 魏慶之, 商務印書館(臺北), 1980.
《美學》(4冊), 黑格爾著·朱孟實譯, 里仁書局印行(臺北), 1981.
《詩歌淺析》, 石峻, 上海書局(香港), 1981.
《詩學》, 張正體·張婷婷, 商務印書館(臺北), 1982.
《修辭學》, 黃慶萱, 三民書局(臺北), 1983.
《文學寫作技巧七十題》, 張耀輝·范培松·顧振彪, 安徽文藝出版社(安徽), 1987.
《文學描寫與技巧》, 冉欲達, 中國青年出版社(北京), 1988.
《唐詩故事》(續編), 栗斯, 中國國際廣播出版社(北京), 1988.
《唐宋詩詞故事選》, 藍谷, 中國電影出版社(北京), 1988.
《唐詩紀事》, 計有公, 商務印書館(臺北), 1968.
<杜牧詩的獨特成就>, 李曰剛, 《文風》, 1971.
<杜牧創作個性和藝術風格綜論>, 王西平, 《中國古代近代文學研究》, 1989.

沈清傳 作者 考察

——從小說中的引用資料來探討——

박 부 열*

<目 次>

- | | |
|-----------------|-----------------|
| I. 序 論 | 4) 引用詩, 文中的故事 |
| II. 本 論 | 5) 借用文(詩)人的事蹟 |
| 1. 從小說中的引用資料來探討 | 6) 直引人名, 地名或作品名 |
| 1) 直接抄錄原文 | III. 結 論 |
| 2) 意譯原文 | <參考文獻> |
| 3) 引用故事 | <提要> |

I. 序 論

韓國的古代小說大部分是作者及年代不詳的作品。因為朝鮮的儒教傳統思想社會裡，有儒教深趣的儒學文人不願寫出自己的姓名。因此，一般 Phansori 係小說之外，現存五代唱本中作者及年代真不容易考察的。因為 Phansori 到成為小說，這樣的口傳文學在考察上，沒有正確和明顯的資料，作者群也是很多，因此從文體或作者的技巧上不易攷察，都是倚靠從古代傳來的口傳的資料。所以在韓國學界，都是推論來確定其作者及年代。

韓國古代小說的創作時期大概以推定來說；韓文的創製在(世宗二十五年，西元一九四三年)之後，約經過兩百年時間中開始寫作，也就是壬辰倭亂及丙子胡亂的時期，從此就很多小說寫作了。因為次禍兩亂的創傷使體驗過的庶民，在社會生活，文化，經濟變化當中，他們的精神意識改變了，就是一般庶民的心裡已萌芽離開現實的苦痛，而撞

* 晉州看專 觀光中國語通譯科 專任講師

憬幸福的理想的生活，使得百姓對朝廷失去信心和兩班階層的無力及無能，庶民從此自覺而脫離依他的思想。其次，文學方面也和經學一樣變為一般的學問，此後韓文寫的小說廣泛地創作。這種國內膨脹的氣勢，加上傳入很多中國小說的影響，因此，在韓國很流行軍談類的小說外，也有了道術，艷情等不同的內容。

韓國古代小說是受中國小說影響之下，開始製作而創作文章體小說或翻譯或改寫過來的。其次，以廣大們來唱詞的文學 Phansori 也形成了。Phansori 也從此變成小說化。

《沈清傳》就是幾部說話變為小說的代表作。所以，《沈清傳》不是一個人的創作，這些作者群包括兩班階層，也有庶民階層，就是衙前及漢學者和廣大們。因為作品裡有很多豐富的語句或中國的故事，古詩句等來看，這些作者一定很熟習中國的文章和知識。故事中也很多韓國風味的鄉土色的文字，這就是一般庶民生活裡所使用的語言，可以證明庶民階層就廣大們參與的根據。

《沈清傳》是從說話到小說，這樣地演變過程，其中以民俗廣大的功勞最多，像申在孝一樣的衙前及一般漢學者們的改作使之成為完整的《沈清傳》。《沈清傳》可以說是很多人綜合的創作。

在這樣不知最初作者的情況下，其年代的處理也十分不容易，因此，只有籍作品裡的文章中的引據以推察出來。所以在《沈清傳》裡引用的中國典籍資料來探討沈清傳的作者考察。直接抄錄原文，意譯原文，引用故事(歷史故事，神話寓言故事，宗教故事)，引用詩，文中的故事，借用文(詩)人的事蹟，直引人名，地名，或作品名。

II. 本 論

1. 從小說中引用資料來探討

在《沈清傳》中，有許多地方引用中國典籍，無疑是受了中國傳奇·小說·戲曲·以及李白·杜甫或唐宋八大家等中國文人及文學之影響，無論是從當時學術傾向或緊隣的地關係·或文化交流的歷史性等方面來看，這種現象是必要然的結果。因此，若欲正確了解《沈清傳》之作品，并剖析其真相，不僅要探究作品之內容，而且更需要站在比較文學的立場究明作品形成之根源與出處。

今將《沈清傳》引文的資料分類敘述於下：

1) 直接抄錄原文：

這類引文係完全抄錄中國典籍之文句，或是完全抄錄，或是截錄部分，以運用到小說中。茲舉例如下：(引文部分在不面畫——)

一. 광씨부인 어진범절 조심이 坐不邊(좌불변)하고, 立不蹠(입불필)하며, 席不正不坐(석부정부좌)하며, 割不正不食(할부정불식)하고, 耳不聽淫聲(이불청음성)하고, 目不視邪色(목불시사색)하여, 심삭을 고이 채우더니,

出處：「割不正不食，不得其醬不食。-----席不正不坐。」(論語 - 鄉黨篇) 又「太任爲能胎教，古者婦人姓子，寢不側，坐不邊，立不蹠，不食邪味，割不正不食，席不正不坐，目不視邪色，耳不聽干淫聲，夜則令瞽誦時道正事。」(列女傳 - 母儀 - 周室三母傳)

二. 針線紡績(침선방직) 잘 가르치어, 窈窕淑女(요조숙녀) 좋은배필 君子好逑(군자호구) 잘 가리어 琴瑟友之(금슬우지) 즐기오고, 蠶斯羽詵先(종사우선선) 하면 外孫奉祀(외손봉사)는 못하리라,

出處：「關關雎鳩，在河之洲。窈窕淑女，君子好逑。

參差荇菜，左右流之。窈窕淑女，寤寐求之。

求之不得，寤寐思服。悠哉悠哉，輾轉友側。

參差荇菜，左右采之。窈窕淑女，琴瑟友之。

參差荇菜，左右芼之。窈窕淑女，鐘鼓樂之。」(詩經-周南-關雎)

「蠶斯羽詵詵兮，宜爾子孫振振兮。

蠶斯羽薨薨兮，宜爾子孫繩繩兮。

蠶斯羽揖揖兮，宜爾子孫蟄蟄兮。」(詩經-周南-蠶斯)

三. 이제 가면 언제 올까. 青春作伴好還鄉(작반호환향)봄을 따라오려는가.

出處：「劍外忽傳收薊北，初聞涕淚滿衣裳；却看妻子愁何在？漫卷詩書喜欲狂。白日放歌須縱酒，青春作伴好還鄉；即從巴峽穿坐峽，便下陽向洛陽。」(杜工部集-七言律詩-聞官軍收河南·河北)

四. 落日欲沒峴山西(낙일욕몰현상서) 해가 저도 부인생각, 巴山夜雨漲秋池(파산

야우창추지) 비 소리도 부인생각, 細雨清江兩兩飛(세우청강량량비)하던,

出處：「落日欲沒峴山西，倒著接離花下迷。襄陽小兒齊拍手，攔街爭唱白銅鞮。」(李太白集-襄陽歌)

「君問歸期未有期，巴山夜雨漲秋池；何當共剪西窗燭，却話巴山夜雨時？」(李義山詩集-夜雨寄北)

五. 千山鳥飛(천산조비) 끊어지고 萬逕人踪(만경인종) 바이 없다.

出處：「千山鳥飛絕，萬逕人踪滅；孤舟蓑笠翁，獨釣寒江雪。」(柳河東集-江雪)

六. 遍插茱萸少一人(편삽수유소일인)은 용산(龍山)의 兄弟離別.(형제이별),

出處：「遙知兄弟登高處，遍插茱萸少一人。」(王維-王右丞集)

七. 征客關山路幾重(정객관산로기중)은 吳姬越女(오희월녀) 夫婦離別(부부이별),

出處：「徘徊蓮浦夜相逢，吳姬越女何丰茸。共問寒江千里外，征客關山路幾重。」(王勃-王子安集)

八. 若道春風不解意(약도춘풍불해의)하면 何因吹送落花來(하인취송락화래)오.

出處：「可憐盤石臨泉水，復有垂楊拂酒盃。若道春風不解意，何因吹送落花來。」(王維-王右丞集)

九. 倉梧山崩湘水絕(창오산붕상수절)에 竹上之淚乃可滅(죽상지루내가멸)이라.

出處：「倉梧山崩湘水絕，竹上之淚乃可滅。」(李白-遠別離詩)

十. 그 뒤에 한 사람은 顏色(안색)이 憔悴(초체)하고 形容(형용)이 枯槁(고고)한 데,

出處：「屈原既放，游於江潭，行吟澤畔，顏色憔悴，形容枯槁。」(屈原-楚辭-漁父)

十一. 帝高陽之苗裔兮(제고양지묘예혜)여, 朕皇考曰伯庸(김황고왈백용)이라. 惟草木之零落兮(유초목지령락혜)여, 恐美人之遲暮(공미인지지모)로다.

出處：「帝高陽之苗裔兮，朕皇考曰伯庸，攝提貞于孟諷兮，-----惟草木之零落兮，

恐美人之遲暮。」(屈原-楚辭-離騷)

十二. 金風颯以夕起(금풍삽이석기)하고, 玉宇廓其錚嶸(옥우곽기쟁영)이라. 落霞與孤鶩齊飛(락하여고목제비)하고, 秋水共長天一色(추수공장천일색)이라.

出處：「落霞與孤鶩齊飛，秋水共長天一色。」(王勃-王子安傳-藤王閣序)

十三. 日落長沙秋色遠(일락장사추색원)하니, 不知何處弔湘君(불지하처조상군)이라.

出處：「洞庭西望楚江分，水盡南天不見雲。日落長沙秋色遠，不知何處弔湘君。」(李白-李太白集-遊洞庭湖)

十四. 輕步凌波澹明鏡(경보릉과담명경) 滿塘秋水紅蓮花(만당추수홍련화).

出處：「水宮仙子鬪紅粧，輕步凌波躡明鏡。」(長耒-荷花詞)

十五. 暗香浮動月黃昏(암향부동월황혼) 소식전번寒梅花(한매화).

出處：「疏影橫斜水清淺，暗香浮動月黃昏。」(林逋-山園小梅)

十六. 公子王孫芳樹下(공자왕손방수하)에 富貴(부귀)를손 牡丹花(모란화).

出處：「公子王孫芳樹下，清歌妙舞落花前。」(全唐時-宋之間)

十七. 不重生男重生女(부중생남중생녀), 나를 두고 이름이라.

出處：「遂令天下父母心，不重生男重生女。」(白居易-白氏長慶集-長恨歌)

2) 意譯原文：

這一類引文係襲用中國典籍中的含義，雖沒有完全抄錄原文，但是文句更改之後却和襲用的中國典籍含義完全一樣，可以說是以意譯原文的方式運用中國典籍。舉例如下：

一. 箕裘之業(기구지업)바어 없어 一間斗屋(일간두옥), 單瓢子(단표자)에 飯蔬飲水(반소음수)라.

出處：「飯疏食飲水，曲肱而枕之，落亦在其中矣。不義而富且貴，於我如浮雲。」(論語-述而第七) 又「賢哉回也，一簞食，一瓢飲，在陋巷，人不堪其憂，回也不改其樂。賢哉回也。」(論語-雍也第六)

二. 옛글에 있는 말씀 不孝三千(불효삼천)에 無後爲大(무후위대)라 하였으니,
出處：「不孝有三，無後爲大，舜不告而娶爲無後也。君子以爲猶告也。」(孟子-離婁章句上)

三. 西出陽關無故人(서출양관무고인)은 渭城(위성)의 朋友離別(붕우이별).
出處：「渭城朝雨浥輕塵，客舍青青柳色新。勸君更進一盃酒，西出陽關無故人。」(王維-王右丞集)
唐詩人王維與友離別時，作的詩。

四. 廖亮(요량)한 남은 소리 漁笛(어적)인듯 하것만은 曲終人不見(곡종인부견)에 柳色(유색)만 푸르렀다.
出處：「曲終人不見，江上數峰青。」(錢起-湘靈鼓瑟詩)

五. 月落烏啼(월락오제)깊은 밤에 姑蘇城臺(고소성대)에 배를 매고, 寒山寺(한산사)소죽소리 客船(객선)에 떨어진다.
出處：「月落烏啼霜滿天，江楓漁火對愁眠。姑蘇城外寒山寺，夜半鐘聲到客船。」(張繼-全唐詩-楓橋夜泊) 從張繼的詩中稍改變來引用的。

六. 秦淮水(진회수) 건너 가니, 隔江(격강)의 商女(상녀)들은 亡國恨(망국한)을 모르고서, 煙籠樹(연롱수), 月籠沙(월롱사)할제, 後庭花(후정화)만 부르더라.
出處：「煙籠寒水月籠沙，夜泊秦淮近酒家。商女不知亡國恨，隔江猶唱後庭花。」(杜牧-泊秦淮)

「地下若逢陳後主，豈宜重問後庭花。」(李商隱-隋宮)

「商女不知亡國恨，隔江猶唱後庭花。」(唐人劉禹錫詩)

「秦淮泊船，去找酒家，隔江商女不知亡國恨，只唱後庭花。」(韓國-高敬命的時調)
這是從南史裡的陳後主的故事引用的。南北朝時，南朝後主陳叔寶沒興趣政治而只喜

歡在宮中裡宮女玩，又喜唱玉樹後庭花。後來這曲再分爲玉樹別曲和後庭花。終於亡國，因此，這後庭花指稱亡國曲。那地方還在流行這曲。(南史-陳叔寶傳)

七. 桂櫂蘭橈下長浦(계도란요하장포)는 吳姬越女(오희월녀) 採蓮舟(채련주)요.

出處：「秋風起浪鳧雁飛，桂櫂蘭橈下長浦。----- 裴回蓮浦夜相逢，吳姬越女何丰茸。」(王勃-王子安集-採蓮曲)

八. 母女間(모녀간) 天只重(천지중) 얼굴을 모르기로,

出處：「母也天只，不諒人只。」(詩經-邶風-柏舟) 天只是天，母也天只，天只就是母，天只重，就是母親很重要的意思。

九. 梨花滿地不開門(이화만지불개문)에 長信宮中(장신궁중) 배꽃,

出處：「沙窓日落漸黃昏，金屋無人見淚痕。寂寞庭春欲晚，梨花滿地不開門。」(劉方平-春怨) 長信宮是漢皇太后居處的宮。

十. 蜀國遺恨(촉국유한) 못 이겨서, 聲聲啼血杜鵑花(성성제혈두견화).

出處：周末，蜀國王姓名是杜宇，又稱望帝。他讓給臣繁靈王位，而自幾逃走了。後來他回來想復位，但不成而死。他的魂變爲一隻鳥，在山上夜裡哭的聲音很像是：『歸蜀道』，『不知歸』。所以這鳥才稱爲『杜宇』，『杜鵑』，『望帝魂』，『招魂鳥』，『不知歸』。(華陽國志-寰宇記)

十一. 自歎(자탄)하며, 錄水秦京(록수진경)이른지라, 落水橋(락수교)를 건너.

出處：「錄水秦京道，青雲落水橋。」(宋之問-全唐詩)

十二. 珠宮貝闕(주궁패궐)은 應天上之三光(응천상지삼광)이오, 備人間之五福(비인간지오복)이라, 東(동)으로 바라보니 三百(삼백)척 扶桑(부상) 가지 日輪紅(일륜홍)이 피어 있고, 南(남)으로 바라보니 大鵬(대봉)이 飛盡(비진)하여 水色(수색)이 藍(남)과 같고, 西(서)으로 바라보니 後夜瑤池王母降(후야요지왕모강)하니 一雙青鳥(일쌍청조) 날아들고, 北(북)으로 바라보니 遙瞻何處是中原(요철하처시중원)고. 一萬青山(일만청산)이 푸르렀다. 우으로 바라보니 袖中奏何一封書(수중주파일봉

서)하니蒼生(창생)禍障(화장)을 다 제하고, 아래로 바라보니 淸曉頻聞贊拜聲(청효빈문찬배성) 江神(강신) 河伯(하백)이 朝會(조회)한다.

出處：瞿佑-剪燈新話-水宮慶會錄。

3) 引用故事：

這一類係以引用故事爲主，作者用簡單的幾個字來呈現故事，典故，而這些故事的底本，却也大量引用中國的故事。此類又可分爲歷史故事，神話寓言故事，宗教故事三類，分別舉例如下：

(一) 歷史故事

一. 夷齊(이제)의 淸廉(청렴)이오.

出處：從史記中伯夷，叔齊的故事引用。周人。姓墨胎氏。伯夷，名元，字公信。叔齊，名攸，字公遠。孤竹君之二子。伯夷知父有立弟叔齊之意，父歿後，讓國於叔齊而逃，叔齊亦讓兄伯夷而去。後，周武王伐商，夷以其非人臣之道，叩馬而諫，及周統一天下，恥食周粟，隱於首陽山餓死。

武王東伐紂，伯夷叔齊，叩馬而諫曰，父死不葬，爰及于戈，可謂孝乎，以臣弑君，可謂仁乎。左右欲兵之，太公曰，此意人也，扶而去之，武王已平殷亂，天下宗周，而伯夷叔齊恥之，義不食周粟隱於首陽山，采薇而食之，遂餓死於首陽山。(史記-伯夷列傳第一)

二. 顏子(안자)의 가난이라.

出處：春秋魯人。字子淵。孔子弟子，顏回，天資明督，貧而好學，列孔門德行科。於弟子中最賢，孔子稱其不怒，不貳過，年二十九，髮盡白，三十二，孔子哭之，後世稱爲復聖。(史記-六十七-高士傳-上)(論語-雍也第六)

三. 나는 楚(초)나라 屈原(굴원)이라. 懷王(회왕)을 섬기다가, 子蘭(자란)의 讒訴(참소) 만나 더러운 마음 씻으려고 이 물에 와 빠졌노라.

出處：戰國楚人，如屈，名平，字原，別號靈均。博聞彊記，明於治亂，仕楚爲三閭大夫，懷王重其才，靳尚輩譖而疏之，原憂愁幽思，而作離騷，冀王感悟。

頃襄王時，又王弟子蘭之讒，謫原於江南。原作漁父諸篇以見志，尋自沈汨羅而死。(楚

辭-離騷)

四. 孔明(공명)의 높은 조화 東南風(동남풍)을 빌어내어, 曹操(조조)의 百萬大軍 周瑜(백만대군주유)로 火攻(화공)하여 赤壁大戰(적벽대전)하을적에 배 아니면 어이 하리.

出處：孔明，三國，蜀漢瑯琊人。字孔明。隱於襄陽隆中，自比蒼仲，樂毅。徐庶評孔明爲謂臥龍。先主劉備，三訪其廬始獲見。既出，遂成魚水交，佐備敗曹操。平成都，取荊州，定益州，漢中之地，建國蜀中，與魏吳鼎足而立。劉備卽帝位，拜爲丞相，備死，秦遺詔輔後主。建興初，封武鄉侯，領益州牧。東和孫權，南平孟獲，據五文原與魏司馬 對陣，以疾卒軍中，年五十四，諡忠武。性長巧思，作木牛流馬，推演八陣圖，著有諸葛武侯文集。(三國志-三十五) (英雄記鈔)

周瑜，三國，吳舒人。字公瑾，佐孫策平江東，吳中呼爲周郎，後曹操東下，瑜以火攻敗操於赤壁，拜偏將軍，領南郡太守。卒年三十六。(三國志-五十四)

曹操，後漢，沛國譙人。嵩子。字孟德。小字阿瞞。一名吉利。少機警有權術。年二十舉孝廉爲郎，除洛陽北部尉，遷頓丘令，徵拜議郎，光和末黃巾起，拜騎都尉，討潁川賊，遷爲濟南相，久之，徵還爲東郡太守，不就稱疾歸鄉里，會董卓卓廢立，操散家財合義兵討卓，初平中袁紹表爲東郡太守。建安中操至洛陽，獻帝假操節鉞，-----夏侯惇勤正位，操以周文王自比，卒諡武。(三國志-一)

五. 吳(오)나라 五子胥(오자서)로다. 슬프다! 우리 聖上(성상) 伯嚭(백비) 讒訴(참소) 듣고 囑鑣劍(촉루검)을 나를 주어 목을 찢러 죽인 후에, 가죽으로 몸을 싸서 이 물에 던졌구나. 冤痛(원통)함을 못이기어 越兵(월병)이 滅吳(멸오)함을 역력히 보려 하고, 내 눈을 일찍 베어 東門上(동문상)에 걸었더니, 내 완연히 보았으나, 몸에 싸인 이 가죽을 뒤라서 벗겨주며 눈 없는게 恨(한)이로다.

出處：春秋楚人，字子胥。父奢，兄尚，爲平王所殺。員奔吳，仕行人，佐吳王闔廬伐楚，五戰而入楚都郢，時平王已卒。員掘墓鞭尸，以報父兄之仇。闔廬伐越，傷指卒，父差立，伐越大破之，越王句踐請和，夫差許之，員諫不聽。其後屢請謀越亦不納，太宰嚭得越賄，讒之，夫差賜員屬鑣之劍曰，子以此死。員謂其舍人曰，抉吾眼懸諸吳東門，以觀越人之入滅吳也。乃自剄死，後九年，越果滅吳。(史記-六十六)

六. 胡騎雪窖(호기설교) 찬바람에 蘇通國(소통국)을 離別(이별)하던 蘇中郎(소중랑)의 울음인가.

出處：漢武帝時，中郎將蘇武，當使臣去了匈奴，但匈奴單于不讓他回去，不過他並沒有投降，所以就被關在大窖中。又被搬到北海，當牧童來養羊，十九年的生活中已娶了胡女而且生了兒子(通國)。

漢昭帝時(西元前八十一年)，漢和匈奴和親。他終於回來了。但漢朝法律上兒子通國不能帶回來，就這樣悲痛地離別的故事。(漢書-蘇武傳)

七. 半夜秦關(반야진관)에 孟嘗君(맹상군)이 아니 온다.

出處：戰國齊，靖郭君纓子，姓田氏，名文，齊宰相，封於薛，號孟嘗君。養賢士食客數千人，他當使臣去秦國時，秦昭王把他關起而要殺掉他，當時賴其食客有能為鷄鳴狗盜者，得免以難。秦法律：夜中不能開城門，而早晨聽雞聲之後才可開門，因此，食客中有一位很會學鷄叫，城裡所有的鷄聽到他叫的假鷄聲後，他們一起都叫了起來。軍士才開門，因此，他可以過秦關。後歸齊不納，如魏，魏相之，合秦，趙燕破齊，齊王畏而與之和，後卒於薛。(史記-孟嘗君列傳)

八. 長沙(장사)를 지나 가니 賈太傅(가태부) 간곳 없고,

出處：漢文帝時，雒陽人，姓賈，名誼，誦詩，書能屬文。李斯之學，傳之吳公，吳公傳之賈誼。誼少晤，年二十，文帝召為博士，超遷至太中大夫。請改正朔，易服色，制法度，興禮樂。帝欲任為公卿，絳灌等忌而毀之，出為長沙王太傅，渡湘水，為賦以弔屈原，蓋以自況也，尋遷梁懷王太傅，疏陳政事，頗得治體。梁懷王墮馬死，誼自傷為傳無狀，歲餘亦死。年僅三十三。世稱賈長沙，亦稱賈太傅，又稱賈生。(史記-八十四)(漢書-四十八)

九. 賢哲(현철)하여 任姒(임사)의 德(덕)과,

出處：周文王之母太任和他的妻太姒。太任，周文王之母，王季之妻，任姓。摯國之仲女也。

摯仲氏任，自彼殷商，嫁家于周，曰嬪于京。乃及王季，維德之行，大任有身，生此文王。(詩經-大雅-大明)

太任者，摯任氏中女也，王季娶為妃，性端一誠莊，及有娠，目不視惡色，耳不聽淫聲，

口不出惡言，能以胎教，而生文王。（漢-劉向-列女傳）

太姒，周文王之妃，武王之母，莘國之女，姒姓，西伯治外，太姒治內，德政流布，風化大興。

、太姒嗣徽音，則百斯男。（詩經-大雅-思齊）

武王同母兄弟十人。母曰太姒。文王正妃也。（史記-周本紀）

三母者，太姜，太任，太姒，太姜者，王季之母，有呂氏之女，大王娶以為妃，生太伯，仲雍，王季，--- 太任者，文王之母，摯任氏之中女也，王季娶為妃，太任之性，端一誠莊，惟德之行，及其有娠，目不視惡色，耳不聽淫聲，口不出敖言，能以胎教洩于豕牢，而生文王。

太姒者，武王之母，禹后有姒氏之女，仁而明道，文王嘉之，親迎于渭，造舟為梁，及人，太姒思媚太美，太任，且夕勤勞，以進婦道，太姒號曰文母。（列女傳-母儀-周室三母傳）

十. 莊姜(장강)의 色(색)과,

出處：衛國莊公的妻姜氏，她既美麗又兼備婦德。（左傳）

「次過范郎廟，其地名孟莊，廟塑孟姜女。」溯其源，蓋本春秋時杞梁事傳會成之。（宋周燁-北轅錄）

「杞梁之妻無子 ---- 既無所歸，乃枕其夫之尸於城下而哭，---- 十日而城為之崩。既葬 ---- 遂赴淄水而死。」則是孟姜女哭長城說之所本。至唐代孟姜女故事輪廓乃大致完備。（漢劉向-列女傳-齊杞梁妻）

十一. 東方朔(동방삭)의 命(명)을 주고,

出處：漢武帝時人，活了三千甲子。「東方朔者，平原厭次人也，久在吳中，為書師數十年。武帝時上書說便宜，拜為郎。---- 至宣帝初，棄郎以避亂世，置贖官舍，風飄之而去。後見於會稽賣藥，五湖智者，疑其歲星精也。」（列仙傳-卷下）

十二. 石崇(석송)의 服(복)을 내려,

出處：晉，南皮人。字季倫。生於青州，小字齊奴。累官荊州刺使，遷衛尉，使客航海致富，置金谷別墅於河陽，與王愷，羊琇之徒，以奢靡相尚，諂事賈謐，及謐誅，崇以黨與免官，家有美姬曰綠珠，孫秀欲得之，求於崇，綠珠墮樓自盡，秀怒，讒於趙王倫，矯詔教崇，一門皆死。（晉書-三十三-琅琊代醉編-二十八）

十三. 大舜(대순) 曾子(증자)의 孝行(효행)이며,

出處：亦稱虞舜，關於堯二女助舜戰勝其傲狼之弟象，「舜父瞽叟盲，而舜母死，瞽叟更娶妻而生象。象傲，瞽叟愛後妻子，常欲殺舜。——舜年二十，以孝聞。三十而帝堯問可用者，四岳皆薦虞舜，曰可。於是堯乃以二女妻舜以觀其內，使九男與處以觀其外。——堯乃賜舜郟衣，與琴，爲築倉廩，與牛羊。瞽叟尙欲殺之。」（史記-五帝本紀）

後南舜狩，崩於蒼梧之野（史記-五帝本紀），葬九疑山之陽（帝王世記集校-第二）。二妃從征，溺於湘江，神遊洞庭之淵，出入瀟湘之浦。（水經注-湘水）

大舜的孝順是孝感動天；隊隊耕春衆，紛紛耕草禽。嗣堯登帝位，孝感動天心。（二十四孝故事）

曾參之孝順是齒指心痛；母指方纒齒，兒心痛不禁。負薪歸未晚，骨肉至情深。（二十四孝故事）

十四. 班姬(반희)의 才質(재질)이며,

出處：班昭，東漢和帝時，安陵人，字惠姬，一名姬，文章和才智很有名。彪女，曹世叔妻，早寡，博學高才，兄固著漢書，其八表及天文志，未意而卒。和帝詔昭就東觀藏書踵而成之，帝數召入官，令皇后諸貴人師事之，號曰大家，世稱曹大家，嘗作女誡七篇。（後漢書-一百十四）

十五. 子路(자로)는 賢人(현인)으로 百里負米(백리부미)하여 있고,

出處：春秋魯，卞人，仲由之字，亦稱季路。孔子弟子。少於孔子九歲，別孔門政事科。性好勇，喜聞過，事親孝，嘗爲親孝負米於百里外。（史記-六十七）（左氏-定-十二-哀-十五）

子路的孝順是負米養親。「負米供甘旨，寧辭百里遙。身榮親已沒，猶念舊劬勞。」（二十四孝故事）

十六. 옛날 緹榮(제영)이 長安城(장안성)에 갇힌 아비 위해,

出處：漢太倉令淳于意的少女。意無男，有五女。漢文帝四年，淳于意有罪被逮，緹榮隨父入長安，上書請入身爲官婢，以贖父刑，使得自新。履悲其意，爲除肉刑，意得免。見史記-0五倉公傳（漢書刑法志）（劉向-列女傳）

(二) 神話寓言故事：

一. 童女(동녀)를 실었으니 秦始皇(진시황)의 採藥(채약) 댐가? 方士(방사)는 없었으니 漢武帝(한무제)의 求仙(구선) 댐가?

出處：秦始皇，莊襄王子，姓嬴，名政，有雄才，父死，嗣立爲秦王，是秦朝統一中國的皇帝（西元前二四六年至前二一〇年）。統一中國後，他想要維持這富貴和長壽，求長生術中，聽說東海中有一座三神山，山上有生長不老藥草，因此，秦始皇叫方士徐市去求拿藥草回來，就載著童男童女各三千人坐船去了。以後永遠不回來了。（史記-仙傳拾遺）

漢武帝，景帝中子，名徹，嗣景帝而立，以即位之年爲建元元年，是爲帝王有年號之始。漢朝第四代皇帝（西元前一四〇年至前八七年），漢武帝很喜歡仙道，他有幾次派人，坐船去求海裡有一座三神山裡的不老草。（史記-十二）（漢書-六）

二. 우리 聖君有虞氏(성군유우씨)가 南巡(남순)하시다가 蒼梧野(창오야)에 崩(붕)하시니,

出處：有虞，五帝之一，姚姓，名重華，其先國於虞，號有虞氏，性至孝，父頑，母嚳，弟象，常欲殺之，舜修孝道日謹，其父亦允若，堯用之，使主事而事治，使主祭而百神享，乃使攝位三十年，遂受禪爲天子都於蒲阪，在位四十八年，南巡，崩於蒼梧之野，年百有十歲以子商均不肖，傳位於禹。（書經-堯典-舜典）（史記-一）

三. 軒轅氏(헌원씨)배를 모아 以濟不通(이제불통)하옵신후, 후생이 本을 받아 다 각기 偉業(위업)하니 莫大(막대)한 功(공)이 아닌가.

出處：黃帝號也，黃帝，少典之子也曰軒轅。（大戴禮-五帝德）

黃帝者，少典之子，姓公孫，名曰軒轅氏。（史記-五帝紀）

黃帝作軒冕之服，故爲之軒轅。（漢書-古今人表-注）

黃帝居軒轅之丘，娶於西陵氏之子，謂之祖氏，產青陽及昌意。（大戴禮-帝繫）

四. 夏禹氏(하우씨) 九年之水(구년지수) 배를 타고 다스리고, 五服(오복) 소정공 세우고,

出處：夏代開國之主，顓頊孫，姓姒氏，其號曰禹，亦曰文命，初封夏伯，故亦曰伯禹，

堯時，其父緜治水無功，爲舜所殛，禹繼父之業，水患以平，諸方致貢，舜受舜禪爲天子，即以初封之地夏，爲有天下之號，史稱夏禹，又稱夏后氏，都安邑，後南巡，崩於會稽，在位八年。（史記-二）

五. 黃陵廟(황릉묘) 二妃(이비) 전에 회포말을 하려갔다.

出處：漢劉向《列女傳-有虞二妃》說：「有虞二妃，帝堯二女也，長娥皇，次女英。」《史記-五帝本紀》集解引《帝王世記》云：「娥皇無子，女英生商均。」北魏酈道元《水經注-湘水》：「大舜之陟方也，二妃從征，溺於湘江，神遊洞庭之淵，出入瀟湘之浦。」而唐李賢注《後漢書-張衡傳》引《列女傳》云：「舜陟方，死於蒼梧，二妃死於江、湘之間，俗謂之湘君，湘夫人也。」唐韓愈《黃陵廟碑》亦云：「堯之長女娥皇爲舜正妃，故曰君；其二女女英自宜降爲夫人。」

黃陵廟：中國湖北省湘南縣北邊，舜南巡時在蒼梧山死後，他的二妃很傷心就來到瀟湘江每天哭，後來死了，眼淚掉到竹葉上，變了血而成紋，到今天那邊的竹還是有紅斑點，這就是瀟湘斑竹。二妃埋在黃陵山，旁邊做了一座祠堂，四時去拜拜，這祠堂叫黃陵廟。（中文大辭典）

六. 郭巨(곽거)라 하는 사람 父母前(부모전)에 孝道(효도)하여 饑羞(찬수) 공경극진할때,

出處：晉，隆慮人，一云河內溫人。兄弟三人，早喪父，有錢二千萬，二弟各取千萬，巨獨與母居，夫妻傭賃以養，妻產男，巨以老人得食，喜分兒孫，必減饌，乃掘地欲埋兒，得石蓋，下有黃金一釜，中有丹書曰，孝子郭巨，黃金一釜，以用賜汝，於是名振天下。（干寶-搜神記）

按俗以此事爲二十四孝之一。「郭巨思供親，埋兒爲母存。黃金天所賜，光彩照寒門。」（二十四孝故事）

又孝豐縣志亦載此事，但謂郭巨得金，時以爲孝感所致，因名縣曰孝豐，是以郭巨爲孝豐人矣。（孝豐縣志）

七. 孟宗(맹종)은 孝道(효도)하여 嚴冬雪寒(엄동설한)에 竹筍(죽순) 얻어 父母供養(부모공양)하였으니,

出處：三國吳，姜夏人。字恭武。後避孫皓字，改名仁，少從李肅學，讀書不懈，肅奇之

曰，卿宰相器也。宗亦至孝，母嗜筍，冬日筍未生，宗入林哀歎，筍忽進出，時以為孝感所致。（楚國先賢傳）

孟宗母嗜筍，冬節將至，時筍尚未生，宗入竹林哀歎，而筍為之出，得以供母。（三國志-四十八）（晉書-九十四）

孟宗的孝順是哭竹生筍。「淚滴朔風寒，蕭蕭竹數竿。須臾冬筍出，天意報平安。」（二十四孝故事）

八，王祥(왕상)은 扣氷(구빙)하여 어름 굼게 잉어얻고,

出處：晉，臨沂人。字休徵。事繼母篤孝。有臥冰求鯉，黃雀入幕諸事傳稱於世。魏時，舉秀才，累官大司農，封萬歲亭侯。武帝時，拜太保，晉爵睢陵公。卒諡元。（晉書-三十三）（二十四孝故事）

九，五更時(오경시)를 咸池(함지)에 머무르고, 내일 아침 돋는 해를 扶桑(부상)에 매었으면,

出處：「日出於暘谷，浴於咸池。拂乎扶桑，是謂晨明；登于扶桑，爰始將行，是謂朏明。」（淮南子-天文訓）

天上西涯有大水咸池，天上東涯有大桑樹扶桑。太陽於扶桑出現，沒於咸池。這桑樹上有一隻金雄鷄，過了一夜而朝晨起鳴，那麼世界的鷄也跟著一起起鳴，這時太陽就會從桑樹上出現。

「飲余馬於咸池兮，總余轡乎扶桑。折若木以拂日兮，聊逍遙以相羊。」（楚辭-離騷）

十，月宮姮娥(월궁항아) 짝이 되어 道學(도학)하러 올라갔다.

出處：后羿的妻，世稱為常娥，嫦娥。「羿請不死之藥於西王母，姮娥竊以奔月，帳然有喪，無以續之。」（淮南子-覽冥訓）

十一，三千碧桃瑤池宴(삼천벽도요지연)에 西王母(서왕모)따라 갔나.

出處：女仙名，居崑崙東山的閼風苑，有九層的玉樓玄臺，左邊有瑤池，右邊有翠水而有蟠桃樹，開花有果實時間是三千年，有時在瑤池裡請神仙開蟠桃宴。（列仙傳）

神名「玉山，是西王母所居也。西王母其狀如人，豹尾虎齒而喜嘯，蓬髮戴勝，是司天之厲及五殘。」（山海經-西次二經）

十二, 瀟湘斑竹(소상반죽) 열두 마디 쇠고리 길게 달아,

出處：亦名湘妃竹。

堯之二女，舜之二妃，曰湘夫人。舜崩，二妃啼，以涕揮竹，竹盡斑。（晉張華-博物志-史補）

斑竹卽吳地稱湘妃竹者，其斑如淚痕。世傳二妃將沈湘水，望蒼梧而泣，灑淚成斑。（明王象晉-群芳譜）

十三, 얼굴은 荊山白玉(형산백옥) 같고,

出處：荊山所產之玉也。人人自謂握靈蛇之珠，家家自謂抱荊山之玉。（文選-曹植-與楊德祖書）

是和氏之璧，韓非子詩曰，楚人和氏，得玉璞於楚山之中，奉而獻之厲王，厲王使玉人相之，玉人曰，石也，王以和爲誑，而刖其左足。及厲王薨，武王卽位，和又奉其璞而獻之武王，武王使玉人相之，又曰，石也，王又以和爲誑，而刖其右足。武王薨，文王卽位，和乃抱其璞而哭於楚山之下，三日三夜，淚盡而繼之以血，王聞之，使人問其故。和曰，吾非悲刖也，悲夫寶玉而題之以石，貞士而名之以誑，此吾所以悲也，王乃使玉人理其璞而得寶焉，遂命曰和氏之璧。（韓非子-和氏）

荊山，在湖北省南漳縣西。卞和得玉於楚荊山，頂上有池，并有石室，相傳云，是卞和宅。（太平寰宇記）

十四, 잠을 깨니 南柯一夢(남가일몽)이라.

出處：「周生暴疾已逝，田子華亦寢疾於床。生感南柯之虛浮，悟人世之倏忽。-----」（李公佐-《南柯太守傳》）

「人間君臣眷屬，螻蟻何殊？一切苦樂興衰，南柯無異，等爲夢境，（湯顯祖-南柯記-第四十四齣）

是南柯太守傳及南柯記的故事裡所有的人生是一場夢的思想來引用來的。

（三） 宗教故事：

一, 王子晉(왕자진)의 鳳(봉)피리,

出處：周靈王太子，名晉，本姬姓，以直諫廢爲庶人。一說，晉好吹笙作鳳鳴，遊伊洛之間，道士浮丘生接晉上嵩高山，三十餘年，後見桓良。謂曰，可告我家，七月七日候我於緄氏山巔，至期，果乘白鶴駐山頭，可望不可到，舉手謝時人，數日方去，後立祠亭氏山下。（逸周書-太子晉解）（列仙傳）（陔餘叢考-卷三十四）

二，弄玉(농옥)의 통소,

出處：春秋秦穆公女，有蕭史善吹蕭，弄玉好之，公遂以嫡蕭史，日就蕭史學蕭作鳳鳴，感鳳來止，後夫婦飛昇去，秦人於雍宮爲作鳳女祠。

列僊傳曰，蕭史，秦繆公時，善吹蕭，公女弄玉好之，以妻之，遂教弄玉作鳳鳴，居數十年，吹鳳皇聲，鳳來止其屋，爲作鳳臺，夫婦止在上，一旦皆隨鳳皇飛去。（後漢書-矯慎傳注）

又有鳳臺鳳女祠，秦繆公時，有蕭史者，善吹蕭，能致白孔雀，繆公女弄玉好之，公爲作鳳臺以居之，積數十年，一旦隨鳳去云。（水經-渭水注）

三，琴高(금고)의 거문고,

出處：琴高者，周末趙人也，以琴爲姓，宋康舍人。（列仙傳）

趙人有琴高者，以善鼓琴，爲康王舍人，行彭涓之迹，浮遊碭群間二百餘年，後入碭水中，取龍子，與弟子其曰，皆潔齋待于水旁，設屋祠，果乘赤鯉魚出，人坐祠中，碭中有可萬人觀之，留月餘，復入水也。（水經-獲水注）

四，安期生(안기생)은 鸞鳥(난조)타고,

出處：安期生爲秦瑯琊阜鄉人，賣藥於東海邊，時人皆稱之爲千歲翁。秦始皇東遊請見，與語三日三夜，始皇異之。賜金璧度數千萬，出於阜鄉亭皆置去，以赤玉舄一雙爲報，留書曰：『後世求我於蓬萊下。』始皇即遣使者徐市，盧生等數百人入海，未至蓬萊山，輒蓬風波而還立祠於阜鄉亭海邊數十處。（歷世眞仙體道通鑑）

五，赤松子(적송자)는 구름타고,

出處：亦作赤誦子。聞赤松之清塵兮，願承風乎遺則。（楚辭-遠遊）

赤松子者，神農時雨師也，服水王以教神農，能入火自燒。往往至昆侖山上，常止西王母石室中，隨風雨上下。炎帝少女追之，亦得仙俱去。（列仙傳卷上）

按《山海經-南山經》「(堂庭之仙)多水玉」，郭璞注：「水玉，今水精也。……赤松子所服。」水精，即水晶，赤松子服以登仙，然此僅為登仙手段之初階，進一步則須達「人火自燒」之境界，是為真登仙。

又韓嬰《韓氏外傳》五云：「帝學乎赤松子。」則赤松子復為帝（高辛氏）之師。

六，葛仙翁(갈선옹)은 사자(사자)타고,

出處：仙公姓葛名玄，字孝先，三國時代，慕鮮術，學煉氣保形之道，後於閩早山靈寶法壇上白日飛昇，宋特封沖應孚佑真君，流傳天台派（歷世真仙體道通鑑）

4) 引用詩，文中的故事：

這一類引文係以中國的詩或文中的故事作為典故的運用，舉例如下：

一，河梁落日數千理(하량일수천리)는 蘇通國(소통국)의 母子離別(모자이별).

出處：「攜手上河梁，遊子暮何之。」（李陵詩）

漢武帝時，李陵與匈奴戰敗投降後，連擔任使臣的蘇武也被俘虜。後來昭帝和匈奴和親時，蘇武被允許回國，但李陵不准，這時李陵作藹一首詩，可能用這句來改作的。後來都稱一般離別的場所為河梁。

蘇武回來時，他的兒子（通國）和太太（娶的胡女）被留在匈奴。宣帝時，使臣帶去黃金兩千兩給匈奴，但只有兒子可回來，他太太還不准，因此他們母子之間永遠離別了。這故事引自《漢書》《蘇武傳》

二，曹孟德(조맹덕) 一世之雄(일세지웅) 而今安在哉(이금안재재)오.

出處：這句話是從蘇軾的前赤壁賦裡的一句，「『月明星稀，烏鵲南飛。』此非曹孟德之詩乎？……固一世之雄也，而今安在哉？」引用的。（蘇軾-東坡集-前赤壁賦）

三，木蘭(목란)의 節概(절개)라.

出處：古女子名。當時方徵兵，木蘭父有名在兵書，年老，木蘭因易，冒父名從軍，歷十二年歸，人始知其非男子，其為何時代人，不一說，姚康紀行以為北魏孝文帝，宣文帝時人，宋鳳過庭錄以為隋恭帝時人。程大昌演露以樂府木蘭篇中有可汗大點兵語，謂其

生世，非隋既唐。

木蘭辭，古樂府，作者未詳，歌詠木蘭代父從軍之記事請也。（樂府詩集-橫吹曲辭-木蘭詩）

四，盜跖(도적)인들 괘시하라.

出處：人名，跖亦作蹠。春秋，魯，柳下惠（季）之弟。「孔子與柳下季爲友，柳下季之弟，名曰盜跖。盜跖從卒九千人，侵暴諸侯，穴室樞戶，驅人牛馬，取人婦女，貪得忘親，不顧父母兄弟，不祭先祖。」（莊子-雜篇-盜跖）

「蹠者，黃帝時大盜之名：以柳下惠弟爲天下大盜，故世放古號之盜蹠。」（史記-伯夷列傳）

5) 借用文(詩)人的事蹟：

這一類引文係綜合了作者，作品二者，當作典故在運用。其例如下：

一，黃學樓(황학루)다다르니 日暮鄉關何處是(일모향관하처시)오. 煙波江上使人愁(연파강상사인수)는 崔顥(최호)의 遺跡(유적)이라.

出處：「日暮鄉關何處是，煙波江上使人愁。」（崔顥-黃鶴樓）

二，鳳凰臺(봉황대)다다르니 三山半落靑天外(삼산반락청천외)요. 二水中分白鷺洲(이수중분백로주)는 太白(대백)이 노던 데요.

出處：「三山半落靑天外，二水中分白鷺洲。」（李白-鳳凰臺）

三，溇陽江(심양강)다다르니 白樂天(백락천)이 어디가고 琵琶聲(비파성)이 끊어졌다.

出處：「溇陽江頭夜送客，楓葉荻花秋琵琶。主人下馬客在船，舉酒欲飲無管絃。」白居易在溇陽江和友人離別時，作了琵琶行的詩。（白居易-白氏長慶集-琵琶行）

四，赤壁江(적벽강)그절가라. 蘇東坡(소동파) 노던 風景(풍경) 依舊(의구)히 있다 마는,

出處：蘇東坡在赤壁江遊歷後，寫了赤壁賦。（蘇軾-東坡集-赤壁賦）

五，舟搖搖而輕颺(주요요이경양)하니, 陶淵明(도연명)의 歸去來(귀거래)요.

出處：「舟搖搖以輕颺，風飄飄而吹衣。」（陶潛-陶淵明集-歸去來辭）

六，海闊孤帆遲(해활고지)는 張翰(장한)의 江東去(강동거)요.

出處：「張翰江東去，正值秋風時。天清一雁遠，海闊孤帆遲。」（李白-李太白集）

這是齊王時，張翰在洛陽作官，秋天吹風時，突然想起故鄉的鱖魚膾，他就回去江東（江蘇省）了。

七，壬戌之秋(임술지추) 七月(칠월)에 縱一葦之所如(종일위지소여)하여 蘇東坡(소동파)늘아 있고.

出處：「壬戌之秋，七月既望，----- 縱一葦之所知，凌萬頃之茫然。」（蘇軾-東坡集-前赤壁賦）

八，龍山(용산)의 兄弟離別(형제이별).

出處：『龍山』是晉人孟嘉的故事，他是桓溫的參軍，九月九日時，桓溫和官員一起去龍山玩。這時，孟嘉的帽子被風吹落。但孟嘉還不知這事，桓溫也叫賓客別告訴他這事，後來人家稱；九月九日稱爲落帽之辰，或登山會稱爲龍山會，或九月九日的詩會稱爲龍山吟。（晉書-孟嘉傳）

九，阮籍(완적)의 휘파람.

出處：三國魏慰氏人。字嗣宗。爲竹林七賢之一。博覽群籍，尤好莊老。善嘯能琴，尤嗜酒，每沈醉遠禍。聞步兵廚釀，貯酒三百斛，乃求爲步兵校尉。能爲青白眼。常率意命驚，途窮輒慟哭而返。著有詠懷詩八十餘篇，及達生論，大人先生傳等。（三國志-二十一）（晉書-四十九）

6) 直引人名 - 地名或作品名：

這一類引文係直接引用中國的人名，地名或作品的篇名，融入其作品中。舉例如下：

一, 黃州(황주) 桃花洞(도화동) 사는,

出處：黃州，府名，桃花洞，鎮名。在湖南省寶慶縣南。湖北省黃州府黃安內的鎮名。但這裡的桃花洞可能是陶淵明的「桃花源記」所說的地方。因為也有武陵村。（讀史方輿紀要-廣東-廉州府-欽州）

二, 武陵村(무릉촌)의 張丞相(장승상) 부인,

出處：郡名。漢置。治義陵，在今湖南省溆浦縣南，東漢移治臨沅，在今湖南省常德縣治，隋移今常德縣治，唐改置郎州，宋置郎州武陵郡，壽廢。武陵郡，戶三萬四千一百七十七，口十八萬五千七百十八，縣十三，索，孱陵，臨沅，沅陵，鐸成，無陽，遷陵，辰陽，西陽，義陵，良山，零陽，充。（漢書-地理志上）

隋置。即今湖南省常德縣。武陵縣，附郭，本漢武陵郡之臨沅縣，後漢為武陵郡治，晉以後因之，梁為武州治，陳為沅州治，隋改置武陵縣，朗州治焉，唐宋以來，州郡皆治此。（讀史方輿紀要-湖廣-常德府）

三, 北邙山(북망산)이 멀다마소,

出處：山名，邙亦作芒，又名邙山，芒山，北山，邙山，在河南省洛陽縣北，接偃師，鞏，孟津三縣界。為灋水所出，東漢建武十一年，恭王祉葬於北邙，其後王侯公卿多葬此，金正隆間更名太平山。邙，河南洛陽北，邙山上邑也。（說文）

靈帝之末，京都童謠曰，侯非侯，王非王，千乘萬騎上北邙，案到中平六年，史侯登躡至尊，獻帝末有號，為中常侍段珪等，數人所執，公卿百官皆隨其後，到河上乃得來還，此為非侯非王，上北邙者也。（後漢書-五行志）

「洛陽北門北邙道，喪車轆轤入秋草。」又「人居朝市未解愁，請君暫向北邙遊。」（張籍詩）。現在意轉公墓。

四, 눈은 瀟湘江(소상강) 물결이라.

出處：水名。在雲南省曲靖縣南。源出馬龍縣木容菁溪。夏秋水泛，有洞庭瀟湘之勢。（四川通志）

五, 瀟湘八景(소상팔경) 열두마디 쇠고리,

出處：宋，宋迪，以瀟湘風景，寫平遠山水八幅，時稱瀟湘八景，八景者，平沙雁落，遠浦帆歸，山市晴嵐，江天暮雪，洞庭秋月，瀟湘夜雨，煙寺晚鐘，漁村落照。

度支員外郎宋迪工畫，尤善爲平遠山水，其得意者，有平沙雁落，遠浦帆歸，山市晴嵐，江天暮雪，洞庭秋月，瀟湘夜雨，煙寺晚鐘，漁村落照，謂之八景，好事者多傳之。（夢溪筆談-書畫）

六, 그곳을 지나 會稽山(회계산)에 당도하니,

出處：在山東省日照縣北。相傳越王嘗登此山，故號小會稽山。在浙江省紹興縣東南。古名防山。亦稱棟山，茅山，衡山，主峰在縣之東南。

「禹治也，憂民求水，到大越，上茅山大會計，有爵德，封有功，更名茅山曰會稽。（漢袁康-越絕書-外傳記地）

「會稽之山，西方，其上多金玉，其下多砮石，勺水出焉。（山海經-南山經）

「又有會稽山，古防山也，亦謂之爲茅山，又曰棟山。」（水經-漸江水注）

七, 上林苑(상림원)에 채우시고,

出處：苑名。本秦時舊苑，漢武帝時增而廣之。司馬相如有上林賦極言其侈。故址在今陝西省長安縣西，及整屋，鄠縣界。其周圍五百四十里，內有別宮七十餘所，後來一般皇帝的苑囿都稱上林苑。（淵鑑類函）

三十五年，作朝宮謂南上林苑中。（史記-秦始皇帝）

高帝十二年，何爲民請曰，長安地狹，上林中多空地棄，願令民得入田，毋收爲禽食。（漢書-蕭何傳）

八, 층층이 모신 시녀 廣寒殿(광한전) 시위한듯,

出處：與廣寒宮同。陸游對月詩云：「一言欲報廣寒殿，茅簷華屋均相見。」

廣寒宮，月中宮殿之名。若到廣寒宮，須有一萬億。（宣和遺事-前集下）

倒騎玉蟾飛廣寒，廣寒宮殿殊清絕。（陳書-待月壇詩）

九, 宋玉(송옥)의 悲秋賦(비추부)가 이에서 슬플소나.

出處：戰國楚鄢人。官楚大夫。憫屈原放逐，作九辯，述其志。又作招魂，風賦，高唐賦，神女賦，登徒子好色賦，詞態巧麗，開漢魏六朝靡麗之風。

宋玉賦十六篇，楚人，與唐勒并稱在屈原後也。（漢書-藝文志）
九辯者，楚大夫宋玉之所作也。（楚辭-九辯）

從上述資料性的分類，比對中，可以發現《沈清傳》中所引用的中國典籍資料相當廣泛，舉凡經·史·子·集無所不包，至如《論語》·《詩經》·《楚辭》，李白，杜甫，蘇軾等的影響更是俯拾即是，不勝枚舉。因此，更可以確知中國文化對《沈清傳》的完成，具有絕對性的直接影響。

至於從上面資料分類的內容來看：引用故事方面占了絕大多數的比例，對於中國典籍原文的截錄居於其次，而這些被引用的部分，又以詩經及唐，宋大詩人的作品居大多數，就以此來判斷：《沈清傳》絕對是再宋代以後才完成的作品。因為文化傳播有其一定程序和速度，《沈清傳》的作者，既然能夠將中國唐，宋時詩人及典籍的資料，運用的如此純熟，應當是要在中國唐，宋文化傳入韓國，經過一段時期的累積，涵孕之後，才能夠如此廣泛的運用。

但是，仍有一點相當值得注意，即《沈清傳》中已引用了《剪燈新話》的資料（見第二大類，第十二則）及『鼉參軍』，『鼉主簿』的名稱，《剪燈新話》作者為明代瞿佑，該書成於明代洪武十一年（西元一三七八年），金時習（一四三五～一四九三）作《金鰲新話》的時候，就已經很明顯的受了《剪燈新話》的影響，而《剪燈新話》也曾透過韓國在明世宗嘉靖年間傳入日本，相當得到重視，所以《沈清傳》的作者可能是中國明朝末年完成這部作品。再從上面的引用資料來觀察，《沈清傳》的作者在襲用中國典籍時，明代的資料及影響微乎其微，因此，從文話傳播的角度來看：該作者大量的運用中國唐·宋資料，在明代方面却只襲用了對韓國，日本都曾造成很大影響的《剪燈新話》，至少《沈清傳》的作者年代有可能和瞿佑晚一些，就是大概在中國的明代末期（西元一六00年代）。

經由上述推論，大致可得到以下幾點看法：

- 一，《沈清傳》的作者，已經能大量的吸取中國文學的精華，從而轉化，創造出新的小說。
- 二，就比較文學的立場來看，中國文學對韓國部分文學作品的影響，是全面而深刻的。
- 三，《沈清傳》完成的年代，不可能在中國的宋代以前，最可能的時候是中國明代末期。
- 四，《沈清傳》最早的作者可能是明代初期到明代中期的人，他可能和金時習一樣

是中國文學很精熟而很熟悉歌舞戲的人。

III. 結 論

本文中引資料部分中可知，很多文章都有受中國文學的影響，這些資料是從古代的文學到明初的作品都有的現象。因此，更可以確知中國文化對《沈清傳》的完成，具有絕對性的直接影響。

所以可以說《沈清傳》的作者，已經能大量的吸取中國文學的精華，從而轉化，創造出新的小說。也是《沈清傳》完成的年代，不可能在中國的宋代以前，最可能的時候是中國明代中期到末期(西元一六〇〇年代)。而且《沈清傳》的最初的作者可能是明代初期到明代中期的人，他可能和金時習一樣是中國文學很精熟而很熟悉歌舞戲的人。後來經過很多人(廣大或衙門或漢文學者)的手裡，才完成現存的沈清傳。

<參考文獻>

- 1) 《舊唐書》，後晉劉昫著，鼎文書局。
- 2) 《新唐書》，宋歐陽修，宋祁撰，鼎文書局。
- 3) 《全唐詩》，清聖祖御製，明倫出版社。
- 4) 《史記》，漢司馬遷撰，藝文印書館。
- 5) 《漢書》，漢班固撰，藝文印書館。
- 6) 《後漢書》，齊范曄撰，藝文印書館。
- 7) 《三國志》，晉陳壽撰，鼎文書局，民國60年。
- 8) 《隋書》，唐魏徵，洪氏出版社。
- 9) 《南史》，唐李延壽撰，中華書局，1987年。
- 10) 《搜神記》，晉干寶撰，里仁書局，民國71年。
- 11) 《楚辭解故》，朱季海撰，宏業書局印行，民國61年。
- 12) 《中國小說史》，孟瑤撰，傳記文學社，民國59年。
- 13) 《中國文學史》，葉慶炳撰，弘道，民國69年。
- 14) 《夢梁錄》，宋吳自牧，古亭書屋，民國64年。
- 15) 《都城記勝》，宋耐得翁著，大立出版社。

- 16) 《中國歷史大事年表》(上下冊), 華世出版社, 1978年.
- 17) 《朝鮮唱劇史》, 鄭魯湜, 朝鮮日報社, 1940年.
- 18) 《李朝時代小說論》, 金起東, 三友出版社, 1981年.
- 19) 《沈清傳研究》, 崔雲植, 集文堂, 1982年.
- 20) 《朝鮮小說史》, 金台俊, 學藝社, 1939年.
- 21) 《韓國古代小說論和史》, 朴晟義, 集文堂, 1986年.
- 22) 《李朝時代小說論》, 金起東, 二友出版社, 1980年.
- 23) 《古典國文小說選 - 沈清傳》, 張德順·金起東, 正音文化社, 1984年.

<提 要>

沈清傳은 韓國 平民文學의 精華이며 作者未詳의 作品이다. 일반적으로 韓國 學者들은 本 作品을 한사람의 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韓國과 中國의 文學에 精通한 在野 人士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推定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오랜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傳來되어 오면서 그 內容이 增減되어 現存하는 版本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 作品 속엔 中國의 經典과 文學作品이 매우 많이 引用되어 있다. 本稿는 作品 속에 引用된 中國資料를 重點으로 하여 沈清傳의 作者와 源流를 考察해 보았다. 즉 다음과 같은 몇 개 形態로 分類하였다; 原文의 直接 引用, 原文의 뜻만 引用, 故事의 引用(歷史故事, 神話寓言故事, 宗教故事 등), 詩와 文章中の 故事 引用, 文人과 詩人의 事蹟의 借用, 人名, 地名 혹은 作品名의 直接 引用 等이다.

引用資料를 살펴본 結果 매우 많은 文章이 中國文學의 影響을 받았으며, 이러한 資料는 古代의 文學에서부터 明初의 作品에까지 이르는 現像을 보였다. 上述한 資料의 分類와 對比하는 過程에서 《沈清傳》 중에 引用된 中國典籍의 資料가 상당히 광범위함을 발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沈清傳》의 完成은 中國文學의 직접적인 影響은 절대적이며, 《沈清傳》의 作者는 이미 大量으로 中國文學의 精華를 吸取하여 變化시켜 새로운 小說을 再創出해 내었다. 또한 《沈清傳》의 完成年代는 中國의 宋代 以前은 不可能하며, 가장 可能한 時期는 中國 明代 中期에서 末期(西元1600年) 사이이다. 아울러 《沈清傳》의 最初의 作者는 明代 初期와 中期사이의 사람이며 그는 金時習과 같이 中國文學에 매우 精通하고 歌舞戲를 잘 알고 있는 者이다. 以後 많은 사람들의 손(廣大 혹은 衙前 혹은 漢文學者)을 거쳐오면서 現存하는 沈清傳이 비로소 完成된 것이다.

韓國語彙에 대응하는 中國語彙 研究*

鄭 憲 哲**

<目 次>

- I. 緒 言
- II. <常用詞表>에서의 韓中 同形語
- III. 意味領域이 일치하는 同形語와 그 특징
- IV. 韓中 同形語와 日本製 漢字語
- V. 意味領域이 부분 중첩하거나 완전히 다른 韓中 同形語
- VI. 同形語가 아닌 韓中語彙의 對應
- VII. 結 語

I. 緒 言

古來로 한국의 어휘는 인접하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와서 일상 사용하는 낱말에 漢字語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점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같은 문화권에 속하는 일본이나 월남에서도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들 나라의 언어, 특히 어휘부문에서 차지하는 한자어의 비율이 실제로 상당히 높다고 하는 사실은 적어도 이들 나라의 문화가 중국에 대해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종속되어 왔거나 하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근대로 들어와 한국이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부터 일본의 우리에게 대한 문화정책이나 교육정책, 그리고 수많은 지식인들의 일본 유학에 따른 일본에

* 이 論文은 1990年度 文教部 支援 學術振興財團의 自由公募課題 學術研究助成費에 의하여 研究되었음.

** 慶尙大學校 人文大學 中語中文學科 教授.

서 造語된 일본제 한자어가 학술·정치·경제·사회·문화·산업 등 제반 분야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유입 혹은 수입되었다. 동북아의 宗主國으로 자처 군림했던 중국에서도 「아편전쟁」(1840) 이후 세계 열강의 실체와 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사회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서양문물이 홍수와 같이 밀려들어서 말미암아 수많은 부문에 걸쳐서 이를 수용하는 데 필요한 新造語가 생겨났다. 그 가운데는 물론 중국 자체에서 음역·의역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것도 적지 않았지만 지식인들의 일본으로의 유학·망명·체류·해외접촉 등의 원인으로 유입된 일본제 한자어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중국의 경우, 그 자체가 갖추고 있는 한자의 우수한 조어력을 이용할 수 있는 속성으로써 이를 잘 흡수 소화하여 자기의 언어 속에 융화시켜 놓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근대 이래로 일본제 한자어가 중국어 속에 상당수 침투되어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이것은 결국 중국이 근대에 들어와 여러 면에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문화적 우위마저 상실해 버리면서 제글자로 만들어진 낱말을 어쩔 수 없이 다른 나라로부터 역수입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난날 우리의 선조들이 중국과 오래고 밀접한 관계에 있어 왔고, 음으로 양으로 중국문화의 권역에서 그 정수를 지식이나 교양으로 체득하여 독자적인 체계를 이루고자 노력해 왔다. 따라서 자연 經史子集으로 불리우는 중국의 고전이나 개인 문집이 그 출전의 중심이 되는 한자어가 몸에 익숙해졌다. 일제 압제하로부터 해방 후 적어도 1970년대 초기까지도 각급 학교 교과서에 국한문 혼용이 되어 왔고, 이후 한글 전용이 보편화 되어서도 고등교육(대학교육)에 사용되는 여러 문헌에서는 지금도 적지 않은 한자가 쓰이고 있다. 이만큼 한자는 아직은 낯설고 이질화된 것이 아니며, 더구나 한자어로 이루어진 단어는 대다수가 그것이 한자로 쓰여졌든 한글로 표기되었든, 우리 국어 속에 정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하튼 이와 같이 아직까지 한자어 또는 한자 그 자체를 섞어 쓰고 있는 현실로 해서 우리가 중국어를 습득할 때 우리 어휘와 동일한 낱말을 발견하게 되면 상당히 친숙한 느낌이 드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외국어를 처음 배울 때 으레 맨먼저 기본발음법과 기본어법을 습득하고 난 뒤에는 자연히 語彙의 증강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어 있다. 어휘력을 확충시키는 것은 실제적인 외국어 학습에 있어 무엇보다도 근간이 되는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중국어를 공부할 때 우리의 모국어에서 이미 얻은 어휘 지식이 활용될 수 있다면, 그만큼 효과적인 학습효과를 얻게 될

것임은 자명한 일일 것이며, 중국과 동일한 한자로 쓰이는 낱말을 일정한 범위 안에서 추출하고 그 용법들이 서로 동일한 의미로 쓰이는가 혹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의있는 일로 여겨진다. 우리말에서 상용되는 낱말로서 형태상 같은 중국어휘의 뜻과 완전히 부합하거나 극히 가까운 것이 허다한 것이 사실이지만, 약간 의미상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도 있고 동일한 字形을 취하지만 완전히 그 의미영역이 동떨어진 것들도 있다. 韓中の 형태상 같은 어휘가 의미가 일치하면 그만큼 교습에 편리한 것이겠으나 그 의미에 차이가 있고 용법이 서로 배치되는 것이라면 우리를 곤혹스럽게 만들 수 있다.

본고는 주로 우리가 사용하는 한자어와 형태적으로 동일하게 대응하는 중국어휘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망라해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드러난 면모를 몇몇 항목으로 나누어 정리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의 중국어 학습이나 교수에 있어 그 능률을 제고시키는 데 조그만 보탬이 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 현대어휘와 우리 한자어 사이의 異同을 고찰한 논저는 우리 학계에서는 눈에 잘 띄지 않으며, 일본에서는 오히려 중국어휘와 일본 한자어(이를 「漢語」라 한다)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연구 성과가 상당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주로 일본어를 공부하는 중국인들이 어떻게 하면 일본어 학습능률을 제고시킬 수 있는가에 초점이 모아져 있다. 대표적으로, 일본 문화청의 위탁으로 와세다대학 어학교육연구소에서 펴낸 자료들에 따르면 서문 등에서 이들 성과가 어디까지나 일본어의 보급을 위한 것임을 밝히고 실제 범위도 그들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일본어 교재에 한정해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¹⁾

그 외에도 일본어학 분야의 어휘사 자료나 한자나 한자어를 다룬 부분, 그리고 중국어학 관계 자료의 語史 부분에서 日·中의 어휘 상호 수용을 약간씩 다루고 있는 것이 보인다. 중국의 학계에서 나온 몇몇 논저나 사전에서는 대부분 근대 서구 문물과의 접촉 이후에 일본에서 들어온 어휘의 예를 들거나 신중한 태도로 다수 수록해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드물게는 연변대학에서는 조선어 전반과 중국어 전반을 비교언어학의 관점에서 고찰한 역저도 내놓고 있다.²⁾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맨처음 단계에 우리 민족 전체가 사용하고 있는 어휘를 비교적 균형있게 포괄 수록하였다고 판단되는 《朝漢詞典》³⁾의 한자어를 대상

1) 日本文化廳 《漢字音讀語の日中對應》，同 《中國語と對應する漢語》 등 참조.

2) 그 예로 崔奉春 《朝漢語語彙對比》가 있다.

3) 北京大學 東語系 朝鮮語數研室編, 北京 商務印書館, 1978.

으로 하여 각 낱말을 현대 중국어휘와 대응시켜서 고찰 정리해보려고 실제로 작업에 착수하였으나, 얼마 후 작업량이 너무 방대하여 개인이 단시일에 감당할 일이 아닌 무모한 작업이라는 것을 깨닫고 범위를 대폭 축소하기로 하였다.

여러가지 검토 끝에 최종적으로 중국 文字改革出版社에서 출판한 《普通話三千常用詞表》增訂本(鄭林曦編)에 수록된 어휘를 대상으로 삼기로 확정했다. 이 책은 초판이 1959년에 나온 것으로 중국 전역에 널리 보급되었다가 그동안 많은 손을 보아 1987년에 증보판으로 다시 찍은 것이다. 이 책에서 수록된 어휘는 모두 3,996개로서 일반 읽을거리의 常用率에 있어서 87% 정도를 커버하는 정도로 정선된 어휘들이다.⁴⁾ 그러므로 이 어휘들을 범위로 삼아 한국의 동일 형태의 어휘에 대응시켜 고찰하는 데는 별다른 하자가 느껴지지 않는다.

본 연구는 먼저 《普通話三千常用詞表》(이하 《常用詞表》라 함)에서 추출한 韓中 同形語를 개관하고 나서 이를 토대로 양자의 의미 영역이 일치하거나 극히 근사한 어휘를 가려 살피고, 차제에 한국어휘와 同形·同義를 취하는 中國에 流入된 일본계 어휘를 정리할 것이다. 그리고 韓中의 의미 영역이 부분 중첩되거나 완전히 다른 同形 어휘들을 개략적으로 살피고 나서, 그 외 同形語가 아닌 어휘가 서로 어떻게 對應하는지 그 樣相에 대해 정리하고자 하였다. 끝으로는 전체를 요약 보충함으로써 본고를 매듭짓기로 한다.

중국에서 현재 출판되고 있는 일반적인 문헌에서는 거의 모두 「簡體字」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한·중 양국의 字形의 차이도 우리나라에서 중국어를 교수할 때 실제적으로 부딪히는 큰 문제 중의 하나인 것이 사실이다. 본고에서는 인쇄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한자(繁體字)로 통일하여 표기하고 字形에 따른 문제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였음을 밝혀 둔다.

II. 《常用詞表》에서의 韓中 同形語

본 논문에서 주요 고찰 대상으로 삼은 《普通話三千常用詞表》는 원래 3,624개의

4) 이 《普通話三千常用詞表》는 일본에서 《中國語常用語辭典》이라는 이름으로 일본판이 나왔으며(光生館), 우리나라에도 《實用中國語辭典》이라는 이름으로 실질적인 한국어판이 나온 바 있다(全羅文化社).

현대 중국어 상용어휘를 싣고 있었으나 그 후 28년이 지나면서 372개가 증보되어 3,996개가 수록되었다.⁵⁾ 4천개에서 4개 모자라는 숫자지만 원래대로 「三千」이라는 이름을 고수하고 있다.⁶⁾

이 《常用詞表》는 크게 전후 두 부분으로 나뉜다. 앞 부분이 주된 것으로 각 어휘를 품사별 각 세목별로 나누어 수록 한 것인데, 같은 낱말이 쓰임새에 따라 각기 다른 품사 항목에 중복 수록된 예도 더러 보인다. 뒷 부분은 앞 부분을 漢語拼音字母 순으로 배열하여 그 색인 구실을 할 수 있게 해 놓은 보조부분이다.

앞의 주요부분이 수록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 어휘를 크게 實詞와 虛詞로 나누고 實詞에는 1.名詞 2.動詞 3.形容詞 4.數詞 5.量詞 6.代詞, 虛詞에는 7.副詞 8.介詞 9.連詞 10.助詞 11.嘆詞 12.擬聲詞에 속한 어휘를 어법적 기능에 따라 각 항목별로 분류해 놓았다.

그리고 각 세목별로 배당되어 있는 어휘수와 이 중에서 한국 어휘와 같은 글자를 취하는 낱말의 숫자를 적시하면 다음과 같다.⁷⁾

1. 名詞: 명사에서 상용어휘로 선정된 낱말은 모두 1,835개로 12종 품사 가운데서 가장 많은 숫자이며 전체 상용어의 46% 가까운 수량이다.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이 중 857개가 한·중이 같은 꼴을 취하는 어휘이다. 이들 명사에 속한 어휘는 모두 30항목으로 세분되어 있는 것인데 각 항목의 어휘수와 그 중의 韓中 同形語 숫자는 다음과 같다.(처음 숫자가 《常用詞表》 해당 항의 전체 어휘, \ 다음 숫자는 필자가 조사하여 확정한 해당항의 한중 동형어임. 이하 같음.)

(1)天象:38\12 (2)地理:25\12 (3)時間:117\61 (4)理化現象:24\13 (5)礦物·無生物:34\13 (6)動物:74\10 (7)植物:41\14 (8)糧菜 果品:71\14 (9)食品:67\12 (10)服裝:61\11 (11)房屋·公共場所:61\26 (12)家具·生活用品:164\35 (13)生産工具·材料:86\20 (14)人的身體·生理:84\16 (15)體育·衛生·醫藥:42\18 (16)人的長幼·家族關係:83\37 (17)社會關係·稱謂:60\40 (18)職業·行業:41\23

5) 《常用詞表》 p.12 참조.

6) 그 이유에 대해서는 위의 책 pp.15-6 참조.

7) 여기서의 韓中同形語는 주로 東亞出版社 1994년판 《동아새국어사전》에 標題語로 실린 漢字語와 대조한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필자의 판단에 따른 것도 있다. 따라서 제시된 숫자는 다른 국어사전을 대조하거나 견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그 수치의 범위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

(19)工農商業:22\14 (20)社會團體·宗教:43\37 (21)政治·法律·經濟:115\74 (22)軍事·公安:70\40 (23)行政區域·城市·鄉村:38\25 (24)交通·郵電·播放(방송):57\19 (25)社會·交際:46\33 (26)文化·教育·學術:53\38 (27)藝術·娛樂:67\33 (28)思想·感情:52\41 (29)抽象名詞 및 其他:43\39 (30)方向·位置(方位詞):76\57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常用詞表》의 전체 명사 어휘 1,835개 가운데서 한중 동형어는 모두 857개로 46% 이상을 차지하는 많은 숫자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명사 상용어휘 가운데 「(29)추상명사 및 기타」항의 한중 동형어는 가장 높은 비율(90.7%)을 보이며, 그 밖에도 「(20)사회단체·종교」와 「(21)정치·법률·경제」 어휘도 80%가 넘고 「(28)사상·감정」·「(30)방향·위치」와 「(25)사회·교제」·「(26)문화·교육·학술」에 관한 상용어휘에서도 70%가 넘는 동형어를 갖고 있다. 반면에 「(6)동물」·「(7)식량·채소·과일」·「(9)식품」·「(10)복장」·「(14)신체·생리」 등의 어휘에서는 한중 동형어가 13% - 20% 정도 밖에 보이지 않는다.

2. 動詞 : 《常用詞表》에서 동사 어휘는 모두 1,028(전체의 25.7%)개로 15항목으로 분류하여 선정하여 놓았는데 각 항의 어휘 숫자와 한중 동형어는 다음과 같다.

(1)五官과 頭部動作:35\5 (2)팔·손動作:113\14 (3)발·다리動作:43\6 (4)全身動作·生理·醫療:35\1 (5)日常生活活動:72\15 (5)講說·往來·辦事:140\51 (7)生産·經營:77\23 (8)政治·法律活動:151\123 (9)軍事·公安動作:56\32 (10)旅行·運輸·通訊(통신):19\7 (11)教育·研究·出版:59\35 (12)文藝·體育·娛樂活動:18\4 (13)心理活動:84\30 (14)自然運動變化:76\37 (15)願望·趨向·判斷:50\9

여기서는 전체 동사 1,028개 어휘 중에서 한중 동형어는 392개로 38% 남짓을 차지한다. 그 중 「(8)정치·법률활동」에 속한 상용어휘의 한중 동형어는 81%를 상회하고, 「(9)군사·공안동작」과 「(11)교육·연구·출판」 등에서는 60% 가깝기도 하지만, (1)(2)(3)(4)항에서의 감각과 사지 등의 동작에 관한 어휘는 3 - 14% 정도 밖에 동형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3. 形容詞 : 형용사 항에는 모두 480개 어휘(전체의 12.01%)가 선정되어 있고 이를 다음과 같이 7항목으로 분류하였다.

(1)事物의 可視的인 形狀·情況의 形용:112\59 (2)事物의 不可視的인 性質의 形

용:128\92 (3)사람의 感官으로 느낀 溫·味·香 등:53\8 (4)사람 용모의 형용:22\2 (5)사람의 品性·行爲의 형용:106\52 (6)사람의 感情·思想의 형용:37\17 (7)社會情況의 형용:22\20

여기서 한중 동형어는 모두 250개로 전체 상용 형용사 어휘의 52%를 차지한다. 이 중 「(7)사회 정황」을 형용하는 어휘는 거의 동형어이며(90% 이상) 「(2)사물 성질」을 형용하는 어휘도 동형어가 상당히 많다.(71.9%) 그런데 「(4)사람 모습」이나 「(3)溫·味·香의 느낌」을 형용한 어휘들에서는 동형어가 10% 내외에 머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 數詞·量詞·代詞: 이들 實詞 3개 품사의 상용어는 모두 261개(전체의 6.53%)이다. 먼저 數詞에는 모두 71개 어휘가 실렸는데, 항목을 넷으로 나누었다.

(1)數目(숫자):34\33 (2)次序를 표시하는 詞頭(접두사) 등:6\5 (3)分數와 倍數 등:15\10 (4)概數:17\3

여기서의 한중 동형어는 51개로 전체 數詞 상용 어휘의 무려 71%를 상회하고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1)숫자」에 있어서는 34개 중에 33개가 동형어이다. 그러나 「(4)概數」의 어휘는 한국어와 중국어가 습관이 달라 동형어가 되는 비율이 매우 낮다.(17.6%)

다음으로 量詞에서는 (1)物量詞 120개 중 64개, 動量詞 9개 중 5개로 전체 어휘 129개 중 69개의 한중 동형어가 있어 53% 남짓을 차지하는 셈이다.

代詞(대명사)에서는 61개 상용 어휘가 실렸는데 한중 동형어는 단지 12개로 20%를 밑도는 실정으로 다음 세 항목으로 나누어 놓고 있다.

(1)人稱代詞:18\5 (2)指示代詞:27\6 (3)疑問代詞:16\1

다음으로 虛詞 부분의 각 품사에서의 상황을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5. 副詞: 부사에서 상용되는 어휘는 모두 233개(전체의 5.83%)이며, 다음과 같이 6항목으로 나뉘어 있다.

(1)時間·頻率(빈도)의 표시:71\21 (2)程度 표시:55\13 (3)範圍 표시:24\15 (4)重複·連續의 표시:13\1 (5)強調·轉折(전환)의 표시:48\14 (6)肯定·否定的 표시:22\15

여기서 조사된 한중 동형어는 도합 79개로 33.9% 가량이다.

6. 介詞·連詞·助詞·嘆詞·擬聲詞: 介詞(전치사)에 속한 상용 어휘는 모두 53개인데 7개가 한중 동형어이며(13.2%), 連詞(접속사)는 58개 어휘 중에 6개가 그러하며

(10.3%) 두 품사 모두 세목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

助詞에는 (1)結構(구조)助詞 5개, (2)動態助詞 6개, (3)語氣助詞에 12개 하여 모두 23개의 상용어휘를 제시하고 있지만 한중 동형어는 結構助詞에 속한 「的」 하나 밖에 보이지 않는다.

嘆詞(감탄사)에서는 17개 상용어휘 중에서 역시 하나만이 동형어이며 擬聲詞(의성어)는 8개 중에 우리 현대어에서 의성어는 한자로 적지 않는 특성상 한중 동형어는 존재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전체 《常用詞表》에 수록된 어휘를 대상으로 하여 韓中 同形語를 조사해 보았는데 필자의 샘플로 12개 품사 3,996개의 상용어휘 중에서 1,725개가 한·중이 서로 동일 字形을 갖는 낱말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면 이는 현대 중국어에서 가장 빈번히 常用되는 어휘 가운데서 43%를 상회하는 대단한 숫자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각 낱말의 발음(音)·뜻(義)의 문제를 일단 고려에 넣지 않고, 오로지 단어를 이루는 글자의 꼴(形)만 따져서 산정한 숫자이기기는 하지만 중국의 古文(한문)이 아닌 현대 중국어에서 이처럼 높은 어휘의 형태적 일치율을 발견한 것이다.

더군다나 위의 한중 동형어 추출과정에서 신중을 기하느라, 중국에서는 單字(1음절)로 많이 사용되는 어휘(예컨대 土·流·飛·滿·細·溫 등)들은 우리 습관으로는 이들을 語素로 하여 土地·流動·飛行·滿足·細密·溫和 등의 낱말로만 사용하고 낱자로는 사용하지 않으므로 同形語에 대부분 산입하지 않았다. 그리고 接辭인 老·子·兒 등의 특성을 감안하면 사실상 우리 어휘와 같은 것도 한국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일률적으로 샘플에 넣지 않았고, 예를 들어 '家鄉'과 같은 낱말은 그 뜻이 '고향'임을 보아 알 수 있지만 한국어에서 실제로 쓰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유의 어휘도 전혀 同形語에 산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중국 어휘에 대한 사실상의 認知率은 숫자로 나타난 韓中 同形語보다도 훨씬 높은 것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언급해 두어야 할 것은, 實詞의 여러 품사의 각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상명사를 비롯하여 정치·법률·경제·사회·문화·학술·교육 등 현대 사회의 知的生活과 관련이 있는 어휘들은 모두 70 - 90%의 상용어휘들이 한중 동형어인 것이다. 반면에 일상 생활 주변의 여러 물건의 명칭이나 몸소 하는 동작이나 느낌 등의 상용어휘에서는 매우 낮은 비율의 동형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일상

의 반복되는 생활과 주관적인 감각과 관련 있는 어휘들은 한국어에서 일찍이 한자어를 쓰지 않고 독자적인 고유의 말을 많이 사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數量詞에서 비교적 높은 동형어의 비율이 나타나는 것은 수를 셈하는 습관이 오래도록 본질적으로 동일함을 유지해 왔기 때문일 것으로 보이며, 虛詞에서 특히 介詞·連詞·助詞·嘆詞·擬聲語 등에서 동형어가 아예 없거나 그 비율이 턱없이 적은 것은 한중 간의 어법체계와 말의 습성이 완전히 다른 계통에 속하고 있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Ⅲ. 意味領域이 일치하는 同形語와 그 특징

한중 동형어는 앞 장에서 살핀 바와 같이 전체 상용어휘의 43% 이상에 이르는 많은 숫자이다. 이 중에서 다시 동형어가 갖는 의미 영역이 서로 동일하거나 거의 일치하는 어휘를 실제로 비교적 상세히 정리해서 資料로 제시하고자 한다.⁸⁾ 그런 다음 이들의 특징을 간명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이들 어휘는 앞 장에서 이미 다룬 바와 같이 실사·허사의 순, 그리고 명사·동사·형용사 …의 차례이며 세목이 있을 경우는 이를 번호로 표시하였다.

1. 名詞

(1) 天空·宇宙·太陽·陽光·日蝕·衛星·月蝕·地球·空氣·天氣·氣象·晴天 (2) 土地·平原·草地·森林·野外·風景·大陸·山·洞·坑·江·池塘 (3) 時間·時代·時期·現在·日前·過去·將來·未來·現代·古代·從前·以前·以後·今後·最近·最初·最後·世紀·年·今年·去年·明年·後年·往年·歲·節氣·季節·春季·夏季·秋季·冬季·新年·元旦·清明·中秋節·冬至·除夕·勞動節·月·正月·一月…十二月·日·上午·午後·下午·以來·分·秒 (4) 物質·原子·分子·色·壓力·速度·溫度·電氣·電流·電壓·蒸氣 (5) 鑛物·銅·鐵·鋼鐵·玉·

8) 경우에 따라서는 제외한 것도 더러 있다. 본고에서는 일반적이고 대체적인 語義를 위주로 하여 필자의 판단에 의해서 의미가 일치하거나 차이가 난다고 분류한 것이다. 매우 세밀한 부분까지 따지면 결과에 약간 차이가 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水晶·石油·硫磺·明礬·白礬·灰 (6)動物·野獸·獅子·駱駝·羊·山羊·綿羊·麻雀·母雞·蝴蝶 (7)植物·楊柳·梧桐·果樹·桃花·李花·梅花·桂花·海棠花·牡丹·芍藥·菊花·樹皮·種子 (8)小麥·高粱·黃豆·大豆·綠豆·豌豆·落花生·竹筍·筍·石榴·櫻桃·葡萄 (9)糧食·麵·早飯·饅頭·粥·豆腐·蜂蜜·醋·醬·茶·茶葉 (10)衣服·衣裳·制服·棉絲·雨衣·腰帶·皮帶·帽子·禮帽·頭巾·手巾 (11)地點·宿舍·廚房·教室·俱樂部·圖書館·文化館·博物館·展覽會·浴室·理髮館·食堂·旅館·廣場·會場·運動場·公園·花園·動物園·墻壁·門·大門·煙筒 (12)家具·物件·物品·桌子·椅子·床·箱子·書架·衣架·蚊帳·茶碗·飯盒·茶壺·木炭·炭·桶·水桶·燈·電燈·電池·燈籠·鉛筆·筆筒·黑板·石板·粉筆·圖章·針·線·日曆·鐘·雨傘·排球 (13)工具·麻袋·機械·機器·電動機·轆轤·滑車·車軸·電線·農具·噴霧器·網·魚網·材料·原料·洋灰·石灰·肥料 (14)身體·模樣·頭髮·手掌·皮膚·心臟·肝·肺·胃·腸子·神經·痰·大便·小便·生命·力量 (15)體育·健康·體操·運動·衛生·病·痢疾·霍亂·肺病·醫院·外科·內科·小兒科·針灸·藥 (16)人類·男·女人·女·婦女·老人·大人·青年·少年·兒童·父親·母親·祖父·祖母·兄弟·姊妹·孫子·孫女·夫妻·家屬·伯父·叔父·叔母·侄女·姑母·親戚·丈人·女婿·外祖父·外祖母·外孫 (17)同志·夫人·徒弟·主人·教師·學生·大學生·教授·教員·主席·主任·局長·委員·大使·隊長·組長·幹部·英雄·模範·代表·稱號·姓名·姓·年齡·出身·成分 (18)職業·職員·女工·農民·商人·店員·炊事員·理髮員·保母·技師·技工·木工·作家·記者·藝術家·畫家 (19)工業·手工業·農業·商業·運輸業·企業·農場·市場·商店·銀行·書店 (20)社會·人民·群眾·集體·國民·公民·領袖·階級·無產階級·資產階級·知識分子·地主·富農·團體·政黨·黨派·共產黨·黨·黨員·團·團員·隊員·輔導員·會員·支部·小組·家庭·個人·全體·宗教·教會·神·神仙·佛·廟·塔 (21)政治·政策·革命·解放·戰爭·形勢·前途·運動·紅旗·標語·口號·制度·政府·中央·地方·機關·部門·會議·大會·委員會·大使館·民主·自由·平等·法律·憲法·紀律·權力·任務·義務·責任·名義·名譽·地位·罪·秩序·利益

· 立場 · 態度 · 路線 · 主張 · 教條 · 標準 · 命令 · 主義 · 唯物主義 · 唯心主義 · 辨證法 · 愛國主義 · 國際主義 · 集體主義 · 個人主義 · 教條主義 · 主觀主義 · 官僚主義 · 共產主義 · 社會主義 · 資本主義 · 帝國主義 · 封建主義 · 經濟 · 生產 · 技術 · 貨物 · 廣告 · 勞動 · 工作 · 收入 · 待遇 · 報酬 · 生活 · 計劃 · 業務 · 事業 · 成績 · 成果 · 功勞 · 錯誤 · 缺點 · 收穫 · 經驗 · 教訓 · 成功 · 勝利 · 失敗 · 事故 · 損失 · 福利 (22)軍事 · 戰鬥 · 軍隊 · 部隊 · 志願軍 · 陸軍 · 海軍 · 空軍 · 民兵 · 軍 · 戰士 · 士兵 · 兵 · 軍官 · 元帥 · 將軍 · 班長 · 劍 · 炮(砲) · 大炮 · 高射炮 · 炮彈 · 手榴彈 · 軍艦 · 地雷 · 原子彈 · 公安 · 法院 · 公安局 · 派出所 · 警察 (23)全國 · 國家 · 祖國 · 民族 · 國際 · 世界 · 天下 · 外國 · 自治區 · 市 · 地區 · 縣 · 區 · 村 · 農村 · 都市 · 首都 · 戶口 · 戶 · 門牌 · 環境 (24)交通 · 旅行 · 道路 · 路 · 鐵路 · 車 · 電車 · 無軌電車 · 馬車 · 三輪車 · 帆船 · 票 · 車票 · 電話局 · 郵票 · 電報 · 電話 (25)交際 · 外交 · 來往 · 聯系(連繫) · 活動 · 訪問 · 座談會 · 友誼 · 信任 · 關係 · 傳統 · 風俗 · 習慣 · 漢語 · 普通話 · 方言 · 英語 · 日語 · 語法 · 文字 · 字 · 中文 · 漢字 · 文章 · 日記 · 題目 · 字母 · 符號 (26)教育 · 學校 · 大學 · 幼兒園 · 托兒所 · 語文 · 算術 · 常識 · 知識 · 理論 · 學問 · 科學 · 哲學 · 文明 · 文化 · 天文 · 地理 · 歷史 · 物理 · 化學 · 數學 · 生物學 · 消息 · 通訊(通信) · 出版 · 地圖 · 圖書 · 書籍 · 字典 · 詞典(辭典) · 雜誌 · 記錄 · 表 · 原稿 (27)藝術 · 文學 · 文藝 · 美術 · 圖畫 · 圖案 · 畫報 · 雕刻 · 塑像 · 詩歌 · 詩 · 歌曲 · 舞蹈 · 小說 · 故事 · 幻燈 · 娛樂 · 曲藝 · 音樂 · 樂器 · 風琴 · 鐘 · 喇叭 · 留聲機 · 錄音機 · 玩具 · 珍珠(眞珠) · 琥珀 · 珊瑚 (28)精神 · 心理 · 感覺 · 感情 · 情緒 · 印象 · 愛情 · 意思 · 意義 · 思想 · 見解 · 意見 · 決心 · 信心 · 懷疑 · 眼光 · 感想 · 理想 · 幻想 · 希望 · 念頭 · 理由 · 結論 · 主觀 · 客觀 · 問題 · 動作 · 行爲 · 智力 · 成就 · 修養 · 志氣 · 性情 · 道德 · 虛心 · 榮譽 (29)目的 · 目標 · 對象 · 基礎 · 根據 · 證據 · 條件 · 程度 · 比例 · 種類 · 原則 · 方法 · 方式 · 項目 · 事實 · 規律 · 表面 · 內容 · 形式 · 原因 · 緣故 · 結果 · 情況 · 場面 · 範圍 · 現象 · 秘密 · 矛盾 · 特點 · 作用 · 故障 · 機會 · 投機 · 用處 · 典型 (30)方向 · 東 · 東方 · 東邊 · 西 · 西方 · 西邊 · 南 · 南方 · 南邊 · 北 · 北方 · 北邊 · 東南 · 西北 · 東北 · 西南 · 中 · 中間 · 中心 · 其中 · 上 · 上邊 · 上面 · 下 · 下邊 · 下面 · 上下 · 左 · 左邊 · 右 · 右邊 · 左右 · 內

· 裏面 · 外 · 外面 · 前 · 前面 · 面前 · 後 · 後面 · 背後 · 四周 · 附近 · 一帶 · 對面 · 以上 · 以下 · 以前 · 以後 · 以內 · 以外 · 間 · 之間 · 方面

2. 動詞

(1)參觀 · 呼吸 · 吐 · 嘔吐 · 接吻 (2)取 · 射擊 · 折斷 · 遺失 · 合 · 埋葬 · 傳 · 接 · 握手 (3)散步 · 到達 · 過 · 避 · 退 · 前進 (4)休息 (5)紡織 · 理髮 · 化裝 · 收拾 · 掃地 · 咳嗽 · 傳染 · 治療 · 看病 · 種痘 · 休養 · 生長 · 死亡 (6)談話 · 唱 · 唱歌 · 錄音 · 回答 · 訪問 · 約定 · 定 · 交際 · 交涉 · 幫助 · 安慰 · 迎接 · 歡迎 · 招待 · 接近 · 請 · 感謝 · 慶祝 · 祝賀 · 鞠躬 · 敬禮 · 要求 · 求 · 要 · 需要 · 取得 · 獲得 · 運用 · 不便 · 委托 · 接受 · 允許 · 拒絕 · 取消 · 稱讚 · 獎勵 · 贊美 · 戀愛 · 結婚 · 離婚 (7)工業化 · 生產 · 增產 · 辦公 · 進行 · 管理 · 製造 · 修理 · 建築 · 播種 · 施肥 · 灌溉 · 賠償 · 計算 · 統計 · 兌換 · 納稅 · 服務 · 合作 · 分配 (8)擁護 · 支持 · 保衛 · 保持 · 堅持 · 保護 · 愛國 · 響應 · 動員 · 發揚 · 擴充 · 宣傳 · 聲明 · 說明 · 解釋 · 補充 · 報告 · 反映 · 發表 · 開會 · 開幕 · 閉幕 · 籌備 · 舉行 · 參加 · 成立 · 討論 · 辯論 · 爭論 · 提議 · 表決 · 決議 · 決定 · 通過 · 贊成 · 總結 · 選舉 · 投票 · 組織 · 醞釀 · 協商 · 團結 · 聯合 · 結合 · 領導 · 吸收 · 批准 · 組成 · 登記 · 建立 · 建設 · 爭取 · 集中 · 集合 · 散布 · 啓發 · 影響 · 說服 · 批評 · 批判 · 檢討 · 評 · 反省 · 承認 · 暴露 · 提出 · 罰 · 打擊 · 報復 · 禁止 · 改造 · 改革 · 改變 · 改進 · 改善 · 改良 · 發揮 · 改正 · 創造 · 表示 · 表現 · 利用 · 使用 · 應用 · 預(豫)備 · 準備 · 防止 · 搜集 · 整理 · 整頓 · 處理 · 實行 · 實踐 · 行動 · 停頓 · 保證 · 完成 · 實現 · 失敗 · 代理 · 代表 · 尊敬 · 尊重 · 服從 · 負擔 · 貢獻 · 優待 · 申請 · 調查 · 活動 · 確定 · 檢查 · 督促 · 監督 · 安排 · 操縱 · 控制 · 掌握 (9)衝突 · 破壞 · 鬭爭 · 打破 · 戰鬪 · 侵略 · 壓迫 · 反抗 · 抵抗 · 反對 · 指揮 · 攻擊 · 防守 · 防備 · 包圍 · 出發 · 挑戰 · 突出 · 粉碎 · 克服 · 奮鬥 · 犧牲 · 鎮壓 · 逮捕 · 處罰 · 強迫 · 犯 · 救 · 侮辱 (10)旅行 · 運輸 · 聯絡 · 通知 · 報道 · 發 (11)教育 · 訓練 · 指導 · 培養 · 輔導 · 學習 · 識字 · 讀書 · 上學 · 練習 · 自習 · 研究 · 觀察 · 分析 · 比較 · 測量 · 試驗 · 實驗 · 證明 · 參考 · 創作 · 記錄 · 抄 · 著 · 印刷 · 出版 · 發行 (12)鍛煉(練) · 遊戲 · 奏樂 (13)感動 · 愛護 · 同情 · 傷心 · 忍耐 · 瞭解 · 明白 · 注意 · 考慮 · 解決 · 同意 · 紀念 · 迷信 · 懷疑 · 打算 · 希望 · 失望 · 後悔 (14)結水

· 流動 · 着火 · 吸引 · 爆發 · 轉 · 散開 · 發生 · 開始 · 出現 · 變化 · 變 · 變成
 · 發展 · 發達 · 存在 · 流行 · 繼續 · 延長 · 繼承 · 經過 · 下降 · 停止 · 消滅
 · 加 · 加入 · 增加 · 擴大 · 提高 · 超過 · 缺乏 · 減 · 減少 · 包括 (15) 應當
 · 要 · 願 · 敢 · 上 · 下

3. 形容詞

(1) 大 · 小 · 高 · 低 · 長 · 短 · 遠 · 近 · 厚 · 薄 · 衆多 · 不少 · 圓 · 正
 · 橫 · 光明 · 黑色 · 白色 · 灰色 · 金色 · 強 · 強壯 · 弱 · 軟弱 · 薄弱 · 重
 · 輕 · 濕 · 純粹 · 濃 · 稠密 · 稀薄 · 稀少 · 軟 · 清潔 · 衛生 · 健康 · 鞏固
 · 平靜 · 高大 · 雄壯 · 廣大 · 廣泛(範) · 整齊 · 亂 · 茂盛 · 旺盛 · 成熟 (2) 好
 · 正確 · 錯誤 · 真正 · 生 · 新 · 新鮮 · 舊 · 古 · 精彩 · 重要 · 普通 · 特別
 · 一般 · 普遍 · 適當 · 妥當 · 合理 · 必要 · 要緊 · 平常 · 正常 · 基本 · 稀罕
 · 貴重 · 貴 · 賤 · 有用 · 無用 · 順利 · 不得已 · 不利 · 不幸 · 無限 · 完全 ·
 全部 · 一切 · 全面 · 片面 · 其他 · 一部分 · 徹底 · 共同 · 相同 · 同樣 · 相似
 · 相反 · 不同 · 絕對 · 確實 · 所謂 · 實際 · 具體 · 嚴密 · 嚴重 · 緊急 · 尖銳
 · 危險 · 安全 · 平安 · 安穩 · 統一 · 簡單 · 複雜 · 堅固 · 永久 · 正式 · 公開
 · 困難 · 艱難 · 容易 · 明白 · 明確 · 清楚 · 詳細 · 深刻 · 仔細 · 模糊 · 秘密
 (3) 冷 · 疲勞 · 辛苦 · 艱苦 · 疼痛 · 恐慌 (4) 美 · 美麗 · 醜 (5) 聰明 · 伶俐
 · 靈活 · 謙虛 · 虛心 · 自滿 · 謹慎 · 和氣 · 癱瘓 · 溫和 · 嚴肅 · 英勇 · 勇敢
 · 冷靜 · 緊張 · 急 · 性急 · 大膽 · 膽小 · 凶惡 · 殘酷 · 殘忍 · 嚴格 · 文明 ·
 野蠻 · 偉大 · 可笑 · 活潑 · 頑固 · 固執 · 熱烈 · 熱情 · 陰險 · 堅強 · 頑強 ·
 激烈 · 強烈 · 威風 · 敏捷 · 主動 · 自動 · 自覺 · 周到 · 熟練 · 踊躍 · 努力 ·
 有名 · 可憐 · 可惜 · 故意 (6) 歡喜 · 愉快 · 憂愁 · 快樂 · 煩惱 · 快活 · 苦悶
 · 痛苦 · 痛快 · 悲哀 · 圓滿 · 滿足 · 友好 · 熱愛 · 熱心 · 興奮 · 慚愧 (7) 富裕
 · 豐富 · 窮 · 優越 · 肥沃 · 繁榮 · 強大 · 自由 · 平等 · 幸福 · 進步 · 落後 ·
 先進 · 保守 · 反動 · 積極 · 消極 · 樂觀 · 悲觀

4. 數詞

(1) 零 · 一 · 二 …… 二十 · 三十 …… 一百 · 百 · 千 · 萬 · 億 (2) 第 · 初
 · 中 · 末 · 號 (3) 分 · 百分 · 倍 · 一個 · 半 · 兩 · 單 · 雙 · 等 · 等等
 (4) 幾 · 無數 · 許多

5. 量詞

(1)個·種·類·打·項·點·部分·位·名·群·家·隊·組·班·匹·頭·節·段·顆·粒·枚·片·場·層·面·張·課·部·包·封·臺·間·座·棟·輛·處·所·筒·盒·瓶·杯·盆·句·篇·丈·步·尺·寸·分·厘·石·斗·升·斤·兩·錢·元·度 (2)次·回·番·通

6. 代詞

(1)彼此·自己·本·某 (2)每·各·各個·其他·如此 (3)多少

7. 副詞

(1)正·當時·臨時·暫時·先後·近來·從來·忽然·突然·偶然·一時·屢次·不斷·反復·往往·時時刻刻·隨時·永遠·最後 (2)最·極·十分·特別·過分·格外·彷彿·的確·互相·直接·好·最好 (3)全·一齊·一律·一致·無條件·一同·到處·處處·僅僅·專門·萬一·一面 (4)既 (5)可·果然·自然·當然·原來·本來·根本·或·大概 (6)不·沒·非·不必·不用·不得不·不可不·不可·不能·不要·何必·必然

8. 介詞

當·臨·依·向·對·爲

9. 連詞

況且·同時·然後

10. 嘆詞

萬歲

이상의 同形同義의 예에서 그 대체적인 특징을 추출하여 정리해 보기로 한다. 상용어휘 전반에 걸쳐 글자 둘로 된 2자어가 가장 많이 보이는데, 동형 동의어에 있어서도 2자어가 가장 많다. 3자어나 4자어도 체법 있지만 이들은 대개 근대 이후에 만들어진 신식 어휘나 용어들이다.

'山·江'과 같은 1자로 된 한자어는 대개 우리말 속에 일찍부터 깊숙하게 들어앉은 것이며, '大·小' 등 실생활에서 그대로 잘 쓰이는 것은 아니나 간략하게 이야기할 때나 접두사로서 사용되는 것도 있다. 이들 1자어(單字語)는 수량을 셀 때 쓰이는 量詞에 가장 많이 보이며 連詞(접속사)와 嘆詞·擬聲詞를 제외한 모든 품사의 어휘 가운데 전반적으로 보인다. 그 중 量詞와 介詞(전치사)의 어휘는 모두가 1자어

휘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單字語는 어느 것이든지 거의 예외 없이 한자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一字一義의 속성을 고려할 때, 우리가 받아들여 사용한 역사가 오래된 것들이라 짐작된다.

각 어휘를 造語 성분으로 보면, 우리의 名詞는 모두 순수한 한자어라 할 수 있으며, 動詞의 경우는 한자어의 뒤에 「…하다」, 形容詞는 접두사로 쓰이는 경우를 제외하면 역시 「…하다」나 「…스럽다」는 우리말의 固有要素가 붙어 사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數詞의 경우는 우리와 중국이 완전히 일치하는 한자어를 쓰고 있고 量詞는 극히 적은 부분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한중이 일치하는 어휘를 쓰는 것을 알 수 있다.

副詞는 한국 어휘에서 ‘暫時·十分·果然·本來·直接’ 등 한자어 성분으로만 쓰이는 것, ‘正·忽然·自然’ 등 한자어만으로도, 부사형 어미(히)를 달고서도 쓰이는 것, ‘不斷·永遠·特別’ 등 반드시 고유어 성분의 부사형 어미를 부가해서 쓰이는 것이 있으며, ‘不·沒·非’ 등의 부정사는 독립해서 쓰이지 못하고 접두어로만 쓰인다.

중국어에서 介詞로 분류되어 있는 어휘는 한국어에서는 「…하다」를 달아 動詞로 쓰이고 있으며, 連詞는 한국어에서 副詞語 구실을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韓中 同形語의 의미에 있어서 일치하는 비율은 실제로 전체의 90%를 넘는 높은 수치이다. 이 점은 뒤의 다른 장에서 의미영역이 서로 중복되거나 완전히 다른 뜻을 가진 어휘를 다루고 난 다음 언급하기로 한다.

그런데, 앞 장에서도 언급했지만 근대 이후에 생겨났을 것으로 보이는 知的活動·社會·文化·經濟·政治·法律 등에 관련된 상용어휘들은 한중 동형어의 일치율이 높고 특히 어휘의 의미영역도 거의 일치하고 있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IV. 韓中 同形語와 日本製 漢字語

옛날부터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쓰였던 한자어는 오랜 동안 일방적으로 주변 국가로 전파되었고, 이들 나라에서는 이를 수용하여 그들의 문자생활에 사용해 왔다. 그러던 것이 日本이 明治維新 이래로 서양 문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중국의 경우 幕末에서 明治

초기에 일본을 방문한 중국의 지식인이나 관리 외교관들의 글에서, 또 일본 이외의 지역에서 일본인과 접촉하여 들은 明治維新의 상황을 적은 정부 관리의 글 등에서, 또한 중국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이 쓴 글에서 이미 일본에서 만든 한자어가 보이기 시작한다.⁹⁾

그리고 淸日戰爭(1895) 후 일본에 많이 건너간 유학생들도 일제 한자어를 많이 익혀서 돌아갔고 20세기에 들어가서는 본격적으로 일제 한자어가 유입하였다. 한국의 경우도 장기간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일제 한자어가 많이 유입되었고 특히 1937년 7월부터는 한국 전역에서 일본의 강제적인 「國語常用」이 자행된 시기이므로 이 때가 일본어가 한국어에 가장 많이 침투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¹⁰⁾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중국과 한국의 현대 어휘에서는 일본제 한자 어휘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당 수 포함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제 한자어가 한국의 어휘에 얼마만큼 유입되어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거의 보이지 않는다. 다만 중국에서는 일본으로부터 유입된 단어의 수와 그 사용례에 대한 기본적 연구가 전개되고 있다.¹¹⁾ 그러나 그간의 실적은 흘러간 세월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함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일제 한자어에 대한 실태 조사가 진척되지 않는 이유를 沈國威는 그의 논문에서 두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중국어에서 일본제 한자어가 같은 한자를 쓰고 있어서 그 出典을 인정함에 있어 여러가지 어려움이 따르며, 또 중국에서는 근대 어휘의 형성에 관한 연구가 아직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지 못한 것도 그 어려움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것이다.¹²⁾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끌만한 것은 중국의 학자들이 일본제 어휘의 수용을 인정하고 그것을 정리하려고 하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이 조사 수집해 놓은 중국에 유입된 일본제 한자어휘들은 소수의 예를 제외하고 한국어에서도 거의 그대로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이들은 韓中日 삼국에서 공통적으로 똑같이 쓰이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중국의 여러 문헌에 수집된 일본제 한자어휘 중에서 상용어를 포함한 삼국이 공용하는 현저한 예를 한글 자모

9) 沈國威 <現代中國語における日本製漢字>(《日本語學》 1993年 7月號) p.42 참조.

10) 李漢燮 <現代韓國語における日本製漢語> 앞의 책 p.51 참조.

11) 일본제 한자어의 수에 대해서 지금까지 몇몇 어휘 리스트가 나와 있다. 예를 들면, ①高名凱·劉正煥 <現代漢語外來詞研究>(1958)에서 459語, ②王立達 <現代漢語中從日語借來的詞彙>(1958)에서 589語, ③劉正煥 등 <漢語外來詞詞典>(1984)에서 892語가 실려 있다. 《日本語學》 1993年 7月號 p.43 참조.

12) 沈國威 앞의 논문, 上掲書 p.43 - 4.

순으로 정리해 보기로 한다.¹³⁾ (同字로 시작하는 단어는 한 데 모았고, 「*」는 《常用詞表》에 실린 것임을 표시한다)

假定 假分數 假想的 · 脚本 脚本 · 簡單* · 看守 · 幹部* 幹事 幹線 · 間接 間歇 · 感性 感情* · 講壇 講師 講習 講演 講座 · 綱領 · 強制 · 概括 概念 概略 概算 · 介入 · 改編 改訂 · 客觀* 客體 · 巨匠 · 建築* · 牽引車 · 見地 見習 · 決算 · 結核 · 輕工業 · 警官 警察* · 景氣 · 競技 · 經費 經濟* 經濟學 · 階級* · 系列 · 啓示 · 計劃* · 高爐 高潮 高周波 · 故障* · 固定 · 固體 · 空間 · 公立 公民* 公報 公事* 公訴 公營 公認 公債 公判 · 攻守同盟 · 工業* · 過渡 · 科目 科學* · 課程 · 關係* · 觀念 觀點 觀照 觀測 · 光年 光線 · 廣告* 廣義 廣場* · 交感神經 交際* 交通* 交響樂 交換 · 教科書 教授* 教養 教育學 · 校訓 · 膠着語 · 驅逐艦 · 俱樂部* · 拘留 · 國庫 國教 國立 國事犯 國勢 國際* 國體 · 軍國主義 軍部 軍需品 · 弓道 · 權威 權益 權限 · 歸納 · 規範 規則 · 克服* · 劇場 · 勤務 · 金剛石 金額 金融 金牌 金婚式 · 肯定 · 機械* 機關* · 基督教 基調 基地 基質 基準 · 記錄* 記事 記號 · 技師* · 騎士 · 汽船 汽笛 · 旗手 · 企業* · 氣質 氣體

暖流 · 內閣 內勤 內服 內服藥 內分泌 內容* 內在 · 冷藏 冷戰 · 勞動* 勞作 · 論壇 論理學 論戰 · 農作物 · 累進 · 能動 能力* 能率

蛋白質 · 但書 · 單純 單元 單位* 單行本 · 短波 · 談判 · 台(量詞)* · 大局 大氣 · 對象* 對照 · 隊商 · 代表* · 道具 · 圖書館* 圖案 · 導火線 · 讀本 · 獨裁 獨占 · 動機 動力 動脈 動產 動員* 動議 · 同情* · 登記* 登載 · 等外

漫筆 漫談 · 媒質 · 脈動 · 盲從 · 免許 · 明細表 明確* · 命題 · 母校 母體 · 毛細管 · 目的* 目標* · 舞臺 · 無產階級* · 默示 · 文庫 文明* 文學* 文化* · 物理* 物理學 · 美感 美術* 美化 · 民法 民主* · 密度 · 蜜月

舶來品 · 博物 博士 · 反感 反對* 反動* 反射 反應 反響 · 半旗 · 發明* · 放射 · 方式* 方案 方程式 · 背景 · 陪審 · 配電盤 · 白金 白旗 白夜 · 百日咳 · 範疇 · 法律* 法人 法庭 法則 · 變壓器 · 辨證法* · 病蟲害 · 保險 保障 · 服務* 服用 · 輻射 · 複式 複製 · 本質 · 封建 封鎖 · 否決 否認 否定 · 副官 副食 · 不動產 不景

13) 중국에서는 일본제 한자어 수집에 대하여 기피하지는 않으나, 그것이 일본제임을 인정하는 데는 상당히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듯하다. 대표적으로 劉正埏 등 《漢語外來詞詞典》(p.3)에 이러한 태도가 매우 잘 드러나 있다. : “... 恪守「披沙揀金·寧缺毋濫」的收詞原則, 端正「想當然耳」的治學態度, 才能避免「指鹿爲馬」的錯誤.”

氣 · 附着 · 分配 分析* 分子* 分解 · 非金屬 · 悲觀* 悲劇 · 備品

· 死角 · 士官 · 社交 社團 社會* · 使徒 · 私立 私法 · 事務員 事變 事態 · 思想*
· 思潮 · 插畫 · 相對 · 商法 商業* · 想像 · 上水道 · 常識* · 象徵 · 索引 · 生理學
· 生命線 生產* 生態學 · 序曲 序幕 · 腺 · 選舉* · 宣傳* 宣戰 · 銑鐵 · 纖維 · 成分*
· 成員 · 性能 · 世紀* 世界觀 · 細胞 · 消極* 消防 消火 · 所得稅 · 素描 素材 素質
· 小夜曲 · 少將 · 速記 速度* · 手工業* 手榴彈* 手續 · 受難 · 水成岩 水準 · 輸入
· 輸出 · 巡洋艦 · 乘客 乘務員 · 承認* · 時間* 時事 時効 · 施工 施行 · 市長 市場* ·
· 神經* · 訊問 · 新聞記者 · 身分 · 信號 信用 · 實感 實業 實績 · 失戀 失効 · 心理學
· 審美 審判 審問

· 亞鉛 · 安打 · 暗示 · 液體 · 羊羹 · 陽極 · 量子 · 語源學 · 業務* · 年度 · 燕尾
· 服 · 鉛筆* · 研磨機 · 演說 演習 演繹 演奏 演出 · 熱帶 · 列車 · 領空 領土 領海
· 映像 · 營養 · 預備役 預算 · 藝術* · 悟性 · 沃度 · 溫度* 溫床 溫室 · 外勤 外分
· 泌 外在 · 要素 · 了解* · 溶媒 溶體 · 優生學 · 偶然* · 右翼 · 運動* 運動場 運轉手
· 原動力 原理 原意 原子* 原作 原罪 原則* · 元素 元帥* · 園藝 · 尉官 · 胃潰瘍 ·
· 衛生* · 柔道 柔術 · 唯物論 唯心論 · 遊離 · 流線型 流體 流行病 流行星 · 遺傳 ·
· 類型 · 銀幕 銀翼 銀行* 銀婚式 · 陰極 · 音程 · 議決 議員 議會 · 義務* · 意識 意譯
· 意義* · 擬人法 · 醫學 · 理念 理論* 理事 理想* 理性 理智 · 異物 · 二重奏 · 人格
· 人權 人力車 人文主義 人選 · 印鑑 印象* · 引導 · 因子 · 日程 · 任命 · 臨床 · 淋巴
· 入口 入場券 入超 · 立場* · 剩餘價值

· 資本 資料 · 自然淘汰 自由* 自律 自治領 · 紫外線 · 作物 作者 作品 · 刺戟(激)
· 雜誌* · 場所 · 長波 · 財團 財閥 · 低能 低壓 低調 · 貯藏 貯蓄 · 抵抗* · 展覽會*
· 戰線 · 積極* · 敵視 · 電流* 電報* 電子 電池* 電車* 電波 電話* · 前線 前衛 前提
· 傳染病 · 絕對* · 節約 · 接吻* · 政黨* 政策* · 靜脈 靜態 · 情報 情操 · 精神* ·
· 定義 · 淨化 · 制御器 制約 制裁 制限 · 製版 · 組閣 組成 組織* 組合 · 條件* · 宗教
* · 終點 · 綜合 · 座談 · 坐藥 · 左翼 · 主觀* 主動* 主食 主義* 主人公 主體 主筆
· 注射 · 中將 · 仲裁 · 重工業 重點 · 證券 · 指導* 指數 指標 · 支配 支部 支線
· 地上水 地質 地下水 · 知識* · 止揚 · 紙型 · 直角 直徑 直觀 直流 直接* · 真空管
· 眞珠 · 進度 進展 進化 進化論 · 陣容 · 質量 · 窒素 · 集結 集團 集中*

· 茶道 · 錯覺 · 參觀* 參照 · 創作* · 債權 債務 · 策動 · 處女作 處女地 · 天主
· 哲學* · 鐵血 · 尖端 尖兵 · 清教徒 清算 · 體操* 體育* · 初夜權 · 燭光 · 促媒

· 總動員 總理 總領事 · 催眠 · 最惠國 · 抽象 · 出口 出發點 出庭 出超 出版* · 臍臟 · 取締 取消 · 侵略* 侵犯

他律 · 探照燈 探險 · 統計* · 通貨收縮 · 退化 退役 · 投機* 投影 投資 · 特權 特務* 特長

派遣 · 波長 · 版畫 · 編制 · 坪 · 評價 · 平面 · 飽和 · 表決* 表象 · 標高 標本 標語* · 品位 · 風琴 風雲兒 · 必要*

下水道 · 學歷 學府 學士 學位 學會* · 寒帶 寒流 · 航空母艦 · 海拔 · 解放* 解剖 · 虛無主義 · 憲法* 憲兵 · 革命* · 現金 現役 現象* 現實 · 血色素 血栓 · 協議 協定 協會 · 形而上學 · 號外 · 混凝土 · 化膿 化粧品 化學* · 畫廊 · 火成岩 · 擴散 · 環境* · 幻燈 幻想曲 · 活躍 · 會計* 會談 會話 · 回收 · 效果 · 酵素 · 訓令 訓育 訓話 · 喜劇

이상의 낱말의 예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일본제 어휘인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상용되는 한자어들이 뜻밖으로 많음에 우선 놀라게 된다.

앞의 《漢語外來詞詞典》 등의 자료에 근거한 필자의 조사와 판단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이 동일하게 사용하는 일본제 한자어는 위의 예를 포함하여 750語를 웃돌고 있다. 이 중 《常用詞表》의 상용 어휘는 140 여개로 5분의 1 정도에 불과하고 그 나머지가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지만, 우리말에서의 용례와 거의 부합하는 것이므로 차제에 이를 정리해서 중국어 敎習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해 두는 것도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국내의 연구로 金庸周 《韓國漢字語의 研究》는 한국 한자어의 諸問題를 각종 상세한 통계를 곁들여 심도있게 잘 다룬 力著이지만 각 漢字語의 實例와 來源에 대한 언급이나 고찰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李漢燮 교수의 글에 따르면 한국어에 수용된 일본제 한자어의 숫자는 수 천 혹은 그 이상일 것으로 보고 일본 국내에서도 일본제 한자어 연구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의 원인으로 그 수를 현단계에서 확실하게는 밝히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¹⁴⁾ 중국의 경우보다 한국어에서 훨씬 더 많은 일본제 한자어를 수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조사 정리 연구가 미흡한 것은 위의 이유에서도 물론 기인할 터이지만 심리적으로 우리가 아직은 日本의 影響을 받은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

14) 李漢燮, 앞의 글, p.53 참조.

여 잘 드러내어 연구하거나 이야기하려 들지 않는 소극적인 면도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일본제 한자어가 중국에서도 상당히 수용되어 결과적으로 한국어에서 사용하는 그것과 서로 일치되어 쓰이는 것이 많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실과 그 내용은 곧 중국어 교육과 습득에 매우 커다란 참고가 될 것으로 믿어진다.

V. 意味領域이 부분 중첩하거나 완전히 다른 韓中 同形語

앞에서는 상용어휘와 일본제 한자어에서 의미영역이 일치하는 韓中 同形語를 살펴보고 정리하였다. 본장에서는 《常用詞表》의 범위 안에서 발견되는 同形語 중 의미영역이 서로 부분적으로 중첩하거나 韓中 간에 서로 완전히 다른, 즉 완전히는 일치하지 않은 어휘들을 살펴보고 정리하기로 한다. 韓中의 어휘들이 용례가 서로 같으면 상대방의 언어를 익힐 때 그만큼 수월할 것은 당연하지만, 同形語로서 의미가 서로 어긋나거나 완전히 다르다면 그만큼 혼란이나 혼동을 초래하여 어려움을 느끼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어휘들은 잘 골라내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다(가나다 순). 그러나 이런 어휘들은 동형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미만으로 그다지 많지 않다.

1. 의미영역이 일부 중첩되는 동형어

町: 한국어(이하 韓)에서는 명사 형용사 부사로 쓰여, '옳음·좋음, 찬성이나 허가의 의사표시'를 나타내는데, 중국어(이하 中)에서는 이외에도 強調의 어기를 나타내는 데도 쓰인다.

可能: 中에서는 '아마도(... 일지 모른다)'의 뜻도 있다.

覺悟: 中에서는 명사와 동사로 쓰여 본래의 뜻대로 '자각' '각성' '깨닫다'의 뜻으로 쓰이는데, 韓에서는 이 외에도 '앞 일을 미리 짐작하고 마음을 정함'의 뜻이 더 있다.

講話: 韓에서는 명사로만 쓰이나 中에서는 동사(이야기하다)로도 쓰임.

結實: 韓은 '열매가 맺힘·노력의 성과'를 뜻하지만, 中은 이와 함께 '단단하고 질기

- 다·확실하다'의 뜻이 있다.
- 鉗子: 韓은 '수술용구'의 하나로 한정해서 설명하지만 中은 이를 포함한 '핀셋·집게·뺨찌' 등을 통틀어 이야기한다.
- 經理: 韓에서는 '일을 경영하여 처리하는 것, 또는 그 사람'을 뜻하지만 中에서는 기업의 책임자를 나타낸다.
- 鼓動: '격려·고무시키다'의 원 뜻 외에 韓에서는 심장의 '고동'도 포함하여 말한다.
- 經常: 韓은 '계속해 변하지 않음'의 뜻으로 經常費 등 주로 접두어로 쓰지만 中은 '언제나·늘'로 부사로만 쓴다.
- 告訴: 韓에서는 법률용어로만 쓰는 데 비해 中에서는 이 외에도 '알리다·말하다'의 뜻이 있다.
- 考試: 韓은 '(격을 갖춘)시험'을 뜻하지만 中은 동사로 '시험을 치르다'의 뜻으로도 쓰인다.
- 過去: 韓은 명사로만 쓰이나 中은 이 외에 '지나가다'의 동사로도 쓰인다.
- 關心: 韓은 명사로만 쓰이나 中은 이 자체로 '관심을 갖다'는 동사로도 쓰임.
- 校長: 中에서는 대학의 총장도 校長이라고 한다.
- 教學: 韓은 주로 원 뜻대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란 뜻으로 통하지만 中은 이외에 주로 '교수하다·가르치다'의 뜻으로 사용한다.
- 究竟: 中은 원 뜻 외에도 부사로 '도대체·대관절'의 뜻으로 많이 쓰고 있다.
- 卷: 원래 '말다·감다'의 뜻이 있다. 韓은 책의 권수를 세는 데 사용하지만 中은 두루말이로 된 물건(필름 등)을 세는 데 쓴다.
- 勤勞: 韓에서는 주로 명사로 쓰이나 中에서는 형용사로만 쓰인다. '부지런하다'의 뜻.
- 能: 韓은 일을 능란하게 하는 것을 형용하는데 쓰이지만 中은 이 외에도 '...을 할 수 있다'와 같이 조동사로 쓰인다.
- 單位: 中에서는 독특하게 단체·기관의 특정 부문을 지칭하는 말로도 많이 쓰인다.
- 談話: 韓은 명사로만 쓰이나 中에서는 '이야기를 하다'의 동사로도 쓰인다.
- 大家: 中에서는 일정한 범위 내의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데도 쓰인다.
- 大夫: 中에서는 의사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 對象: 中에서는 애인, 특히 결혼을 전제로 한 상대자를 지칭하는 데도 많이 쓰인다.

- 代替: 韓에서는 '다른 것으로 바꾸다'의 뜻인데, 中은 이를 포함하여 '대신하다'의 뜻도 있다.
- 道理: 韓에서는 '사리에 맞는 바른 길'에 한정시켜 쓰이나 中은 광범하게 '법칙·이치·방법' 등에도 쓰고 있다.
- 到底: 韓에서는 '끝까지 철저하게(하다)'의 뜻으로 쓰이지만 中에서는 그 외에도 '도대체·결국·아무래도' 등 부사로 많이 쓰인다.
- 東西: 방향을 나타내는 것 외에도 中은 특별히 '물건'을 가리키는 데 많이 쓰인다.
- 同志: 韓에서는 뜻을 같이하는 사람으로 특수한 경우의 호칭이지만, 中에서는 이것 말고도 인민 사이의 일반 호칭으로 쓰인다. 북한의 「동무」와 같다.
- 同學: 韓中 다 같이 '동급생·동창·학우' 등으로 쓰이나 中에서는 선생이 학생을 부를 때도 사용한다.
- 得: 中에서는 본뜻 말고도 동사 뒤에 쓰여 가능성을 나타내고 정도·결과 보어를 연결시키기도 하는 등 그 역할이 많다.
- 發現: 韓中 모두 '드러내다'의 뜻이 있지만 中에서는 주로 '발견하다'의 뜻으로 사용한다.
- 方便: 韓은 '목적을 위해 이용되는 편리한 수단'의 뜻이지만, 中은 이와 더불어 주로 '편리하다'의 형용사로 사용한다.
- 幫助: 韓에서는 흔히 나쁜 일을 돕는 행위를 가리키나 中은 중립적인 의미로 명사·형용사로 쓰인다.
- 翻譯: 韓中 모두 명사와 동사로 쓰이는데 中은 번역 또는 통역하는 행위자도 포함한다. 韓에서는 翻을 翻譯이라 쓴다.
- 放學: 韓은 학기를 마치고 시작하는 방학만을 의미하지만 中은 주로 학교가 파하거나 며칠 쉬는 것을 지칭한다.
- 別: 이 말의 일반적인 의미 외에도 中은 '...하지 말라'는 금지의 뜻으로 많이 쓰인다.
- 保母(姆): 中에서는 '가정부'를 포함한다.
- 本領: 中은 본뜻 외에도 '재능·기량·수완'의 뜻을 더 가지고 있다.
- 不過: 본뜻 외에도 中은 역접 부사 '그러나'의 뜻이 있다.
- 非常: 평상시와 다르다는 뜻 외에도 中에서는 '대단히·심히'의 뜻으로 늘 쓰인다.
- 師傅: 韓은 '스승'의 뜻에 국한되지만, 中은 이 밖에 일반 직업의 숙련공과 남에 대

한 경칭에 널리 쓰인다.

- 事情: '일의 곡절'이나 '처지' 외에 中에서는 일반적인 일이나 직무를 가리킨다.
- 酸: 韓에서는 화학에서의 '산'에만 쓰이나 中은 신맛, 마음이 쓰라린 것에도 쓴다.
- 床: 韓은 소반·책상·침대를 겸한 평상의 총칭으로 사용하며, 中은 침상·침대에 주로 쓰이며 물건을 놓는 臺를 나타내는 등에도 사용된다.
- 上級: 韓中이 윗 계급(등급)을 나타내지만, 中은 특히 上司·상급자나 상급기관을 포괄하여 의미한다. 下級은 그 반대 의미이다.
- 生氣: 韓은 활발한 기운을 뜻하지만, 中은 이를 포함하여 '화를 내다'의 뜻에도 흔히 쓰인다.
- 城: 韓中의 뜻이 원래 같으나 中에서는 주로 都市의 뜻으로 쓰이고 있다.
- 盛: 기운이 왕성함을 뜻하지만 中에서는 발음을 달리하여 '(그릇에)담다'로 쓰인다.
- 小心: 韓에서는 도량이 좁고 겁이 많으며 주의 깊은 것을 뜻하나, 中에서는 주의 깊은 것 외에도 '조심하다'의 동사로 사용한다.
- 所有: 韓은 갖고 있음을 뜻하나 中에서는 이 말고도 '모든·일체의'라는 뜻으로 쓰인다.
- 數: 숫자·운수의 뜻 외에 中에서는 동사 '(수를)세다'의 뜻이 있다.
- 水平: 원 뜻 말고도 中에서는 특히 대륙에서 '水準'의 뜻으로 쓰인다.
- 順: 순서·성질이 부드러움을 韓에서는 뜻하는데, 中에서는 성질이 부드럽다는 의미로는 단독으로 쓰이지 않으며 介詞 '…을 따라서' '…하는 김에'로, 형용사 '순조롭다'의 뜻 등으로 쓰인다.
- 顏色: '얼굴빛'의 뜻 외에 中에서는 '색깔·색채'의 뜻이 더 있다.
- 安心: '마음놓다'의 뜻 외에 中은 '전념하다' '마음을 품다'의 뜻이 더 있다.
- 愛人: 中에서는 본뜻 이외에 부부 간에 상대방을 일컫는 말로 쓰인다.
- 藥房: 中에서는 藥局이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
- 禮貌: 韓에서는 격식을 차려 보내는 물건이란 뜻이지만 中은 모든 선물을 다 포괄해서 말한다.
- 認識: 韓에서는 심리학·철학 등의 학술용어로 쓰이지만, 中은 그 외에도 일반적으로 '(사람·문자를)알다'의 뜻으로 쓴다.
- 一定: 韓은 '일정한 범위'를 나타내는 데만 쓰이나 中은 부사로 '반드시'의 뜻이

있으며 '특정하다' '상당한·꽤' 등의 뜻으로도 쓰이고 있다.

滋味: 韓은 '맛있는 음식' '재미'를 가리키는데, 中은 이 외에도 '기분·심정'의 뜻이 더 있다.

作業: 韓은 '일터에서 정식으로 하는 일'을 지칭하지만, 中은 '숙제·과제'의 의미로도 사용한다.

作爲: 韓은 '적극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말이지만 中은 그를 포함하여 '성과를 내다' '…의 신분으로써' 등으로 그 쓰임새가 넓다.

丈夫: '장성한 남자'의 뜻 외에도 中에서는 '남편'의 뜻이 있다.

主要: 中에는 '주요하다'의 원 뜻 외에 부사로 '주로'의 뜻으로 잘 쓰인다.

中學生: 韓에서 경우와 달리 中에서의 중학은 「中等」 학교를 뜻한다. 따라서 「중학생」은 '중·고교생'을 지칭하게 되는 것이다.

差: 韓에서는 '틀리는 정도·차이'만을 의미하지만, 中은 '모자라다·좋지 않다' '실수·잘못' '직무' 등의 뜻을 더 가지고 있다.

槍: 韓은 옛날 병기만을 가리키지만 中에서는 신식 무기인 '총'도 일컫는다.

請求: 韓에서는 공식적인 의미가 강하지만 中에서는 일반적인 요구·부탁의 의미로 주로 쓰인다.

打開: 韓은 '막힌 일을 잘 처리하여 갈 길을 열다'의 좀 무거운 의미이나, 中은 이를 포함하여 보통의 '열다·펼치다·틀다'의 의미로 사용한다.

通過: 中에서는 '통과하다'의 의미 외에 '…을 통하여·거쳐서'의 뜻으로 複文에도 많이 사용한다.

通信: 韓에서의 경우와 달리 中은 편지를 주고받는 데 한정해 쓰인다.

特務: 韓과는 다르게 中은 특수한 임무를 맡은 사람, 즉 '간첩·스파이·특수 공작원' 등을 지칭할 때도 사용한다.

把握: 韓에서는 '잡아 쥐다' '확실히 이해함'의 의미인데, 中은 이를 포함하여 '자신·가망'의 뜻도 있다.

便宜: 中에서는 원 뜻 외에도 '값이 싸다' '값을 깎다'의 뜻을 더 가지고 있다.

編輯: 中에서는 편집 일을 맡은 사람까지도 의미한다.

品質: 中에서는 '품성·자질·인품'을 뜻하기도 하여 사람에게도 쓰이는 것이 특이하다.

化: 주로 변화를 나타내는 말의 접미사로 쓰이는데, 中에서는 본뜻인 '녹다·삭이

다·변화시키다'의 뜻으로도 일상 쓰인다.

和平: 中에서는 이를 '平和'의 뜻으로 사용한다.

學會: 韓과는 달리 中에서는 동사로서 '배워서 할 줄 알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

行 : 일반적인 뜻 외에 中에서는 '팬찮다·유능하다'의 뜻을 가진다.

滙(彙)報: 韓에서는 명사로만 쓰이나 中에서는 '종합적으로 보고하다'의 뜻으로 동사로도 쓰인다.

2. 의미영역이 완전히 다른 동형어

客氣: 韓은 객적게 부리는 열기를 일컫지만 中은 이런 뜻이 없고 '예의 바르다·겸손하다·사양하다'의 의미로 쓰인다.

結束: 韓은 '덩어리로 묶다·몸단속·단결'을 뜻하나 中은 '끝맺다·마감하다·종결'의 뜻으로 쓰인다.

公社: 韓은 정부 경영의 기업체를 말하지만, 中에서는 '공동체'의 의미와 '人民公社'의 준말로 사용한다.

汽車: 韓에서는 列車을 뜻하지만 中은 일반 '자동차'를 지칭한다.

難聽: 韓은 귀가 잘 들리지 않은 상태를 말하나, 中은 '귀에 거슬리고 체면이 서지 않는다'는 뜻에 쓴다.

老婆: 中에서는 口語로 '마누라·처'를 나타내며 자주 쓰이는 말이다.

飯店: 韓에서는 중국식당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中에서는 보통 '호텔'을 가리킨다.

社員: 韓에서는 회사를 일컫는데 반해 中은 특히 人民公社의 구성원을 가리킨다.

書記: 韓에서는 단순히 기록을 맡아보는 사람을 지칭하지만 中은 공산당 등 각 조직에서의 주요 책임자를 말한다.

石頭: 中에서는 頭가 단순한 접미사로서 '돌'을 나타낼 뿐 韓의 '돌대가리'와 거리가 멀다.

的 : 韓은 한자어 아래에 붙여서 그러한 성질·경향·상태에 있음을 나타내는 말인데, 中에서는 조사로 쓰여 '…의' '…하는' '…의 것' 등 쓰임새가 많다.

前年: 韓은 '지난 해'를 가리키나 中은 '제작년'을 뜻한다.

點心: 韓은 낮에 끼니로 먹는 식사를 이야기하나 中은 '군것질거리·간식'을 말한다.

車間: 韓에서와 완전히 달리 中에서는 회사의 작업현장을 가리키는 특이한 말로 사

용한다.

妻子: 韓에서와 달리 中은 子가 접미사로 '아내'만을 말한다.

必須: 韓은 명사로 '꼭 필요함'의 뜻이나 中은 '반드시·기필코'의 뜻으로 부사로서 쓰인다.

標點: 韓에서는 '표적'과 같이 쓰이는 말이나, 中은 '구두점(문장부호)·구두점을 찍다'의 뜻이다.

合同: 韓에서는 둘 이상이 합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일컫지만, 中은 이와 달리 '계약(서)'를 뜻한다.

논문 편쪽의 제약으로 인하여 전부 다 추출하여 예시하지는 못하지만 위의 예들은 그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리고 위에 든 어휘들도 설명된 의미보다 실제로 더 많고 미세한 차이를 가진 것들도 있다. 韓中 同形語라 해서 다 같은 의미만을 가진 것이 아닐 수 있다. 언제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여 혼동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고 또 중요한 일인 것이다.

VI. 同形語가 아닌 韓中語彙의 對應

앞의 몇몇 장에서 韓中 同形語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는데, 여기서는 同形語가 아닌 어휘를 《常用詞表》를 중심으로 하여 그 면모를 정리하여 두기로 한다. 한국과 중국의 어휘가 同形語일 경우에는 위의 장들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매우 일부의 어휘를 제외하고 대다수가 그 의미가 동일 또는 근접하거나 부분적으로 중첩되어 어떠한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서로 대응하는 어휘가 同形語가 아닌 경우(한국어휘가 漢字語가 아닌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同形語일 경우보다는 상대적으로 서로 연관 관계가 밀접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동형어가 아닌 어휘는 서로 독자적인 발전을 해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한국어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중국어휘의 영향을 덜 받았거나 받지 않은 것이라 판단해도 좋을 것이다. 《常用詞表》에서 韓中 同形語의 비율이 약 43% 차지하므로 非同形語는 57% 정도가 된다. 그 중에서 虛詞에 속하는 품사의 어휘들이 동형어가 아닌 비율이 매우 높다. 嘆詞나 擬聲詞는 원칙적으로 소리를 漢字로 바꿔

표기한 것이라 당연하고, 그 외 介詞·連詞·助詞는 한·중 語法 구조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므로 非同形語가 많은 것이 역시 당연하다. 그런데 副詞를 제외한 이들 虛詞 5개 품사의 상용어는 제2장의 개황에서 보듯 숫자가 그리 많지 않다. 모두 159개 정도로 전체 상용어의 4%에 못미치는 숫자이기도 하므로 여기서의 非同形語가 갖는 의미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하겠다. 實詞에 속하는 數詞·量詞·代詞 등 3개 품사의 상용어 숫자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되지 않고 제2장에서 이미 대략의 언급을 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주로 名詞·動詞·形容詞 그리고 副詞의 4개 품사에 속한 어휘를 범위로 삼기로 한다.

韓·中이 서로 同形語로 對應하지 않는 경우는 대체로 몇 가지 양상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겠다. 하나는 中國어휘에 대해 한국어휘가 다른 한자어로 대응하는 경우, 또 하나는 한국어에서 중국어와 대응하는 어휘가 고유어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고, 또 외래어로 대응하기도 한다. 그리고 중국 고유의 사항과 관련되는 어휘는 알맞는 對應語가 없이 설명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다른 한자어와, 우리 고유어 혹은 외래어가 동시에 對應할 경우도 있으며, 한자어와 고유어 성분이 섞여 쓰여서 대응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星期一'는 한국어에서 '월요일', '明天'은 '내일' 또는 '명일', '中午'는 '정오(正午)', '米飯'은 '쌀밥', '汽油'는 '휘발유' 또는 '가솔린', '水龍頭'는 '수도꼭지'로 대응하며, '共靑團'은 '중국의 '共產主義靑年團'의 약칭' 정도로 설명을 가해야 한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名詞 상용어에서 동물의 이름, 식품의 이름, 복장, 신체·생리, 식량·채소·과일의 이름 등에서 同形語가 매우 적고, 動詞에서는 감각과 四肢 등의 동작에 관한 어휘에서, 形容詞 어휘에서는 사람 모습이나 溫·味·香의 느낌을 형용한 어휘들에서 韓中 동형어가 극히 적고 非同形語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¹⁵⁾ 이들 항목의 어휘들은 거의 다 사람들의 日常生活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빈번히 쓰이는 것이다. 생활과 직결된 만큼 한국어에서 이들은 대부분 固有語로 일반 사람들의 생활 속에 깊이 뿌리내려 중국식(또는 일본식) 한자어휘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던 것이라 할 수 있다.

固有語와 대응하는 中國어휘 가운데서 一字語(單字語)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 單字로 된 낱말들과 또 이에 대응하는 고유어는 어느 것 하나 일상생활과 동떨어진 것이 없고, 知的 生活과는 별로 큰 관계가 없는 것들이다. 名·動·形容·副

15) 본고 제2장 1·2·3항 참조.

詞의 單字語의 예를 각각 약간씩 들어 두기로 한다. 괄호 안은 이에 대응하는 固有語이다.

天(하늘) · 星(별) · 風(바람) · 雲(구름) · 雨(비) · 霧(안개) · 閃(번개) · 火(불)
· 水(물) · 虹(무지개) · 地(땅) · 海(바다) · 春(봄) · 冬(겨울) · 鉛(납) · 鹽(소금)
· 土(흙) · 象(코끼리) · 熊(곰) · 鹿(사슴) · 牛(소) · 馬(말) · 豬(돼지) · 狗(개)
· 葱(파) · 梨(배) · 麵(국수) · 飯(밥) · 蜜(꿀) · 酒(술) · 布(배) · 缸(독) · 紙(종이)
· 尺(자) · 鎖(자물쇠) · 球(공) · 鎬(괭이) · 磨(숫돌) · 瓦(기와) · 頭(머리)
· 眼(눈) · 手(손) · 血(피) · 汗(땀) · 家(집) · 弓(활) · 巷(골목) · 橋(다리) · 信
(편지) · 書(책) · 鼓(북) · 計(피) · 夢(꿈) · 底(바닥) · 旁(옆) · 間(사이) ……

看(보다) · 聽(듣다) · 吃(먹다) · 喝(마시다) · 吞(삼키다) · 嚼(씹다) · 咬(물다)
· 噴(뿜다) · 拿(들다) · 摸(더듬다) · 刻(새기다) · 投(던지다) · 閉(닫다) · 埋(묻다)
· 指(가리키다) · 爬(기다) · 溜(머물다) · 改(고치다) · 寄(부치다) · 愁(근심하다)
· 飛(날다) · 有(가지다) · 來(오다) · 去(가다) · 在(있다) ……

粗(굵다) · 細(가늘다) · 寬(넓다) · 深(깊다) · 多(많다) · 方(모지다) · 尖(뾰족하다)
· 直(곧다) · 彎(굽다) · 清(맑다) · 慢(느리다) · 對(맞다) · 壞(나쁘다) · 熟(익다)
· 怪(이상하다) · 難(어렵다) · 熱(뜨겁다) · 苦(쓰다) · 飽(배부르다) · 渴(목마르다)
· 忙(바쁘다) · 肥(살찌다) · 猛(사납다) · 羞(부끄럽다) · 醜(못생기다) · 乖(착하다) ……

才(비로소) · 剛(막) · 先(먼저) · 快(빨리) · 常(언제나) · 老(늙) · 很(매우) · 太(너무)
· 更(더욱) · 眞(참) · 白(헛되이) · 都(모두) · 只(오직) · 又(또) · 再(다시)
· 就(곧) · 另(달리) · 倒(도리어) · 偏(기어코) · 竟(뜻밖에) · 別(별로) ……

이들 單字로 된 중국 낱말들은 漢字가 본래 가지고 있는 「一字一義」의 속성에 가장 충실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한국어에서 이들은 낱자로 쓰여 同形語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이들 單字語를 語素(形態素, 중국에서는 「詞素」라고도 한다)로 하여 二字 이상으로 이루어진 단어에 쓰일 때가 많기 때문에, 이들이 한국어휘와 非同形의 單字語이기는 하지만 그 語義를 이미 認知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중국어를 교습할 때 이들 單字語는 이들로 造語되는 二字語를 연관시켜 습득케 하면 認知率을 提高시키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나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¹⁶⁾

다음으로 接辭(중국에서는 이를 「附加成分」이라 하고, 접두사를 「詞頭」, 접미사를 「詞尾」라 한다)가 붙는 어휘들을 살펴 보기로 한다. 接詞에는 접두사로 ‘老·阿’가 있고 접미사에 ‘子·兒·頭·巴’ 등이 있는데, 이들이 붙어서 쓰이는 단어는 원칙적으로 單字語의 형태에 접사가 붙은 것이므로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는 것들임은 물론이다. 이들 역시 用例를 잘 알아두면 그만큼 중국어휘의 인지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老」가 붙은 낱말에는 老師(스승)·老虎(호랑이)·老鄉(고향사람)·老鷹(매) 등이 있고, 「阿」를 접두어로 취하는 낱말에는 「阿姨」(이모·아주머니) 등이 있다.

접미사 「子」를 취하는 낱말이 이 중 가장 많은데, 우리말에도 同形語로 種子·獅子·箱子·椅子·帽子 등이 있지만 중국어휘에서 「子」를 취하는 것이라 해서 우리말에서 그대로 「子」를 붙여 사용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다. 우리말에서 「子」를 붙이지 않으나 중국어에서 붙이는 것에 金·銀·藤·橋·腦·例·櫃·瓶·妻·旗·村 등이 있고, 이 밖에도 同形語로 쓰이지 않는 것은 口語에서 다음과 같이 많은 예가 있다.

竹子·院子·池子·鴿子·燕子(이하 「子」 생략)·鴨·蟲·蚊·虱·蝎·稈·葉·麥·稻·穀·豆·柿·栗·包·呢(나일론)·綢·緞·褲·裙·帶·領·袖·扣·房·柱·凳·被·褥·墊·毯·席·簾·鏡·梳·刷·塞·勺·刀·盤·蝶·筷·匙·爐·剪·繩·扇·鏈·錘·鑿·鋸·刨·鏟·鉤·釘·錐·梯·架·管·杠·筐·篋·輪·篩·碾·滾·圈·條·皮·身·矮·胖·瘦·樣·鼻·嗓·鬍·脖·肚·手腕·疹·方·孩·小孩·兒·侄·笛

「兒」은 중국어에서 통상 「조그만하고 귀여운 것」에 붙이는 접미사이므로 그 의미가 中立인 것은 아니다. 이것이 붙어 이루어진 낱말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6) 二字語(雙音詞)는 중국의 書面語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은 대다수가 19세기 말엽 이래로 日文에서 빌어온 것이거나 新造語이다. 이 新語들은 대부분이 원래의 語素를 이용하여 만든 복합어이다. 《中國大百科全書:語言·文字》 p.132 參照.

花兒 · 畫兒 · 鳥兒 · 殼兒 · 蛋兒(이하 「兒」 생략) · 繭 · 根 · 芽 · 枝 · 土豆 · 豆芽 · 桃 · 杏 · 麵 · 棗 · 瓜子 · 衫 · 被單 · 包 · 底 · 蓋 · 牌 · 老頭 · 小孩 · 侄 · 彎 · 信封 · 小道 · 快板 · 相片 · 唱片 · 當

이 외에 「巴」를 접미사로 하는 것에 尾巴 · 嘴巴가 있다.

이러한 接辭가 습관적으로 붙어 쓰이는 어휘 말고도 가족관계의 호칭은 單字語의 중첩형이 많이 쓰이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爸爸 · 媽媽 · 爺爺 · 奶奶 · 哥哥 · 嫂嫂 · 弟弟 · 姐姐 · 妹妹 · 公公 · 婆婆 · 伯伯 · 叔叔 · 姑姑

위의 여러 예들은 口語에서 습관적으로 접사를 동반하거나 중첩되어 쓰여서 2자 이상으로 이루어진 낱말이 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어디까지나 원래 單字語가 주된 성분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이 외에 常用語의 범위 내에서 주의를 끄는 것이 있다면, 우선 2字語 중에서 우리가 쓰는 낱말과 앞뒤가 서로 뒤바뀌어서 同形語가 되지 못하는 중국어휘가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語言 · 擁抱 · 答應 · 介紹 · 脫離 · 限制 · 修改 · 互相 · 黑暗 · 惡劣 · 合適 · 朴素 · 開展 · 和平

등이 있다. 그리고 원래 같은 뜻의 낱말이기는 하나 다른 字를 습관적으로 취하여 同形語가 되지 못한 것도 있는데 그 예는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우리 습관임).

通訊(通信) · 詞典(辭典) · 珍珠(=眞珠)

위에서 同形語가 아닌 韓中 어휘의 대응 면모를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非同形語 가운데서 單字語는 대부분 複字語의 語素로도 쓰이므로 그와 연관지워 상기할 수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이미 그 語義는 알고 있는 것이 많다.

그리고 우리말의 습관과 혼동하여 잘못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接辭가 붙는 경우나 重疊語 등으로 활용되는 어휘의 구체적 예에 대해서도 잘 파악해 두고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VII. 結 語

이상과 같이 中國의 常用語를 중심으로 하여 우리 漢字語彙와 同形으로 對應하는 낱말을 추출하여 意味領域이 서로 일치하는 것, 부분 중첩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것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그리고 뜻이 일치하는 어휘를 고찰하는 데 덧붙여 中國에 流入된 일본제 한자어의 實例도 살펴보았으며 서로 字形을 달리하여 대응하는 어휘들의 몇 가지 양상에 대해서도 대강 훑어보았다. 이처럼 이 글은 中國 상용 어휘와 우리가 사용하는 한자어가 어떤 모습으로 서로 대응하는지에 대해 매우 淺近하게 고찰한 기초적 연구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는 한자어에 대한 본격적 연구가 보이지 않고, 특히 現代 中國語彙와 우리 어휘의 대응 관계에 대해서는 축적된 연구가 전무한 실정 아래에서 이 글이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시도적인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中國의 常用어휘에서 차지하는 한중 동형어의 비율이 43% 이상을 차지하며, 각 품사 별 상용어의 숫자와 동형어의 비율, 그리고 그 語例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 20세기 초두를 전후한 시급을 요하는 中國의 문화적 사회적 수용환경으로 인한 새로운 어휘에 대한 수요를 상당히 충족시켜 준 것으로 판단되는 일본제 한자어는 한국에서도 사실상 많이 도입하여 쓰기 때문에 앞으로 韓中의 수용 태도와 현황에 대한 비교 분석이 흥미로운 과제로 남는다. 또한 이에 대한 연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어 그 實相이 자세히 밝혀지고 보다 깊이 논의됨으로써 우리말에서 척결해야 할 잔재들을 좀 더 이상적으로 일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중국어에서 쓰이는 동형 어휘 중에서 용법이 우리와 다소 혹은 현저히 달라서 혼동을 초래하는 것도 상당수 있다. 이들은 정확하게 가려서 그 용례를 잘 구별하지 않으면 안된다. 동형어가 아닌 경우라도 그 어휘의 특징을 잘 파악하여 관련성을 상기함으로써 상당한 정도 인지율을 더 제고시킬 수 있음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범위가 넓지 못하고 서술에 미흡한 점도 솔하지만, 중국어 교수와 학습에 약간의 참고가 되고 이와 관련하여 차후 한국·중국·일본의 漢字語에 관련된 더욱 심도있는 연구가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主要參考文獻>

1. 《普通話三千常用詞表》(增訂本) 鄭林曦, 文字改革出版社, 北京, 1987.
2. 《동아새국어사전》 李基文 監수, 東亞出版社, 서울, 1994.
3. 《民衆엿센스國語辭典》 李熙昇 監수, 民衆書館, 서울, 1974.
4. 《朝漢詞典》 北京大學 東語系 朝鮮語教研室, 商務印書館, 北京, 1978.
5. 《漢語外來詞詞典》 劉正煥 등, 上海辭書出版社·商務印書館香港分館, 香港, 1985.
6. 《現代漢語辭典》(修訂本) 中國科學院 語言研究所, 商務印書館, 北京, 1979.
7. 《中韓辭典》 高大民族文化研究所, 서울, 1989.
8. 《신화사전》 연변대학출판사, 延吉, 1990.
9. 《中國語學辭典》 中國語學研究會, 江南書院, 東京, 1958.
10. 《中國大百科全書:語言·文字》(「漢語」 및 「漢語詞滙」條)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北京, 1988.
11. 《민족문화대백과사전》(「漢字語」條) 精神文化研究院, 서울, 1990.
12. 《中國語學入門》 香坂順一, 鄭憲哲 編譯, 高麗苑, 서울, 1986.
13. 《韓國韓字語에 관한 研究》 李庸周, 三英社, 서울, 1974.
14. 《한글과 漢字》 韓國語文教育研究會, 一潮閣, 서울, 1992.
15. 《朝漢語語滙對比》 崔奉春, 延邊大學出版社, 延吉, 1989.
16. 《中國語と對應する漢語》 文化廳, 東京, 1986.
17. 《漢字音讀語の日中對應》 文化廳, 東京, 1983.
18. <現代中國語における日本製漢字> 沈國威(《日本語學》 7月號 明治書院, 東京, 1993)
19. <現代韓國語における日本製漢字> 李漢燮(《日本語學》 7月號 明治書院, 東京, 1993)

20. <中國人・朝鮮人に對する漢字語彙教育について> 木村益夫(《講座日本語教育》 第1分冊, 1971)
21. <『中國語と對應する漢語』を診斷する> 飛田良文・呂玉新(《日本語學》 Vol.5, 6月號, 明治書院, 東京, 1986)

〈이 페이지는 여백임〉

《孟子》：「二女果」의 「果」字 小考

朴 昌 植*

<目 次>

1. 問題의 提起
2. 《孟子》의 來源과 今本 《孟子》
3. 《孟子》 「果」字의 字形의 考察
4. 《孟子》 「二女卑」의 『卑(婢)』字 驗證
5. 結 語

一. 問題의 提起

《孟子·盡心(下)》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다.

孟子曰：舜之飯糗茹草也，若將終身焉。及其爲天子也，被袵衣，鼓琴，二女果，若固有之。(맹자가 이르기를 순이 건량과 들나물을 먹는 것이 마치 종신토록 그렇게 하기로 작정한 것 같았고, 그가 천자가 되고 난 후에도 칩옷을 입는 것과 거문고를 타는 것, 그리고 두 여자(의?) 「果」는 이미 있던 그대로였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鼓琴，二女果，若固有之」句이다. 이 「果」字를 朱熹가 註하기를 「果，說文作媠。烏果反」(과자는 설문에 와자로 쓰여져 있고 오과반이다.)이라 했고, 또한 「二女果」를 訓讀하길, 「二女，堯二女也。果，女侍也。」(두 여인은 요의 두 딸이고, 과는侍女다.)¹⁾라고 하였다. 그런데 清 邵應의 《說文解字群經正字》에서 말하기를, 「徧考經傳，『果』無女侍之訓，惟見《孟子》此文。蓋必假借字而正字本作媠也。許亦引此文爲證。」(경전을 두루 살펴보건대 오로지 맹자의 이 글 외엔 果字가 侍女의 뜻이 없으므로 필히 정자를 媠로 하는 假借字일 것이다.

* 慶星大 中文科 講師

1) 朱熹, 《四書集註》, p.206, 香港太平書局 1986년 제7판.

그러기에 許(愼) 역시 이 구절을(媠字를 풀이하는) 例證으로 삼았다.)²⁾ 라고 하였다. 그의 말을 요약하면, 果자가 經傳에서 侍女의 뜻으로 쓰인 例는 없으나 許愼 역시 果字를 侍女의 뜻을 가진 媠字로 보고 이 구절을 引用했기 때문에 分明 《孟子》의 果字는 媠자의 假借字일 것이라는 것인데, 그것은 아마 東漢 許愼으로부터 南宋 朱熹로 이어지면서 「果」字를 「女侍」로 풀이한다는 認識이 굳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經典의 글귀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그 經典의 成書年代를 먼저 확인해야 함은 물론이고 더욱이 그 글귀를 訓讀한 사람의 年代 역시 따져 봐야 하는 것은 治學의 가장 基本的 問題일 것이다. 이런 觀點에서 본다면 《孟子》의 「果」자를 「女侍」라고 풀이하기엔 문제가 많다. 그 첫번째 理由는 《孟子》의 이 글은 《尚書·堯典》에 기록된 「帝曰我其試試. 女, 于時觀厥刑于二女. 釐降二女于媿汭, 嬪于虞. 帝曰欽哉.」((堯)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두 딸을 그에게 시집보내어 그의 예절을 시험해 보리라 하시며 두 딸을 규예로 내려가게 칙령을 내려 虞氏 집안에 시집보내며 공손하라 이르셨다.) 이상의 내용과 西漢 司馬遷이 《史記·五帝本紀》에 記錄한 「舜年二十以孝聞. 三十而帝堯聞可用者, 四嶽咸薦虞舜. 曰, 可. 於是堯乃二女妻舜, 以觀其內使九男與處, 以觀其外. 舜居媿汭, 內行彌謹, 堯二女不敢以貴驕, 事舜親戚, 甚有婦道.」(순의 나이 스무 살에 효로서 칭송을 받고, 서른 되던 해 요임금이 천자의 뒤를 이을 자를 물음에 사악이 모두 우순을 천거함에 요임금이 허락하시고 두 딸을 순에게 시집보내어 그의 집 안 행실을 살피게 하고, 아홉 아들을 그와 함께 지내게 하여 밖에서의 활동을 살피게 했는데 순이 교예에 거주할 때 집안에서의 행실이 매우 예절이 있어 요임금의 두 딸이 감히 출신의 귀함으로 교만하지 못했으며, 순을 친척 어른 섬기듯하며 아내의 도리를 다하였다.)³⁾는 내용을 볼 때 요임금이 순에게 시집보낸 두 딸은 妻이지 侍女가 아님은 分명한 사실이고, 또한 《史記·五帝本紀》의 記錄인 「自從窮蟬以至帝舜皆微爲庶人」(궁선으로 부터 순제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비천해져 평민이 되었다.)(卷一, p.45)는 기록과 《史記·五帝本紀》의 「衆皆言於堯曰有矜在民間曰虞舜……」(모든 대신들이 입모아 말하기를 백성 중에 나이드는 총각 우

2) 丁福保, 《說文解字詁林》 10冊, P.122, 臺北 鼎文書局 1983年 第2版.

3) (日)瀧川龜太郎, 《史記會注考證》 卷一, p.47, 1976년 臺北 宏業書局. 다음부터 본서를 인용할 때는 인용문 뒤에 권수와 쪽수만을 표기한다.

순이 있는데……)(卷一, p.30)라는 舜의 家勢와 요임금의 두 딸을娶하기 전엔 총각이었다는 記錄을 볼 때 그가 天子가 되기 전부터 들이나 되는 시녀를 거느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理致에 어긋난다. 위에서 學論한 바와 같이 《尚書》와 《史記·五帝本紀》 등 史籍에 분명히 요임금의 두 딸이 순의 妻가 됐다는 내용이 왜 今本 《孟子》에선 '果'字로 남아 侍女로 訓讀되고 있고, 東漢 許慎이 지은 《說文解字》에선 '媿'字條에 《孟子》의 이 구절이 引用되고 있는가? 이러한 矛盾된 現象를 理解하기 위해선 《孟子》라는 冊의 傳來過程부터 探究해가야 함이 順序일진데 지금까지의 研究現況을 볼 땐 이러한 認識이 不足했던 것이 事實이다.

二. 《孟子》의 來源과 今本 《孟子》

《孟子》의 來源에 대하여 司馬遷은 《史記·孟子荀卿列傳》에서 이렇게 記述하고 있다. 「余讀孟子書……退而與萬章之徒, 序詩書, 述仲尼之意, 作孟子七篇」(내가 《孟子》를 읽을 때……물러나 만장 등과 더불어 《詩經》과 《書經》을 정리하고 공자의 뜻을 풀이해 맹자 일곱 편을 지었다.)(卷七十四, pp.2-4)

그런데 西漢時代 사마천이 읽을 때 七篇이던 《孟子》가 東漢 班固의 《漢書·藝文志》에선 「孟子十一篇: 名軻, 鄒人, 子思弟子, 有列傳」(맹자 열한편은 추나라 사람 가가 지은 것이고, 그는 자사의 제자로 열전에 기록이 있다.)⁴⁾와 같이 十一篇으로 변해있고, 東漢 應劭는 《風俗通·窮通》에서 맹자가 만장 등과 더불어 “作書中外十一篇”(증편과 외편이 있는 열한편의 책을 지었다.)⁵⁾라고 했고, 東漢의 趙岐는 《孟子章句·題辭》에서 더욱 具體的으로 “又有外書四篇, 性善辯·文說·孝經·爲政, 其文不能宏深, 不與內篇相似, 似非孟子本眞. 後世依放而託也.”(또한 성선변·문설·효경·위정 등 외서 네편이 있는데, 이들은 문장의 깊이가 없어 내편과 다르니 맹자의 본래의 내용이 아니고 후세 사람이 맹자의 이름을 빌려 모방한 것 같다.)⁶⁾라고 외편의 篇名까지 列舉하며 그것들이 模倣作이

4) 東漢 班固, 《漢書·藝文志》 卷三十, p.1725, 北京中華書局 1983年, 第4版.

5) 東漢 應劭 作, 吳樹平 校釋, 《風俗通義校釋》, p.258, 天津人民出版社 1980年.

6) 焦循, 《孟子正義》, p.9, 北京中華書局 1988年, 第6版.

라 하여 註解하지 않았고, 그러자 外書 네편은 時代의 흐름에 따라 漸漸 사라져 버렸다. 여기서 우리는 應劭가 중편이라 이르는 것과 趙岐가 내편이라 이르는 일곱 편의 《孟子》는 과연 사마천이 기술한 맹자가 만장 등과 더불어 지은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을까? 바꾸어 말하자면 서한 때 사마천이 본 일곱 편의 《孟子》와 東漢時代의 班固·許慎·應劭·趙岐 등이 中篇 혹은 內篇이라 불러진 《孟子》는 같은 流의 版本일까? 蔣伯潛은 그의 著書 《十三經概論》에서 <孟子無今古文>이란 小題 아래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趙岐孟子題辭又謂:「亡秦焚滅經術, 坑戮儒生, 孟子徒黨盡矣. 其書號爲諸子, 故篇籍得不泯絕。」按史記載始王焚書事有云:「諸子之言紛然淆亂. 至秦患之, 乃燔滅文章, 以愚黔首。」則諸子之書當然亦在焚禁之列. 漢書·河間獻王傳稱孟子爲獻王所得. 似亦遭秦焚禁, 至漢武時復出者. 然文帝時孟子已立博士矣, 韓嬰之詩外傳, 董仲舒之春秋繁露已多引孟子矣, 則孟子似非至武帝時始出, 趙氏所云, 書號諸子, 故篇籍泯絕者, 殆可信也. (조기는 맹자 제사에서 “진나라가 분서갱유를 할 때 맹자의 무리는 모두 없어졌지만 그의 책은 제자에 속했으므로 분서를 면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사기에 분서에 관한 일을 기록하기를, “제자의 주장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워 진대에 이르러 이것을 걱정하여 서적을 불태워 백성을 미련하게 만들었다.”라 하는 걸 보면 제자의 책도 당연히 분서의 범주에 속했을 것이다. 한서·하간현왕전에 이르기를 맹자가 현왕이 얻었다고 하는데 아마 이 역시 진대의 분서와 금서를 맞았던 것이 한무제 때 다시 세상에 나온 것 같다. 그러나, 문제 때 이미 맹자박사제도를 두었고 한영의 시외전이나 동중서의 춘추번로에 벌써 맹자가 여러번 인용되는 것으로 보아 맹자가 무제 때에 처음으로 세상에 나타난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러므로 조씨(기)가 말하는 바와 같이 맹자가 제자류의 책에 속하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았다는 설명은 거의 믿을 수 있을 것 같다.)⁷⁾

우리는 이러한 蔣씨의 피상적인 說明에 대하여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첫번째 이유는 한영과 동중서가 《孟子》를 여러번 인용했다는 사실이 하간현왕이 《孟子》를 얻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蔣씨가 사기의 기록을 인용함에 있어 진시왕의 분서가 마치 세상의 모든 제자서를 불태워 없애버린 것같이 말하는데, 이것은 사기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사기의 분서에 관한 기록을 보면, “三十四年……丞相李斯曰……臣請史官非秦記, 皆燒之. 非博士官所職天下敢有藏詩書百家語者, 悉詣守尉雜燒之. 有敢偶語詩書者,

7) 蔣伯潛, 《十三經概論》, p.615, 上海古籍出版社 1986년 第2版.

弃市……制曰可.”(진시왕 삼십사년, 승상 이사가 사관에는 진나라 역사책이 아니면 모두 불태워 버리고, 박사관에서 관리하는 책을 제외하고 천하에 감히 시서나 백가서를 소장하고 있는 자는 그것을 모두 지방관서에 보내어 태우게 하고, 두 사람이 시서를 마주 논하면 죽여 거리에 버리게 하도록 청합니다하니 진시왕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다.)(卷六, pp.49-52)라고 했다. 이것은 진시왕의 분서 때 박사관에 소장된 《孟子》 등의 諸子書는 除外됐다는 것이다. 그러면 문제 때 설립한 孟學博士의 教本은 두말할 나위 없이 진대에 박사관에 소장됐던 《孟子》가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사마천이 《孟子》를 보았고 한영과 동중서가 그들의 저서에서 《孟子》를 인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 때 설립된 孟學博士制度는 비록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焦循의 說에 의하면 한무제가 百家를 물리치고 六經을 숭상할 建武五年(B.C. 136. 按:한무제 연호 建武는 漢書에선 建元이라고 한다)쯤에 廢止되었다고 한다.⁸⁾ 이는 하간현왕이 얻었다는 《孟子》가 후대에 유행하게 되는 큰 轉換點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漢무제 때 하간현왕이 얻었다는 《孟子》는 무슨 말인가? 《漢書·景十三王傳》에 기록된 하간현왕의 得書過程은 다음과 같다.

河間獻王德以孝景前二年立, 修學好古, 實事求是. 從民得善書, 必爲好寫與之, 留其眞, 加金帛賜以招之. 繇是四方道術之人不遠千里, 或有先祖舊書, 多奉以奏獻王者, 故得書多, 與漢朝等. 是時, 淮南王安亦好書, 所招致率多浮辯. 獻王所得書皆古文先秦舊書, 周官·尚書·禮·禮記·孟子·老子之屬, 皆經傳說記, 七十子之徒所論. 其學學六藝, 立毛氏詩, 左氏春秋博士. 修禮樂, 被服儒術, 造次必於儒者. 山東諸儒從而游.(하간현왕 등은 경제 전 이년에 왕위에 올랐는데 학문을 함은 옛 도를 따랐고 모든 일을 함에 있어 사실에 토대를 두고 진리를 탐구했다. 백성으로부터 귀중한 책을 얻으면 반드시 다시 잘 쓰고 그에게 주고 원본은 자신이 보관했는데 거기다 상을 내려 책을 구하니 이로부터 사방의 도덕과 학술이 있는 사람들이 혹은 선조 때의 고서가 있으면 천리를 멀다않고 왕에게 바친 자가 많은 까닭으로 얻은 책이 많아 한나라 조정 등에 주었다. 이 때 회남왕 안 역시 책을 좋아했으나 그가 모은 책들은 대부분이 허황된 괴변이었다. 현왕이 얻은 책은 모두가 고문으로 된 진나라 이전의 고서인데 주관·상서·예·예기·맹자·노자 등의 경전의 記述이며 공자의 칠십 제자가 논한 것으로 그 학문은 육경을 받들어 모씨의 시경과 좌씨 춘추의 박사제도를 세웠다. 예악을 닦고 나아가 행함이 반드시 유가의 법도를 따랐다. 그래서 산동의 많은 유생이 그를 따라 학문을 구했다.)⁹⁾

8) 註6 前揭書, p.10.

9) 註4 前揭書, p.2410.

여기서 우리는 두가지 注目할만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첫째는 하간현왕이 얻었다는 《孟子》는 진나라 이전의 고문으로 된 책이었다는 점이다. 그러면 하간현왕이 先秦 古文을 漢代의 隸書로 옮기는 過程, 즉 隸定을 하는 過程에서 誤譯은 없었는가 하는 것이고, 둘째 이러한 책들을 하간현왕이 漢나라 朝廷에 바쳤으면 그 時期가 언제였나는 점이다. 첫째의 隸定問題는 다음의 字形考察에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선 하간현왕이 언제 漢나라 朝廷에 《孟子》를 바쳤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漢書·武帝紀》에 依하면 하간현왕 德은 漢武帝 元光5年(前130年)에 죽는데¹⁰⁾, 이는 한무제가 즉위한 지 10년 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景十三王傳을 보면 정확한 年度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무제 때 현왕이 來朝해 雅樂을 바치고 三雍宮 및 詔策이 물은 30여가지 일에 답했다¹¹⁾고하는데, 이로 미루어 보면 하간현왕이 그가 隸定한 《孟子》를 漢나라 朝廷에 바친 것은 바로 한무제 초기의 일일 것이다. 그러면 이때는 사마천이 《史記》를 집필하기 시작한 太初元年(前104年)보다도 무려 25년 이전의 일인데, 사마천은 어찌해서 《孟子》를 일곱 편으로 기술하고 있는가? 이것은 두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사마천은 漢나라 宮庭에 所藏되어 있던 《孟子》나 하간현왕이 漢나라 朝廷에 《孟子》를 바치기 前에 民間에서 流行하던 傳來의 《孟子》를 根據로 했고, 둘째는 사마천은 하간현왕이 바친 《孟子》中 外四篇이 《孟子》의 본래 모습이 아닌 하간현왕이 附加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그러면 東漢에 이르러 열 한편의 《孟子》가 유행하게 된 것은 어떻게 설명 될 수 있는가? 우리는 秦代와 西漢의 책들이 東漢에 이르러 같은 書名을 가지면서 그 내용을 달리 할 수도 있다는 점에 留意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秦의 丞相 李斯가 지은 蒼頡七章과 車府令 趙高가 지은 爰歷六章 그리고 太史令 胡毋敬이 지은 博學七章이 西漢에 이르러서 합쳐서 蒼頡篇으로 불리고, 許慎이 《說文·敘》에서 한탄하듯이 동한시대 사람들은 옛날의 황제가 지은 책이라 그 내용에 신선의 도술이 있다고 생각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¹²⁾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한무제 건원 5년쯤에 맹학박사제도의 폐지와 더불어 주춤하던 <

10) 註4 前揭書, p.1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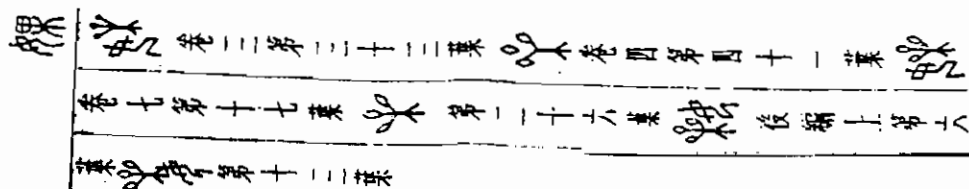
11) 註4 前揭書, p.2411.

12) 東漢 許慎著, 清 段玉裁注, 《說文解字注》十五 卷上 二十b, 臺灣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

《孟子》에 대한 관심 속에서 山東地方에서 유행하던 하간현왕이 隸定한 《孟子》가 傳來《孟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됐기에 《漢書·藝文志》에 버젓이 열한편으로 기록되었던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今本《孟子》는 東漢의 趙岐가 하간현왕이 齊·魯系統의 古文《孟子》를 底本으로 隸定한 《孟子》 열한편에서 外篇 네편을 빼버린 《孟子章句》本이기 때문에 사마천이 본 漢무제 때까지 西漢에서 流行하던 版本과는 그 內容을 달리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清代의 顧炎武가 《日知錄·孟子外篇》에서 옛사람들의 著作 중에 引用이 되면서 今本《孟子》에는 보이지 않는 구절들을 모아 《孟子》外篇 中の 글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도¹³⁾ 이것들이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걸 알 수 있다.

三. 《孟子》「果」字의 字形的 考察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孟子》「二女果」의 『果』는 『媠』字의 假借字가 아니고 하간현왕이 齊·魯系統의 古文『媠』字 字形을 隸定할 때 錯誤가 있었던 것이라고 본다. 지금 우리는 갑골문 중에서 『媠』字와 『媠』字, 이 두 가지 자형을 모두 찾을 수 있는데, 먼저 羅振玉先生이 《殷墟文字類編》 중에서 설명하는 『媠』자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기로 하자.



『媠』: 從女從 衆, 衆 殆爲果字, 象果實在樹木之形. 許君云: 象果形在木上. 世固無此碩果矣. 卜辭或省女作 衆, 與孟子二女果同. 說文『媠』: 媠, 姬也. 一曰女侍曰

13) 清 顧炎武, 《日知錄》, pp.216-217, 臺灣 文史哲出版社, 中華民國 六十八年.

媠。孟子二女果，趙注媠，侍也。今卜辭曰貞帚(即歸字之假字)[引者按：羅 선생은 帚字를 歸字의 假借字로 보는데 이것은 婦字의 假音字이다.¹⁴⁾媠之子(卷三第三十三葉); 曰貞帚果(卷四第七十一葉); 曰貞 𠄎 帚媠于母(卷七第十七葉)與許君一說及孟子趙注合; 與許君第一說異。然可知孟子之果與許君之媠，固爲一字。(『媠』字은 女와 𠄎로 이루어 形成되어 있는데 𠄎은 아마 果자로 果實이 나무 위에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일 것이다. 許愼이 말하기를 果實의 형상이 나무위에 있는 것을 그렸다고 하는데 세상에는 당연히 이렇게 큰 果實은 없을 것이다. 帛書에서는 혹은 女偏旁을 생략해서 𠄎로도 쓰는데 帛書에 나오는 이녀과와 같다. 帛書에선 媠를 아름다울 姬(와)라고 풀이하고, 또한 侍女를 媠라고도 한다고 설명했으며, 조기의 注에는 媠를 시중이라고 했다.[역자주: 이하 帛書의 해석은 羅씨 原文(비록 羅씨가 考釋을 했지만 그의 제자 商承祚가 편집했음)자체가 부정확하기 때문에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없기에 최근에 출판된 《甲骨文合集》(이하 省稱《合集》)의 拓本과 《殷墟刻辭類纂》(이하 省稱《類纂》)의 解釋을 參考하여 翻譯할 수 밖에 없다.] 『貞帚媠之子』는 “貞婦媠有子”(婦媠가 아들을 낳겠는가?)의 誤釋¹⁵⁾ “貞帚媠”는 碎片¹⁶⁾으로 무엇을 묻는지 그 내용은 모르지만 마땅히 “貞婦媠”로 고쳐야 하며, “曰貞 𠄎 帚媠于母”는 “...卜爭貞禦婦媠于母...”(아무개 날 史官爭이 묻는데 婦媠로 하여금 어머니께 禦祭를 지내게 할까요?)의 誤釋¹⁷⁾ 이다.] 이것은(즉 卜辭의 媠字) 許愼의 一說 및 조기의 帛書주와 같으나 許愼의 처음의 풀이(즉 媠를 姬로 풀이한 것)와는 다르나, 帛書의 果자와 許愼이 쓴 媠자는 확실히 같은 글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¹⁸⁾

이미 翻譯過程中에서 羅씨의 터무니없는 帛書의 考釋은 修正하였지만 卜辭의 媠字 역시 女侍의 뜻은 전혀 없고 「女」偏旁을 省略하든지 안하든지 간에 諸婦¹⁹⁾

14) 이것은 北京中華書局語言文字研究室的 主任 趙誠教授의 《甲骨文簡明辭典》 p.46 「帚」字條의 說明에 根據한 것이다. 北京中華書局 1988年 初版.

15) 《合集》 第5冊, 編號13933正. 北京中華書局 1979年 初版. 《類纂》 上冊, p.188下, 北京中華書局 1989年 初版.

16) 《合集》 第2冊, 編號2755. 1978年 初版. 《類纂》, 註15 前揭書 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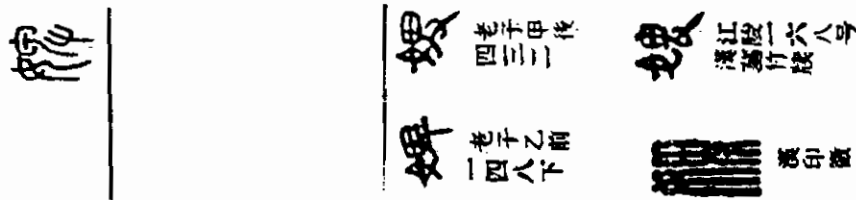
17) 註16 前揭書, 編號 2773.

18) 清 羅振玉先生, 《殷墟文字類編》, pp.334-335, 臺灣 文史哲出版社, 中華民國 六十八年.

19) 帛書에서 婦라 함은 일종의 부녀 들의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는 칭호인데 婦好·婦妣·婦姪 등 그 수가 무려 60餘개가 되기 때문에 帛書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편의상 이들을 諸婦라 부른다. 자세한 것은 註14에서 인용한 책을 참고하기 바란다.

서 무일편의 남아있는 글자 중에 비자의 고문은 𠄎고, 먼케의 비자는 𠄎니, 모두 자의 편방 𠄎 또는 𠄎와 흡사하다. 그러므로 𠄎자를 예서로 쓰자면 마땅히 𠄎인데, 아마 婢자의 古文일 것이다. 편집자의 말: 설문에 이르기를 𠄎는 여자의 천한 자를 이르며 글자는 女와 卑로 이루어지고, 卑는 또한 소리를 나타낸다. 이 글자가 𠄎과 卑로 이루어짐은 𠄎자를 혹은 𠄎로 쓰는 것으로 보아 屈씨가 婢자로 해석하는 것을 따를 수 있겠다. 아마 편방에서 女와 𠄎이 서로 통하기 때문일 것이다.)²²⁾

여기서 우리는 商代의 갑골문으로부터 西周의 免_籀에 이르기까지 卑字와 果字가 혼용된 아무런 흔적도 발견할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秦·漢시대의 隸書資料에서도 婢字의 偏旁 卑의 形態는 다음과 같이 거의 갑골문 婢字의 偏旁形態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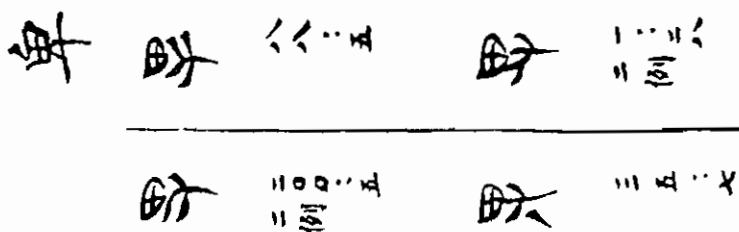


23)

그러므로 우리는 西漢時代의 사람이 漢隸로 쓰여진 『婢』자를 보고 『媿』자로 다사 옮겨 쓴다던가 『卑』자를 『果』자로 誤認하는 경우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그러나 일찍이 王國維先生이 주장했던 “戰國時秦用籀文六國用古文說”의 관점에서 본다면 문제는 달라지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날 그의 학설을 전반적으로는 받아드릴 수는 없지만 戰國時代에 東西土, 즉 秦 나라와 東方 六國의 文字 사이에는 文字 使用上에 있어서 顯著的 差異가 있었다는 것을 否認하기는 어렵다. 그 예가 바로 《孟子》「二女果」의 『果』字 字形의 문제인 것이다. 먼저 우리는 1965년부터 1966년 5월 사이에 山西 侯馬晉城 遺址에서 발굴된 《侯馬盟書》의 『卑』字 字形을 보자:

22) 李孝定, 《甲骨文集釋》, p.3631, 臺灣 中央研究院 歷史語言研究所 專刊之五十, 中華民國五十九年 再版.

23) 方述鑫, 《秦漢魏晉篆隸字形表》, p.885, 四川辭書出版社 1985年.



24)

우리는 (三五·七)의 卑字 字形이 『果』자와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느끼지만 오른쪽 下端의 한 획(永字八法에서 磔 혹은 捺이라 부르는 부분)이 모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劉向이 《戰國策書錄》에서 그가 中秘書를 정리하던 과정을 언급하는 다음과 같은 記述을 보면 東漢 班固의 《漢書·藝文志》의 孟子十一篇 중의 果字는 이러한 東方六國古文 卑자의 誤譯일 可能性은 더욱 커진다. “本字多誤脫爲半字, 以「趙」爲「肖」, 以「齊」爲「立」, 如此字多.”(본래 글자가 잘못 떨어져나가 반자가 된 글자가 많았는데 趙자가 肖자가 되고, 齊자가 立자가 되는 등 이런 글자가 많았다.)²⁵⁾ 그런데 劉向이 말하는 趙字가 잘못 떨어져 나가 肖字가 되었다는 것이, 《侯馬盟書》에서 『趙』字와 『肖』字가 嚴然히 通假되고 있는 것이다.



26)

24) 山西省文物工作委員會, 《侯馬盟書》, p.312, 文物出版社 1976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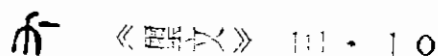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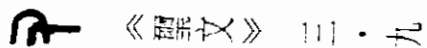
25) 西漢 劉向 集錄, 《戰國策》, p.1195, 上海 古籍出版社 1990年 第3版.

26) 註24 前揭書, p.346.

이것으로 보아 劉向이 말하는 本字가 떨어져 半字가 되었다는 말은 漢隸에 習慣된 西漢 사람들의 先秦古文通假現象과 戰國時 東方六國 文字에서 흔히 볼 수 있는 偏旁省略現象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脈絡에서 《侯馬盟書》에 보이는 「二女卑」의 字形을 組合하면:



와 같이 되는데 漢隸에 습관된 하간현왕이나 劉向이 이런 字形들을 봤다면 당연히 (八八:五)字形를 果字로 보고, (三五:七)字形을 果字의 殘字라고 看做하여 二女果로 읽었을 것이다. 사실 (三五:七)의 下端의 한 비침 劃(永字八法에서 掠 또는 撇라 부르는 부분)은 戰國文字 卑字 즉, (二〇〇:五二例)와 같은 字形에 美觀을 위해 한 획을 더해 裝飾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美觀 外에 아무 意味 없이 添加하는 符號(획)를 古文字學에서는 裝飾性符號라 부르는데 例를 들면 아래와 같이 本來는 又(古文 手)字인데 일획을 더하여 마치 마디 寸과 같이 보이는 것이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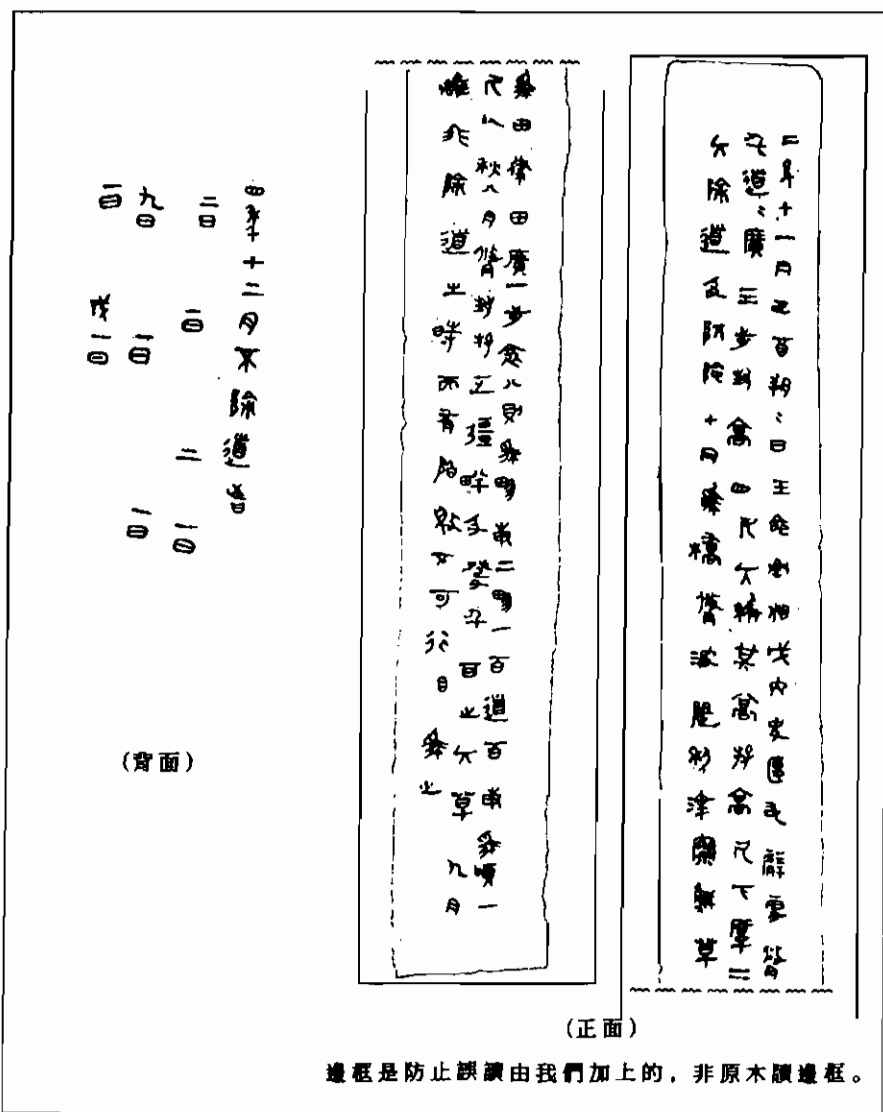


27)

그러므로 《漢書·藝文志》의 《孟子》가 十一篇이고, 果字가 東方六國古文 卑字를 하간현왕이 誤譯한 것이라는 것은 거의 확실시된다. 여기서 한가지 參考할 수 있는 것은 1979년부터 1990년 7월 사이 靑山縣에서 발굴된 秦武王2年(前309年)의 《靑山木牘》 146字의 字體가 아래의 [圖一]과 같이 이미 상당히 발전된 隸書라는 것을 보면, 이러한 秦系文字로 쓰여진 《孟子》에선 이런 訓讀上的 問題가 될만한 글자가 발생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圖一] 《古文字研究》(第19輯) p.283에 실려 있는 徐中舒·伍仕謙,〈靑山木牘 簡論〉에서 拔萃함.

27) 何琳儀, 《戰國文字通論》, p.230, 北京中華書局 1989年.



四. 《孟子》「二女卑」의 「卑」(婢)字 驗證

우리는 이미 論述한 바와 같이 《孟子》「二女果」의 『果』字는 하간현왕이 東方六國古文『卑』字를 誤譯한 것이라는데 대해 어느 정도의 確信을 가진다. 그러나 假說과 論證은 항상 驗證의 過程에서 그 妥當性이 인정되어야만 定論으로 성립될 수 있다. 마치 數學에서 換算이 맞아 떨어지야 하듯이!

그러면, 《孟子》「二女果」의 『果』字를 『卑』字로 代替해 그 訓讀에 무리가 있는

지 없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그러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許慎이 《孟子》 「二女果」의 『果』字를 『媠』字로 읽고 옛 學者들이 여기에 대해 異意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겠다. 위에서 例로 든 갑골문에 있어 人名「果」字가 혹은 「女」旁을 添加하고, 혹은 그대로 쓰듯이 어느 글자에 있어서 讀音(聲符)가 같고 그 形符가 本意에 影響을 주지 않을 때는 繁體와 簡體가 동시에 通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후세사람들의 생각으로는 形符가 있어 그 意味가 뚜렷한 字를 本字라 하고 서로 通用은 되나 本然의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단지 音이 같다는 이유로 다른 字의 뜻으로 빌려 쓰인 字를 假借字라 하는데 이것은 文字의 사용이 굳어지면서 후세사람들이 자신이 처한 시대의 文字使用現象에 따라 구분해 놓은 것에 불과하지 先秦時代의 사람들이 文字使用에 있어 이런 분명한 구분을 가지고 있었다고는 단정하기는 어렵다. 바로 앞에서 인용한 《侯馬孟書》의 『趙』字의 聲符「肖」字가 「趙」자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六國古文으로 쓰여진 「卑」字를 「婢」字의 假借字로 看做하는 데는 아무런 무리가 없다고 하겠다. 淸 桂馥이 《說文解字義證》에서 「婢」字를 풀이하길:

婢: …… 僖二十二年左傳: 寡君之使婢子. 服注: 婢子, 婦人之卑稱. …… 檀弓: 使吾二婢子夾我. 注云: 婢子, 妾也. (左氏春秋의 회공 22년에 있는 “부왕이 저(秦王의 딸 懷嬴, 晉懷公의 妻)로 하여금”의 婢子를 주하기를 부인의 낮춤말이라 했고, …… (禮記) 단궁(下)의 “(陳乾昔이 병으로 드러눕자 그 형제에게 부탁하고 아들 尊己에게 命하기를 내가 죽거든 반드시 내 棺을 크게 짜서)내 두 침으로 하여금 나를 감싸게(하여 棺에 함께 넣어라)”의 婢子를 注하기를 妾이라 했다.)²⁸⁾

이와 같이 婢字는 분명히 婦人 또는 妾의 뜻으로 쓰인 典故를 가졌기에 文頭에 引用한 《尚書·堯典》과 《史記·五帝本紀》의 史實에 符合하는 것이다.

五. 結 語

우리는 以上の 論證을 通해 今本 《孟子》는 河間獻王이 戰國時代의 齊·魯系統古文로 쓰여진 版本을 기초로 漢隸로 翻譯한 것이며 그 翻譯過程에서 齊·魯系統의 古文「卑」字를 「果」字로 誤譯해서 오늘날 「果」, 「媠」 등으로 전해져 내려와 侍女란 뜻으로 訓讀되고 있는데, 이것은 《尚書》나 《史記》의 關聯 記錄을 근거로 해서 文字學的으로 考察해 볼 때, 마땅히 「卑」자로 고쳐져 婦人이나 妾의 뜻을 가진 「婢」자로 訓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8) 註2 前揭書 10冊, p.69.

「把」字文의 기능과 의미에 대한 연구

白水振*

<目次>

- | | |
|----------------------|-------------------|
| 1. 서론 | 5. 被影響者의 他動性 下降 |
| 2. 정보구조와 「把」字文 | 6. 「把」字文의 '使役' 意味 |
| 3. 一般 主題文과 「把」字文의 비교 | 7. 결론 |
| 4. 非 '被影響者'의 他動性 上昇 | <參考文獻> |

1. 서론

漢語에서 「把」字文은 가장 상용되는 표현 중의 하나로 이에 대한 연구 논문 또한 적지 않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王力(1954)의 '處置式'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연구를 하였는데, 이것은 대체로 ①介詞「把」를 사용한 목적어의 前置, ②목적어의 한정성(definite), ③동사 앞뒤의 부가성분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把」자문이 「S V O」문으로 전환될 수 없는 부가성분의 통사적 제약에 관해서는 呂叔湘(1984)·傅雨賢(1981)·劉月華(1983)·宋玉柱(1991) 등이 있고, 「把」목적어의 '한정성' 문제에 관해서는 王還(1985), 錢長裕(1990)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의 「把」자문에 대한 문장 단위의 통사적 분석만으로는 아래 두 문장의 표현 기능상의 차이점을 충분히 설명할 수가 없다.

- (1) a. 他賣了他的汽車了.
b. 他把他的汽車賣了.
(그는 차를 팔았다.)

* 東亞大 中文科 講師

(1b)에서 구조상의 변이가 생긴 것은 「把」자문이 이에 대응하는 「S V O」문이 할 수 없는 어떤 언어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이런 문형에 대한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고 본다. 이 둘 사이의 어떤 역사적인 관련성을 잠시 배제하고 「把」자문을 하나의 독립적인 구조로 볼 경우, 여기에는 단순히 구조상의 조작에 의한 목적어前置가 아닌 또 다른 요인이 개입되어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능적 분석을 통해서 「把」자문의 또다른 성립 요인에 대해 고찰해 보려 한다. 여기에는 '主題-論評'의 관점에서 쓴 Chen(1983), Tsao(1987), 薛風生(1987)과 기능적 관점에서 쓴 鈴木晴子(1988) 등이 참고가 된다.

기존의 「把」자문에 대한 연구는 통사론적 측면에만 중점을 둠으로써 기능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소홀히 취급되어져 왔으며, 또한 하나의 문장 단위의 의미 분석만을 검토해 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제한적인 성향이 많다. 따라서 본 연구는 「把」자문의 기능적 연구를 문장 단위 뿐만 아니라 담화(discourse) 단위에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2. 정보구조와 「把」字文

형태의 변화가 없고 어순이 비교적 고정되어 있는 한어에서 문장의 앞 부분은 이미 알고 있는 한정(definite)성분에 의해 시작되고 문장의 뒤 부분은 이들 성분과 관계있는 새로운 상황을 서술한다.

- (2) a. 那本書在卓子上.
(그 책은 탁자 위에 있다.)
b. *一本書在卓子上.
c. 卓子上有一本書.
(탁자 위에 책 한 권이 있다.)
d. *卓子上有那本書.

이러한 구분은 기능적 문장론(Functional Sentence Perspective)의 관점에서 해석한 것이다. 이 관점에 따르면 교제 기능상 문장의 구조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 지는데 앞 부분은 주제(topic)로서 대화에서 담론의 대상이 되어 구정보(old

information)를 나타낸다. 뒤 부분은 대화에서 주제에 대한 논평(comment)으로서 신정보(new information)를 나타낸다. 구정보를 대표하는 주제는 담화의 배경이나 문맥에서 ‘이미 알고 있는’(known), ‘주어진’(given) 정보이므로 항상 문두에 위치하며 ‘강세’(stress)가 놓여지지 않는다. 신정보를 나타내는 논평은 주제를 보충 설명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항상 주제 뒤에 위치한다. 논평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를 나타내는 부분을 ‘초점’(focus)이라 하는데 항상 문말에 위치하며 ‘강세’가 놓여진다. 또한 문장은 정보 전달력(communicative dynamism)에 의해 낮은 정도의 CD에서 점차 높은 정도의 CD로 배열된다.¹⁾

屈承燾(1983)는 「把」자를 第二主題標識(secondry topic marker)로 보고 아래 文(3)에서 ‘把眼鏡’을 ‘他’와는 서로 다른 층위에서의 한단계 낮은 층위인 주제로 보았다. Tsao(1987)는 ‘他’를 第一主題, ‘把眼鏡’을 第二主題로 보았으나 주제성의 主次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3)

주	제	논	평
		주	제
		논	평
他	把眼鏡	打	破了.

(그는 안경을 깨뜨렸다.)

여기서 「把」명사구 ‘眼鏡’은 이미 알고 있는 구정보로서 한정적(definite)²⁾ 성분이며 또한 주제 부분이다. 동사구 ‘打破了’는 주제에 대한 설명으로서 신정보를 나타내며 또한 논평 부분이 된다. 薛(1987:13)은 목적어를 ‘목적어 전치’가 아닌 ‘主題

- 1) 기능적 문장론(FSP)에 관해서는 湯廷池(1988)에서 인용. ‘Topic-Comment’는 ‘theme-rheme’에 해당한다. 원래 프라그 학파에서의 ‘theme-rheme’는 문장 층위에서의 구성 단위와 관련된 것이었다. Halliday는 ‘theme’와 ‘rheme’는 문장 구조에서의 단위이고, 구정보와 신정보는 정보구조에서의 단위이기 때문에 양자를 엄격히 구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에는 구정보가 topic이 되고 신정보가 comment가 되는 관계이므로, 본고에서는 정보구조 안에 함께 포함시켜 다루기로 한다.
- 2) 「把」명사구의 ‘有定性’으로는 한정성(definite, 特定), 특정성(specific, 殊指), 총칭성(generic, 泛指)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학자에 따라 분류 방법이 각각 다르다. 「把」명사구의 ‘有定性’문제는 본 논문의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移後'(주제가 뒤로 이동된)로 보고 행위자보다 더 중요한 '主要主題'로 보았다.

행위자가 동사구 속에서 지정된 동작을 책임질 수 있을지라도 그 행위자는 「把」자문에서 그다지 중요한 성분이 아니다. 문맥으로 이해된다면 그 행위자는 생략될 수 있다.

- (4) a. 糟糕, 我把這件事忘了!
(큰일났다. 이 일을 잊어버렸다!)
b. 糟糕, Ø把這件事忘了!
c. *糟糕, 我把忘了!
(5) Ø把東西放在桌子上了.
(물건을 탁자 위에 올려 놓았다.)

이것은 '주제-논평'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제1주제 성분이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절 동사들은 행위자에 의해 수행된 어떤 행위를 강하게 표시하므로 '주제'에 대한 설명(묘사)으로서의 '논평'의 기능을 담당할 수 없다. 그러므로 '看'과 같은 다음절 동사는 단지 행위를 서술하는 데에만 사용될 수 있다.

- (6) a. 他看書.
(그는 책을 본다.)
b. *他把書看.
c. 他把這本書看完了.
(그는 이 책을 다 보았다.)

'주제-논평'의 개념은 원래 문장의 구성에 관한 것이지만은 문제의 내용이 구정보인지 아닌지, CD의 높낮이가 어떤지에 대한 결정은 반드시 담화 구조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주제가 되느냐 못되느냐도 담화 구조 속에서 결정될 문제이다.

- (7) a. 他把他的汽車怎麼(處置)了?
(그는 차를 어떻게 했니?)
b. 他把他的汽車賣了.
c. 他賣了他的汽車了.
(해석 (1)과 같음)

(7c)는 '행위자가 피영향자(목적어)에 대해서 무엇을 했다'를 나타내는 반면에 (7b)는 '피영향자(목적어)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여 의미의 중심이 되는 초점(focus)이 '汽車'에 있지 않고 '賣了'에 있다. 여기서 '把他的汽車'는 이미 담화 과정에서 언급된 구정보로 주제 부분을 나타내며 '賣了'는 주제 '汽車'에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는 논평 부분을 나타낸다. 따라서 (7a)의 대답으로 b는 맞으나 c는 부적절하다.

선행 문장에서 이미 언급된 대상이 후행 문장에 계속해서 나타날 경우 이것은 구정보로서 「把」명사구의 구조를 취하여야 한다.

- (8) a. “這個,我要留着它i”, 麗珊的聲音非常堅決, …, 我要把它i藏起來, 不讓任何人把它i奪去.
 (“이것, 나는 이것을 간직하겠어.”, 麗珊의 소리는 매우 단호했다.
 …, 나는 그것을 간직하고서는 누구도 그것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겠어.)
 b. ?我要藏起它來, 不讓任何人奪它去.
- (9) a. 他所證明的那條定理i, 現在世界各國一致地把它i命名為“陳氏定理”.
 (그가 증명한 定理를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하나같이 그것을 ‘陳氏定理’로 이름지었다.)
 b. ?…命名它為“陳氏定理”.
- (10) a. 他們都提着鳥籠子進來了, … 他們先把鳥籠i掛好, 找地方坐下.
 (그들은 새장을 들고서 들어왔다. 그들은 새장을 걸어놓고서는 자리를 잡아 앉았다.)
 b. ?…他們先掛好鳥籠, 找地方坐下.

(8-10)에서는 선행 문장에서 「동사+목적어」구조로 서술된 것이 후행 문장에서는 「把」명사구 구조로 서술되어 있다. (8-10)의 b는 구정보인 「把」명사구가 신정보인 동사구 뒤에 위치함으로써 '구정보-신정보'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담화 구성이 부자연스러움을 알 수 있다.

- (11) a. 拿到飯後, 馬上就開始吃, 吃得很快, … 吃完以後, 他把兩隻筷子i舔了.
 (식사를 반자 곧장 먹기 시작했는데, 아주 빨리 먹었다. … 다 먹은 후 그는 젓가락을 핥았다.)
 b. ?…他舔了兩隻筷子.

(11)에서는 앞 문장에서 '筷子'가 언급되지 않았으나 문맥 의미(contextual meaning)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뒤 문장에서는 「把」자문의 형식을 취하였다.

3. 一般 主題文과 「把」字文의 비교

Tsao(1983)는 일반 주제 명사구와 「把」주제 명사구는 문장의 다른 성분과의 관계에서 유사점이 많다고 했다.³⁾

행위자 표시

- (12) a. 張三(啊), 昨天來看我了.
(장삼은 어제 나를 보러 왔다.)
b. 那杯酒把他喝得差不多醉了.
(그는 그 술을 거의 취할 정도로 마셨다.)

피영향자 표시

- (13) a. 這本書(啊), 我已經看過三遍了.
(이 책은 나는 벌써 세번 보았다.)
b. 他把那支筆弄斷了.
(그는 연필을 부러뜨렸다.)

장소 표시

- (14) a. 卓子上(啊), 他擺了一盆花.
(탁자에는 그는 꽃을 놓았다.)
b. 他把書架擺滿了書.
(그는 책장을 책을 가득 채웠다.)

관계 표시

- (15) a. 這件事(啊), 他寫了一份報告了.
(이 일은 그는 보고서를 썼다.)
b. 他把那件事寫了一份報告了.
(그는 그 일을 보고서를 썼다.)

3) 주제의 특징에 관해서는 Tsao(1979)와 Li & Thompson(1976) 참조.

여격 표시

- (16) a. 張三, 我已經送了一份禮物.
 (장삼은, 나는 선물 한 세트를 이미 보냈다.)
 b. *我已經把張三送了一份禮物.

시간 표시

- (17) a. 昨天(啊), 張三來看我了.
 (어제는 장삼이 나를 보러 왔다.)
 b. *張三把昨天來看我了.

소유 관계

- (18) a. 那個人(啊), 腿跌斷了.
 (그 사람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다.)
 b. 他把橘子剝了皮.
 (그는 귤을 껍질을 벗겼다.)

전체와 부분의 관계

- (19) a. 五個萍果(啊), 三個吃了, 二個賣了.
 (다섯개의 사과 중 세개는 먹고 두개는 팔았다.)
 b. 張三把五個萍果吃了三個.
 (張三是 다섯개의 사과 중 세개를 먹었다.)

(16-17)의 일반 주제문에서는 ‘여격’이나 ‘시간’이 주제로서 문두에 위치할 수 있으나 「把」자문에서는 「把」의 목적어가 될 수 없다.

Tsao(1979: 47)는 일반 주제문의 주제 연쇄(topic chain)의 특징으로 다음과 같은 예를 들었다.

- (20) a. 這個英文句子真難, 我不懂, 他也不懂.
 (이 영어 문장은 정말 어려워서 나도 모르고 그도 모른다.)
 b. 這個英文句子i真難, 我不懂 i, 他也不懂 i.
 (21) 他肚子餓, i又找不到東西吃, 所以 i躺在床上睡覺.
 (그는 배가 고프고 또한 먹을 것을 찾을 수 없어 침대에 누워 잤다.)

여기서 (20)의 ‘這個英文句子’는 첫째 문장의 주어임과 동시에 담화 전체에서는 주

제가 되어 두번째, 세번째 문장에서의 의미 영역까지 지배한다. (21)의 '他'는 담화 확장의 주제로서, 두번째·세번째 문장에서도 '주제 명사구 생략'(topic-NP deletion) 과정에 의해 생략되었다.

Tsao는 그의 주제 연구(1979)의 기초 위에 「把」명사구(NP2)를 하나의 특수한 주제로 보고 주제 연쇄(topic chain) 특징을 다음과 같이 논술하고 있다.(1987: pp.9-11)

1. 「把」명사구는 「把」주제 연쇄의 첫번째 문장에서 문두에 위치한다.
2. 「把」명사구는 담화의 특징을 갖추고 있는데, 그 의미 영역은 문장 경계를 뛰어넘는다.
3. 「把」명사구는 「把」주제 연쇄의 모든 '동일물 지시 관계'의 '대명사화'나 생략을 관할한다.(the coreferential processes of pronominalization and deletion)

위의 세 가지 특징은 아래 예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 (22) a. 他把房子整修了一下, 漆了漆, 然後再賣出去.
(그는 집을 수리하고 페인트 칠을 한 후에 다시 내다 팔았다.)
b. 他把房子i整修了一下, i漆了漆, 然後再 i賣出去.
c. 他把房子i整修了一下, 把它i漆了漆, 然後再把他i賣出去.

위에서 「把」명사구('把房子')는 「把」주제 연쇄의 첫째 문장 "把房子整修一下"에서 문두에 위치한다.(모든 「把」주제 연쇄는 제1주제 '他'의 내포문이므로 '他'를 주제 연쇄의 한 성분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把」명사구의 의미 영역은 문장 경계를 뛰어넘으며, 두번째·세번째 문장에서 '대명사화된 성분'이나 '생략 성분' 등은 모두 「把」명사구와의 동일물 지시관계(coreferential Np)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 (23) a. 虎姑娘過來, 把錢抓在手中, 往他的衣袋裏塞.
(虎아가씨는 건너와서 돈을 수중에 쥐고서는 그의 주머니에 넣었다.)
b. 虎姑娘過來, 把錢抓在手中, i往他的衣袋裏塞.
c. ?虎姑娘過來, 抓錢在手中, 往他的衣袋裏塞.

(23a)에서 '把錢'의 의미 영역(semantic domain)은 '抓在手中'과 '往他的衣袋裏塞'

에까지 해당되는데, (c)에서처럼 ‘抓錢在手中’으로 할 경우 ‘往他的衣袋塞’의 목적어가 없어지고 문장이 계속 이어지지 않게 된다.

그러면 일반 주제문 주제와 「把」자문의 명사구의 기능이 이처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왜 상이한 구조의 문장 형식이 요구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 (24) a. 葡萄酒老李喝完了.
 (포도주는 이군이 다 마셨다.)
 b. 老李葡萄酒喝完了.
 (이군은 포도주를 다 마셨다.)
 c. 老李把葡萄酒喝完了.
 (이군은 포도주를 다 마셨다.)
- (25) a. 那篇學術報告他準備好了.
 (그 학술보고는 그가 다 준비했다.)
 b. 他那篇學術報告準備好了.
 (그 학술보고는 다 준비했다.)
 c. 他把那篇學術報告準備好了.
 (그 학술보고를 다 준비했다.)

(24-25)에서 일반 주제문과 「把」자문은 모두 ‘주제-논평’의 구조이며 ‘葡萄酒’와 ‘那篇學術報告’는 주제의 특징인 한정성(definite)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반 주제문 (24ab-25ab)의 ‘葡萄酒’와 ‘那篇學術報告’는 한정성 외에도 ‘대조’(contrastive)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나 「把」자문(24c-25c)의 ‘葡萄酒’와 ‘那篇學術報告’에는 대조의 의미가 없다.⁴⁾ 즉 (24ab-25ab)의 주제 명사구는 ‘別的酒不喝, 只喝葡萄酒’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나 「把」자문에서는 ‘포도주’만을 주제의 대상으로 삼지 ‘다른 술’은 주제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이것은 「把」명사구가 담화·화용론적 의미에 의해 주제성(topicality)을 띠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동사와 관계되는 강한 타동성(transitivity)의 성질을 여전히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주제문에서 주제는 주어에 있는 문장의 문두에 위치할 수 있지만 「把」자문에서 「把」명사구가 문두에 위치할 경우에는 非文이 된다.

- (26) *把葡萄酒老李喝完了.

4) 학자에 따라서는 주제의 특징 중 하나인 문두성을 근거로 하여 문장의 두번째 성분을 ‘대조’로만 보지 주제로 보지는 않는다.

- (27) *把那篇學術報告他準備好了.
- (28) a. 我昨天已經看完了這一本書了.
(나는 어제 이 책을 이미 다 보았다.)
b. 我這一本書昨天已經看完了.
(나는 이 책은 어제 이미 다 보았다.)
c. 我昨天已經把這一本書看完了.
d. *我把這一本書昨天已經看完了.

일반 주제문에서의 주제는 서술어(동사)와 선택적 관계를 갖지 않으나⁵⁾ 「把」자문에서의 「把」명사구는 주제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동사와의 관계에서 여전히 강한 타동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부정사는 반드시 「把」명사구 앞에 위치해야 한다.⁶⁾

- (29) a. 他不把錢還給我.
(그는 나에게 돈을 갚지 않았어.)
b. *他把錢不還給我.
c. 錢(呢), 他不還給我.
(그 돈 말이지, 그는 나에게 갚지 않았어.)

(29)에서 일반 주제문 (a)의 주제 '錢'은 부정사 앞 문두에 위치할 수 있으나 (b)의 '把錢'은 부정사 앞에 위치할 수 없다.

4. 非 '被影響者'의 他動性 上昇

기능론에서 문법적 격 표시는 서술어(동사)와 이에 관계되는 명사 論項(argument) 간의 의미론적 특성에 관한 원칙과, 문장이 발생하는 환경상에서 담화·화용론적 원칙에 의해 설명된다. 우선 목적어는 어떤 행위자에 의해서 야기된 행동이 다를 개체

5) Li & Thompson(1976)이 말한 주제의 특징 중 하나이다. 예를 들면, i)那件事我沒有問題. ii)婚姻的事他自己做主.
6) '熟語性' 「把」자문의 경우는 부정사가 「把」명사구 앞뒤에 모두 위치할 수 있다.
i) 不把我當人=把我不當人
ii) 不把它當一回事兒=把它不當一回事兒 (現代漢語八百詞, p.51)

로 이전(transit)된다는 他動性(transitivity)을 가진 문장에서, 행동이 이전되는 개체이다. 따라서 동사에 관계되는 여러가지 논항 중 행동이 이전되는 被影響者(patient)가 목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⁷⁾ 예를 들어, 행위자와 피영향자가 분명한 사태는 정상적인 경우 행위자는 주어로, 그리고 피영향자는 목적으로 나타난다.

- (30) 他打破了窗戶.
(그는 창문을 깨뜨렸다.)

(30)에서 목적어 '窗戶'가 주제성(topicality)을 가질 경우 「把」자문을 구성한다.

- (31) 他把窗戶打破了.

(31)의 전형적인 구조 배열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NP1 + 把 NP2 + VP (NP:명사구, VP:동사구)
他 窗戶 打破了

「把」자문에서 NP2는 주어 다음으로 주제성이 큰 요소이고, 타동성은 유무의 개념이 아니라 정도(degree)의 개념이므로, 피영향자가 아닌 다른 논항들도 타동성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해되어 NP2로 될 수 있다. 「把」자문에서 피영향자가 아닌 다른 논항들이 NP2로 간주되는 것을 他動性 上昇(transitivity upgrading)⁸⁾이라 한다. 그런데 이처럼 피영향자가 아닌 요소들이 타동성 상승에 의해 NP2로 택하여지는 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이 담화·화용론적인 요소이다.

- (32) a. 他在花瓶里插了一把花.
(그는 화병에 꽃을 꽂았다.)
b. 他把一把花插在花瓶里
(그는 꽃을 화병에 꽂았다.)

7) 이들 논항에는 행위자(agent), 被影響者(patient), 受惠者(benefactive), 장소, 여격(dative/goal), 시간, 도구(instrument), 방법 등이 있다.

8) 타동성 상승에 관한 것은 박승윤(1990: pp.139-150) 참조.

- c. 他把花瓶里插了一把花。
 (그는 화병을 꽃을 꽂았다.)
- (33) a. 我拿繩子捆了箱子。
 (나는 새끼로 상자를 묶었다.)
- b. 我把箱子捆了繩子。
 (나는 상자를 새끼로 묶었다.)
- c. 我把繩子捆了箱子。
 (나는 새끼로 상자를 묶었다.)

(32c-33c)에서는 피영향자가 아닌 '장소'격 논항과 '도구'격 논항이 각각 NP2로 사용되었다. 특별한 환경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피영향자가 다른 논항에 우선하여 NP2로 택하여 지지만, 적절한 담화 환경이 주어지면 이 때는 주제성이 높은 요소가 NP2로 된다. (32c)에서도 장소격 논항인 '花瓶'이 피영향자를 제치고 타동성 상승을 일으켜 「把」주제 명사구로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어떤 논항이 NP2로 되면 그 논항은 단순한 장소나 도구라기보다는 서술어가 나타내는 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개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32c,33c)에서 장소와 도구의 논항이 동사에 대해 가지는 관계는 他把窗戶打破了의 문장에서 '窗戶'가 '打破'에 대하여 가지는 관계(즉, 피영향자)와 유사하며 "'花瓶'을 어떻게 '치치'하다", "'繩子'를 어떻게 '치치'하다"의 의미로 해석된다. '치치'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하면, 동사가 NP2에 대해 가한 행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의 결과와 변화까지도 포함된다. 「把」자문에서 조사 '了'가 상용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치치'의 의미는 NP2를 주제로 한, NP2의 변화된 상태에 대한 묘사로 볼 수도 있다.⁹⁾ (32c)는 그가 화병을 꽃으로 이미 가득 채워 놓은 상태를 묘사한 것이다. (32b,c)에서 담화 환경의 영향으로 인하여 주제성이 높은 것이 NP2로 선택되었다면 이 두 문장은 완전히 동일한 의미를 나타낸다고 볼 수는 없다. 對人的機能(interpersonal function)상 a는 '他'의 행위를 단순히 서술한 것으로 특별히 강조할 만한 것이 없으며, b는 '一把花'를 강조하여 그가 이 꽃을 어떻게 '치치'하느냐를 서술하였고, c는 '花瓶'을 강조하여 그가 이 화병을 어떻게 '치치'하느냐를 서술하였다.¹⁰⁾ 따라서 (32a,b,c)는 모두 (34a)의 질문에 답할 수 있고, 또한

9) 薛風生(1987: p.6)은 「把」자문의 의미 특성을 「把」주제구에 대한 상태의 묘사로 보았다.

10) 임흥빈(1979: p.122)은 CD(Communicative Dynamism)와 CI(Communicative Importance)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주제는 구정보와 관련되어 그 CD는 낮으나 그

각각 (32a)는 (34a), (32b)는 (34b), (32c)는 (34c)에 답할 수도 있다. 그러나 (32b)는 (34c)의 질문에 답할 수 없으며 (32c) 또한 (34b)에 답할 수 없다.

- (34) a. 他做了什麼?
 (그는 무엇을 했느냐?)
 b. 他把(那)一把花怎麼了?
 (그는 꽃을 어떻게 했느냐?)
 c. 他把花瓶怎麼了?
 (그는 화병을 어떻게 했느냐?)

또한 이러한 「把」명사구는 논평 부분에 해당하는 節(clause)을 첨가하여 주제 연쇄를 구성할 수 있다.

- (35) a. 他在書架上擺滿了書.
 (그는 서가에 책을 가득 채웠다.)
 b. 他把書架擺滿了書.
 (그는 서가를 책으로 가득 채웠다.)
 c. 他把書擺滿了書架.
 (그는 책을 서가에 가득 채웠다.)
 b' 他把書架擺滿了書, 就好看多了.
 (그가 서가를 책으로 가득 채우고 나니 훨씬 보기 좋았다.)
 c' 他把書擺滿了書架, 就整齊多了.
 (그가 책을 서가에 가득 채우고 나니 훨씬 깔끔했다.)

(35b',c')는 주요 주제 '他'를 공유하고 있으나, 「把」주제 명사구는 각각 다르다. (35b',c')에서 첨가된 논평 부분은 모두가 「把」주제 명사구 '書架', '書'에 관해 언급된 것이다.

다음 예는 장소·도구가 NP2로 사용된 「把」자문으로 이들 NP2는 모두 일반 주제문의 문두 주제 명사구로 사용될 수 있다.

- (36) a. 我把窗戶糊了紙了.
 (나는 창문을 종이를 발랐다.)

CI는 크다. 「把」자문에서 의미의 중심(정보의 초점)은 동사구에 있지만 강조하는 부분(CD)은 「把」명사구에 있다.

- b. 窗戶(.) 我糊了紙了.
(창문은 내가 종이를 발랐다.)
- (37) a. 張三把水缸挑滿了水.
(張三是 물항아리를 물을 길어 가득 채웠다.)
b. 水缸(.) 張三挑滿了水.
(항아리는 張三이 물을 길어 가득 채웠다.)
- (38) a. 我把杠子頂了門.
(나는 막대기로 문을 떠받쳤다.)
b. 杠子(.) 我頂了門.
(막대기는 내가 (그것으로써) 문을 떠받쳤다.)
- (39) a. 他把壁爐生了火.
(그는 벽난로를 불을 피웠다.)
b. 壁爐(.) 他生了火.
(벽난로는 그가 불을 피웠다.)

(36-39)에서 일반 주제문과 「把」자문은 모두 주제에 대한 상태를 묘사한 것이지만 「把」자문에서는 여전히 NP2를 어떻게 '처치' 하다는 動的(-stative)인 진술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이러한 타동성 상승의 예는 국어에도 많이 발견된다.

- (40) a. 철수는 벽에 색을 칠했다.
b. 철수는 벽을 색을 칠했다.(목적어 '벽'의 주제화)
c. 벽은 철수가 색을 칠했다.(일반 주제문)

(40a)의 벽은 단순히 색을 칠하는 장소에 불과하고 벽 전체에 다 색을 칠했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나, (40b)는 벽 전체가 색칠이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든다.¹¹⁾ 즉 (40b)는 벽이 색이 다 칠해진 상태를 묘사한 것으로 NP2(벽)을 주제로 삼은 것이다.

장소·도구 논항의 타동성 상승으로 인한 「把」명사구는 의미론적으로는 동사의 행동과 긴밀하게 연관되고 또 동사의 행동에 의해 강한 영향을 받는 개체이며, 동시에 화용론적으로는 담화상에서 중요하게 부각된 주제성이 강한 요소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11) 국어 예문에 대한 설명은 박승윤(1990: p.147)에서 인용.

5. 被影響者의 他動性 下降

지금까지 우리는 전형적인 피영향자가 아닌 논항들(예, 장소나 도구)이 타동성 상승에 의해 NP2로 표시되고, 이에 따라 얻어지는 부수적인 의미의 차이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전형적인 타동성 구문에서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의 영향을 받는 논항이 他動性 下降(transitivity downgrading)¹²⁾으로 인해 목적어로 표시되지 않고 비타동적 수동문으로 나타내어지는데 이것을 한어에서는 ‘無施事被動句’(행위자가 없는 피동문) 혹은 ‘無標誌被動句’(무표지피동문)¹³⁾라 한다.

- (41) a. 房子賣了.
(집이 팔렸다.)
b. 錢花完了.
(돈은 다 썼다.)
c. 窗戶打開了.
(창문은 열려 있다.)

동사와의 관계에서 행위자와 피영향자의 관계가 분명한 「S V O」문이나 「把」자문은 動態의 기능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반면에 행위자가 없는 비타동성 수동문은 靜態의 기능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¹⁴⁾ 비타동성 수동문이 동태적 기능을 가질 경우에는 독립성(의미의 완결성)을 잃게 된다. 예를 들면, 行李扔上車頂了(짐은 차 위에 던져 놓았다)에서는 정태적 상황을 묘사하나, 行李扔上車頂又被一個載紅袖章的人摔下來(짐은 차 위에 던져 놓았으나 붉은 완장을 한 사람에 의해 내리 던져졌다)에서는 의미의 완결성을 잃어버리고 뒤 문장에 연속됨을 나타낸다. 주어진 사태를 「S V O」문이나 「把」자문으로 나타내는가 아니면 비타동성 수동문으로 나타내

12) ‘他動性 下降’에 대해서는 박승윤(1990: p.149) 참조.

13) 이 문장의 특징은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면서도 행위자와 ‘被’자 표기가 없다는 것이다. 영어에서는 수동 구문이나 能格(ergative) 구문으로 나타내어진다.

- i) The window was broken
ii) The window broke
iii) The car stopped

(i)은 수동 구문이고 (ii-iii)은 능격 구문이다.

14) 衛志強譯(1989: pp.176-177)에서는 ‘謂語靜態性’의 有無로 설명했다.

는가 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화자가 이 사태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즉 동적인 타동성의 사태로 파악하느냐 아니면 정적인 비타동성의 사태로 파악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은 화자가 담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점에서 어떤 명사 논항이 피동적인 목적어 표시를 받느냐 아니냐는 궁극적으로 담화·화용론적 요인을 고려한 화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6. 「把」字文의 使役 의미

지금까지 「把」자문을 또한 '處置式'이라 부른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전형적인 「把」자문 「NP1 把 NP2 VP」 구조에서 NP1은 행위자(주어)를 나타내고 NP2는 피영향자(목적어)를 나타내며, 'NP1이 NP2를 處置하다' (NP1把NP2怎麼處置了)의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아래의 「把」자문에서 NP1은 사물을 나타내고 NP2는 동사와 관계되는 행위자(주어)를 나타내며 'NP1이 NP2를 ~게 하다' (NP1致使NP2成爲VP)의 의미 해석을 지닌다. 여기서 NP2는 타동성의 해석 규칙을 적용할 수 없으며 「把」는 '讓', '使'와 같은 사역의 기능으로 보아야 한다.

- (42) a. 自來水把我們喝病了.
(우리들은 수도물을 마시고 병이 났다.)
b. 這件事把我氣死了.
(나는 이 일로 화나 죽겠다.)
c. 這些小字把我的眼睛都看花了.
(나는 이 작은 글자들을 보느라 눈이 다 침침했다.)
d. 那件事把他想得頭昏腦脹.
(그는 그 일을 생각하느라 머리가 멍할 지경이었다.)
e. 那場球把我們看得累死了.¹⁵⁾
(우리는 그 시합을 보느라 피곤해 죽을 지경이었다.)

NP1이 사물이 아닌 사람을 나타낼 경우도 있다.

15) Tsao(1987: p.5)는 (1e)에서 '那場球'를 주제로 보고 '我們'을 동사 '看'과 관계되는 주어로 보았다.

- (43) a. 那班學生把王老師教得心灰意懶.¹⁶⁾
 (왕선생님은 그 반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아주 의기소침했다.)
 b. 你把我的心哭亂了.
 (네가 울어 내 마음을 심란하게 했다.)

(43a, b)에서 사역자인 NP1은 피영향자인 NP2에 강제성이 전혀 없는 일종의 허용성(permissive) 사역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43a)에서 학생들이 왕선생을 의기소침하게 한 책임은 있다고 할지라도 왕선생에게 어떤 강제성을 가한 것으로는 느껴지지 않는다. (43b) 또한 상대방이 고의로 강제성을 가지고 나의 마음을 심란하게 한 것은 아니다. (42-43)은 '사역'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여전히 'NP1이 NP2를 어떻게 하다'의 비강제성 '처치'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¹⁷⁾ (42-43)에서는 NP2(행위자)가 의식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니라 NP1(사물 혹은 사역자)에 의해 야기된 행위를 나타내며, 따라서 NP1은 원인을 나타낸다. 이런 「把」자문은 담화에서 後續文¹⁸⁾으로서의 지위를 갖고서 어떤 상황이나 일의 발생으로 인해 NP2에 어떤 결과나 변화를 가져옴을 나타낸다. 흔히 NP1(예를 들면, 那件事)이 생략된 문장이 바로 이런 유형이다.

- (44) a. 真把我急死了.
 (정말 나를 초조하게 했다.)
 b. (那件事)真把我急死了.
 (그 일은 정말 나를 초조하게 했다.)
 c. 把我冷得哆嗦.
 (나를 추워 덜덜 떨게 했다.)

(44a)는 “剛才你們忽然離開了我, 找了半天找不見”(조금전 너희들이 갑자기 떠나버

16) 薛(1987)은 「把」자문의 구성 요소인 '動補'구조에서 '동사'를 표면상의 '동작'(action)이 아닌 본질적인 '서술어의 핵심'으로 정의를 내린다면 '보어'야말로 진정한 동사이고 그 앞의 '동사'는 狀語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把門推開'의 의미는 '以推而使門開'로서 의미 중심은 '使門開'에 있고 '推'는 다만 '開'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고 했다. 따라서 (43)에서도 동사구의 중심은 보어 '心灰意懶'이며, 이 보어는 NP₂에 대한 묘사의 작용을 한다고 보았다.

17) 전형적인 '처치성'의 「把」자문도 비강제성을 나타낼 때가 있다. 예를 들면, 他不小心把窗戶打破了.

18) '後續文'이란 용어는 錢長裕(1990: p.40)에서 인용.

려서 한참을 찾아도 찾을 수 없었다)의 後續文으로 앞 문장의 그러한 상황이 나를 아주 화나게 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7. 결 론

지금까지 우리는 「把」자문의 기능에 대해 살펴본 결과 「把」명사구가 담화·화용론적 요인에 의해 주제성을 띠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동사와 관계되는 강한 타동성의 성질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고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把」자문은 '주제-논평'의 구조와 유사하며 담화 과정에서 '구정보-신정보'의 원칙이 작용한다.
2. 일반 주제문과 「把」자문은 유사점이 많으나 「把」명사구는 일반 주제문의 주제와는 달리 동사에 대한 강한 타동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비대조적'의 의미 특성을 지닌다.
3. 장소나 도구 표시의 논항이 「把」자문에는 타동성 상승으로 인하여 강한 주제성을 띠고 NP2에 위치한다.
4. '무표지 피동문'은 목적어(피영향자)의 타동성 하강으로 인한 것이며, 동태적 기능이 정태적 기능으로 변화된 것이다.
5. '사역'의 의미를 내포한 「把」자문은 여전히 비강제성 '처치'의 의미를 지닌다.

Li & Thompson(1976)은 한어를 '주제 부각형 언어'(topic prominent language)라 했고, 한국어를 주어와 주제가 모두 현저한 언어로 규정지었다. Tsao(1979)는 한어를 '담화형 언어'(discourse-oriented language)라 했다. 한국어 또한 二人稱 상대를 전제로 한 대화형의 언어로 파악된다. 따라서 한국어와 한어는 문형에 있어 유사점이 많다고 볼 수 있다. 특히 「把」자문의 경우 「S O V」로서 어순이 동일하기 때문에 교수법상에 있어 「把」명사구의 주제성에 대한 설명이 중요하다고 본다.

<參考文獻>

1. 朴勝允(1990), 機能文法論, 翰信文化社
2. 任洪彬(1972), 國語의 主題化 研究, 國語研究28
3. 錢長裕(1990), 把字句·被字句, 人民教育
4. 宋玉柱(1991), 現代漢語特殊句式, 山西教育, pp.1-31
5. 呂叔湘(1984), 漢語語法論文集(增訂本), 商務印書館, pp.176-199
6. 劉用華(1983), 實用現代漢語語法. 外語教學與研究
7. 王力(1954,1984), 王力文集(弟1卷) 中國語法理論, 山東教育
8. 湯廷池(1988), 國語語法與功用解釋, 漢語詞法句法論集, 臺灣: 學生書局, pp.105-148
9. 屈承熹(1983), 語言學論集, 臺灣:文鶴, pp.113-120
10. 魏岫明(1992), 漢語詞序研究, 臺灣: 唐山
11. 王還(1985), 把字句中「把」的賓語, 中國語文1, pp.48-51
12. [蘇] таНь АОшчан 衛志強譯(1989), 現代漢語中的「把」字結句和「被」字結句, 國外語言學4, pp.169-177
13. 張會森(1988), 功能語法導言, 外語學刊5, pp.9-15
14. 傅雨賢(1981), 把字句與主謂賓句的轉換及其條件, 語言教學與研究1, pp.27-44
15. 薛風生(1987), 試論「把」字句的語意特性, 語言教學與研究1, pp.14-17
16. 鈴木晴子(1988), 把字句の机能的分析, 中國語學235, pp.109-118
17. Li,C.N.& Thompson, S.A.(1976) Subject and Topic: A New typology of Language, in C.Lied. subject and Topic, New York: Academic press, pp.457-490
18. Tsao, Feng-Fu(1979), A Functional Study of Topic in chinese: The First Step Towards Discourse Analysis, Taipei: Student Book Co.
19. ————(1987), A Topic-Comment Approach to the Ba Construction. JCL15.1, 19. pp.1-54
20. Chen, G.T.(1983), The Ba Construction: A Topic and Comment Approach, JCLTA18.1, pp.17-29

21. Chao, Y.R.(1968), A Grammer of Spoken chines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22. Gillian Brown & George yule(1983), Discourse Analysis, Cambridge University Press

<提 要>

在這篇文章裏我對「把」字句的功能進行研究。

漢語的“主動賓”句與「把」字句這兩種形式，不但在形式上有區別而且在功能方面上也有不同的地方。從功能方面來看，「把」字句具有‘主題-評論’結句，「把」名詞短語代表的是舊的已知的信息，也就是主題所在；而句子的其他部分則是新的信息，亦即評論所在。所以從一般主題名詞短語與「把」名詞短語在句中與其他成分之間的關係來說，也具有不少相似之處。「把」名詞短語雖然顯示出主題性，仍然受到後面動詞的影響。

除了受事者以外，場所·工具論項也由于‘及物性上昇’做為NP₂，這就是言談·語用因素的影響。所謂‘無標誌被動句’是由于‘及物性下降’來形成的。有的「把」字句在某些情況下似乎具有致使的意義，這時「把」名詞短語可能是動詞的施事者。我們以為將這一種「把」字句解釋為‘處置’可能不够週延，然而我們仍然必須承認「把」字句的確含有近似于處置的意味。

Li & Thompson 把漢語歸類為“主題明顯的語言”，曹逢甫認為漢語是趨向于以言談為中心的語言。韓語也是“主題·主語明顯的語言”。如果要了解「把」字句的功能，主題這個概念已為我們所接受才開始學習。而且「把」字句只依靠一個孤立的句子來分析很難了解它的用法，所以一定要考慮上下文。

“把”字句 研究*

——“將”字句와의 비교를 통한 史的 考察을 中心으로——

李 載 勝**

<目 次>

- | | |
|------------------|----------------|
| 一. 序 論 | 三. 語法機能上的 分類 |
| 二. 處置式的 產生과 演變 | 1. 道具語로 쓰인 경우 |
| 1. 處置式的 起源 | 2. 處置式으로 쓰인 경우 |
| 2. “把”字句의 產生과 演變 | 四. 結 論 |
| 3. “將”字句의 產生과 演變 | |

一. 序 論

일반적으로 “把”字는 介詞 “把”나 “將”을 사용하여 謂語動詞의 수동성분(보통 賓語를 가리킴)을 동사 앞에 놓는 句型을 가리키는데, 朱德熙는 “把”字句가 다음과 같은 세가지 특징을 지닌다고 하였다.¹⁾

첫째, “把”字句의 동사는 단순히 單音節이나 雙音節動詞가 아니라 최소한 重疊式 이거나 동사 앞뒤에 다른 성분이 따르게 된다.

둘째, “把”字의 빈어는 의미상 정해져 있으나 일부 예외도 있다.

셋째, “把”字句는 受動主語句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즉 대부분의 “把”字句에서 “把”字를 빼고 남은 부분이 여전히 문장으로 성립될 수 있으며, 바로 이 남은 부분이 受動主語句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예 : 把壁爐生了火. → 壁爐生了火.

把一個南京城走了大半個. → 一個南京城走了大半個.

* 본 논문은 경남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작성되었음.

** 慶南大學校 中文科 副教授

1) 朱德熙, 《語法講義》(商務印書館, 北京, 1982), pp.185-189.

宋玉柱는 “把”字句에 대해 개사 “把”나 “將”으로 이루어진 介詞詞組가 狀語로 쓰이며 處置作用을 나타내는 句型이라고 정의하였다.²⁾

여기서 우리는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진 “把”字句가 언제 어떻게 생겨 났으며, 또 어떻게 발전해 나왔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本稿에서는 이러한 의문을 풀어보고자 “把”字句의 產生과 演變을 살펴보고 또 초기부터 近代漢語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쓰인 용례에 대한 구조 분석을 통해 어떻게 발전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았다. “把”字句의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른바 處置式 문장에서의 사용인데, 본고에서는 處置式의 기원을 함께 살펴보았으며, 비록 現代漢語에서는 사용되고 있지 않으나 “把”字와 같은 기능으로 널리 사용된 “將”字와의 비교 고찰을 통해 道具語 및 處置式에서의 역할과 함께 발달 과정을 살펴보았다.

二. 處置式의 產生과 演變

1. 處置式의 起源

上古時期와 中古의 上半期 즉 7C 以前 漢語에는 오늘날과 같은 處置式이 존재하지 않았다. 唐代 以前에는 處置式을 써야할 곳에 일반적으로 동빈구조를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把它喝完：盡飲之
把它打敗：敗之

와 같은 경우에서 볼 수 있다.³⁾

그러나 上古時代에 오늘날과 같은 處置式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와 유사한 개념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梅祖麟은 先秦 때 이미 “以”字를 사용한 處置式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의 견해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⁴⁾ 그는 先秦 시기에

2) 宋玉柱, 《現代漢語特殊句式·“把”字句》(山西教育出版社, 1991), p.1.

3) 王力, 《漢語史稿》中冊(科學出版社, 北京, 1958), p.410.

4) 梅祖麟, 〈唐宋處置式的來源〉(《中國語文》, 1990年, 第3期), pp.193-195.

나오는 다음의 예를 들었다.

- “天子不能以天下與人” 《孟子·萬章上》
 “齊侯以許讓公” 《左傳·隱公十一年》
 “因以文繡千匹, 好女百人, 遺義渠君” 《戰國策·秦策上》

이들 예에서 “以”는 모두 賓語를 前置시키는 기능을 가지며, 그 형태는 “以+直接 賓語+動詞+(與)+間接賓語”로 되어 있으며, 의미상으로 “…을 …에게 주다”라는 뜻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漢代에 와서는 이 “以”字 句型을 계속 사용함과 동시에 動詞가 複詞化하여 “動+與”의 형태를 갖게 되고, “以”字 대신에 “持”字가 쓰였다고 하였다.

- 예 : 比丘卽以密餅授與之。(後漢·支曜迦識譯《阿闍世王經》)
 以水給與衆僧。(後漢·支曜譯《成具光明定意經》)
 以女賢意施與菩薩。(後漢·竺大力共康孟詳譯《修本起經》)
 一者持法施與人。(後漢·支婁迦識譯《佛說遺日摩尼寶經》)

魏晉南北朝에도 “以”字가 沿用되었고 때로 “將”字가 쓰였다고 하였다.

- 예 : 孔廷尉以裘與從弟沉。《世說新語·言語》
 以女妻壽。《世說新語·惑溺》
 昔夫人臨終, 以小郎囑新婦, 不以新婦囑小郎。《世說新語·規箴》
 時遠方民, 將一大牛, 肥盛有力, 賣與此城中人。(晉, 《生經》Ⅲ.98)

동시에 “把”字와 “持”字도 “以”字의 위치에 쓰였다.

- 예 : 把粟與鷄呼朱朱。(洛陽伽藍記·城西.109)
 卽持此寶與諸兄弟。(晉, 《生經》)

隋代에는 “將”字가 “以”字를 대신해 쓰이기 시작하였다.

- 예 : 將此女與彼摩那婆, 持以爲妻。(隋·闍那堀多譯, 《佛本行集經》Ⅲ.863.下)
 我將馬王與聖子乘。(上同735.中)

唐代에도 이 句型을 계승하였으니, 다음의 예에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예 : 如來臨般涅槃, 以甚深般若波羅密法付囑摩訶迦葉. 《曹溪大師別傳·郭明本.123》
大師即將衣鉢遂還明. (上同124)

處置概念의 또 다른 형태로 先秦부터 南北朝에 이르기까지 “以A動B”의 句型이 쓰였는데 그 뜻은 “A를 B로 여기다” “A를 B로 삼다”로 새길 수 있다.

예 : 吾必以仲子爲巨擘焉. 《孟子·滕文公上》
堯以不得舜爲己憂. 《孟子·滕文公上》
王中即以圍棋是坐隱, 支公以圍棋爲手談. 《世說新語·巧藝》

隋代에는 “將”字가 “以”字를 대신해 쓰였다.

예 : 我今乃將臭肉身于此泥上作大橋梁. (《佛本行集經》Ⅲ.667.下)
我欲將汝作于善友.(上同798.下)

唐代에는 “將”字 외에 “把”字도 사용되었다.

예 : 他把身爲究竟身, 便把體爲究竟體. (變文·維摩詰.630)
便把江山爲己有. (秦玉韜詩)
解將無事當無爲. (朱灣詩)

또한 “以A比B”의 句型이 쓰여 “A를 B와 對等하게 여기다”는 뜻을 나타낸다.

예 : 有人以王中即比車騎. 《世說新語·品藻》

唐代에는 “將”字와 “把”字가 “以”字를 대신해 쓰였다.

예 : 若把君書比仲將. (顧況詩)
以小計大, 將鑰喻金. (變文·維摩詰.603)

또 “以”字를 사용하여 “賓語를 어느 곳에 놓는다”는 개념을 나타내는 處置式의 유형을 볼 수 있다. 이 경우 문장의 형태는 “以+賓語+動詞(+于/着/在)+處所詞”가 된다. 이와 같은 句型은 《史記》에 처음 보인다.

예 : 復以弟子一人投河中. (《史記·滑稽列傳》)
高漸離乃以鉛置築中, 復進得舉築朴秦皇帝, 不中. (《史記·刺客列傳》)

그러나 漢代보다는 南北朝에 와서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예 : 顧彥先平生好琴, 及喪, 家人常以琴置靈床上. (《世說新語·傷逝》)
以諸華香而散其處. (鳩摩羅什譯《金剛般若波羅密經》)
因以死人頭投大賢前. (《法苑珠林》42卷引《搜神記》)
婢以魚置口中, 卽成水. (齊諧記, 魯迅《古小說鈞沉》)
以鮭飯投穴中. (幽明錄, 魯迅《古小說鈞沉》)

隋代에 와서는 “以”字와 “將”字가 통용 되었다.

예 : 以諸衆寶眞珠羅網, 懸于其上. (闍那崛多譯《佛本行集經》731.中)
以金鉢器, 棄擲河中. (闍那崛多譯《佛本行集經》772.中)
我將鹿皮, 布于地上. (上同667.中)
汝將我子, 置彼林肉. (上同739.下)

梅祖麟은 以上の 견해를 통해서 “賓語를 어느 곳에 놓는다”는 의미의 處置式이 漢代에 시작되었다는 것은 處置式 발전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첫걸음이 된다고 하였다. 그는 또 “以”字가 處置式 개념으로 쓰이게된 要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先秦에서 “以”字 용법이 가장 많이 쓰인 것은 介詞로서 道具語를 引出하는데 쓰이며, 그 뜻은 “...을 가지고”에 해당 된다. 그 예로

“醒, 以戈逐子犯” 《左傳·僖公二十三年》
“以羊易之” 《孟子·梁惠王》

와 같은 경우를 들고, 또 다음의 예를 통하여 “以”字의 용법이 어떻게 발전 변화하였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王瑤宋大明三年, 在都疾之. 瑤亡后, 有一鬼細長黑色, 袒著犢鼻褌, 恒來其家. 或歌嘯或學人語, 常以糞穢投入食中. 又于東鄰庾家, 犯觸人不異王家時. 庾語鬼: ‘以土石投我所畏, 若以錢見擲, 此眞見困’. 鬼便以新錢數十, 正擲庾額. 庾復言: ‘新錢不能令痛, 唯烏錢耳!’ 鬼以烏錢擲之, 前後六七過, 合得百餘錢”
(《太平廣記》卷325引《述異記》, 《古小說鈞沉》)

그는 이 예문에서 5개의 “以”字가 사용되었는데, 그 가운데 “以土石投我”, “以錢見擲”, “以鳥錢擲之”의 경우는 道具語를引出하는데 쓰였고, “以糞穢投入食中”에서는 處置式으로 쓰였으며, “鬼便以新錢數十, 正擲庖額”의 경우는 위의 두가지를 모두 겸하고 있는 형태로 쓰인 것으로 보았다. 또한 處置式으로 쓰인 “以”字의 용법이 “...을 가지고”라는 뜻의 “以”字에서引申된 것이라고 하였다.

梅祖麟의 이러한 견해는 祝敏澈⁵⁾이나 王力⁶⁾이 處置式의 起源을 “把”字와 “將”字 용법의 演變에만 주의를 집중시킨 것과는 달리 處置式이 多元性을 가지고 있어서 통시적인 각도에서 處置式이 생겨난 다양한 과정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매우 의미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면 이제 “把”字句와 “將”字句가 어떻게 形成되어 발전 변화하였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2. “把”字句의 產生과 演變

“把”字는 唐代 以前에는 “拿”나 “握”의 뜻을 가진 순수한 동사로 쓰였다.

예 : 禹親把天之瑞令以徵有苗. 《墨子·非攻下》
無把銚推耨之勞, 而有積粟之實. 《戰國策·秦策》
王先把其手曰:“事克當相用爲荊州”. 《世說新語》
今暗如漆, 何以不把火照我. 《漢魏六朝小說選·笑林》

“把”字가 실사로 쓰인 경우는 唐代에 와서도 여전히 그 예가 보인다.

예 : 直把春償酒, 都將命氣花. (韓愈詩)
步人抽箭大如笛, 前把兩矛後雙戟. (韓翃詩)
每冬月, 四更竟, 卽敕把燭看事. 《南史·梁武帝紀》
醉把茱萸子細看. (杜甫詩)
下官不忍相看, 忽把十娘子手而別. (游仙窟)

특히 “把”字 뒤에 동사 어미가 출현하는 경우 더욱 확실한 예라고 할 수 있다.

5) 祝敏澈, 〈論初期處置式〉(《語言學論叢》 第一輯, 1957年), pp.17-33 參照.

6) 王力, 上揭書, pp.410-418 參照.

余時把着手子，忍心不得。(游仙窟)
 後母一女，把着阿爺，殺却前家哥子。(變文)
 千嘗刺疑曰：“把得新詩草里論”《王保定·摭言》

以上の 예에서 보듯이 순수 동사로 쓰이던 “把”字가 오늘날과 같은 의미로 虛化의 경향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中唐 以後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의 예를 보자.

예 : 醉把花看益自傷。(白居易詩)
 偷把鄆王小管吹。(張祜詩)
 莫把杭州刺史欺。(白居易詩)
 不把庭前竹馬騎。(變文)

以上の 예에서 앞의 두가지 예는 “把”字의 動詞性이 아직 남아 있으나, 뒤의 두가지 예는 “把”字가 완전히 虛化되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把”字가 虛化되어 쓰인 원인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위의 예文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문장에서 “把”字 뒤에 주요 敘述詞로 쓰이는 동사가 나오면서 “把”字는 다만 보조 동작을 나타낼 뿐 그 의미가 분명치 않게 되어 “把”字는 실질적 기능을 못하고 虛化되기 시작한 것이다.

王力은 《漢語史稿》에서 杜甫의 詩를 예를 들어 “把”字의 虛化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⁷⁾

예 : 醉把青荷葉。(陪鄭廣文遊何將軍山林)
 醉把茱萸子細看。(九日藍田崔氏莊)

여기에서 “醉把茱萸”의 “把”字는 “醉把青荷葉”의 “把”字와 같은 詞性으로 모두 동사이다. 그러나 “醉把茱萸子細看”의 “把”字는 “보기”위한 것으로 “본” 것도 바로 “茱萸”인 것이다. 즉 “把”字가 주요한 동사로 쓰인 것이 아니고 다만 狀況語로 쓰인 것이다. 또한 문장의 스트레스(重音)도 “看”으로 옮겨오면서 “把”字가 점점 虛化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또 다음의 예를 들어 “把”字가 동사로서의 성질을 상실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⁸⁾

7) 上掲書, pp.411-412.

8) 上掲書, p.412.

예 : 莫愁寒族無人薦, 但願春官把卷看. (杜荀鶴詩)

“把卷看”과 “把劍看”, “把鏡看”은 서로 구별 된다. 즉 “把劍看”에서 “看”이라는 동작의 대상은 “詩句”이지 “劍”이 아니며, “把鏡看”에서도 “看”의 賓語는 “兩鬢”이지 “鏡”이 아니다. 그러나 “把卷看”에서 “看”의 빈어는 바로 “卷子”이다. 그러므로 의미상으로는 “把卷看”은 處置式이며, “把劍看”과 “把鏡看”은 아니다. 그러나 구조 형식상으로 보면 이들 구조는 완전히 같다. 여기에서 “把卷看”의 “把”는 아직 동사의 성장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現代漢語에서 “拿”字가 들어 있는 술어 형식이 道具語로 쓰이는 것처럼, 唐代에도 “把”字나 “將”字가 들어있는 술어 형식이 道具語로 쓰였다.

예 : 直把春償酒, 都將命氣花. (韓愈詩)
輕將玉板敲花片, 旋把金鞭約柳絲. (張祜詩)

處置式과 道具語의 차이는 處置式이 빈어가 동사 앞에 놓이고 동사 뒤에는 다시 빈어를 가질 수 없는 반면, 道具語에서는 동사 앞의 술어 형식이 다만 狀況語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사 뒤에 빈어가 올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唐代에도 위의 예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把”字와 “將”字가 똑같이 處置式과 道具語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連動式 구조가 虛化되어 處置式이 되고, 道具語로 쓰인 것은 동시에 발생하여 동시에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즉 處置式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道具語로서의 단계를 거친 후에 處置式으로 발전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초기에는 處置式에 “把”字 보다는 “將”字를 비교적 많이 사용하였는데, “把”字와 “將”字가 같은 對句에서 앞 句의 處置式에서는 “將”字를 쓰고, 뒷 句의 處置式에서는 “把”字를 쓰는 등 “把”字와 “將”字의 분업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가 있다.

예 : 心將潭底測, 手把波文囊. (皮日休詩)
將洞任迴環, 把雲恣披拂. (上同)
如將月窟寫, 似把天河撲. (上同)

뿐만 아니라 處置式과 道具語가 뒤섞여서 쓰인 경우가 있다.

예 : 莫將天女與沙門, 休把眷屬惱人來. (變文)

向熹는 《水滸傳》에 “把”字와 “將”字가 같이 쓰인 예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구별하였다.⁹⁾

첫째, “把”字가 處置式에 쓰이고 “將”字가 道具語로 쓰인 경우

예 : 那人便將手把武松頭髮揪起來. (第32回)
把白勝押到廳前, 便將索子綑了. (第18回)
就大牢裏把宋江, 戴宗兩個捆扎起, 又將膠水洒了頭髮. (第40回)

둘째, “將”字가 處置式에 쓰이고 “把”字가 道具語에 쓰인 경우

예 : 吳用便把手將鬍鬚一摸. (第19回)
軍士把鎗將秦明妻子首級挑起. (第34回)
把一條鐵索將盧員外鎖在房門背後. (第62回)

셋째, “把”字와 “將”字가 모두 道具語에 쓰인 경우

예 : 把言語調戲你, 又將手摸着你胸前? (第46回)
就把索子綑了… 便將索子綑了. (第18回)
被那廝把蒙汗藥都麻翻了, 又將索子綑縛衆人. (第17回)

넷째, “把”字와 “將”字가 모두 處置式에 쓰인 경우

예 : 林冲把尖笠子戴上, 將葫蘆裏冷酒都吃盡了. (第10回)
便把熟鷄來搯了, 將注子裏好酒篩下. (第28回)
這李逵不省得, 倒先把竹篙蔑提起了. 將那一輪活魚都走了. (第38回)

그러나 이들 例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의미상으로 두가지 다 해석이 가능할 경우 과연 道具語에 쓰인 것인지 아니면 處置式으로 쓰인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우리는 여기에서 道具語와 處置式은 같은 來源 즉 連動式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9) 向熹, 〈《水滸傳》中的“把”字句、“將”字句和“被”字句〉 《語言學論叢》 第二輯, 1958年), pp.86-87.

清代에 들어와서 處置式에는 “把”字(혹은 “將”字), 道具語에는 “拿”字를 사용하여 그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기 시작하였으니 現代漢語에 있어서도 이러한 분업은 엄격하게 유지되고 있다.¹⁰⁾

예 : 便把手絹子打開, 把錢倒了出來。(《紅樓夢》 第26回)
快把這船打出去。(上同,第58回)
拿真心待你, 你倒不信了。(上同,第47回)
快不得他們拿姐姐比楊妃。(上同,第30回)

이들 예문에서 “把”字를 “拿”字로 또는 “拿”字를 “把”字로 바꾸어 쓸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近代에 들어와서 處置式의 용법은 의미상으로 볼 때 處置의 범위를 벗어나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元明 이후 處置式은 不幸하거나 不快한 일을 나타내는데 쓰였다. 處置式 동사는 본래 타동사이어야 하나, 이런 경우 타동사이거나 처치를 나타내지 않는 타동사가 될 수 있다.¹¹⁾

예 : 正是他們把個選事壞了。(儒林外史 第18回)
把我那要強的心, 一分也沒有了。(紅樓夢 第11回)
把姑娘的東西丟了。(紅樓夢 第73回)
誰知接接連連許多事情, 就把你志了。(紅樓夢 第26回)

현대 한어에도 이러한 處置式은 계속 응용되고 있다.

예 : 主人聽了主婦的話, 把一腔俠情冷了下來。(葉聖陶 一生)
謀到一個位置不容易, 怕把它丟了。(葉聖陶 抗爭)

그러나 이러한 용법은 그 범위가 넓지 못하여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10) 王力, 上揭書, p.414 및 王力, 《漢語語法綱要》(山東教育出版社, 1985年), pp.247-248 參照.

11) 王力, 《漢語史稿》中冊(pp.416-417) 參照.

王力은 《中國語法理論》上冊(中華書局, 1954年)에서 이와 같은 경우의 處置式을 “繼事式”의 문장이라 칭하였으며(p.170 參照), 《漢語語法綱要》(上同)에서는 이를 “處置式的活用”이라 하였다.(P.249 參照) 錢學烈은 이에 대해 “把”字 뒤의 명사가 謂語動詞의 수동 대상이 아니라 행위의 주동사이자 시행자이므로 “施事把字句”라고 하였다. 錢學烈, 《試論《紅樓夢》中的把字句》(《近代漢語研究》, 商務印書館, 1992年), p.287 參照.

近代 後半에 와서 새로운 형태의 處置式이 생겨났는데, 즉 빈어가 前置되고 또 동사 뒤에 다시 빈어가 오는 處置式이 생겨난 것이다. 예를 들어 “把從前的話作個交代”(兒女英雄傳 第21回)과 같은 경우를 가리킨다. 現代漢語에서 이런 형태의 處置式은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3. “將”字句의 產生과 演變

“將”字도 初唐 이전에는 “持”, “送”, “助”, “領” 등의 의미를 가진 독립된 동사로 쓰였다. 秦漢 때 “將”은 連動式 문장에 드물게 보이는데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예 : 無將大車. (《詩經·小雅·無將大車》)
 闕黨童子將命. (《論語·憲問篇》)
 及將幣之日, 執書以詔王. (《周禮·春官·大史》)
 鄭伯將王自圉門入. (《左傳·莊公二十一年》)
 補過將美. (《史記·司馬相如列傳》)

그러다가 南北朝 以後 “將”字는 連動式 문장에 자주 보이는데, 이때 다른 동사는 動向을 의미하는 동사에만 국한되었다.¹²⁾

예 : 猶將兩牌自隨. (繞齊諧記)
 將泰向城門入. (冥祥記)
 于是即將雌劍往見楚王. (搜神記)

8C에 들어서 다음과 같은 두가지의 連動式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① “將” + 名詞“賓語” + 他動詞

예 : 孫子將一鴨私用, 祐以擅破家資, 鞭二十. (朝野僉載)
 忽有人將書帖就公求售, 闕之, 乃借船帖也. (尚書故實)
 空將澤畔吟, 寄爾江南管. (李白詩)
 料理中堂, 將少府安置. (遊仙窟)
 能將流水引, 更入洞庭波. (郎士元詩)

12) 祝敏澈, 上揭書, p.18 參照.

이들 예에서 앞의 두 句에 나오는 “將”字는 동사의 성질이 아직 강하게 남아 있는 반면에 뒤의 세 句는 완전히 虛化되었다. 이와 같이 虛實이 병존해 있는 상황을 볼 때, 이때까지는 아직 處置式이 萌芽期에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將” + 名詞 + 他動詞 + 名詞

예 : 乾道運無窮, 恒將人代工. (唐明皇詩)
越女作桂舟, 還將桂爲楫. (王昌齡詩)
將心感知己, 萬里寄縣旌. (高適詩)

이상 두가지 連動式의 예를 통해서 “將”字가 虛化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는데 ①類의 例文은 處置式이 되고, ②類의 例文에 나오는 “將+名詞”는 道具語가 되었다. 그러나 “將”字가 文中에서 주요 동사로 쓰인 경우는 唐宋時代에까지 아직 虛化되지 않았는데 다음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다.

예 : 高人煉丹砂, 未念將朽骨. (杜甫詩)
閑將酒壺出, 醉向人家歇. (白居易詩)
少時, 桂心將下酒物來. (遊仙窟)

“將”字는 處置式과 道具語로 虛化된 경우 말고도 南北朝 때에는 다음과 같이 聯詞와 動詞詞尾로 虛化되었다. 이를 각각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① 聯詞로 虛化된 경우

“將”字가 聯詞로 虛化된 것은 의미의 引申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여기에서 의미의 引申이란 즉 “將”字가 동사에서 아무런 實際意味가 없고 단순히 接續機能이라는 어법기능을 가진 허사로 虛化된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예 : 支道林在白馬寺中, 將馮太常共語. (世說新語)
風將夜共靜, 空與月俱明. (梁, 朱超道詩)
旁流歡將樂, 共來長相思. (梁 民歌, 三洲歌)

“將”字는 원래 “거느리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예를 들어 오늘날 “張三率領李四在路上走”라는 말을 바꿔 “張三同李四在路上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率

領”이 “同”으로 쉽게 轉化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의 예문에서도 “將”字는 이미 동사의 의미를 벗어난 접속사의 기능으로 쓰였으니, 이때 “將”字는 흔히 “與”字와 대응하여 함께 쓰였다.

예 : 山將落日去, 水與晴空宜. (李白詩)
 道將心共直, 言與行兼危. (白居易詩)
 欲識秦將漢, 嘗聞王與裴. (盧象詩)

② 動詞詞尾로 虛化된 경우

“將”字가 동사 詞尾로 虛化된 것은 구조상의 원인으로 단어가 문장 안에서 영향을 받은 결과이다. 南北朝 시기에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將+명사(또는 名詞性詞組)+동향동사”의 구조가 많이 보이는데, 당시 이러한 구조는 “率”, “取”, “持”, “奪” 등의 의미를 가진 外動詞와 함께 쓰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 “將”字 뒤의 賓語가 문장의 앞이나 뒤에 나오기 때문에 “將”字 뒤에는 다시 賓語가 나오지 않고 “他動詞+將+來(去)”와 같은 구조를 형성하였다.

예 : 若生女者, 輒持將去, 母隨號泣, 莫敢救之. (顏氏家訓)
 不知所謂, 命取將來, 乃小豆也. (顏氏家訓)

이러한 구조에 속하지는 않지만 “將+명사+동향동사”의 문장에서도 唐宋까지 “將”字는 아직 虛化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예 : 遂將死女尸靈歸來. (敦煌零拾, 句道興·搜神記)
 并將酒肉飲食來. (上同)
 勿取, 但將紙來, 復縱筆一揮, 斯須十餘篇矣. (王保定·摠言)

“將”字가 “外動詞+將+來(去)”의 구조에서 비로소 동사 詞尾로 虛化되었기 때문에 그 뒤에는 늘 動向動詞가 같이 쓰였으며, 宋 이후에는 반드시 “來”, “去”가 함께 쓰였다.

예 : 樵童斫將去, 柔蔓與之并. (元稹詩)
 駿馬輕騎擁將去. (韋莊詩)
 何人論說唱將來. (佛曲三種)

唐代에는 “將”字 뒤에 動向動詞가 안 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詩句의 押韻이나 그 밖의 다른 원인으로 “來”, “去”가 생략된 것이다.

예 : 燕有宅一所, 橫被強奪將. (敦煌掇瑣·燕子歌)
白鳥帶將帘外雲. (薛逢詩)
眉黛奪將萱草色. (沈千運詩)

唐 이전에는 詞尾 “將”字가 오직 “持”나 “取”와 같은 동사 뒤에 왔으나, 唐 이후에는 그 밖에 “斫”, “唱” 등 의미가 완전히 다른 동사 뒤에 함께 쓰여서 자체로는 아무런 실제적인 의미를 나타내지 못하였는데, 바로 이때부터 “將”字가 정식으로 동사 詞尾로 虛化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處置式으로 사용된 “將”字와 “把”字의 경우를 비교하여 살펴보자.

“將”字가 處置式으로 사용된 것은 “把”字가 處置式으로 사용된 것보다 이른다. 盧德平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¹³⁾

隋末 初唐의 시인 王梵志(590-660?)의 白話詩를 보면, “將”字가 道具語로 쓰이거나 處置式으로 쓰인 例가 많이 나온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예 : 縱有文章好, 留將余處宣. (《王梵志詩校輯》)
將他物已用, 思量得也麼. (上同)
不可將財覓, 不可智力求. (上同)

그러나 “把”字의 경우는 이와 같이 介詞로 虛化되어 쓰인 例가 안보이다가 盛·中唐 사이의 詩僧인 寒山子(691-793)의 白話詩에 처음 處置式이 등장한다.

예 : 世間有王傅, 莫把同周部. (《寒山子詩集》)
有人把椿樹, 喚作白梅檀. (上同)

以上에서 볼 때 “將”字가 處置式으로 처음 쓰인 것이 隋末唐初이며 道具語로 쓰인 것도 같은 시기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 “把”字는 盛·中唐간에 處置式으로 쓰였으나 道具語로 쓰인 것은 中·晚唐 사이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늦은 시기였음을 敦煌變文에 비로소 나오는 것으로 보아 추측할 수 있다.

13) 盧德平, <“將”字句和“把”字句的歷史研究> (《語言論集》 第三輯, 1989年, 中國人民大學 中國語言文學系《語言論集》編輯組編), p.210.

“將”字句와 “把”字句의 관계를 놓고 비교할 때 道具語로 쓰인 점에서는 語法機能上에 아무런 차이가 없으며 다만 使用頻度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대체로 北宋(12C)以前에 “將”字句가 “把”字句보다 道具語로 사용된 경우가 많았으나 北宋以後에는 그 빈도가 비슷하다가 元代 이후에는 전체 數量面에서 오히려 “將”字句가 “把”字句보다 줄어들기 시작하였다.¹⁴⁾

處置式으로 쓰인 경우에는 16C 中葉에 處置式의 轉化形式인 繼事式이 “把”字句의 특수용법으로 자리잡았으나 원래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던 “將”字句는 완전히 消失되었다.

그후 “將”字句는 18C 中葉 《儒林外史》로 대표되는 南部 官話에서 기본적으로 사라지기 시작하여 19C 중엽에는 《紅樓夢》과 《兒女英雄傳》으로 대표되는 北方官話에서도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라졌다는 것이 하나도 없이 전부 사라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全體數에서 “把”字句에 비해 적다는 것이다. “將”字句가 대화 속에서 사용된 것만을 국한시켜 말한다면 그 數는 더욱 적을 것이다. 많은 “將”字句가 일반적으로 文人 士大夫의 언어나 《儒林外史》와 같이 그들의 생활상을 그린 문장에 쓰였다. 이 사실은 “將”字句가 그 당시 口語의 文型에서 이미 書面語의 文型으로 退化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將”字句의 소실과 함께 나란히 “把”字句가 道具語로 쓰이던 방식은 口語에서 “拿”와 “用”字句로 대체되었으니, 그 원인은 아마도 두가지 文型사이의 類推作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三. 語法機能上的 分類

앞장에서 말한 것처럼 處置式이 처음 쓰이던 때는 “將”字句가 “把”字句 보다 널리 쓰였으나, 후에 점차 “把”字句로 대체되었는데, “把”字句와 “將”字句는 구조와 기능면에서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處置式에 주로 쓰였으나 “把”字나 “將”字 뒤에 나오는 명사나 名詞性 詞組와 함께 쓰여 동작행위의 근거나 방법 등을 나타내는 道具語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14) 上同書, p.226과 p.233.

1. 道具語로 쓰인 경우

“把”字와 “將”字가 道具語에 쓰인 경우 동사의 성질이 아직 강하게 남아 있으나 이런 종류의 문장에는 主要動詞가 따로 있으며, “把”字 “將”字 및 그 빈어는 다만 수사성 단어 조합으로 존재할 뿐 정식 동사와는 거리가 멀다.¹⁵⁾ 그러면 이들이 道具語로써 빈어와 동작과의 관계에 따라 어떻게 쓰이는지 예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예 : 卅莊客把鑰匙來開門。(《水滸傳》49.807)
趙得將火把來神廚內照一照。(上同42.675)
金連將那一枝桃花做了一個圈兒。(《金瓶梅》615.48)
寶蟾便哭着來揪香菱, 說他把藥藥死了奶奶了。(《紅樓夢》103.1436)

이들 예문에서 “把”字와 “將”字은 모두 “用”이나 “拿”로 바꾸어 쓸 수 있는데, “把”字와 “將”字의 빈어가 물체로서 처치의 대상이 아니라 동작의 재료나 도구를 의미함을 알 수 있다. 이런 경우 “把”字나 “將”字는 동사의 성질을 지니고 있으나 개사로 완전히 허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볼 때, 동사 “把”나 “將”이 介詞 “把”나 “將”으로 移行되는 과도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다.¹⁶⁾

“把”字와 “將”字의 빈어가 인체의 일부를 나타내어 동작의 수단을 의미하는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예 : 若徒將耳聽過, 將口說過, 濟甚事?(《朱子語類》105.2628)
把言語調戲你, 又將手摸着你胸前?(上同46.498)
寶蟾…說着, 却把眼溜着金桂一笑。(《紅樓夢》91.1293)
婦人道: “達達你把手摸摸, 都全放進去了”, 西門慶用手摸摸。(《金瓶梅》1387.98)

이들 예에서 “把”字와 “將”字의 빈어가 인체의 器官이나 四肢로 사람의 동작이 모두 이 신체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이 경우 엄격한 의미의 도구라고 하기는 어렵다.¹⁷⁾ 이밖에 “把”字와 “將”字의 빈어로 말이나 재물이 쓰여 행위자의 동작이 실현될

15) 向熹, 上揭書, p.85.

16) 錢學烈, 上揭書, p.285.

17) 孫占林, 〈《金瓶梅》“把”字研究〉(《語言文字學》, 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中心, 1991年. 12月), p.95.

수 있는 근거를 의미하는데 그 예는 다음과 같다.¹⁸⁾

- 예 : 正報到頭來, 徒勞將錢贖. (《王梵志詩校輯》1.9)
 愛姐把些風月話來勾敬濟. (《金瓶梅》1387.98)
 金桂…欲把兩三句話遮飾改過口來, 又可惜了這個人. (《紅樓夢》91.1292)
 如人將一百貫錢買得獵狗, 只解尋得有踪迹底. (《祖堂集》8)

이들 “把”字와 “將”字 이외에 清代에 와서 道具語로 쓰인 것이 “拿”字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예 : 後來我們拿這個作被, 作帳子. (《紅樓夢》40)
 拿真心待你, 你倒不信了. (上同47)
 不拿薑汁子和醬預先抹在底子上烤過… (上同42)

이들 예에서 “拿”는 “把”나 “用”으로 바꿀 수 있다. 이와같이 조기 백화에서 “拿”와 “用”이 함께 혼용되기도 하였다.

다음과 같이 “拿” 대신 절대로 “把”를 쓸 수 없는 경우가 있다.

- 예 : 忙命人拿盤子裝了十個極大的. (《紅樓夢》47)
 賈母又命拿些錢給他. (上同39)

“拿”나 “用”을 써야 할 곳에 “把”를 사용하던 현상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고, 명확하게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조기 백화의 작품을 통하여 알 수 있다.

2. 處置式에 쓰인 경우

초기의 處置式과 현대한어의 處置式 구조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는 술어부분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把”字句와 “將”字句는 구조에 따라 不完全形式과 完全形式으로 나눌 수 있다. 불완전형식이란 동사 앞에 명사가 생략되거나 아예 근본적으로 없는 경우로 把/將 + 動 + 名의 형식을 가리키는데 다음의 예를 들 수 있다.

- 예 : 世間有王傅, 莫把同周郡. 《寒山子詩集》

18) 上同.

輒爾買園將作寺? 《敦煌變文集·降魔變文》
 敬是把作工夫, 誠則到自然處. (《朱子語類》113.2743)
 而今學者却恁地泛泛然, 都沒緊要, 不把當事, 只是謾學. (《朱子語類》
 98.2513)

완전한 형식은 동사 앞에 명사가 나오는 경우로 구조를 통해서 볼 때 술어 동사 전후에 附加成分이나 補充成分의 有無 여부에 따라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단순히 동사가 술어로 쓰이는 경우

동사 전후에 부가성분이나 보충성분이 없이 단순히 동사만 술어로 쓰이는 경우로 그 형식은 把/將 + 名 + 動의 형태로 된다. 이와 같은 형태는 초기 處置式의 특색이며 18C 중엽까지 그 사용 현상이 보인다. 이들 동사는 어떤 것은 단음절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쌍음절이다.¹⁹⁾

예 : 仰山便把茶樹搖. (《祖堂集》4.125)
 秋時又把什收, 冬時又把什藏. (《朱子語類》1289)
 料理中堂, 將少府安置. (《游仙窟》)
 且將一件書讀. (《朱子語類》2913)
 權時把數壁遮闌. (《敦煌變文集》2.198)
 干把地主并左近平人涉疑打拷. (《老乞大諺解》29)

이들 處置式에서 보면 빈어는 앞으로 가고, 뒤에 동사만 홀로 남아 균형이 맞지 않고 음절상으로도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후에 점차 도태되었다.²⁰⁾ 또 다음과 같이 술어가 동사 성질을 가진 固定詞組인 경우도 있다.

예 : 把林冲橫推倒拽. (《水滸傳》120)
 把宋江面南背北, 將戴宗面北背南. (上同645)

이와 같은 處置式은 빈어가 동사 뒤에 오므로 해서 구조가 커질 뿐만 아니라, 의미가 통하지 않아 결국 빈어를 동사 뒤에 환원 시킬 수가 없다. 아무런 보충성분을

19) 盧德平, 上揭書, p.216.

20) 梅組麟은 이와 같은 형식이 도태된 원인으로 현대 處置式의 주요 형성방법이 못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즉 이들 예문에서 “把”字나 “將”字를 없앴을 때 문장으로 성립이 안된다는 것이다. 上揭書, p.202 參照.

갖지 않고 단순동사가 술어로 쓰인 초기 處置式의 특색이 현대한어에서는 이미 도태되었으나 固定詞組가 술어로 쓰인 處置式은 현대한어에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다. 즉 빈어를 앞에 놓는 것이 위의 예처럼 빈어 위치를 정립시키기 어려운 모순을 해결함으로써 현대한어에서 處置式이 발전하게 된 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²¹⁾

(2) 동사 전후에 부가성분이나 보충성분이 쓰이는 경우

동사 앞에 부가성분이 오는 경우 : 把/將 + 名 + 附加成分 + 動

예 : 把君詩一吟. (崔塗詩)
若把白衣輕易脫. (杜荀鶴詩)
遂將其筆望空擲. (龔山遠公)
石秀將這擔柴也都准折了. (《水滸傳》44.722)

초기 處置式은 連動式에서 막 벗어난 형태로 “把”字나 “將”字의 동사 성질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빈어와 동사 간에 거리가 있어 동사 앞에 흔히 부사성 수식어가 왔으며, 때로는 비교적 긴 수식어가 쓰이기도 하였다.²²⁾ 다음의 예에서 볼 수 있다.

예 : 將詩不必萬人傳. (杜甫詩)
肯將此爲閒人吹. (吳融詩)
更將鷄脚用筋纏. (孫榮·北里志)
把那燭燈望東扯. (《水滸傳》48.794)
把這二人就路邊結果了性命. (上同79.1309)

介詞 “在”(또는 “于”)와 그 빈어는 處置式 문장에서 보통 동사 뒤에 나오지만, 동사 뒤에 다른 빈어가 있거나 술어가 고정성의 詞組인 경우 동사 앞에 나온다.²³⁾

예 : 把兩隻前瓜在地下略按一按. (《水滸傳》23.346)
教就把軍馬在這箇平原曠野之地, 列成陣勢. (上同109.1636)

现代한어의 處置式 문장에서 동사는 부정부사의 수식을 받지 못하고 否定을 나

21) 向熹, 上揭書, PP.88-89.

22) 祝敏澈, 上揭書, p. 25.

23) 向熹, 上揭書, p.90.

타내는 處置式문장인 경우 “把”字 앞에 부정사가 온다.²⁴⁾ 早期 近代漢語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었으니 다음은 현대한어와 마찬가지로 “把”字나 “將”字 앞에 부정사가 쓰인 경우이다.

예 : 來這裏沒好的你吃, 別把這點子東西唬的存在心裏, 倒叫我不安. (《紅樓夢》 8.129)
如今誰承望姑娘人大心大, 不把我放在眼睛裏. (上同28.386)
你替另告訴你家姑娘, 不要將我放在心裏. (上同106.1473)

그러나 다음과 같이 동사 앞에 바로 쓰인 경우도 많이 보인다.

예 : 今人所以悠悠者, 只是把學問不曾做一件事看. (《朱子語類》 44)
再三留待東君看, 管都將別花不惜. (《樂府雅詞》 102)
林冲每日和智深吃酒, 把這件事不記心了. (《水滸傳》 7.118)
把剛才我吃飯的菜蔬休動. (《金瓶梅》 33.421)
將身不作轉輪王, 只是怕無常. (《敦煌曲校錄·大山入山修道贊》 120)
妙玉忙命: “將那成窯的茶杯別收了, 攔在外頭去罷” (《紅樓夢》 41.569)

또 다음과 같이 연동구조에 부정을 나타내는 경우도 보인다.

예 : 玉蕭把頭扭着不答應. (《金瓶梅》 97.1148)
每日只和唱的睡, 把大姐丟着不去瞅采. (上同92.1303)

이들 예에서 앞의 동작은 상태를 나타내고, 부정사는 둘째 동사 앞에 쓰여서 동작의 부정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앞의 동작은 대체로 부정적인 색채를 띤다.²⁵⁾ 동사 앞에 數詞 “一”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²⁶⁾ “把”字를 사용하는 문장과 “把”字를 사용하지 않는 문장으로 나눌 수 있다. 다음은 “把”字를 사용하는 예이다.

24) 宋玉柱는 “把”字句 가운데 동사 구조가 반드시 否定을 나타내야 하고, 否定副詞가 “把”字 앞에 놓일 수 없는 특수한 固定格式이 있으니 이를 公式으로 표시하면 “把+임의지시대사+都+부정성동사구조”가 되는데, 다음과 같은 예를 들고 있다. 예 : (1)他把誰都不看眼裏. (2)這個人把什麼都不放在心上. 上揭書, p.30.

25) 孫占林, 上揭書, p.99.

26) “一” 대신 “只”을 사용하기도 한다. 다음의 예를 볼 수 있다. 예 : 把那桌子只一拍, 灑那老人一臉熱汗. (《水滸傳》 53.878). 將張保正匹頭只一提, 一交攔翻在地. (上同44. 719). 向烹, 上揭書, p.90.

예 : 平兒把眼圈兒一紅, 忙拿話岔過去了. (《紅樓夢》71.7)
 把手一拱, 說道, ‘請了’ (《兒女英雄傳》15.28)
 把小脖頸兒一梗梗, 眼珠兒一轉, 心裏說道, ‘這話不錯’ (上同19.7)

다음은 “把”字를 사용하지 않는 예를 보자.

예 : 便一躡身坐在一塊山子石上. (《紅樓夢》23.16)
 一睜眼, 見自己依然綁在柱上. (《兒女英雄傳》6.5)
 一伸手, 往桌子上綽起那把雁翎寶刀來. (上同9.29)

이를 비교할 때 “把”字를 사용하지 않는 문장은 그 빈어가 대체로 하나의 字로 된 것을 알 수 있다.

동사 뒤에 補充成分이 오는 경우 : 把/將 + 名 + 動 + 補充成分

예 : 圖把一春皆占斷. (秦韜玉詩)
 未免把虛空隔截成兩處. (大慧書)
 恐將本義失了. (朱子全書)
 公只是將那頭放重了. (朱子語類輯略)

초기 處置式 문장은 근대 및 현대한어와 비교해 볼 때, 동사 뒤의 보어와 빈어성분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물에 대한 처치의 결과가 분명히 나타나지 않기 때문인데, 비교적 많이 사용된 보어와 빈어의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자.²⁷⁾

(1) 處所補語

예 : 把舜子頭髮懸在中庭樹地. (《變文·舜子至孝》)
 把山海似深恩掉在腦后. (《董西廂》116)
 仍聞好事者, 將我畫屏風. (杜甫詩)
 蜀王將此鏡, 送我置空山. (上同)

처소보어가 들어있는 문장에서 “把”字를 사용 안하는 경우 대개는 빈어가 구체

27) 이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呂叔湘, 〈把字用法的研究〉(《漢語語法論文集》增訂本, 商務印書館, 1984年), pp.182-198 參照.

적이지 못하다. 특히 초기 문장에 보이는데 “把”字를 안써도 빈어가 구체적인 경우가 있으나 문장이 어색하다.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예 : 解這崔寧到臨安府。(《京本通俗小說》10.11)
關你和他兩個在裏面。(《水滸傳》24.41)

(2) 受動補語

일반적으로 말하는 간접 빈어를 가리키는데, 경우에 따라 “給”字가 함께 쓰인다.

예 : 你老子使了我五千銀子, 把你准折賣給我的。(《紅樓夢》80.16)
將東西且交給周瑞家的暫且拿着。(上同74.24)
怎麼公公樂的把個烟袋遞給婆婆了?(《兒女英雄傳》35.32)

다음은 “給”字가 안쓰이는 경우의 예이다.

예 : 早有人把這話報知嚴貢生。(《儒林外史》5.37)
把你嘴上的胭脂賞我吃了罷。(《紅樓夢》24.2)
又把這等的機密大事告訴了你。(《兒女英雄傳》16.7)

수동보어를 갖는 문장은 반드시 “把”字를 써야하는 것은 아니며, 보어를 동사와 빈어 사이에 갖다 놓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給”字를 안쓰는 경우가 많다.

예 : 我告訴你個笑話兒。(《紅樓夢》28.11)
你既不願意, 我教你個法兒。(上同46.10)
憑你送他甚麼, 一概不取。(《兒女英雄傳》16.5)

“把”字 사용의 여부는 빈어가 구체적이냐 아니면 임의적인 것이냐에 따르는데, 빈어가 구체적인데 “把”字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와 같은 예로 “不知他賣我與甚色樣人家?(《京本通俗小說》15.7)”와 같은 것을 들 수 있으나 현대한어에서는 거의 보기 힘들다.

(3) 結果補語

결과보어는 구조조사인 “得”字가 사용되는 경우와 得”字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로 나뉜다.

① “得”字が 사용되는 경우

“得”字는 “的”로 쓰기도 하며, “得”字 외에 “個”字로 연결 시키는 경우도 있다.

- 예 : 只將那事說得條達, 便是文章. (朱子語類)
 把那文行出處都看得輕了. (《儒林外史》1.8)
 將縣衙門圍的水泄不通. (上同5.36)
 把他拘的火星亂迸, 那裏忍耐的住. (《紅樓夢》79.9)
 把那店主人打個跟頭. (《水滸傳》32.495)

“得”字가 쓰여 보어를 만드는 경우 “把”字를 써서 빈어를 전치시키지 않고, 보어를 빈어 뒤에 놓는데, 초기에 이러한 예들이 보이나 현대에 와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得”字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

晚唐 以前에는 이런 예가 안 보이고 그 이후에 몇몇 예가 보인다.

- 예 : 欲將香匣收藏却, 且借時吟在手頭. (魚元機詩)
 我若死了, 就把你扶正. (《儒林外史》5.40)
 將襲人叫醒. (《紅樓夢》77.24)
 把那銀子搬齊. (上同15.31)
 把生死關頭看破. (上同16.12)

이들 예에서 볼 때 結果補語는 대부분 한 字로 되어 있으며, 이 경우 동사보어를 합쳐서 하나의 복합동사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보어가 한 字가 아니면서 “得”字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는 일부 2음절의 형용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동빈구조로서 두자 이상으로 되어 있다.

- 예 : 有人把檜樹喚作白旃檀. (《寒山子詩集》9)
 你老人家這時候就去把他收拾妥當了. (《兒女英雄傳》10.12)
 你兩個可別把這話看作沒要緊. (上同, 32.28)
 風姐一語倒把賈璉說沒了話. (《紅樓夢》72.11)

“得”字가 안 쓰인 문장에도 “把”字를 사용안하는 경우가 있으나 비교적 드물다.

- 예 : 不過兩個月, 碾成了這個玉觀音. (《京本通俗小說》10.5)
 是怕這氣兒大了, 還吹倒了林姑娘, 氣兒暖了, 又吹化了薛姑娘. (《紅樓夢》65.20)

또 동사 뒤에 특수한 결과보어가 오기도 한다.

예 : 把個李執和紫鵲哭的死去活來。(《紅樓夢》98.8)
當下先把鄧九公樂了個拍手打掌。(《兒女英雄傳》19.11)

이들의 경우 동사는 본래 자동사인데, 여기서는 “致動”의 의미로 쓰여서 타동사로 바뀌었다. 또 다음의 예를 보자.

예 : 好孩子, 你把我的心都哭亂了。(《紅樓夢》97.19)
原來那瘟貓把床頂的板跳塌了一塊。(《儒林外史》5.42)

이들 예에서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은 어떤 賓語이든 간에 오로지 빈어로 하여금 보어가 나타내는 결과에 도달하게 하는 수단일 뿐이다.

“把”字が “讓”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며, 여의치 못한 사정을 나타내는 데 쓰일 경우 뒤에 나오는 주요 동사는 致動의 의미를 갖지 못하고, 결과보어도 쓰이지 않는다. 그러나 형식상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동사 뒤에 다른 성분이 없을 경우 최소한 “了”字가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예 : 我煩你做個什麼, 把你懶的橫針不拈, 豎線不動!(《紅樓夢》62.27)
怎麼忽然把個晴雯姊姊也沒了?(上同79.6)
偏又把鳳丫頭病了。(上同76.2)
干歇着把個妙人兒走了。(上同77.23)

(4) 動量賓語

動量賓語는 술어동사가 그대로 쓰여 “X—X”(“X”는 동사를 나타낸다)와 같이 중첩 형식으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예 : 及人來問自家討甚金物, 自家也須將上手審一審, 然後與之。(《朱子語類》14.279)
見孩兒啼哭時, 把搖車搖一搖便住了。(《朴通事諺解》105)
相煩老哥將這兩封書下一下。(《水滸傳》9.113)
把我王家的繩子掃一掃, 就够你們一輩子過的了。(《紅樓夢》72.10)

또 明 中葉의 《西游記》에 보면 동사 중첩의 새로운 형식인 “XX”의 형태가 나

타나는데 《紅樓夢》·《儒林外史》 등에는 많이 보이지 않는다.²⁸⁾

예 : 煩星官也把我頭上摸摸. (《西游記》 56.716)
我若不方便了他, 他怎肯教把我松放松放? (上同, 30.378)
天熱, 把外頭的衣裳脫脫罷. (《紅樓夢》 31.12)

동량빈어가 동사와 다른 경우 전문적으로 동량을 나타내는 “下” “頓” 등 외에 도구를 빌려 사용한 것도 있다.

예 : 把馬打上兩柳條. (《水滸傳》 5.31)
把兩手拍了一下. (《儒林外史》 5.31)
將爲首者每人打四十大板. (《紅樓夢》 73.8)
將林之孝家的申飭了一番. (上同73.8)

(5) 一部 指稱賓語

이들 문장에서 빈어가 둘로 나뉘어 “把”字나 “將”字 뒤에 오는 것은 빈어 전체를 가리키는 명사이고, 주요 동사의 뒤에 오는 것은 앞 빈어의 일부를 표시하는 수량이 쓰인다.

예 : 對你說, 把這等想心兒且吐了些了罷. (《金瓶梅》 23.247)
將性分三品, 此亦是論氣質之性, 但欠一個‘氣’字耳. (《朱子語類》 59.1368)
把衣服脫了一件. (《儒林外史》 3.29)
把放才的錢拿些來. (《紅樓夢》 73.16)

이와 같은 문장에서 “把”字를 반드시 써야하는 것은 아니다. 즉 앞에 나오는 명사가 제한을 받지않는 임의의 詞語인 경우 빈어를 뒤에 놓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제한을 받는 詞語인 경우 “把”字를 쓰는 것이 마땅하다.

(6) 保留賓語

“把”字句나 “將”字句에 사용된 동사가 다시 뒤의 빈어와 결합하여 하나의 속어처럼 쓰이는 경우 이러한 빈어를 보류빈어라 한다. 이들을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

28) 盧德平, 上揭書, P.223.

볼 수 있다. 먼저 일반적인 예를 보자.

- 예 : 跑去把大門上了大門. (《老殘遊記》 5.13)
他便把那話變了個相兒, 倒問着人家說… (《兒女英雄傳》 18.4)
將角門皆上鎖. (《紅樓夢》 74.14)

이 경우 동사와 보류빈어는 하나의 복합된 동사처럼 쓰인 것임을 알 수 있다. 보류빈어가 동작행위의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 다음의 예를 보자.

- 예 : 把這情由細細寫了個稟帖. (《儒林外史》 5.36)
雨墨又把雨衣包了個小小包袱, 背在肩頭. (《三俠五義》 34.9)
把先生踢了個大師爬脚子, 倒在當地. (《兒女英雄傳》 18.10)

주요 동사 뒤의 빈어가 “把”字나 “將”字 뒤에 바로 나오는 빈어에 속하는 경우가 있는데,²⁹⁾ 다음의 예에서 볼 수 있다.

- 예 : 把一丈青拴了雙手. (《水滸傳》 48.95)
把他們掃這一場大興. (《儒林外史》 9.73)
今且將義利兩字分個界限, 緊緊走從這邊來. (《朱子語類》 41.1043)
後來發迹, 便將氣毬那字去了毛旁… (《水滸傳》 2.11)

“把”字 뒤의 빈어가 처소를 나타내는 보어로서 의미를 갖는 경우가 있는데 다음의 경우를 보자.

- 예 : 把春桌揩抹了灰塵. (《水滸傳》 6.41)
那知把雪倒戳了兩個一尺多深的窟窿. (《老殘遊記》 8.5)
你把火盆裏多添點炭. (上同16.2)

이상의 예문에서 살펴본 대로 보류빈어는 동사와의 관계가 “把”字 뒤의 정규빈어보다 더 밀접하기 때문에 동사 뒤에 위치하게 되고, 정규빈어는 “把”字의 기능에 힘입어 앞으로 옮겨진 것으로 보아 이들 문장에서는 “把”字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謂語動詞의 구성을 통하여 處置式의 사용현상을 알아보자.

29) 上揭書, P.220.

“把”字句와 “將”字句의 謂語는 대부분 동작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 외에 일부 자동사와 형용사가 쓰인다. 다음의 예를 보자.

- 예 : 才把一物在上面, 便不平了. (《朱子語類》 16.347)
 前輩多就動.正.出三字上說, 一向都將三字重了.(上同35.1165)
 武松也知了四五分, 自家只把頭來低了. (《水滸傳》 24.272)
 將那一艙活魚都走了. (上同28.605)
 黛玉聽了這番言語, 把頭漸漸的低了下去… (《紅樓夢》 81.1165)

이 경우 진정한 의미의 處置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다만 다른 일의 영향을 받아 생긴 결과를 나타낸다. 그러나 형식은 處置式과 완전히 같다. 이 경우 왕왕 좋지 않은 일이나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닌 일을 가리키는데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 예 : 誰知接接連連許多事情, 就把你忘了. (《紅樓夢》 26回)
 小紅不覺把臉一紅. (上同26回)
 把我那要強心, 一分也沒有. (上同11回)

謂語動詞은 일반적으로 하나가 쓰이고 있으나 일찌기 王梵志의 白話詩에 두개의 동사가 連用된 문장이 나온 이래 3개 또는 그 이상의 동사가 連用된 예도 보인다. 이것은 “把”字句와 “將”字句가 구조상 크게 발전한 중요한 예라고 할 수 있다.³⁰⁾ 다음의 예를 보자.

- 예 : 喚女作家生, 將兒作奴使. (《王梵志詩校輯》 2.33)
 只是有義理, 直把自家作無物看. (《朱子語類》 99.2540)
 此亦只是將念“大悲呪”時意思移來念儒書爾. (上同120.2914)
 把平生心事叮嚀說, 不必喋喋, 少任些些. (《新校元刊雜劇三十種》 598)

또 이들 連用되는 동사 사이에 흔히 사람을 가리키는 명사가 와서 兼語機能을 갖는다. 즉 이 명사는 앞의 동사가 가리키는 동작의 빈어가 되며 동시에 뒤의 동사가 가리키는 동작의 주어가 된다. 이런 현상은 敦煌變文에 처음 보이기 시작하여 宋代 이후 점차 보편적으로 쓰였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30) 上揭書, P.222.

예 : 每將甘暖教兒臥, 濕處尋常母自眠. (《敦煌變文集·父母恩重經講經文》
5.683)
將身又向王城化作狗身受苦. (上同·目連緣起6.709)

處置式 문장에서 동사가 생략되어 다만 처치되는 대상만 말할 뿐 어떻게 처치하는가에 대하여 언급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남을 욕하는데 사용되며 그 형식은 “我+把+你+名詞性詞組”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³¹⁾ 다음의 예를 보자.

예 : 把你這忤逆種該殺的. (《朴通事諺解》219)
我把你這個潑怪. (《西游記》31.399)
我把你沒孝心雷打的下流種子. (《紅樓夢》47.650)
我把你這個混賬東西. (上同96.1351)

이 경우의 處置式은 “把”字句에만 사용현상이 보이며 “將”字句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 사용시기도 元末明初의 《水滸傳》과 16C의 《西游記》에 비교적 많이 사용되다가 18C 중엽의 《紅樓夢》에는 7개의 예가 보인다. 그러나 그 후 《儒林外史》나 《兒女英雄傳》에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소실 시기는 18C 중엽에서 19C 중엽 사이가 아닌가 보여진다.

지금까지 “把”字句와 “將”字句가 사용된 예문을 통해서 그 사용현상을 살펴보았다. 道具語로 쓰인 경우는 “把”字句와 “將”字句가 어법 기능상 차이가 없고, 다만 출현빈도에 있어서 약간 구별된다고 하겠다. 대체로 北宋(12C) 이전에 “將”字句가 道具語로 쓰인 경우가 “把”字句보다 많았으나, 北宋 이후에는 출현빈도가 비슷해지면서 전체 숫자에도 “將”字句가 “把”字句보다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處置式에 쓰인 경우는 그 사용된 예문을 통해서 볼 때, 《西游記》가 완성된 16C 중엽 處置式의 轉化形式인 繼事式이 이미 “把”字句의 독특한 용법이 되었으며, 원래 이러한 특수용법을 가진 “將”字句는 이미 완전히 사라졌음을 알 수 있다.

四. 結 論

본 논문에서는 初期에서 近代漢語에 이르는 동안 “把”字句가 어떻게 생겨나서

31) 錢學烈, 上揭書, PP.290-291.

발전하였는가에 대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기능으로 사용되어온 “將”字句와의 비교에 있어서 사적 고찰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상의 글에서 얻어진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一) 處置式의 기원은 “把”字句나 “將”字句와는 별개의 것으로 그 시기를 先秦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최초의 사용도 “以”字의 처치용법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二) 5C~6C 간에는 “將”字와 “以”字가 통용되었으며, 唐代에 와서 “把”字와 “將”字가 함께 쓰이기 시작하였으니 오늘날의 處置式의 기본틀이 형성된 것도 바로 이 唐宋시기라고 할 수 있다.

(三) “將”字句로된 處置式은 隋代에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였으며 道具語로 쓰인 것도 바로 이 시기이다. “把”字句로된 處置式은 盛唐과 中唐사이에 나왔으며, 道具語로는 中唐과 晚唐사이에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將”字句가 “把”字句에 비해 일찍 출현한 것을 알 수 있다.

(四) “把”字句와 “將”字句는 道具語로 쓰이던 혹은 處置式으로 쓰이던 간에 18C 중엽에서 19C 중엽에 이르는 사이 구조상의 제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기능상에도 변화를 가져와 道具語로의 사용은 비교적 일찍 消失되었으며, 여러 가지 特殊形式(예를 들어 處置式의 활용 - 繼事式)도 이 시기에 기본적으로 消失되었다.

(五) “把”字句와 “將”字句는 그 사용빈도에 있어서 시기별로 나누어 볼 때 唐宋시기에 “將”字句가 “把”字句보다 많이 사용되었으나 元 이후에는 “把”字句가 “將”字句를 초과하면서 점차 그 차이가 늘어났으며 18C~19C 사이에는 “將”字句는 口語에서 書面語의 형식으로 퇴화되었다. 오늘날에는 일부 방언(閩南話)을 제외하고 “將”字句는 소실되었다.

(六) “把”字句와 “將”字句는 기능상의 커다란 차이가 없이 사용되었으나 다만 일부 불완전 형식의 處置式에 “把”字句만 사용되고 “將”字句는 사용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參考文獻〉

《漢語史稿》中冊, 王力, 科學出版社, 北京, 1958

《漢語語法史概要》, 潘允中, 中州書畫社, 河南, 1982

- 〈“把”字句和“被”字句〉，王還，《漢語知識講話》，上海教育出版社，1959
- 〈“把”字句，“對”字句，“連”字句的比較研究〉，宋玉柱，《言語研究》創刊號，華中工學院，中國語言研究所，1981
- 〈把字句謂語中動作的方向〉，詹開第，《中國語文》，1958年 第1期
- 〈把字用法的研究〉 呂叔湘，《漢語語法論文集》，科學出版社，北京，1955
- 〈論“把”字句〉，梁東漢，《語言學論叢》第2輯，新知識出版社，上海，1958
- 〈“將”字句和“把”字句的歷史研究〉，盧德平，《語言論集》第3輯，中國人民大學中國語言文學系編，1989
- 〈被字句·把字句動詞帶賓語〉，呂叔湘，《漢語語法論文集》，科學出版社，北京，1955
- 〈“把”字句〉，宋玉柱，《現代漢語特殊句式》，山西教育出版社，1991
- 〈《水滸傳》中的“把”字句，“將”字句和“被”字句〉，向熹，《語言學論叢》第2輯，新知識出版社，上海，1958
- 〈《金瓶梅》“把”字句研究〉，孫占林，《語言文字學》，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中心，北京，1991.12
- 〈試論《紅樓夢》中的把字句〉，錢學烈，《近代漢語研究》，胡竹安 等編，商務印書館，北京，1992
- 《現代漢語句型》，崔承一，延邊大學出版部，延吉，1899
- 〈漢語的詞序及其變遷〉，屈承熹，《語言研究》1984年 第1期(季刊6期)，華中工學院 中國語言研究所，1984
- 〈把字句問題〉，胡附·文煉，《現代漢語語法探索》，新知識出版社，上海，1957
- 《漢語語法史綱要》，史存直，華東師範大學出版社，1986
- 《漢語語法綱要》，王力，《王力文集·第3卷》，山東教育出版社，1985
- 〈論初期處置式〉，祝敏澈，《言語學論叢》第一輯，新知識出版社，上海，1957

臺灣「國語」與大陸「普通話」的詞彙差異 ——韓國現行漢語教材詞彙分析

姜 松*

1.0 「國語」和「普通話」是臺灣和大陸在各自區域內分別指稱標準漢語的名詞。雖然這兩個名詞的表面形式并不相同，但其實質內涵却是一致的，都是指現代漢民族在相互交往中普遍使用的通用語言，即「現代漢民族共同語」。

1.1 臺灣和大陸對「現代漢民族共同語」指稱上的差異是有其各自的歷史淵源的。中國由於幅員廣大，各地漢語方言的差異很大，給口語交流帶來困難。大約在十四世紀，由於相互交際的需要，在北方話的基礎上開始形成一種被稱為「官話」的共同語。「官話」可以看成是「現代漢民族共同語」的前身。由於北京自公元1153年金朝開始成為一國之都，以後元·明·清三朝都定都于此，所以八百年來，北京一直是全國政治·經濟和文化的中心。這種就使得北京話在「官話」的形成過程中逐漸成為最有威望，最有影響的方言，為其成為「現代漢民族共同語」的基礎準備了條件。時至本世紀初，中國新文化思想開始興起和傳播，在其影響下，掀起了「白話文運動」和「國語運動」。這兩個文化運動提倡以白話文取代文言文，規定全國統一以現代的北京（當時稱為北平）音系為標準語音，定名為「國語」，以「國語」這一名稱取代「官話」。同時，頒布了一套記錄北京語音的「注音符號」。

1949年以後，臺灣將「國語」這一名稱和「注音符號」一直沿用至今，而中國大陸，由於各方面發展的需要，於50年代，對通行的共同語進行了一系列的規範化，更名為「普通話」，並進行了明確的定義。所謂「普通話」是以北京語音為標準音，以北方話為基礎方言，以典範的現代白話文著作為語法規範的現代漢民族共同語。

* 聖心外專 招聘教授

這一定義與當年規定的「國語」在總的精神上是一致的，此外，大陸還制定了「漢語拼音方案」，經過逐步完善，最終取代了「注音符號」。

瞭解「國語」和「普通話」名稱的由來和歷史沿革，有利於正確認識「國語」和「普通話」在實質上的一致性。但也必須承認，大陸和臺灣畢竟彼此隔絕40餘年，兩岸使用的一個「漢民族共同語」是在彼此封閉的情況下，各自獨立地發展演進了40餘年，況且兩岸在政治·經濟·文化以及社會生活各方面都表現出十分明顯的差異。這種差異必然會對兩岸使用的同一種語言產生不同的影響，使其各自發生不同的語言變異，構成語言系統的各個組成部分；語音·語法·詞彙與社會發展的關係是有很大的不同的。語音和語法具有較強的穩固性，不易隨社會生活的發展發生急速的變化。詞彙則不然，它對社會發展的反應最為敏感，社會生活中新事物的產生，舊事物的消失，人們觀念的改變都隨時可以在語言的詞彙中得到反映。詞彙以舊詞的消亡，新詞的產生和詞義的發展與社會生活的演變相呼應。因此，在不同的社會生活影響下各自獨立發展至今的臺灣「國語」和大陸「普通話」，它們在詞彙上的不同也就成爲兩者最爲明顯·最具標志性的差異之所在。

1.2 臺灣「國語」和大陸「普通話」在詞彙上所存在的差異勢必會對外漢語的教授和學習帶來一定的影響。目前，在韓國通行的中國語教材中，除少數大陸教材的譯本外，多數爲臺灣教材的譯本，或由曾留學于臺灣的韓國學者編著的課本。這些教材中的部分詞彙和大陸「普通話」詞彙有很大的不同，帶有十分明顯的臺灣味道。中韓建交以後，學習和研究「北京式中國語」的風氣在韓國日益興盛起來。因此分析·歸納韓國現行漢語教材中臺灣「國語」和大陸「普通話」的詞彙差異。不僅可以對漢語教授和學習提供幫助，而且有利于進一步深入研究漢語在臺灣和大陸的不同演變。

2.0 筆者考察了目前韓國通行的部分漢語教材，對其中明顯帶有臺灣色彩的詞語進行了歸納和整理，經過與大陸「普通話」的對比，可以看出臺灣「國語」和大陸「普通話」的詞彙差異主要表現在以下幾個方面：事物的指稱，方言詞語的借用，詞義的轉變，動賓詞組的搭配，詞組的縮略，詞性的轉移，量詞的習慣用法以及形容

詞·動詞的拆零組合等。下面結合語言實例對以上諸方面分別加以具體說明。

2.1 事物的指稱

事物的指稱與社會生活的關係最為密切，社會生活類型的不同必然會給生活中部分事物的指稱帶來差異，尤其是對一些新產生的事物，不同社會會按照不同的理解和不同的方式進行指稱。在臺灣和大陸有差異的詞彙中，事物指稱上不同的詞數量最大，影響最廣，表現也最為明顯。

在韓國的漢語教材中，臺灣「國語」和大陸「普通話」有差異的事物指稱名詞，大致有如下這些：

臺灣「國語」

空中大學
幼稚園
存款簿
會議場
集郵社
腳踏車
計程車
機車
導覽員
電腦
住屋
郵遞區號
郵差
廚子
觀光客
原住民

大陸「普通話」

廣播電視大學
幼兒園
存折
會場
集郵協會
自行車
出租車
摩托車
講解員·解說員
計算機
住房
郵政編碼
郵遞員
廚師·大師傅
游客
土著人

服務生	服務員
小 弟	服務員
室 友	同 屋
公佈欄	佈告欄
廣告看板	廣告牌
薪 水	工 資
票 房	售票處
筆記簿	筆記本
原子筆	圓珠筆
蛋花湯	鷄蛋湯
日 幣	日 元
糕 餅	糕 點
柳 丁	橙 子
兩房一廳	兩室一廳
豬 腳	豬 蹄
家 事	家 務
車 資	車 費
國際快捷郵件	國際特快專遞
平快車	普通快車
手 環	手 鐲
國 片	國產片
西 片	外國片
專 攻	專 業
冷氣機	空 調
錄影機	錄像機
影印機	複印機
收銀機	收款機
匙 子	勺 子
易開罐	易拉罐心
速食麵	方便麵

資優兒童	超常兒童
交流道	立交橋
楓 紅	紅 葉
社 區	街 道
肢體語言	體態語言
明星學校	重點學校
平 劇	京 劇
蛙 式	蛙 泳
蝶 式	蝶 泳
仰式, 仰游	仰 泳
泳 衣	游泳衣, 泳裝
歌唱節目	歌曲節目
九年國教	九年義務教育

2.2 方言詞語的借用

漢語方言的種類較多，適當借用方言中的詞語，無疑會使「現代漢民族共同語」的詞彙得到充實·豐富，使其使用起來更加生動·活潑。無論是大陸「普通話」還是臺灣「國語」都曾吸收過不少有價值的方言詞彙。例如吳語中：尷尬·垃圾·兜圈子·一塌糊塗；西南官話中：傷腦筋·要得·要不得·搞名堂等都已進入到「普通話」和「國語」之中，在大陸和臺灣取得共識。但是由于臺灣本身屬於閩南方言區，有自己的地方土語，加之與香港等地接觸頻繁，四十年來，不少閩南語詞彙·臺灣土語和流行于香港等地的粵語詞彙被臺灣「國語」所吸收。相反，「普通話」則顯得較為保守，堅持使用與這些方言詞等義的全國通曉的詞語，因而形成兩岸方言詞語借用上的差異。這種差異反映在韓國現行漢語教材中就表現為教材中出現不少「普通話」範圍以外的方言詞語。例如：

靈光：* 順便印證一下我學的中國話靈不靈光。（〈관광통역中國語〉，p.114）

* 在說話技巧上，他是非常靈光的（同上）

* 最近腦袋確實有些不靈光。(《實用生活中國語會話》，p.56)

「靈光」在「普通話」中當為「好」。以上三個例句中的「靈光」在「普通話」中應分別用「好不好」，「好」，「不好」替代。

曉得：* A: 快去快回，路上小心。

B: 媽，我曉得。(《實用生活中國語會話》，P.69)

「曉得」在「普通話」中當為「知道」。

蠻：* 您最近忙嗎？還蠻輕鬆的。(《實用生活中國語會話》，P.11)

「蠻」在「普通話」中當為「很」。例：“這個工作很輕鬆。”

荷包：* 太太嘛一定要掌握先生的荷包，先生才不會亂來。(《新選廣播劇》，P.26)

此處「荷包」意為：隨身攜帶，裝零錢和零星東西的小包，「普通話」中當為「錢包」。

擺噱頭：* 那是他們擺噱頭，他們登那個廣告，就是放線釣魚，引誘你們上鉤，想騙你們的錢。(《新選廣播劇》，P.53)

「擺噱頭」在「普通話」中當為「耍花招」。

老么：* 我是家中的老么。(《관광통역中國語》，P.195)

「老么」意為家中排行最小的孩子，「普通話」中稱「老小」或以「老」表示排行在末了的，後加「兒子」或「閨女」，構成「老兒子」·「老閨女」。

此外，在臺灣口語中，我們比較熟悉的來自粵語的「老公」（「普通話」稱「丈夫」），「香肉」（「普通話」稱「狗肉」），「牛扒」（「普通話」稱「牛排」），「買單」（「普通話」稱「結賬」），「炒魷魚」（「普通話」稱「解雇」）；來自閩南語的「三八」（稱女人瘋顛，行事不正常，「普通話」為「瘋」·「扯」），「呷醋」（「普通話」為「吃醋」）等等，目前都還不屬於「普通話」詞語範圍。雖然，近年來，像「買單」·「炒魷魚」等詞語間或也出現在北京部分青少年的口語中，但這些詞語將來是否可能正式進入到「普通話」中，還需經過時間的考驗。

除向方言借詞外，臺灣「國語」還從英語·日語中借入一些大陸「普通話」不曾借入的詞語，其中有些詞由于只在臺灣地區通行，因而也帶上了臺灣地方土語的彩色。如：

殺時間：* 反正是出來逛街，殺時間嘛。（〈新選廣播劇〉，P.21）

「殺時間」為英語「killing time」的意譯詞，「普通話」中為「消磨時間」。

便當：* 你還在睡覺哪，她就得起床準備早點·便當。（〈新選廣播劇〉，p.12）

「便當」為源于日語的外來詞，意為：上班或外出便于攜帶的裝食品的小盒子。「普通話」稱「飯盒兒」。

2.3 詞義的轉變

這裏所謂「詞義的轉變」是指一些「國語」和「普通話」本身都固有的詞，它們在兩岸保持相同的形態和語音，但由于「國語」和「普通話」的彼此隔絕和獨立發展，使兩岸人們對這些詞所涵蓋的意義逐漸形成不同的認識和理解，造成這些詞的意義在兩岸發生不同程度的轉變。這類詞最容易引起交際上的誤解，應該給予足夠的注意。例如：

- 嗜好：** * 你有些甚麼嗜好？我最喜歡釣魚。（〈관광통역中國語〉，p.36）
- * 我的嗜好是彈鋼琴·插花和捏紙粘土。（同上，p.241）
- * 好吧，從現在起我要培養一些嗜好。（〈實用生活中國語會話〉，p.160）

這裏的「嗜好」均指一般積極意義上的興趣·愛好。但在「普通話」中「嗜好」多指不良的愛好，含有消極的貶意。例）“他的嗜好是抽煙·喝酒·打架。”具有積極意義的愛好，在「普通話」中多用「愛好」·「喜歡」·「興趣」·「特長」。

- 殺價：** * 如果碰到老闆開價太高的時候，我就會跟他殺殺價，如果到百貨公司的話，就不能殺價了。（〈관광통역中國語〉，p.232）

這裏的「殺價」為一般意義上的討價還價，但在「普通話」中「殺價」特指買主利用賣主急于出售的機會，大幅度地壓低價格，含有乘人之危侵害賣主之意。一般意義上的討價還價，「普通話」多用「砍價」·「講價」。例）“買東西的時候他很會砍價（講價）。”

- 聯絡：** * 本來跟你聯絡，但是護照一直沒下來，等到下來以後，因為必須趕來注冊，所以來不及跟你聯絡。（〈實用國際中國語會話〉，p.58）

「聯絡」和「關係」本來都是彼此交接，接上關係的意思。但在「普通話」中，「聯絡」多出現在「聯絡暗號」·「聯絡站」·「聯絡員」等詞組中，帶有一種在地下秘密接上關係的味道。表現一般意義上的彼此交接，「普通話」多用「關係」。如：“希望我們以後經常關係。”“過幾天我們再關係。”“你去關係A班同學，我去關係B班同學，我們兩班一起去郊游。”

- 輔導：** * 這些年你在國外生意做得很不錯。那還不是多哇政府的輔導嗎。（〈新選廣播劇〉，P.8）

「輔導」本來的意義為幫助和指導，但在「普通話」的使用中，意義比較狹窄，一般只局限于在學習某種知識和技能方面給予幫助。如：“我想請你輔導輔導我的發音，可以嗎？”“經過他的輔導，我的漢語水平有了很大的提高。”其他方面的「幫助和指導」多不用「輔導」。

影 印：* 我的筆記可以借給你看。

那真是太好了，我這就拿去影印。（《實用中國語會話》，P.257）

此處「影印」為用墨粉進行靜電複製，適用於少量單張翻印。但在「普通話」中，「影印」專指用照相的方法制版印刷，適用於書籍或圖表的大量翻印。靜電墨粉複製在「普通話」稱「複印」。

書 桌：* 我那間屋子裏，床跟書桌都有。（《實用中國語會話》，P.73）

「普通話」中「書桌」一般指學校課堂裏學生上課時使用的桌子。像上面例句中家庭用來看書寫字的桌子，「普通話」稱「寫字臺」。

鍋 子：* 你們看那邊的鍋子·盤子什麼的，今天都打折。（《實用中國語會話》，P.203）

此處「鍋子」指一般用來做飯的器具。但「普通話」的「鍋子」特指火鍋，或指稱某些器物上像鍋的部分，如烟袋鍋子。一般做飯用的普通話稱「鍋」，不帶「子」尾。

此外，在大家比較熟悉的目前臺灣流行口語中，也有一些因與北京流行口語含義不同而引起誤解的詞，值得特別指出（這些臺灣流行口語詞及例句均出自《國語演變之研究》）。

正

臺灣：形容人長得漂亮或事物很合標準。

例) “那個女孩子好正。”

北京：品行端正，舉止正派，維持「正」的本義。

例) “他這個人很正，不會吃你這套的。”

宰

臺灣：制服·克服。

例) “被老師宰了。” “球賽痛宰對方一頓。”

北京：強迫別人請自己吃飯或令別人付出超過正常標準的錢。

例) “今天我們大家宰了他一頓。” “這個商店的東西太宰人了。”

蓋

臺灣：動詞，欺騙，吹牛。

例) “你少蓋人了，我才不信呢。” “太棒了，真不是蓋的。”

北京：形容詞，非常出色，極好。

例) “這個電影真是太蓋了。”

亂

臺灣：非常。

例) “亂好笑的。” “你少亂蓋了。”

北京：任意，隨便。

例) “小孩子不要在街上亂跑。” “你淨亂出主意。”

吐血

臺灣：形容極度懊喪，氣憤。

例) “這事真叫人吐血。” “電影亂吐血的。”

北京：形容極度辛苦，勞累。

例) “寫這篇論文把我累吐血了。”

亂七八糟

臺灣：描寫誇張程度。

例) “他高興得亂七八糟。”

北京: 形容混亂, 亂糟糟的。

例) “這篇稿子塗改得亂七八糟, 很多字都看不清楚。” “他越想越沒主意, 心裏亂七八糟的。”

還有個別詞在臺灣和北京雖然字形不同, 但語音形式一樣, 也容易造成理解上的偏差。如, “你zhuai什麼!”, “少zhuai了。”在臺灣zhuai寫作「踹」, 意為神氣不理人狀。在北京zhuai寫作「轉」, 意為說話時不用口語, 而用文言的字眼兒, 顯示有學問。再如「ping劇」在臺灣ping寫作「平」, 「平劇」係指中國的國劇, 即北京所稱的「京劇」。在北京ping寫作「評」, 「評劇」係指產生于中國河北, 流行于華北·東北等地的一個地方戲曲劇種。

2.4 動賓詞組的搭配

在動詞和名詞組合成動賓結構的詞組的過程中, 除了要遵守必要的語義規則外, 習慣因素也會起到一定的作用。在臺灣「國語」和大陸「普通話」中由習慣因素所造成的動賓詞組搭配上的差異, 也占有一定的數量, 這種差異主要體現在動詞的區別上。在韓國現行漢語教材中這類詞有:

辦家家: * “玩什麼嘛! 我們來辦家家好不好?” (《新選廣播劇》, p.1)

「辦家家」為小孩子模倣大人過日子玩的一種遊戲。「普通話」中為「過家家」。

放 榜: * “這聯考根本還沒放榜呢!” (《新選廣播劇》, p.24)

「放榜」意為考試成績揭曉, 「普通話」中為「發榜」。

打 稅: * “在中國除了打稅品或太笨重的東西以外, 通常郵差都會把包裹送到收件人住的地方。” (《實用國際中國語會話》, p.63)

「打稅」意為交納稅款，「普通話」為「上稅」。

溝通意見：* “思東也學會了不少跟別人溝通意見的方法和說話的技巧。”（《實用中國語會話》，p.403）

「溝通意見」意為使彼此互相了解對方的見解。「普通話」為「交換意見」。

燒 菜：* “他太太很會燒菜。”（《實用中國語會話》，p.32）

「普通話」多為「炒菜」·「做菜」。

通 關：* “通關檢查的時候，本國人和外國人是一起嗎？”（《實用國際中國語會話》，P.13）

「通關」普通話多為「進關」·「過關」或「入關」。

搭 車：* “我要到南港去，該搭哪一般車呢？”（《實用生活中國語會話》，p.120）

「搭車」在「普通話」中多為「坐車」·「乘車」。

考測驗：* “是不是要先考語文測驗呢？”（《實用國際中國語會話》，p.70）

「考測驗」在「普通話」中一般為「進行測驗」。「考」一般和「試」搭配，構成「考試」一詞，或在「考」的後面直接加上科目的名稱，如“考語文”，“考物理”。

講 書：* “那位先生講書講得很清楚。”（《國語會話》，p.139）

「普通話」中沒有「講書」這一搭配。此例句中的意思「普通話」通常為「講課」。例）

“那位老師講課講得很清楚。”

2.5 詞組的縮略

對複雜詞組進行適當的縮略，是語言交際過程中省力原則的要求，但不是必然的要求。臺灣「國語」和大陸「普通話」在這方面存在的差異，主要表現為是否縮略以及縮略的方式是否一致。反映在韓國現行漢語教材中，主要有以下這些詞語：

公 車：「國語」中「公車」是「公共汽車」的縮略，但在「普通話」中「公共汽車」通常不進行縮略，使用中維持全稱形式。「公車」在「普通話」中另有含義，意為「公家的車」，以區別「私人的車」。

有 約：「國語」中為「有約會」的縮略。例）“我和朋友有約。”（《實用生活中國語會話》，p.28）普通話中保持「有約會」的全稱形式，「有約」僅出現在某些凝固的結構中，如，“有約在先”，“佳人有約”。

打 呼：「國語」中為「打呼嚕」的縮略。例）“我最大的缺點是我睡覺的時候會打呼。”（《관광용어中國語》，p.127）在普通話中保持「打呼嚕」的全稱形式。

泳 衣：「國語」中為「游泳衣」的縮略。例）“你帶泳衣來了嗎？”（《實用生活中國語會話》，P.156）普通話中保持「游泳衣」的全稱形式，但有時，「泳」可以和「裝」結合成「泳裝」，帶有正式·文雅的味道。如，“選美比賽中，有一項要求着泳裝。”

過 重：「國語」中為「超過規定重量」的縮略。例）“請你稱一下，我這封信過重了沒有？”（《實用中國語會話》，p.128）普通話中縮略為「超重」。「過重」在普通話中意為：過于重，太重。例）“這張桌子不能放過重的東西。”

高 職：「國語」中為「高中職業學校」的縮略。例）“我舅舅勸我去考高職。”（《新選廣播劇》，p.50）與此意義相對應，普通話稱「職高」為「職業高級中學」的縮略。

2.6 詞性的轉移

漢語中的詞和詞性不是一一對應的關係，而是一對多的關係。一個詞可以兼任一種以上的語法功能，也就可能具有多種的詞性。這是漢語語法中一個十分重要的特點。正是由於這樣的一個特點，就使得漢語中某一詞的詞性可以隨這一詞在句子中所處位置的變化而進行轉換，表現出漢語詞性變化的靈活·多樣。由於這種原因，臺灣「國語」中的某些詞和大陸「普通話」比起來發生了不同程度的詞性轉移，造成兩岸詞彙上的又一類差異。以韓國現行漢語課本中可以找出以下一些例詞：

普 通：在大陸「普通話」中一般只作形容詞使用，意為「平常的·一般的」，如，普通人·普通勞動者。但在臺灣「國語」中，除和大陸一樣可做形容詞使用（如：“我們只是普通朋友。”（《實用中國語會話》，p.137），還增加了一個作副詞的用法意為，「平常」·「一般」。例）“這句話，普通我們不這麼說。”（《實用中國語會話》，p.137）

故 障：在大陸「普通話」中一般只作名詞使用，意為機械·儀器等發生的不能順理運轉的情況，毛病。如：“查一查，機器的故障究竟在哪兒。”但在臺灣，除具有以上的詞性和用法外，有時也可以當動詞使用。例）“電話故障了，能不能來修理一下呢？”（《實用國際中國語會話》，p.59）

拜 拜：在大陸「普通話」中一般只作動詞使用，為單音節動詞「拜」的重疊式，第二個「拜」讀輕聲。意為對神靈表示敬意，乞求降福于自己。例）“拜拜菩薩，你的意願就能實現。”但在臺灣除具備以上用法外，還有一作名詞的用法，作名詞時，第二個「拜」不讀輕聲。意指臺灣的一種風俗：每逢節日佛誕·婚壽葬祭，供奉神明，大宴親朋，演戲酬神。例）“你再給我來些什麼……拜拜那天要用的。”（《新選廣播劇》，p.34）“每天都舉行大拜拜，超度亡魂。”（同上，p.36）

種 種：在大陸「普通話」中，只有作形容詞，意為各種各樣的，使用時後面必須加上一個對象名詞，如：種種情況，種種迹像。例）“種種迹像表明敵人堅持不住了。”但在臺灣除保持以上用法外，還可當名詞用，意為「各種各樣的情況」。例）“你們一定

聊了許多有關韓國的種種吧。”（《實用生活中國語會話》，p.70）

砌牆：在大陸「普通話」中，為一動賓結構的詞組，意為用和好的灰泥把磚·石等一層層地疊起，做成牆。例）“他**砌牆**砌得很快。”在臺灣除具以上用法外，還可用作名詞，意為用全體的方法疊成的牆。例）“你看我們中式住宅的屋頂·柱子·**砌牆**，都是師傅的精心設計。”（《實用生活中國語會話》，p.97）

2.7 量詞的習慣用法

漢語中的量詞十分豐富，使用非常普遍。無論是不可計數的名詞還是可計數的名詞在與數詞連用的時候，一般都需經過量詞的中介。哪些量詞與哪些名詞相配合，並不一定完全依據語義原則，習慣約定起着很大的作用。不管是外國人學習使用時感到困難，就是本國人方言區的人學說普通話也往往會出現使用不當的情況。由於不同的習慣約定，臺灣和大陸部分量詞的搭配使用也存在着差異。以韓國現行漢語教材中可找到以下這些。

一支土風舞（《實用中國語會話》，p.513）

在「普通話」中「舞」·「舞蹈」的量詞一般用「個」。例）“今天的晚會上一共有四個舞蹈。”“請你跳一個舞可以嗎？”

兩座收音機（《實用生活中國語會話》，p.158）

「普通話」中「收音機」的量詞一般用「臺」·「個」。「座」多用於較大或固定的物體，如：一座山，一座高樓。

一架錄音機（《實用中國語會話》，p.514）

「普通話」中「錄音機」的量詞一般用「臺」·「個」。「架」多用於有支柱或有機械的，體積較大的東西，如：一架機器，幾百架飛機，一架鋼琴。

一卷錄音帶（《實用中國語會話》，p.514）

「普通話」中「錄音帶」的量詞為「盤兒」。「卷兒」多用于外形成卷兒狀的東西，如：一卷兒紙，一卷鋪蓋。錄音帶的帶芯雖然也成卷兒狀，但「普通話」關注的是包括塑料外殼在內的整體形狀，因此用「盤兒」。

兩百多棟宮殿樓閣（《관광통역中國語》，p.306）

「普通話」中「宮殿」·「樓閣」的量詞一般用「座」。「棟」多用于普通的樓房，如：“這棟樓裏一共住了12戶人家。”

十二面金牌（《관광통역中國語》，p.91）

「普通話」中「金牌」·「銀牌」等多用「枚」·「塊」。「面」多用于具有一定面積的扁平的物件，如：一面穿衣鏡，一面國旗。「枚」多用于形體較小的東西，如：一枚郵票，三枚獎章。

一客黑胡椒牛排（《實用生活中國語會話》，p.65）

此處「客」為從方言中借用的量詞，用于論份兒出售的食品，普通話中與此對應的意思用「份兒」，如：一份兒炒飯，一份兒點心。此外，在臺灣流行口語中還有不少從方言中借用的量詞（例詞出自《臺灣國語演變之研究》，p.67），如：一條歌（普通話為「一支歌，一首歌」），一臺車（普通話為「一輛車」），一粒西瓜（普通話為「一個西瓜」），一間學校（普通話為「一個學校，一所學校」）。

2.8 形容詞·動詞的拆零組合

所謂形容詞·動詞的拆零組合是指從兩個原有的形容詞或動詞中各拆下一個較為重要的詞素中新組合成一個新詞。這是臺灣「國語」在目前使用當中特有的一個現象。這種現象多出現在臺灣的報刊雜誌等書面文章中，目的是利用用詞上的

獨創·新奇來實現一種高深文雅·與眾有別的語體風格。例如：

“明初女子彭雲秀，練就一身超卓的球技。”(《光華》 中英文國外版
VOL.18 NO.9, SEPTEMBER 1993, P.21)

這裏的「超卓」實際為「高超」·「卓越」的拆零組合。

“高中起就堅拒母親在她便當中裝米飯的她，這時突然覺得朋友常
向她說的「AMY，你和我們一樣」不再是恭維。”(《光華》 中英文國外版
VOL.18 NO.6, JUNE 1993, P.34)

這裏的「堅拒」實際為「堅決」·「拒絕」的拆零組合。

“那些誓志要為寶島人民打拼的政治族，他們的高貴視線似乎從未
投注離寺十數丈外的地面餓殍。”

這裏的「誓志」實際為「發誓」·「立志」的拆零組合。

類似的例子還可舉出很多。值得注意的是，這種現象也進入了韓國現行漢語
課本之中，例如：

“令尊身體健朗，步履穩健，如年輕人一般。”(《實用生活中國語會話》，p.52)

這裏「健朗」實為「健康」·「硬朗」的拆零組合。

“我本想聯絡學長來接我，可是時間太匆促，來不及聯絡。”(《實用國際
中國語會話》，p.20)

這裏「匆促」實為「匆忙」·「急促」的拆零組合。

“春天宜人清爽，夏天明朗亮麗。”(《實用國際中國語會話》，p.38)

這裏「亮麗」實為「明亮」·「秀麗」的拆零組合。

“其他問題是指：需要大篇申論·說明的問題。”(《관광통역中國語》，P.12)

這裏「申論」實為「申述」·「論證」的拆零組合。

“世宗大王……創造出可以代表我國語言的文字，使得我國文化一下子往前推展了許多。”

這裏「推展」實為「推進」·「發展」的拆零組合。

筆者認為以上這些詞出現在漢語課本中是不大合適的。因為這些詞的構成具有很大的臨時性和隨意性，缺乏足夠的生命力，在使用上一般只局限于書面文章，很少進入日常口語。非但大陸的文章·口語中均不會出現，就是在臺灣也并不屬於規範的國語詞彙，臺灣幾部重要的辭典如：《中文大辭典》·《新編東方國語辭典》·《國語日報辭典》等都沒有收入這些詞。學生把這些臨時·任意性的詞彙作為漢語的正式基本詞彙掌握後，勢必會造成交際·理解上的混亂，因此筆者主張應當把這類詞從現行課本中清除出去。

3.0 臺灣「國語」和大陸「普通話」的詞彙差異是一個比較複雜的問題。從以上的基本分析中可以看出，這種詞彙上的差異不單純是和詞義的發展·變化有關，同時也涉及到了語法，甚至語音方面的問題。語言是一個有語音·詞彙·語法共同構成的系統，系統中各組成部分之間是相互制約·相互影響的，其中任何一個組成成分發生變化，都會使其餘兩部分隨之作出適當的調整。就臺灣「國語」和大陸「普通話」而言，無論是詞彙·語法還是語音的變化差異，和彼此無關的兩種語言的變化差異有着本質的不同。由於「國語」和「普通話」實際上是指同一個漢民族共

同語，是同一種語言在不同地區的變異，所以它們的變化都是在一個共同的語言系統允許的範圍內進行的，不管它們變化後的差異多麼巨大，它們作為漢語共同語本身的根本屬性是不會改變的。

另外應當指出的是，語言的變化都是在其系統本身允許的範圍內進行的，變化的發生和差異的存在都有其自身的合理性。語言的演變不存在正確和錯誤的問題。我們不能簡單地認為大陸的說法正確，臺灣的錯誤，或是大陸的錯誤，臺灣的正確。我們應該把臺灣「國語」和大陸「普通話」的差異作為一種合理的客觀存在來看待。來研究，這樣才能真正揭示出同一語言在不同地區的演變規律。

<參考書目>

- 《實用中國語會話》，臺灣師範大學 國語教學中心 지음, 車旻燮 옮김, ACE-PHONE KOREA, 1992. 2.
- 《實用生活中國語會話》，林明德, 兼知社, 1992. 12.
- 《實用國際中國語會話》，林明德, 臺灣中國文化大學, 1987.
- 《觀光通譯中國語》，辛昌浩, 進明出版社, 1991. 4.
- 《旅行中國語會話》，權浩淵·車旻燮, 進明出版社, 1989. 2.
- 《最新中國語會話》，李允中, 新雅社, 1976. 3.
- 《國語會話》(二), 臺灣師範大學編印, 1986. 10.
- 《新選廣播劇》，中文出版社, 1992. 1
- 《思想與社會·高級會話教材》，史丹福大學主辦, 美國各大學中國語文聯合研習所.
- 《中國語會話Ⅱ》，宋在祿·吳淳邦, 韓國放送通信大學, 1991. 7.
- 《中國語會話Ⅲ》，許璧·孫毅徹, 韓國放送通信大學, 1993. 1.
- 《光華》 中英文國外版 VOL.18 NO.6, JUNE 1993, VOL.18 NO.9, SEPTEMBER 1993, 臺灣光華畫報雜誌社.
- 《國語演變之研究》，魏岫明, 國立臺灣大學文史叢刊, 1984. 6.
- 《語言學綱要》(第二版), 葉蜚聲·徐通鏘, 北京大學出版社, 1991. 5.
- 《中文大辭典》(第七版), 臺灣中國文化大學出版, 1985. 5
- 《新編東方國語辭典》(第七版), 臺灣東方出版社印編, 1982. 8.

《國語日報辭典》(第十八版), 臺灣國語日報社出版, 1981. 10.

《現代漢語辭典》(第二版),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辭典編輯室編, 北京商務印書館出版, 1988. 10.

郁達夫 소설에 나타난 자연과 고향

姜 鯨 求*

<目 次>

- | | |
|---------------|--------------------|
| 1. 서 론 | 4. 비극의식의 해소와 병의 치유 |
| 2. 시간이 사라진 공간 | 5. 결 론 |
| 3. 桃花源적 彼岸 | |

1. 서 론

郁達夫 소설에 있어서 자연과 고향은 하나의 중요한 주제의식을 형성한다. 자연과 고향은 그 묘사와 표현에 있어서 양적, 질적으로 공히 주목할만한데다 그 내용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郁達夫의 소설에서는 자연은 바로 고향이며 고향은 즉 자연인 상동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상동관계가 성립하게 된 것은 郁達夫의 인물의 유년기적 체험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의 고향은 富春江 위의 한 작은 도시로 杭州에서 물길로 8-90리 밖에 안되었다. 이 강물은 安徽에서 발원하여 浙江 지역을 가로질러 흐르는데 강의 생김새가 구불구불 변화가 많고 풍경이 항상 새로워서 唐나라 때의 한 시인은 이 강을 “그림 같은 강(一川如畫)”이라 찬탄하기도 하였다.¹⁾

이같은 성장환경으로 인해 郁達夫의 인물에게 있어서 자연은 곧 고향이라는 등식

* 慶州專門大學 中語科 助敎授

1) 他的故鄉，是富春江上的一個小市，去杭州水程不過八九十里。這一條江水，發源安徽，貫流全浙，江形曲折，風景常新：唐朝有一個詩人讚這條江水說“一川如畫”。《沈淪》，《郁達夫文集》제1권, p.25.

관계가 성립하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타향이며 각박한 현실인 지금 이곳에서의 삶이 무가치한 것이라는 실망감이 느껴질 때는 고향과 자연은 더욱 긴밀한 유사성 내지 동일성을 갖고 그에게 동경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나아가 자연과 고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내용적으로 동일하다. 즉 생존경쟁이 없는 곳, 낯익은 곳, 조용한 곳, 자유로운 곳, 우울과 번뇌가 해소되는 곳 등과 같은 공통적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²⁾ 본고에서는 郁達夫 소설의 한 중요한 주제의식을 형성하는 고향과 자연이 갖는 심층적 의의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2. 시간이 사라진 공간

郁達夫의 인물들이 자연과 고향을 동경의 대상으로 본다고 할 때 그 공간은 실제로 어떤 곳이 될까? 앞으로 살펴볼 주제가 되겠지만 그가 그리워하는 공간은 과거에 그랬었다고 기억되는 회고적 공간이거나 숨가쁜 삶에서 한걸음 비켜선 정적인 공간이다. 우선 그것은 자신의 유년의 삶이 전개된 공간으로 나타난다.

그들 두 사람은 묵묵히 아무 말없이 가만히 있다가 곧 물속의 두마리 고기처럼 투명할 정도로 맑은 달빛 속을 유영하였다.³⁾

이처럼 유년의 고향은 꿈과 같은 분위기로 채색되어 있고 현실성이 배제된 공간이다. 그래서 유년시기의 기억은 선의로 가득차 있으며 갈등이 제거되어 있다.

“이 돌구슬들을 모두 너에게 줄게.”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그 두툼하고 둥근 작은 손으로 돌구슬을 한줌 집어 秋英

2) 몰트만(Jurgen Moltmann)은 보다 보편적인 의미에서 자연과 고향의 상동관계가 성립된다고 본다. 즉 고향이란 사람들이 나를 알고 있으며 내가 인지되기 위해 싸우지 않아도 인정되는 그곳이 바로 고향이다. 이렇게 이완된 사회적 관계를 속에서 우리 인간을 지탱하게 하고 우리를 투쟁과 염려의 짐들로부터 해방시키는 평형관계가 발생한다. 자연환경도 이 같은 기능을 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루너編著, 이정배譯, 《자연 그 동서양적 이해》, p.145 참조.

3) 他們兩人默默無言地靜了一會就是水裡的雙魚, 慢慢的在清瑩透徹的月光裡遊泳. 《懷鄉病者》, 《郁達夫文集》 제1권, p.149.

에게 주었다. 추영은 연신 흐느끼면서 오른손으로는 눈물을 닦고 왼손을 뻗어서는 그가 건네주는 돌구슬을 받았다. 그는 秋英의 그 작은 손이 한꺼번에 그 많은 구슬들을 들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두 손으로 그것을 받쳐 주었다. 秋英은 눈물을 닦고 자신을 받쳐 주는 그의 두 손을 바라보고는 그를 향해 웃기 시작했다.⁴⁾

《春潮》의 주인공인 詩禮와 秋英이 상호간에 일어났던 갈등을 해소하고 있는 장면이다. 그들 간의 갈등은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 관계의 본질을 이루는 선의와 호의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래서 그 삶은 항상 如意로웠다고 기억되고, 그래서 그리움의 대상이 된다. 이처럼 유년시절 고향에서의 일들이 그리움의 대상이 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또 그 삶이 지금에 비해 如意로웠다고 느끼게 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郁達夫의 인물들은 고향을 떠나면서 이제까지의 자신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의 양식들을 만나게 된다. 이러한 낯선 상황과 낯선 논리에 그는 당황해하고 불행해한다. 따라서 그에게 현재와 미래는 낯선 것이고 당황할 만한 것이었다. 그에 비해 과거의 고향은 습관이 되어있는 곳이며 낯익은 곳이었다.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상이 가능한 곳이다. 따라서 그곳에서는 공간 뿐만 아니라 시간조차 낯설지 않다. 그곳에서의 삶은 대체로 해가 뜨고 지는 자연의 순환과 그 리듬을 같이한다.

서둘러 이불 속에서 나와 옷을 입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그들 모자 세사람은 이미 느긋하게 세수를 하고 벌써 한시간 가량 일을 하고 난 뒤였다. 평상시 그들은 다섯시 전후에 기상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휴식하는 산촌의 생활질서에 대해 그는 무한한 경의를 느꼈다.⁵⁾

이 생활리듬은 서둘거나 당황할 필요가 없는 자연스런 리듬이다. 나아가 언제나 변함이 없는 속도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고향,

4) “這幾顆圓石子都給了你罷。”，一邊這樣的說，一邊他那粗圓的小手，便捏了一把圓石子遞給秋英。秋英還是哭得不已，用了右手揩着眼淚，伸着左手去接他交來的圓石子去。他因為秋英那只小手一時拿不起許多圓石子，所以就用了兩手去幫她。秋英揩干了眼淚，向他的捧住的兩手看了一眼，就對他笑了起來。《春潮》，《郁達夫文集》제1권, p.188.

5) 急忙滾出了被窩，穿起衣服，跑下樓去一看，他們母子三人，也已梳洗得妥妥服服，說是已經在做了個把鐘頭的事情之後。平常他們總是於五點鐘前後起床的。這一種日出而作，日入而息的山中住民的生活秩序，又使我對他們感到了無窮的敬意。《遲桂花》，《郁達夫文集》제2권, p.338.

혹은 자연이라는 공간은 한적하고 고요하며 변화가 없는 공간이다. 이곳에는 시간성이 제거되어 있는 것이다. 이곳에서의 시간과 공간은 하나가 된다.⁶⁾ 그것은 주로 순환과 반복의 느낌을 준다. 농업사회에 있어서 해 뜨면 나가서 일하고 해가 지면 들어와서 쉬는 하루는 하나의 순환이다. 또 봄에 씨뿌리고 가을에 수확하는 일년도 하나의 순환이다. 심지어 60년을 1甲子로 하는 역사도 하나의 순환이다. 이러한 순환과 반복은 그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안정감과 평화로움을 느끼게 한다. 위의 예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은 예정된 상황들만 반복적으로 생산해내기 때문이다.⁷⁾

이처럼 자연, 혹은 고향에서의 시간이 변화없이 예정된 상황들만 생산해낼 때, 우리는 시간의 정지를 느끼게 된다. 이 정지된 시간속에서는 일체의 기대와 함께 걱정과 갈등도 사라진다. 전혀 다른 논리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다. 《蜃樓》에 보이는 다음과 같은 예문을 통해 현실의 조금한 논리가 시간성에 제거된 자연의 공간에서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알 수 있다.

“사공! 힘을 좀 내서 노를 저으시오. 이렇게 한참을 저어도 어찌 三潭印月에도 이르지 못하는지요?” 그가 노기를 댄 목소리로 묻자 사공이 깜짝 놀라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 너무 성급해하지 마십시오. 앞에 보이는 것이 바로 三潭印月的 남쪽 제방 아닙니까?”

그가 고개를 들어 바라보니 과연 배에서 멀지 않은 곳에 둥글게 둘러쳐진 제방과 많은 수양버들이 가로막듯 물위에 비치고 있었다. 태양도 정오가 다되어 가는데 고요하게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하늘을 향해 한참을 응시하다가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마음속으로 “아! 이 유구한 하늘과 평화로운 겨울날의 태양”이라고 생각하노라니 자신도 모르게 평소의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갔다.⁸⁾

6) 중국인에게 시간과 공간은 애당초 하나였다. 宇宙란 개념 자체가 공간(上下四方曰宇)과 시간(古往今來曰宙)의 합성어였음이 그것을 증명한다. 張法 著, 《中國文化與悲劇意識》 참조.

7) 이와 반대로 옥달부의 인물을 둘러싸고 있던 시간은 직선적 느낌을 주는 자본주의적 시간이었다. 항상 새롭고 낯선 것들이 생성하면서 그에게 끝없는 적용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8) “船戶! 你怎麼不出點氣力劃一劃呵? 劃了這麼半天, 怎麼三潭印月都還沒有到?” 他帶怒聲的問了, 船戶倒被他駭了一跳. “先生? 你不要太性急了, 前面不就是三潭印月的南堤了麼?” 他仰起頭來看看, 果然前面去船不遠, 有一道環堤和許多柳掩映在水上. 太陽也將當午了, 三潭印月的亭臺裡, 寂然聽不見什麼人的聲音. 他仰天探望了一回, 微微的嘆了一口氣, 心裡想了一想, “呵, 這悠久的長空, 這和平的冬日!” 不知不覺地又回復了他平時的安逸的心情. 《蜃樓》

이렇게 시간성이 제거된 공간에서 느끼게 되는 논리의 전환으로 그가 경험하는 것은 일종의 평안한 해방감이다. 그것은 세계와 타인에 의해 구속된 자신을 풀어놓는 해방감이면서 동시에 자신이 세계와 타인에 대해 갖고 있던 폭력적 기대를 포기하는 해방감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시간성의 사라짐이 궁극적으로 선물하는 것은 무엇인가. 상기 예문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그것은 유구하다는 느낌, 영속한다는 느낌을 가져다준다. 나아가 그것은 관점과 입장의 변화에 의해 즉시 가능해진다고 믿어져 왔다.

그대도 저 물과 달을 아는가. 이렇게 흐르고 있지만 일찍이 흘러간 적이 없으며 저렇게 차고 기울지만 끝내 사라져 버리거나 자라난 적이 없다. 대개 변하는 것의 입장에서 보면 천지도 일찍이 한순간을 유지해본 적이 없지만, 변하지 않는 것의 입장에서 보면 사물이나 내가 모두 다함이 없는지라. 또 무엇을 부러워하겠는가
.....9)

이렇게 蘇東坡의 경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시간성이 사라진 곳에서 자신과 외계가 마찬가지로 영원한 존재라는 느낌과 함께, 자신을 묶고 있던 조급함이라는 틀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현실에서 느끼고 있던 적대감과 억울한 감정 대신 겸허함과 감사함을 느끼며 세상에 대한 포용의 의지까지 생겨나는 것이다.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는 무슨 이유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자신도 모르게 일종의 감사한 마음이 생겨났다. 잠시 있다가 그는 갑자기 스스로에게 말하였다.
“이 겸허한 마음! 이 겸허한 마음! 이것이 바로 종교의 기원이리라.”¹⁰⁾

이같은 해방감은 목전의 변함없는 자연이나 유년의 고향을 대할 때 느낄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해방감은 위의 몇몇 예문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듯 자신도 모르게 이루어졌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그는 아름답고 고요한 자연에 몰두하여

樓》，《郁達夫文集》제2권, pp.178-179.

9) 蘇東坡, 《前赤壁賦》: 客亦知夫水與月乎? 逝者如斯, 而未嘗往也. 盈虛者如彼, 而卒莫消長也. 蓋將自其變者而觀之, 則天地曾不能以一瞬, 自其不變者而觀之, 則物與我皆無盡也, 而又何羨乎?

10) 不曉是什麼原因, 不知不覺他竟起了一種感謝的心情. 過了一忽, 他忽然自言自語的說: “這謙虛的情! 這謙虛的情! 就是宗教的起源呵!” 《茫茫夜》, 《郁達夫文集》제1권, p.127.

자기를 잊는 忘我的 경계에 도달함으로써 해방감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다. 忘我的 순간, 郁達夫의 인물은 일체의 우려와 기대에서 벗어나 자연속으로 용해되어 들어간다. 이같은 용해를 통해 자아가 사라지게 되므로, 자아와 세계간의 모순과 갈등 또한 근거를 상실하여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히 자아가 확립되기 이전인 유년의 고향은 그 자체가 어떠한 우려나 갈등도 찾아지지 않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어린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감정교류를 그린 《春潮》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자.

《春潮》의 주인공 詩禮는 맑은 錢塘江가의 시골에서 먼 친척간이 되는 소녀 秋英과 자연의 총아로서 동화처럼 살고 있다. 그러던 중 가난을 견디지 못한 詩禮의 부친은 그를 杭州에 있는 지물포에 심부름꾼으로 보내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이 불행한 상황속에서도 당사자인 詩禮는 자신이 처하고 있는 상황을 다르게 해석한다.

“너는 거기 가는게 좋아?”

“좋지! 아버지 말을 들으면 향주는 여기보다 훨씬 사람이 많다더라.”¹¹⁾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아 불행임에 분명한 상황도 유년의 그에게는 즐거움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역전은 불행과 행복감이 함께 사라지는 몰두에 의해 가능해진다. 유년은 그 무지함과 순수함으로 인하여 언제나 자신이 만나는 상황에 몰두될 수 있다. 그에게는 과거의 기억과 미래에 대한 우려가 무게를 갖지 못한다. 현재의 순간, 순간만이 몰두의 대상으로 떠오르는 것이다. 그리하여 秋英과의 슬픈 이별을 앞에 두고도 다음과 같은 몰두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풀밭을 지나다가 詩禮는 몇포기의 蒲公英이 이슬을 머금고 청신한 새벽공기속에서 노랗게 피어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몸에 익숙하지 않는 장삼을 걷어쥐고서 땅에 엎드려서는 그 蒲公英을 뿌리까지 파내었다.¹²⁾

바로 이런 이유로 유년의 기억은 늘 즐거움으로 채워져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

11) “你喜歡去麼?” “我很喜歡去，因為我聽爸爸杭州比這裡熱鬧得多。” 《春潮》，《郁達夫文集》 제1권, p.191.

12) 走過草地的時候，詩禮見有幾顆蒲公英，含着了珠露，黃黃的在清新的早晨空氣裡吐氣。他把穿不慣的長衫拖了一把，便伏倒去那幾顆蒲公英連根的掘了起來。 위의 책, p.192.

서 심리적 시간과 자연적 시간은 일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심리적 시간과 자연적 시간의 일치하는 자아의 세계가 채 형성되지 않은 유년시기나, 공고해졌던 자아가 일시적으로나마 해체될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다. 그 밖의 경우 심리적 시간은 대부분 자연적 시간보다 빨리 흐르거나 늦게 흐르게 마련이다. 불행하다는 의식, 불안감등과 같은 부정적 심리현상은 바로 이 같은 심리적 시간과 자연적 시간의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내일 오후까지는 그사이에 끝없이 긴 밤의 시간이 있고 또 유구한 아침의 시간이 있다. 이 20여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¹³⁾

예문에 소개된 《蜃樓》의 주인공 陳逸群의 경우를 통해 그러한 시간의 불일치가 주로 우려나 기대에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심리적 시간은 자연적 시간에 비해 빠르게 흐르게 된다.

이에 비해 어떤 일정한 시점에 집착을 느끼고 그곳에서 자신의 심리적 시간을 멈추거나 되돌리는 경우가 있는 바, 이것이 바로 郁達夫의 소설에서 많이 발견되는 회고취향이다. 예컨대 《采石磯》에서처럼 淸 乾嘉년간의 천재시인 黃仲則의 삶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내고 위안을 얻는다던가, 《碧浪湖的秋夜》에서처럼 과거의 시인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우정과 애정의 사건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대리발산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회고취향 혹은 심리적 시간의 후진경향은 다 음과 같은 경우에 보다 분명하게 나타난다.

《咸淳》·《淳祐臨安志》·《夢梁錄》·《南宋古迹考》 등의 진부하기 그지 없는 고서적들에 마음을 빼앗겨 있던 나는 당시 날마다 몇 권의 책과 연필 한자루, 땀 반근만을 가지고 杭州의 鳳凰山, 雲居山, 萬松嶺, 江干的 일대를 두루 탐방하면서 비교적 완전한 南宋의 궁궐도를 제작하는 일로 당시 병으로 무료해진 한 가한 세월을 보내고자 하였다.¹⁴⁾

《瓢兒和尚》의 주인공은 이처럼 거의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과거의 삶이 전개된 시간과 공간을 동경하고 있다. 그것은 유년의 고향에 대한 기억처럼 그의 마음을

13) 但是但是, 到明朝的午後爲止, 中間還間着一個鍾漏綿綿的長夜, 還間着一個時間悠久的清晨, 這二十幾個鐘頭將如何的度過去呢? 《蜃樓》, 《郁達夫文集》 제2권, p.201.

14) 《瓢兒和尚》, 《郁達夫文集》 제2권, p.368.

편안하게 하여 준다. 그 곳에서는 모든 것이 예상대로 질서정연하게 전개된다. 시간이 멈추어 서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새로움은 그의 심리적 시간이 따라 잡지 못하는 낯선 대상이 된다.

質夫는 이 처음 만나는 동료들을 대하면서 가슴속에 일종의 이상한 압박을 느꼈다. 그는 혼자 마음속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하였다.

“신부가 처음 시어머니를 만날 때 그 마음이 웅당 나와 같았으리라.”¹⁵⁾

이렇게 《茫茫夜》의 주인공 質夫의 경우를 통해 나타나는 것처럼 그는 현실적 시간의 흐름과 그 흐름의 결과를 수용할 태세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 이 경우 현실적 시간은 郁達夫의 인물들이 경험하고 있는 심리적 시간에 비해 훨씬 빠르게 흘러간다. 그것은 생존경쟁이 벌어지는 현실의 시간이며 꿈을 용납하지 않는 메마른 시간이며 자본주의 세계의 시간이다. 반면 그의 심리적 시간이 과거 왕조시대의 시간, 혹은 중세적 시간이라고 이해된다.

생존경쟁이 그리 심하지 않고 중세나 고대처럼 소요자재하면서 풍토와 기후가 양호하고 시정의 소인배들과 떨어져 한가하고 우아하며 담박한 곳에서 꿈처럼 하루하루가 지나갔다.¹⁶⁾

《沈淪》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변화 없는 중세적 시간에서 그는 안정감을 느낀다. 이렇게 조화된 시간감과 그로 인한 안정감은 그의 유년의 고향과 자연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으로 그에게 절대적 동경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조화된 시간감과 안정감을 주는 고향, 혹은 자연에서의 삶에서 발견되는 특징은 어떤 것이 될까? 절을 달리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15) 質夫對了這些新見的同事，胸中感得一種異常的壓迫，他一個人心裡想：“新媳婦初見姑嫂的時候，她的心理應該同我一樣的。”《茫茫夜》，《郁達夫文集》제1권, p.127.

16) 在生活競爭並不十分猛烈，逍遙自在，同中古時代一樣的時候；在風氣純良，不與市井小人同處，清閑雅淡的地方；過日正如做夢一般。《沈淪》，《郁達夫文集》제1권, p.32.

3. 桃花源적 彼岸

경박한 속세와 무정한 남녀여!
저 은은한 푸른 산을 보라. 나 바람을 타고 날아가 거기 머무르면서 나 그 절정
의 봉우리에서 너희들이 가는 곳을 웃으며 바라보리라.¹⁷⁾

《沈淪》에 인용된 하이네의 시이다. 이 하이네의 시가 《沈淪》의 주인공의 사고와 일치하는 것임은 물론이다. 그는 이처럼 바람을 타고 날아가 피안의 높은 절정에서 이 세계를 관조하고자 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 자신이 현실세계의 일원이기 때문에 완전한 격리에서만 가능한 그러한 관조가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이렇게 그가 현실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고향과 자연에 대한 감각은 늘 동경에 가까운 것이 된다.¹⁸⁾ 즉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이 현실에 비추어서 고향과 자연은 어떠한 미덕을 갖추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현실에 비해 고향과 자연이 갖고 있는 미덕이란 어떤 것들이 될까?

처음엔 극히 좋아서 겨우 사람이 다닐 만했으나, 다시 수십 보를 걸어가니 넓찍하게 흰히 트인 곳이 나왔다. 토지는 평평하고 넓었으며 집들이 우뚝우뚝 서 있었다. 비옥한 밭에 아름다운 연못, 그리고 뽕나무 대나무 등이 있었고, 길은 사방으로 통해 있었으며, 닭소리 개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그사이를 오가며 씨를 뿌리고 경작을 하는 남녀들의 의복을 보니 모두가 이방인 같았는데, 노인이나 어린아이 모두 회회낙락 스스로 즐기고 있었다. 그들은 어부를 보고 크게 놀라 어디서 왔는가를 물었고 그는 모두 대답하였다. 곧 그를 초청하여 집으로 데리고 가서는 술을 내오고 닭을 잡고 밥을 지었다. 마을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모두 와서 물으며 자신들의 얘기도 하였다. 조상들이 秦나라 때의 난리를 피하여 처자와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이 인적이 드문 곳에 와서 다시는 나가지 않아 결국 바깥 사

17) 浮薄的塵寰，無情的男女，你看那隱隱的青山，我欲乘風飛去；且住且住，我將從那絕頂的高峰，笑看你終歸何處。《沈淪》，《郁達夫文集》제1권, p.30.

18) 고향과 자연에 은거하고자 하는 욕망은 작가 옥달부에게 있어서 거의 생래적이다. 그래서 언제나 어떤 갈등을 느끼는 순간이 되면 항상 은거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하곤 하였다. 예를 들어 1923년 북경대학의 통계학 강사로 초빙된 뒤에 그는 “북경으로 가서 유람을 할 것인가? 아니면 고향으로 돌아가 은거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으며(<海上通信>, 《過去集》, p.207 참조), 1924년3월 박말약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고향에 은거하려는 오래된 소원을 실행하리라”는 생각을 비치고 있다.<北國的微音>, 《過去集》, p.266 참조)

람들과 왕래가 끊기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지금이 어느 세상인지를 묻는데 魏·晉은 물론 漢나라가 있었다는 것도 몰랐다. 이 사람이 빠짐없이 자신의 아는 바를 모두 이야기하니 모두 놀라 탄식하였다. 다른 사람들이 각각 그를 자신들의 집으로 초청하여 술과 밥을 내었다. 며칠을 머무르다가 하직을 하려 하니 이들 중 한 사람이 말하기를 바깥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 하였다.¹⁹⁾

陶淵明의 《桃花源記》의 세계는 중국적 유토피아의 전형으로 그 의미가 심대하다. 즉 풍요함, 고요함, 즐거움, 친절함, 시간의 멈춤과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해주는 인간세계와의 격리 등이 이 중국적 유토피아의 주된 내용이라고 하겠다. 郁達夫의 인물이 보기에 자연과 고향은 바로 桃花源적 세계의 일부인 것이다.

몇 주일 전의 말 위에서의 생활, 포탄이 작렬하는 소리, 적군의 반격, 변장을 한 뒤의 도망, 大連에 도착해서 보게 된 자신의 사망기사, 上海에서의 갑작스런 발병 등의 일들을 이 쾌청한 아침을 맞아, 게다가 이렇게 평화로운 환경속에서 회상하노라니 마치 몇년 전의 일처럼 멀고 먼 과거의 일만 같았다.²⁰⁾

《晨樓》의 陳逸群에게 이 특징들은 시끄러움과 고요함으로 대별된다. 그런데 위의 예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쟁과 같은 현실의 삶이 그에게 선사한 것은 질병이었다. 반면 고향과 자연은 이러한 질병에서 벗어나 삶을 향유할 수 있는 桃花源의 격리된 공간이었다. 그래서 桃花源으로서 자연과 고향은 그림과 같은 목가적 환경을 갖는 공간으로 이해된다.

태양은 이미 높이 떠오르고 들길에는 뽕나무 가지의 그림자가 흔들리며 비치고 있었다. 고요하고 깨끗한 창공으로는 때때로 한 송이 흰 구름이 지나갔다. …… 나무가지 위의 가을 매미도 울음을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일제히 소리를 내어 울곤 하는 것이었다.²¹⁾

19) 陶潛, 《桃花源記》.

20) 幾禮拜前的馬背上的生活, 砲彈的鳴聲, 敵軍的反攻, 變裝的逃亡, 到大連後才看見的自家的死報, 在 上海 驟發的疾病等等, 當這樣晴快的早晨, 又於這樣和平的環境之中回憶起來, 好象是很遠很遠, 一直是幾年前頭的事情. 《晨樓》, 《郁達夫文集》제2권, p.177

21) 太陽已經很高了, 野路上搖映着桑樹枝的碎影. 淨碧的長空裡, 時時飛過一塊白雲, …… 樹枝上的秋蟬也會一時噤住不響, 等一忽再一齊放出聲來. 《逃走》, 《郁達夫文集》제2권, p.115.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같은 또래의 소녀에게 느끼는 한 소년의 미묘한 감정의 변화를 표현한 소설 《逃走》의 공간은 고향과 자연이 통일되어 있는 목가적인 풍경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자연환경의 묘사는 대부분 인간의 삶의 자취를 느낄 수 없도록 처리되어 있다. 또한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전개되는 사건, 혹은 심리적 경험도 현실의 냄새가 느껴지지 않는 일들이 많다. 그래서 많은 갈등과 좌절을 경험하도록 하는 현실의 삶과는 달리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순조로우며 친절함에 가득차 있게 된다.

“樸 선생이십니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요즘 건강이 어떠하신지요? 누워서 좀 쉬도록 하십시오. 배를 타고 오시느라 피곤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서로 체면 차릴 것 없으니 누워서 좀 쉬시면서 천천히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22)

《東梓關》의 文樸은 자신의 고질병인 폐병을 고치기 위해 이전부터 世交가 있는 徐竹園先生을 찾아간다. 위의 예문은 처음 찾아간 文樸이 徐竹園先生에게 환대를 받는 장면이다. 주인공 文樸이 경험하는 이 고향의 공간은 자연의 순환적 흐름처럼 모든 것이 순조로와 무엇의 성취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고심할 필요가 없는 곳이다. 이처럼 고향은 내가 나를 알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타인들이 나를 신의로 대해주는 곳이다. 자신은 자연스럽게 이미 형성되어 있는 관계속의 일원으로 자리잡고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곳은 서로가 서로에게 장애가 되는 생존 경쟁의 터전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어야 하는 농경사회의 논리가 지배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또한 다음의 예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고향, 혹은 자연에서의 삶은 자기사업의 성취를 위해 서둘 필요가 전혀 없는 삶이다. 이 또한 시간의 순환에 의해 생물들의 생육이 결정되는 농경사회의 시간관념에 기초한 사고방식으로 이해된다.

文樸은 비로소 시골생활의 느긋하고 한가로움을 느꼈다. 부지중에 煙盤가에 누워 있다보니 서너 시간이 날듯이 지나간 것이다.23)

22) “是樸先生麼? 久仰久仰。領堂太太的身體近來怎麼樣? 請躺下去歇歇吧, 輪船裡坐得不疲乏麼? 彼此都不必客氣, 就請躺下去歇歇, 我們可以慢慢的談天。” 《東梓關》, 《郁達夫文集》 제2권, p.312.

23) 文樸才感到了鄉下生活的悠閑, 不知不覺, 在煙盤邊, 却已經有三四個鐘頭飛馳過去了。《

《東梓關》의 이같은 한적한 삶에서 농촌생활의 전형을 발견한다. 생물들의 생육이 일정한 시간의 흐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보면서 성취를 위해 서두는 것이 지혜롭지 않다고 이해하는 것이 농경사회의 사고인 것이다. 郁達夫의 인물은 자신의 성취를 위해 이러한 삶의 양식을 바꿀 때 그것이 오히려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는 東梓關의 의사 徐竹園의 경우를 통해 암시 받는다. 명문거족에 속하는 徐竹園의 형제들은 모두 벼슬길에 나가 한때 권세를 구가하기도 하였으나 격변의 시기를 당해 모두 몰락하고 만다. 반면 徐竹園선생은 폐병으로 인해 벼슬길에 의욕을 잃고 향리에 남아 의술을 배풀고 가산을 경영하다 보니 몰락한 형제들에 비해 훨씬 유족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인생의 전장에서 패배하여 고향에 돌아온 文樸이 보기에 이러한 徐竹園선생의 일생은 고무적인 것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실제로 소설 《東梓關》의 文樸은 물론 고향과 자연을 동경하는 郁達夫의 인물들은 대체로 현실이라는 전장에서 패잔한 병사들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郁達夫의 인물들은 이렇게 현실에서의 성취를 위한 기대와 노력이 좌절된 현장에서 바로 이같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다. 비록 일신의 병으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기는 하였지만 徐竹園선생이 택한 삶의 방식은 無爲의 삶이었다.

사실 《瓢兒和尚》의 주인공 瓢兒和尚의 다음과 같은 말처럼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회적 성취 또한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부자유스런 구속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郁達夫 소설의 주인공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항주에 온 지도 여러 해가 지났다네. …… 승려가 되기는 14년, 그 전쟁이 있고 난 이후의 일이지. …… 여단장 생활에는 승려생활의 이같은 자유로움이 정말 없었다네.”²⁴⁾

주인공 瓢兒和尚은 일본에서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또 누구나가 연모해마지 않던 미모의 여성 姜桂英을 차지하였으며 군에서도 여단장으로 혁혁한 전공을 세운 바 있는, 그래서 비교적 현실적인 성취를 경험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런 그가 다 쓰러져가는 산사에서 산에 오르는 사람들에게 물을 대접하고, 자신은 갈분을 식량의

東梓關》，《郁達夫文集》제2권, p.313.

24) “到了杭州來也有好幾年了……做和尚是自從十四年的那一場戰役以後做起的……當旅長真沒有做和尚這樣的自在……” 《瓢兒和尚》，《郁達夫文集》제2권, p.375.

대용으로 삼아 살아가는 삶에 오히려 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결국 郁達夫의 인물이 보기에 사회적 성취는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끼도록 해주기는 하지만 그것은 다시 공고한 구속의 틀이 되어 그를 구속하는 것이었다. 그 현실에서 성취한 만큼의 요구되는 갖가지의 조건들이 그를 구속하려 들기 때문이다. 즉 일정한 신분에는 맞는 행동조건들이 있어 그의 행동과 생활을 지배하고 사상까지도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사회적 지위를 포기한 자연에서의 삶은 상대적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지배되지 않고 심신의 리듬을 자연의 리듬에 조화(日出而作, 日入而息)시킴으로써 자유와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결국 현실사회에서 좌절을 느낀 경우는 물론이고 비교적 큰 성취를 이룬 경우에 있어서조차 郁達夫의 인물은 자연과 고향을 동경한다. 그러면 이같은 桃花源적 공간에 접근하기 위해 郁達夫의 인물들이 취하는 태도와 방식은 무엇인가.

우선 郁達夫의 인물은 자신의 자아가 갖고 있는 욕망과 고집을 방기하고 자연과 동화되어간다.

지난밤 동안의 애욕과 연정에 어지러워져 그토록 불안스럽던 영혼과 생각들도 자연스럽게 本來無物의 菩提妙境으로 화하였다. 그의 욕망과 小我는 모두 이 청신하고 순결한 전원의 아침풍경에 삼켜져 버리고 말았다.²⁵⁾

《蜃樓》의 陳逸群은 자신의 병을 요양하기 위해 입원하고 있는 요양원의 위에 있는 淸氣院이라는 여성 요양소를 후원하고 있는 唐葉秋心이라는 여인을 사모한다. 그런 그가 唐葉秋心の 초대를 받고 잠을 설친 다음 날, 자연의 세례를 받아 이처럼 자기 해체감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체감을 경험한 뒤에 지난날의 자신을 되돌아보면 전혀 낯선 타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애욕으로 어지러워지고 불안해진 마음도 菩提妙境의 깨달음에 이르는 놀라운 논리의 전환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처럼 그의 자연체험은 마치 종교적 세례와도 같은 작용을 한다. 자연과의 접촉을 통해 세속세계에서 얻은 일체의 찌꺼기와도 같은 감정들이 모두 씻겨 내려가고 한 자연적 존재로 안치되는 경험이다. 이러한 자기정화의 경험, 혹은 논리의 전환에 대한 경험은 그로 하여금 자연, 혹은 고향으로 더욱 다가서도록 만든다.

25) 他的在一夜之中爲愛欲情愁所攪亂得那麼不安的心靈思慮，竟也自然而然地化入了本來無物的菩提妙境，他的欲念，他的小我，都被這清新純潔的田園朝景吞沒下去了。《蜃樓》，《郁達夫文集》제2권, p.203.

나아가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자연과 가까워지는 효과 있는 방법을 체득하도록 하는 바, 그것은 인위적 요소의 제거라는 방법이다.

이때는 대략 시간이 2경이 지난 戌時와 亥時의 사이쯤이어서 달빛이 정자의 앞을 정면으로 비추고 있었다. 등불과 촛불을 끄니 사면이 공중에 떠있는 이 搨翠樓의 곳곳을 밝게 비춰 마치 물속에 잠긴 듯한 느낌을 주었다.²⁶⁾

인공의 제거는 이렇게 《碧浪湖의秋夜》에서처럼 자연의 특징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여 궁극적으로 인간세로부터의 초월감을 느끼도록 해준다. 인공성이나 작위성의 방기가 주인공으로 하여금 자연과 보다 가까워지도록 해주는 계기가 된다는 것은 그의 소설은 물론 많은 遊記에서까지 확인되는 바이다. 그래서 郁達夫 소설의 자연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공간이 된다. 즉 郁達夫의 인물은 사람이 없는 곳에서만 종교 체험과 같은 자연의 세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의 자아가 스스로를 비교해 볼 대상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전까지 그가 경험한 외부세계는 상호간의 비교에 의해서 우열이 정해지고 그 우열에 의해 지위가 달라지는 세계이며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는 세계였다. 따라서 아름다운 자연속에 있을 때에도 타인이 나타나면 그의 내면의 평정은 깨지고 만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타인은 그와 싸울 대상이고 적이기 때문이다.

그가 그렇게 넋을 잃고 (자연을)바라다보고 있을 때, 카악! 하는 기침소리와 함께 그의 등뒤에서 갑자기 한명의 농부가 나타났다. 고개를 돌려 바라보면서 그의 얼굴에 감돌던 웃음기는 우울한 빛으로 바뀌었다. 마치 그의 웃는 모습을 남에게 들키는 것이 두려운 것처럼…….²⁷⁾

그런데 郁達夫의 인물이 이처럼 자연과 고향의 無爲의 평화를 끝없이 동경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생존경쟁의 현실에서 성취를 기도한다. 자연과 고향이 그에게 현실

26) 這時候大約總在二更之後的戌亥之交, 月光剛剛正對着樓面. 燈燭撤後, 這四面凭空的 搨翠樓中, 照得透明徹透, 似乎是浸在水裡的樣子. 《碧浪湖의秋夜》, 《郁達夫文集》제2권, p.363.

27) 他正在那裡出神看的時候, 咯的咳 嗽了一聲, 他的背後忽然來了一個農夫. 回頭一看, 他就把他臉上的笑容改裝成一副憂鬱的面色, 好象他的笑容是怕被人看見的樣子. 《沈淪》, 《郁達夫文集》제1권, p.20.

의 누적된 갈등과 울분을 녹여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피안으로만 남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는 經世와 은둔의 두 이상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하는 불가능한 시도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4. 비극의식의 해소와 병의 치유

郁達夫의 인물에게 있어서 자연과 고향은 陶淵明의 경우처럼 현실이 되지 못하고 저쪽에 있는 동경의 대상으로만 남게 되었다는 것은 앞 절에서 살펴 본 바와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은 郁達夫의 인물에게 적극적인 작용을 하는 바, 그것은 비극의식을 해소시켜주고 병을 치유해주는 작용이다. 중국의 美學者인 張法은 자연이 갖는 이러한 비극의식의 해소기능을 문화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다. 28) 즉 儒家, 道家, 佛家적 관점 중 어느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두 자연의 미덕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儒家적 관점에서 볼 때, 그 불변의 이상인 ‘修身, 齊家, 治國平天下’의 이상을 실현할 수 없게 되는 곤궁한 상황이 도래하면 물러나 자기의 세계를 보전할 수 있는 곳으로 자연을 설정하였다. 이것은 ‘자신의 뜻이 통하면 천하를 두루 구제하고, 상황이 허락하지 않으면 자기 한 몸이라도 온전히 보존한다(達則兼濟天下, 窮則獨善其身)’는 사고이다. 29) 그래서 자연은 경륜과 덕성을 갖춘 이들의 귀의처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30) 심지어 孔子 자신은 자연에서의 생활을 治國平天下의 이상보다 더 중시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늦은 봄, 봄옷을 다 지어 입고, 성년 5·6인과 아이들 6·7인과 더불어 沂에서 목욕하고 舞雩에서 바람을 쐬 뒤, 흥얼거리며 돌아오겠다’ 31)고 한 曾點 32)의 생각에 감탄을 한 적이 있다.

28) 張法, 《中國文化與悲劇意識》, pp.180-181 참조.

29) 兼濟와 獨善의 개념은 《孟子·盡心上》에 보인다. 孟子는 여기서 선비가 취해야 할 이러한 태도를 세가지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다. 즉 궁해도 義를 잃지 않고 잘되어도 道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 뜻을 얻어 다스리게 되면 그 은택을 백성들에게 베풀고, 뜻을 얻지 못하면 자신의 몸을 닦아 후세에 남길 것, 그리고 잘되면 은 천하를 좋게 해주고 궁하면 오직 자기 하나라도 온전하게 보전할 것이 그 내용이다.

30) 《論語·雍也》에서는 知者樂水, 仁者樂山이라 하였다.

31) 《論語·先進》: “暮春者, 春服既成, 冠者五、六人, 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

32) 曾參의 父, 皙을 말한다. 點은 그의 이름.

道家적 관점에서 볼 때 자연은 소극적으로 물러날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인 無爲로 그 일원이 되어야 할 보다 고차원의 세계이다.

佛家적 관점에서 볼 때 자연물은 우주의 진리를 현현하는 진리 그 자체로 이해되었다. 그래서 ‘푸른 저 대나무가 모두 法身³³⁾이며, 저 향기롭게 피어 있는 노란 꽃이 般若³⁴⁾가 아님이 없다’³⁵⁾고 보았다.

이러한 자연에 대한 각 관점들은 서로 상보관계를 이루면서 사회생활이 여의치 못해 앙앙불락해 하는 지식인들에게 하나의 출로를 제공해줄 수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사회생활로 지친 심신을 자연 속에서 달랠 수 있었던 것이다.

“내가 이번에 西湖에서 온 것은 병을 요양하러 온 것이오! 만약 이름을 써서 내걸면 친구들이 찾아올지도 모르니 가능하면 내 이름을 일람표 위에 써넣지 마시오”³⁶⁾

郁達夫의 인물들은 대부분 신경과민과 위병, 폐병 등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다. 이들의 병은 고단한 사회생활의 증거이다. 그들은 낮선 시간, 낮선 세계, 낮선 인물, 낮선 논리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 노심초사해 하고 또 그 기대가 허물어짐에 따라 실망을 맛보는 생활을 거듭하는 인물들이다. 따라서 이들의 병인은 외부세계, 외부인물이라 할 수 있다. 그가 고단한 사회생활의 결과인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외부적 충격이 제거되고 내면적 실망이 사라져야한다. 위의 예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屨樓》의 陳逸群은 병의 치유를 위해 외부세계와 접촉을 끊은 杭州의 자연속에 숨고자 한다.³⁷⁾ 그는 이러한 은거행위를 통해 외면적으로 뿐만 아

33) 이 세계의 이치와 일치한 부처의 眞身, 빛깔도 형상도 없는 本體身, 이 세계에 현실적으로 출현한 부처보다 더 영원한 본체를 말한다. 耘虛 著, 《佛敎辭典》(서울:동국역경원, 1961), p.275 참조.

34) 慧, 明, 智慧 등으로 번역되는데, 세계의 실제 위치에 계합한 최상의 지혜. 耘虛 著, 《佛敎辭典》, p.242 참조.

35) 《大珠禪師語錄·卷下》에 青青翠竹, 總是法身, 鬱鬱黃花, 無非般若의 구절이 있다.

36) “我這一回是來西湖養病的, 若把名字寫出去, 怕有朋友來找我, 麻煩不過.” 《屨樓》, 《郁達夫文集》 제2권, p.171.

37) 낭만주의적 범주에서 볼 때 대자연으로의 귀의는 인간의 동물성으로의 복귀와 구속없는 자연적 감정의 회복을 의미한다. 理智와 理性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탈출하여 감성과 본능이 지배하는 세계로 귀의하는 것이다. 이를 계기로 구속감과 압박감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R·O·Chang, <從浪漫天才到病態人物>, 《郁達夫研究資料》, p.37 참조.

니라 내면적으로도 세상과 격리될 것을 바란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축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그의 눈에선 두 줄기 맑은 눈물이 흘러 내렸다. 그 자신조차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³⁸⁾

《沈淪》의 첫머리에 보이는 자연에 대해 주인공이 감동하는 모습이다. 그러면 자연의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감동하도록 만드는 것일까?

그것은 적대적인 외부세계를 대하면서 느끼게 되는 압박감과 긴장감의 해방에서 오는 감동으로 이해된다. 자연세계에 대한 몰두와 외부세계와의 격리가 가져다주는 선물인 셈이다. 이렇게 郁達夫의 인물은 자연에 몰두함으로써 외부세계의 압박감을 망각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대체로 외부세계에서 발생하는 일들은 내면심리에 투영되어 흥분작용을 일으킨다고 이해된다. 특히 이러한 흥분작용이 부정적인 내용을 갖는 것일 때, 즉 그것이 분노, 실망, 억울함, 미움, 공포와도 같은 감정을 생산해내도록 하는 것일 때, 이것은 심신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采石磯》에 보이는 다음과 같은 黃仲則의 경우가 바로 그렇다. 黃仲則은 고증학자 戴東原이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과 자신을 도와주고 있는 朱笥河가 아무런 변호도 해주지 않더라는 것을 알게 된 뒤 극단적 실망감과 분노에 싸인다. 그리고 이 실망과 분노는 바로 다음과 같이 건강을 해치게 된다.

“여보게 稚存! 나는 병이 날 것 같네. 하루 종일 걷는 바람에 이미 너무 피곤해 있는데다 돌아오자마자 그 가짜 도학자에게 이렇게 욕을 당했으니 말일세. 여보게 稚存! 내가 죽거든 복수해주어야 하네!”³⁹⁾

이렇게 자신의 사회적 성취를 위한 노심초사와 휴식의 결여, 그리고 누적된 스트레스가 병의 근원이라면 고향, 혹은 자연에서의 삶은 한적한 생활과 갈등 없는 관계로 인하여 현재는 물론 과거의 누적된 피로물, 혹은 병의 원인을 씻어내는 휴식공

38) 這樣的叫了一聲，他的眼睛裡就涌出了兩行清淚來，他自己也不知道是什麼緣故。《沈淪》，《郁達夫文集》제1권, p.17.

39) “稚存，我怕要病了。我今天走了一天，身體已經疲倦極了，回來又被那偽儒這樣的辱罵一場，稚存，我若是死了，要你爲我復讐的呵！”《采石磯》，《郁達夫文集》제1권, p.208.

간이 되는 것이다.

또한 이 고향, 혹은 자연이라는 공간은 누적된 병의 원인을 제거해줄 뿐만 아니라 이전에 상실했던 신체리듬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즉 고향과 자연이라는 공간은 그 독특한 힘으로 인간을 자기의 일부분으로 환원시켜 그 규율에 무의식적으로 동화되도록 하는 것이다.

어제 한차례 가람비가 내렸기 때문에 그는 이 청신한 아침해를 바라보면서 평소보다 훨씬 큰 생기를 느꼈다. 그는 산의 경사면에 올라가 그 오래된 우물에서 물을 길어 세수를 하였다. 그러자 전신의 기력이 일순간에 회복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⁴⁰⁾

郁達夫의 인물들이 수용적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은 이미 앞장에서 논술한 바 있다. 즉 그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유형의 인간이 아니라 자신의 주변에서 전개되는 일들을 수동적으로 수용하고 해석하는 성격의 소유자였다. 따라서 郁達夫의 인물의 경우, 외부의 환경변화와 내부의 심리변화는 그 궤를 같이한다. 그래서 위의 예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청신한 자연환경은 내면심리를 청신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직접적 동화외에 자연현상이 갖는 어떤 정신적 상징성을 수용하는 경우도 쉽게 발견된다.

그는 자신이 이미 몇천년 전의 원시 기독교도나 된 양, 이 자연의 묵시를 대하자 스스로의 협소한 기량이 우습게 여겨졌다.
“용서하리라! 용서하리라! 나에게 죄를 지은 세상사람들아, 내 너희들의 잘못을 용서하리라. 오너라. 너희들 오너라. 모두 와서 나와 화해하자꾸나.”⁴¹⁾

이처럼 郁達夫의 인물들은 자연에게서 그 미덕을 배우는 학생으로 비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자연으로부터 배우는 이러한 정신적 미덕이 비극의식과 그로 인한 병을 치유하는데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즉 자연에 동화되고 자연의 미덕을 수용함

40) 看看旭日，比平日更添了幾分歡喜。他走到山的斜面上，從那古井裡汲了水，洗了手面之後，覺得滿身的氣力，一霎時回復轉來的樣子。《沈淪》，《郁達夫文集》제1권, p.43.

41) 他覺得自家好象已經變了幾千年前的原始基督教徒的樣子，對了這自然的默示，他不覺笑起自家的氣量狹小起來。“饒赦了！饒赦了！你們世人得罪於我的地方，我都饒赦了你們罷！來，你們來，都來同我講和罷！”《沈淪》，《郁達夫文集》제1권, p.43.

으로써 현실과는 전혀 다른 갈등 없는 심리상태에 이르게 되어 병 또한 자연스럽게 치유되는 것이다.

그래서 郁達夫 소설에 있어서 자연과 고향은 상처받은 몸과 마음을 감싸주고 치유해주는 여인과 어머니로 이해된다. 우선 郁達夫의 인물들은 자연에서 여성을 느끼는 다음과 같은 특이한 감수성을 지니고 있다.

그는 오전의 풍경을 폐를 앓고 있는 순결한 처녀에, 오후의 풍경을 성숙기가 지나 결혼을 한 풍만한 부인에 비유할 만하다고 생각했다.⁴²⁾

《南遷》의 주인공 伊人에게서 발견되는 감수성의 세계이다. 이렇게 아침녘의 이슬이 채 마르지 않은 연약함을 느끼게 하는 풍경과 오후의 나른한 풍경에서 그가 느낀 것은 여인의 이미지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미 애정심리를 다른 장에서 살펴본 바이지만 郁達夫의 인물들에게 여성은 자신의 생존을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는 항상 여성에게서 싸움에 지친 기사를 맞이하는 중세의 귀부인의 역할을 기대한다. 이렇게 자신의 상처를 감싸주고 치유해주며 호의적이라는 공통점으로 인해 자연을 여성으로 이해하는 비유적 상상이 생겨난 것이다. 이로 인해 다음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연에서 보다 직접적인 여성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곳에 오자 마치 꿈속처럼 온통 농염한 桂花의 향기를 맞을 수 있었는데. 翁형! 자네는 습관이 되어 있을 텐데 무슨 느낌을 느끼지 못했는가? 나는…… 나는…… 이 향기를 맡으면서 충동적 성욕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네.”⁴³⁾

자연과 여성간의 밀접한 비유적 상상으로 인하여 이같이 전혀 엉뚱한 느낌도 생겨나는 것이다. 어쨌든 자연이 갖는 포용성과 고요함, 아름다움 등의 특징이 郁達夫의 인물로 하여금 여성을 연상하도록 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마찬가지로 고향은 어머니와 동일시된다. 그곳은 구체적으로 어머니가 존재하는 공간일뿐만 아니라 어머니에 관한 기억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연, 혹은 고향은 어머니이

42) 他想把午前的風景比作患肺病的純潔的處女, 午後的風景比作成熟期以後的嫁過人的豐肥的婦人. 《南遷》, 《郁達夫文集》제1권, p.72.

43) 可是到了這裡, 却同做夢似地, 所聞吸的盡是這種濃艷的氣味. 老翁, 你大約是已經聞慣了, 不覺得什麼罷? 我……我……. “我, 我聞了, 似乎要起性欲衝動的樣子.” 《遷桂花》, 《郁達夫文集》제2권, p.332.

며 여인이다.

이 늦은 여름의 산들바람, 이 초가을의 맑은 공기는 너의 친구이며 자애로운 어머니이며 다정한 연인이다.⁴⁴⁾

자연과 고향은 이래서 패잔병의 피난처가 된다. 그곳은 세상의 질투와 멸시, 조롱으로부터 벗어나 위로 받을 수 있는 자애로운 어머니의 품이고 다정한 애인의 무릎이었던 것이다. 자연에 대한 이같은 관점은 기실 지극히 중국적이다. 배경을 논한 부분에서 밝힌 바 있지만 서양에서의 자연이해는 보편적으로 중국의 경우와 판이하게 달라서 자연의 정복을 강조하였다. 張岱年 등은 서양의 이러한 자연관이 《성경》에서부터 발견된다고 보았다.⁴⁵⁾

그 견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에 의해 사람을 만들고 그로 하여금 자신이 창조한 다른 자연물들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에덴동산의 지혜의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었는데, 뱀과 사람은 영원히 원수지간이 되게 하고 땅에는 가시나무와 여뀌풀이 자라도록 하여 일년 내내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굶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張岱年은 이 성경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서양인들의 자연관을 도출해낸다. 첫째, 인간은 자연계의 외부에 그것도 상부에 있는 존재로서 자연계를 통치할 권력을 가지고 있다. 둘째,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적대관계이다. 셋째, 인간은 자연을 정복하고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계속 생존해나갈 수 있다.

반면 중국인들은 인간과 자연과의 협조를 중시하였다. 그들은 자연의 섭리를 따름으로서 자신이 자연의 일부가 되었고 그 보답으로 자연의 보호를 받게 된다고 생각하였다.⁴⁶⁾ 郁達夫의 인물이 자연을 대하는 태도는 이 전통적 관점과 어김없이 일치하고 있다.

현실생활에서의 성취에 대해 상황이 허락하는 정도 이상의 큰 기대를 품고 있는 郁達夫의 인물들에게 구체적 현실은 만족스러운 것이 될 수 없었다. 이로 인하여

44) 《沈淪》，《郁達夫文集》제1권, p.17.

45) 張岱年等著, 《中國文化與文化評論》(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90), pp.51-52 참조.

46) 일반적으로 이러한 관점은 天人合一적 자연관으로 불리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王生平, 《天人合一與神人合一》(河北人民出版社, 1989)이 자세하고 체계적이다.

郁達夫의 인물은 죽음의 세계를 동경하기도 하지만, 사회생활로 다친 심신을 자연과 고향에서 치유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도 한다.

5. 결 론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실세계의 시간은 郁達夫의 인물의 심리시간에 비해 너무 빠르거나 늦었다. 즉 현실적 성취를 기대하는 경우 심리적 시간에 비해 현실적 시간은 더할 수 없이 느리게 흘렀고, 또 현실의 바탕을 이루는 생존경쟁의 시간은 그의 심리적 시간이 따라잡을 수 없게 빠른 것이었다. 이같은 시간의 불일치로 인해 郁達夫의 인물은 심한 불안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郁達夫의 인물은 자연, 혹은 유년의 고향에서 심리적 시간과 자연적 시간의 일치로 인한 안정감을 경험할 수 있었다. 또한 안정감은 몰두를 통해 無我之境에 들어감으로써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생존경쟁의 현실에 비해 자연과 고향은 여러 가지 미덕으로 가득차 있는 桃花源 내지 피안으로 이해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자연과 고향의 제반 미덕에 동화됨으로써 생존경쟁의 전장에서 얻게 된 심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공간으로 이해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또 郁達夫 문학의 큰 지향점이라 할 수 있는 여성의 사랑, 혹은 모성의 사랑을 상상적으로 접하게 됨으로써 심신의 불행의식과 질병이 치유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사실 郁達夫의 인물들에게 자연과 고향은 달팽이의 집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들은 현실의 삶이 如意롭지 않거나 위기의식을 가져다주는 것일 때, 즉시 현실에서 물러나 자연으로의 은거 내지 귀향을 기도하였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郁達夫의 소설에서 끝없는 은거와 귀향의 시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이 페이지는 여백임〉

중국 신시기 문예연구의 성격 전환

김 언 하*

<目 次>

- | | |
|----------------|--------|
| 1. 시작하며 | 4. 맺음말 |
| 2. 타율적 문예연구 비판 | <참고문헌> |
| 3. 자율적 문예연구 모색 | |

1. 시작하며

1976년 9월에 모택동이 사망하고, 그 해 10월에 강청반혁명집단, 이른바 '4인방'(강청 江靑·요문원 姚文元·장춘교 張春橋·왕홍문 王洪文)이 체포됨으로써 장장 10년 동안 중국 대륙을 동란의 도가니로 들끓게 만들었던 문화대혁명(이하 '문혁'으로 줄여 부름)은 그 주역들을 상실했다. 이를 기점으로 중국 역사의 진행방향이 근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1976년 이후의 시기를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신시기라고 부른다. 물론 '4인방'의 체포가 곧 '문혁'의 실질적 종결이나 역사적 전환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그러한 전기를 마련한 것은 명확하다. 그리하여 두 해 남짓한 화국봉 華國鋒 지도체제 아래의 과도기를 거친 이후 당의 운영이 집단지도체제를 회복한 1978년 말의 중국공산당 11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이하 '11기 3중전회'라는 식으로 줄여 부름)에서 당의 사업 중점을 '계급투쟁'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로 옮긴다고 결정함으로써 이 역사적 전환은 마침내 공식적으로 실현되었다.

하지만 '문혁'에 대한 공식평가는 이보다 훨씬 더 늦게야 이루어졌다. 1981년 6

* 釜山大·東亞大 講師

월의 중국공산당 11기 6중전회에서 채택된 <건국 이래 당의 약간의 역사문제에 관한 결의[關於建國以來黨的若干歷史問題的決議]>에 나오는 “실천이 증명하듯이 ‘문화대혁명’은 어떠한 의미에서도 혁명이나 사회진보가 아니었고 그렇게 될 수도 없었다.”¹⁾ 또는 “사회주의적 조건 아래서 진행되는 ‘하나의 계급이 하나의 계급을 뒤집어엎는’ 정치대혁명은 이미 그 경제기초나 정치기초를 상실하고 있다. ‘문화대혁명’이 어떠한 건설적 강령도 제시하지 못하고 심각한 혼란·과괴·후퇴만을 몰고 왔던 것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역사가 이미 판명했다시피 ‘문화대혁명’은 영도자(모택동-필자 주)가 잘못하여 일으켰고 반혁명집단(임표 林彪와 4인방-필자 주)에게 이용되어 당과 국가와 각 민족 인민에게 심각한 재난을 가져다준 내란이었다.”²⁾ 따라서 “‘문화대혁명’은 이론에서부터 실천에 이르기까지 모두 잘못된 것으로 철저히 부정해야 한다.”³⁾라는 중공 중앙의 공식평가는 중국사회의 역사적 전환이 충분한 내재적 근거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준다.

필자가 신시기 문예연구의 성격전환을 고찰하기에 앞서 중국사회 전반의 역사적 변화와 이를 주도하는 당의 사업 중점의 전환을 먼저 간략하게 언급한 이유는 다른 사회적 활동과 마찬가지로 문예연구 또한 사회의 구조적 변동과 이를 주도하는 당의 노선·정책·방침에 의해 객관적으로 제약되는 측면을 엄연히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4인방’ 문예이론·문예비평의 청산이 1979년에야 철저히 이루어진 것은 당의 11기 3중전회에서 ‘계급투쟁을 강령으로 삼는다’라는 ‘문혁’시기의 구호를 정식으로 폐지하고 ‘사상해방’과 ‘실사구시’를 강조한 것과 떼내어서 생각할 수 없다. 하지만 이 말이 문예연구는 언제나 외부적 조건에 의해 일방적으로 제약될 뿐이라는 의미로 읽혀져서는 안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것은 문예사업 또한 포괄적인 당의 영도사업 가운데 하나에 속하는 중국 사회의 특수성으로 인해 신시기의 문예연구도 정치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신시기의 문예연구는 객관적 조건에 의해 제약되는 측면만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 발전을 통해 사회의 구조적 변동과 당의 정책전환을 추동하는 측면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1979년 말에 열린 제4차 전국문학예술활동가 대표대회(이하 ‘문대회’라고 줄여 부름)에서 등소평 鄧小平이 축사를 통

1) 허원 옮김, 《정통중국현대사》(사계절, 1990), 35쪽.
 2) 허원 옮김, 《정통중국현대사》(사계절, 1990), 35쪽.
 3) 허원 옮김, 《정통중국현대사》(사계절, 1990), 370쪽.

해 당의 문예정책·문예방침이 문예계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시사한 것과 신시기의 전반적인 사상해방운동의 고조는 부분적으로 신시기의 활발한 문예연구 활동이 문예연구에 대한 과거의 정치적 억압과 간섭의 폐단을 비판하고 적극적으로 그 전환을 요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 문예연구 자체에 남아있는 '4인방' 문예이론의 여독 餘毒은 당의 문예정책의 전환과 함께 근본적으로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문예연구 내부의 퇴행적 역량으로 남아 정치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도 부정적인 예이긴 하지만 문예연구의 상대적 독립성을 설명해준다.

따라서 필자는 신시기 문예이론·문예비평의 발전과정을 가능한 한 그 정치적, 사회구조적 조건과 문예연구 자체의 역량이 빚어내는 상호작용을 참조하면서 고찰하고자 한다. 이런 측면에서 신시기 문예연구의 발전과정을 살펴볼 때, 1980년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해라고 생각한다. 1980년 이전의 문예연구는 주로 '문혁' 시기 문예이론에 대한 부정과 비판, 건국 후 17년 시기의 문예이론에 대한 재평가에 할애되었던 반면 1980년 이후의 문예연구는 주로 5·4시기 문예연구의 전통을 복원하고 다양한 서방의 문예이론을 지속적으로 수용하면서 문예연구가 전에 없이 활성화되고 있다. 또 1980년 이전에는 주로 (혁명적) 현실주의 문예이론에 정향된 문예연구가 주류를 차지한 반면, 1980년 이후에는 (포스트) 모더니즘 문예이론에 입각한 문예연구가 경쟁적 또는 대항적 지위를 확립하면서 문예연구가 대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물론 1980년 이후의 문예연구 발전과정을 다시 문예연구의 방법론적 자각을 분명히 드러내는 1985년을 기준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우선 신시기의 문예연구를 크게 1980년을 기준으로 양분하여 그 대체적 성격의 전환을 '타율적 문예연구의 비판'과 '자율적 문예연구의 모색'이라는 각도에서 고찰하고자 하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1985년 이후의 문예연구의 성과를 언급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신시기 이전은 물론 그 이후의 문예연구도 실제 문예창작으로부터 독립한 완전한 이론적 체계를 지향하기보다는 주로 특정한 경향·주제·작품에 대한 비평적 술화의 형태로 전개되는 중국 문예연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문예연구라는 말을 문예이론과 문예비평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즉, 문예연구라는 용어는 문예작품의 창작이나 감상과 같은 구체적 작품에 속박된 문예활동을 반성적으로 고찰하는 모든 술화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문

예연구가 특별히 이론적 체계를 갖추었거나 비평적 형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문예이론이나 문예비평이라는 용어로 서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2. 타율적 문예연구 비판

신시기의 문예연구가 문예창작과 마찬가지로 '문혁'에 대한 비판과 부정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4인방' 문예이론이 문예연구의 발전을 속박하는 엄중한 굴레였을 뿐 아니라, "거의 중국 문예과학의 붕괴를 초래할 뻔했다"⁴⁾고 할만큼 문예연구의 생존 자체에 적대적이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신시기의 문예연구는 자연스럽게 건국 후 17년시기의 우수한 문예연구의 전통과 만나게 된다. 왜냐하면 17년시기의 우수한 문예연구 전통이 '문혁' 시기에 반당·반사회주의 독초라는 이른바 '반동 8론[黑八論]'⁵⁾으로 간주되어 철저히 비판, 부정당하고, 심지어 정치적 박해까지 감수해야 했으므로, '문혁' 시기 문예이론을 부정한다는 것은 곧 우수한 문예연구의 전통을 긍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문혁' 시기 문예계가 처한 운명은 이루말할 수 없이 처참한 지경이었다.

작가·예술가는 '더러운 먹물[臭老九]'·'반동문인'·'반동권위'·'자본주의 지향파[走資派]'·'추악한 잡귀신[牛鬼蛇神]'·'매국노 간첩'이라는 온갖 죄명의 모자를 쓰고 비판투쟁, 노동개조를 당하거나 감금되고, 살해되었다.⁶⁾ 물론 문예비평가·문예이론가도 예외가 아니었다. 또 그들의 문예조직인 문학예술가연합회(이하 '문련'으로 줄여 부름)·작가협회는 해산당하고, 그들의 활동무대인 문예간행물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모조리 정간당했다. 문예가는 정치가로, 문예조직은 정치조직으로, 문예이론은 정치이론으로 간주되었다. 즉, 문예의 문제가 모두 정치의 문제로 환원된 결과 문예는 사라지고 정치만 남게 되었다. 또 이 정치는 문예가와 문

4) 줄역, <문학연구 사유공간의 확장>, 《中國語文論集》 第七輯(釜山·慶南中國語文學會, 1992), 179쪽. 원문은 劉再復, <文學研究思維空間的拓展>(《文學的反思》, 人民文學出版社, 1988), 2쪽. 이하 역문의 쪽수만 언급함.

5) 寫眞實論, 現實主義-廣闊的道路論, 現實主義的深化論, 反題材決定論, 中間人物描寫論, 反火藥味論, 時代精神匯合論, 離經反道論.

6) 朱寨, 《中國當代文學思潮史》(人民文學出版社, 1987), 503쪽.

에이론에 갖다 붙인 '반동'·'반당'·'반사회주의' 같은 죄명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적 의미의 정치가 아니라, "계급과 계급투쟁의 관점으로, 계급분석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대하고, 모든 것을 분석한다"⁷⁾고 할 때의 정치이며, "주로 '무산계급'과 '자산계급'이 벌이는 '서로의 생사가 걸린' 양군대전 兩軍對戰"⁸⁾이라 할 수 있는 참예한 계급투쟁으로서의 정치이다.

여기서 이 계급투쟁의 성격이 문제가 된다. 앞에서 "사회주의적 조건 아래서 진행되는 '하나의 계급이 하나의 계급을 뒤집어엎는' 정치대혁명은 이미 그 경제기초나 정치기초를 상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경제적 기초'나 '정치적 기초'를 상실한 계급투쟁, 그것은 바로 '사이비 계급투쟁'인 것이다. 또 그 계급투쟁의 이데올로기도 "모든 나쁜 사물·현상은 '착취'를 기초로 하는 이른바 자산계급·자본주의의 범주로 귀결시키고, 모든 좋은 사물·현상은 '노동'을 기초로 하는 무산계급·사회주의의 범주에 귀결시켰다. 그리하여 여기에서는 무산계급·사회주의와 자산계급·자본주의가 '노동'과 '착취', '공'과 '사', '선'과 '악'의 대립과 투쟁으로 바뀌었다. 본래 특정한 역사적 내용을 지닌 유물사관의 범주가 점차 초시대적인 윤리 도덕적 범주로 바뀌었다.……정치는 도덕으로 바뀌었고, 도덕은 정치로 바뀌었다."⁹⁾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역사적 내용'을 결여한 '사이비 이데올로기'인 것이다. 그렇다면 문화대혁명은 '역사적 내용'을 결여한 '사이비 이데올로기'에 근거하여 진행된 '경제적 기초'와 '정치적 기초'를 상실한 '사이비 계급투쟁'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한마디로 줄이면 '문혁'은 '사이비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사이비 계급투쟁'이다.

문예의 문제를 정치의 문제로 환원하는 것도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데, 계급투쟁의 문제, 심지어 사이비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사이비 계급투쟁의 문제로 환원한다면, 그것이 이데올로기적 강령함과 계급투쟁적 엄숙함 덕분에 비록 도덕적이고 숭고한 외관을 띠게 된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는 이미 냉혹하고 추악한 권력투쟁과 한몸인 것이다. '문혁' 시기 문예이론을 흔히 극좌 편향적 문예이론, 봉건적 문화전체주의 문예이론, 속류사회학적 문예이론, 정치실용주의적 문예이론 등으로 부르

7) 李澤厚, 《中國現代思想史論》(東方出版社, 1987), 187쪽. 김형종 역, 《중국현대사상사의 굴절》(지식산업사, 1992), 231쪽 참조. 이하 《중국현대사상사론》에서 인용한 글의 번역은 김형종의 역서를 참조했음.

8) 李澤厚, 《中國現代思想史論》(東方出版社, 1987), 187쪽.

9) 李澤厚, 《中國現代思想史論》(東方出版社, 1987), 189쪽.

는 것은 이런 사이비 이데올로기, 사이비 계급투쟁 환원론적 성격을 서로 다른 각도에서 지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신시기의 문예연구가 '문혁'시기 문예이론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정치권력의 변화에 직접적으로 제약되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으며, 정치권력의 속박에서 벗어나 그것이 도덕적이고 숭고한 외피를 벗고, 냉혹하고 추악한 본질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무섭게 급속하게 부정당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신시기에 이루어진 '4인방' 문예이론에 대한 비판과 부정을 고찰하기에 앞서 그 대체적 골격을 간추려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인방' 문예이론은 문예이론 방면에 연역된 사이비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사이비 계급투쟁의 이론으로서 문예연구의 문제를 모두 계급투쟁으로 환원한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했던 이른바 '반동 8론'은 계급투쟁 이외의 또 다른 현실이 있다거나(현실주의심화론, 현실주의-광활적도로론) 또 다른 진실이 필요하다거나(사진실론), 계급투쟁의 영웅 이외의 또 다른 인물이 필요하다거나(중간인물묘사론), 계급투쟁의 절대적 의의를 강조하지 않는 문예이론(반제재결정론·반화약미론·이경반도론·시대정신회합론)이므로 모조리 반당반사회주의 문예이론이다. 건국 후 17년 동안 이런 반동적 문예이론이 줄곧 문예계를 지배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문예반동독재론[文藝黑線專政論]'이다. 이를 뒤집으면 계급투쟁을 절대화하고(근본입무론·주제선행론), 계급투쟁의 영웅을 절대시하는(영웅인물창조론·삼돌출론) 문예이론이 '4인방' 문예이론이다. 또 이 문예이론에 근거하여 창작한 작품이 무산계급문예의 '신기원'을 수립한 '모범극[樣板戲]'이다. 요컨대 문예창작도 계급투쟁이고, 문예이론도 계급투쟁이며, 따라서 문예는 계급투쟁이다.

이처럼 문예이론은 무산계급과 자산계급이 문예이론 분야에서 벌이는 계급투쟁이므로, 계급투쟁을 절대화하지 않거나, 계급투쟁의 영웅인물을 절대시하지 않는 문예이론은 모두 반당반사회주의 독초이므로 모조리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 '4인방' 문예이론의 요지이다. 이렇게 되면 문예이론은 사라지고 계급투쟁의 이데올로기만 남는다. 다시 말해서 '4인방'의 문예이론은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왜냐하면 문예이론이 계급투쟁을 주장하지 않고 문예이론을 주장하면 이는 '4인방' 문예이론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왜 '4인방'의 문예이론이 모든 문예이론의 파괴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지 분명해졌다.

'4인방' 문예이론에 대한 신시기 문예연구의 비판과 부정은 처음에 '문예반동독

재론'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77년 말부터 문예계는 이를 집중적으로 비판했지만¹⁰⁾, “문예계에 비록 ‘반동독재’는 없었지만, 문예반동은 그래도 있었다.”¹¹⁾라는 식의 반응을 얻어내는데 그쳤다. 이것은 비록 ‘4인방’이 타도되어 그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성토는 막을 수 없는 기세로 터져나왔지만, ‘문혁’ 자체에 대한 비판이 불가능했던 당시의 정치상황에 제약된 결과이다. 모택동이 사망하고 ‘4인방’이 몰락한 후 권력을 승계한 화국봉 華國鋒은 ‘두 가지 무릇[兩個凡是]’¹²⁾을 주장하며 ‘문혁’에 대한 근본적 비판을 가로막고 있었다. 이것은 ‘목에 칼을 차고 춤을 추는[帶着枷鎖跳舞]’ 격이어서 ‘문혁’시기 문예이론에 대한 비판이 결코 순조로울 수 없었다. 요컨대 당시 ‘4인방’ 문예사상에 대해 전개한 비판은 엄격히 말해서 여전히 정치적 성토, 비문예적 비판에 머물러 있었을 뿐이다.¹³⁾

그러나 1978년 5월부터 전국적으로 진행된 ‘실천은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기준이다’에 관한 토론은 사상해방운동을 힘있게 추동하였다.¹⁴⁾ 이 진리의 기준에 관한 토론은 ‘두 가지 무릇’의 사상적 속박을 타파하고, ‘문예반동’론을 철저히 비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문예반동’론을 타도하기 위해 1978년 말 《문예보》와 《문학평론》 편집부는 연합하여 문예작품과 정확한 정책에 관한 좌담회를 열고, 과거 ‘문예반동’론의 지배 아래에서 잘못 비판된 작품과 잘못 처리된 작가의 명예를 회복시켰다.¹⁵⁾ 과거의 오류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중국 공산당 11기 3중전회가 공식적으로 당의 사업중점을 전환한다고 선언한 것이었다. 즉 당의 사업중점을 ‘문혁’시기의 계급투쟁

10) 1977년 말 《인민문학》 편집부는 9월에 이어 다시 북경에 있는 문학활동가 좌담회를 열었는데, 이 회의의 주제가 바로 ‘문예반동독재’론을 비판하는 것이었다. 또 《인민문학》은 그 해 12기부터 <‘문예반동독재’론을 철저히 비판하자>라는 전문난을 마련하여 많은 전투적 격문을 게재함으로써 그 비판의 열기를 고조시켰다. 朱寨, 《中國當代文學思潮史》(人民文學出版社, 1987), 525-526쪽 참조.

11) 朱寨, 《中國當代文學思潮史》(人民文學出版社, 1987), 527쪽에서 재인용.

12) 첫째, 무릇 모주석이 내린 결정은 우리 모두 굳건히 유지해야 하고, 둘째 무릇 모주석의 지시는 우리 모두 줄곧 어기지 말고 지켜야 한다. 이 ‘두 가지 무릇’은 1977년 1월 화국봉의 의견에 따라 그의 연설 초고로 준비된 글에서 최초로 제기되었으며, 1977년 2월 7일 《해방군보》·《홍기 紅旗》·《인민일보》에 사실로 발표된 ‘문건을 잘 학습하고 핵심을 단단히 붙들자’라는 제목의 글에 나오는 말이다. 허원 옮김, 《정통중국현대사》(사계절, 1990), 445쪽 참조.

13) 朱寨, 《中國當代文學思潮史》(人民文學出版社, 1987), 528쪽.

14) 김종수·최건, 《중국당대문학사》(청년사, 1991), 369쪽.

15) 朱寨, 《中國當代文學思潮史》(人民文學出版社, 1987) 530쪽.

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로 옮길 것을 결정하고, '무산계급 독재 아래의 계속혁명'이라는 '문혁'의 구호를 폐지하고, '사상해방,실사구시, 일치단결로 앞을 내다보자[解放思想,實事求是,團結一致向前看]'라는 구호를 채택한 것이다. 물론 이런 사상해방과 실사구시가 무조건적으로 허용된 것이 아니라, 곧 이어 '네 가지 기본원칙-사회주의·인민민주독재·공산당지도·맑스레닌주의와 모택동사상'의 견지라는 전제가 달려지기는 했지만¹⁶⁾, 기존의 문예이론의 오류를 시정하는 작업을 가속화하는 데 결정적인 작용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하여 '문예반동'론에 대한 부정과 비판은 1979년부터는 '4인방'에 의해 반당 반사회주의적 반동노선의 대표적 논점으로 몰려 잘못 비판받았던 이른바 '반동 8론[黑八論]'에 대한 재인식·재평가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다. 이 과정에서 신시기의 문예연구는 '4인방'이 전도시킨 시비와 평가를 이론적·실천적으로 청산하는데 그치지 않고, '문혁'이전의 17년 시기에 존재했던 좌편향 오류를 주의 깊게 청산하고, 거기서 심각한 교훈을 섭취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문혁'시기 '반동 8론'으로 낙인찍혔던 이전 시기 우수한 문예연구의 전통이 '문혁'이전에도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줄곧 비판과 자기비판의 대상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이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문화대혁명' 이전에는 이러한 비판이 주로 신문 잡지나 유관 문화단체나 기관 안에서 진행되었고 극본 《해서파관 海瑞罷官》에 대한 비판이 전개되기 이전에는 사회적인 군중운동으로 되지 않았다."¹⁷⁾는 것 뿐이다. 타율적 문예연구에 대한 비판은 건국 후 줄곧 타율적 문예연구의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마침내 '문혁'에 이르러 문예연구 자체가 부정되는 지경에 이르렀던 쓰라린 역사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얻은 값진 교훈이라 할 수 있다. 사상해방운동에 의해 심화된 신시기의 문예비평·문예이론은 이제 사상해방운동의 심화를 추동하는 주요한 고리의 하나가 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해 3월에는 건국 후 30년 동안의 문예운동 경험을 결산하고 한층 더 잘못을 바로잡고, 이론적 시비를 가리기 위해 《문예보》 편집부가 문예이론비평사업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 좌담회에서는 문예와 정치의 관계 문제에 대해 열렬한 토론이 전개되었다.¹⁸⁾ 건국 후 한번도 의문시되어본 적이 없는 '문예는 정치를 위해 봉사

16) '네 가지 기본원칙'의 견지 문제는 1979년 3월 당의 이론사업학습회[理論工作務虛會]에서 제기되었다. 朱寨, 《中國當代文學思潮史》(人民文學出版社, 1987), 537쪽 참조.

17) 허원 옮김, 《정통중국현대사》(사계절, 1990), 347쪽.

18) 朱寨, 《中國當代文學思潮史》(人民文學出版社, 1987), 533쪽.

한다'라는 이 명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비판적으로 검토되고, 그 비과학성이 지적되었다. 아울러 문학의 진실성과 전형성, 문예와 생활의 관계, 문예비평의 현황 등의 문제가 토론의 주제로 떠올랐다. 또 '문학' 시기에 '반동 8론'의 하나로 지목되어 비판받았던 진조양 秦兆陽의 <현실주의-광활한 길[現實主義-廣闊的道路]>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 새롭게 평가받았다.

이 해 4월에는 《상해문학》에 그 잡지사 평론원의 글 <문예를 위해 이름을 바로 세우자-‘계급투쟁의 도구’설을 반박하며[爲文藝正名-駁‘文藝是階級鬭爭的‘工具’說]>가 발표되어, 여러해 동안 사람들이 믿어 의심치 않던 근본적 이론문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¹⁹⁾ 이 글은 전국 문예계에 강렬한 반향을 끌어냈으며, 이에 고무된 《상해문학》은 더욱 심화된 토론을 전개했다. 이처럼 문예이론·문예비평에 대한 연구가 심화됨에 따라 사상해방이 한층 촉진되고, 학술적 분위기가 갈수록 활성화되었다.

1979년 5월 3일 중공 중앙은 1966년 2월에 조작된 <임표가 강청에게 위탁하여 개최한 부대문예사업좌담회 요지기록[林彪委託江青召開的部隊文藝工作座談會紀要]>(이하 '요지기록'으로 줄여 부름)을 취소하는 해방군 총정치부의 보고서를 비준했다.²⁰⁾ 그러나 <요지기록>이 공식적으로 취소된 것과는 별도로 그것이 남긴 사상적 악영향은 문예이론과 문예비평을 통해 지속적으로 표현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4인방'의 죄행과 그로 인한 인민의 고통과 상처를 폭로한, 노신화 盧新華의 <상흔 傷痕>, 유심무 劉心武의 <담임선생[班主任]>으로 대표되는 신시기의 '상흔문학'에 대해 '뒤를 돌아보는 문학[向後看文學]'이니 '패덕문학[缺德文學]'이니 '감상문학'이니 심지어는 '사상적 혼란이 극심하다'느니 문예의 '노농병 방향을 벗어났다'느니 하는 지적과 비판이 잇따르고 그런 평가의 타당성 여부를 둘러싸고 활발한 논쟁이 벌어졌다. 마침내 《문예보》와 《문학평론》은 1979년 8월에 '계속적으로 <요지기록>의 여독을 청산하고, 문예계의 좋은 형세를 발전시키자'라는 주제의 좌담회를 개최했다.²¹⁾ 이는 이른바 '반동 8론'에 대한 비판의 심화가 가져온 논리적 귀결- '4인방' 문예이론의 최종적 근거인 <요지기록>을 청산하지 않고는, 이에 근거해 만들어진 여러 가지 구체적 문예주장, 예를 들어 '문예반동독재론'·'반동 8론'·'근본입무론'·'영웅인물창조론'·'3돌출론' 등의 오류를 철저히 비판할

19) 朱寨, 《中國當代文學思潮史》(人民文學出版社, 1987), 534쪽.

20) 김종수·최건, 《중국당대문학사》(청년사, 1991), 370쪽.

21) 朱寨, 《中國當代文學思潮史》(人民文學出版社, 1987), 532쪽.

수 없다.- 이자, '상혼문학'의 출현을 둘러싸고 벌어진 열띤 논쟁에 대한 현실적 대응이기도 했다.

'4인방' 문예이론에 대한 전면적 부정과 그 오류의 근원에 대한 철저한 비판은 신시기 문예연구의 기본적 방향을 단순히 '문혁'이전으로 되돌리는데 그치지 않고, 한걸음 더 나아가 신중국 성립 이후의 문예연구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수정하도록 만들었다. 이는 '문혁' 시기 문예이론과 문예비평의 오류가 결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신중국 성립 이후의 일관된 좌편향적 문예연구의 흐름이 극단적 또는 악성적으로 발전한 데 지나지 않는다는 자각을 기초로 한 것이다. 문예연구의 근본적 방향전환은 1979년 10월 30일에 열린 제4차 전국 문대회에서 마침내 구체적으로 정식화되었다.

제4차 문대회는 우선 문예와 정치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 정치를 계급투쟁으로 환원하고 '문예는 계급투쟁의 도구이다'라고 주장했던 '문혁' 시기의 명제를 부정했을 뿐 아니라, 모택동의 <연안문예좌담회에서의 연설>(이하 '연설'로 줄여 부름) 이래 수십년 동안 통용되었던 '문예는 정치에 종속된다' '문예는 정치를 위해 봉사한다'라는 명제의 비과학성까지 비판했다. 또 문예는 혁명적 계급투쟁의 화신인 영웅인물을 묘사해야 한다는 '문혁' 시기의 '영웅인물창조론'을 부정했을 뿐 아니라, 모택동의 <연설>이래 줄곧 통용되었던 우선적으로 영웅적인 노동자·농민·병사를 그려야 한다는 '노농병을 위해 봉사한다'라는 명제의 속박까지 비판했다.

또 중공 중앙을 대표하여 문대회에서 축사를 발표했던 등소평은 이렇게 말했다. "문예사업에 대한 당의 영도는 명령과 지시 또는 문학예술이 임시적·구체적·직접적 정치임무에 종속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예술의 특징과 발전법칙에 근거하여 문예사업가가 조건을 얻어 부단히 문학예술사업을 번영시키고, 문학예술의 수준을 향상시켜, 우리의 위대한 인민, 위대한 시대에 부끄럽지 않을 우수한 문학예술작품과 공연예술을 창조하도록 돕는 것입니다."²²⁾ 또 이렇게도 말했다. "문예창작에서는 상이한 형식과 풍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제창하고, 예술이론에서는 상이한 관점과 학파의 자유로운 토론을 제창해야 합니다."²³⁾ 등소평은 축사를 통해 신시기 문예계의 요구와 방향모색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이후의 협조를 약속한 것이다.

22) 朱寨, 《中國當代文學思潮史》(人民文學出版社, 1987), 567쪽에서 재인용.

23) 朱寨, 《中國當代文學思潮史》(人民文學出版社, 1987), 568쪽에서 재인용.

문대회 후 중공 중앙은 제4차 전국 문대회의 문건을 비준하고 각급 기관에 전달함과 동시에 모택동동지의 과거 문예사업에 관한 ‘두 가지 지시[兩個批示]’²⁴⁾를 회수한다고 정식으로 선포했다.²⁵⁾ 얼마 후 덩소평은 <목전의 형세와 임무[目前的形勢和任務]>를 발표하여 또 이렇게 말했다. “문예계가 막 문대회를 열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쓰고, 어떻게 쓰는가에 대해 몇대로 간섭해서는 안되며, 이것이 문예사업가의 책임과 자신의 사업에 대한 요구를 가중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쌍백雙百’ 방침과 ‘삼불주의 三不主義’를 견지해야 하며, 문예는 정치에 종속된다는 이런 구호를 계속해서 제기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호는 문예에 대해 몇대로 간섭하는 이론적 근거가 되기 쉬우며, 오랫동안의 실천이 그것이 문예의 발전에 대해 이익은 적었고 손해가 많았다는 사실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물론 문예는 정치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예는 정치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²⁶⁾

1980년 1월 26일 《인민일보》에 ‘문예는 인민을 위해 봉사하고, 사회주의를 위해 봉사한다’는 제목으로 발표된 사설은 문예창작뿐 아니라, 문예이론·문예비평에까지 해당되는 말이다. 이제 문예연구는 광범한 인민의 이익에 저촉되지 않는 한, 또 사회주의 체제 자체의 부정에 이르지 않는 한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어떤 속박도 받지 않게 되었다. 이것은 당의 문예방침의 중요한 조정을 집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²⁷⁾ 이같은 당의 문예방침은 그 후 호요방 胡耀邦과 호교목 胡喬木에 의해서 더욱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되었다.²⁸⁾ 달라진 당의 문예방침을 요약하면 ‘삼불주의’와 백화제방·백가쟁명의 ‘쌍백방침’을 견지함으로써 문예의 창작·비평·이론에 있어서 자유롭고 민주적인 분위기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80년 이후 중국의 문예연구는 이런 근본적으로 달라진 당의 문예방침을 전제로 하고, 눈부신 문예창작의 성과와 다양한 서방 문예이론의 소개를 자극으로 하며, 문

24) 1963년 12월과 1964년 6월, 두 차례에 걸친 모택동의 문예사업에 대한 질책과 비판을 가리킨다. 비판의 요지는 사회주의적 개조가 부족하며, 심지어 수정주의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지시’는 이후 사상과 문화방면에서 잘못 전개된 과격한 정치비판의 도화선이 되었다. 허원 옮김, 《정통중국현대사》(사계절, 1990), 344-347쪽 참조.

25) 朱寨, 《中國當代文學思潮史》(人民文學出版社, 1987), 563쪽.

26) 朱寨, 《中國當代文學思潮史》(人民文學出版社, 1987), 567쪽에서 재인용.

27) 朱寨, 《中國當代文學思潮史》(人民文學出版社, 1987), 568쪽.

28) 1980년 2월에 이루어진 호요방의 <회곡창작좌담회에서의 연설>과 1982년 6월에 열린 중국 문련 文聯 4기 2차 전체회의에서 발표한 호교목의 연설. 자세한 내용은 朱寨, 《中國當代文學思潮史》(人民文學出版社, 1987), 568-571쪽 참조.

예연구자의 자각적인 추구를 동력으로 하여 활기 차게 발전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자율적 문예연구 모색

신시기 중국사회의 특징을 ‘인간해방’·‘사상해방’이라고 보는 데 대해서는 별 다른 이론 異論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인간과 사상의 해방은 무원칙한 계급투쟁의 족쇄를 깨뜨리고, 정치의 전일적 지배의 속박을 해제한 후에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문예창작과 문예연구의 발전 또한 이런 해방된 인간과 해방된 사상이 존재하는 사회를 그 전제 조건으로 삼는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80년 이전의 중국의 문예연구는 주로 자신의 발전을 위한 정치작업을 착실하게 진행하는 데 힘을 쏟았다. 그리하여 문예연구의 시비가 정치에 의해 가려지고, 그 의의가 정치에 의해 평가되고, 그 영역이 정치에 의해 결정되는 타율적 문예연구의 폐단을 기본적으로 시정하기에 이르렀다.

1980년 이후에야 중국의 문예연구는 진정으로 신시기의 활력을 유감없이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미 정치의 속박에서 기본적으로 벗어나 자유롭게 자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게 된 중국의 문예연구 앞에 놓여진 가장 커다란 과제는 문예연구의 자기 변혁이었다. 그리고 이 문예연구의 자기변혁을 강하게 추동한 자극은 당의 대외 개방정책에 힘입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온 서방의 학술문화와 1979년 이후 전면적으로 전개되고 각 영역으로 심도 깊게 발전한 사상해방운동, 그리고 신시기의 시대 정신을 가장 민감하게 체현하고 있던 문예창작이었다.

11기 3중전회 이래 먼저 상무인서관 商務印書館의 《중역 세계 학술 명저 총서 [漢譯世界學術名著叢書]》 등과 같은 서방의 사회과학 저작이 다시 인쇄, 발행되기 시작했고, 이어서 서방 모더니즘 작품도 번역, 출판되기 시작했다. 이와 동시에 서방의 문학과 철학을 대상으로 하는 소개와 평론, 전문 저술도 대량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²⁹⁾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는 ‘4인방’이 몰락한 직후 한동안 거의 한 세대 대학생 전체와 정신적 공명을 일으켰으며, 이런 심리상태는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았다.³⁰⁾ ‘존

29) 陸貴山等 主編, 《中國當代文藝思潮概論》(人民大學出版社, 1990), 289쪽.

재는 본질에 우선한다', '자유선택'과 같은 철학관은 일찍이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을 지녔었다. 그의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격언은 무수하게 생활의 기만을 당하여 영혼에 상처를 입었던 젊은이들에게 신조로 받아들여졌다.³¹⁾ 서방의 고전경제학의 대가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의 이론도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주었다.³²⁾ 프로이트의 '리비도' 학설과 사랑과 양성 兩性 사이의 애정에 관한 약간의 다른 외래 저작들은 중국인의 굳건한 전통적 성성에 관한 인식에 흡수할 수 없는 동요작용을 일으켰다. 이 후 쇼펜하우어와 니체의 생명철학이 중국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³³⁾ 사르트르(실존주의)-프로이트(리비도설)-쇼펜하우어·니체(비극철학), 이는 80년대 중국에 대한 외래 문화의 비교적 큰 세 차례 충격이다.³⁴⁾ 이처럼 철학·미학·사상의 대가들의 저술이 현란하리 만치 활기 차게 번역, 출판되어 신시기의 사상해방운동을 자극했다. 이 뿐만 아니라 18세기 이래 세계문학의 명작들이 단행본·선본·전집의 형태로 번역, 출판되었고, 문예연구에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외국문예이론총서'·'미학번역총서'·'외국문학연구자료총간' 등도 속속 출판되어 신시기의 문학예술에 풍부한 자양을 제공했다.³⁵⁾

신시기 문예연구의 자기변혁에 철학적·이론적 자양 滋養을 제공한 것은 1980년부터 일기 시작한 '미학붐'이다. 이 해 6월에는 전국 미학회의가 열리고 '중화전국미학학회'가 성립되었다.³⁶⁾ 여기서 특히 언급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한 인물이 이택후 李澤厚이다. 그는 1979년에 《비판철학의 비판-칸트술평[批判哲學的批判-康德述評]》을 출판했다. 이 책에서 그는 칸트 철학을 맑스주의적으로 새롭게 개조하여 이른바 '주체적 실천철학[主體性實踐哲學]'이라는 자신의 독자적 철학체계를 제시했다. 그는 <주체성에 관한 보충설명[關於主體性的補充說明]>이란 글에서 그것은 '주체로서의 인간(인류와 개체)을 탐구대상으로 삼는'³⁷⁾ 철학이며, 따라서 그것은 두 가지 '이중적' 내용과 함의-한 가지는 '외재적 공예-사회구조면과 내재적 문화-심리구조면'이고, 다른 한 가지는 인류집단(사회·시대·민족·계급·계층

30) 曹文軒, 《中國八十年代文學現象研究》(北京大學出版社, 1988), 5쪽.

31) 曹文軒, 《中國八十年代文學現象研究》(北京大學出版社, 1988), 5쪽.

32) 曹文軒, 《中國八十年代文學現象研究》(北京大學出版社, 1988), 5쪽.

33) 曹文軒, 《中國八十年代文學現象研究》(北京大學出版社, 1988), 5쪽.

34) 曹文軒, 《中國八十年代文學現象研究》(北京大學出版社, 1988), 7쪽.

35)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曹文軒, 《中國八十年代文學現象研究》(北京大學出版社, 1988)의 1장 <國際文化背景> 참조.

36) 宋耀良, 《十年文學主潮》(上海文藝出版社, 1988), 166쪽 참조.

37) 李澤厚, 《李澤厚集》(黑龍江教育出版社, 1988), 514쪽.

· 집단 등)의 성질과 개체심신의 성질-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다른 글에서 “철학적 층차에서 말한다면 역사적 유물론은 곧 주체적 실천철학 또는 인류학 본체론 人類學本體論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것은 마땅히 공예사회구조(인류학 주체성의 객관적 측면)와 문화심리구조(인류학 주체성의 주관적 측면)라는 이 두 측면을 포함해야 한다. 문화심리구조를 주체적 실천철학의 한 측면으로 제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과거를 결산하고, 자아(민족·사회·시대)를 인식할 것을 요구한다.”³⁸⁾라고도 말했다. 그가 인간의 주체성 또는 문화심리구조를 각별히 강조한 것은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개조의 시도³⁹⁾일 뿐 아니라 쓰라린 중국당대사, 특히 문화대혁명의 체험을 바탕으로 ‘인간해방’ ‘사상해방’을 부르짖는 신시기의 시대정신을 철학적 차원에서 확증한 것이어서 신시기 사상해방운동에 지도적 의의를 갖는다. 나아가 그는 인류학 주체성의 문화심리구조를 구성하는 세 측면 또는 내용을 심미 審美의 자유감응, 인식의 자유직관, 윤리학의 자유의지로 구분했다. 또 자유형식과 대응하는 심리구조로서의 심미에 대해 “인류주체성의 최종성과이고, 인성의 가장 선명하고 두드러진 표현이다. 여기서 인류적(역사적 총체)인 것은 개인적인 것으로 침전되고, 이성적인 것은 감성적인 것으로 침전되고, 사회적인 것은 자연적인 것으로 침전된다.”⁴⁰⁾고 인식했다. 이와 같은 이택후의 작업은 신시기 문예이론의 철학적·미학적·사상적 기초로서도 영향을 끼쳤을 뿐 아니라, 멀리는 신시기 문예연구의 새로운 단계를 대표하는 유재복의 <문학의 주체성을 논함[論文學的主體性]>이라는 글의 철학적 토대로서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재복의 글은 ‘주체로서의 인간을 탐구대상으로 삼는’ 주체적 실천철학의 문제의식을 문학 방면에서 구체화한 것의 일종이라고 생각된다.

신시기 문예연구의 자기변혁을 강력하게 추동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1980년 문학의 새로운 생기는 주로 문학창작 속에 체현되었다.”⁴¹⁾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의 시대정신을 ‘감응의 신경’답게 가장 민감하게 구체화하고 있던 문예창작을

38) 李澤厚, 《中國現代思想史論》(東方出版社, 1987), 204쪽.

39) 이택후는 지금까지 헤겔에 비해 칸트의 의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헤겔이 인류의 외재적·객관적 역사 진행과정에서 중점을 두었다면, 칸트의 공헌은 주로 주체적 주관구조의 측면에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맑스가 헤겔을 지양하고 개조했듯이 이제는 칸트에 대해 우리가 지양하고 개조할 차례라고 생각했다. 자세한 내용은 <주체성에 관한 보충설명> 참조.

40) 宋燿良, 《十年文學主潮》(上海文藝出版社, 1988), 167쪽에서 재인용.

41) 宋燿良, 《十年文學主潮》(上海文藝出版社, 1988), 247쪽.

끊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기존의 현실주의 문예관 속으로 수렴되지 않는 전혀 새로운 문학현상-‘몽롱시’와 ‘의식의 흐름 소설’로 대표되는 모더니즘 계열의 문학-의 출현에 대해 신시기의 문예연구는 어떤 식으로든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문예창작과의 긴밀한 연관 속에서 발전해온 중국 문예연구의 전통에 비추어 볼 때 신시기의 문예비평이 담당해야 할 당연한 몫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새로운 문학현상에 대한 이해와 평가를 둘러싸고 중국의 문예비평계는 그 문예관의 차이로 말미암아 대립적 구도를 형성하게 되고, 이후 대단히 활기차고 격렬하기까지 한 토론과 논쟁을 전개한다.

1979년 3월호 《시간 詩刊》에 북도 北島의 시 <대답[回答]>이 발표되자 이를 기점으로 《시간》과 전국의 각 신문·잡지에 전통적 신시와 모습이 판이하게 다른 적지 않은 시들이 잇달아 발표되었다.⁴²⁾ 1980년 1월 청년 시인들의 새로운 경향 의시에 대한 우려를 담은 공류 公劉의 <새로운 과제-고성 顧城의 몇 수 시로부터 말한다[新的課題-從顧城的幾首詩談起]>라는 글이 《문예보》에 전재 轉載되고, 이해 5월에 그와 반대로 새로운 경향의 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면 謝冕의 <새로운 굴기 앞에서[在新的崛起面前]>가 《광명일보》에 발표됨으로써 이른바 ‘몽롱시’ 논쟁이 시작되었다.⁴³⁾ 처음에 새로운 표현수법, 예술형식의 이해와 평가를 둘러싸고 전개된 이 몽롱시 논쟁을 ‘새로운 미학원칙’의 차원으로 끌어올린 글이 1981년 《시간》 3기에 발표된 손소진 孫紹振의 <새로운 미학원칙이 굴기하고 있다[新的美學原則在崛起]>라는 글이다. 손소진이 말하는 새로운 미학원칙의 요지는 기존의 시가 ‘직접적으로 생활을 찬미하는 것[直接去讚美生活]’을 강조한데 반하여 새로운 시는 ‘생활이 영혼 속에 용해되어 있는 비밀을 추구하는 것[追求生活溶解在心靈中的秘密]’을 강조하고, 기존의 시이론이 ‘인민의 감정을 펼치는 것[抒人民之情]’에 치중한데 반하여, 새로운 시이론은 ‘자아의 표현[自我表現]’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 새로운 미학원칙의 제가는 비록 정연한 이론적 체계를 갖추지는 못했지만, 집단주의적·객관주의적·반영론적 미학에 일방적으로 경사된 기존의 문예연구 경향에 대해 개인주의적·주관주의적·표현론적 미학을 대립적으로 위치지움으로써 신시기 문예연구의 새로운 경향을 명확하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송요량 宋燿良은 이 점과 관련하여 손소진의 글 가운데가

42) 韋實 編著, 《新10年文藝理論討論概觀》(瀋江出版社, 1988), 221쪽.

43) 韋實 編著, 《新10年文藝理論討論概觀》(瀋江出版社, 1988), 221-222쪽 참조.

장 가치 있는 것은 “사회학과 미학의 불일치성을 제기한 것이다.”⁴⁴⁾라고 잘라 말하고, 그것을 이택후의 미학과 연관시켜 “‘인류적(역사적 총체)인 것은 개인적인 것으로 침전된다’라는 말과 손소진의 ‘직접적으로 생활을 찬미하지 않고 생활이 영혼 속에 용해되어 있는 비밀을 추구한다’라는 말, 양자의 차이는 전자는 철학적 서술이고 후자는 미학적 설명이라는 것뿐이다.”⁴⁵⁾라고 인식했다.

‘몽롱시’ 논쟁은 그것이 단순히 시의 갈래에 한정된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새로운 미학원칙’이라는 일반적 원칙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더니즘 문예 일반에 관한 논쟁을 애초부터 배태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 79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의식의 흐름’을 대표로 하는 새로운 표현수법을 사용한 소설의 출현을 둘러싸고 80년부터 진행된 활발한 토론과 《세계문학》·《외국문학연구》·《백과지식》·《독서》 등의 잡지와 간행물을 통해 초보적으로 번역, 소개된 서방의 다양한 문예이론에 대한 평가와 수용은 중국의 문예비평계가 한 차례 토론과 논쟁을 통해 정리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로 떠올랐다.

계간 《외국문학연구》가 가장 먼저 서방 모더니즘 문예 문제에 관한 토론을 시작했다. 이 잡지는 1980년 4기부터 1982년 1기까지 차례로 32편의 토론 문장을 싣고, 마지막으로 서지 徐遲의 결산적 성격의 글 <현대화와 모더니즘[現代化與現代派]>을 발표했는데, 문예계에 강렬한 반향 反響이 일어나고 찬반이 분분했다.⁴⁶⁾ 또 1982년 10월에서 12월말까지 《문예보》와 전국문련 연구실은 몇 차례 좌담회를 개최하고, 서방 모더니즘 문예와 현실주의의 발전 등의 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토론했다. 또 1983년 1기의 《당대문예사조》는 서경아 徐敬亞의 <굴기하는 시들[崛起的詩群]>을 발표함으로써 모더니즘 문학에 관한 토론을 고조시키는 한편 중국 문예의 발전방향의 문제까지 언급했다.⁴⁷⁾ 이 과정에서 모더니즘 문예에 정향된 새로운 문예연구는 ‘몽롱시’, ‘의식의 흐름 소설’ 등의 신시기 문예창작이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문예이론적 또는 일반미학적 차원에서 현실주의 문예에 기초한 기존의 문예연구의 한계를 비판하고 자신의 존재가치를 입증함으로써 경쟁적 또는 대안적 문예연구로서의 지위를 확보했다. 이제 현실주의적 문예연구 일색이었던 기존의 문예연구 상황이 일변하여 현실주의적 문예연구와 모더니즘적 문예연구가 상

44) 宋耀良, 《十年文學主潮》(上海文藝出版社, 1988), 167쪽.

45) 宋耀良, 《十年文學主潮》(上海文藝出版社, 1988), 168쪽.

46) 韋實 編著, 《新10年文藝理論討論概觀》(瀋江出版社, 1988), 238쪽.

47) 韋實 編著, 《新10年文藝理論討論概觀》(瀋江出版社, 1988), 238쪽 참조.

호 경쟁하고 대립적으로 발전하는 역동적 국면이 나타난 것이다. 또 모더니즘적 문예연구가 가장 뚜렷하게 부각시킨 것은 '사회학과 미학의 불일치성' 또는 '심미범주의 독특성' 48), 다시 말해서 '사회학'으로 환원될 수 없는 '미학'과 '실용'으로 환원될 수 없는 '심미'의 독자성에 대한 확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자율적 문예연구의 모색과정에서 기존의 문예연구와 질적으로 판이한 새로운 경향이 나타났다. 기존의 문예연구는 그 이론적 토대를 기껏해야 사회학에서 구하거나 문예창작과 밀접하게 결부된 체험적·직관적 문예비평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사회학적 문예연구는 창작의 사회적 등가물을 찾아내는 데 머무르고, 체험적·직관적 문예비평은 구체적 작품의 이해와 감상을 돕는 부차적 활동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 사회학적 문예연구와 전통적 문예비평의 한계를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게 만든 것은 물론 대외 개방 이후 활발하게 번역, 소개된 서방의 다양한 학술사상과 문예연구·문예비평의 방법이었다. 문예연구의 이론적·방법론적 기초에 대한 관심과 탐구는 확실히 자율적 문예연구의 모색단계에서 나타난 전혀 새로운 현상이었다.

이런 현상과 관련하여 유재복은 이렇게 말했다. “새로운 방법론의 소개와 운용의 목적은 문학 자체의 다방면의 본질적 특징을 더욱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문학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더욱 깊이있게 밝혀냄으로써 문학창작과 문학연구의 번영을 촉진하는 데 있다. 방법론 자체는 결코 목적이 될 수 없지만, 새로운 방법론, 새로운 고찰방법은 우리가 진리에 접근하고, 부정확한 문학관념을 바로잡고, 미지의 영역을 개척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방법론에 대한 관심은 진리에 접근하고자 하는 열정의 표현이다.” 49) 신시기 문예연구의 특징적 경향에 대해 연구자에 따라 각기 다르게 파악하지만, 연구방법의 다양화라는 점에 있어서만은 대부분의 논자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만하다. 그것은 이전의 문예연구가 연구방법의 단일화라는 틀 속에 간혀 방법론적 반성을 결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의 뚜렷한 반증이다.

이론적·방법론적 기초를 갖춘 문예연구·문예비평의 발전과정에 대해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다. “불완전한 통계에 의하면 1979년에 이런 글이 처음으로 대역섯 편 나타났는데, 논술된 바도 피상적인데다 간략한 소개에 치중했다. 1980년

48) 宋耀良, 《十年文學主潮》(上海文藝出版社, 1988), 257쪽.

49) 줄역, <문학연구 사유공간의 확장>, 《中國語文論集》 제7집, 178쪽.

에서 1982년까지 3년 동안 매년 평균 15, 6편 정도가 있었고, 1983년에는 25, 6편 정도에 머물렀다가 1984년에는 60여편으로 폭증했다. 1985년 이후에는 더욱 늘어났을 뿐 아니라, 논술의 각도가 날로 다양해지고 내용 또한 점차 심화되었다.”⁵⁰⁾ 이런 양적인 증가 추세를 통해 방법론적 자각에 기초한 문예연구는 대체로 1984년을 전후하여 활성화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새로운 연구방법에 대한 이해와 자기화에서 구체적 운용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예를 들어 1984년 체계론[系統論]에 입각한 두 편의 논문, <아큐의 성격체계를 논함[論阿Q性格系統]>과 <문학예술의 매력을 논함[論文學藝術的魅力]>을 발표하여 비교적 광범한 주목과 반향을 끌어냈던 임흥택 林興宅의 경우 1980년부터 체계과학 방법론을 주의깊게 학습하기 시작했다고 한다.⁵¹⁾

문예연구·문예비평의 새로운 방법으로는 문예미학·문예심리학·비교문학·구조주의·수용미학·기호학·가치론 미학·이론바 ‘3론(체계론[系統論]·조절론[控制論]·정보론[信息論])’·자연과학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비교적 이른 80년대 초기부터 연구성과를 내기 시작한 것으로는 문예미학·비교문학·문예심리학을 들 수 있고, 84년부터 ‘3론’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퍼지수학·생태학·양자역학·통계학 등과 같은 자연과학을 응용한 문예연구도 84년을 전후하여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기존의 문예연구와 질적으로 판이한 새로운 문예연구의 성과는 문예연구자의 광범한 주목을 끌기 시작했고, 문예연구의 이론적·방법론적 기초에 대한 보편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마침내 “1985년에 이르자 사람들은 과학방법을 소리 높여 외치고, ‘3론’을 소리 높여 외치고, 문학과 과학의 혼인을 소리 높여 외쳤다.”⁵²⁾고 말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론바 ‘방법론의 해’라는 1985년을 기점으로 신시기 문예연구는 또 한 차례의 전환을 맞이한다.

50) 韋實 編著, 《新10年文藝理論討論概觀》(漓江出版社, 1988), 307쪽. 이 책에서 말하는 새로운 문예연구·문예비평의 방법은 체계론·정보론·조절론·구조주의·문예심리학·수용미학을 중심으로 파악한 것이다. 따라서 비교문학 연구성과 같은 것을 포함하면 숫자는 훨씬 늘어날 것이다.

51) 줄역, <문학연구 사유공간의 확장>, 《中國語文論集》 제7집, 204쪽 참조.

52) 宋耀良, 《十年文學主潮》(上海文藝出版社, 1988), 261쪽.

4. 맺음말

이상에서 중국 문예연구의 성격전환을 1980년을 분기점으로 삼아 고찰해 보았다. 1980년 이전에는 신시기의 문예연구가 주로 '문학' 시기와 '17년 시기'의 타율적 문예이론을 청산하고, 자율적 문예연구의 조건을 확보하는 데 힘을 쏟았다. 하지만 이는 정치권력의 '문학' 청산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일이므로, 어쩔 수 없이 사회의 구조적 변동과 당의 정책의 변화에 제약될 수밖에 없었다. 신시기 문예연구는 사상 해방운동의 심화를 가져온 11기 3중전회에서 제4차 문대회에 이르는 기간 동안 이 과제를 완수했다. 그리하여 자율적 문예연구의 조건을 기본적으로 확보하고, 이전 시기 우수한 문예이론을 재발굴·재평가했으며, 현실주의 문예연구의 전통을 회복했다.

1980년 이후 신시기 문예연구는 자율적 문예연구 환경, 새로운 문예창작의 성과, 미학 붐과 주체적 실천철학, 서방의 학술사상, 문예이론의 영향에 힘입어 현실주의적 문예연구와 모더니즘적 문예연구라는 두 가지 경향이 대립적·경쟁적으로 발전하면서 대단히 활기찬 토론과 논쟁의 국면을 연출했다. 이 과정에서 객관주의적·집단주의적·반영론적 미학과 대립되는 주관주의적·개인주의적·표현론적 미학이 확고하게 자리잡았다. 또 한가지 두드러진 특징은 이론적·방법론적 기초를 갖춘 선구적 문예연구가 나타나 문예연구 방법의 다양화 조류를 형성했으며, 1984년을 전후해서는 '3론'을 필두로 전통적·사회학적 문예연구의 수준을 뛰어넘는 연구성과를 드러내면서 문예연구·문예비평계의 광범한 주목을 받았다.

1985년에 이르러 마침내 '방법론 붐'이 일어나고 문예연구에 대한 방법론적 자각이 보편적 관심을 끌기에 이른다. 또 이 해 말에는 신시기에 처음으로 나타난 중국의 독자적인 문예이론이라 할 수 있는 유재복의 <문학의 주체성을 논함>이 발표된다. 이것은 중국 신시기 문예연구가 '방법론적 자각에 기초한 문예연구'라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유력한 표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3론'을 포함한 새로운 방법론에 입각한 문예연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방법론적 자각에 기초한 문예연구'를 논제로 삼아 따로 고찰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朱寨, 《中國當代文學思潮史》, 人民文學出版社, 1987.
2. 李澤厚, 《中國現代思想史論》, 東方出版社, 1987.
3. 李澤厚, 《李澤厚集》, 黑龍江教育出版社, 1988.
4. 陸貴山等 主編, 《中國當代文藝思潮概論》, 人民大學出版社, 1990.
5. 曹文軒, 《中國八十年代文學現象研究》, 北京大學出版社, 1988.
6. 宋燿良, 《十年文學主潮》, 上海文藝出版社, 1988.
7. 韋實 編著, 《新10年文藝理論討論概觀》, 瀋江出版社, 1988.
8. 劉再復, 《文學的反思》, 人民文學出版社, 1988.
9. 허원 옮김, 《정통중국현대사》, 사계절, 1990.
10. 김형종 역, 《중국 현대 사상사의 굴절》, 지식산업사, 1992.
11. 김종수·최건, 《중국당대문학사》, 청년사, 1991.
12. 줄역, <문학연구 사유공간의 확장>, 《中國語文論集》제7집, 釜山·慶南中國語文學會, 1992.

아큐의 성격체계를 논함¹⁾

임 흥 택 지음

김 언 하 옮김

1

아큐형상의 탄생은 그것이 자신을 빗대어 그려낸 것이 아닐까하는 의심이 들게 할 정도로 당시 각 계층의 사람들을 자못 불안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그 후의 연구자들도 상당히 불편하게 만들었다. 《아큐정전 阿Q正傳》이 세상에 나온지 이미 60여년이 지났고, 그것과 관련하여 발표된 평론도 수백 편에 이른다. 하지만 저마다 견해가 어긋나고 입장이 달라서 나름대로의 예리한 통찰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 일치된 판단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아큐정전》에 관한 평론자료를 읽어보면 이런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각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문제에 대한 사고와 분석의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되는 구석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큐는 어떤 성격의 전형인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큐는 품팔이농민[雇農]의 전형이라

1) 이 글은 1984년 1월 《노신연구》에 발표되었던 임흥택 林興宅의 <論阿Q性格系統>을 번역한 것이다. 임흥택은 1980년부터 이른바 '3론'의 하나인 체계론[系統論]을 주의깊게 학습하기 시작했으며, 문학이론 분야에서 체계과학 방법론이 그다지 주목받고 있지 못하던 상황에서 이 글을 발표하여 비교적 광범한 반향과 주목을 끌어낸 장본인이다. 이 글에 대해 유재복 劉再復은 1984년에 발표한 <체계방법을 운용하여 문학형상을 분석한 시도[用系統方法分析文學形象的嘗試]>라는 글에서 "그 속의 어떤 논점은 아무래도 토론할 여지가 있고, 어떤 문제들에 대한 해결은 설득력이 떨어지며(예를 들어 아큐의 성격체계 속에서의 아큐의 주된 성격적 특징인 정신승리법의 지위 문제), 체계방법을 운용하여 형상을 분석한 초보적인 시도라서 이미 완전히 능숙한 경지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내가 느끼기에 이런 정도까지 묘술 描述하는 것 자체도 정말이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평가한 바 있다. 임흥택은 그 후에도 <문학예술의 매력에 논함[論文學藝術的魅力]> 등과 같은 일련의 체계론적 문예연구의 성과를 계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고 인식한다. 그들은 그 근거로 소설 속에서 아큐를 묘사할 때, “보리를 베라면 보리를 베었고, 쌀을 찧으라면 쌀을 찧었고, 배를 저으라면 배를 저었다.”, “아큐는 정말 일을 잘하거든” 따위의 말을 썼다는 사실과 아큐가 혁명을 요구한 단락을 들고 있다. 그들의 분석방법은 상술한 아큐성격의 요소를 아큐성격의 총체 속에서 떼내어 고찰한 것이지, 이들 묘사가 아큐성격의 총체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다른 성격요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하는 따위의 문제는 고려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또 다른 의견은 아큐를 낙후한 농민의 전형으로 여기는 것이다. 그 이유는 아큐의 계급적 지위는 농민에 속하지만, 사상의식은 통치계급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아큐의 낙후와 비각성 非覺醒이 그렇게 만든 것이라고 함으로써 아큐의 전형성은 계급성과 같은 것인가, 아니면 계급성보다 크거나 작은 것인가 하는 논쟁이 일어났다. 이로써 논쟁의 각 측이 모두 아큐라는 이 복잡한 전형을 농민계급의 특징과 다른 계급의 특징, 이 두 부분의 총합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한 의견은 “아큐는 주로 하나의 사상성의 전형이며, 아큐주의 또는 아큐정신의 터전[寄植者]이다. 즉, 이것은 하나의 집합체로서 아큐라는 이 인물의 몸에 각 계급의 각양각색의 아큐주의가 모여진 것이다.”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아큐의 주요한 성격특징인 정신승리법은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열악한 근성이며, 노신은 아큐라는 이 구체적 형상을 이용하여 이런 ‘사상성’을 그려냈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사용한 방법은 아큐 사상행위의 특수한 방식을 아큐의 몸에서 뽑아내어 ‘아큐주의’ 또는 ‘아큐정신’이라는 일종의 사상개념을 만들고, 아울러 이에 근거하여 아큐의 전형성을 인식한 것이 분명하다. 요컨대 상술한 의견들은 모두 아큐의 성격을 고찰할 때, 유기적 총체라는 관념을 결여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그것들은 아큐의 성격을 하나의 유기적 총체, 즉 갖가지 성격요소가 서로 관련되고, 일정한 구조방식에 따라 조직된 변증통일체로 간주하지 않았다. 방법론상에 있어서 그것들의 공통점은 아큐성격의 총체에 대해 기계적 재단 또는 분할을 가한 다음, 각 부분을 가지고 총체를 구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아큐주의의 원천에 관한 문제이다. 어떤 이는 아큐주의는 봉건통치계급의 의식형태이지 농민계급에 고유한 것이 아니며, 농민으로서의 아큐는 봉건통치계급의 사상적 영향을 받았다고 인식한다. 어떤 이는 아큐주의는 두 가지 원천을 지니고 있는데, 봉건통치계급의 영향 외에 농민계급 자신도 아큐주의를 나올 수 있다고 인식한다. 또 어떤 이는 아큐주의는 ‘누구나 조금은 지니고 있는’ ‘인간의 특징’이

며,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 인성人性'이라고 인식한다. 요컨대 아큐주의의 근원 문제에 관해 갖가지 서로 다른 의견이 모두 아큐주의를 복잡한 사회관계 속에 놓고 다각도로 분석하지 않고, 그것의 계급적 근원이라는 측면에 착안하여 아큐성격의 특징을 단순히 사회학의 각도에서 고찰했다. 이것은 일종의 단선적 사유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아큐전형의 의의에 관한 문제이다. 아큐의 그림자는 통치계급의 인물 속에 보편적으로 존재할 뿐 아니라, 피압박계급의 사람들 속에서도 찾을 수 있다. 과거의 시대뿐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아큐와 같은 인물이 존재한다. 중국에 아큐가 있을 뿐 아니라, 외국에도 아큐가 있다. 이런 현상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큐전형의 계급성·시대성 그리고 민족성만 강조하고, 계급·시대·민족을 초월하는 그것의 보편적 의의를 부정했다. 어떤 이는 이런 보편적 의의를 문예감상 속의 유사연상 또는 명칭차용이라고 말하고, 아큐성격과 서로 다른 계급·시대·민족의 독자 사이에는 표면적 형식적 연관만 있을 뿐, 실질적 내용적 연관은 없다고 인식했다. 어떤 이는 이런 현상을 공명 共名이라고 불렀다. 그들이 보기에 아큐성격은 서로 다른 계급·시대 그리고 민족 속에서 사상감정상의 공명 共鳴을 만들어낼 수 없으며, 생활 속에서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는 그런 행위를 하는 인물을 '아큐'라고 부르는 공명 共名현상에 불과하다. 따라서 아큐는 일찌감치 죽었으며, 그것은 예술박물관 속의 조상 雕像일 뿐이다. 여기서 그들이 모두 아큐전형을 폐쇄적이고 정태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정태분석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아큐전형의 의의를 모순운동의 과정, 즉 아큐전형은 계급적이면서 비계급적이고, 시대적이면서 초시대적이고, 민족적이면서 비민족적인 바로 이런 대립통일의 운동이 아큐전형을 영원히 왕성한 생명력을 지니도록 만들었다고 여기지 않는다.

위에서 우리는 아큐전형에 관한 토론 속에서 나온 의견들을 예로 들어 서로 다른 의견 사이의 논쟁이 방법론이란 측면에서 놀라울 만치 비슷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동시에 이들 서로 다른 의견은 논리방법에 있어서도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데, 모두 전통적인 인과관계에 기초한 삼단논법을 사용한다. 즉, 문제를 단선적 인과관계의 사슬 위에 놓고 사고한다. 그들은 아큐성격에 대해 기계적으로 분할하고, 일면적으로 관찰하고, 정태적으로 분석한 다음, 전통적 논리방법을 사용하여 추론하고, 아큐성격의 본질에 대해 판단을 내린다. 상술한 갖가지 의견을 단순화하면 'A가 P이고, P가 B이므로, 따라서 A는 B이다'라는 공통된 논리공식을 추출할 수

있다. 논리방법이 같기 때문에 전제가 다르면 결론 또한 달라지고, 그 전제를 부정하면 결론은 손뼉 것도 없이 스스로 무너진다. 이런 까닭에 ‘안방에 가면 시어미 말이 옳고,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옳은’ 현상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어떤 이는 아큐는 ‘정말 일을 잘하거든’ 하는 구절과 혁명을 요구한 묘사에 근거하여 아큐는 품팔이농민의 전형, 심지어 혁명농민의 전형이라는 결론을 얻어낸다. 하지만 우리는 아주 쉽사리 상반되는 논거를 찾아내 이를 부정할 수 있다. 《아큐정전》은 아큐가 “혁명당은 반란이며, 반란은 그를 난처하게 만든다고 여겼으므로, 줄곧 ‘심히 미워하고 뼈저리게 아파하는’ 지경이었다.”고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아큐가 혁명에 반대한다는 철증 鐵證이 아닌가? 더더욱 재미없는 것은 아큐의 나중의 ‘혁명’은 그 동기가 분명히 권세·재물, 그리고 여자를 차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것은 아큐의 ‘혁명’ 성격에 상당히 추악한 맛을 지니게 만든다. 이렇게 논쟁을 벌이다 보면 당연히 각자가 자신의 입장만 고집할 수 있을 뿐, 일치된 의견을 얻을 수 없다.

아큐성격의 복잡성은 여기에 있다. 즉, 아큐는 피압박자이지만 그의 성격의 핵심은 오히려 소극적이고 부끄러움을 잘 탄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의 계급적 속성과 서로 용납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아큐의 의식과 아큐의 계급적 존재는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며, 아큐의 성격특징이 품팔이농민으로서의 아큐의 본질을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전형이 곧 본질임을 주장하는 논자들에 대한 하나의 도전이다. 다음으로 아큐의 성격특징, 즉 이른바 ‘아큐주의’ 또는 ‘아큐상 阿Q相’은 피착취자인 아큐의 몸에 있을 뿐 아니라, 다른 계급의 구성원에게도 이런 성격특징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아큐의 개성과 아큐의 공성 共性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며, 아큐의 개성적 특징이 아큐의 계급적 공통성을 뛰어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전형성이 곧 계급성이라는 논자들에 대한 하나의 도전이다. 셋째, 아큐형상이 탄생할 때, 중국은 이미 당이 지도하는 현대 민주혁명을 시작했다. 아큐는 피착취·피압박 고농 雇農이고, 노신은 분명 위대한 혁명작가인데 왜 아큐를 그렇게 낙후하고 우스꽝스럽게 그려냈는가? 다시 말해서 아큐의 성격과 그것을 만들어낸 환경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만약 작가를 위해 변호하는 입장에 서려면 아큐의 혁명성을 극구 과장하고, 아큐를 근사하게 치장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아큐는 결코 소극적이고 부끄럼 잘 타는 정신승리법의 주인공이 아니라, ‘혁명적 걱정이 충만한 이상주의자’가 될 것이다. 만약 ‘전형환경 속의 전형성격’이라는 전통적 이해에 따라 요구한다

면, 작가가 농민을 너무 낙후하고 진실되지 못하게 그렸다고 나무라야 할 것이다. 이것은 '전형환경 속의 전형성격'이라는 이론의 면전에 놓인 하나의 딜레마이다.

여기서 아큐같은 이런 복잡한 전형에 대해 전통적 사유방법을 운용하여 처리하는 것은 그다지 신통한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 기계적 분석, 일면적 분석, 정태적 분석 등의 방법은 아큐성격 속에 존재하는 갖가지 모순현상을 원만하게 설명할 수 없다. 우수한 문예비평가인 하기방 何其芳동지조차 생전에 이렇게 한탄할 수밖에 없었다. "아큐성격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이것은 풀기 어려운 문제이다." 이런 까닭에 아큐같은 이런 복잡한 전형을 인식하려면 반드시 사유방법을 한 차례 변혁해야 한다: 유기적 총체라는 관념을 가지고 기계적 총체라는 관념을 대체한다; 다중적 비선형적 연관이라는 사유를 가지고 일면적 단선적 인과관계라는 사유를 대체한다; 동태적 원칙을 가지고 정태적 원칙을 대체한다; 보편적 연관을 중시하는 복잡종합의 방법을 가지고 고립적인 순차분석의 방법을 대체한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아큐의 성격을 하나의 체계(유기적 총체)로서 연구한다는 것인데, 체계 내부의 각종 성격요소의 연관과 그것들이 총체를 구성하는 구조와 총체를 고찰하고, 그것들의 유기적 관련 속에서 아큐성격 자체의 규정성, 즉 그 고유한 본질을 파악한다. 동시에 아큐형상을 사회라는 대체계 속에 놓고 갖가지 측면에서 그것의 체계성질을 고찰한다. 아울러 아큐의 전형이 문예감상 과정에서 시간·공간 그리고 독자의 심미상태 등의 조건이 달라짐에 따라 만들어내는 서로 다른 기능과 의의를 고찰한다. 이렇게 분석한다면 아마 각기 자신의 입장을 고집하는 일면성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2

소설 속에서 아큐는 봉건통치계급에게 깡그리 박탈당한 빈털터리로서 마지막에는 명칭하게 조리돌림을 당하고, 영문도 모른 채 '혁명당'의 칼에 죽고 만다. 아큐는 짧은 30여년의 일생 동안 인간적 불행과 재난을 얼마나 겪었던가! 기가 막힐 정도로 마비된 그의 영혼 속에 인생의 고통과 고초가 얼마나 겹쳤던가! 이런 인물형상은 본래 구중국 농촌무산자의 전형임에 틀림없다. 확실히 경제상황과 사회지위를 가지고 말한다면 아큐는 농촌무산자의 대표라고 불러 마땅하고,누구나 그의 계급성

분표에 '고농'이라는 두 글자를 주저없이 써넣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곧 노신이 한번도 지주 조나으리[趙太爺]들이 아큐를 압박하는 참상을 엄숙하고 비통하게 호소한 적이 없으며, 독자로 하여금 압박에 반항하는 아큐의 영웅담을 엄숙하고 경건하게 경청하도록 만든 적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계급분석방법에 따라 본다면 소설 속의 조나으리를 대표로 하는 지주계급의 잔혹한 압박에 대한 묘사는 확실히 불충분하고 비전형적이며, 농촌무산자로서의 아큐의 계급본질에 대한 형상적 재현 또한 크게 실망스럽다. 만약 우리가 아큐형상의 사회학적 내용에만 근거하여 아큐전형의 성질을 규정한다면 황당하기 짝이 없을 것이다. 또 만약 노신이 당시에 아큐에 대한 사회학적 도해 圖解만 일삼았다면 아큐 또한 불후의 전형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아큐전형의 예술적 역량은 다른 아큐의 몸에 갖추어진 일반적 고농과 다른 그런 특수성에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런 특수성 안에 세계와 인생에 대한 노신의 심오한 철학적 사고가 들어있으며, 작품이 사람의 영혼을 뒤흔드는 미학적 매력이 자리잡고 있다.

그렇다면 특수성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보통과 다른 아큐의 성격특징이다. 우리가 보기에 아큐의 운명은 비참하기 짝이 없지만 그는 오히려 늘 만족스럽게 여긴다. 아큐는 현실 속에서 한 차례 또 한 차례 실패를 거듭하지만 그의 정신 속에서는 한 차례 또 한 차례 승리를 거듭한다. 잡혀서 죽으로 갈 때조차 아큐는 죽음의 공포를 이겨낼 수 있었으며, 스스로 터득한 듯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 "이십년이 지나면 또……" 어찌고 하면서 사람의 영혼을 전율케하는 만족을 나타낸다. 한편으로 현실 속에서는 도처에서 실패하고 온갖 고초를 다 겪으며, 다른 한편으로 환상 속에서는 스스로 속이고, 위로하고, 자부하고, 만족한다. 우리는 소설 속에서 노신이 실제적인 실패, 모욕과 허망한 승리, 자부라는 이 두 측면을 가지고 아큐의 성격을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볼 수 있다. 여기서 처참과 만족, 실패와 승리는 강렬한 대비를 이룬다. 물질과 정신, 현실과 환상은 첨예하게 대립한다. 비극과 희극, 눈물과 웃음은 고도로 융합되어 있다. 그것들은 거대한 정감충격파를 만들면서 독자의 영혼을 두드린다. 뿐만 아니라 아큐가 정신적 승리를 거둘수록, 독자는 더욱 비애를 느낀다. 아큐가 만족을 느낄수록, 독자는 더욱 고통을 느낀다. 이 얼마나 기이한 매력인가! 노신이 어디에서 고농의 전형을 빚어냈는가? 분명한 것은 생활의 희비극의 진실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작가는 고통스런 심사숙고로부터 웃음을 터뜨리고, 독자는 웃음으로 부터 고통스런 심사숙고로 빠져든다. 아큐성격

의 본질은 바로 이 특수한 모순통일체 속에 존재하지 않을까?

과거에 사람들은 늘 아큐의 성격특징을 한 가지, 즉 정신승리법으로 귀결시켰다. 따라서 ‘정신승리법’은 거의 아큐성격의 대명사가 되다시피 했다. 이것은 물론 노신이 아큐의 사상행위방식의 표면적 특징을 대단히 생동적이고 두드러지게 묘사하여 사람들에게 남겨준 인상이 아주 심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일 정신승리법이 아큐의 전체성격내용이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문제를 단순화시키는 것이다. 비록 정신승리법이 아큐의 사상행위방식의 현저한 특징이라 할지라도 이 한 가지 특징의 개괄을 가지고 아큐성격의 복잡성에 대한 연구를 대신할 수 없다. 체계론의 관점을 가지고 볼 때, 아큐의 성격은 하나의 복잡한 체계이다. 그것은 각종 성격요소가 일정한 구조방식에 따라 조직된 유기적 총체이다. 이른바 성격요소란 아큐의 전체 사상행위방식이 표현된 성격내용이며, 그것은 인물의 개성적 특징을 구성하는 인격자질이다. 그렇다면 아큐성격의 기본원소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는 그 주된 것으로 아래의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소박하고 어리석지만[質朴愚昧] 또 난폭하고 교활하다[圓滑無賴]. 아큐는 노동력을 내다 팔아서 살아가며, 무지몽매하게 지낸다. 거의 본능에 의지하여 노동하고 생활한다. 하지만 한편으로 아큐는 또 교활하고 난폭함을 드러낸다. “말을 더듬으면 그는 곧 욕설을 퍼부었고, 힘이 약하면 그는 곧 주먹을 휘둘렀다.” 그는 비구니질의 무를 흠치다가 여승에게 들키자 뻔뻔스럽게 생떼를 쓰면서 이렇게 부인한다. “이놈(무-역자)에게 대답하게(네것이 툴림없다고-역자) 할 수 있어?” 자못 임기응변에 뛰어난 ‘미꾸라지수법[圓機活法]’이다.

솔직하고 제멋대로 굴지만[率眞任性] 또 정통을 찾고 도학자연한다[正統衛道]. 아큐는 생계가 막히자 약탈에 끼여들었으며, 미장 未莊으로 돌아온 후 그런 사실을 조금도 꾸밈없이 귀여울 만치 솔직하게 털어냈다. 그는 생리적 본능적 욕구에 따라 먹을 것을 찾고 사랑을 찾을 때는 전통적 도덕규범의 속박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그의 사상은 한결같이 성현의 경전에 부합되고, 남녀의 구별을 엄수하여 도학자티가 넘쳐흐른다.

스스로 대단하다고 여기지만[自尊自大] 또 스스로 경멸한다[自輕自賤]. 미장의 모든 주민들은 아큐의 안중에 없으며, 조나으리나 전 錢나으리에 대해서도 그다지 존경을 나타내지 않는다. 그의 명언은 이렇다. “우리도 전에는--너희보다 훨씬 대단했어! 네깻놈이 다 뭐야!” 거의 오만할 정도로 자부가 대단하다. 하지만 다른 측

면에서 아큐는 스스로 경멸하는 데 뛰어나다. 싸움에 지고나면 곧 순순히 스스로 벌레라고 인정하면서 용서를 구한다. 노름에서 판 돈을 빼앗겼을 때, 뜻밖에 자신의 뺨을 때리며 자학의 수단을 사용하여 실패의 고통을 달랜다.

남에게 지고는 못살지만[爭強好勝] 또 모욕을 달게 받는다[忍辱屈從]. 아큐는 체면을 상당히 중시하여 어디서나 남에게 지고는 못산다. 이런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심리는 심지어 다른 사람과 추악함을 다투는 황당한 지경까지 이른다. 하지만 한편으로 아큐는 어디서나 모욕을 잘 견딘다. 그는 압박과 능욕을 마음껏 받고도 오히려 말없이 참고 견딘다. 조나우리가 그더러 성을 조씨라고 하지 못하게 하면서 그의 뺨을 때렸을 때도 그는 조금도 항변하지 않았다. 지보 地保가 그를 한 차례 혼계하자 그는 또 2백문 文의 술값을 바치며 사죄했다. 그가 오어멈[吳馬]에게 구애했을 때, 조나우리가 그걸 빌미로 아큐를 두들기고, 그의 노동과 생활의 권리를 박탈했지만, 그는 여전히 반항의 표시를 하지 않았다.

대단히 보수적이지만[狹隘保守] 또 맹목적으로 시세를 따른다[盲目趨時]. 아큐는 스스로 식견이 높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편협하다. 무릇 미장의 관습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는 모두 잘못된 것으로 생각한다. 아큐의 논리에 따르면 존재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이며, 어떤 변혁도 허용할 수 없고, 오직 조상전래의 규범만이 숭상할 가치가 있다. 하지만 아큐는 시세를 좇아가는 데 뛰어나다. 읍내에 한 번 나갔다오면 곧 시골사람은 세상물정을 모른다고 비웃고, 읍내에는 조무래기들조차 '마작을 놀' 줄 안다고 자랑한다. 혁명당이 읍내에 들어와 미장 사람들 가운데 변발을 머리 위에 틀어 올리는 사람이 점차 늘어나는 것을 보자 그도 이를 본떠서 그렇게 한다.

이단을 배척하지만[排斥異端] 또 혁명을 지향한다[向往革命]. 아큐는 이단을 배척하는 기상이 넘친다. 어린 여승은 유교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그가 배척하는 대상이다. 가짜양놈은 양학당에 들어가고 긴 변발을 잘랐으므로 물론 이단이다. 따라서 그가 가장 혐오하는 한 사람이 되었다. 그는 반란에 대해서도 심히 미워하고 뼈저리게 아파한다. 하지만 뒤에 혁명이 일어나자 그도 역시 이것은 사형죄에 해당하며, 최대의 이단임을 알고 있었지만, 혁명이 자신에게 유리함을 발견하고 혁명을 하고 싶어하며, 심지어 그가 가장 혐오하는 가짜양놈에게 의지하러 가는 것조차 꺼리지 않는다.

권세를 혐오하지만[憎惡權勢] 또 권세에 아부한다[趨炎附勢]. 아큐는 업신여김을 당하고 나면 화가 나서 불평을 터뜨리고, 그를 압박한 세도가 조나우리들에 대해

가슴속에 원한을 품는다. 그래서 반항하고 복수할 기회만 온다면 그는 매정하게 복수할 것이다. 이런 까닭에 혁명의 거센 물결이 덮쳐와 조나오리들이 허둥대는 모습을 보자 그는 대단히 즐거워한다. 하지만 조나오리의 권세가 대단할 때는 또 그에게 빌붙고 싶어한다. 그는 언제나 조씨집안과 관계를 맺고, 조나오리의 권세를 빌어 자신의 지위를 높이고 싶어한다.

포악하지만[蠻橫霸道] 또 비겁하다[柔弱卑怯]. 아큐는 상대가 자신보다 약하면 기만하고 강하면 두려워한다. 그는 약자 앞에서 한없이 포악하다. 그는 왕털보[王胡]에게 싸워서 지고, 가짜양놈의 곡상봉 哭喪棒에 언어맞았을 때, 까닭없이 어린 여승에게 분풀이한다. 그는 조나오리의 박해를 받아 생계가 막막해지자 곧 꼬맹이 디[小D]에게 불만을 터뜨린다. 혁명이 일어나자 그는 꼬맹이 디가 혁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들 약자 앞에서 아큐는 조나오리처럼 위풍당당하다. 하지만 강자 앞에서 그는 비겁하기 짝이 없다. 조나오리와 가짜양놈에 대해서는 욕설을 들어도 입도 병긋 못하고, 두들겨 맞아도 손도 꿈쩍못한다. 현의 법정에서 잡혀갔을 때는 그의 무릎관절이 저도 모르게 풀려서 꿇어앉아버린다.

금기에 민감하지만[敏感禁忌] 또 건망증이 유별나다[麻木健忘]. 아큐는 자신의 약점에 대해 신경이 지나치게 민감하다. 머리 위의 흉터는 그의 금기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이 금기를 범하면 노발대발하지만, 한편으로 실제적인 굴욕에 대해서는 건망증이 극심하다. 구애사건으로 조수재 秀才에게 대나무 방망이로 흠뻑 두들겨 맞은 직후에 곧 그 사실을 잊어버린 채 구경거리를 보러 간다. 마지막에 파총 把總에게 붙들려 감옥에 들어가고, 사형을 언도받았으나 그는 여전히 죽음이 눈앞에 다가온 줄 모른 채 동그라미를 동그랗게 그리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조리들림을 당할 때에도 여전히 구경꾼의 갈채를 받을 궁리만 한다. 정말이지 기가 막힌 무감각이다.

현실에 불만을 느끼지만[不滿現狀] 또 현실에 안주한다[安於現狀]. 아큐는 업신여김을 당하여 불평을 터뜨릴 때면 늘 이렇게 말한다. “요즘 세상은 정말이지 되먹지 않았어. 아들이 아버지를 때리질 않나.” 뿐만 아니라 그도 자신의 처지를 바꾸고 싶어한다. 혁명에 대한 환상은 아큐가 자신의 처지를 바꾸려는 강렬한 소망이다. 하지만 그는 실제로는 여전히 현실에 안주하며, 조나오리들의 계산과 박해를 내버려둔 채 어떤 일을 당해도 태연하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게 되자 그는 운명을 가지고 자신을 위로한다. 사람이 세상살이를 하자면 본래 어떤 때는 붙들려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며, 거리를 돌면서 조리돌림도 당하고, 어떤 때는 죽음을 맞기도 하는 것이다라고 여긴다. 이리하여 마음이 풀어지면서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게 된다.

이상은 아큐성격의 총체를 구성하는 기본요소이다. 이들 성격요소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아큐의 성격은 모순으로 충만해 있으며, 각종 성격요소는 각기 한조씩 대립통일의 연관을 이루고 있으며, 그것들은 또 복잡한 성격계열을 이루고 있다. 이 성격계열의 두드러진 특징은 이중성, 즉 이중인격이다. 자아환상 속의 아큐와 실제존재로서의 아큐는 거의 두 사람인 것같고, 서로 용납할 수 없는 두 종류의 인격인 것같다. 하지만 그것들은 또 기묘하게 통일되어 있다. 바로 각종 성격요소의 조화롭지 못한 대비가 아큐성격이 농후한 골계적 의미를 지니도록 만들었다. 아큐의 본성은 그가 처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존에 적합한 것이 아니었다. 이런 까닭에 그의 자아는 분열이 일어나고, 이중인격이 만들어진다. 진정한 자아는 내면으로 물러나고, 현실을 도피하려는 허망한 환상 속에 깊이 잠들어 있다. 보통 표현되는 것은 인격의 다른 측면, 즉 봉건사회에 의해 엄중하게 비틀린 자아이다. 그것은 자유의지를 상실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이며, 열악한 환경에 적응하여 개체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분명히 이중인격은 자아에 대한 소극적 보호이자 열악한 환경에 대한 고통스런 적응이다. 그러므로 한편으로 내면으로 물러나고, 다른 한편으로 의지를 말살한다. 전자는 사실 환경에 반항하는 변태적 반응이며, 자신의 심리적 갈등을 해결하여 심리적 평형에 도달하기 위한 것이다. 후자는 환경에 적응하는 변태적 반응이며, 개인과 환경의 첨예한 충돌을 해결하여 개인과 환경의 평형에 도달하기 위한 것이다. 요컨대 아큐의 이중인격은 실제로 한편으로 내면으로 물러나 환상에 빠져 자아를 보존하고, 다른 한편으로 의지를 말살하고 환경에 적응하여 개체의 생존을 보존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이런 까닭에 아큐성격의 이중적 특징으로 인하여 생긴 두 가지 특징은 내면회귀[退回內心]와 자유의지 상실이다. 이 세 가지 특징은 상호인과적으로 아큐성격의 복잡성을 구성한다. 각종 성격요소는 이중인격·내면회귀·자유의지 상실이라는 이 세 가지 특징과 연계되어 하나의 성격총체를 구성한다. 아큐성격의 복잡한 구조를 더욱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 하나의 도표로 만들어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중 인 격

내 면 회 귀	소박하고 어리석음	난폭하고 교활함	의 지 말 살
	솔직하고 제멋대로임	정통을 찾고 도학자연함	
	스스로 자랑함	스스로 경멸함	
	남에게 지고는 못살	모욕을 달게 받음	
	대단히 보수적임	맹목적으로 시세를 좇음	
	이단을 배척함	혁명을 지향함	
	권세를 혐오함	권세에 아부함	
	포악하기 짝이 없음	한없이 비겁함	
	금기에 민감함	건망증이 유별남	
	현실에 불만임	현실에 안주함	

이 중 인 격

그렇다면 아큐성격의 이 복잡한 구조의 성질은 무엇인가? 이것은 반드시 아큐성격의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분석해야 한다. 노신은 노예는 두 가지 신분을 지니는데, 주인 앞에서는 노예이고, 자기보다 지위가 한 등급 더 낮은 노예 앞에서는 폭군이라고 인식했다. 봉건전제사회 속에서 절대적 주인인 황제와 절대적 노예인 최하층인민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이중신분·이중인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노예노릇도 배우고 주인노릇도 배운다. 설사 황제라 할지라도 때로는 이민족 통치자의 노예노릇을 하지 않을 수 없고, 하층인민도 때로는 자신의 아내나 아이들 앞에서 폭군노릇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봉건전제사회 속에서는 일종의 보편적 심리현상이다.

내면회귀와 관련하여 엥겔스는 초기 기독교의 발생을 논술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현실은 고통스럽고 미래는 더욱 막막하다. 어떤 출로도 보이지 않는다……하지만 각 계급 속에는 물질적 해방에 대해 절망하여 그것을 대체할 정신적 해방을 추구하며, 사상적 위안을 추구함으로써 완전한 절망적 처지를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말할 필요도 없이 이런 사상적 위안을 추구하여 외재세계에서 내면세계로 달아나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반드시 노예이다.”²⁾ 이 말은 비록 기독교의 발생원인에 대한 분석에 지나지 않지만, 현실도피와 내면회귀가 노예의 기본자질이라는 사실을 설명해줄 수 있다.

이밖에 자유의지가 없다는 것도 노예의 특징이다. 엥겔스는 이렇게 말했다. “자산계급의 난폭하고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대우로 인하여 노동자는 점차 물과 같이 자신의 의지가 없는 물질로 바뀐다. 아울러 필연적으로 자연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마침내 어떤 지점에 이르면 그의 모든 행위는 비자주적으로 변한다.”³⁾ 이 말은 극단적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최하층에 놓여있는 사람이 자신의 의지를 상실하게 되는 필연성을 밝혀준다. 엥겔스는 영국 노동자의 상황을 논술할 때 그들을 또 ‘각양각색의 복잡다단한 상황 속에 놓여있는 자유의지가 없는 물체’라고 불렀다. 정말이지 스피노자가 말한 것처럼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의 생각에 따라 생활한다. 다른 사람이 보통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이 보통 꺼리는 것을 꺼린다.” 아큐는 바로 이런 ‘물체’가 아닌가? 이상에서 아큐성격의 세 가지 특징은 다름아닌 나약하고 어리석은 국민이 처한 열악한 환경과 굴욕적 지위 때문에 생겨난 것이며, 압박받고 능욕당하는 하층인민 속에서 나온 것이며, 전제주의체도가 조성

2) 《마르크스엥겔스전집》 19권, 333쪽.

3) 《마르크스엥겔스전집》 2권, 416쪽.

한 국민의 변태적 심리와 소외된 인성이자 통치계급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아큐성격의 이 세 가지 특징은 바로 노예근성의 세 가지 전형적 표현이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아큐성격을 반드시 노예성격으로 규정해야 한다. 그런데 통치계급의 구성원도 좌절과 실패에 직면하거나 이민족의 침입으로 다른 통치자의 노예가 되었을 때는 아큐와 비슷한 성격특징이 나타날 수 있다.

이로써 노신은 《아큐정전》 속에서 고농의 전형을 빚어내지도 착취계급의 그림을 그리려고도 하지 않았으며, 추상적인 인류의 본성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은 더욱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노신은 역사적이고도 구체적으로 국민의 영혼-노예근성[奴性心理]을 생동적으로 그려냄으로써 민중을 각성시키려고 했다.

아큐성격의 세 가지 기본특징은 아큐의 인식·정감·의지 등의 심리내용을 개괄함으로써 노예근성의 전형적 형식을 제공했다. 이런 까닭에 노예근성의 전형적 형식으로서의 아큐성격은 거대한 개괄력을 지니고 있는데, 이것은 아큐형상이 계급·시대·민족을 초월하는 보편적 의의를 지니는 정보적 기초이다. 다시 말해서 아큐형상은 서로 다른 계급, 서로 다른 시대 그리고 서로 다른 민족의 독자에게 모두 노예근성의 특징적 정보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기초가 없다면 서로 다른 계급, 시대 그리고 민족의 독자는 생소함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노예근성의 전형적 형식은 또 신해혁명을 전후하여 미장에 살았던 떠돌이 고농 아큐, 바로 '이인물'의 몸에 체현되어 있으므로, 선명한 계급적·시대적·민족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아큐의 많은 구체적 행동방식은 압박을 받을대로 받은 농촌의 떠돌이 고농에게서만 나타날 수 있고, 소농경제 위주의 낙후하고 폐쇄적인 농촌 속에서만 나타날 수 있으며, 아큐식의 '혁명'과 '대단원'은 모두 신해혁명의 산물이다. 다른 계급, 시대 그리고 민족의 구성원 속에서라면 노예근성은 이와 다른 행동방식을 지닐 것이다. 요컨대 아큐의 성격은 노예근성의 전형이며, 이 전형은 노예근성의 전형적 형식과 특정한 계급, 시대 그리고 민족의 내포의 변증법적 통일체이다. 이것이 바로 아큐성격의 자연적 본질 [自然質], 즉 그 자신의 고유한 본질이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아큐의 성격은 하나의 복잡한 총체임을 알 수 있다. 이 총체 속에서 갖가지 성격요소는 특징적 연계를 통해 하나의 복잡한 그물구조를 이룬다. 그것들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분할할 수 없으며, 노예근성의 전형이란 이 자연적 본질에 의해 제어되고 있다. 만일 어떤 성격요소를 이 그물구조 속에서 분리하여 고립적으로 관찰한다면 그것은 곧 원래의 의미를 상실하고 새로운 의미를 지닐 것

이다. 어떤 성격요소를 고립적으로 관찰한다면 아큐성격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3

아큐성격의 자연적 본질은 노예근성의 전형인데, 이것은 작가가 빚어낸 형상이란 각도만 가지고 볼 때 그렇다는 것이다. 실제로 예술형상은 독자의 감상과정 속에서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것이고, 작가와 독자가 공동으로 창조하는 것이다. 동일한 예술형상일지라도 독자가 다르면 전혀 다른 새로운 기능과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이런 까닭에 예술형상의 본질은 결코 정지되고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문예감상 속에서 부단히 변화하며, 시간·장소 그리고 독자가 달라짐에 따라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다. 예술형상이 감상과정 속에서 독자의 재창조를 거쳐 만들어지는 새로운 본질적 의미를 기능적 본질[功能質]이라 한다. 우리가 아큐의 성격을 인식하고자 한다면, 그 자연적 본질에 대한 인식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 기능적 본질까지 고찰해야 한다.

그렇다면 아큐성격의 기능적 본질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답하려면 반드시 문예감상 속의 갖가지 상관요소를 고려해야 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복잡한 문제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현상들을 해석해야 한다. 즉, 왜 아큐란 전형의 출현이 당시의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욕하고 있는게 아닐까하는 생각을 들게 했는가, 또 왜 오늘날의 독자도 보고난 후에 여전히 생활 속에서 아큐의 그림자를 찾을 수 있는가, 나아가 왜 중국에 아큐가 있을 뿐 아니라 외국에도 아큐가 있으며, 외국의 독자들도 아큐에게서 자신의 투영을 찾을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다. 이로써 우리는 아큐란 전형의 출현은 일정한 역사적 배경을 지니고 있지만, 그 의미는 특정한 시간과 지역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큐의 성격은 시간과 지역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기능적 본질을 지니는데, 이런 기능적 본질은 주로 다음의 세 가지 측면을 지니고 있다.

첫째, 아큐란 전형이 탄생한 그 시대에 아큐의 성격은 반봉건 반식민지 구중국의 패배주의 사조의 상징이다. 청말 이래 제국주의의 부단한 침입으로 중국인은 잇달아 패전의 치욕을 당하고, 점차 반봉건 반식민지의 기형적 사회로 전락했다. 통치자는

국내 인민 앞에서는 여전히 폭군이었지만, 제국주의 앞에서는 노예가 되었다. 이리하여 통치계층 속에 패배주의 정서가 만연했다. 그들은 강대한 제국주의 앞에서 저항할 힘을 잃고, 모욕을 참고 압박을 견디며 비굴한 모습으로 배상금을 지불하고, 영토를 할양하고, 주권을 내다 팔며, 어떤 굴욕도 묵묵히 감수했다. 하지만 한편으로 기꺼이 실패와 패배를 인정하고, 그릇된 정치를 개혁하여 자강을 도모하는 대신 현실을 도피하여 정신적인 위안과 해탈을 추구했다. 그들은 오랜 전통을 지닌 문화대국임을 자랑하며 외국인을 멸시하고, 말끝마다 그들을 오랑캐라고 불렀다. 노신이 일본에 유학할 때, 중국유학생들은 자신이 패전국의 국민임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중국이 대단한 정신문명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며 일본인을 안중에도 두지 않았다. 어떤 때는 정신적 위안을 추구하여 “아득한 옛날로 돌아가, 그 때 운수대통하지 않았다면 이 섬나라는 벌써 우리에게 멸망당했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것은 일종의 가소로운 변태심리이다. 뺏속까지 소극적 패배주의에 젖어있으면서 오히려 정신적 위안을 추구하므로 스스로 자랑하고 오만해하는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다. 낡아빠진 중화제국이 말로에 이르렀을 때 나타나는 이런 패배주의 정서는 몰락한 집안의 자제의 심리적 특징과 유사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흥성과 쇠락의 과정을 거쳤고, 뽐낼만한 역사를 지니고 있으므로 일단 몰락한 다음에는 반드시 과거에 연연하고, 역사를 자랑하는 쪽으로 나아간다. 패배주의 정서는 통치계층 속에 심각하게 존재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다른 계층도 오염시켜 일종의 보편적으로 유행하는 사회사조가 되었다. 그런데 아큐가 굴욕에 직면해서 사용하는 정신승리법은 이런 사회사조와 얼마나 닮았는가, 아큐의 성격은 영락없는 이런 패배주의 사조의 본보기이다. 당시의 사람들이 《아큐정전》을 읽을 때, 이 본보기로부터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갖가지 패배주의의 표현형태를 연상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며, 아큐성격의 특정한 계급적 내포는 독자의 심미지각 속에서 잠시 억제된다. 아큐의 성격은 문예감상 속에서 당시의 패배주의 사회사조의 상징으로 개조된다. 그러므로 아큐가 비록 농촌의 떠돌이 고농 아큐에 불과할지라도, 아큐의 성격은 그의 계급적 귀속을 뛰어넘어 당시 사회의 각 계층 사람의 정신상태를 비추는 거울이 된 것이다.

둘째, 중국의 독자에게 있어서 아큐의 성격은 중국민족의 열악한 국민성의 상징이다. 중국민족은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민족이지만, 또 심각한 재난을 겪어온 민족이다. 그는 오랫동안 봉건적 전제주의의 지배아래 놓여있었다. 전제의 반대쪽 얼굴

은 노예이다. 황제 아래의 각급 관리는 모두 크고 작은 노예이고, 하층인민은 말할 것도 없이 노예이다. 전제정치와 주요 특징은 공포인데,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노예 근성을 배양하는 토양임에 틀림없다. 게다가 외족의 끊임없는 침입으로 한족漢族은 역사상 여러번 이민족 통치자의 노예로 전락했는데, 한족은 실사 통치자라 할지라도 노예로 바뀌는 것을 면할 수 없었다. 노신은 이렇게 뼈아프게 느꼈다. 중국 역사에는 두 가지 시대만 있었는데, 하나는 잠시 안정되게 노예노릇을 하던 시대이고, 하나는 노예가 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던 시대이다. 바로 이 때문에 노예근성은 중국민족의 골수와 영혼까지 파고든 것이다.

노신은 자각적으로 아큐의 형상을 통해 중국국민의 영혼을 그려냈다. 이 창작의도는 많은 곳에서 분명히 말했었다. 우리는 노신이 이런 창작의도를 만족스럽게 실현했으며, 확실히 《아큐정전》은 중국민족의 영혼사人心史가 되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물론 중국민족의 열악한 근성은 갖가지 표현형식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은 아큐의 형상에 비해 훨씬 풍부할 것이다. 하지만 노신은 더할나위 없이 깊은 안목과 가장 침예하고 선명한 형식으로 노예근성의 전형적 특징을 재현했다. 이런 까닭에 그것은 극도로 광범한 개괄성 갖추고서 여러 세대의 독자들이 아큐의 형상 속에서 중국민족의 가련하고도 부끄러운 영혼의 역사를 인식하고, 놀랍게도 자신의 열악한 근성을 발견한 나머지 자신의 영혼을 개조하고자 뼈아프게 결심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현실생활 속에서 때와 곳을 가리지 않고 아큐들을 찾을 수 있다. 아큐의 갖가지 성격요소는 바로 열악한 국민성의 다채로운 표현이며, 아큐의 성격은 열악한 국민성의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열악한 국민성은 구중국에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에게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서로 다른 시대의 독자가 아큐의 성격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갖가지 면목과 인간의 갖가지 세태를 연상해내고 마음속으로 공명할 수 있는 것이다. 아큐의 형상은 각 시대의 독자의 심미재창조 속에서 열악한 국민성의 상징물이 된다. 그리하여 아큐의 형상에 고유한 특정 계급, 특정 시대의 내포는 독자의 심미적 주의의 중심에서 밀려난다. 바로 문예감상의 심미재창조로 말미암아 아큐의 성격은 특정 시대의 귀속을 뛰어넘어 서로 다른 시대의 공통적인 거울이 된다. 열악한 국민성의 상징으로서의 아큐의 성격, 이것은 문예감상 속에서 얻어진 두번째 기능적 본질이다.

중국인은 아큐를 잘 안다. 아큐가 중국사회에서 생활했고, 국민의 마음속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외국인도 아큐를 잘 알고 있으며, 아큐의 형상은 국경을 넘어 다른 민족의 인민 속에서도 공명을 자아낸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이런 현상은 또 다른 층차의 문제인데, 이 층차에서 아큐의 성격은 인류의 '전사시대 前史時代'의 세계황당성의 상징이 된다. 각 민족의 독자는 모두 아큐의 형상에서 이런 황당성을 발견하고 따라서 공명을 일으킨다.

마르크스·엔겔스는 공산주의 이전의 사회를 인류의 전사시대라고 불렀는데, 인류의 정사시대 正史時代는 공산주의가 실현된 날에야 비로소 첫 페이지를 넘긴다. 인류의 전사시대는 일종의 불합리하고, 인성에 부합되지 않는 시대이며, 따라서 기형적·병태적 사회이기도 하므로 그것의 존재는 황당성을 지니고 있다.

우선, 생산력의 저하와 생산관계의 불합리로 말미암아 환경에 대한 인간의 의존성이 아주 크므로 자연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자신의 운명을 주재할 방법이 없다. 그리고 환경이 열악하여 인간의 생존에 불리하므로 생존과 환경의 분열, 즉 인류 생존의 수요가 흔히 객관환경과 조화되지 못하는 상태가 생겨난다. 인류는 일시적으로 이런 부조화 상태를 바꾸어낼 방법이 없지만 기꺼이 굴복하려 하지 않고 언제나 심리적 평형을 얻기를 바란다. 이런 까닭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기만과 자기위안 속에서 이런 분열의 고통을 벗어나 주관감각의 조화와 일시적인 심리적 평형을 획득한다.

다음, 물질의 부족과 재부의 사적 소유제로 말미암아 대다수의 사람들은 빈궁한 처지에 놓여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물질적 측면의 욕망에 대한 보상을 정신적 측면에서 찾는다. 성경에서 말하듯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데 반하여 가난한 사람은 힘 안들이고 거들먹거리며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은 일종의 허위적 평형을 만들어준다. 즉, 부자는 현세에 즐거움을 누리고 내세에 괴로움을 당하며, 가난한 사람은 현세에 고난을 당하지만 사후에는 천당에 오른다. 이런 까닭에 어떤 사람들은 기꺼이 실제의 행복을 다른 사람이 누리도록 쥐버리고 자신은 그저 아득한 환상 속에서 만족을 느끼며, 정신과 물질의 분열을 만든다.

셋째, 사회가 계급지배의 형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인성과 사회의 분열을 만든다. 인성의 기본적 특징은 자각과 자유이지만, 계급지배의 사회가 강조하는 것은 계급의 의지에 대한 복종과 지배계급의 이익을 수호하는 갖가지 규범에 대한 준수이

다. 따라서 인간본질의 소외와 인류의지의 비자주성이 빚어지며, 사회는 인간의 발전의 대립물이 된다.

넷째, 계급사회에서 계급의식은 인간의 인식능력을 제약하고 있다. 계급의 분화는 본래 인간의 본질이 소외된 결과이며, 인류발전의 불행이다. 하지만 계급의식은 인류의 인식능력을 한 계급의 공리적 관점과 입장 위에 고착시킨 채, 인류세계의 기형적 현상을 본질로 간주하며 인간의 최고의 본질을 무시한다. 따라서 계급사회에서는 계급의 편견으로 말미암아 정상이 흔히 비정상으로 간주되고, 비정상이 오히려 정상으로 간주되며, 본질계와 현상계가 늘 어긋난다. 이밖에 또 감성과 이성의 분열이 있다. 이것은 사유제사회의 도덕이 초감성적 절대이성의 의지영역이며, 그것이 인간의 감성적 욕구에 대한 억압 또는 희생의 기초 위에 세워진 일종의 자연적 인간에 반하는 역량이기 때문이다. 인류의 전사시대의 도덕은 모두 비인간화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봉건사회의 도덕원칙인 ‘삼강오륜’은 바로 인성박탈의 전형이다. 무수한 충신과 의사, 열부와 열녀가 도달한 도덕적 경지는 거의 모든 감성적 욕구, 심지어 생명에 대한 희생을 그 대가로 삼았다. 이런 까닭에 사유제사회에서는 도덕적 역량의 통제로 인하여 감성적 존재로서의 사람과 이성적 존재로서의 사람이 분열되었다. 이 모든 것은 인류의 전사시대의 세계황당성의 표현들이다.

노신이 그런 아큐의 성격은 이런 황당성을 충분히 표현했다. 앞서 말했듯 아큐성격의 기본적 특징은 이중인격·내면회귀 그리고 자유의지 상실이다. 아큐의 이중인격은 두 가지 측면으로 뚜렷이 드러난다. 하나는 객관적으로 도처에서 실패를 거듭하지만 주관적으로 늘 승리하며, 물질적 측면에서 완전한 빈털터리지만 정신적 측면에서 스스로 만족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사상적으로 성현의 경전을 따르고 종법을 받들면서 이단을 배척하는 정기가 넘치지만, 행동할 때는 늘 규범을 위반한다. 이 두 측면은 황당한 세계의 두 가지 분열, 즉 정신과 물질의 분열 그리고 감성과 이성의 분열을 잘 드러내준다. 우리는 아큐의 그 명언-“우리도 전에는 너보다 훨씬 대단했어! 네간놈이 다 뭐야!”, “우리 아들은 훨씬 대단할 걸!”-을 들으면, 곧 아큐의 주관과 객관, 정신과 물질의 심각한 배치를 발견하게 된다. 아큐는 남녀간의 금기에 대해 줄곧 아주 엄격했지만, 자신은 여자의 허벅지를 몰래 더듬고, 오어머에게 애정을 호소한다. 아큐는 정신승리법을 잘 운용하지만 뱃가죽이 오그라들 정도로 굶고 난 다음 정신승리법도 소용이 없게 되자 이런 네미랄 흠치러 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읍내에 나가 약탈에 참여한다. 아큐는 이단을 배척하는 정기가 넘치지만, 혁명이 자신에게 실제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판단이 들자 혁명당에 들어가려고 안달을 한다. 아큐의 남녀간의 금기, 정신승리법 그리고 이단 배척 따위는 그의 이성세계의 관념이고, 그의 구애, 먹거리 찾기, 혁명은 그의 감성세계의 욕구이다. 그것들은 아큐에게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세계황당성의 표현이다. 아큐의 내면회귀의 성격적 특징 또한 병태사회의 인간의 생존과 환경의 분열의 반영이다. 아큐의 내면회귀의 구체적 표현은 이렇다. 마음속으로 지어낸 환영 속에서 자아도취에 빠지고, 망각을 빌어 정신적 고통을 벗어나며, 숙명론을 가지고 스스로 위안한다. 요컨대 그는 잔혹한 현실의 면전에서 자아의 작은 우주 속으로 숨어들어간다. 이것은 각성하지 못하고 진취적 정신도 없는 약자의 어찌할 수 없는 선택이자 열악한 환경에 적응하는 비법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큐가 환경을 변혁하는 투쟁(당시의역사적 조건 아래에서 이런 투쟁은 실패로 끝날 수 밖에 없다.)에 참여하는 것을 제외한다면, 이런 비법을 운용하지 않고서는 아예 살아나갈 수 없었을 것이다. 어지러운 혼돈 속에서 그러저럭 살아가지 않는다면 맑게 갠 고통 속에서 죽을 것이다. 이밖에 제3의 길이 있을 수 있는가? 수천수백년 동안 고난에 익숙한 인민은 바로 이런 자기위안의 수단을 사용하여 개체의 생존을 유지했던 것이다! 세상의 쓴맛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틀림 없이 깊은 생각 끝에 아큐에 대한 즐거운 웃음을 고통스런 웃음으로 바꿀 것이다. 이로써 아큐가 내면으로 달아난 소극적 도피가 다름 아닌 생존과 환경의 첨예한 충돌을 완화시키려는 노력임을 알 수 있다. 생존과 환경이 분열된 황당성이 바로 죄악의 근원이다. 다른 한편 아큐의 자유의지 상실은 인성과 사회의 분열이 만든 것이다. 소설에서 분명하게 그리고 있듯이 아큐는 인성의 모든 요구를 지니고 있다. 그는 생활하고, 노동하고자 하며 또 애정도 필요로 한다. 그는 인간의 모든 감정과 욕구를 다 지니고 있다. 하지만 아큐는 미장사회에서 결코 진정한 인간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도구와 장난감으로 존재한다. 미장사회의 사람들은 위로는 조나오리부터 아래로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아큐를 진정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장난감처럼 마음대로 집적이고 회롱했으며, 도구처럼 마음대로 이용하고 부렸다. 사람들은 결코 아큐를 피와 살을 지닌 인간, 영혼을 지닌 인간으로 존중하고 공감하지 않았으며, 아큐 또한 다른 사람에게 공감할 수 없었다. 그는 읍내에서 혁명당을 죽이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의 재난이 즐거운듯 “야, 멋있지. 혁명당을 죽이는데 말이

야. 아, 멋져 멋지고 말고……”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 서로 통하지 않는 사회현실이다. 이런 사회와 인성의 발전은 침예하게 대립된다. 아큐는 자아의식도 결핍되어 죽음이 임박해서야 목숨이 생각난 듯 “사람 살려”라고 소리친다. 아큐는 결코 아큐 자신에게 속하지 않았다. 그가 지킨 것은 바로 조나오리가 지키고자 한 것이고, 그가 배척한 것은 바로 조나오리가 배척한 것이다. 이런 까닭에 아큐는 이미 인간으로서의 본질을 상실하고, ‘갓가지 복잡하게 얽힌 상황 아래 놓여진 자유의지를 상실한 물건’이 되었다. 그는 마치 커다란 돌 아래 깔린 작은 풀마냥 왜곡되고 변형되었다. 자신을 지키려는 아큐의 본능은 맹목적 자기존중, 자기자랑으로 변했고, 아큐의 반항의식은 약자에 대한 기만과 능멸, 자기비하, 자기모욕으로 변했다. 아큐의 인성은 미장사회에 의해 철저하게 소외되었다. 이 또한 일종의 세계황당성의 표현이다.

마지막으로 아큐와 조나오리의 관계에서 우리는 또 현상과 본질의 분열을 발견할 수 있다. 아큐와 조나오리는 두 개의 서로 적대적 계급에 속하므로, 그들은 절대적으로 대립하는 것 같다. 이런 대립은 물론 계급적 본질의 대립이다. 하지만 철학의 높이에서 본다면, 우리는 그들 사이의 재미있는 동일성도 발견할 수 있다. 즉, 조나오리를 뒤집으면 아큐이고, 아큐를 뒤집으면 조나오리다. 조나오리가 실패하면 아큐이고, 아큐가 성공하면 조나오리다. 환상 속의 혁명이 성공한 후의 아큐는 영락없는 조나오리고, 혁명의 고양기에 놓인 조나오리는 아큐와 유사하다. 이런 까닭에 조나오리는 성공하여 통치지위에 있는 아큐요, 아큐는 실패하여 피통치 지위로 떨어진 조나오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소설 속에서 충분히 드러나 있는데, 영화로 개편한 《아큐정전》은 이 점을 부각시켰다. 아큐와 조나오리의 이런 재미있는 동일성은 계급사회의 더욱 심각한 본질이다. 아큐와 조나오리의 대립은 계급적 본질의 표현이지만, 더욱 깊은 층차에서 본다면 이런 계급적 대립은 더욱 심각한 본질을 표현하는 현상이 된다. 계급사회에서는 결국 본질과 현상은 분열적인 것인데, 이것은 사회적 병태의 반영이다. 아울러 사람들의 인식능력이 계급의 공리에 간혀 있으므로, 사물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은 철학적 본질로까지 심화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다. 사람들 속에서 정상과 이상, 진리와 오류, 건전과 병태가 늘 서로 뒤바뀐다. 아큐가 생활의 압박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것은 수치스럽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반하여, 조나오리들이 교묘하게 빼앗는 것은 사실 더욱 큰 도적질이지만 신성하고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아큐가

후손을 위해 과부에게 구애하는 것은 예교를 짓밟는 것으로 인식되지만, 조나오리들이 처첩을 들이는 것은 정당한 도리로 간주된다. 이런 이상한 현상들 또한 세계황당성의 다른 표현이다.

이상의 서술을 종합하면 아큐의 성격적 내포는 정신과 물질, 감성과 이성, 생존과 환경, 인성과 사회 그리고 현상과 본질의 분열이란 이 세계황당성의 특징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노신은 중국민족의 열악한 국민성의 추악한 면모를 정확하게 그려냄과 동시에 그것의 필연성을 깊이 있게 드러내고, 아큐란 이 황당한 성격의 배후에 있는 병태적 사회의 배일을 벗겨냈다. 이것은 《아큐정전》의 심각한 사상성의 최고표현이다. 작가는 한편으로 자신이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는 삶의 골계성을 생동적으로 표현했으며, 다른 한편으로 인성에 배치되는 존재로서의 기형적 사회의 본질적 특징을 밝혀냈다. 이로써 혼수상태에 빠져있는 국민이 깨어나 자아를 인식하고, 분발하여 사회환경을 개조하며, 인류의 진정한 해방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도록 만들었다.

인류의 전사시대에 세계황당성은 각국의 사회생활 속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두드러진 특징이다. 이런 까닭에 아큐 성격의 이 철학적 내용이 각국 독자의 공명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이 《아큐정전》을 읽고 감상할 때, 아큐 성격의 이런 철학적 내용은 심미적 주의의 중심으로 변하고, 아큐 성격 속의 계급적, 시대적 그리고 민족적 내포는 심미적 지각 속에서 일시적으로 억제되어, 아큐의 성격은 세계황당성의 상징으로 개조된다. 이리하여 각국의 독자는 자신의 경험세계 속의 세계황당성에 관한 갖가지 표현형태에 대한 연상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바로 문예감상 과정에서 얻어진 아큐 성격의 세번째 기능적 본질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아큐 성격의 세가지 기능적 본질을 분석했다. 그것들은 아큐의 성격으로 하여금 계급, 시대 그리고 민족의 한계를 뛰어넘는 보편성을 지니도록 만들었다. 이와 동시에 아큐의 성격은 특정한 계급, 시대 그리고 민족의 성격이지 무슨 초계급적, 초시대적, 초민족적 전인류의 전형이 아니다. 이것은 모순적 현상처럼 보이지만, 역사적 변증운동의 필연이다. 이것은 아큐란 전형이 정지되고 고정된 폐쇄체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문예감상 속에서 거기에 그 자신의 속성과 기능을 뛰어넘는 의미를 부여한다. 아큐 성격의 자연적 본질이란 이 충차를 가지고 말한다면, 그것은 특정한 계급, 시대 그리고 민족의 현상이다. 하지만 아큐 성격의 기능적 본질이란 이 충차를 가지고 말한다면, 그것은 또 초계급적, 초시대적, 초민

족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우수한 예술전형은 내포의 풍부성과 심각성으로 인하여 거대한 개괄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런 까닭에 한결같이 이런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 예술전형의 기능적 본질은 심미적 실천의 능동적 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는 새로운 본질인데, 그것은 전형의 자연적 본질과 연계도 지니고 있고, 차이도 지니고 있다. 그것의 산생은 심미심리학적 근거를 지니고 있는데, 그 원리는 이렇다. 심미대상의 두드러진 특징은 심미주체 지각의 선택적 작용을 거쳐 대뇌피질에서 '우세흥분중심 優勢興奮中心'을 형성하고, 심미대상의 다른 내포는 심미지각 속에서 일시적으로 억제된다. 연상-상상의 심리적 기제의 작용을 거쳐 심미대상의 두드러진 특징은 갖가지 다른 상징물이 된다. 이리하여 심미대상은 그 자신을 뛰어넘는 본질을 지니게 된다. 이것은 심미재창조의 결과이며, 문예감상이란 이 사회적이고 특수한 정신생산의 실천적 산물이다. 만일 심미심리학의 각도에서 이치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면, 아큐 성격의 갖가지 복잡한 현상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다.

4

아큐 성격의 자연적 본질과 기능적 본질을 분석했으면, 이제 아큐 성격의 본질을 전면적으로 인식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아큐 성격의 복잡성은 결코 이에 그치지 않는다. 인간은 모든 사회관계의 총화이고, 진정한 예술전형 또한 모든 사회관계 속에 존재하므로 하나의 사회의 축도이다. 그 자체가 하나의 세계이지 결코 어떤 단일한 사회생활 내용(예를 들어 계급관계, 계급투쟁 등)의 도해가 아니다. 이런 까닭에 아큐성격의 복잡한 본질을 전면적으로 서술하려면, 반드시 아큐의 성격을 사회라는 이 체계 속에 놓고,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갖가지 사회 정신문화 체계 속에서의 그것의 상이한 체계적 본질 系統質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갖가지 서로 다른 각도에서 아큐를 관찰하여, 아큐의 성격에 대해 철학적, 정치적, 사회학적, 윤리학적, 역사적, 심리적 분석 등을 함으로써 그것의 갖가지 사회적 성질을 드러낼 수 있다.

그렇다면 아큐성격의 체계적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이런 측면의 탐구의 실마리로 삼고자 한다.

먼저, 사회학의 각도를 가지고 볼 때, 아큐는 농촌의 떠돌이 고농의 초상이다. 그는 농토도 없고, 고정자산이라곤 털끝만치도 없는 완전한 무산자이다. 그는 가정도 없이 주로 토곡사 土穀祠에 얽혀 사는 신세이므로, 일정한 거처도 없고 가난하고 고통스럽게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는 일정한 직업은 없지만, 많은 시간을 농촌에서 생활하고, 그때그때 하는 일도 주로 농사일이다. 따라서 그는 농촌의 떠돌이 고농이며, 도시의 떠돌이나 공업무산자와 다를 뿐 아니라, 일반 농민과도 같지 않다. 그는 노동자계급과 농민계급의 밖으로 떨어져나간 특수한 계층이다. 이것이 아큐의 성격을 빚어내는 사회학적 기초이다.

다음, 정치의 각도를 가지고 볼 때, 아큐의 성격은 전제주의의 산물이다. 봉건통치계급은 그 반동적 통치를 유지하기 위해 공맹 孔孟의 유학을 이용하여 일련의 교묘한 통치술을 만들어냈다. 노신은 《춘말한담 春末閑談》에서 이렇게 말했다. “권세에 복종하게 하려면 살려 두어서는 안되고, 호사스런 음식을 바치게 하려면 죽여서는 안된다. 다스림을 받게 하려면 살려 두어서는 안되고, 다스리는 자를 먹여 살리게 하려면 또 죽여서는 안된다.” 아큐는 바로 봉건통치계급의 노예화교육이란 ‘독침’을 맞고 것처럼 어리석고, 마비되고, 우스꽝스러운 죽지도 살지도 않은 노역의 도구가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봉건전제주의의 치적이다. 그러므로 봉건전제주의는 아큐의 성격이 탄생한 정치적 기초이다.

셋째, 심리학의 각도를 가지고 볼 때, 아큐의 성격은 가벼운 정신질환자의 초상이다. 심리학은 인격이 분열된 환자들이 흔히 객관환경을 무시하고, 내면적 환상을 빌어 그 적대감과 공격욕을 해소한다고 여긴다. 환자가 감히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환상 속의 헛된 능력과 승리감을 빌어 보상과 자기위안으로 삼는다. 이로써 아큐의 정신승리법은 심리학의 각도에서 볼 때, 바로 분열된 인격의 표현이고, 아큐의 행위는 일종의 병태적 반응, 즉 부인기제와 환상기제임을 알 수 있다. 아큐의 정신상태는 잠재의식의 방어기제이다. 강극림 康克林的 《변태심리학》에 이렇게 적혀있다.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상상적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위대하다는 망상증에 사로잡힌다. 이것을 바로 보상작용이라고 한다.” 아큐의 과대망상증은 바로 이런 망상증이다. 예컨대 아큐의 많은 사상행위방식, 아큐의 갖가지 성격적 특징은 모두 변태심리학 속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심리적 변태는 아큐의 성격이 탄생한 심리학적 기초이다.

넷째, 사상사의 각도를 가지고 볼 때, 아큐의 성격은 장자 莊子철학의 터전이다.

장자철학의 '육망 有待→무아 無己→무욕 無待'이란 체계의 한 가지 뚜렷한 특징은 소극적으로 세상을 도피하고, 초감성적, 환상적, 절대적 정신적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다. 소위 '무아'란 바로 자기가 있고, 외계가 있다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인데, 불교에서 말하는 '아집', '법집'을 깨뜨리라는 것과 같다. 즉, 환상 속에서 물아物我의 대립을 해소하고, 자신의 머리 속에서 물아, 피차, 시비, 이해, 생사를 동일시함으로써 모든 것이 자아의 환각세계 속에서 일체가 된다. 마치 타조처럼 머리를 처박고 눈을 감은 채 환상의 세계 속에서 절대적 자유를 실현하고, 정신적 승리와 만족을 추구한다. 아큐의 정신승리법은 장자철학의 인식론과 방법론의 특징을 아주 잘 표현했다. 장자철학은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사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고, 현실에 만족하고 고통을 감수하도록 만든다. 또 한편으로 어찌할 수 없는 운명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한편으로 내면적으로 초탈하도록 만든다. 이런 처세철학은 모두 아큐의 몸에 실현되었다. 아큐는 최후에 정신승리법을 이용해 죽음의 공포를 이겨냈으니, 장자의 소위 '진인 真人'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아큐의 세계관, 인생관에는 유구한 철학사상적 기초가 있으므로, 고대의 철학사상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장자철학을 첫손가락에 꼽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근대사의 각도를 가지고 볼 때, 아큐의 성격은 신해혁명의 거울이다. 《아큐정전》의 이야기 배경이 신해혁명 전후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아큐의 성격 자체 또한 신해혁명과 내재적 연계를 지니고 있다. 한편으로 아큐의 성격은 신해혁명전 봉건전제제도가 막 끝나갈 무렵의 사회의 정신적 특징을 반영했는데, 신해혁명의 역사적 필연성을 측면에서 반영했다. 또 한편으로 아큐 성격의 발전 또한 신해혁명의 국한성과 실패의 교훈을 반영했다. 이런 까닭에 《아큐정전》은 신해혁명의 역사를 정면에서 직접적으로 묘사하지는 않았지만, 신해혁명사의 연구를 위해 생생한 감성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여섯째, 철학의 각도를 가지고 볼 때, 아큐의 성격은 소외의 전형이다. 《아큐정전》은 기막힌 한 폭의 소외도로서 풍부한 소외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큐의 성격은 인성 소외의 전형이며, 그것은 소외이론을 위해 생생한 예증을 제공한다. 우리는 소외에 관한 마르크스의 이론을 이용하여 아큐 성격의 철학적 근원을 분석할 수 있다.

요컨대 아큐 성격의 체계적 본질은 대단히 풍부하고 복잡하며, 위에서 열거한 것은 그 가운데 몇 가지일 뿐이다. 아큐 성격의 체계질에 대해 반드시 서로 다른 체계

의 전문이론, 지식 그리고 방법을 운용하여 분석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 실례로서 간단하게 언급했을 뿐 상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이것은 여러 분과 학문 영역의 전문연구자의 연구과제이므로, 결코 문학연구자 홀로 감당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의 위대한 예술전형을 전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각도에서 관찰할 수 있고, 서로 대체하거나 배척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반드시 각 분과 학문의 결합이 있어야 하고, 대규모의 종합이 있어야 한다.

이상에서 우리는 세 가지 측면에서 아큐 성격의 본질적 의미를 밝혀냈다. 자연적 본질은 아큐 성격 자체의 고유한 기본성질에 대한 규정이고, 기능적 본질은 서로 다른 시공적 조건하의 아큐 성격의 전형적 의미에 대한 역사적 규정이며, 체계적 본질은 아큐의 성격이 사회라는 대 체계 속에서 만들어내는 갖가지 사회성에 대한 종합적 규정이다. 그것들은 함께 아큐의 성격에 대한 체계적 인식을 구성한다. 아큐 같은 이런 복잡한 전형성격에 대해서 단선적 인과관계란 논리방법을 가지고 처리하거나, 단순한 판단을 가지고 분명하게 드러낸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반드시 체계적 방법을 운용하여 그것에 대해 대규모로 종합해야 한다. 과거의 논쟁적 의견들이 일리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으며, 모두 아큐 성격에 대한 체계적 인식 속에서 알맞은 위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일면적 타당성만 지니고 있을 뿐이다. 만일 저마다 일단을 고집하여 날카롭게 맞서기만 한다면, 아큐란 전형의 본질을 전면적으로 인식할 수 없을 것이다. 오직 그것들을 하나의 인식체계로 종합할 때라야, 비로소 비교적 실제에 부합되는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 페이지는 여백임〉

한언어문화국제학술회의 紀要¹⁾

하 영 삼* 역

한언어문화국제학술회의가 1993년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중국 산서성 태원시의 晉祠호텔에서 거행되었다. 이번 학술회의는 남개대학 중문과의 向光忠교수가 기획하고 산서성교육대학의 후원을 얻어 개최된 한자와 중국문화를 토론 대상으로 한 최초의 대규모 국제학술회의였다. 이 회의에는 중국을 비롯해서 대만·홍콩·미국·일본·한국 등 각지를 대표하여 50여명의 학자들이 참석하였으며, 개최직전 급작스런 개인 사정으로 참가하지 못하게 된 몇몇 학자들은 대독할 수 있도록 자신의 논문들을 부쳐오는 열의를 보이기도 하였다.

向光忠교수가 대회의 개막식을 주재하였고, 북경대학의 唐作藩교수의 개막사를 대독했다. 이어 산서성교육대학의 陳茂林학장의 환영사가 있었으며 산서성교육위원회의 楊樹國부주임, 대만사범대학의 陳新雄교수, 미국 미네소타대학의 劉君若교수, 중국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의 邵榮芬교수, 산서대학의 于靖嘉교수들의 발언이 있었다. 이 발언에서 국내외 모든 학자들은 언어와 문화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언어라는 것은 문화를 담고 전파하는 도구인 동시에 그 자체가 문화의 중요한 또 하나의 구성성분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래서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문화를 탐색하고 문화학적인 관점에서 언어를 연구하는 것이 일찍부터 국내외 학자들의 관심대상이 되었으며, 오늘날 학술연구에 있어서의 중요한 과제가 되기에 이르렀다. 중국민족은 5천년에 이르는 기나긴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한자라는 것은 현세계에 현존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문자로서 한자로 인하여 오래된 중국문화는 계승 발전될 수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번과 같은 “한언어문화”를 토론 주제로 삼은 학술회의는

1) 이 글은 북경국제관계대학 중문과에 재직하고 있는 李蓬勃교수가 보내온 지난 여름 중국 산서성 태원에서 개최되었던 한언어문화국제학술회의의 紀要이다.

* 동의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전임강사

한자학 학계에 있어서 언어문자적인 각도로부터 중국문화를 탐색하도록 하는데 일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유구한 전통문화의 실체를 파헤치고 한언어문화를 발양시키는데 공헌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어라는 것은 이미 국제성을 띤 언어가 되었으며 한어의 기록부호체계인 한자는 오늘날까지도 전체 중국(대만·홍콩·마카오 등을 포함)을 비롯해서 일본과 한국·싱가폴 및 기타 국가들의 화교거주지역에서도 부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문자이다. 공통의 문자부호를 사용한다는 것은 공통되는 문화적 특색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자의 사용으로 인해 이들은 하나의 “한자문화권”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바로 하나의 국제성을 띤 학술편역인 한자와 중국문화의 연구에 있어서 국내외 학자들이 함께 모여앉아 한언어문자의 역사와 현상 그리고 미래를 토론했다는 것은 앞으로 심원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황하강 중류에 위치한 쓰촨지방의 역사적 무대인 산서성은 중국민족의 발원지 중의 하나로 이러한 역사적인 장소에서 이렇게 성대한 회의를 개최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특수한 의미를 지니며, 회의의 개최장소인 쑤양호텔은 더더욱 문화적인 색채와 역사감을 더해 주었다. 대만사범대학의 陳新雄교수는 개회식 석상에서 즉흥시를 지어 “우리 중화문화 5천년, 온갖 풍상 겪었으되 아직 우뚝 솟아있네. 우리들 쑤양에 함께 모인 후, 향후 새로운 연구 서로 있길 바라네(吾華文化五千年, 歷盡滄桑屹然. 我輩 쑤양相會後, 還期他日發新研).”라고 했으며, 홍콩중문대학의 黃坤堯교수 역시 폐막식 석상에서 시 한 수를 지어 “초목과 안개 가을비에 어우러지고, 쑤양[산서성 태원의 옛이름--역주]의 화원엔 만물의 정화 그윽하네. 태원의 학술토론장 인재로 가득하고, 중화의 풍류들 질펀하게 흐르고 있네(草樹烟光一雨秋, 晉陽花園物華幽. 太原論學人才盛, 華夏風流汗漫遊).”라고 읊어 이 회의를 감회했다. 회의에 참가했던 학자들 중에는 이미 일흔을 넘긴 노교수가 있었는데도 이젠 스물둘을 갓넘긴 젊은 학자들도 있었지만 경력이 화려하고 연구업적이 풍부한 중년학자들도 많이 참가함으로써, 한언어문화연구가 연배를 초월해 대대로 이어지고 계승하는 이가 계속해서 존재할 것임을 증명해 주기도 했다.

회의 시간은 비록 짧았지만 내용은 매우 풍성했다고 할 수 있었다. 일정은 매일 아침부터 저녁시간까지 뽁뽁하게 채워졌으며, 참가학자들은 각각 전체회의와 분조토론에서 자신의 연구성과물을 발표했으며, 각자의 특기에 근거해 중국의 언어와 문자분야의 각 전문적 주제들에 대해 열열한 토론을 하기도 했다. 특히

陳新雄교수는 서로 다른 학파일지라도[章太炎·黃侃학파와 王力학파 간의 견해 차이를 말한다--역주] 상호 장점을 인정하여 자파의 단점을 보충하도록 해야할 것이라는 일침을 놓음과 함께 한언어문화 연구에 있어서의 자신의 풍부한 경험담을 소개함으로써 참가 학자들의 많은 관심을 사기도 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모두 43편의 논문이 채택되었으며, 매우 광범위한 내용과 각기 서로 다른 각도에서 한언어문화에 관련된 각종 문제들을 탐색했었다는 특징이 지적될 수 있다. 발표된 논문들 중 중요한 논문들을 개략하자면, 먼저 음운학 방면에 관한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논문들이 있었다.

(1) 陳新雄(대만사범대학)교수의 『黃侃的古音學』: 현대 국학의 대사라고 일컬어지는 黃侃의 고음학 이론에 대해 전면적으로 논술하면서 그의 학문의 근원을 탐구하고 타파의 이론과 종횡으로 비교함으로써 한 학파에만 얽매이지 않는 견해를 보여주었다.

(2) 王顯(중국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교수의 『陸序“開皇初”爲九年四月十五日前後說的補充』: 『切韻』의 편찬연대문제 연구에 대해 하나의 새로운 논거를 제공해주었으며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제시했다.

(3) 邵榮芬(중국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교수의 『『集韻』的聲母系統』: 내용이 상세하면서도 실제적이며 고증이 매우 세밀했다. 이전 학자들의 『절운』음계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의 결점을 분석하고 “반절비교법”에 근거해 “繫聯法”의 부족한 점을 보충했으며, 『절운』의 성모체계를 전면적으로 귀납하고 정리해 내었다.

(4) 蕭泰芳(산서대학)교수의 『生父稱謂字釋解』: 고음의 역사적 변화에 근거해 父·爸·爹··爺·打 등 6자의 음과 뜻의 관계를 분석했다.

다음으로, 방언에 관계된 논문으로는 陳慶延(산서성교육대학)교수의 『山西方言歷史外來成分與三晉文化』가 발표되었으며, 어휘와 훈고에 관한 논문으로는 다음과 같은 논문들에 있었다.

(1) 竺家寧(대만中正대학)교수의 『古漢語詞義變遷中的義位填補現象』: 현대 의미론과 그 방법론에 근거해 고대한어어휘의 의미변천 문제를 분석한 논문으로 개척적인 의미를 지닌다.

(2) 胡瑞昌(중국인민대학)교수의 『語言中的借詞是社會接觸與文化交流的產物』: 언어 내의 차용어휘로부터 문화적인 접촉과 상호영향관계를 토론한 논문이다.

(3) 王小華(華南사범대학)교수의 『從『顏氏家訓』看魏晉文化與漢語詞匯的關係』:

구체적인 한 문헌 속에 존재하는 어휘와 한 시대의 문화를 서로 대비함으로써 이들 둘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탐색했다.

이밖에 이번에 채택된 논문들 중에서 한자와 중국문화에 관한 논문이 많은 분량을 차지했는데, 그 대부분은 한자의 독특한 성질과 한자가 중국문화의 구성과 전승과정 속에서 가지는 특수한 지위와 기능에 관련된 논문들이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논문들이 있다.

(1) 向光忠(남개대학)교수의 『古文字與古文明』: 고문자의 형체 구성과 고대문명사를 결합하여 그 둘 간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 논술했다.

(2) 陳謙臣(일본龍谷대학)교수의 『漢字與日本文字』: (1)일본이 왜 한자를 폐기하지 못하게 되었는가? (2)원언어와 한자를 사용하여 표현전달한 일본원언어의 한자문장 간의 관계, (3)단지 한자만을 사용했을 때 개방시대에 있어서의 언어표현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가? 라는 등의 세 가지 문제에 대해 논술했다.

(3) 陳志誠(홍콩城市理工대학)교수의 『談兩個中日漢字所反映的文化意識』: 한자의 “大”자와 일본한자에서의 “𡗗”자를 예로 삼아 한자가 어떻게 문자로부터 문화의식을 전달하고 문화정신을 반영하는가에 대해 논술했다.

(4) 黃坤堯(홍콩중문대학)교수의 『『釋文』“識”字音義辨析』: 『經典釋文』에서의 “識”자의 주음을 네 가지 독음으로 나누어 이들에 대해 상세한 고석을 했다.

(5) 河永三(한국동의대학)교수의 『漢代石刻異體字產生原因攷』: 한대 석각문자에 나타난 이체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내적, 외적 발생원인을 여러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전면적으로 고찰을 했다.

이밖에도 陳敏正(대만컴퓨터기술기금회)교수의 『自中文電腦探索中文的世紀』, 劉君若(미국미네소타대학)교수의 『淺談華嚴字母』, 王寧(북경사범대학)교수의 『現代漢字構形論』, 鄒曉麗(북경사범대학)교수의 『從文化學角度看漢字的史料價值』, 李玲璞(화동사범대학)교수의 『漢字文化學系統簡論』 등이 있었다.

기타 방면에 관한 것으로는 王海芬(중국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교수의 『古漢語記時方式及其中的文化現象』, 張書宥(국가언어문자공작위원회)교수의 『改姓問題研究』, 喬金生(산서대학)교수의 『山西人名的文化思考』, 陳茂林·李可風(산서성교육대학)교수의 『漢字書法藝術的過去, 現在和未來』 등이 있었다.

며칠 간의 긴장된 토론을 거쳐 회의는 예정된 일정대로 원만하게 마칠 수 있었다. 폐막식 석상에서 竺家寧·陳謙臣·陳新雄·劉君若·黃坤堯·陳志誠·陳敏

正·李思敬 등 국내외 학자들은 논평을 통하여 이번 학술회의가 성공리에 끝났음은 물론 회의의 준비와 회원들의 토론과 질의, 주최측의 준비상황 등 모두 훌륭했다고 칭찬했다. 그리고 참석자들 모두 이번 회의는 하나의 좋은 시발이자 첫번째이기 때문에, 다음에도 2차, 3차 …… 회의 등을 중국에서, 홍콩에서, 대만에서, 또 다른 국가에서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개최하자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마지막으로 산서성교육대학의 陳茂林학장이 송별사를 함으로써 참가학자들과 주최한 주인으로서의 식별의 정을 나누었다. 向光忠교수의 폐막사에서는 이번 회의에서의 총체적인 평가가 보고되기도 했다.

이번 회의를 통하여 국내외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임으로써 학술적 관계를 강화할 수 있었으며, 학술적 우의를 증진시키고 학술적 교류의 물꼬를 터 놓았으며 학술적 발전을 진작시키고 학술적 성과물들을 함께 어우름으로써 향후 한언어문화의 연구와 전파, 계승, 발양 등에 있어서 장족의 발전을 이루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곧 출판될 논문집은 앞으로 중국언어학과 문화학에 있어서 역사적인 한 족적을 남기게 될 것이다.

彙 報

- 金政六(慶南大) : 1993.12. 慶南大 文科大學 學長으로 피선됨.
- 柳應九(慶尙大) : 1993.3.1-8.31 武漢 華中工科大學에서 강의와 연구활동을 함.
- 鄭憲哲(慶尙大) : 1993.7.28. 《唐五代詞研究》로 國立臺灣大學에서 박사학위 취득.
- 權鎬鍾(慶尙大) : 1994.2월 중 臺灣師範大學에서 1년간 연구차 출국 예정.
- 李根孝(慶星大) : 1993년 國費 海外派遣教授로 天津師範大學에서 1년간 研究活動을 함.
- 吳慶第(慶星大) : * 安息年(1993년)을 맞이하여 1년간 美國에서 研究活動을 함.
- 柳瑩杓(慶星大) : 1993.12. 두달 예정으로 본교 증문과 학생 北京 語學研修團 인솔.
- 姜寔鎭(釜山大) : 1994년 1월 중 中韓大辭典(進明出版社) 출판 예정.
- 高八美(東義大) : 1993.8.1-8.21 자료 수집차 北京·上海 방문.
- 金泰寬(東義大) : 1993.6.27-8.25 하기 어학연수단 인솔 上海 復旦大學 방문.
- 金寅浩(東義大) : 1993.2.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楚辭의 巫歌性 研究」라는 제목으로 박사학위 취득.
- 河永三(東義大) : * 1993. 8.19-25 中國 산서성 太原에서 개최된 “한어언문화국제학술대회”에 참가, 「漢代石刻異體字產生原因攷」라는 제목으로 논문 발표.
- * 1993.6. 《夢의 迷信與夢의 探索》(劉文英, 사회과학출판사)을 《꿈의 철학》으로 동문선출판사에서 공역 출간.
- 高英根(釜山外大) : 1993.6. 溫元凱의 《중국 전통문화 잠재구조의 개조——溫元凱의 개혁론》을 《중국인의 의식구조 개조》(學術振興財團翻譯叢書 169: 교보문고)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간.

釜山·慶南中國語文學會 會員 住所錄

慶南大學校 文科大學 中語中文學科

慶南 馬山市 月影洞 449 Tel: (0551) 49-2140(직통)

김정옥	경남 마산시 자산동 301-27	(택)46-2214, (학)49-2925
강명상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APT 25동 805	(택)545-6008, (학)545-3982
이재승	창원시 반림동 현대 APT 206동 1205호	(택)89-9602, (학)49-2144
이철리	경남 마산시 자산동 329-1 한우APT 1동 110호	(택)42-5175, (학)49-2143
최호석	부산시 북구 화명동 화명 주공APT 41동 103호	(택)331-9832
윤석례	경남 진주시 신암동 한주파크 1동 1102호	(택)746-3029
김성문	경남 마산시 합포구 자산동 대림공작 1차APT 105호	(택)43-2817
최경진	서울시 관악구 신림 4동 501-4	(택)865-8959
장남희	광주시 서구 봉선동 모아 APT 103동 1302호	(택)673-6884
심보영	경남 창원군 북면 감계리 1095번지	(택)98-6199
심혜영	창원시 신월동 93 은아아파트 114-501호	(택)62-7279
왕육지	경남 진해시 여좌1가 41-16번지 6통 3반	(택)41-0361
정우열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132-12	(택)56-4894
장성미	부산시 남구 남천 1동 69-6 로얄 오피스텔 503	(택)627-7143
박안수	경남 창원시 가음정동 무궁화 APT 508호	(택)87-6793
손영실	경남 김해시 대성동 흥익 타운 3/305	(택)33-0162
김희경	주소 이전	(택)23-0780
하귀순	경남대 중문과 조교	

慶南專門大學 中國語科

부산시 북구 주례2동 167 TEL: (051) 324-5555, 6666(교환)

김영재	부산시 북구 모라동 1357 우성APT 8동 101호	(택)327 6649, (학)327-6649
이기연	부산시 북구 주례3동 럭키APT 3동 602호	(택)326-6649, (학)324-5555
임수암	부산시 북구 구포1동 백양APT 410호	(택)336-7481, (학)324-5555
방영인	창원시 사파동 삼익APT 108동 310호	(택)(0551)87-8449, (학)324-5555

최성경 부산시 동래구 거제1동 부원맨션 B동 209호 (택)863-8804, (학)324-5555
 최호석 부산시 북구 화명동 주공APT 41-103 (택)331-9832
 이용성 부산시 남구 남천동 148번지 비취APT 203-308 (택)622-7052
 심보영 경남 창원군 북면 감계리 1095번지 (택)(0551)98-6199
 손해숙 경남전문대 중어과 조교

慶尙大學校 人文大學 中語中文學科

경남 진주시 가좌동 900 TEL: (0591)54-8331(교환), 751-5892(학과사무실)

류용구 진주시 상평서동 219-91 축석APT 라동 503호 (택)52-5449, (교)751-5893
 강신웅 진주시 평거동 한보APT 201동 1404호 (택)747-3557, (학)751-5894
 정현철 진주시 신안동 33-16 한주파크맨션 1동 1102호(택)746-3029, (학)751-5895
 박추현 진주시 주약동 한주럭키APT 3동 1205 (택)758-4579, (학)75105897
 권호종 진주시 신안동 현대APT 105동 1304호 (택)746-2414, (학)751-5896
 원극민 진주시 상평서동 축석APT 라동 606호 (택)55-2784, (학)751-5898
 김덕환 진주시 상평서동 1092-6 (박사과정) (택)43-8986

慶星大學校 文科大學 中語中文學科

부산시 남구 대연동 110-1 TEL: (051)620-4260~4064(직통)

이근효 부산시 남구 광안3동 1031-29(16/2) (택)754-0623, (학)620-4262
 오경제 부산시 남구 남천 삼익비치 103동 1008 (택)628-7747, (학)620-4261
 이재하 부산시 동래구 연산9동 토곡 주공 123-1513 (택)753-7472, (학)620-4264
 류영표 부산시 대연5동 281-5 동남APT 309호 (택)625-2448, (학)620-4260
 오창화 부산시 해운대구 우2동 삼호가든APT 6동 203호 (택)72-7968, (학)620-4263
 초화숙 부산시 진구 초읍동 313-9 (택)807-3686, (학)467-0275
 이철수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3동 756-131 11/1 (택)532-6742, (학)631-4667
 이미경 부산시 남구 광안1동 1046 대륙빌라 302호 (택)757-2180
 정우열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132-12 (택)56-4894
 장성미 부산시 남구 남천 1동 69-6 로얄 오피스텔 503호 (택)627-7143

류지현	부산시 남구 광안1동 1046-4(30/1)	(택)756-2032
강병철	포항시 항구동 주공APT 9-403	(택)(0562)41-2022
정 원	부산시 남구 광안4동 1257 오양 평구맨션 3동 102호	(택)751-2480
이은경	부산시 진구 개금2동 주공APT 3-311	(택)895-0845
박수경	울산시 남구 장생포동 95번지 (2/3)	(택)(0522)61-7036
박순심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2가 153-4(21/3) 동신APT 402	(택)254-5734
김희정	부산시 동래구 수안동 33-6(50/2)	(택)555-3129
	경성대 중문과 조교	
표장민	김해시 봉황동 6-2	(택)(0525)32-2120
이 현	부산시 금정구 장전3동 651-4(18/5)	(택)56-1221

東亞大學校 人文大學 中語中文學科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 840 TEL: (051)200-7005(과사무실)

김용운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2가 영산APT 2동 205호	(택)247-7463, (학)200-7129
김종현	부산시 북구 만덕 럭키APT 10동 1103호	(택)337-6328, (학)200-7131
신홍철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남아빌라 1동 208호	(택)263-2164, (학)200-7130
임효섭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2가 영산APT 1동 605호	(택)245-0145, (학)200-7132
馮乃廉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2가 영산APT 2동 205호	(택)242-3226, (학)200-7133
김언하	부산시 남구 대연2동 1222-251(21/4)	(택)643-9311
한중호	부산시 북구 덕포2동 산30-1 신익타운 3-707	(택)640-3020
	동아대 중문과 조교	

東義大學校 人文大學 中語中文學科

부산시 진구 가야동 산24 TEL: 892-1500(교환)

고팔미	부산시 남구 용호동 동일타운 1-1405	(택)626-7383, (학)890-1147
김인호	부산시 북구 만덕3동 럭키APT 201동 907호	(택)341-0660, (학)890-1149
김태관	부산시 진구 부암1동 미주APT 1동 511호	(택)806-5439, (학)890-1148
하영삼	부산시 진구 연지동 로얄맨션 1동 206호	(택)807-6738, (학)890-1150
정 원	부산시 남구 광안4동 1257 오양 평구맨션 3동 102호	(택)751-2480

정우열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132-12

(택)56-4894

釜山大學校 人文大學 中語中文學科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산30 TEL: (051)510-1508(직통)

- 강식진 부산시 남구 용호동 522번지 39/1 (택)626-7383, (학)510-2014
- 김세환 금정구 장전2동 502-3 21/2 (학)510-2015
- 서정희 부산시 금정구 구서2동 우성APT 1-602호(택)512-0722, (학)510-2017
- 류명희 부산시 동래구 사직2동 로얄 2차 1-412 (택)503-2652, (학)510-2016
- 김희준 부산시 금정구 부곡2동 현대APT 102동 610호 (택)516-5870, (학)510-2088

- 김언하 부산시 남구 대연2동 1222-251(21/4) (택)643-9311
- 김영기 경남 양산군 웅상읍 덕계리 선우APT 501-703 (택)(0523)81-7988
- 박숙경 부산시 사하구 괴정3동 신괴정 화신APTT 101-1503 (택)291-0324
- 남덕현 현재 북경 사회과학원 체류 중 (택)517-0571
- 박노종 부산시 사하구 괴정4동 698-10번지 25/4 (택)202-5115
- 총미자 부산시 동구 초량동 577번지 부산화교중고등학교 (학)467-0275
- 박경송 현재 북경 체류 중
- 백수진 대구시 수성구 시지동 은세계타운 A-407
- 최낙민 부산진구 전포1동 289-1 15/3 (택)602-5345
부산대 중문과 조교
- 안승웅 부산시 북구 덕천2동 부곡APT 8동 103호 (택)333-5426
- 최주영 경남 거제군 사정면 청곡리 707번지 (택)(0558)32-5663
- 우종현 부산시 동래구 복산동 500-1 우성APT 2동 1002호 (택)555-5315
- 구희경 부산시 동래구 수안동 8-3 제일APT D동 305호 (택)555-3917

釜山外國語大學校 語學部 中國語科

부산시 남구 우암동 55-1 TEL: (051)643-5111(교환)

- 고영근 부산시 남구 광안4동 오양평구APT 3동 102호 (택)751-2480, (학)640-3099
- 왕충의 부산시 해운대구 중2동 주공APT 8-306호 (택)73-2043, (학)640-3100
- 김진영 부산시 남구 대연3동 반도보라APT 5-107 (택)623-7814, (학)640-3101

김남희 부산시 남구 남천2동 진주맨션 2-508호 (택)625-3070, (학)640-3102
 진광호 부산시 해운대구 중2동 주공APT 16-201호 (택)743-6467, (학)640-3103

이용성 부산시 남구 남천동 148번지 19통 8반 비취APT 203-308 (택)622-7052
 왕옥지 경남 진해시 여좌1가 41-16번지 6통 3반 (택)41-0361
 손진희 부산외대 중국어과 조교

聖心外國語專門大學 中國語科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동 249 TEL: (051)523-7180(교환)

이상규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코오롱APT 109동 306호 (택)781-2431, (학)532-9347
 신창호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 일양타운APT A동 106호 (택)525-7382, (학)543-9347
 姜松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3동 257-194 402호 (택)521-8935

이철수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3동 756-131 11/1 (택)532-6742, (학)631-4667
 류지현 부산시 남구 광안1동 상아아트빌라 103-1006 (택)756-2032
 이미경 부산시 남구 광안1동 대륙빌라 302호 (택)757-2180

蔚山大學校 人文大學 中語中文學科

경남 울산시 남구 무거동 산29 TEL: (0522)78-2548(직통)

박경실 경남 울산시 남구 무거동 청구 하이츠 1405호 (택)77-2106, (학)78-2549
 박만규 경남 울산시 남구 무거동 산호APT 17동 302호 (택)77-2473, (학)78-2550
 박삼수 경남 울산시 중구 태화동 20-17 (택)45-4106, (학)78-2551
 이인택 경남 울산시 남구 신정1동 크로바 APT 3동 1203호 (택)69-7606, (학)78-2552

김영문 서울시 성북구 정릉3동 729-1(8/8) (택)(02)917-9265
 노장시 대구시 수성구 범어2동 186-40 (택)(053)72-1823
 장영기 경기도 부천시 중구 원종동 363-8 삼일APT 405호 (택)(032)675-9621

仁濟大學校 文科大學 中語中文學科

경남 김해시 어방동 산18-3 TEL: (0525)34-7111

- 김광조 경남 김해시 어방동 시영APT 1-1401 (택)(0525)37-2145, (학)
이창숙 경남 마산시 합포구 장군동 4가 12-20 (택)(0551)46-1680, (학)(051)463-1341
이석형 경남 김해시 삼방동 한일APT 5-601 (택)(0525)35-2882
이주호 서울시 관악구 신림본동 10-10 신안APT 나동 301호 (택)(02)872-2060
유병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52번지 은아APT A동 1205호 (택)(02)782-1131
- 황영희 경남 진주시 신안동 20 현대APT 105동 1304호 (택)(0591)746-2414
심혜영 경남 창원시 신월동 93 은아APT 114동 501호 (택)(0551)62-7279
강성위 서울시 관악구 신림9동 244-104호 (택)(02)871-3050
최인애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황금APT 161동 501호 (택)(053)813-6895
김현정 인제대 중문과 조교

晉州看護專門大學 觀光中國語通譯科

진주시 상봉서동 1142번지 Tel: (0591)40-1817

- 박부열 진주시 상봉서동 195-14 (택)746-9097
홍광훈 진주시 상봉서동 1142번지 (택)40-1872
- 최성석 진주시 상대동 새진주APT 가동 403호 (택)55-5368
윤석례 진주시 신안동 한주파크맨션 1동 1102호 (택)746-3029
김성문 마산시 합포구 자산동 대림1차APT 105호 (택)43-2817
왕육지 진해시 여좌1가 41-16번지(6/3) (택)41-0361

기타 회원

- 박주방 경주시 동천동 781-2 동대 교직원 APT 108호 (택)0561-41-0579
동국대 경주캠퍼스중어중문학과 (학)0561-770-2145
박재연 충남 천안시 다가동 화인 아트빌라 376-11 B동 301호 (택)0417-551-9435
(성화대 교수)
정옥근 부산시 남구 남천 뉴비치 507동 610호 (택)626-0428

(상해 화동사범대학 박사과정 재학중)

강경구 경주전문대학 중어과 교수

장태진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1동 1010-4

(택)525-3477

김원중 성균관대 중어중문학과 강사

이문혁 세명대 중어중문학과 전임강사

(학)0443-45-1125~9

신입 회원

송인성 서울 관악구 봉천 10동 1513-10호 삼화주택 201호 (택)886-0787

(대만 중국문화대학 중문연구소 박사과정 재학중)

최병규 부산시 사하구 당리동 45-2

(택)29-9112

서울 강동구 가락동 가락APT 4동 509호

(택)400-0422

(대만 국립사범대학 국문연구소 박사과정 재학중)

양승덕 충북 청주시 우암동 343-7호 16/1

대만 대북시 11716 興隆路 3段 207巷 18弄 12號 4F

(대만 東吳대학 중문연구소 박사과정 재학중)

(이상 교명 가나다순)



中國語文論集 <第八輯>

1993年 12月 20日 印刷
1993年 12月 26日 發行

編輯人 金 政 六
印刷處 白 鯨 社
發行處 釜山・慶南中國語文學會

連絡處: (郵) 608-736
慶南 馬山市 合浦區 月影洞 449
慶南大學校 中語中文學科
Tel: (0551) 49-2140, 2163

